E-Book

지봉유설 2

이수광 저 | 남만성 역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 백과사전. 실학(實學)의 선구자로 불리는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은 '서울 속의 산림(山林)'을 자처했던 당대의 선비이자 명신(名臣)이었다. 《지봉유설》은 저자의 폭넓은 학식과 국제적 견문을 바탕으로 17세기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교양을 집대성한 대저작이다. 민족문화추진회 번역위원을 역임했던 한학자 남만성 선생이 고풍스럽고 유려한 문장으로 옮긴, 국내 유일의 완역본이다.



OLJE CLASSICS

OLJE CLASSICS
72

지봉유설 2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고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 고전이나 문화 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 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 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정 기관,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지봉유설2》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삼성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 캘리그라피연구소 술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번역본을 남겨 주신 고 남만성 님께 감사드리며, 선친의 글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남영태 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 주신 벗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홀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농협은행 301-0100-8607-7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올재 후원하러 가기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 02)720-8278 ⓗ www.olje.or.kr ⓔ oljeclassics@olje.or.kr
@oljeclassics www.facebook.com/olje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한 벗들







차 례

지봉유설2

차 례

지봉유설1

일러두기

1. 이 책은 경인문화사景仁文化社 발행 영인본《지봉유설芝峰類說》을 저본으로 했다.
2. 이 책은 귀중한 고전을 완전한 형태로 계승하려는 성의에서 전문全文을 완역했다.
3. 어려운 어구나 낱말에는 간단한 주해를 붙였다.



올재 후원하러 가기

17. 문장부文章部-4

17-1 당시唐詩-2

두시杜詩에, "부시가 아침에 함께 떨어지다(罘罳朝共落)"라고 한 것이 있다. 아마 전각殿閣의 모서리에 달아놓은 그물을 가리켜서 말한 것일 것이다. 단성식段成式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참새가 들어가지 못하게 처마 끝에 쳐 놓은 그물을 부시罘罳라고 하는 이가 많으나 그것은 잘못이다."《한문기漢文紀》에 "미앙동궐未央東闕에 부시罘罳가 화재를 당했다"라고 했다. 그것이 처마 모서리의 그물이라면 그것만이 홀로 화재를 입고 전우殿宇에 미치지 않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고금주古今註》에 "부시는 울타리(屛)이다. 판자板子를 모아서 만들거나 또는 흙을 쌓아서 만든다. 문궐門闕마다 전사殿舍에는 모두 있다"라고 했다. 그러니 지금의 조장照墻[1]이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두시杜詩에, "천궐상필위天闕象緯[2]逼"이라고 한 글귀가 있다. 그 궐闕이라는 글자를 어떤 이는 개開로 쓰기도 하고 관關으로 쓰는 이도 있다. 그런데 왕형공王荊公이 열閱이란 글자로 고쳤는데, 황산곡黃山谷이 그것이 옳다고 극력 주장했다. 명나라의 양용수楊用脩는 마땅히 규窺라는 글자로 해야 한다고 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두시杜詩에, "황금의 사슬로 장식한 갑옷이 비에 던져져 있고, 녹색으로 깊이 물들인 창이 이끼에 누웠네(雨抛金鎖甲 苔臥綠沈槍)"라고 했다. "녹침창綠沈槍"이라고 한 것은 녹색으로 그 자루를 장식한 창이다.《초학기初學記》에 말하기를,

1 울타리의 일종, 궁성 문궐門闕이나 전사殿舍에 판자를 모아 만들거나 흙을 쌓아 만들어 가린 담.
2 일월日月과 오성五星(오행五行)의 별, 금성 · 목성 · 수성 · 화성 · 토성.

"사람들이 녹침綠沈(짙은 푸른 빛깔)을 죽관竹管에 칠해서 왕희지王羲之에게 주었다"라고 했다. 《후청록侯鯖錄》에는 말하기를, "녹침은 대나무 이름이다. 또 옛날의 활 이름이니, 녹색으로 장식한 것이다"라고 했다.

두시杜詩에, "대나무 뿌리의 어린 순을 보는 사람이 없구나〔竹根稚子無人見〕"라고 한 글귀가 있다. 상고하여 보니, 《냉재야화冷齋夜話》에서는 당唐나라 사람의 〈식순시食筍詩(죽순 먹는 것을 제목으로 한 시)〉에서 말한, "치자稚子가 금붕錦棚 여름에, 나무 사이에 비단으로 시렁처럼 만들고 피서하는 곳을 벗어났다〔稚子脫錦棚〕[3]는 글귀를 인용하여 이 치자는 죽순竹筍이라고 말했다. 한자창韓子蒼은 치자라는 것은 죽순의 이름이다"라고 했다. 어떤 이는, "치자는 어린아이를 가리킨 것이다"라고 하여, 제각기 소견대로 말하고 있어서,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두시杜詩에 "황독은 싹이 없고 산에 눈은 대단하구나〔黃獨無苗山雪盛〕"라고 했다. 《냉재야화》에 말하기를, "황독黃獨은 우괴芋魁(토란 뿌리)의 작은 것이니, 강남江南에서 부르는 이름은 토란土卵이다"라고 했다. 아마 바로 우리나라에서 토란이라는 것인 것 같다. 지금 세상에서는 토련土蓮이라 부르기도 한다.

두시杜詩에, "상피霜皮에 비를 담아 40위圍나 되네〔霜皮溜雨四十圍〕"라고 했다. 심존중沈存中이 말하기를, "40위는 7척 지름이니, 너무 가늘고 길지 않은가"라고 했다. 《설부說郛》[4]를 보니, "사람의 두 손의 대지大指(가운뎃손가락)와 두지頭指(엄지손가락)를 서로 합한 것이 1위가 된다. 1위는 한 작은 자〔尺〕이니 《태산기泰山記》에 '태산묘泰山廟 안에 있는 잣나무는 모두 20위圍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

3 어린 죽순이 금붕보다 높이 올라왔다는 뜻.

4 중국 원말元末 · 명초明初의 도종의陶宗儀가 편찬한 총서叢書. 야사 · 수필 · 경전 · 전기 · 문집 · 소설 등의 진기한 서적 1,000여 종을 초록抄錄하여 편찬한 것이다.

다"라고 하였다.

두시杜詩의 〈자신퇴조紫宸[5]退朝〉에 말하기를, "꽃이 일천 궁전을 덮었으니 좋은 경치 사치스럽구나〔花覆千宮淑景侈〕"라고 했다. 또 "조회에서 물러나와 꽃 밑으로 흩어지고, 원院(관아)에 돌아올 때에는 버드나무 가에서 주저한다〔退朝花底散歸院柳邊迷〕"라고 했다. 이 시로 인해 후인들은 드디어 당나라 조전朝殿 앞에는 꽃과 버들을 심었다고 한다.
내가 생각해 보니, 두보杜甫가 습유拾遺 벼슬에 있을 때에는 봉상鳳翔(당대唐代 및 금대金代의 부府의 이름,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서남쪽 땅)의 행재소行在所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紫宸이라고 말한 것은, 곧 봉상의 행궁行宮을 말한 것이고, 장안長安의 궁궐은 아니다. "조조대명궁早朝大明宮"이라 한 것과 같은 것도 역시 봉상의 행궁을 말한 것이다.

두시杜詩에, "지장知章의 말 탄 꼴이 배 탄 것 같다〔知章騎馬似乘船〕"라는 글귀가 있다. 고사故事를 상고하여 보니, 진晉나라의 완함阮咸이 술에 취하여 말을 탄 것이 기우뚱 기울어져 있으니, 사람들이 가리키고 웃으며 말하기를, "저 늙은이 말 탄 것은, 배를 타고 물결치는 속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했다 한다.
아래 글귀인, "눈의 꽃이 우물에 떨어지고 물속에서 잠잔다〔眼花落井水底眠〕"라고 한 것은, 고사를 상고하여 보니, 진晉나라 왕상王祥이 술에 취하여 견여肩輿에 기댄 채 머리를 들지 않으니, 그의 어버이가 조롱하여 말하기를, "우리 아들의 흐려져 잘 보이지 않는 눈은 우물 바닥만 보고 있으니 몸이 물속에 있어도 술이 또한 깨지 않을 것인가"라고 했다 한다.
이 시에서는 아마 이 일을 인용한 것일 것이다.

두시杜詩에, "강호에는 백조가 많고, 천지에는 창승蒼蠅(쉬파리, 전轉하여 소인小人

5 자신전紫宸殿이니, 당唐나라 때 궁전의 이름.

을 일컬음)이 많다(江湖多白鳥 天地有蒼蠅)"라고 했다. 그 위 글귀인, "먼 공중을 날아 증격矰繳(주살, 실을 매어 새를 쏘는 화살)을 피하려 한다(冥冥欲避矰)"라고 한 것으로 본다면 백조白鳥는 곧 기러기나 백로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런데 주석하는 이가 백조를 문예蚊蚋(모기)라고 한 것은 아마 옳지 않을 것이다.

두시杜詩에, "싸움은 순치脣齒[6]의 관계에 있는 나라에 이어지고, 군사는 우모서에 급하다(戰連脣齒國 軍急羽毛書)"라고 했다. 주에, "급한 일이 있으면 격서檄書에 새 깃(羽)을 꽂으니, 이것을 우격羽檄이라고 한다. 지금 이 시에 모毛라는 글자를 더한 것은 군말이다"라고 했다.

두시杜詩에, "늙은이를 따뜻하게 하는 데는 모름지기 연옥으로 하라(煖老須燕玉)"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고악부》에, "연燕나라와 조趙나라에 고운 여자가 많으니 그중 특히 아름다운 사람은 낯이 옥玉 같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백호통白虎通》에 말하기를, "70세 노인이 눕는 데는 사람의 체온이 아니면 따뜻해지지 않는다. 사방을 다닐 때에는 편안한 수레를 타고 부인婦人과 함께 다니라"라고 했다. 이 시는 아마 이 뜻을 인용한 것일 것이다. 주석하는 이가, 옛날 영왕寧王이 옥배玉杯를 따뜻하게 한 고사를 끌어다 입증한 것은 잘못일 것이다.

노두老杜가 장한림張翰林에게 보낸 시에 말하기를, "하늘 위의 장공자(天上張公子)"라고 한 글귀가 있다. 상고하여 보니, 한漢나라 성제成帝가 항상 장방張放과 함께 미행微行(남몰래 다님)하니 그때의 민요에 말하기를, "장공자는 임금과 무시無時로 서로 만난다(張公子時相見)"라고 했다. 대체로 장게張偈는 바로 연공燕公 장열張說의 아들로서 공주에게 장가들었기 때문에 장방에게 비한 것이다. 만

6 입술과 이처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의 비유.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차가워진다(脣亡齒寒)는 말이 있다.

약 장張씨 아닌 타성他姓이었다면 공자公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두시杜詩에, "벽오에는 봉황이 깃들어서 늙은 가지가 있다〔碧梧棲老鳳凰枝〕"라고 했고, 이백李白의 시에는, "울음 우는 봉황이 청동靑桐에 깃들었다〔鳴鳳棲靑梧〕"라고 했다. 운서韻書를 참고하여 보니 말하였기를, "청동靑桐은 오동과 같으나 열매가 없고 백동白桐은 꽃이 황자색黃紫色이고 거문고나 비파를 만드는 데 적당하다. 정동赬桐(붉은빛 오동)은 여름에 꽃이 피는데 붉기가 불같다. 자동刺桐은 천주泉州에서 생산되는데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뒤에 나온다"라고 했다. 《시경》의 주소註疏에, "의동椅桐은 재칠梓漆(도료塗料인 칠漆의 일종)을 채취하는 동桐이니 백동白桐이라 하고, 오동梧桐은 생동生桐이니 청동靑桐이라 한다"라고 했다.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청동이라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소위 벽오碧梧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두시杜詩에, "몇 해나 봄풀이 다하였던고〔幾年春草歇〕"라고 했다. 몇 번이나 봄풀이 쇠衰해져서 모두 없어지도록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또, "봄풀이 돌아가고자 하는 한을 부풀게 하네〔春草封歸恨〕"라고 하였으니, 또한 같은 뜻이다. 대체로 《초사楚辭》에, "왕손王孫의 노닒이여! 돌아오지 않네. 봄풀만 나서 우거졌구나〔王孫遊兮不歸 春草生兮萋萋〕"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우분于濆의 시에, "눈 가득 보이는 봄풀에 마음 상하네〔極目傷春草〕"라고 하고, 번천樊川(두목杜牧)의 시에, "꽃다운 풀, 어느 해에나 한이 그칠 것인가〔芳草何年恨卽休〕"라고 한 것도 모두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노두老杜의 〈금화산관시金華山觀詩〉에 말하기를, "위에는 울람천이 있다〔上有蔚藍天〕"라고 했다. 주에, "울蔚은 울鬱과 같으니 무울茂蔚한 남藍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금화산에 36동천洞天이 있으니 울람천은 이 동천의 이름이다. 한자창韓子蒼이 그 말을 인용하여, "물의 광채와 산 빛이 모두 울람하다〔水光山色盡蔚

藍)"라고 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두시杜詩에, "화도생식춘풍면畫圖省識春風面"[7]이란 글귀가 있다. 차복원車復元이 일찍이 말하기를, "생省은 잠暫과 같다"라고 했다. 내가 의서醫書를 보니, "생략하여 바꿔 놓을 수 있다"라고 한 말이 있었다. 이 시의 생省이란 글자는 마땅히 덜어서 줄인다(減省)는 뜻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그림에는 아름다운 얼굴의 미美를 감생減省하여 그렸다고 풀이해야 할 것이다. 이신李紳이 강서관찰사江西觀察使로 임명한다는 조서를 받고 부임하지 않는 시에, "쌍 깃발 덜어서 버리고 영화스런 은총을 사양한다(省拋雙旆辭榮寵)"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두시杜詩에, "자규가 밤에 우니 산 대나무가 찢어지는 것 같고, 왕모가 낮에 내려오니 구름 깃발이 펄럭인다(子規夜啼山竹裂 王母晝下雲旗翻)"라고 했다. 《묵장만록墨莊漫錄》을 보니 말하였기를, "선화宣和 때에 촉중蜀中에서 한 새를 바쳤는데, 형상은 제비 같고 빛은 감취색紺翠色이며, 꽁지는 매우 많고 길다. 날면 꽁지 사이가 두 깃발처럼 한들거린다. 이름을 왕모王母라고 하였으니, 자미子美가 말한 것이 바로 이 새다"라고 했다. 옳고 그른 것을 알 수 없다.

두시杜詩에, "강의 연잎은 흰 날개를 흔들고, 천극은 푸른 실이 덩굴지네(江蓮搖白羽 天棘蔓青絲)"라고 했다. 주註하여 말했으나 확실하지 않은 데가 많다. 지금 상고하여 보니, 선복單復의 주에 말하기를, "천극天棘은 천문동天門冬이니, 다른 이름은 전극顚棘이다"라고 했다. 또 《산해경》에는, "소경의 산(小陘之山)에

7 춘풍면春風面은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뜻이니, 아름다운 얼굴을 추하게 그렸다는 말. 한漢나라 원제元帝 때에 오랑캐 선우單于가 한나라에 미인을 요구한 일이 있었는데, 황제가 왕소군王昭君이라는 궁녀를 주었다. 처음에 후궁의 궁녀들이 화공에게 뇌물을 주어 자기의 그림을 예쁘게 그려 황제에게 보여서 황제의 돌봄을 얻는 일이 많았는데, 왕소군만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하게 그려 황제가 그의 미모美貌를 알지 못하여 그를 선우에게 내주게 되었다고 한다. 즉, 화공이 왕소군의 미美를 감생減省하여 그렸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풀이 있으니 전동顚冬과 같다. 전동은 천문동이다"라고 했다. 전顚과 천天은 발음이 서로 비슷하니 혹은 그럴 것 같다. 왕원지王元之의 시에, "수지는 옥 같은 팔을 뉘었고, 천극은 금실같이 춤추네(水芝臥玉腕 天棘舞金絲)"라고 했다. 《소설小說》에 말하기를, "수지水芝는 곧 부용이며, 천극天棘은 아마 버들일 것이다"라고 했다. 내 생각에는, 두시에서, "푸른 실이 덩굴진다(蔓靑絲)"라고 하여 만蔓이란 글자를 쓴 것으로 보아 아마 버들은 아닐 것이다. 왕원지가 버들을 천극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근거한 것일까.

두시杜詩에 말하기를, "집집마다 오귀를 길러서 식사 때마다 황어를 먹는다(家家養烏鬼 頓頓食黃魚)"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오귀烏鬼는 노자鸕鷀라고도 한다. 촉蜀나라 사람들이 모두 길러서 물고기를 잡는데, 저猪라고도 하고, 노오신老烏神이라고도 하며, 오만귀烏蠻鬼라고도 한다. 《소설》에 말하기를, "오만烏蠻에서 싸우다가 죽은 자가 많아서 사람에게 전염병을 주기 때문에 재앙을 물리치는 방법으로 그렇게 부른다"라고 했다. 이 시가 노오신이니 오만귀니 하고 말한 것과 맞는다. 내가 들으니, 차천로車天輅가 말하기를, "일본에 갔을 때에 왜인들이 노자鸕鷀를 길러서 물고기 잡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

두시杜詩에, "이른 때에 금바리가 인간에 나왔다(早時金盌出人間)"라고 했다. 주에 무릉茂陵의 옥완玉盌의 고사를 끌어다 입증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것은 옥완玉盌이니 금완金盌으로 고쳐 쓸 수는 없다. 상고하여 보니, 노충盧充이 최소부崔少府의 무덤 속에 들어가 최소녀崔少女와 혼인하였는데 최씨가 금바리(金盌)를 주었다. 노충이 시장에 가서 팔려고 하니 최여인의 맏누이가 말하기를, "이것은 내 동생이 죽었을 때에 금바리를 주어 관棺에 넣었던 것이다"라고 했다 한다. 이것을 인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당시唐詩에, “송요주가 익으니 곁에서 보기만 해도 취한다〔松醪酒熟旁看醉〕”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술의 찌꺼기를 걸러 버리지 않은 것을 요醪라고 하며, 요醪도 또한 술이다. 송요松醪면 이미 술인데, “송요주가 익으니”라고 하였으니, 아마 말이 겹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두시杜詩에, “백야에 굽은 달이 아름답다〔白夜月休弦〕”라고 했다. 불서佛書를 참고하여 보니, 보름 전을 백월白月이라 하고, 보름 뒤를 흑월黑月이라고 한다. 이 시는 아마 이것을 인용하였을 것이다. 당시唐詩에 “달은 검은데 기러기 높이 나니, 선우單于(흉노 왕의 칭호)가 밤에 도망치네〔月黑雁飛高 單于夜遁逃〕”라고 했다. 달이 검다고 한 것은 또한 오랑캐의 군사들이, 달이 이지러지면 물러가기 때문이다.

두시杜詩에, “당시 양왕노락楊王盧駱(양경楊烱 · 왕발王勃 · 노조린盧照鄰 · 낙빈왕駱賓王)의 문체를, 경박한 문인들은 조소를 그치지 않네. 너희들은 몸과 이름이 함께 없어지겠지만, 네 사람의 명성은 폐함이 없이 강하와 함께 만고에 흘러가리라〔楊王盧駱當時體 輕薄爲文哂未休 爾曹身與名俱滅 不廢江河萬古流〕”라고 했다. 대체로 네 사람은 당시에 각기 따로 한 체體를 만들었는데, 글하는 경박한 자들이 비웃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몸과 이름이 함께 없어지지만, 네 사람의 명성은 변함없이 강하와 함께 만고에 흘러갈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지금 살펴보니 양신楊愼의 시에 말하기를, “경박한 자들은 왕양王楊을 비웃고, 군소群小의 아이들은 이두李杜를 헐뜯지만, 광명과 불꽃은 만장이나 길고, 강하는 천고에 쏟을 것이다〔輕薄哂王楊 群兒謗李杜 光焰萬丈長 江河千古注〕”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두시杜詩에, “장안성長安城 머리에 머리 흰 까마귀가 밤에 연추문延秋門 위에 날아와 부르짖는다. 또 인가를 향하여 큰 집을 쪼니 집 안의 달관達官(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이 달아나 오랑캐를 피하네〔長安城頭頭白烏 夜飛延秋門上呼 又向人家啄

大屋 屋底達官走避胡)"라고 했다. 아마 실지로 있었던 일일 것이다. 임진왜변 때에 이상한 새가 있어서 궁궐을 돌며 슬피 부르짖더니, 순월旬月(열흘이나 달포)이 못 되어서 성궐城闕이 비게 되었다. 또한 이상한 일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두자미杜子美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한閑이기 때문에 그의 시에는 한閑이란 글자를 쓰지 않았다"라고 했다. 지금 조사하여 보니 그의 시에, "팔랑팔랑 희롱하는 나비, 한만하게 지나간다(娟娟戲蝶過閒漫)"라고 한 것이 있고, 또 "일찍이 주기朱旗를 북두 사이에 번득였다(曾閃朱旗北斗閒)"라고 한 것이 있다. 여러 운부韻府를 참고하여 보니, "한閑은 그친다는 뜻이고, 한閒은 여가餘暇라는 뜻이다. 한閒은 한閑과 통용한다. 그러나 두 글자의 뜻이 본래는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노두老杜가 위언韋偃의 〈척송도가隻松圖歌〉의 끝에 희롱하여 말하기를, "나에게 한 필 좋은 동견東絹(비단)이 있으니, 소중하기가 금수錦繡의 조각에 못 하지 않다. 이미 능란凌亂(순서가 어지러움)한 광채를 닦아 버리게 하였으니, 청컨대 공公은 붓을 휘둘러 곧은 줄기를 그리게나(我有一匹好東絹 重之不減錦繡段 已令拂拭光凌亂 請君放筆爲直幹)"라고 했다. 생각하여 보니, 위언은 늙은 소나무를 잘 그렸으나, 아마 크고 곧은 소나무를 그리는 것은 어려워서 위언의 장기가 아닌 듯하다. 그러므로 극히 그 그림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이 글귀로 끝을 맺은 것은 소위 희롱한다는 것이다.

두시杜詩에, "베개를 높이 하니 강 소리가 멀다(高枕遠江聲)"라고 했다. 아마 송지문宋之問의, "베개를 높이 하고 강물 흐르는 소리를 듣는다(高枕聽江流)"라고 한 글귀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해석하는 자가 "강성江聲이 베개에 높이 들린다" 했다. 아마 그 위 글귀가, "지새는 달 그림자 주렴에 들어오니(入簾殘月影)"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운운한 것인 것 같다. 어떤지 알지 못하겠다.

본주本註에는, “입렴入簾은 권렴捲簾(주렴을 걷는다)으로 쓰기도 한다”라고 했다.

두시杜詩에, “토兎(토끼, 즉 달을 말함)는 응당 학발鶴髮을 의심할 것이고, 섬蟾(두꺼비, 즉 해를 말함)도 또한 초구貂裘(돈피로 만든 갖옷)를 아쉬워할 것이다〔兎應疑鶴髮 蟾亦戀貂裘〕”라고 했다. 주에, “위 글귀는 공公이 스스로 그 늙음을 말한 것이고 아래 글귀는 스스로 그 가난함을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나의 의견으로는, 달은 하얏기 때문에 토끼가 학발鶴髮을 의심하고, 하늘이 차기 때문에 두꺼비가 초구貂裘를 아쉬워한 것이다. 끝구에, “상아孀娥(달의 다른 이름)의 외로움〔寡〕을 짐작하니 하늘은 차가운데 이 가을을 어이할꼬〔斟酌孀娥寡 天寒奈九秋〕”라고 한 것도 또한 위의 뜻을 이은 것이다.

두시杜詩에, “종에게는 흰 밥을 주고 말에게는 푸른 꼴을 준다〔與奴白飯馬青芻〕”라고 한 것이 있다. 요사이 학관學官 임기林芑라는 이가 있는데 매우 해박하다고 한다. 그는 백반白飯은 곧 도반徒飯(아무 반찬도 없는 밥)으로, 백정白丁이니 백신白身이니 하는 백白과 같은 뜻이다”라고 말했다. 그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두시杜詩에, “구중궁궐의 봄빛이 선도에 취하였네〔九重春色醉仙桃〕”라고 한 것이 있다. 대체로 복숭아 꽃빛이 붉어서 술 취한 것 같다고 한 것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선도仙桃라고 한 도桃가 복숭아 열매를 가리킨 것이라면 취선도醉仙桃라고 쓸 수 있으나, 복숭아꽃이라면 온당하지 않다”라고 했다.

두시杜詩에, “헌지軒墀에 일찍이 학을 사랑했다〔軒墀曾寵鶴〕”라고 한 글귀가 있다. 고증하여 보니, 위의공衛懿公이 학을 좋아하였더니, 학이 초헌軺軒에 타는 놈이 있었다고 한다. 해설하는 이가 말하기를, “지墀라는 글자는 잘못이다. 헌지軒墀를 헌거軒車로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해설하는 사람의 견해가 옳다. 그러나 거車라는 글자도 또한 좋지 않다. 한창려韓昌黎(한유韓

愈)의 〈영공작시詠孔雀詩〉에 말하기를, “은총으로 돌봐주심을 입음이 무거워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계지階墀(섬돌과 섬돌 위)를 지킨다(坐蒙恩顧重 畢命守階墀)”라고 하였으니, 지墀라는 글자도 혹은 좋을 것 같다.

두시杜詩에, “이웃집에 좋은 술이 있으니 어린 아들이 외상으로 사올 수 있을 것이다(隣人有美酒 稚子也能賖)”라고 했다. 주註에 방옹放翁이, “야也라는 글자를 야夜 자로 한다면 시골이란 뜻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시의 뜻은, 이웃집에 술이 있으니 어린아이라도 또한 능히 외상으로 사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이 더욱 맛이 있다. 야也를 야夜로 한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두시杜詩에, “버들개지가 솜보다 흰 게 밉살스럽다(生憎柳絮白於綿)”라고 하고, 또 “지름길에 점착粘着한 버들꽃이 흰 털방석을 편 것 같다(糝徑楊花鋪白氈)”라고도 했다. 상고하여 보니, 송나라의 양암楊巖이 말하기를, “버들꽃과 버들개지는 같지 않다. 잎 사이에 나서 아황색鵝黃色을 띤 것이 꽃이고, 열매를 맺은 것이 이미 익어서 어지럽게 날리는 솜과 같은 것이 버들개지(絮)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고금의 시인들은 버들개지를 버들꽃이라고 하고, 버들꽃을 버들개지라고 한 것이 많다. 두시杜詩의 아래 글귀도 또한 잘못되었음을 면할 수 없다.

두시杜詩에, “청풍 잎이 붉어지니 하늘이 서리를 내린다(靑楓葉赤天雨霜)”라고 한 것이 있다. 상고하여 보니, 청풍靑楓은 나무 이름이다. 지금 염색하는 집에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두시杜詩의 〈두견행杜鵑行〉에 말하기를, “업공찬복심수리業工竄伏深樹裡”라고 했다. 차천로車天輅가 일찍이 말하기를, “두견의 새끼를 업공業工이라 한다고

잡서雜書에 나온다"라고 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업공은 능공能工(교묘하게 잘할 줄 안다는 뜻)과 같은 것이니, "두견은 깊은 나무 사이에 숨어 엎드리기를 잘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두시杜詩에, "울타리 가에는 연명의 국화가 늙어서 없어지고, 강 위에는 한갓 원소의 술잔만 만났네(籬邊老却淵明菊 江上徒逢袁紹盃)"라고 했다. 해석하는 이가 말하기를, "원소袁紹가 더위를 피하여 하삭음河朔飮[8]을 했다. 이 시에서는 극성스런 더위에 나그네가 되어서 가을이 다하도록 돌아가지 못한 것을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화찰華察의 시를 보며 말하기를, "원소의 풍류가 지금 적막하니, 어떤 사람이 강 위에서 다시 술잔을 전하겠는가(袁紹風流今寂寞 何人江上更傳杯)"라고 했다. 역시 하절夏節에 속하기 때문에 이 말을 쓴 것이다. 그러나 원소袁紹의 일은 아마 따로 출처가 있을 것이고, 하삭음河朔飮을 가리킨 것은 아닐 것이다.

두시杜詩에 "교룡의 조작彫刻이 반은 이지러져 떨어졌으나, 오히려 황금을 대가代價로 받을 수 있다(蛟龍半缺落猶得折黃金)"라고 했다. 아마 절折은 당當과 같으니, 절가折價의 절折과 같을 것이다.

두시杜詩에 말하기를, "기주 처녀의 머리털이 반은 흰빛인데, 4, 50세가 되어도 남편의 집이 없네(夔州處女髮半華 四十五十無夫家)"라고 했다. 산협山峽의 백성들이, "남자는 상인商人이 되고 여자가 문호門戶를 맡는 것인데, 시장에 앉아 있는 자도, 이고 지고 다니는 자도 모두 부인이다"라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풍속도 또한 이와 같다. 대체로 여자가 많기 때문이다.

8 후한後漢 말기에 유송劉松이 원소袁紹의 자제들과 하삭河朔에서 삼복三伏 더위에 매일 취하도록 술을 마셔 더위를 잊었다는 고사故事.

두시杜詩에, "버들개지 눈처럼 떨어져서 흰 마름 덮는구나. 푸른 새 날아가는데 붉은 수건 물었네(楊花雪落覆白蘋 靑鳥飛去啣紅巾)"라고 했다. 주석하는 이가 글 뜻을 굽혀서 성급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의견으로는, 버들개지 눈처럼 떨어져서 운운한 것은 아마 즉경卽景(눈앞에 보이는 경치)을 말한 것이고, 푸른 새 날아 간다는 것은 바로 궁사宮使가 연달아 왕래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리고 붉은 수건이라고 한 것은, 당唐나라에서는 모든 물건을 내릴 때는 붉은 명주 보자기로 쌌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왕건王建의 궁사宮詞에 말하기를, "붉은 수건을 깨끗이 하여 갖고 전문殿門을 들어간다(旋拭紅巾入殿門)" 했고, 또 말하기를, "두레박질하여 붉은 비단 수박자手帕子를 얻었다(綆得紅羅手帕子)"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거듭 향기 나는 비단을 맺어, 네 귀가 꽃모양으로 나오게 하네(重結香羅四出花)"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두시杜詩에, "제5교의 동쪽에 한스러운 물이 흐른다(第五橋東流恨水)"라고 했다. 주에, "제5교는 장안성長安城 밖에 있는 송별하는 곳이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당나라 때 장안성중長安城中의 거리 이름에 제1, 제2, 제3, 제4, 제5가 있었다. 또 《강목綱目》의 주에, "장안 주작가朱雀街의 동쪽 제5가街 등처等處에 흐르는 물이 굴곡진 곳이 있으니, 그것을 곡강曲江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신종호申從濩의 시에, 제5교라고 한 것은 아마 두시의 용어를 빌려 쓴 것일 것이다.

두시杜詩에 말하기를, "헛되게 옥장 술만 남겨두었네(空留玉帳術)"라고 했고, 주에는 병서兵書라고 했다. 《당예문지唐藝文志》에는 《옥장경玉帳經》 1권이 있다고 한 말이 있다. 고부古賦에는, "붉은 칠 한 궁전(絳宮)의 옥장을 읽는다(轉絳宮之玉帳)"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존귀한 신의 옥장에서 기거한다"라고 했다. 송나라의 장호張淏가 말하기를, "옥장이라는 것은 용병가用兵家의 염승厭勝(주술을 써서 사람을 누름, 또는 그 주술)하는 방위方位이다. 주장主將이 그 방위에 장막을

치면, 견고하여 적이 감히 침범하지 못한다. 가령 정월이 인월寅月이면 사방巳方이 옥장이니, 주장은 마땅히 그 방위에 있어야 한다고 함과 같은 것이다. 자세한 것은 《부응경符應經》에 나온다”라고 했다. 이백李白의 시에, “몸이 옥장에 기거하여 하괴河魁(술戌의 방위)에 임한다〔身居玉帳臨河魁〕”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두시杜詩에, “전가田家의 늙은 질그릇 단지를 웃지 말라. 전부터 술을 담아 아들과 손자를 길러 온다. 은銀을 기울이고 옥玉을 부어서 남의 눈을 놀라게 하고는 함께 취하여 마침내 같이 대나무 뿌리에 눕는다〔莫笑田家老瓦盆 自從盛酒長兒孫 傾銀注玉驚人眼 共醉終同臥竹根〕”라고 했다. 주석하는 이가 말하기를, “질그릇 단지 속에 있는 술을 즐겨 마시고, 은빛 같고 옥빛 같은 술을 기울이던 소년과 함께 취하여 대나무의 뿌리 곁에 눕는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학림옥로鶴林玉露》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런데 주보酒譜에는 말하기를, “취해 쓰러져서 마침내 대나무 뿌리에 함께 누웠다〔醉倒終同臥竹根〕라고 한 것은, 대체로 대나무 뿌리로 술잔을 만들었던 것이다”라고 했다. 《강엄집江淹集》을 보니 말하였기를, “내가 유신庾信의 시를 보니, ‘들화로에는 나뭇잎을 때고, 산의 술잔은 대나무 뿌리를 받들었네〔野爐燃樹葉 山杯捧竹根〕’라고 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대나무 뿌리로 술 마시는 그릇을 만든 때문이다. 다만 와죽근臥竹根이라고 한 와臥라는 글자가 온당하지 않다”라고 했다. 내 생각으로는 옛 시에, “술 빛과 은잔의 빛이 같으므로 시험 삼아 한번 기울여 본다〔銀杯同色試一傾〕”라고 한 것을 가지고 본다면, “은을 기울이고 옥을 부어〔傾銀注玉〕”라고 한 것은 모두 술빛을 말한 것이고, 끝구에서 취해 쓰러져서 질그릇 단지와 함께 대나무 뿌리에 누웠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 《주보酒譜》에 따라서 공취共醉를 취도醉倒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왕반산王半山의 시에, “사람이 긴 병과 함께 무성한 풀에 누웠다〔人與長瓶臥芳草〕”라고 한 것도 또한 이것과 같은 뜻이다.

산곡시山谷詩의, “뿌리는 모름지기 진일辰日에 깎아야 하고, 죽순은 상번上番에 이루어야 된다〔根須辰日斲 筍要上番成〕”라고 하여 번番을 평음平音으로 쓰고 있다. 왕건王建의 궁사宮詞에는 “상번의 종소리에 비로소 돌아갈 수 있게 된다〔上番聲鍾始得歸〕”라고 했고, 두시杜詩에는, “모름지기 상번에 모여서 성죽成竹을 본다〔會須上番看成竹〕”라고 하여 모두 측성仄聲(한자漢字의 상上 · 거去 · 입入의 삼성三聲을 말함)으로 쓰고 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송나라 섭몽득葉夢得의 《옥간잡서玉澗襍書》를 보니 말하였기를, “오직 첫 번에 나오는 죽순은 모두 대가 되지만 다음에 나오는 것은 개미와 벌레에게 상처를 입어 열 가운데 다섯, 여섯도 대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다. 상번上番은 아마 이와 같이 첫 번이라는 뜻일 것이다.

두시杜詩에, “산성의 젖 같은 술로 청운을 내린다〔山城乳酒下靑雲〕”라고 했다. 양신楊愼이 말하기를, “《효경위孝經緯》에, ‘술이라는 것은 젖이다. 왕자王者가 하늘의 젖〔天乳〕을 베풀어 주어서 사람을 먹인다’라고 했다”라고 했다. 양梁나라 장솔張率의 시에, “젖 같아서 더욱 진귀하다〔似乳更堪珍〕”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두시杜詩에 “어기御氣 높은 누樓가 통창通敞(토지가 높고 판판하며 앞이 탁 트이어 있음)하고, 함풍含風 장전帳殿(장막을 쳐서 임시로 만든 어소御所)이 높다〔御氣雲樓敞 含風帳殿高〕”라고 한 것이 있다. 주註에 “어기御氣와 함풍含風은 당唐나라의 두 궁전의 이름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심전기沈佺期의 〈구일시연시九日侍宴詩〉에는 말하기를, “기운을 멍에 하여 서쪽을 향하고, 높은 곳에 의지하여 술잔을 권한다〔御氣向金方 憑高薦羽觴〕”라고 했고, 송지문宋之問의 시에는 말하기를, “기운을 멍에 하니 붕소鵬霄(멀고 큰 하늘)가 가깝고, 높은데 오르니 봉야鳳野(넓고 큰 들)가 열린다〔御氣鵬霄近 升高鳳野開〕”라고 했다. 어기御氣는 아마 기운을 멍에 하니 높고 상쾌하다는 뜻이고, 반드시 궁전의 이름은 아닐 것이다. 함풍도 만약 궁전의 이

름이라면 마땅히 장전帳殿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두시杜詩에, "위군고주만안고爲君沽酒滿眼酤"라고 한 것이 있는데 만안고滿眼酤의 주註에 "앞에 가득한 사졸士卒들을 모두 위로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니 그대를 위하여 술을 사오니 앞에 가득한 사졸들을 모두 위로한다는 뜻이 된다. 또 《운부군옥韻府群玉》에는 말하기를, "만안고는 술 그릇이다"라고 했다. 나의 의견으로는 이 설은 아마 온당하지 않은 것 같다. 상고하여 보니, 촉蜀나라 사람들은 통筒에다가 술을 사오는데, 통 위에 먹줄을 긋고 구멍을 뚫어 놓았다. 그 구멍에 가깝도록 가득 채우고자 한다. 이른바, "술은 비통郫筒(술병 이름인데, 술 이름으로도 쓰임)을 생각할 뿐, 다른 술을 사지 마라(酒憶郫筒不用沽)"라고 한 것이 아마 이것일 것이다.

두시杜詩의, 〈수마행瘦馬行(파리한 말을 두고 지은 시)〉에 말하기를, "자세히 보니 6개의 낙인에 관官 자가 찍혀 있다(細看六印帶官字)"라고 한 것이 있다. 《운부韻府》에 말하기를, "비飛 자를 새긴 도장과 용의 형체를 새긴 도장을 말의 어깨와 볼기짝에 찍는데, 모두 6곳에 찍는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보면 나라와 말에 낙인烙印을 찍는 것은 오래 전부터의 일이다.

공소부孔巢父를 송별하는 시에 말하기를, "깊은 산 큰 못에 용과 뱀처럼 멀리 숨어 있네(深山大澤龍蛇遠)"라고 했다. 《진서晉書》를 보니, 육희陸喜가 말하기를, "손호孫皓가 무도하니, 만약 용과 뱀처럼 그 몸을 감추고 그 재질을 침묵하여 잠겨서 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제1인이다"라고 했다. 이 시의 용어는 아마 여기서 나온 것일 것이다. 용사龍蛇라는 말은 아마 엎드려 있어서 그 몸을 감춘다는 뜻일 것이다.

두시杜詩에, "광채도 가냘프게 초승달이 올라올 듯 말듯 그림자 비끼니 달바퀴

안정하지 않네. 고새산古塞山 밖에 겨우 올라왔는가 하면, 이미 저녁 구름 끝에 숨어 버렸네〔光細弦欲上 影斜輪未安 微升古塞外 已隱暮雲端〕”라고 했다. 주석하는 이가 말하기를, “첫 글귀는 숙종肅宗의 위位가 바르지 않고 덕德이 충실하지 않은 것에 비유한 것이고, 함련頷聯(율시律詩의 제3, 제4의 글귀)은, 영무靈武에 즉위하였으나 장후張后와 이보국李輔國의 엄폐하는 바가 된 것에 비유한 것이며, 끝 글귀인 ‘뜰 앞에 흰 이슬이 있어서 가만히 국화 무더기에 가득찼네〔庭前有白露 暗滿菊花團〕’라고 한 것은 성공이 적은 것에 비유한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시는 초승달을 형용하여 그가 본 바를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주석하는 사람이 억지로 갖다 붙이기를 좋아한 것이다.

두시杜詩에, “황양黃羊은 이미 냄새 나지 않고, 노주蘆酒는 도리어 많이 취한다〔黃羊旣不羶 蘆酒還多醉〕”라고 한 것이 있다. 《강목綱目》의 주註에 말하기를, “북쪽 사람들은 노루를 황양이라고 한다”고 했다. 《소설》에 말하기를, “새상塞上에 황양이 있으니 그 가죽은 벗겨서 갖옷과 요를 만든다. 또 오랑캐들은 술을 만들어 가지고 갈대의 관管으로 빨아먹는다. 그런 까닭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내가 상고하여 보니, 고적高適의 시에 말하기를, “오랑캐의 술 1,000잔이 사람을 취하게 하지 않는다〔虜酒千鍾不醉人〕”라고 했다. 아마 오랑캐의 술〔虜酒〕이 독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에서 노주蘆酒를 노주虜酒로 하였으면 더욱 맛이 있을 것 같다.

두시杜詩에, “번개와 우뢰가 막사의 제비를 날게 하고, 소나기에 하수의 물고기 떨어진다〔震雷翻幕燕 驟雨落河魚〕”라고 한 글귀가 있다. 아마 천둥 번개가 막사幕舍를 뒤흔드니 그 위에 있던 제비가 놀라서 날아가고, 소나기가 쏟아지기 때문에 물고기가 따라 떨어진 것을 눈앞에 보는 대로 기술하였을 뿐일 것이다. 그런데 주해하는 이가 말하기를, “막연幕燕이라고 한 것은 막 위에 제비 형체를 만들어 장식한 것이고, 물고기라고 한 것은 곧 수면의 티끌이 뭉쳐서 물

고기 모양을 이룬 것이다”라고 했다. 그 견해가 졸렬하다. 끝구에, “서로 맞이하는데 진흙 수렁이 부끄러워 말을 탄 채로 섬돌에 이른다(相邀愧泥寧 騎馬到階除)”라고 한 것은 아마 진흙 수렁 때문에 바로 섬돌까지 와서 말을 내리려고 한 것이다. 반드시 심손沈遜의 일을 인용해야 할 것은 아니다.

두시杜詩에 말하기를, “나그네살이 근심 속에서 보니, 24회나 지나가네(羈栖愁裡見 二十四迴明)”라고 하고, 또, “40이 내일 아침이면 지나가는데, 날아 치솟은 저문 경치가 비꼈네(四十明朝過 飛騰暮景斜)”라고 했다. 이 대구對句의 법이 평범하지 않다. 또 심상尋常으로 70에 대對하였으면 더욱 묘할 것이다.

두릉杜陵에서 왕 판관王判官을 송별하는 시에 말하기를, “검양黔陽에는 아마 신사信使가 드물 것이니, 자주 자주 술잔 권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기지 말게나(黔陽信使應稀少 莫怪頻頻勸酒盃)”라고 했다. 《사문유취事文類聚》를 보니, 소봉蕭鳳이 옥문관玉門關에 사자使者로 갈 때에, 아우 숙肅이 자주 자주 술잔을 권하면서 형에게 말하기를, “취한 가운데 작별하면 아마 슬프지 않을 것입니다(醉中庶分袂不悲)”라고 했다. 이 시의 용어는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허정묘許丁卯의 시에 말하기를, “날이 저물어 술에서 깨어 보니 사람은 이미 멀리 가고 없구나. 하늘 가득한 바람과 빗속에 서루西樓를 내려오네(日暮酒醒人已遠 滿天風兩下西樓)”라고 했다. 매우 기뻐할 만한 시다.

두시杜詩에, “광상과 대나무 화로(匡牀竹火爐)”라고 한 글귀가 있는데, 광匡은 편안하다는 뜻으로, 《회남자》에서 나온 말이다. 이백李白의 시에, “편안하게 앉아서 밤중에 이른다(匡坐至夜分)”라고 한 것도 또한 그것이다. 또, “광산의 글 읽던 곳(匡山讀書處)”이라고 말한 것이 있다. 《여산기廬山記》를 보니, 주周나라 때에 광곡선생匡谷先生이 이 산에 집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산 이름을 광산匡山이니, 여산廬山이니 불렀다고 한다. 양소명梁昭明이 글 읽던 곳이 있다고 한다.

두시杜詩에, “담 머리에 탁주가 지나간다(墻頭過濁醪)”라는 글귀가 있다. 왕건王建의 궁사宮詞에, “궁녀들의 손 안에 다탕茶湯이 지나간다(宮人手裡過茶湯)”라고 한 글귀가 있다. 지나간다(過)고 하는 것은 차례로 전해서 보내는 것이다.

두시杜詩에, “시골의 작은 아이, 굵은 목덜미가 생겨서(鄕里小兒項領成)”라는 글귀가 있다. 왕세정王世貞의 글에 말하기를, “아이들의 방자한 행동에 군박窘迫(공격이 심하여 고생함)하게 되어”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한漢나라 〈여강전呂强傳〉에 말하기를, “뭇 간사한 무리들이 방자하여서(群邪項領)”라고 하였는데 주에, “항령項領이란 스스로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시의 용어는 아마 여기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왕세정의 글은 두시를 인용한 것일 것이다.

두시杜詩에, “옥패로 그냥 곧 노래할 만하다(玉佩仍當歌)”라고 한 글귀가 있다. 《고악부》를 보니, “슬픈 노래가 곧 울 만하고, 멀리 바라보는 것이 곧 돌아가야 할 것이다(悲歌可以當泣 遠望可以當歸)”라고 했다. 비로소 이 시의 당當이라는 글자가 여기에서 나온 것임을 알겠다.

두시杜詩에, “새벽 노을을 아침에 먹을 만하다(晨霞朝可飡)”라고 했다. 한상韓湘의 시詩에 말하기를, “새벽에 일어나 비단 노을을 씹는다(凌晨咀絳霞)”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평명平明(해가 뜰 때)의 것을 조하朝霞라 하고, 오정午正 때의 것을 정양正陽, 해가 들어간 때의 것을 비천飛泉, 밤중의 것을 항해沆瀣라고 하며, 하늘의 현기玄氣와 땅의 황기黃氣를 합하여 육기六氣라고 한다. 그것을 먹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주리지 않게 한다. 사람이 위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식량의 길이 막혀 끊어졌을 때에 거북이나 뱀처럼 이 기氣를 마시면 죽지 않는다”고 했다. 또 말하기를, “봄에는 조하의 기운을 마시고, 여름에는 정양의 기운을 마시며, 가을에는 비천의 기운을 마시고, 겨울에는 항해의 기운을

마신다"라고 하였으며, 또 "오색五色으로 움직이는 노을을 일경日景이라고 한다. 항만경項曼卿이, 선인仙人이 유하流霞 한 잔을 마시게 했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했다.

두시杜詩에, "부상의 서쪽 가지는 단석을 봉해 버렸고, 약수의 동쪽 그림자는 장류에 떴다〔扶桑西枝封斷石 弱水東影浮長流〕"라고 했다. 아마 낙빈왕駱賓王의 글인 "영해는 만 리에 뻗쳐 물결이 태액지太液池에 통하고, 등림의 천 가지는 그림자가 감천의 나무와 교차한다〔瀛海萬里 通波太液之池 鄧林千枝 交影甘泉之樹〕"라고 한 것을 인용한 것일 것이다.
또 명나라 양호楊鎬의 글에는 말하기를, "약수는 만 리에 걸쳐 물결이 태액지지太液之池에 통하고 부상의 천 가지는 그림자가 상림의 나무에 교차한다〔弱水萬里 通波太液之池 扶桑千枝 交影上林之樹〕"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낙빈왕의 전문全文을 가져다 쓰고 있다.

북정시北征詩에 말하기를, "살벌한 바람이 서북에서 와서 참담한데, 회골 오랑캐들 따라오네. 군사 5,000명에 말 1만 필을 몰고〔陰風西北來 慘憺隨回鶻 送兵五千人 驅馬一萬匹〕"라고 했다. 이것은 오랑캐 한 사람에 말 2필씩이다. 마영경馬永卿이 말하기를, "용병用兵하는 법에 활과 말은 반드시 예비의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시경》에 말하기를, "두 활을 교대로 활집에 넣는다〔交韔二弓〕"라고 한 것도 또한 낡아 꺾어질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들으니 지금 서방의 오랑캐들은 모두 말 2필씩을 몰고 다닌다고 한다. 아마 예전부터 그러하였을 것이다.

당시唐詩에서 말하기를, "악을 피하는 수유주〔辟惡茱萸酒〕"라고 했고, 두시杜詩에는 "다시 수유를 잡고 자세히 본다〔更把茱萸子細看〕"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옛날 환경桓景이 9월 9일에 비단 주머니를 지어서, 수유茱萸를 그 속에 넣고 팔에 잡아매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액을 면했다고 한다. 대체로 수유는 가

을이 되면 열매를 맺어 붉게 익기 때문이다. 근래에 이홍헌李弘憲이, "중구重九(음력 9월 9일)에 양궁兩宮을 생각한다"는 시를 지어 말하기를, "수유꽃이 지난해의 가지에 피었다〔茱萸花發昔年枝〕"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망발이다. 수유는 중구重九 때에 꽃 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고시관考試官이 이 시를 상등上等으로 뽑았으니 가소로운 일이다.

당시唐詩에 "개산하여 그윽이 기수림[9]에 산다〔開山幽居祇樹林〕"라고 한 글귀가 있다. 왕세무王世懋가 말하기를, "개산開山은 개사開士[10]로 쓰는 것이 옳다. 개사라는 말은 불서에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전등록傳燈錄》[11]을 보니, 양梁나라의 중 지약智藥이 조계曹溪[12]의 상류에 산을 열어〔開山〕 절을 세우고, 이름을 보림寶林이라고 했다. 의심하거니와 아마 이것을 인용한 것일 것이다.

배열裵說의 한식시寒食詩에 말하기를, "오색 비단의 새끼줄이 높이 날아 손바닥 위의 몸이라네〔綵索高飛掌上身〕"라고 했다. 채색綵索은 즉 그네이다. 상고하여 보니, 북방의 산오랑캐〔山戎〕는 한식일寒食日에 그네 뛰는 유희를 하여 몸이 가볍고 민첩해지기를 익힌다. 제환공齊桓公 때에 처음으로 중국에 전파되었고, 당唐나라 천보天寶 때에는 궁중에서 반선희半仙戲(반신선의 유희)라고 불렀다. 또 《사문유취事文類聚》에는 말하기를, "《열반경涅槃經》에서 견색罥索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했다. 내 생각으로는 견색이란 것은 광대가 줄 탈 때에 발에 걸고 뛰는 유희이고 아마 그네는 아닐 것이다. 번천樊川의 시에, "새끼줄에 발꿈치를 걸고 빨리 달리는 것을 자랑한다〔誇趫索掛跟〕"라고 한 것이 즉 이것이다.

9 기원정사祇園精舍가 있는 곳으로서, 부처가 설법하던 유적지. 변하여 절이란 뜻으로 쓰고 있다.

10 보살. 고승高僧의 칭호로 쓰기도 한다.

11 책 이름. 과거칠불過去七佛로부터 역대의 선종禪宗 조사祖師를 5가家 52세世에 이르기까지 전등한 법계法系의 차례를 기록한 책. 전등傳燈은 불법을 스승이 제자에게 전하는 것을 말한다.

12 중국 광동성 소주부의 쌍봉산 아래에 있는 땅 이름. 그곳에 조계曹溪라는 강이 있다. 혜능이 이곳에 보림사寶林寺를 짓고 선풍禪風을 크게 드날렸다.

당시唐詩에 "손가락으로 위성韋城 위에 태백太白 높은 것을 가리킨다〔指點韋城太白高〕"라고 한 글귀가 있다. 장차 새벽이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또《사문옥설事文玉屑》에 말하기를, "태백은 금성金星이니, 대장의 상징이다"라고 했다. 《천문지天文志》에 말하기를, "태백이 높이 나올 때, 용병하는 것을 깊이 하면 길하고, 얕게 하면 흉하다〔太白出高 用兵深吉淺凶〕"라고 했다. 왕유王維의 시에, "밤에 수루戍樓(적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망루)에 올라가 태백성太白星을 본다〔夜上戍樓看太白〕"라고 했고, 고적高適의 시에 "누가 선우單于의 팔을 벨 것인가. 금년에는 태백이 높이 보인다〔誰斷單于臂 今年太白高〕"라고 하였으며, 또, "싸움이 무르익으니 태백이 높고 싸움을 그치니 모두旄頭(오랑캐의 병란을 보이는 별)가 비었네〔戰酣太白高 戰罷旄頭空〕"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고적高適의 칠언율七言律에 말하기를, "여울 위의 급류는 소리가 화살 같고, 성머리의 잔월은 형세가 빈 것 같다〔湍上急流聲如箭 城頭殘月勢如空〕"라고 하였는데, "빈 것 같다"라고 한 공空은, 활이란 궁弓으로 써야 할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첫 구에 이미 "北樓西望滿晴空"이라고 하여 공空을 운자韻字로 달았으니, 마땅히 공空이란 글자를 두 번 운자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더욱 궁弓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겠다. 즉 '성 머리의 가냘픈 달은 형세가 활과 같다'로 되는 것이다.

원결元結의 〈대영사시大靈祠詩〉에 말하기를, "목손木孫(손櫞이므로 은행나무)으로 가르새〔櫞〕를 만들고, 목모木母(매梅를 말한 것으로서 매실나무)로 서까래를 삼았네〔木孫爲櫞兮木母榱〕"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수운水芸을 바치고 상선霜秈을 먹이네〔薦水芸兮飼霜秈〕"라고 했다. 《운부군옥韻府群玉》을 보니, 하荷를 수운水芸이라고 했다. 선秈의 음은 '선'이니 《본초몽전本草蒙筌》에 말하기를, "선秈은 이른 벼〔早稻〕다"라고 했다.

잠가주岑嘉州의 〈개장군가蓋將軍歌〉는 여러 작품 가운데에서 가장 잘된 것이다. 그런데 《당시품휘唐詩品彙》에 입선入選되지 않았으며, 또 수隋나라 때의 후부인侯夫人이나 오대五代 때의 화예부인花蘂夫人 등이 모두 당시唐詩에 들어 있는 따위는 무슨 까닭인가. 위장韋莊 이건훈李建勳과 같은 이도 또한 오계五季(후양後梁 · 후당後唐 · 후진後晉 · 후한後漢 · 후주後周의 오대五代를 말함) 때의 사람인데 그 작품이 당시에 들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영참岺參의 시에, "두 소매에 용종하게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雙袖龍鍾淚不乾)"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변화가卞和歌〉에 말하기를, "빈 산에서 흐느껴 우니 눈물이 용종하다(空山歔戲涕龍鍾)"라고 했다. 이 시의 용어가 아마 여기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용종龍鍾이란 무슨 뜻인지 자세하지 않다. 이것은 눈물 흘리는 모양인 것 같은데, 고적高適의 시에, "용종하게 도리어 2,000석의 지위를 더럽힌다(龍鍾還忝二千石)"라고 한 것과는 같지 않다. 왕반산王半山의 시에, "염소 가죽으로 만든 소매도 용종하게 손을 홀로 교차하였네(羔袖龍鍾手獨叉)"라고 한 것은 아마 당시唐詩를 습용襲用하여 잘못된 것일 것이다.

잠참岑參의 증별시贈別詩에 말하기를, "상국相國이 군대를 지휘하여 제경帝京을 떠나니, 대장기大將旗에 호위되어 부절符節 갖고 멀리 가네. 아침에 검각劒閣에 오르면 구름이 말을 따르고, 새벽에 파강을 건너면 비가 무기를 씻어주네. 산에 핀 일만 송이 꽃들은 가는 일산日傘을 맞이하고, 시냇가의 일천 가지 버들은 가는 깃발을 떨치겠네. 잠깐 사이에 촉성에 이르는 것은 날짜를 미리 헤아려서, 밝으신 임금님 대신大臣을 기다리시리(相國臨戎別帝京 擁麾持節遠橫行 朝登劒閣雲隨馬 曉渡巴江雨洗兵 山花萬朶迎征蓋 川柳千條拂去旌 暫到蜀城應計日 須知明主待持衡)"[13]라고 했다.

13 여기에서는 대신大臣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 대신은 천하를 형衡하게 다스릴 임무를 가진 관원이라는 뜻이다.

이 시 한 수 가운데에 휘麾니, 절節이니, 병兵이니, 마馬니, 정旌이니, 개蓋니, 검각劍閣이니, 파강巴江이니, 천류川柳니, 촉성蜀城이니 하는 등의 말을 잇따라 쓰고 있어서 흠이며 병통인 것을 면치 못하겠다. 칠언율七言律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잠참岑參의 시에, "무성의 자밀은 먹을 수가 없네〔武城刺蜜未可餐〕"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자刺는 즉 자刺와 같은 글자이다. 《본초本草》에 말하기를, "자밀刺蜜이라는 꿀은 교하交河에서 생산되는데 모래 가운데에 풀이 나서 그 머리에 가시가 있고, 가시 위에 털이 있으며, 그 털 가운데에서 꿀이 나온다. 초밀草蜜이라고도 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했다.

잠참의 〈열해행熱海行〉에 말하기를, "찐 모래와 녹아내리는 돌은 오랑캐의 구름을 태우고, 끓어오르는 물결과 불꽃같은 파도는 한漢나라 달을 달이네〔蒸沙爍石然虜雲 沸浪炎波煎漢月〕"라고 했다. 양신楊愼이 말하기를, "이것은 땅 이름을 따라 생각하여 한 말로서 잘못이다. 잠참이 일찍이 친히 열해에 간 일이 없다"라고 했다. 나는 상고하여 보니, 〈오학편吾學編〉에도 또한, "역파력力把力은 사막 사이에 있는 곳으로서, 혹은 언기焉耆라 하고 혹은 구자龜玆라고 한다. 그곳에 열해가 있다"라고 했다. 잠참이 안서판관安西判官을 지냈다. 그의 문집文集 가운데에 "교하군交河郡에 사자使者로 가서 화산火山을 지나간다"라고 한 등의 시가 있다. 교하는 즉 고창高昌이니, 이 땅과 서로 가깝다. 비록 눈으로는 안 보았더라도 귀로는 반드시 자세히 들었을 것이다. 아마 생각만으로 잘못 말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잠참의 시에, "안새는 염택에 통하고, 용퇴는 초구에 닿아 있다〔鴈塞通鹽澤 龍堆接醋溝〕"라고 했다. 모두 땅 이름이다. 용퇴龍堆는 백룡퇴白龍堆이다. 안새鴈塞는, 양주梁州에 하늘에 닿을 듯한 재가 있는데 오직 한 곳만이 겨우 기러기가

내려앉을 만하다. 내려가는 기러기가 여기에 이르면 날개를 바로잡고 내려갈 곳을 헤아려 정해 가지고 지나가기 때문에 안새라고 이름 붙였다고 한다.

잠참의 시에는, "옥 술병의 좋은 술에 호박 빛이 짙다〔玉壺美酒琥珀殷〕"라고 했고, 이하李賀의 시에는 "작은 주조酒槽(술을 짜는 통)에 술이 떨어지는 것이 붉은 진주 같구나〔小槽酒滴眞珠紅〕"라고 하였으며, 백낙천白樂天의 시에는, "소주 단지를 처음 여니 호박이 향기롭다〔燒酒初開琥珀香〕"라고 했다. 육방옹陸放翁이 "당唐나라 사람들은 붉은 술을 좋아한다"라고 말한 것이 이것이다. 《예기》를 보니, 빛이 붉은 술을 제제醍齊라고 했다. 《운부군옥韻府群玉》에는 말하기를, "홍우紅友는 술 이름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옛사람들도 붉은 술을 대견하게 여겼던 것이다.

곽수郭受의 시詩에, "연잎 배 가벼워서 제대로 조종하는 방법을 배웠네〔蓮葉舟輕自學操〕"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장자莊子》에서 안연顔淵이 언焉에게 묻기를, "배를 조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가〔操舟可學耶〕"라고 한 것이 있다. 이 시는 고어古語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좋을 뿐이다.

당시唐詩에 말하기를, "산 빛은 새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못 그림자는 사람의 마음을 비게 한다〔山光悅鳥性 潭影空人心〕"라고 했다. 《운부군옥》을 보니, "공空은 거성去聲이니 《논어》에 있는 회야루공回也屢空이라 한 공空과 음이 같다"라고 했다.

당시唐詩에, "제5의 이름이 표기와 가지런하다〔第五之名齊驃騎〕"라고 한 글귀가 있다. 상고하여 보니, 진晉나라의 하준河準이 지조가 높아 벼슬을 바라지 않았다. 그의 형 충充이 표기장군驃騎將軍이 되어서 그에게 벼슬하기를 권하니, 준準이 말하기를, "제5의 이름이 어찌 표기장군만 못하겠습니까〔第五之名 何減於

驃騎)"라고 했다. 준準은 형제 중에 다섯째였다. 이 시의 용어는 이것에 근본이 있는 것이다.

이필李泌이 시를 지어 말하기를, "푸르고 푸른 동문의 버들도 해가 저물면 반드시 여위어 쇠약해지겠지(靑靑東門柳 歲晩必憔悴)"라고 했다. 양국충楊國忠이 자기를 조롱한 것이라고 하여 고소하니, 당명황唐明皇이 말하기를, "버들을 두고 시를 지은 자들이 경卿을 비난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얏(李)을 두고 시를 지은 자가 짐朕을 충고한 것이라고 하여 옳겠는가"라고 했다고 한다. 나는 말한다. 명황明皇이 여기에 위용威容이 있었다고 하겠다.

엄유嚴維가 유 원외劉員外에 보내는 시에는 말하기를, "가까이 백운사로 영전하겠네(近出白雲司)"라고 했고, 이가우李嘉佑가 도관都官 묘 원외苗員外에게 화답하는 시에는, "가을이 백운사에 차갑다(秋冷白雲司)"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형부낭중刑部郎中을 백운사白雲司라고 한다. 대체로 황제黃帝 때에 구름으로 벼슬을 기록하였는데, 추관秋官, 즉 형관刑官을 백운白雲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도한陶翰의, 신라新羅로 돌아가는 김경金卿을 송별하는 시詩에 말하기를, "고향을 향한 마음은 멀리 바다를 건너는데, 나그네 길에서 두 번 봄을 지났네. 예악은 오랑캐의 풍습을 바꿔 놓았고, 의관은 중국의 제도가 새롭구나(鄕心遙渡海 客路再經春 禮樂夷風變 衣冠漢制新)"라고 했다. 소위 김경이라고 한 사람은, 즉 신라 사람인 김운경金雲卿이 아닌가 의심된다.

또, 호형胡衡이 명령을 받들고 본국에 사자使者로 가는 시詩에 말하기를, "왕명王命을 받들고 장차 나라를 떠나려 하니, 비재非才한 몸으로 근신近臣의 자리를 더럽혔네. 하늘 한가운데서 밝으신 임금을 사모하고, 바다 밖을 향해서 자애로운 어버이를 생각하노라. 봉래에 고향길이 멀고, 약목若木은 고향의 이웃이라네. 서쪽을 바라봄은 은총을 그리워하는 날이고, 동쪽으로 돌아감은 의義를

느끼는 때로구나〔銜命將辭國 非才忝近臣 天中戀明主 海外憶慈親 蓬萊鄉路遠 若木故園隣 西望懷恩日 東歸感義辰〕"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당시기唐詩紀》에는, "함명사일본국啣命使日本國"이라고 썼다. 《통전通典》에 말하기를, "천보天寶 말末 위위소경衛尉少卿 조형朝衡은 왜국倭國 사람이다"라고 했다. 《당서唐書》에 말하기를, "조형이 당나라에 들어와 급제한 뒤에 본국에 돌아갔다"라고 했다. 아마 바로 이 사람일 것이다.

서안기徐安期의 최장시催粧詩에 말하기를, "전해 들으니, 촛불 아래서 붉은 분을 조화調和하여 밝은 거울 앞에서 특별한 봄을 만든다네. 모름지기 온 낯을 모두 화장해 버리진 말아요. 두 눈썹은 남겨두어 그림 그리는 이 기다려야 하느니〔傳聞燭下調紅紛 明鏡臺前別作春 不須面上渾粧却 留着雙眉待畫人〕"라고 했다. 시가 매우 아름답다. 《소설》에 말하기를, "송나라 때의 혼례는 합근合巹(혼례 때 신랑 · 신부가 서로 바꾸어 마시는 술잔)하는 저녁에 신랑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시를 짓는데, 이것을 최장催粧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니, "이미 당나라의 초기에 시작되었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서안기는 초당初唐의 사람이 아닌데, 《소설》에서 그렇게 말한 것은 어찌된 일인가.

전기錢起의 시에, "바람 편에 두어 마디 다듬이소리 들리네〔風便數聲砧〕"라고 했고, 두목杜牧의 시에는 "동풍이 주랑의 편을 들지 않았더라면〔東風不與周郎便〕"이라고 했다. 《운회韻會》를 조사하여 보니, "편便은 순順이니 거성去聲이다. 지금 순풍順風을 편풍便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했다.

위응물韋應物의 시에는, "아흐레 동안 몰아 달리고 하루 동안 한가하다〔九日驅馳一日閑〕"라고 했고, 백낙천白樂天의 시에는, "공가公假(관의 휴가)가 매월 삼순三旬에 있다〔公假月三旬〕"라고 했다. 아마 당唐나라의 제도는 열흘에 하루씩 휴가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까닭에 상순 · 중순 · 하순을 삼순이라고 한 것이다.

진晉나라의 법령을 조사하여 보니, “5일마다 한 번씩 급急이 있고, 1년에 60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했다. 서기書記에 ‘급急’이라고 한 것은 모두 휴가를 말한 것이다.

위소주韋蘇州가 구단丘丹에게 보낸 시에 말하기를, “가을밤에 그대를 그리워하여, 이리 저리 거닐면서 서늘한 하늘을 읊네. 산은 비었는데 솔방울이 떨어지니, 그윽한 사람도 으레 잠들지 않았으리〔懷君屬秋夜 散步詠凉天 山空松子落 幽人應未眠〕”라고 했다. 구단丘丹의 회답한 시에는 말하기를, “이슬이 떨어지니 오동잎이 울고, 가을바람에 계수나무 꽃 피네. 그 가운데 신선을 배우는 사람 있어, 퉁소를 불며 밝은 달을 즐기네〔露滴梧葉鳴 秋風桂花發 中有學仙人 吹簫弄明月〕”라고 했다. 구단丘丹은 당唐나라에 있어서 시명詩名이 있는 이가 아닌데 그 시의 아름다움이 소주蘇州보다 훨씬 멀고 뛰어나다.

장지화張志和의 시에, “푸른 부들삿갓 푸른 도롱이〔靑蒻笠綠簑衣〕”라는 말이 있다. 운서韻書를 조사하여 보니, 약蒻 자는 본래 약若으로 쓴다. 《예기》의 주에, “포蒲는 약蒻이니, 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다. 유자후柳子厚의 시에, “푸른 부들에 소금을 싸 가지고 산골 손이 돌아간다〔靑若裏鹽歸峒客〕” 했고, 허혼許渾의 시에는, “부들 잎이 시냇물에 잠겨서 따뜻하다〔若葉沈溪暖〕”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일설에는 청약靑若을 대나무 껍질이라 하고, 혹은 죽엽竹葉이라고도 한다.

당시唐詩에 말하기를, “어느 곳의 금가 소리 달 속에 슬피 들리는고〔何處金笳月裡悲〕”라고 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금가金笳는 즉 지금의 태평소太平簫라고 했다.

무원형武元衡의 시에 말하기를, “유곤이 앉아서 휘파람 부니 동산에 바람이 나고, 사조가 시를 지으니 달이 다락에 가득하다〔劉琨坐笑風生苑 謝眺裁詩月滿樓〕”라

고 했다. 소笑는 소嘯(휘파람)로 써야 한다. 이것은 아마 유곤劉琨이 길게 휘파람을 불어서 오랑캐의 군사들을 물리친 고사를 인용한 것일 것이다. 원苑 자를 어떤 이는 석席 자로 쓰기도 한다.
양신楊愼이 말하기를, "동산에 바람이 난다(風生苑)라고 한 것은, '풍청새風淸塞'로 쓰는 것이 옳다"고 했다. 풍청風淸은 쟁란爭亂이 진정된다는 뜻이다.

사공서司空曙의, 노진경盧秦卿을 송별하는 시에 말하기를, "친구의 술이 석우풍[14]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라(無將故人酒 不及石尤風)"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용재수필容齋隨筆》에 말하기를, "석우풍石尤風은 타두미풍打頭迷風이니, 당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다"라고 했다. 《송무제가宋武帝歌》에 말하기를, "원컨대 석우풍을 일으켜서 사방의 길 가는 나그네를 끊어 버리고 싶다(願作石尤風 四面斷行旅)"라고 한 것은 아마 이 시에 근본이 있을 것이다.

고황顧況이 섭도사葉道士의 산방山房을 제목으로 한 시에 말하기를, "물가의 양류楊柳에는 붉은 난간 달린 다리가 걸렸고, 동학洞壑 속의 신선은 푸른 옥퉁소를 부네. 요사이 마고麻姑[15]의 서신書信을 받았는가 심양강潯陽江, 위에 조수潮水가 통하지 않는데(水邊楊柳赤欄橋 洞裡神仙碧玉簫 近得麻姑書信否 潯陽江上不通湖)"라

14 거세게 부는 앞바람. 맹렬한 역풍逆風. 옛날에 석씨石氏의 딸이 우랑尤郞에게 시집가서 의좋게 살던 중, 어느 날 남편이 장사하기 위해 먼 곳으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 것을 아내가 한사코 말렸으나, 그는 듣지 않고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 죽었다. 아내가 너무 애통하다가 병을 얻어 죽게 되었는데, 임종 때 하는 말이, "내가 죽은 뒤 멀리 항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큰 앞바람을 일으켜 배를 떠나지 못하게 해서, 천하의 부인을 위해 이런 화禍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다. 그 후로는 배가 떠나려고 할 때 거센 앞바람이 불면 이를 "석우풍石尤風"이라고 하여 떠나지 않았다는, 《강호기문江湖紀聞》에 실린 이야기에서 나온 말.

15 옛날 선녀仙女의 이름. 건창建昌 사람이니, 모주牟州의 동남 고여산姑餘山에서 수도했다고 한다. 동한東漢 때에 선인仙人 왕방평王方平이 채경蔡經의 집에 내려와 마고를 불러 보았다고 한다.

고 했다. 주註에 말하기를, "스스로 불우不遇하기가 마치 마고가 왕방평王方平[16]과 더불어 500년에 한번 만나고 헤어져 간 뒤에는 한 번의 음신音信도 얻지 못함과 같다고 탄식한 것이다" 했다. 나는 말한다. 이 시의 뜻은 아마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닐 것이다. 대체로 도사道士가 신선을 구하나 신선을 얻지 못한 것을 풍자한 것일 뿐이다.

한창려韓昌黎(한유韓愈)의 시에, "장裝을 풀어서 연회의 자리를 마련한다(解裝具盤筵)"라고 했다. 주에 "해장解裝은 옷을 전당 잡히는 것이다"라고 했다. 내가 상고하여 보니 〈육가전陸賈傳〉에, "편대扁帶 속의 행장을 파니 값이 천금千金이다"라고 했다. 그가 행장行裝으로 휴대한 물건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해장을, 바로 옷을 전당 잡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온당하지 않다.

한창려의 조하시朝賀詩에 말하기를, "넓고 먼 궁궐의 높은 문에, 이름이 명부에 실려 그의 아내는 조하하네(滉蕩天門高 著籍朝厥妻)"라고 했다. 주에, "공公의 아내 여씨盧氏가 고평현군高平縣君에 봉작되어 세시歲時에 궁중에 들어가 조하朝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외명부外命婦가 매년 정초正初와 동지冬至에 참하參賀하는 것은 당나라의 제도이다. 그러나 "조궐처朝厥妻"라고 한 세 글자가 아정하지 못하다.

한시韓詩에 말하기를, "강릉성서江陵城西의 2월 말에 복숭아꽃은 보이지 않고, 오직 자두 꽃만 보이네(江陵城西二月尾 花不見桃惟見李)"라고 했다. 양성재楊誠齋가 말하기를, "늦게 벽락당碧落堂에 올라가 보니, 복숭아꽃은 모두 어둡고 자두 꽃만이 홀로 밝게 보였다. 비로소 이 시의 묘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했다.

16 후한後漢 때의 사람. 이름을 원遠이라고 했다. 벼슬이 중산대부中散大夫에 이르렀으나 뒤에 벼슬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 수도하여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마고麻姑를 불러 만나 보았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나는 말한다. 왕형공王荊公의 시에, "자두 꽃이 많으니 밤이 흰 비단처럼 밝고, 복숭아꽃이 모여 있으니 낮이 눈부시다〔積李兮縞夜 崇桃兮炫晝〕"라고 한 것도 또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복숭아꽃은 아직 피지 않고 자두 꽃이 먼저 피었거나 혹은 그곳에 마침 복숭아꽃은 없고 홀로 자두 꽃만이 있었던가를 말한 것 같다.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다.

한창려의 시에, "태화봉 머리 옥정玉井의 연꽃은, 꽃이 피니 지름이 열 길은 되고 배와 같다네〔太華峯頭玉井蓮 花開十丈藕如船〕"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윤희전尹喜傳》에 말하기를, "진인眞人이 각각 연꽃 위에 앉았는데 꽃 지름이 열 길이었다"라고 했다. 이 시의 용어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한창려의 유성남시遊城南詩에 말하기를, "불러일으키니 창은 완전히 밝았구나. 돌아가기를 재촉하나 해는 아직 서쪽에 기울지 않았네〔喚起窓全曙 催歸日未西〕"라고 했다. 황산곡黃山谷이 말하기를, "내가 아이 때에, 매번 이 시를 읽을 적마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더니, 나이 58세나 되어 비로소 환기喚起와 최귀催歸는 2가지의 새 이름인 것을 깨달았다. 최귀는 자규子規(두견새)이다. 환기는 그 소리가, 사람이 실을 물레에 감는 것 같다. 유독 봄철의 새벽에 운다"라고 했다. 《복재만록復齋謾錄》에는 말하기를, "고저산顧渚山 속에 새가 있는데, 매년 정 2월이 되면 춘기春起라는 소리를 낸다. 그래서 환춘조喚春鳥(봄을 부르는 새)라고 한다"라고 했다. 내 생각에는 환기와 최귀는 새의 참 이름이 아니다. 새소리가 춘기春起(봄에 일어나라)라고 하기 때문에 불러일으킨다는 뜻으로 환기喚起라 한 것이고, 자규의 소리는 불여귀不如歸라고 하기 때문에 돌아가기를 재촉한다는 뜻으로 최귀催歸라고 한 것이다. 시의 뜻은, 아마 일어나라고 부르건만 잠이 깨지 않고, 돌아가기를 재촉하건만 노느라고 아직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더욱 맛이 있을 것이다. 그 아래 글귀의 "무심한 꽃 속의 새가 다시 더불어 정을 다하여 우는구나〔無心花裡鳥 更與

盡情啼〕”라고 한 것을 보니 그럴 것 같다. 산곡山谷이나 복재復齋의 두 설은 아마 오히려 미진한 것 같다.

한창려의 시에, “어어아아魚魚雅雅”라고 말한 것이 있다. 《운부韻府》에서 말하기를, “물고기와 아오雅烏는 날아가거나 다닐 때에 모두 떼를 짓기 때문에 ‘물고기, 물고기, 까마귀, 까마귀’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시주詩註를 보니, “아오雅烏는 즉 초오楚烏(초나라 까마귀)이니 작고 배가 희다” 했다. 그렇다면 아오雅烏는 바로 초나라 까마귀의 이름이다. 《완위여편宛委餘篇》에는 말하기를, “오烏가 변해서 아鴉가 되고 아鴉가 변해서 아雅가 되었다”라고 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또 《고악부》의 〈주로朱鷺〉에는 “어이아魚以雅”라고 했다. 오烏는 옛날에는 아雅와 같은 뜻이었다. 〈주로곡朱鷺曲〉을 연주하는 위의威儀가 어어아아魚魚雅雅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한시韓詩에 말하기를, “젊은 때엔 새 사람 아는 것 기쁘지만, 늙으면 옛 친구 생각한다네〔少年樂新知 衰暮思故友〕”라고 했고, 이경李慶의 시에는, “취하면 세상일 가볍게 여기고, 늙으면 고향 사람 대견해 하네〔醉輕浮世事 老重故鄕人〕”라고 했다. 말이 모두 절실하다. 한漢나라 두현竇玄의 아내가 염가艶歌에서 말하기를, “옷은 새것이 싫지 않고, 사람은 옛 님이 싫지 않네〔衣不厭新 人不厭故〕”라고 하였는데, 산곡山谷의 시에는 말하기를, “사람을 오래 사귀었으면 마땅히 친해야 도리이고, 옷을 오래 입었으면 마땅히 기워야 도리일 것이다〔人故義當親 衣故義當補〕”라고 했다. 이것은 그 뜻을 뒤집어 말한 것이나 더욱 맛이 있는 것 같다.

한창려의 시에 말하기를, “여름의 회나무가 운둔雲屯(구름이 모인 것처럼 한데 많이 모인 것)을 이루었다〔夏槐作雲屯〕”라고 했다. 간재簡齋의 종죽시種竹詩에는, “푸른 구름이 십 리에 둔취屯聚했다〔蒼雲屯十里〕”라고 했고, 동파東坡의 시에는, “여

음汝陰 땅엔 늙은 전나무가 많아서 곳곳에 푸른 구름처럼 둔취하였네〔汝陰多老檜 處處屯蒼雲〕"라고 하였는데, 모두 한창려의 시에서 나온 것이다. 노소재盧蘇齋의, "구름처럼 둔취屯聚한 늙은 전나무 그늘이 어둠침침한 동네〔屯雲老檜陰陰洞〕"라고 한 것도 또한 이것을 인용한 것이다.

한퇴지韓退之의 분지시盆池詩에 말하기를, "밤중의 청개구리 잘도 알고 있네〔夜半靑蛙聖得知〕"라고 했다. 아마 연못이 이루어지자 개구리가 이미 왔기 때문에 썩 잘한다〔聖〕고 한 것일 것이다. 황산곡黃山谷의 시에, "이미 떠도는 벌이 잘 알게 되었구나〔已被遊蜂聖得知〕"라고 한 것은 곧 이것을 인용한 것이다.

한창려가 눈〔雪〕을 읊은 시에 말하기를, "잘못된 닭이 밤에 꼬끼오 운다〔誤鷄宵呃喔〕"라고 했다. 주에, "눈이 와서 밝기 때문에 닭이 잘못 밤이 새는 줄로 알고 꼬끼오 우는 것이다"라고 했다. 정호음鄭湖陰의 광릉관등시廣陵觀燈詩에, "붉게 장식한 누각에서 먼저 잘못 우는 닭소리를 듣는다〔朱樓先聽誤鷄鳴〕"라고 한 것은 아마 이 시에 근본이 있을 것이다.

한퇴지韓退之가 양국공주梁國公主의 만시挽詩에 말하기를, "용이가 엽적이 아닌데 도리어 금성의 먼지를 깔아 누르며 가네〔龍轜非厭翟 還輾禁城塵〕"라고 했다. 주에, "이轜의 음은 이而니 상거喪車이다"라고 했다. 반악潘嶽의 부賦에, "용이가 엄숙하게 새벽 일찍이 멍에 했다〔龍轜儼以星駕〕"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염적厭翟의 염厭은 입성入聲이다. 즉 엽이다. 《주례周禮》에, "왕후王后는 수레가 다섯이니, 둘째를 염적이라고 하는데, 꿩의 깃으로 장식한 수레다"라고 했다. 생각하건대 염적은 바로 왕후가 타는 것인데, 공주에게 염적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온당하지 않다. 용이龍轜의 이轜를 세속에서 이輀로 쓰는 것은 잘못이다.

한창려가 이우李于의 묘지墓誌에서, 차례로 약藥을 쓰다가 실패한 자의 일을 적

어서 세상에 대한 경계를 삼았는데 주 원외周員外에게 보낸 시에는 말하기를, “헤어진 뒤에 그대가 금단金丹을 전해 얻었다는 것을 알았네. 빌건대 그 의약醫藥을 가지고 병든 이 몸을 구해 주게나〔金丹別後知傳得 乞取刀圭救病身〕”라고 했다. 그의 말이 앞과 뒤가 같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백낙천白樂天의 시에 말하기를, “한퇴지가 유황을 복용하였으나, 한 가지 병은 지금까지 낫지 않았다〔退之服硫黃 一病訖不痊〕”라고 한 것은 아마 이것을 나무란 것일 것이다.

한시韓詩에는, “황혼에 방구方口로 배를 저어 간다〔黃昏榜方口〕”라고 했고, 유시柳詩에는, “밤에 배 저어가는 소리 계곡의 돌에 울린다〔夜榜響谿石〕”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방榜은 진선進船한다는 뜻이다. 사마상여司馬相如의 부賦, 〈방인가榜人歌〉의 방인은 곧 뱃사공이다. 《진서晉書》에는, “오나라의 방榜과 월나라의 배〔吳榜越船〕”라고 말했다. 이 방榜은 아마 배를 말한 것일 것이다.

한창려가 남해절도사南海節度使를 송별하는 시에 말하기를, “아시에는 용호가 모이고, 상일上日에는 마인이 온다〔衙時龍戶集 上日馬人來〕”라고 했다. 주에, “용호龍戶는 진주眞珠 캐는 사람이니, 남해에서는 이것을 단호蜑戶라고 한다”고 했다. 마치 진채陳蔡 등지의 우호牛戶 · 마호馬戶 · 강상江湘 등지의 귤유호橘柚戶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당唐나라 사람들은 정참庭參하는 것을 아衙라고 한다. 상일上日은 주註에 초하룻날이라고 했다. 두시杜詩에, “상일에 자리를 열고 방초를 생각한다〔開筵上日思芳草〕”라고 했다. 《남만전南蠻傳》에 말하기를, “마원馬援이 심읍尋邑의 만족蠻族을 토벌하였을 때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 수십 인을 상림象林의 남계南界에 머물러 있게 했다. 만인들이 그들을 마류인馬留人이라고 불렀다.” 마인馬人은 아마 이것을 인용한 것일 것이다.

당나라 유가劉駕의 시에 말하기를, “취해 향기로운 풀 속에 누웠더니, 해가 저문 뒤에야 술이 깨었네. 술병과 잔이 반은 기울어지고 엎어지고 하였으니, 손

이 간 지도 아마 이미 오랜가 보다. 꽃 꺾은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째서 꽃이 손에 있을까〔醉臥芳草間 酒醒日落後 壺觴半傾覆 客去應已久 不記折花時 何得花在手〕”라고 했다. 구양문충歐陽文忠의 시에, “때로는 취해서 냇가의 돌 위에 누우면, 푸른 산과 흰 구름은 베개가 되고 병풍이 되네. 꽃 사이에 새가 있어서 부르건만 깨지 않더니, 해가 저물고 산바람이 부니 저절로 깬다네〔有時醉倒臥溪石 靑山白雲爲枕屛 花間有鳥喚不覺 日落山風吹自醒〕”라고 했다. 구양공歐陽公의 시가 진실로 아름답다. 그러나 유가의 시에 비하면 떨어지는 것 같다. 당나라 시와 송나라 시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유자후柳子厚의 시에, “어옹이 밤에는 서쪽 언덕 바위 곁에서 자고, 새벽에는 맑은 상강湘江의 물을 긷고, 초나라 대나무를 때서 아침밥을 짓네. 연기가 사라지고 해는 돋았건만 사람 하나 안 보인다. 어기여차 뱃노래 한 곡조 부르니, 산도 물도 푸르기만 한데, 저 하늘과 맞닿은 강물을 바라보고 중류中流로 내려가노라면 바위 위에 무심한 구름만이 오락가락하는구나〔漁翁夜傍西巖宿 曉汲淸湘然楚竹 烟消日出不見人 疑乃一聲山水綠 回看天際下中流 巖上無心雲相逐〕”라고 했다. 동파東坡가 말하기를, “이 시는 뛰어난 데가 있다. 그러나 끝의 두 글귀가 없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이 옳다.

유자후柳子厚의 시에, “푸른 연잎에 밥을 싸 가지고 사람이 촌 저자로 가네〔綠荷包飯趁虛人〕”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언덕의 빈 터에 촌 저자〔材市〕를 열기 때문에 허虛라고 한 것이다.

장유張佑의 시에, “달이 올라오니 허시를 연다〔月上行墟市〕”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유문柳文에 또한 말하기를, “허소虛所라는 것은 영남嶺南의 촌 저자이다. 쉬는 때가 많기 때문에 허虛라고 한다. 대체로 방언方言인 것이다”라고 했다.

유자후柳子厚가 중승中丞을 따라 노소부盧小府의 들집을 지나면서 지은 시에 말하기를, “한가한 뜰에 약초를 심어서 국로國老를 맞이하고, 빈 집에서 단지를

열어 현인을 만나네〔蒔藥閑庭延國老 開樽虛室値賢人〕"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국로는 감초甘草이고, 현인賢人은 탁주이다. 대체로 좌석의 손님을 가리키는 뜻과, 감초·탁주를 가리키는 2가지 뜻이 있어서 아름답다. 《소설》에 새 집을 제목으로 한 시의 한 연구聯句가 있다. "다만 한 가지로 하여금 교부巧婦를 살게 할 뿐이고, 큰 집에 가빈이 축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但使一枝居巧婦 不須大廈賀佳賓〕"라고 했다. 교부는 비둘기이고, 가빈佳賓은 참새다. 이것은 "큰 집이 이루어지면 제비와 참새가 축하한다〔大廈成燕雀賀之〕"라는 말을 쓴 것이다. 누구의 작품인지 알지 못한다.

주경여朱慶餘의 시에, "신부방新婦房 어젯밤에 촛불을 멈췄더니 새벽을 기다려 창밖에서 구고舅姑(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문안드리네. 화장을 마치고 낮은 소리로 신랑에게 묻기를, 눈썹 그린 것 깊고 얕음이 유행에 맞아요, 안 맞아요〔洞房昨夜停紅燭 待曉窓前拜舅姑 粧罷低聲問夫婿 畫眉深淺入時無[17]〕"라고 했다. 이 시는, "부용꽃을 딸 때엔, 잎은 따지 마세요. 가지고 돌아가서 임에게 내 얼굴과 꽃이 어떤가 물어보게요〔摘取芙蓉花 莫摘芙蓉葉 將歸問夫婿 顔色何如妾〕"라고 한 글귀와 말뜻이 서로 비슷하다.

이익李益의 시에, "미풍微風이 늦도록 앉아 있는 나를 깨우쳐 창 앞에서 먼 생각에 잠긴다. 문을 여니 바람이 대나무를 움직여 고인故人이 오는가 의심하게 한다. 때로 가지 위의 이슬이 떨어져 섬돌 아래의 푸른 이끼를 조금 적신다. 다행히 한 방울 휘장 안에 떨어져 들어가 거문고의 먼지를 털어 버리네〔微風驚暮坐 臨牖思悠哉 開門風動竹 疑是故人來 時滴枝上露 稍霑階下苔 幸當一入幌 爲拂綠琴埃〕"라고 했다. 이 시의 전편을 보니, 오직 "개문풍동죽開門風動竹" 한 글귀가 좋을 뿐이다. 어렵다고 말할 만하다.

17 입시入時는 시속時俗에 맞음, 유행에 맞는다는 말. 무無는 부否와 같은 뜻이니, 유행에 맞는지 아닌지 묻는 말.

이익의 청효각시聽曉角詩에 말하기를, "가을바람이 불어와 〈소선우〉에 들어간다〔秋風吹入小單于〕"라고 한 글귀가 있다. 상고하여 보니, 〈소선우小單于〉는 가곡歌曲의 이름이다.

유우석劉禹錫의 시에 말하기를, "예좌는 고요하고 쓸쓸하며 먼지는 어두컴컴한데, 한쪽의 밝은 달이 안뜰에 어울린다〔猊座寂寥塵漠漠 一方明月可中庭〕"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불가에서 불좌佛座를 사자좌獅子座라고 한다. 사자의 다른 이름을 산예狻猊라고 하기 때문에 예좌猊座라고 한 것이다. 아마 온당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책에서는 혹은 예좌를 고좌高座(높은 자리)라고 썼다. 옳은 것 같다.

유몽득劉夢得의 시에, "오늘 밤에 처음으로 장악궁長樂宮의 종소리를 들었다〔今夜初聞長樂鐘〕"라고 한 글귀가 있다. 상고하여 보니, 최식崔湜이 강주사마江州司馬에서 양주자사襄州刺史로 임명되었는데, 시를 지어 말하기를, "아직 장락궁의 종소리가 들리고, 오히려 청문靑門(장안성長安城의 동남에 있는 문)의 나무를 알아볼 수가 있다〔猶聞長樂鐘 尙辨靑門樹〕"라고 했다. 비로소 유시劉詩가 여기에서 나온 것을 알겠다.

유우석劉禹錫의 시에 말하기를, "새 가사歌詞를 모두 불러도 좋아하는 이 보이지 않네〔唱盡新詞歡不見〕"라고 했다. 환歡은 좋아하는 사람을 말한 것으로, 《고악부》에는 많이 쓰고 있다. 가령, "좋아하는 이 이별한 뒤로〔自從別歡後〕"라든가, "또 좋아하는 이는 침수향을 만들었네〔歡作沈水香〕"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당시唐詩에 말하기를, "평명平明(해가 뜰 때) 삼종三鬉을 높다랗게 깎아 냈다〔平明剪出三鬉高〕"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운부군옥韻府群玉》에 말하기를, "당나

라 사람들은 갈기 깎은 말을 숭상했다. 갈기를 세 가닥이 되게 깎은 말〔三鬉〕을 삼화마三花馬라 하고, 갈기를 다섯 가닥이 되게 깎은 것을 오화마五花馬라고 했다.” 이백李白의 시에 오화마라고 한 것은 아마 이것일 것이다.

왕감주가 말하기를, “〈연창궁사連昌宮辭〉에, ‘백관대장이 기설을 피한다〔百官隊仗避岐薛〕’라고 하였는데, 송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기왕岐王과 설왕薛王 두 왕은 물고物故(죽음)한 지 이미 오래인데, 원미지元微之가 고사 인용을 잘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소동파蘇東坡의 〈연창궁사첩連昌宮辭帖〉에는 기로岐路로 쓰고 있다”라고 했다. 이 설, 즉 기로岐路라고 한 설이 옳은 것 같다.

원미지元微之가 유채춘劉采春에게 준 시에 말하기를, “다시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 애태우던 곳에서 가사를 골라 능히 망부가를 부르네〔更有怨人腸斷處 選詞能唱望夫歌〕”라고 했다.
《패해稗海》에 말하기를, “망부가望夫歌는 즉 나분곡羅嗊曲이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채춘采春은 창부倡婦 노래 부르는 여인이다. 그가 저작한 나분곡羅嗊曲 여러 편은 지금 당시집唐詩集 속에 있다. 금릉金陵에 나분루羅嗊樓가 있기 때문에 나분곡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원미지元微之의 영남시嶺南詩에, “규도規度 밖에 성신이 벌여 있다〔規外布星辰〕”라고 하고, 자신이 주해하기를, “교주交州 · 광주廣州 사이에서 남극南極은 점점 높아지고 북극은 낮다. 규도規度 밖의 별이 지극히 많다. 오요五曜(다섯 별)와 같은 것은 모두 《성경星經》에 들어 있지 않다. 《삼재도회三才圖會》를 상고하여 보니 말하기를, “서역의 남쪽에 지중해地中海가 있으니, 북극과 남극의 정반正半인 것을 나타낸다”라고 했다. 즉 “천지天地의 한가운데가 여기이다”라고 했다.

원진元稹이 낙천樂天에게 보낸 시에 말하기를, “오직 마땅히 포숙[18]만이 치우치게 나를 어여삐 여겨 스스로 증삼이 살인하지 않았다 보증하였네[19]〔惟應鮑叔偏憐我 自保曾參不殺人〕”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원진이 정승으로 있을 때에 이상李賞이 고발하기를, “원진이 자객刺客과 결탁하여 배도裴度를 찔렀다”라고 했다. 죄상을 조사하였으나 증거가 없었다. 낙천樂天이 일찍이 글을 올려서 사리事理를 변정辨正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나는 말한다. 이 연구聯句는 고사의 인용이 정묘절실精妙切實하다. 다만 연憐은 본래의 글자가 아닐 것이니 지知로 고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유우석劉禹錫의 증일본승시贈日本僧詩에 말하기를, “몸은 너나 없는 것인데 어찌 고향을 생각하는가. 마음이 진여眞如[20]를 깨달으면 불경은 읽지 않는다〔身無彼此那懷土 心會眞如不讀經〕”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금강경金剛經》에 말하기를, “참〔眞〕된 것은 변하지 않고, 같은 것은 다르지 않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마음에 변하거나 달라지는 일이 없다”라고 했다.

육지陸贄의 금중송시禁中松詩에는 말하기를, “5그루의 나무가 부럽지 않다〔不羨五株樹〕”라고 했고, 이상은李商隱의 오송역시五松驛詩에는 말하기를, “5그루 소나무는 보이지 않고 수레에 실은 섶〔輿薪〕이 보인다”라고 했다. 아마 유신庾信

18 포숙아鮑叔牙를 일컫는 말.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대부大夫. 관중管仲의 친한 벗. 관중이 말하기를, “나를 낳은 이는 부모이고, 나를 알아주는 이는 포숙鮑叔이다”라고 했다. 그만큼 관중과 포숙은 지기知己의 사이였다. “관포지교管鮑之交”라는 말은 우정의 깊고 지기知己의 사귐을 표현하는 말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지기지우知己之友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

19 증삼은 증자曾子이다. 일찍이 증자와 성명이 같은 사람이 있어서 살인한 것을, 어떤 이가 증자의 어머니에게 증삼이 살인했다고 알리니, 증자의 어머니는 내 아들은 살인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고 태연했다. 2번째 사람이 또 증삼이 살인했고 알렸으나 역시 믿지 않았다. 그러나 3번째 사람이 증삼이 살인했다고 하니, 증자의 어머니는 베 짜던 북을 던지고 담을 넘어 달아났다고 하는 고사.

20 불법佛法의 본체本體. 불변不變 · 불역不易 · 평등平等 · 절대絶對의 진리. 진실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만유萬有의 본성.

의, "산에 5그루의 소나무를 봉작封爵했다(山封五樹松)"라고 한 시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상소잡기緗素雜記》를 보니 말하기를, "《사기史記》에 소나무를 오대부五大夫에 봉작했다고 하였는데, 오대부는 진秦나라의 벼슬 이름이다. 〈진본기秦本記〉에, '오대부五大夫 능陵이 조趙나라를 치다'라고 했고, 또 《범수전范睢傳》에는, '오대부 관綰을 보내어 위魏나라를 치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했다. 지금 5그루의 소나무(五株松)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이하李賀의 시에 〈오립송가五粒松歌〉가 있고, 이의산李義山의 시에는, "날이 따뜻하니 소나무의 푸른 갈기가 새롭다(松暄翠粒新)"라고 한 것이 있다. 《소설》에 말하기를, "입粒이라고 한 것은 갈기(鬣)이다. 모든 솔잎은 2가닥인데 고려에서 생산되는 것은 이삭마다 5갈기씩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의 해송海松을 말한 것일 것이다.

이하李賀의 시에, "검은 구름이 성을 누르니, 성이 무너지고자 하고, 갑옷 빛이 해에 빛나니 금비늘이 열린다(黑雲壓城城欲摧 甲光曜日金鱗開)"라고 하였는데, 왕형공王荊公이 나무라기를, "이미 검은 구름이 성을 눌렀다고 말하였는데, 어떻게 갑옷의 광채가 그렇게 빛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양신楊愼은 형공荊公의 말을 그렇지 않다고 했다. 나의 생각에도 양신의 설이 옳은 것 같다. 상고하여 보니, 《당류함唐類函》에 말하기를, "성안에 검은 구름이 있으니, 크기가 화성火星과 같았다. 이름을 군정軍精이라고 한다. 침범하지 말라"라고 했고, 또 채염蔡琰의 시에 말하기를, "황금 갑옷이 햇빛에 빛난다(金甲曜日光)"라고 한 것은 대체로 광채와 빛이 성대盛大한 것을 말한 것이다. 이 시의 말은 아마 이것에 근본이 있을 것이다.

이장길李長吉의 시에 말하기를, "귀갑병풍이 취한 눈에 무늬를 짓는다(龜甲屛風

醉眼纈〕”라고 했다. 《동명기洞冥記》를 보니, “한무제漢武帝가 신명대神明臺에 기거하는데, 대臺 위에는 금상金牀(금으로 만든 평상)과 상석象席과 귀갑 병풍을 설치해 놓았다”라고 했다. 《술이기述異記》에 말하기를, “구갑향龜甲香은 계향桂香의 좋은 것이다”라고 했다.

〈왕애궁사王涯宮詞〉에 말하기를, “새로 잠에서 깨어나 옛 꿈을 생각하다가, 사람을 보고는 꿈을 잊어버리고 승상하다고 말한다〔新睡起來思舊夢 見人忘却道勝常〕”라고 했다. 육방옹陸放翁이 말하기를, “승상勝常이란 말은 지금 부인들이 만복萬福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했다. 편지 같은 것에서, 존후승상尊候勝常이라고 쓰는 것은 대체로 속어俗語이다. 승勝은 당연히 평성平聲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이장길李長吉의 시에 말하기를, “풍향의 늦은 꽃이 고요하다〔楓香晚花靜〕”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풍향楓香은 나무 이름으로 백양白楊 같고, 수지樹脂가 있으며 향기가 난다.

양여사楊汝士가 배진공裴晉公의 연석宴席에서 지은 시[21]의 연구聯句에 말하기를, “옛날 난정에는 염질이 없더니, 이때 금곡金谷에는 고인高人이 있네〔昔日蘭亭無艶質 此時金谷有高人〕”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문장의 오랜 성가聲價는 난액鸞掖[22]에 머물렀고, 도리桃李[23]의 새로운 그늘은 이정鯉庭[24]에 있구나〔文章舊價留鸞

21 이 시는 당唐나라의 양사복楊嗣復이 문생門生을 거느리고 아버지 양어릉楊於陵을 위하여 집에서 잔치를 베푸니 참석했던 양여사楊汝士가 축하하여 지은 것으로 《역옹패설》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배진공裴晉公의 연석宴席이라 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

22 문하성門下省의 이칭異稱. 양사복楊嗣復이 중서문하평장사中書門下平章事를 지냈기에 말한 것.

23 추천하거나 양성한 문하門下의 현사賢士.

24 아버지의 훈계를 받는 뜰. 주인 양사복이 문생門生을 거느리고 그의 아버지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말한 것.

掖 桃李新陰在鯉庭〕"라고 하니, 원진元稹과 백거이白居易가 굴복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사汝士의 이 작품이 모두 《당시선唐詩選》에 들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유우석劉禹錫의 〈태랑가泰娘歌〉에 말하기를, "달이 구름 속에 떨어짐이 이때로부터 시작하였네〔月墮雲中從此始〕"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사영운謝靈運의 시에, "어여쁘다. 누구 집 여인이 흐르는 물에 흰 발을 씻는고〔可憐誰家婦 臨流洗素足〕"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다만 묻노니 정情이 어떠한가, 달이 구름 속에 나아가 떨어지네〔但問情若何 月就雲中墮〕"라고 했다. 아마 이것을 인용한 것일 것이다.

유우석의 시에, "향기 사라진 남국에 미인이 모두 없어지더니, 원망이 봄바람 속에 들어가 꽃다운 풀이 많구나〔香消南國美人盡 怨入東風芳草多〕"라고 했다. 임방任昉의 《술이기述異記》에 말하기를, "초楚나라에 궁인초宮人草라는 풀이 있는데, 모양이 금등金登과 같고 매우 기운이 왕성하다. 세속에 전하는 말에, 초영왕楚靈王 때에 궁녀 수천 명이 외롭고 쓸쓸함을 원망하며 궁중에 갇힌 채 죽은 자들이 있었다. 그들을 장사 지내니 뒤에 무덤 위에 모두 이 풀이 났다고 한다. 유장경劉長卿의 〈춘초궁시春草宮詩〉에, '오히려 비단 치마 빛을 지닌 채 푸르고 푸르게 초나라 사람을 향하네〔猶帶羅裙色 青青向楚人〕'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했다.

장적張籍의 시에 말하기를, "촉蜀나라 손이 남쪽으로 가서 벽계에 제사 지내네〔蜀客南行祭碧鷄〕"라고 했고, 또 〈송도사귀촉시送道士歸蜀詩〉에 말하기를, "오직 청옥첩青玉牒(하늘에 제사하는 제문)을 갖고 홀로 벽계봉에 서겠네〔唯持青玉牒獨立碧鷄峯〕"라고 했다. 지리도地理圖를 조사하여 보니, 금마金馬 · 벽계산碧鷄山은 모두 운남雲南에 있는데, 곧 한인漢人이 망제望祭하는 곳이다. 또 한선제漢宣帝 때

에 방사方士(방술가方術家)가 말하기를, "익주益州의 금마 · 벽계에 제사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왕포王褒를 보내어 제사 지내게 했더니 촉나라에 이르러서 죽었다고 한다. 아마 왕포는 촉나라 사람이므로 "촉나라 손"이라고 말한 것일 것이다. 제벽계祭碧鷄의 제祭 자를 어떤 이는 듣는다는 청聽자로 쓰는데 아마 아닐 것이다.

장문창張文昌의 시에 말하기를, "육궁六宮의 재인才人(여관女官의 이름, 궁녀의 하나)들이 대수수大垂手로 임금의 천년만년의 장수長壽를 축원하네(六宮才人大垂手 願君千年萬年壽)"라고 했고, 왕한王翰의 시에는, "가며 가며 소수수小垂手를 추니, 해가 위천의 북쪽에 저무네(行行小垂手 日暮渭川陽)"라고 했다. 《고악부》를 상고하여 보니 대수수 · 소수수 · 독요수獨搖手는 모두 춤의 이름이라고 했다.

장적張籍의 〈양주사凉州詞〉에 말하기를, "무수한 방울 소리를 흔들고 물가 자갈밭을 지나가네. 아마 흰 피륙을 싣고 안서安西로 가나 보다(無數鈴聲搖過磧 應馱白練到安西)"고 했다. 내가 중국의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니, 말머리에 방울을 달고 수십, 수백 명씩 떼를 지어 다닌다. 아마 도적을 경계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를 보니, 당唐나라 때부터 이미 그러하였던 것 같다. 소동파蘇東坡가, "나태성騾馱聲(나귀에 짐 싣고 지나가는 소리)"이라고 한 것도 아마 이것일 것이다.

장적張籍의 사詞에 말하기를, "문 앞에 봄새가 수풀 쪼는 소리 나는데, 붉은 비단 겹옷을 아직 다 못 꿰맸네. 오늘 아침은 사일社日(입춘立春과 입추立秋 후 5번째 무일戊日)이기에 바느질을 그치고, 일어나 붉은 앵두나무 아래를 향해 걸어가네(門前春鳥啄林聲 紅夾羅襦縫未成 今朝社日停針線 起向朱櫻樹下行)"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소설》에 말하였기를, "봄과 가을의 사일社日에는 짜거나 땋거나 하지를 않으니 이것을 기작忌作(일하는 것을 꺼린다는 뜻)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한굉韓翃의 시에, "문 밖의 푸른 못엔 봄에 말을 씻고, 다락 앞엔 붉은 촛불로

밤에 사람을 맞이한다〔門外碧潭春洗馬 樓前紅燭夜迎人〕”라고 했다. 안수晏殊가 이것을 본받아서 말하기를, “문 밖의 푸른 버들엔 봄에 말을 매고, 평상 앞 붉은 촛불엔 밤에 호로呼盧(도박의 일종) 놀이를 하네〔門外綠楊春繫馬 床前紅燭夜呼盧〕”라고 했다. 육방옹陸放翁이 말하기를, “안수의 시의 기격氣格이 본 글귀보다 오히려 더 좋다”라고 했다. 나는 믿지 않는다.

고황顧況의, 신라新羅 사신을 송별하는 시詩에 말하기를, “수염과 모발은 새로운 묶음을 이루고, 인삼은 옛 싹이 길었구나〔鬚髮成新髻 人蔘舊苗長〕”라고 했다. 아마 우리나라 풍속에 실올로 수염을 땋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인 것 같다. 인삼도 또한 신라의 생산이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당시唐詩에, “급하고 바빠서 할 말 다 못하였을까 다시 두려워, 행인行人은 곧 떠나려 하는데 또 봉함을 연다〔復恐怱怱說不盡 行人臨發又開封〕”라고 한 것을 세상에서 절창絶唱이라고 한다. 상고하여 보니, 반희班姬의 〈도소부擣素賦〉에 말하기를, “편지는 봉했다가 거듭 쓰고, 상자는 이미 닫았다가 다시 매네〔書旣封而重題 笥已緘而更結〕”라고 했다. 비로소 여기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다.

당시唐詩에 말하기를, “고궁에는 오직 나무 장생이 있다〔故宮惟有樹長生〕”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장생長生은 나무 이름이니, 즉 만년지萬年枝라는 것이다. 한漢나라의 진전晉殿 앞에 많이 있었던 것이다. 《서경잡기西京雜記》에 말하기를, “한무제漢武帝의 상림원上林苑에 만년萬年 장생수長生樹가 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왕건王建의 기수궁綺繡宮을 지나는 시詩에 말하기를, “무제武帝 오지 않으니 붉은 소매[25]도 다하였네〔武帝不來紅袖盡〕”라고 했다.

25 미인美人의 소매. 변하여 여자를 일컫는 말로 쓰임.

한무제漢武帝의 고사故事를 상고하여 보니, “무제를 장사한 뒤에 평소에 총애하던 궁인들이 모두 무릉원茂陵園에 나갔는데, 첩여婕妤(한대漢代 궁중의 여관女官의 이름) 이하를 임금이 애무愛撫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했다. 곽광霍光이 듣고 다시 궁녀 500명을 내보냈더니, 이로 인하여 드디어 끊어졌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무제武帝가 붕崩하였으나 능히 형체를 나타내어 여자를 애무했다”라고 했다.
옛사람은 시를 지을 때에 고사의 인용을 구차하게 하지 않는다. 말뜻이 맛이 있음이 이와 같다.

왕건王建의 궁사宮詞에 말하기를, “비파는 먼저 녹요의 머리를 누른다(琵琶先抹綠腰頭)”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녹요綠腰는 곡조의 이름이니, 또한 육요六幺라고도 한다. 백낙천白樂天의 〈비파행琵琶行〉에, “처음에는 예상곡霓裳曲을 타고 뒤에는 육요곡을 탄다(初爲霓裳後六幺)”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왕건王建의 궁사宮詞에 말하기를, “스스로 노래와 춤이 남보다 나은 것을 안다. 임금이 안에서 나오시는 말고삐를 자주 맞이하네. 칙명을 받들어 궁중에서 원院을 수리하니 지의(담요 · 돗자리 따위)와 염액(발. 주렴)이 일시에 새로워진다(自知歌舞勝諸人 邀勒君王出內頻 奉剌宮中修理院 地衣簾額一時新)”라고 했다. 둘째 글귀를 어떤 사람은, “은총을 입어 자주 출내出內 하지 못함을 한탄한다恨未承恩出內頻)”라고 쓰는데 아마 아닐 것이다. 이 시를 보니 지의地衣라는 명칭이 또한 오래된 것이다.

왕건의 궁사에, “사생射生인 궁녀가 붉은 단장을 쉬고 새 활을 얻어 잡아 각각 시위를 당기네(射生宮女宿紅粧 把得新弓各自張)”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잠깐 한 쪽에서 사냥하고 말을 돌려 돌아오니, 꿩과 토끼가 말안장에 주렁주렁 드리웠네(旋獵一邊還引馬 歸來雉兎繞鞍垂)”라고 하였으며, 또 〈어렵시御獵詩〉에는, “새로

운 명령을 내려, 나인은 오직 오리만을 쏘면서 길이 천자天子를 따라 상원上苑의 동쪽에서 놀게 하였네〔新敎內人唯射鴨 長隨天子苑東遊〕"라고 했다. 이것을 보니 두시杜詩에, "수레 앞에 재인才人이 활과 살을 휴대하고, 한 살에 바로 한 쌍의 나는 새를 떨어뜨리네〔輦前才人帶弓箭 一箭正墜雙飛翼〕"라고 한 글귀에, 소위 재인이라고 한 것은 궁중 여관女官의 이름이다.

왕건의 궁사에 말하기를, "나무 머리와 나무 바닥에서 남은 붉은 꽃을 찾으니, 한 조각은 서쪽에 날고 한 조각은 동쪽에 나네. 이것은 복숭아꽃이 스스로 열매 맺기를 탐내기 때문인데, 잘못 사람으로 하여금 오경의 바람을 한탄하게 하네〔樹頭樹底覓殘紅 一片西飛一片東 自是桃花貪結子 錯敎人恨五更風〕"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시는 아마 궁인의 얼굴빛이 쇠하여 총애를 잃었다는 뜻을 말한 것으로서, 지목하는 데가 있어서 지은 것 같다.

왕건의 궁사에 말하기를, "봉래궁의 정전이 운오雲鼇[26]를 눌렀는데, 붉은 해가 푸른 바다 물결 위를 처음 오르네. 다섯 문[27]이 환히 열려 멀리 북쪽을 바라보니, 자황색柘黃色 고귀한 빛, 누른빛 새 의가衣架와 어상御床이 높아라〔蓬萊正殿壓雲鼇 紅日初生碧海濤 開着五門遙北望 柘黃新㼚御床高〕"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항㼚이란 글자는 《훈몽자회訓蒙字會》에 나오는 것으로서, 의가衣架라는 뜻이다. 운서韻書에는 항笐으로 쓰고 혹은 항桁으로 썼는데, 음은 '항'이니 거성去聲이다. 여러 책에서 "자황신파어상고柘黃新帕御床高"라고 쓴 것이 있는데, 파帕은 수건手巾이다. 아마 옳지 않을 것이다.

26 구름 덮인 오산鼇山. 오산이란, 커다란 바다의 자라가 등에 지고 있고, 신선이 살고 있다는 바다 가운데의 다섯 큰 산이다. 《열자列子》에 나오는 이야기.

27 천자天子의 5문門이니, 노문路門 · 응문應門 · 치문雉門 · 고문庫門 · 고문皐門을 말한다. 제후는 3문門이라고 한다.

왕건의 궁사에 보면, “산단山丹의 붉은 꽃술의 가루를 거두어 얻어, 거울 앞에서 사향麝香[28]의 누른빛을 씻어 버린다(收得山丹紅蘂粉 鏡前洗却麝香黃)”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운부군옥韻府群玉》에 말하기를, “화주華州에 투녀묘妬女廟(질투가 많은 여신의 사당)가 있는데, 산단山丹이나 백합百合을 갖고 지나가는 이가 있으면 반드시 우뢰와 바람과 번개와 우박으로 그것을 뒤흔들어 버린다”라고 했다. 《본초本草》에 말하기를, “백합으로서 꽃이 붉은 것을 산단이라고 이름한다. 대체로 산단은 부인들이 사용하여 장식粧飾으로 하는 것이니, 후세의 금봉화金鳳花 따위와 같은 것이다. 금봉화는 송나라 때부터 처음 있었다”고 했다.

왕건의 궁사에 말하기를, “남몰래 임금께 아뢰어 입월入月을 알리고, 사람을 불러서 서로 벗하여 치마의 뒷자락을 씻네(密奏君王知入月 喚人相伴洗裙裾)”라고 했다. 의서醫書를 보니, 출산의 만월滿月을 입월入月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한 입월은 월사月事를 말한다. 《요산당외기堯山堂外紀》에 “도곡陶穀이 봉명사신奉命使臣으로 강남江南에 가게 되었을 때에, 한희재韓熙載가 자기 집 기녀妓女를 보내어 시중들게 하였더니, 아침이 되어 편지로 사절하기를, ‘무산의 고운 자질姿質[29]이 처음 이르렀으나 노을이 조도鳥道(새가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좁고 험한 길)를 침노했고, 낙포洛浦의 요염[30]한 자태가 스스로 왔으나, 달이 홍구鴻溝에 가득하다(巫山之麗 質初臨 霞侵鳥道 洛浦之妖姿自至 月滿鴻溝)’라고 했다. 온 조정이 그 말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기녀를 불러 물으니, ‘이날 저녁에 갑자기 세탁을 해야 할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말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28 사향노루의 배꼽과 불두덩의 가운데 있는 포피선包皮腺을 쪼개어 말린 것. 흥분 · 회생약回生藥 · 향료香料로 씀.

29 초楚나라 회왕懷王이 일찍이 고당高唐에 노닐다가 낮잠을 자는데 꿈에 무산巫山의 신녀神女를 만나 동침하였다. 떠날 때 말하기를, “첩은 무산에 살고 있으며,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됩니다”라고 했다는 고사가 있다. 여기에서는 신녀를 인용하여 미인의 아름다움을 말한 것.

30 복희씨伏羲氏의 딸 복비宓妃가 낙수洛水에 빠져 죽어 수신水神이 되었다고 한다.

왕건의 궁사에, “태의가 전날 난방(방을 따뜻하게 한다는 뜻)하러 왔었다〔太儀前日煖房來〕”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소설》에 말하기를, “마을과 거리의 풍속에, 새로 옮겨 살러 온 자가 있으면 이웃 사람들이 돈을 추렴하여〔醵金〕 대접할 준비〔治具〕를 해 가지고 가서 모여 노는 것을 난옥煖屋이라고 이름한다”고 했다. 아마 상말일 것이다. 각醵이라는 글자는 술값을 추렴해 마시는 것이다.

왕건의 궁사에, “나인들이 서로 이어 꽃핀 것을 알리니, 편안히 보다 오라는 임금의 허가를 얻었네. 우연히 오현의 붉은 비단 견대肩袋를 가진 이를 만나서 의춘원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돌아오네〔內人相續報花開 准擬君王便看來 逢着五絃紅繡袋 宜春院裡按歌回〕”라고 하고, 또, “13살에 처음으로 벽공후(악기의 이름)를 배워서 제자의 이름 가운데 낙점落點을 받아 머물게 되었네. 어제 교방敎坊에 새로 들어가서 한 방의 궁녀와 함께 머리를 빗었다오〔十三初學擘箜篌 弟子名中被點留 昨日敎坊新進入 並房宮女與梳頭〕”라고도 했다.
상고하여 보니, 당唐나라의 《교방기敎坊記》에 말하기를, 기녀로서 의춘원宜春院에 들어간 자를 내인內人이라고 한다. 평민平民으로서 얼굴이 아름다워서 뽑혀 나인으로 들어간 자에게는, 비파琵琶 · 오현五絃 · 공후箜篌를 교습시킨다. 추탄가搊彈家(손으로 퉁기는 현악의 연주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오현五絃도 또한 악기의 이름이다.

왕건의 궁사에 “한식寒食에 나인들이 백타白打 놀이를 벌이는데 창고 속에서 먼저 금전을 나누어주네〔寒食內人長白打 庫中先與撒金錢〕”라고 했다. 위장韋莊의 청명시淸明詩에 말하기를, “상상上相이 한가롭게 백타 놀이 돈을 나눈다〔上相閑分白打錢〕”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백타를 소동파蘇東坡는 친다는 뜻이라고 했고, 방옹放翁은 도박賭博인 것 같다고 했다. 《패사稗史》에서는 궁중의 유희라고 했다. 이것은 모두 제 나름대로 생각해 하는 말이다. 내가 상고하여 보니, 왕건의 궁사에 또 말하기를, “한식寒食에 궁녀들이 보타구 놀이를 한다〔寒食宮人步

打毬)”라고 했고, 후희시侯喜詩에는 말하기를, “한식의 타구打毬(공을 치고 노는 유희)가 가석하다(可惜寒食毬)”라고 했다. 아마 당나라의 풍속에, 한식에는 타구 놀이를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 《소설》에 당희종唐僖宗이 보타步打를 잘했다 운운한 것이 바로 타구打毬가 아닌가 생각한다.

왕건의 궁사에 말하기를, “갑자기 금여(금으로 장식한 수레)가 월파(달 그림자가 비치는 물결)를 향하네(忽地金輿向月陂)”라고 했고, 조당曹唐의 시에는, “옥동이 가만히 편지를 자랑한다(玉童私地誇書札)”라고 했다. 이 홀지忽地니, 사지私地니 하는 지地 자는 아마 어록에 특지特地니, 임지恁地니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어조사일 것이다.

왕건의 궁사에, “명주옷을 싫어하여 입지 않고, 경용을 즐겨 입는다(嫌羅不着愛輕容)”라고 했다.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경용輕容은 꽃무늬 없는 얇은 비단이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지금의 책에는 “혐라불착색경수嫌羅不着索輕繡”이라고 했다. 또 왕형공王荊公의 시에, “봄 적삼으로 아직 방공方空은 입지 않았다(春衫猶未着方空)”라고 했다. 방공은 곡사縠紗(고운 비단, 주름진 비단)이니 이 이름이 《한서漢書》에 나온다. 공空은 공孔이니, 즉 지금의 방목사方目紗(모난 구멍이 있게 짠 비단)이다.

왕건의 궁사에 말하기를, “전두가 먼저 내원內園의 집에 알린다(殿頭先報內園家)”라고 했고, 화예부인사花蘂夫人詞에는 말하기를, “해가 정오正午가 되니 전두가 선색하는 조서를 선포했다(日午殿頭宣索詔)”라고 했다. 전두殿頭는 아마 궁중의 여관女官의 명칭일 것이다. 조詔를 어떤 이는 회膾 자로 쓴다. 정오正午에 전두가, 임금이 회膾를 찾는다고 선포한다는 뜻으로, 그것이 옳을 것 같다.

왕건의 〈북망행北邙行〉에 말하기를, “누구의 집 옛 비석인지, 글자가 없어진

것을, 뒷사람이 거듭 가져다가 연월年月을 쓰네〔誰家古碑文字滅 後人重取書年月〕라고 했다. 아마 실사實事일 것이다. 《장서葬書》를 보니, 중국 사람들은 남의 묘를 파 버리고 그 자리에 몰래 장사하는 일이 많다. 그런 까닭에 사안謝安의 무덤 같은 것도 또한 시흥왕始興王을 장사한 곳으로 되었다. 그러니 다만 비석만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왕건의 목단시牡丹詩에 말하기를, "분 빛은 깊고 붉음이 윤이 나고, 살빛은 퇴홍退紅이 교태스럽다〔粉光深紫膩 肉色退紅嬌〕"고 했고, 왕정백王貞白의 창루시倡樓詩에는, "용뇌 향을 물에 타서, 사람을 시켜 퇴홍을 물들이게 한다〔龍腦香調水教人染退紅〕"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퇴홍退紅은 지금의 분홍粉紅과 같다.

왕건의 온천궁시溫泉宮詩에 말하기를, "궁전 앞과 내리內裏에는 온천탕이 각각 따로 있는데, 한 개마다 백옥부용이 피었네〔宮前內裏湯各別 每箇白玉芙蓉開〕"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명황明皇이 화청궁華淸宮에 있으니, 안녹산安祿山이 옥으로 만든 용龍과 오리와 기러기와, 돌로 만든 연꽃을 바쳤는데, 탕湯 가운데에 진열하라고 명령했다. 그 돌연꽃이 지금까지 있다고 한다. 또 말하기를, "무황武皇은 신선이 되고 왕모王母는 가니 산닭이 낮에 궁중의 나무에서 우네〔武皇得仙王母去 山鷄晝鳴宮中樹〕"라고 했다. 아마 무황으로 명황에 비유하고, 왕모로 귀비貴妃에 비유한 것이다. 대체로 당나라의 시인들은 명황을 한무제漢武帝에 비유한 것이 많다. 두시杜詩에 "무황이 변방을 여는 뜻이 그치지 않았다〔武皇開邊意未已〕"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우승유牛僧孺의 《주진행기周秦行記》에 말하기를, "향기로운 바람이 인도하여 대라천大羅天[31]에 이르러, 월세계와 구름의 계단에서 동선洞仙[32]에게 절하네〔香風引

31 상상想像의 천계天界. 하늘 위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 신선의 세계라는 뜻으로 쓰기도 한다.
32 신선, 선인仙人. 신선은 동굴洞窟에 즐겨 살기 때문에 생긴 말이라고 한다.

到大羅天 月地雲階拜洞仙〕"라고 했다. 동파시東坡詩에, "달세계 구름 계단에서 한 술단지로 만유漫遊하니, 옥노玉奴가 마침내 동혼후東昏侯를 저버리지 않았네〔月地雲階漫一樽 玉奴終不負東昏〕"라고 했다. 이것은 아마 우승유의 고사를 인용한 것일 것이다. 옥노는 옥아玉兒로 쓰는 것이 옳다.

당시唐詩에 말하기를, "호금과 비파와 강적羌笛(오랑캐들이 부는 피리)〔胡琴琵琶與羌笛〕"이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운부韻府》에 말하기를, "비파琵琶는 본래 오랑캐가 말 위에서 타는 악기이니, 다른 이름을 호금胡琴이라고 한다"고 했다. 《당악지唐樂志》에, "문종조文宗朝에 내신內臣 정중승鄭中丞이 호금을 잘 탄다. 호금은 즉 비파이다"라고 했다. 이 시에서는 이에 호금과 비파를 2가지로 나누었으니 무슨 까닭일까.

당唐나라 궁사宮詞에, "금자물쇠에 녹이 나서 걸려 열리지 않는다〔金鎖生衣掣不開〕"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고악부》에, "머리털이 흐트러져도 감히 빗지 못한다. 분가루 떨쳐 누른 덮개가 생길까 하여〔頭亂不敢理 粉拂生黃衣〕"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왕건의 추일시秋日詩에, "입추일立秋日이 지난 뒤로 그다지 뜨겁지 않아서, 점차로 여름옷이 몸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깨닫는다〔立秋日後無多熱漸覺生衣不着身〕"라고 한 것과는 의衣의 뜻이 같지 않다. 위의 두 시구에 나오는 의衣는 이끼〔苔〕, 혹은 녹이라는 뜻이고, 왕건의 시에서 나오는 생의生衣는 여름옷이란 뜻이다.

백낙천白樂天의 〈장한가長恨歌〉에 말하기를, "아미산 아래에 다니는 사람 적다〔峨眉山下少人行〕"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동파지림東坡志林》에 말하기를, "아미산은 가주嘉州에 있으니, 당명황唐明皇이 촉蜀으로 거둥한 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했다. 옛사람도 이러한 곳에서 또한 점검點檢을 잘못해서 그렇게 한 것일까. 양신楊愼은 말하기를, "아미산하峨眉山下라고 한 것은 마땅히 검

문산하劍門山下라고 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어떤지 알 수 없다.

백낙천白樂天의 〈자경시自警詩〉에 말하기를, “누에가 늙어서 고치를 지어도 제 몸을 보호하지 못하고, 벌은 굶주리면서 꿀을 빚어도 남의 좋은 일일 뿐이네. 모름지기 알아야 할 것은, 늙어서 집안일을 걱정하는 자는 아마 두 벌레처럼 헛고생일 것을〔蠶老繭成不庇身 蜂飢蜜熟屬他人 須知年老憂家事 恐似二蟲虛苦辛〕”이라고 했다. 이 시는 홀로 스스로를 경고할 뿐 아니라, 또한 세상을 경계함에 넉넉할 것이다.

〈장한가長恨歌〉에 말하기를, “양씨楊氏 집에 딸이 있어서 처음 장성하였으나, 깊은 안방에 길러 있어 남이 알지 못했다〔楊家有女初長成 養在深閨人未識〕”고 했다. 양귀비는 본래 수왕壽王의 짝이었는데, 시의 말이 이러하다. 또 한황漢皇의 이름을 빌어서 말하고, 감히 바로 지적하지 않았다. 시인의 충효忠孝함을 볼 수 있다.

백낙천白樂天의 시에, “건장하게 또 한가하게 간다〔聞健且閑行〕”라고 하고, 또, “원림園林은 또한 한가롭게 두어두는 것이 필요하다〔園林亦要聞閑置〕”라고 했다. 장적張籍의 시에는, “날이 개어서 옛 꽃다운 담요를 쬔다〔聞晴▩曝舊芳茵〕” 했고, 왕건王建의 시에는, “몸은 아직 강건하나 머리가 희어지고, 이가 빠져서 쫓아갈 수 없다〔聞身强健且爲 頭白齒落難追〕”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개었으니 모름지기 달을 봐야겠구나. 건강하기에 또 다락에 오른다〔遇晴須看月 聞健且登樓〕”라고 했다. 이러한 문聞 자의 나온 곳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운부군옥韻府群玉》에는 말하기를, “문한聞閑은 문조聞早 따위와 뜻이 같으니, 아마 진趁 자와 같은 뜻일 것이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도서道書에 말하기를, “일찌감치 청한을 즐기기만 못하다〔不如聞早樂淸閑〕” 했고, 또 “신체가 강건하다〔聞身强體健〕” 운운한 것이 이것이다.

백낙천白樂天의 시에, "바람은 늦가을 나무에 우는데, 늙은 몸이 술을 대하니, 취한 얼굴 모습은 서리 맞은 잎과 같구나. 붉기는 하다마는 봄은 아니라네〔吟風抄秋樹 對酒長年身 醉貌如霜葉 雖紅不是春〕"라고 했다. 말이 비록 비근하고 상스러우나 도리어 매우 절실한 느낌을 준다.

백낙천의 시에 말하기를, "만병을 모두 치료할 수 있으나, 오직 하나 늙는 것을 고치는 약은 없구나〔萬病皆可治 唯無治老藥〕"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속박물지續博物志》에 말하기를, "《비록 신약神藥이 있더라도 젊은 나이만 못하다〔雖有神藥 不如少年〕"라고 했다. 즉 이와 같은 뜻이다.

백낙천의 시에 말하기를, "주량酒量이 큰 사람은 단술을 싫어하고, 재주가 높은 사람은 작은 시詩를 비웃는다〔戶大嫌甛酒 才高笑小詩〕"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당唐나라 사람들이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을 대호大戶라 하고, 적게 마시는 사람을 소호小戶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백거이白居易가 황보감皇甫監에게 희롱하여 답하는 시에, "차가운 밤에 권하는 술을 그대는 반드시 마셔야 하느니, 그대는 외롭게 잠자는 70된 몸이기에, 사람이 아니면 몸이 더워지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충분한 한 잔이면 사람보다 더 더워지리〔寒宵勸酒君須飮 君是孤眠七十身 莫道非人身不暖 十分一盞煖於人〕"라고 했다. 즉 《곡례曲禮》에서, "80세가 되면 사람이 아니면 더워지지 않는다〔八十非人不暖〕"라고 한 뜻이다.

백낙천의 시에 말하기를, "장차 제8질을 열려 하니, 하늘에서 타고난 수명을 다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行開第八秩 可謂盡天年〕"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이미 제7질을 열었으니, 손가락을 꼽아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已開第七秩 屈指幾多人〕"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예禮에, "나이 80이 되는 날에는 질록秩祿이 있

다고 했다. 그런 까닭에 80살을 8질秩이라고 한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10년을 1질이라고 한다. 그런 까닭에 세상에서 70세가 넘으면 8질을 연다'고 했다"라고 하였다.

백낙천이 이절동李浙東에게 주는 시에 말하기를, "나는 공문空門(불교佛敎)을 배우고 신선神仙을 배우진 않으니, 아마 그대의 이 말은 잘못된 소문일 것이오. 바닷속 신선의 산은 내가 돌아갈 곳이 아니고, 돌아간다면 반드시 도솔천으로 돌아가겠지〔吾學空門非學仙 恐君此說是虛傳 海山不是吾歸處 歸則須歸兜率天〕"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피서록避暑錄》에 말하기를, "군직君稷이 회창會昌 초년에 절동관찰사浙東觀察使가 되었을 때에 말하기를, '한 사람 바다의 상인商人이 바람을 만나 바다 가운데에 있는 한 큰 산에 표착漂着했더니, 그곳 궁전의 방榜을 보니 봉래蓬萊라고 쓰여 있고, 곁에 한 원院이 있는데 매우 엄중하게 자물쇠가 채워진 채 꽃과 수목이 뜰에 가득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백낙천원白樂天院인데 그는 지금 중국에 있고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했다"라고 한다. 그런 까닭에 시의 뜻이 이와 같은 것이다. 도솔천兜率天은 불가佛家에서 말하는 욕계육천欲界六天의 하나이다.

〈장한가長恨歌〉에 말하기를, "밤비에 방울의 애끊는 소리를 듣는다〔夜雨聞鈴斷腸聲〕"고 했다. 《양비외전楊妃外傳》을 보니, "명황明皇이 촉蜀에 거둥하였을 때에, 장마가 한 달을 넘었는데, 잔도棧道(산골짜기에 높이 건너질러 놓은 다리)의 중간에서 방울소리를 듣고 귀비貴妃를 슬프게 생각하여 〈우림령곡雨霖鈴曲〉을 지었다"고 했다. 당시唐詩에, "한 가락 임령곡霖鈴曲에 눈물이 만 줄일세〔一曲霖鈴淚萬行〕"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방울이란 대체로 말의 목에 달아 놓는 방울이다. 혹은 처마에 달아 두는 풍경 따위와 같은 것을 말한 것이다. 지금 세상에서 물거품을 방울이라고 한다. 이것은 방언方言으로서 아마 옳지 않을 것이다.

백낙천의 시에 말하기를, "앵두는 번소의 입처럼 예쁘고, 버들은 소만의 허리처럼 가냘프다(櫻桃樊素口 楊柳小蠻腰)"라고 했다. 번소樊素는 노래를 잘 불렀고, 소만小蠻은 춤을 잘 추었다. 그런 까닭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상고하여 보니, 번소는 〈양류지사楊柳枝詞〉라는 노래를 잘 불렀으므로 사람들이 가곡歌曲의 이름으로써 그의 이름을 삼았다고 한다. 백낙천이 늙은 뒤에 그를 소실小室에서 내보냈으니 소동파의 시에, "전년에 안방 문을 열고 유지柳枝를 내쳤네(前年開閤放柳枝)"라고 했고, 또, "양지가 낙천을 이별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不學楊枝別樂天)"라고도 했다. 유지柳枝는 즉 번소樊素이다.

〈비파행琵琶行〉에 말하기를, "곡조가 그치면 항상 선재善才(당나라 때 비파琵琶를 잘 뜯던 사람의 이름)를 탄복하게 했고, 화장을 하고 나면 번번이 추랑秋娘의 질투를 받았지요(曲罷常教善才服 粧成每被秋娘妬)"라고 했다. 〈비파행琵琶行〉의 서序를 보니 말하였기를, "본래 장안長安의 창녀倡女(노래 부르는 여인)로서 목穆·조曹 두 선재에게 비파를 배웠다"라고 했다. 《악부잡록樂府雜錄》에 말하기를, "조선재曹善才는 악기 스승의 이름이다"라고 했다. 추랑은 이덕유李德裕가 관서關西를 진수鎭守할 때에 사추랑謝秋娘을 위해 〈망강남사望江南詞〉를 지은 것이 이것이다. 《당시해唐詩解》에서는 두추랑杜秋娘의 일을 인용하였는데, 이것은 오吳나라의 여자이니, 아마 잘못일 것이다.

〈비파행〉에 "신나무 잎과 갈대꽃에 가을이 슬슬하다(楓葉荻花秋瑟瑟)"라고 말하였는데, 양신楊愼이 말하기를, "슬슬瑟瑟은 본래는 보물의 이름이니 그 빛이 푸른 것이다. 이 시에서는 가을빛이 푸른 것을 말한 것이다. 평하는 많은 이들이 소슬蕭瑟(쓸쓸한 모습)하다는 뜻으로 풀이하는 것은 잘못이다." 백낙천의 시에, "'한식寒食 때 푸르디푸른 풀이 봄바람에 슬슬하게 물결친다(寒食靑靑草 春風瑟瑟波)' 했고, 또 "한 가닥 비낀 해가 물속을 비치니 반강半江은 슬슬하고 반강은 붉다(一道斜陽照水中 半江瑟瑟半江紅)"라고 했다. 이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했다. 장초張初는 말하기를, "슬슬瑟瑟을 바람소리로 해석하는 이가 많다. 유공간劉公幹의 시에, '슬슬한 골짜기의 바람(瑟瑟谷中風)'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야 어찌 푸른빛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내가 상고하여 보니, 양무제梁武帝의 시에 "쓸쓸하게 사니 칠정七淨[33]을 초월한다(瑟居超七淨)"라고 했다. 슬瑟은 삭索과 같으니, 소삭蕭索과 소슬蕭瑟은 아마 동일한 말일 것이다.

백낙천의 시에, "금 다리미로 구김살을 다리고 칼로 무늬를 끊는다(金斗熨波刀剪文)"라고 했고, 온정균溫庭筠의 시에는, "푸른 물결은 다림질한 것 같아서 근심하는 창자를 끊는다(綠波如熨割愁腸)"라고 하였으며, 육노망陸魯望의 시에, "물결이 평평한 것이 다림질하여도 그만 못할 것이다(波平熨不如)"라고 했다. 《설문說文》을 보니, "울熨은 불을 담아 가지고 비단의 구김살을 펴는 것이니, 화두火斗(불을 담는 말)라고도 한다. 두시杜詩에, '미인美人이 차분한 마음으로 첩자帖子를 평평하게 다림질한다(美人細意熨帖平)'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했다.

백낙천의 시에 말하기를, "푸른 산에 눈을 드니 삼천 리 고향은 먼데, 백발은 꼭 50살 된 사람이로구나(靑山擧眼三千里 白髮平頭五十人)"라고 했고, 또 "불은 꺼지고 등불도 다한, 날 샌 뒤에 문득 보니 꼭 60세 된 사람이로구나(火銷燈盡天明後 便見平頭六十人)"라고 했다. 평두平頭는 아마 속어俗語일 것이다. 또 《고악부》에 "평두 노자가 광우리와 상자를 가지고(平頭奴子持筐箱)"라고 한 것과, 이백李白의 시에, "평두 노자가 큰 부채를 흔드니(平頭奴子搖大扇)"라고 한 평두노자平頭奴子(노비奴婢라는 뜻)는, 왕반산王半山의 시에, "평두는 모두 초나라의 제품이다(平頭均楚製)"라고 한 평두와 뜻이 다르다.

백낙천의 시에 말하기를, "명예라는 것은 공기公器(사유私有가 아니고 공중公衆의

33 불가佛家의 용어. 7가지 청정한 행行. 계정戒淨 · 심정心淨 · 견정見淨 · 단의정斷疑淨 · 분별정分別淨 · 행정行淨 · 열반정涅槃淨.

물건)이니 많이 가지지 말아야 하고, 이득이란 것은 몸의 재앙이니 작게 구해야 할 것이다. 오직 사람은 포과匏瓜(바가지)와 달라서 먹지 않을 수는 없으나, 대체로 편의하게 쉴 수 있으면 만족한 것이다(名惟公器無多取 利是身災合小求 唯異匏瓜難不食 大都只足便宜休)"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백낙천이 일찍이 말하기를, "옛사람의 말에, 이름이란 것은 공중의 것이니 많이 갖지 말라고 했다. 내가 전자에 세상의 명성을 훔친 것이 이미 많다. 또 세상의 부귀를 훔치고자 한다면, 조물주가 어찌 겸하여 주기를 좋아하겠는가"라고 했다. 공公과 같은 이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백낙천의 시에, "사람의 집은 반은 배에 있고, 들의 물은 땅에 많다(人家半在船 野水多於地)"라고 했다. 요합姚合은 말하기를, "역로는 물가에 닿아 있는 데가 많고, 사람의 집들은 반은 구름에 있다(驛路多臨水 人家半在雲)"라고 했고, 송나라의 조사수趙師秀는, "들의 물은 땅에 많고, 봄의 산은 반은 구름이로구나(野水多於地 春山半是雲)"라고 했다.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못한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조사수는 완전히 백낙천의 시를 그대로 썼다.

백낙천의 시에, "푸른 물결은 동서남북의 길이고, 붉은 난간은 390개 다리로구나(綠浪東西南北路 紅闌三百九十橋)"라고 하여 십+ 자를 평성平聲(십十을 시라고 읽는다)으로 쓰고 있다. 백낙천의 시를 살펴보면 글자를 이렇게 사용한 것이 많다. 번천樊川의 시에도, "남조南朝의 480곳의 절(南朝四百八十寺)"이라고 하여 십+을 또한 평성으로 쓰고 있다.

우곡于鵠의 시에 말하기를, "가슴에 헛되게 의남초宜男草[34]를 찼구나. 소랑에게 시집갔더니 그이는 멀리 놀러 다니는 것만 좋아하네(胸前空帶宜男草 嫁得蕭郎愛遠遊)"라고 했고, 최교崔郊의 시에는, "문까지 나와서 맞이하여 한 번 들어가니

34 풀이름. 훤초萱草. 임신부가 이 풀을 차고 있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규문閨門(안방) 안은 깊기가 바다 같은데, 이때부터 소랑은 아주 남이랍니다〔候門一入深如海 從此蕭郎是路人〕”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사문옥설事文玉屑》에 말하기를, “소랑은 즉 소사蕭史이다. 후세에 여자의 남편을 일컫는 말로 통용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당唐나라 장교張喬는 김이어金夷魚가 봉명사신奉命使臣이 되어 본국에 돌아가는 것을 송별하는 시에 말하기를, “바다를 건너와서 선적에 이름이 올랐고, 집에 돌아가는 데에는 중국의 의용儀容을 갖추었네. 외로운 배 머무를 언덕이 없는데, 만 리에 별이 있어 따라가네〔渡海登仙籍 還家備漢儀 孤舟無岸泊 萬里有星隨〕”라고 했다. 이어夷魚는 신라新羅 사람 같은데, 우리나라 역사에 상고詳考할 기록이 없다.
이것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신라 때에 당나라에 들어가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아마 매우 많았던 것 같다.

번천시樊川詩에 말하기를, “두구가 점점 머리를 내놓는 2월 초순〔豆蔻稍頭二月初〕”이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두구화豆蔻花는 이삭이 되어서 말려가지고 나오는데, 처음에는 부용芙蓉 같다. 이삭의 머리는 심홍색深紅色이다가 잎이 점점 펴지고 꽃이 점점 나오면서 빛이 점점 묽어진다. 2월 초순이라면 아직 꽃이 피지 않은 때니 아마 소녀少女에 비유한 것일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두구화의 다른 이름은 함태화含胎花이니, 나이 어려서 잉태한 것을 말한 것이다”라고 한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두목杜牧의 〈화청궁시華淸宮詩〉에 말하기를, “한 사람의 기마병이 티끌을 일으키며 달려오니 비자妃子가 웃네. 이것이 여지를 가지고 온 것임을 아는 사람

없네〔一騎紅塵妃子笑 無人知是荔支來[35]〕”라고 했다.
《묵객휘서墨客揮犀》에 말하기를, “명황明皇이 10월에 여산驪山에 거둥했다가 봄이 되어 환궁하였으니 일찍이 여지荔支가 익는 6월에 여산에 있은 일이 없다. 시의 가사의 뜻이 비록 아름다우나 사실을 그르치고 있다”라고 했다. 지금 진홍陳鴻의 《장한전長恨傳》을 보니 말하였기를, “천보天寶 10년에 여산궁驪山宮에 피서했다”라고 했고, 또 《태진외전太眞外傳》에도 말하기를, “천보 14년 6월 1일에 화청궁에 거둥하다. 그해 11월에 안녹산安祿山이 배반하다”라고 했다. 그러니 시에서 한 말이 옳다.

번천시樊川詩에 말하기를, “결국은 청루에서 박행하다는 이름을 얻었을 뿐이다〔贏得靑樓薄倖名〕”라고 했다. 박행薄倖하다는 말은 아마 인정과 사랑에 박하다는 말일 것이다. 소동파의 시에, “첩의 다정함은 바람에 꽂이 어지러이 떨어지는 것 같고, 낭군의 박정함은 풀에 이슬이 마르듯 하네〔多情妾似風花亂 薄倖郎如露草晞〕”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번천시樊川詩에 말하기를, “군왕의 1장丈 2척尺의 수장殳杖을 얻지 못하여〔不得君王丈二殳〕”라고 했다.
〈고공기考工記〉를 보니, “수殳는 길이가 1심尋 4척이다” 하고, 주에, “8척을 1심이라고 하는데 1심 4척이면 즉 1장 2척이다”라고 했다. 그러니 척尺1이니 척尺5니 장丈6이니 하고 말하는 것은 모두 이것과 비슷한 것이다.

번천시에 말하기를, “돌아와 표범의 태를 삶으니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없다〔歸來煮豹胎 厭飫不能飴〕”라고 했다. 운서韻書를 상고하여 보니, 이飴는 엿〔餳〕이라

35 당唐나라의 양귀비楊貴妃가 여지荔枝라는 과일을 즐겨 먹으므로, 부주涪州로부터 말을 교대로 달려서 7일 만에 장안長安에 도달하게 했다. 그 때문에 인마人馬가 많이 길에서 쓰러져 죽고 백성들은 매우 곤고困苦했다고 한다. 여지래荔枝來란, 그렇게 해서 여지가 온다는 말이다.

고 했다. 《심괄필담沈括筆談》에, "이飴를 여기에 쓴 것은 잘못이다"라고 한 것은 그 말이 옳다. 다만 《습유기拾遺記》에, "위명제魏明帝 때에 곤명국昆明國에서 수금오嗽金烏라는 영이靈異한 새를 바쳤는데 진주眞珠로 길렀다〔飴以眞珠〕"라고 했고, 《고악부》에는, "국과 밥이 일시에 익었는데 누구를 먹일지 알지 못하겠다〔羹飯一時熟 不知飴阿誰〕"라고 했다.
또 《유양잡조酉陽雜俎》에는 말하기를, "어린애를 기르는 데에는 노천露天에 거처할 수 없다〔飴小兒不可露處〕"라고 했다. 그러니 이飴 자를 먹는다는 데 쓴 것도 또한 출처가 있다.

두목杜牧의 〈화청궁시華淸宮詩〉에 말하기를, "노래와 피리소리 천추절千秋節을 축하하는데, 누대에는 8월이 서늘하다〔歌吹千秋節 樓臺八月凉〕"라고 했다. 《당서唐書》를 찾아보니, 현종玄宗은 8월 5일에 탄생하여 그날을 천추절로 했다.
인군人君의 생일을 절節로 정하는 것이 현종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송경宋璟의 하표賀表에 말하기를, "달은 중추仲秋(음력 8월)이고 날은 단오이다〔月惟仲秋 日在端午〕"라고 했다.
아마 옛날에는 모든 달의 5일을 단오端午라고 통칭했던 것 같다.

번천시에, "봉황이 하늘 밖에 있어 골수骨髓를 얻기 어려운데, 속현교續弦膠(신선의 약을 조합하는 법)를 아는 이 없다〔天外鳳凰難得髓 無人解合續弦膠〕"라고 했다. 《십주기十洲記》를 보니, "신선은 봉황새의 부리와 기린의 뿔을 삶아서 속현교를 만든다"라고 했다. 두시杜詩에 말하기를, "기린의 뿔과 봉황의 부리를 세상에서는 알지 못한다〔麟角鳳嘴世莫識〕"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그렇다면 봉황새의 골수라고 한 수髓 자는 아마 부리라는 취嘴의 잘못이 아닐까 한다.

번천시에 말하기를, "붉은 옷은 떨어져 다하고 그윽한 향기마저 쇠잔한데, 잎 위의 가을빛에 흰 이슬 차갑구나〔紅衣落盡暗香殘 葉上秋光白露寒〕"라고 했다. 붉은

옷이라고 한 것은 아마 연꽃일 것이다. 조하趙嘏의 시에, "붉고 고운 것이 반쯤 여니 울타리의 국화가 깨끗하고, 붉은 옷이 떨어져 다하니 물가의 연꽃이 근심한다(紫艶半開籬菊淨 紅衣落盡渚蓮愁)"라고 한 것도 또한 이것이다. 다만 반개半開와 낙진落盡은 대對가 마땅하지 않다.

두목杜牧이 개원사開元寺를 제題한 시詩에 말하기를, "높고 낮고 높고 낮은 가운데 바람이 송계나무에 둘렀네(高下高下中 風繞松桂樹)"라고 했다. 《당시품휘唐詩品彙》에는, "높고 높고 낮고 낮은 가운데에 바람이 계송수桂松樹에 둘렀네(高高下下中 風繞桂松樹)"라고 했다. 《국어國語》를 상고하여 보니, 자서子胥가 말하기를, "높은 곳은 더욱 높게 하고, 낮은 곳은 더욱 낮게 하여 백성들을 고소姑蘇에서 피폐하게 한다(高高下下[36]以 罷民於姑蘇)"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두목지杜牧之의 〈궁인시宮人詩〉에 말하기를, "10년에 한 번 꿈을 얻어 티끌 세상에 돌아갔더니, 붉은 끈은 오히려 팔을 맨 비단으로 봉한 채 있네(十年一夢歸塵世 絳縷猶封繫臂紗)"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진晉나라 무제武帝가 서인庶人의 여자 10명을 뽑아 붉은 비단을 그들의 팔에 매어 주었다고 한다. 이 시는 아마, 궁녀가 10년 만에 놓여나왔으나 팔에 매 둔 비단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니, 그가 아직 임금을 모신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번천樊川의 〈화청궁시華淸宮詩〉에 말하기를, "우러러 조각한 헌함의 그림자를 엿보고도 오히려 붉은 곤룡포의 광채를 생각하네(仰窺雕檻影 猶想赭袍光)"라고 했다. 자포赭袍라고 하였으니, 붉은빛으로 의심하게 된다. 상고하여 보니, 당唐나라 초기에는 수隋나라의 제도를 따라서 항상 황포黃袍를 입다가, 뒤에 점차 적황색赤黃色을 사용했다. 그런 까닭에 자황赭黃이라고 했다. 비로소 이 시의 용어가 이것에 근본이 있는 것을 알겠다. 자포赭袍라고 한 것은 자황포赭黃袍를

36 높은 산 위에 다시 높은 누각을 짓고, 낮은 곳에 다시 못을 파고 수로水路를 만들어 더욱 낮게 함.

생략한 글일 뿐이다.

번천시樊川詩에, "노어鱸魚(농어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가 새로 익었는데 강동江東을 떠나는구나[鱸魚新熟別江東]"라고 했다. 익었다고 한 숙熟 자가 매우 새롭다. 상고하여 보니 《운부韻府》에 말하기를, "글단契丹(거란)에는 소와 말도 익는 때가 있어서, 남쪽 지방의 누에치는 것과 같다[牛馬有熟時 如南方養蠶也]"고 했다.

번천시樊川詩에 말하기를, "벼슬은 의구한데 살쩍에 흰 털이 많구나[頭銜依舊鬢絲多]"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육방옹陸放翁이 말하기를, "선조選曹에서 보직補職을 추천할 때에는 먼저 옛 벼슬 이름을 갖추 쓰고, 다음에 후보로 추천하는 벼슬을 그 뒤에 적어서 새것과 옛것으로 하여금 서로 연결되게 한다. 그런 까닭에 관함官銜이라고 한다. 또한 두함頭銜이라고도 한다"라고 했다.

번천시에 말하기를, "삼가 말하거니와 늙어가니 점점 일이 없어지는구나. 일이 점점 많아지는 중년이 되고 싶어라[祗言旋老轉無事 欲到中年事轉多]"라고 했다. 후산后山의 시에는, "늦게야 서화書畫가 진정 유익함을 알겠구나. 앞으로 올 세월이 많지 않을 것이 한스럽다[晩知書畫眞有益 却恨歲月來無多]"라고 했다. 이 두 시를 생각할 때마다, 사람으로 하여금 슬퍼하고 탄식하게 한다. 최간이崔簡易(최입崔岦)와 신현옹申玄翁이 평상시에 후산后山의 이 글귀를 즐겨 낭송朗誦한 것은 아마 느낀 바가 있어서일 것이다.

번천시에, "낙유원 위에서 소릉昭陵을 바라본다[樂遊原上望昭陵]"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낙유원樂遊原이란 것은 한선제漢宣帝의 침묘寢廟가 있는 곳이고, 소릉昭陵은 당태종唐太宗의 능陵이다. 목지牧之가 아마 스스로 한선제나 당태종의 시대를 만나 크게 출세하지 못하고 나가서 지방의 군수郡守가 되었다고 상심하여 말한 것일 것이다.

번천시에, “아무가 돌아가니 달이 밝구나[阿鶩歸來月正明]”라고 했다. 목鶩은 무鶩로 쓰는 것이 옳다.
《위사魏史》를 보니, 순유荀攸가 죽을 때에 뒷일을 종유鍾繇에게 부탁했다. 종유가 아무阿鶩를 시집보내 주어서 처리를 잘했다고 한다. 아무阿鶩는 아마 순유의 첩의 이름일 것이다. 돌아간다고[歸] 한 것은 시집가는 것을 말한 것이다. 왕조汪藻가, 어떤 사람이 첩을 사서 병들어 누운 것을 희롱하는 시에 말하기를, “아무가 그대를 번거롭게 하고 시집갈 것을 근심하지 말라[莫愁阿鶩煩君嫁]”라고 한 것도 또한 이 일을 인용한 것이다.

번천시에, “모두들 청산에 돌아가는 게 좋다고 말하네. 하지만 청산엔 몇 사람이나 돌아갈 수 있었던고[盡道靑山歸去好 靑山能有幾人歸]”라고 했다. 그것을, “수풀 아래에서 어찌 일찍이 한 사람이나 볼 수 있었던가[林下何曾見一人]”라고 한 글귀에 비교하면 이것이 더 좋다.

옛 사람이, “두목杜牧에게는 잠을 많이 자는 버릇이 있다”라고 말했다. 번천시를 상고하여 보니 말하였기를, “평생에 잠을 넉넉히 잔 곳은, 운몽택의 남쪽 고을이다[平生睡足處 雲夢澤南州]”라고 했고, 또 말하였기를, “그윽한 사람이 본래 잠이 많은데, 그 위에 한 단지 술을 잔질해 비웠으니[幽人本多睡 更酌一樽空]”라고 했다. 또《고일서古逸書》에는, “두목杜牧이 일찍이 남에게 말하기를, ‘술을 즐기고 잠을 좋아하는 것은 그 버릇이 이미 고질이 되었다’고 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번천시에 말하기를, “정이 많으니 도리어 아주 정이 없는 것 같다. 다만 술 단지 앞에서 웃음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달을 뿐일세. 밀로 빚은 촛불에 마음이 있는가, 도리어 이별을 애석하게 여겨 사람 대신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새우네[多情却似摠無情 惟覺樽前笑不成 蠟燭有心還惜別 替人垂淚到天明]”라고 했다. 고

금을 통하여 정든 사람을 이별한 시는 많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처럼 그 정상을 묘사한 것은 없다. 아마 소두小杜가 이러한 일에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능히 곡진하게 그 미묘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번천시에, "호상운 깨어지니 바다와 하늘이 멀다〔護霜雲破海天遙〕"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겨울하늘에 새벽 가까울 때면 늙은 잉어 비늘 같은 구름〔老鯉斑雲〕이 점점 합하여 그늘을 지으면 반드시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그것을 호상천護霜天(서리를 보호하는 하늘)이라고 한다. 늙은 잉어 비늘이라고 한 것은 하늘에 가득한 구름의 큰 조각들이 비늘 같다고 하여 한 말이다.

번천시에, "서자西子(서시西施)가 고소대姑蘇臺에서 내려와 1척의 배를 타고 치이鴟夷[37]를 쫓아갔네〔西子下姑蘇[38]一舸逐鴟夷〕"라고 했다. 고금의 문인들이 드디어 이것을 고사로 인용하게 되었다. 상고하여 보니, 《묵자墨子》에는 말하기를, "서시西施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물에 침몰시켰다"라고 했고, 《오월춘추吳越春秋》에서는 말하기를, "오吳나라가 망하니 월越나라가 서자西子를 강물에 띄워서 치이鴟夷를 따라가 몸을 마치게 했다"라고 했다.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띄웠다〔浮〕고 한 것은 침몰시킨 것으로, 말을 반대로 한 것이다. 오자서伍子胥를 참소하여 죽게 한 일에는 서시西施가 유력하였으므로 그를 물에 빠져 죽게 하여 오자서의 충성을 갚게 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치이鴟夷를 따라 마치게 했다고

37 여기에서는 오자서伍子胥를 가리킨 말. 오吳나라의 충신 오자서가 오왕吳王에게 죽임을 당하여 치이鴟夷에 넣어 강물에 띄워져 버렸다고 한다. 치이는 쇠가죽으로 만든 올빼미 모양을 한 가죽 주머니로, 술을 넣는 그릇이다. 뒤에 월越나라의 모신謀臣 범려范蠡가 벼슬을 버리고 제齊나라에 가서 스스로 치이자피鴟夷子皮라고 변명變名했다고 한다. 일설에 오자서를 죽게 한 데에 자신의 계략이 개재하였으므로 그 죄책감에서 치이에 넣어져 강물에 던져진 오자서를 생각하고 치이자피, 또는 치이자鴟夷子라고 하여 자신의 이름을 고쳤다고 한다.

38 고소대姑蘇臺. 고소산 위에 있다. 오吳나라 임금 부차夫差가 월越나라를 깨뜨리니 월왕이 미인 서시西施를 바쳤다. 부차가 그를 매우 총애하여 고사산에 고소대를 쌓으니 높이가 300장丈이었으니, 오왕은 서시와 거기에서 술잔치와 유락에 빠졌다고 한다.

한 것이다. 목지牧之가 치이鴟夷를 범려范蠡라고 한 것은 상고詳考하지 않았고 지나쳤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또 상고하여 보니, 오왕吳王이 오자서의 시체를 가져다가 치이鴟夷에 넣어서 강물에 띄웠다고 한다. 이 띄웠다는 부浮는 서시를 강물에 띄웠다고 한 부浮와 같은 뜻이다. 즉 침沈의 반대 표현이다. 《패사稗史》의 말이 그럴 것 같다.

번천시에 말하기를, “삼산三山(삼신산三神山)에 조회朝會 간 것이 아마 오래지 않을 것이다. 타녀姹女(소녀少女)가 창가에서 우포를 짜네〔三山朝去應非久 姹女當窓織羽袍〕”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도경道經에 말하기를, “하상차녀河上姹女가 불을 얻으면 날아간다. 타녀姹女는 진홍眞汞(수은)이다”라고 했다. 《본초本草》에 말하기를, “수은水銀의 이름은 타녀姹女이다. 다른 이름을 홍汞이라고도 하는데, 주사朱砂 속의 액체이다”라고 했다. 또 운서韻書에 말하기를 “타姹는 미녀美女이다”라고 했다. 번천의 시에서 말한 타녀는 수은을 말한 것이 아니고, 다만 미녀를 가리켜 한 말이다.

당시唐詩에, “자리 위에 의전이 오는구나〔席上意錢來〕”라고 했다. 상고하니, 의전意錢은 돈치기 유희이니, 한漢나라 〈양기전梁冀傳〉에 나온다. 시속時俗에서 탄전攤錢(돈치기)이라 하고 사의射意라고도 한다. 두시杜詩에서, “대낮에 고랑高浪 안에서 돈치기 한다〔白晝攤錢高浪中〕”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장우張祜의 시에, “고국을 멀리 3,000리나 떠나와 깊은 궁중에서 20년을 살았네. 한 소리 〈하만자何滿子〉를 부르고 두 줄 눈물이 임금 앞에 떨어지네〔故國三千里 深宮二十年 一聲何滿子 雙淚落君前〕”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당무종唐武宗이 병이 위독하매 맹재인孟才人이 노래와 젓대로 곁에 친밀하게 모셨다. 임금이 눈짓하여 말하기를, “내가 살지 못할 것이다. 너는 어떻게 하려느냐”라고 하니, 재인이 울면서 말하기를, “청컨대 따라 죽게 해 주소서”라고 하여, 드디

어 한 가락 〈하만자〉를 노래하고 나서 숨이 급해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한다. 이 시의 말은 아마 이 일을 기술한 것 같다. 〈하만자〉는 악부樂府의 가곡歌曲 이름이니, 본래는 사람의 이름이다.

장우張祜의 시에 말하기를, "지금까지 풍속이 여산 아래에서 촌 피리가 오히려 〈아람퇴阿濫堆(당唐나라 현종玄宗이 지은 피리 곡명曲名)〉를 분다(至今風俗驪山下 村笛猶吹阿濫堆)"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당나라 때에 여산驪山에 새가 있었으니, 이름을 아람퇴라고 했다. 명황明皇이 옥피리를 사용하여 그 소리를 채취하고 다시 가곡의 이름으로 하였으니, 또한 안람퇴鴳濫堆라고도 한다.

당시唐詩에, "길고桔槹[39]에 봉화가 오르니 저녁연기가 날린다(桔槹烽上暮烟飛)"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변방에서 흙으로 대臺를 만들고, 대 위에 길고를 설치하여, 길고의 머리 위에 마른 풀을 매어 둔다. 외구外寇가 침입하면 불을 질러서 높이 치켜들어 봉화烽火로 삼는 것이다. 봉烽을 어떤 이는 봉峯으로 쓴다. 아마 잘못일 것이다.

장효표章孝標가 신라로 돌아가는 김가기金可紀를 송별하는 시에 말하기를, "당나라의 과거에 급제하고 당나라의 발음으로 말하더니, 해를 바라보매 처음으로 고향을 생각하네(登唐科第語唐音 望日初生憶故林)"라고 했다. 당나라 심분沈汾의 《속신선전續神仙傳》을 보니, "날아 올라간 16인 중에 김가기라는 자가 있으니, 신라 사람으로서 빈공진사賓貢進士이다"라고 했다. 《태평광기太平廣記》 가운데에도 또한 이 일이 자세히 실려 있어서, 신선 된 행적이 매우 기이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의 사적이 전하지 않으니 애석하다.

39 기둥을 세우거나 입목立木을 이용해 위에 긴 나무를 걸치고 한쪽 끝에 돌이나 쇠뭉치 등 무거운 것을 달고 끝에 나무를 달아 잡아당기면 한쪽이 높이 올라가게 만든 장치. 본래는 두레박틀이다.

《진사晉史》에 말하기를, "어떻게 생긴 노구가 이런 아이를 낳았는가〔何物老嫗 生寧馨兒〕"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영형寧馨"이란 말은 "이와 같은"과 같은 말이다. 영寧은 마땅히 거성去聲으로 읽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唐詩에, "몇 사람이나 웅맹하기가 이와 같을 수 있을까〔幾人雄猛得寧馨〕"라고 하여, 영寧을 평음平音으로 쓴 것은 무슨 까닭인가.

당시唐詩에, "남은 노을이 물을 쭈그리니 고기비늘 같은 물결이로구나. 엷은 해가 구름을 불태우니 달걀빛 하늘이네〔殘霞蹙水魚鱗浪 薄日烘雲卵色天〕"라고 했다. 소동파의 시에, "웃으며 치이의 한 단지 술을 잡고, 서로 오호五湖의 달걀빛 하늘에서 만나네〔笑把鴟夷一樽酒 相逢卵色五湖天〕"라고 한 것은 이 당시唐詩의 용어를 인용한 것이다.

당시唐詩에, 아황鴉黃(부인이 쓰는 분으로, 주로 눈썹을 그리는 것) 그리기를 배워서 반도 이루지 못했네〔學畫鴉黃半未成〕"라고 하고, 또, "달 형상의 눈썹을 그리고 누른빛을 바른 뒤에 그친다〔寫月圖黃罷〕"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궁녀들의 누른 눈썹, 검은 단장丹粧의 법은 당唐나라 때에 이르러서도 또한 그러했다. 그런 까닭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왕형공王荊公의 시에, "한나라 궁녀들이 예쁜 이마를 반은 누른빛을 발랐네〔漢宮嬌額半塗黃〕"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또《유양잡조酉陽雜俎》에 말하기를, "근대의 화장법은 비녀를 뾰족한 달 같게 하는 것을 숭상한다. 그리하여 그것을 황성엽黃星靨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엽靨은 비녀의 이름이다. 목란시木蘭詩에, "거울을 대하여 화황花黃(누른 분)을 바른다〔對鏡帖花黃〕"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설능薛能의 〈궁사宮詞〉에 말하기를, "물로 은반銀盤을 치면서 화생化生을 희롱한다〔水拍銀盤弄化生〕"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궁녀들이 중원中元 날에 밀〔蠟〕로 아이 모양을 만들어 은반의 물에 띄워 놓고 놀리는 것을 화생化生이라고 한

다. 아들을 구하는 방법이다.

당시唐詩에, “남쪽 궁에서는 노래하고 피리 부는데 북쪽 궁에서는 시름이네〔南宮歌管北宮愁〕”라고 했다. 《주례周禮》를 상고하여 보니, 왕王의 육침六寢은 남쪽에 있고, 후后의 육궁六宮은 북쪽에 있다. 이 시의 말은 아마 여기에서 나온 것으로서 육궁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여동빈呂洞賓의 시에, “소매 속의 푸른 뱀 담기가 거칠다〔袖裏靑蛇膽氣粗〕”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도정백陶貞白이 은거할 때에 칼 2자루를 지니고 있어서, 이따금씩 날아다니는데, 바라보면 2마리의 푸른 뱀 같았다고 한다. 아마 이것을 인용한 것일 것이다.

당唐나라 사람의 시에, “꽃이 피니까 나비가 가지에 가득하더니, 꽃이 지니 나비는 도로 드물게 보이네. 오직 옛집의 제비가 있어서, 주인이 가난해도 또한 찾아오네〔花開蝶滿枝 花謝蝶還稀 惟有舊巢燕 主人貧亦歸〕”라고 했다. 또 송나라 사람이 길 옆의 나무를 읊은 시에, “미친바람이 나무를 뽑아 쓰러뜨리니, 나무가 쓰러져서 뿌리 이미 드러났네. 그 위에 두어 가지〔枝〕의 등藤이 있으니, 푸르고 푸른 채 오히려 깨닫지 못하네〔狂風拔倒樹 樹倒根已露 上有數枝藤 靑靑猶未悟〕”라고 했다. 이 2편의 시는 구법句法이 서로 비슷하다. 그러나 당시唐詩와 송시宋詩의 차이가 뚜렷이 보인다.

당시唐詩에, “봄바람에 시녀가 조복朝服을 지킨다〔春風侍女護朝衣〕”라고 했고, 또 “시녀가 밤중에 새로 향을 더하네〔侍女新添午夜香〕”라고 하였으며, 또 “행대[40]에 의구[41]를 보살필 첩이 없네〔行臺無妾護衣篝〕”라고도 했다. 상고하여 보니, 당나라

40 상서성尙書省의 별칭.

41 옷에 향香을 피워 넣는 데에 사용하는 용기容器.

의 상서랑尙書郞이 입직入直할 때에는 여시사女侍史 2명을 단정하고 어여쁜 자로 뽑아서 향로香爐를 잡고 의복을 지키게 했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당唐나라의 시인 정곡鄭谷을 그때 세상에서 정자고鄭鷓鴣라고 불렀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자고시鷓鴣詩는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작품은 아닌데 어째서 명성을 얻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했다. 뒤에 그 절구絕句를 보니, "좌중에는 또한 강남江南에서 온 나그네도 있으니, 봄바람을 향해 자고의 노래는 부르지 말라〔座中赤有江南客 莫向春風唱鷓鴣〕"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봄에 계록새鷄鹿塞(성새城塞의 이름)에 유람하지만, 집은 자고가 우는 먼 남쪽 하늘 아래에 있다〔春遊鷄鹿塞 家在鷓鴣天〕"라고 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자고천鷓鴣天이 가곡歌曲의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그가 명성을 얻은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닐까.

당시唐詩의 소년행少年行에 말하기를, "홀로 찬 구름 향하여 사성을 시험한다〔獨向寒雲試射聲〕"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사성교위射聲校尉라는 벼슬이 있다.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에 소리만 듣고 쏘아 맞힌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당시唐詩에, "기린각麒麟閣[42] 위에 차후를 기록한다〔麒麟閣上識酇侯〕"라고 했다. 초횡焦竑이 말하기를, "소하蕭何를 예후𩋾候에 봉했다. 《사기史記》에 찬후酇侯라고 쓴 것은 글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 쓴 것이다"라고 했다. 반고班固의 〈일팔후명一八侯銘〉의 문창사우文昌四友에, "한漢나라에 소하蕭何가 있었으니, 공훈의 차례가 제일이었다. 예𨞺에 봉후封侯되었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예𨞺라는 글자의 발음은 칠하절七河切이다. 예𨞺는 패沛 땅에 있고, 찬酇은 남양南陽 땅에 있다. 소하는 패沛의 사람이니, 그의 봉읍이 예𨞺라는 것이 사리에

42 전한前漢의 무제武帝가 기린을 잡았을 때에 지은 누각. 그 뒤에 선제宣帝가 공신功臣 11명의 화상을 그 위에 그려놓았다고 한다.

가까운 것 같다. 다만 기린각은 바로 선제宣帝 때의 일인데, 소하에게 쓰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없다.

《당시품휘唐詩品彙》 중에 두공竇鞏의 칠언절구는 겨우 7수首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말하기를, "겨울 까마귀가 날아서 상양궁上陽宮으로 들어간다〔寒鴉飛入上陽宮〕"라고 하고, "겨울 까마귀가 날아서 일함산日啣山으로 간다〔寒鴉飛去日啣山〕"라고 했으며, 또 "자고가 날아 월왕대越王臺로 올라간다〔鷓鴣飛上越王臺〕"라고 하고, "꾀꼬리가 날아서 해당화에 오른다〔黃鸝飛上海棠花〕"라고 하여 4수首가 같은 격조格調로 되어 있다. 혹은 그 글귀들이 서로 범하고 있다 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번천시樊川詩에, "나이 70세가 되려면 다시 만 일이 있다. 그대와 더불어 같이 기국棋局(바둑판 위)에서 보내리라〔得年七十更萬日 與子同於局上消〕"라고 했다. 송나라 마영경馬永卿이 말하기를, "두목지杜牧之의 이때의 나이가 42, 3세였으니 70까지 살 수 있다면 오히려 만 일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나의 의견으로는, 100년이면 3만 6,000일이다. 그러니 만 일은 30년이 된다. 이 시에서 "득년칠십갱만일得年七十更萬日"이라고 한 것은 "나이를 70살과 다시 만 일을 산다면" 하는 뜻으로서 곧 100년이라고 말한 것이다.

가도賈島의 시에 말하기를, "까닭 없이 다시 상간수를 건너가서 돌이켜 바라보니 병주도 고향이로구나〔無端更渡桑乾水 却望并州是故鄕〕"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당唐나라가 상건도독부桑乾都督府를 설치하였으니, 병주并州의 북쪽에 있었다. 오늘 상건수桑乾水를 건너갔으니, 고향인 함양咸陽은 더욱 멀어진다. 그러고 보니 차라리 병주도 고향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 것이다. '乾'의 음은 '간干'이다.

당시唐詩에, “창밖의 햇빛에 야마野馬(아지랭이)가 날고, 평상平床 머리의 대나무 관에는 포로가 자란다(窓外日光飛野馬 床頭筠管長蒲蘆)”라고 했다. 균관筠管을 주해註解하는 이가 “포로蒲蘆(나나니벌)가 붓대(筆管) 속에서 새끼를 키우는 것이다” 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패해稗海》에 말하기를, “벌의 종류에 3가지가 있다. 진흙을 물어다가 방의 벽 사이에 집을 짓는 것을 과라蜾蠃라고 부르고, 땅에 구멍을 뚫어 집을 만드는 것을 열옹蠮螉이라고 하며, 책이나 붓대 속에 집을 만드는 것을 포로蒲蘆라고 이름한다”라고 했다. 《본초本草》에는 말하기를, “과라蜾蠃의 다른 이름은 포로蒲蘆이다. 능히 진흙을 이어서 방 안 벽 사이나 혹은 기물器物 곁에 제 집을 짓는데, 대나무 관管을 나란히 세운 것같이 한다” 라고 했다. 내 생각에는 후자後者의 설이 옳을 것 같다.

당시唐詩에 “자고가 날아 월왕대에 오른다(鷓鴣飛上越王臺)”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남월왕南越王 위타尉佗가 조대朝臺(조하朝賀하는 대臺)를 세우고 초하루와 보름에 올라가 천자天子 있는 곳을 향하여 절했다. 이것이 후세의 망궐례望闕禮의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 위타가 일찍이 황제皇帝를 자칭한 일이 있기 때문에 또한 월제대越帝臺라고도 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권12

18. 문장부文章部-5

18-1 당시唐詩-3

이상은李商隱의 시에 말하기를, "청작靑雀[1]이 서쪽으로 날아가고 마침내 돌아오지 않는데, 임금은 길이 집령대에 있네. 모시는 신하 중에 상여相如가 가장 목말라 하건만, 금경金莖[2]의 이슬 한 잔도 내려주지 않네(靑雀西飛竟未回 君王長在集靈臺 侍臣最有相如渴 不賜金莖露一杯)"라고 했다. 나대경羅大經의 《학림옥로鶴林玉露》에 말하기를, "청작이 돌아오지 않으니 신선을 이룰 길이 없건만, 무제武帝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대臺 위에 배회하면서 보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했다. 이 말은 그러하다. 또 말하기를, "상여相如가 바로 그때에 갈증 때문에 고통하고 있었는데, 어째서 승로대承露臺의 이슬 한 잔을 주어서 신선이 된다는 말이 정말인가 망언妄言인가를 실험하지 않았던가"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말은 틀리다. 아마 무제武帝가 장생설長生說에 미혹하여 시신侍臣 중에 상여相如가 갈증에 걸려 있건만, 한 잔의 금경 위의 이슬도 아껴서 주려고 하지 않았다. 아마 이 시의 뜻은 다만 이러할 뿐이다.

이상은李商隱의 시 "청작靑雀이 서쪽으로 날아가고 마침내 돌아오지 않네(靑雀西飛竟未回)"라고 한 글귀를 《삼체시三體詩》 주註에서 서왕모西王母[3]의 청조사靑鳥使를 인용하여 증설證說하고 있다. 나는 아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동명

1 한무제漢武帝의 애희愛姬 거령巨靈이 청작靑雀(푸른 새)으로 변하여 날아갔다고 한다. 서왕모西王母를 위하여 먹을 것을 가져오고, 사자使者 노릇을 한, 발이 셋 달린 푸른 새, 즉 삼족조三足鳥이다. 변전하여 사자使者, 서신書信의 뜻으로 쓰고 있다.

2 승로반承路盤을 받치고 있는 구리 기둥. 한무제가 건장궁建章宮에 승로반을 만드니 그 기둥의 높이가 20장丈, 굵기가 일곱 아름이었다고 한다. 그 위에 선인仙人의 손바닥 모양의 그릇을 설치하여 이슬을 받아먹었다고 하니, 그 이슬을 먹으면 신선이 된다고 한다.

기洞冥記》에 말하기를, "여인이 있으니 이름을 거령巨靈이라고 했다. 무제武帝에게 반해서 무제의 앞에서 희롱하고 웃으니, 동방삭東方朔이 거령을 바라보고 곧 눈짓하니 거령이 화신化身하여 청작靑雀이 되어서 날아갔다. 이에 청작대靑雀臺를 지었다"라고 했다. 청작은 아마 이것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이의산李義山의 시에, "한漢나라의 천마가 포초蒲梢[4]에서 나왔네(漢家天馬出蒲梢)"라고 했다. 《한서》〈서역지西域志〉를 살펴보니, "효무孝武 때에 포초蒲梢·용문龍文·어목魚目·한혈汗血[5]의 말이 황문黃門[6]에 가득했다"라고 했다. 주에, "대완大宛에서 나는 말은 물고기 같은 눈, 용의 무늬, 봉鳳 같은 머리에, 꼬리는 부들 줄거리(蒲梢) 같다"라고 했다. 이 시에서 포초를 지명으로 쓰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이상은李商隱의 시에 말하기를, "함양咸陽 언덕 위 영웅의 뼈들이, 반은 그대의 집을 향하며 말을 먹이러 오네(咸陽原上英雄骨 半向君家養馬來)"라고 했다. 이 시는 혼시중渾侍中을 위해 지은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혼감渾瑊이 항상 사람의 뼈를 불에 태워서 말에게 먹이니, 말이 매우 살찌고 건장했다. 이 일이 잡서雜書에 나온다"라고 했다.

3 옛날 선인仙人의 이름. 성은 양楊. 이름은 회回. 다른 이름은 완금婉衿이니, 곤륜산崑崙山에 산다고 함. 주목왕周穆王은 서정西征하여서 왕모를 요지瑤池 위에서 향연饗宴했다고 하고, 한 무제는 왕모에게서 선도仙桃 3개를 얻었다고 한다.

4 고대古代의 준마駿馬의 이름. "한漢나라 무제가 대완大宛을 정벌하여 천리마千里馬를 얻으니 이름을 포초蒲梢라고 했다.

5 고대의 준마의 이름. 포초蒲稍·용문龍文·어목魚目·한혈汗血은 네 준마의 이름이다.

6 궁궐의 문. 또는 한대漢代 관서官署의 명칭이니, 궁궐의 작은 문 안에서 환관들이 급사給事하던 곳.

이상은의 시에 말하기를, “상아嫦娥[7]가 응당 영약 훔친 것을 후회함이, 푸른 바다 푸른 하늘 밤마다 밤마다의 마음일 것이다(嫦娥應悔偸靈藥 碧海靑天夜夜心)”라고 했다. 이 시의 첫 글귀, “운모병풍에 촛불 그림자 깊어라(雲母屛風燭影深)”라고 한 것을 가지고 보면, 궁녀의 원망이나 혹은 규방閨房의 심정을 읊은 것 같다. 반드시 지목指目하는 바가 있어서 말한 것일 것이다. 그의 문집 안에는 이와 같은 시가 한두 수首가 아니다. 깊이 음미하여야 그 뜻을 알 수 있다.

이상은의 시에, “지금까지 썩은 풀에 반딧불이 없고, 언제나 수양에는 저문 때의 까마귀가 있다(于今腐草無螢火 終古垂楊有暮鴉)”라고 한 글귀를 주석註釋하는 이가 말하기를, “위 글귀는 기염이 사라져 다한 것을 비유하고, 아래 글귀는 악명惡名이 오히려 남아 있음을 비유한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상고하여 보니, 수양제隋煬帝가 궁중에 반딧불 두어 섬(數斛)을 잡아오게 하여 밤놀이 때에 내놓았다. 또 수제隋堤(수양제隋煬帝가 쌓은 운하運河의 제방)에 버드나무를 심게 했다. 이 시는 아마 그때에 반딧불을 모두 잡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시 반딧불이 없다고 한 것이다. ‘수양의 저녁 까마귀’는, 버들이 낮게 드리웠으나 이미 성盛하여 까마귀가 와서 깃들일 만하다고 말한 것이다. 수隋나라의 왕업이 당唐나라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혹은 수垂와 수隋는 음이 같고, 양楊은 수隋나라 왕실의 성姓이기 때문에 빌려 쓴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도 한다.

의산시義山詩에, “내원內苑에서는 다만 시위에 봉취鳳觜를 먹일 줄만 알고 속거屬車(임금이 거둥할 때에 옆을 시종侍從하는 수레)에는 다시 계교鷄翹를 꽂지 않네(內苑只知銜鳳觜 屬車無復揷鷄翹)”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한무제漢武帝 때에 서해에서 아교풀을 바쳤는데, 임금의 시위(弦)가 떨어진 것을 이 아교풀로 붙였더니

7　항아姮娥라고도 한다. 달 속에 사는 여인. 후예后羿가 서왕모西王母에게 불사약不死藥을 청했더니, 그의 아내 항아가 그것을 훔쳐 가지고 월궁月宮으로 달아났다고 한다.

온종일 쏘아도 끊어지지 않아서 임금이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십주기十洲記》에, "신선의 집에서는 봉의 부리(鳳觜)와 기린의 뿔을 삶아서 아교를 만들고 이름을 속현교續弦膠라고 한다"고 하였다. 한漢나라의 《여복지輿服志》에, "난기鸞旗(천자天子의 기旗)를 계교鷄翹라고 한다. 새의 날개를 엮어서 만든다"라고 했다. 이 시의 위 글귀는 아마 임금이 사냥을 좋아함을 충고하고, 아래 글귀는 임금이 미행微行을 좋아함을 나무란 것일 것이다.

이상은의 시에 말하기를, "석양이 무한히 좋으나 다만 황혼이 가깝구나(夕陽無限好 只是近黃昏)"라고 했다. 양성재楊誠齋가 말하기를, "이 글귀는 당나라 조업祚業(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장차 쇠망할 것을 비유한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저녁때의 경치를 읊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승僧 무가無可의 시에 말하기를, "빗소리를 듣다가 차가운 밤이 다하였구나. 문을 여니 낙엽이 가득하네(聽雨寒更盡 開門落葉深)"라고 한 것을 옛사람이 말하기를, "이 시는 잎 떨어지는 소리를 빗소리로 표현했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낙엽심落葉深"이라 한 것은 바로 비가 온 뒤의 경치일 뿐이다.
당나라 사람들이 지은 시에는 뜻이 있는 듯 없는 듯한 사이에서 정경情景이 완연한 것이 많다. 그런데 보는 이가 곧 뜻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찾는다면 아마 천착穿鑿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가령, "가냘픈 볕은 교목喬木(키가 큰 나무)에 내려오고, 멀리 보이는 들불은 가을 산에 들어가네(微陽下喬木 遠燒入秋山)"라고 한 시구詩句도 또한 즉경卽景(눈앞에 보이는 경치)으로 본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이의산李義山의 시에, "풍운風雲이 길이 저서를 지키게 한다(風雲長爲護儲胥)"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풍운팔진법風雲八陳法이다. 〈장양부長楊賦〉에서 나무로 창과 칼을 막아내는 것을 저서儲胥라고 하였는데, 그 주에, "군중의 울타리이다"라고 했다. 또 《장자莊子》의 삭격削格 · 나락羅落의 주에, "삭격은 《한서》에서 말하는

저서儲胥와 같다"라고 했다. 지금의 목책木柵과 같은 것이다.

이의산의 〈주필역시籌筆驛詩〉[8]에, "마침내 항복한 임금이 전거傳車(역참驛站의 수레)로 달아나는 것을 보았네〔終見降王 走傳車〕"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삼국지三國志》에 촉한蜀漢의 후주後主가 나와 항복하니, 그의 온 가족을 양락陽洛까지 역에서 다음 역으로 차례차례로 전계傳繼해 보냈다. 그 전거傳車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동양李東陽의 〈오장원사五丈原詞〉에 말하기를, "제갈무후諸葛武侯 하늘로 돌아가니, 옛 대오가 많아 관우關羽는 전구前驅(말을 타고 행렬의 맨 앞에서 인도함)가 되고, 장비張飛는 후거後拒(후방을 방위하는 군사)가 되네. 충성스런 영혼이 항왕降王(항복한 왕)의 수레를 쫓지 않고, 길이 영손英孫을 호위하여 소열황제昭烈皇帝에게 조회朝會하네〔侯歸上天多舊伍 羽爲前驅飛後拒 忠魂不逐降王車 長衛英孫朝烈祖〕"라고 한 것은 뜻이 더욱 좋다.

이의산의 〈촉루시促漏詩〉는 대체로 궁녀의 원망을 노래한 것이다. 그 한 연구聯句에 말하기를, "돌아가서는 응당 도로 달을 향할 것을 안다. 꿈에 와선 어느 곳에서 다시 구름이 될꼬〔歸去定知還向月 夢來何處更爲文〕" 했다. 문文 자를 운雲으로 쓰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의산의 시에, "폐하의 호생지덕好生之德은 천년만년을 장수長壽하시어, 옥루玉樓에서 길이 백운白雲의 술잔을 드시네〔陛下好生千萬壽 玉樓長御白雲杯〕"라고 했다. 백운배白雲杯는 왕모요지연王母瑤池宴[9]의 일을 인용한 것 같다. 왕형공王荊公의 〈숙보림사시宿寶林寺詩〉에, "함께 백운白雲의 술잔을 기울여 다했네〔共盡白

8 주필역籌筆驛은 일찍이 제갈공명이 군사를 출동하여 여기에 주둔시키고, 작전 계획을 짜던 곳이라고 한다.

9 왕모王母는 서왕모西王母의 약칭. 요지瑤池는 곤륜산 위에 있다는, 신선이 사는 곳. 일찍이 주목왕周穆王이 여기에서 왕모를 만나 연회를 열었다고 한다.

雲杯)”라고 하였는데, 주에 말하기를, “백운白雲은 차茶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에 쓴 백운과는 같지 않은 것 같다. 호생好生은 아마 《서경》에서 말하는 호생지덕好生之德일 것이다. 또 어록語錄에는, “호생은 십분극진十分極盡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혹은 여기에 쓴 호생이 혹은 어록語錄의 뜻과 같은 뜻으로 쓴 것이나 아닐까 의심된다.

이의산의 시에 말하기를, “당시에 천제天帝가 취한 그때로부터 진나라 땅에 산하山河가 있음을 참견하지 않았다(自是當時天帝醉 不關秦地有山河)”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진목공秦穆公이 꿈에 천제天帝 있는 곳에 이르니, 천제가 그에게 향연을 베풀어 주고, 취하여 성좌星座 순화鶉火의 머리 부분의 분야分野에 해당한 땅을 진秦나라의 땅으로 주는 증표로 황금 표찰表札을 주었다……”라고 했다. 유신庾信의 〈애강남부哀江南賦〉에, “순화 성좌의 머리 부분의 분야를 진秦나라에 주었으니, 천제天帝가 어째서 이렇게 취했던고(以鶉首而賜秦 天何爲而此醉)”라고 했다. 이 시는 바로 이것을 인용한 것이다.

양신楊愼이 말하기를, “이의산의 시에, ‘요지의 잔치가 끝났는데, 왕모王母는 머물고, 금옥金屋에 장식이 이루어지니 아교를 기르네(瑤池宴罷留王母 金屋粧成貯阿嬌)’라고 하였는데, 세속의 책에는, ‘옥도를 훔쳐 얻은 동방삭이 가엾다(玉桃偷得憐方朔)’라고 했다. 진정 어린애 같은 소리다”라고 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요지연瑤池宴은 주목왕周穆王의 고사이다. 그리고 어구語句도 또한 아름답지 않으니 양신의 말은 아마 옳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옥도玉桃라고 한 것은 강대强對로서 온당하지 않다. 또 “금옥장성金屋粧成”을 어떤 책에서는 “금옥수성金屋修成”으로 쓰고 있다.

이의산의 시에, “피진서의 뿔은 티끌을 피하고 옥은 추위를 피한다(犀辟塵埃玉辟寒)”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시화詩話에, 위명제魏明帝의 궁인宮人이 피한

금辟寒金으로 비녀를 만들었다. 그런 까닭에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피한금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제왕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했다. 소위 피한옥辟寒玉이라는 것은 없다. 아마 이의산이 금金을 옥玉이라 하였던 것 같다.

이상은李商隱의 〈근화시槿花詩〉에, "달 속엔들 어찌 누이가 없으랴. 구름 가운데에도 또한 그대가 있구나(月裡那無姉 雲中亦有君)"라고 하였는데, 뜻을 매우 풀기 어렵다. 나는 생각하기를, "달 속의 누이"라고 한 것은 달 속의 항아를 가리킨 것 같다. 또 《초사구가楚辭九歌》에, "운중군雲中君"이라는 말이 있는데, 주註에 구름의 신(雲神)이라고 했다. 아마 근화槿花는 빛이 희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였을 뿐이고, 별다른 뜻은 없는 것 같다.

이상은李商隱의 〈공자시公子詩〉에, "한 잔 신라주新羅酒의 기운이, 새벽바람에 쉽게 사라질 것이 두렵구나(一盞新羅酒 凌晨恐易銷)"라고 했다. 대체로 당唐나라 때에는 신라주新羅酒를 진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유양잡조酉陽雜俎》를 참고하여 보니, 〈주식편酒食篇〉에 낙랑주법樂浪酒法(낙랑주를 빚는 법)이라는 것이 있다. 신라주도 또한 그 법에 따라 빚은 술일까.

이의산李義山의 시에, "신녀神女의 생애는 원래가 꿈인 것이며, 소고의 사는 곳에는 본래 신랑이 없었다(神女生涯元是夢 小姑居處本無郎)"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소고小姑는 장자문蔣子文의 누이이다. 《고악부》의 〈소고곡小姑曲〉에 말하기를, "소고의 사는 곳에 홀로 신랑이 없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의산이, 팽양공彭陽公이 지문誌文을 찬撰하는 시詩에 말하기를, "기다려 생금生金을 얻은 뒤로 냇가와 언덕을 또한 몇 번이나 옮겼던고(待得生金後 川原亦幾移)"라고 했다. 《진서晉書》를 상고하여 보니, 가규賈逵의 비석 가운데서 금이 나왔다고 한다. 김유신金庾信의 글에 말하기를, "비에 결자缺字 금金이 나왔다(碑

缺 生金〕"라고 했고, 음갱陰鏗이 고묘古墓를 읊은 시에, "비석의 글에는 금이 나오려고 한다〔碑書欲有金〕"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대득생금후待得生金後"가 이 책에서는 "대득생금사待得生金徙"로 되어 있으나, 당본唐本에는 사徙를 후後로 썼다. 그것이 옳은 것 같다.

이의산李義山의 시에, "옥으로 탄기판을 만드니 중심이 또한 평탄하지 않구나〔玉作彈碁局 中心亦不平〕"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탄기彈碁[10]라는 유희는 한漢나라 성제成帝 때 시작한 것이다. 육방옹陸放翁이 말하기를, "옛날의 탄기판은 형상이 향로香爐 같았다"고 했다. 아마 가운데가 높게 되어 있다는 말일 것이다.

이상은李商隱의 시에, "가엾다, 한밤중에 앞자리 비워두고, 창생은 묻지 않고 귀신을 묻네〔可憐夜半虛前席 不問蒼生問鬼神〕"라고 한 것이 있다. 이 시를 위 글귀와 아래 글귀를 연접連接시켜 보면, "가엾다〔可憐〕"라고 한 것을 "어째서〔如何〕"라는 말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상은의 시에, "오늘 아침 노래와 피리 소리로 낭군郎君께 화답하네〔今朝歌管屬檀郎〕"라고 했다. 또 최여인崔女人의 시에는, "단랑檀郎의 나이 젊은 때에 보지 못하였네〔不見檀郎年時少〕"라고 했다. 단랑은 아마 남편을 가리킨 말인 것 같다. 그러나 어째서 남편을 단랑이라고 하는지 그 뜻을 알 수 없다. 상고하여 보니, 진晋나라 반악潘嶽의 아명兒名이 단노檀奴이다. 혹은 이것에서 나온 말일까.

이상은의 〈금슬시錦瑟詩〉는 그 시의 뜻을 살펴보니, 다만 규방의 연정을 금슬錦瑟에 의탁해서 지은 것일 뿐이다. 생각〔思〕이라고 한 것은 꽃다운 젊은 때의

10 유희의 한 가지. 가운데가 높은 바둑판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각기 바둑알 6개 혹은 8개씩을 가지고 쌍방이 바둑판 귀에 바둑알 1개씩을 놓은 다음 손가락을 튕겨서 상대편의 것을 떨어뜨린다. 먼저 상대편의 바둑알을 다 떨어뜨린 편이 이긴다.

생각이니, 원망(怨)과 같은 뜻이다. 《소설》을 상고하여 보니, 금슬은 미인의 이름이라고 한다. 또한 그럴 것 같다.

이의산의 시에, "향기는 금굴술에 잠기고, 술은 옥곤륜에 담는다(鑠香金屈戌 帶酒玉崑崙)"라고 했다. 《패사稗史》를 보니, 술戌은 슬膝이라고 했다. 이장길李長吉의 시에는, "무릎을 굽힌 것 같은 구리 문고리로 아견을 가두었다(屈膝銅鋪鏁阿甄)"라고 했다. 견甄은 견후甄后를 가리킨 것으로서 아교阿嬌라고 말한 것과 같다. 이의산이 굴슬屈膝이라고 한 것은 향기香器, 곤륜崑崙이라고 한 것은 아마 술그릇일 것이다. 2가지는 반드시 그릇의 이름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형상을 가지고 말한 것 같다.

이의산의, 북소리를 듣는다고 한 시詩에, "어양의 〈참과곡摻撾曲〉을 묻고자 하나 세상에 미정평이 없구나(欲問漁陽摻 時無禰正平)"라는 글귀가 있다. 상고하여 보니, 참摻은 상성上聲으로 발음한다. 세 번 북을 친다는 뜻이다. 또 북치는 법이다. 심존중沈存中의 《필담筆談》에 말하기를, 응거應璩의 글에 이르기를, 광릉廣陵의 청산淸散을 듣는다고 하였는데, 산散이 곡조의 명칭인 것은 분명하다. 어양참漁陽摻이라는 것은 광릉산廣陵散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의산의 시에, "소쿠리의 얼음이 장차 베개에 떨어지려 한다(簟氷將飄枕)"라고 했고, 간재簡齋의 시에는, "눈과 달이 이불에 얼음처럼 찬 기운 스며든다(雪月氷寒衾)"라고 하였으며, 산곡山谷의 시에는, "바람 기운이 술을 얼음처럼 차게 만들려 한다(風力欲氷酒)"라고 했다. 모두 거성去聲으로 쓰고 있다.

당시唐詩에, "궁궁이의 어린 싹도 또한 이 왕손王孫의 풀이니, 봄 향기 보내어 손의 옷에 오르게 말아 다오(蘼蕪亦是王孫草 莫遣春香上客衣)"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미무蘼蕪는 향기 나는 풀로서, 즉 궁궁이(芎藭)의 싹이다. 그것을 사용하여

옷에 향내를 풍기게 하여 좀을 방지한다. 소騷에 말하기를, “왕손이 놀러 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데, 그 길에 봄풀은 돋아 우거졌네〔王孫遊兮不歸 春草生兮萋萋〕”라고 했다. 아마 낭인良人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허혼許渾의 시에, “상수湘水에 구름이 다하고, 저녁연기가 나오네〔湘潭雲盡暮煙出〕”라고 한 글귀가 있다.

양신楊愼이 평하여 말하기를, “연煙 자가 매우 묘하다. 상수湘水에는 연기가 많다. 장비張泌의 시에, ‘중류에 해는 지는데 상수에 연기가 보이네〔中流欲暮見湘煙〕’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후산後山이 연烟을 산山으로 고친 것은 맛이 없다”라고 했다.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다. 내 생각에는 산山이란 글자를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허혼許渾의 시에, “석연이 구름을 떨쳐 나니 갠 날도 또한 비가 오고, 강돈이 물결을 부니 밤에는 도로 바람이 분다〔石燕拂雲晴亦雨 江豚吹浪夜還風〕”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영릉산零陵山에 석연石燕(제비 형상으로 생긴 돌)이 있으니 풍우風雨가 일면 날아다닌다고 한다. 강돈江豚이 콧속으로 소리를 내면서 물 위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뱃사공들이 그것을 보고 바람과 비가 있을 것을 안다고 한다. 소위 물결을 분다고 한 것은 이것을 말한 것이다. 이 글 가운데 “구름을 떨치고〔拂雲〕”라고 한 것은 적당하지 않다.
또 강돈江豚의 뱃속의 기름으로 저포樗蒲[11]나 장기의 도박관을 비치면 곧 밝게 보이지만, 그것으로 비추어 책을 읽거나 길쌈하면 곧 어두워진다고 한다. 그래서 세속에서는 게으른 여자의 화신化身이라고 하여 나부유懶婦油(게으른 여자의 기름)라고 부른다. 《운부韻府》에는 또 말하기를, “잔치하고 즐겨하는 곳을 비치면 밝기 때문에 참등饞燈(먹을 것을 탐내는 등불이란 뜻)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11 쌍륙雙六. 노름. 도박. 옛날에 저樗 · 포蒲의 열매로 만들었으므로 이름.

허혼許渾의 시에, “노가 한 가락에 가는 배를 푸네〔勞歌一曲解行舟〕”라고 한 것이 있다. 대체로 노가勞歌는 떠나가는 노래〔離歌〕와 같은 것이다. 상고하여 보니, 멀리 가는 배〔遠行舟〕를 노주勞舟라 하고, 행역行役(관명官命에 의해 노역勞役에 종사하는 사람)하는 사람을 노인勞人이라고 하며,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 주는 술을 노주勞酒라 하고, 말굴레에 쓰는 쇠붙이를 노철勞鐵이라고 하며, 헌 수레의 바퀴 따위를 노신勞薪이라고 한다.

유언사劉言史의 〈악부사樂府詞〉에 말하기를, “군왕이 시험하여 〈정앵두〉곡을 춤추네〔君王試舞鄭櫻桃〕”라고 했다. 《패해稗海》를 상고하여 보니, “정앵두鄭櫻桃는 석계룡石季龍의 우동優童(어린 광대)이다. 계룡이 정앵두에게 매혹되어 그의 아내 곽씨郭氏를 죽였다”라고 했다. 《고악부》에 〈정앵두〉편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다. 다만 이 일을 인용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북몽쇄언北夢瑣言》에 말하기를, “두종杜悰이 서천西川으로부터 회해淮海 절도사節度使에 임명되니, 온정균溫庭筠이 시를 지어 말하기를, ‘탁문군卓文君의 술청 앞에는 금실 같은 버들이 늘어지고, 수양제隋煬帝의 수제隋堤 가에는 비단 돛이 바람에 불린다네. 회淮·해海 두 곳의 백성을 위하여 은택을 비처럼 쏟으려고 절도사는 여념이 없네. 못물에 연꽃이 붉게 비친 경치도 보지 않은 채〔卓氏鑪前金線柳 隋家堤畔錦帆風 貪爲兩地行霖雨 不見池蓮照水紅〕’라고 했다. 두종이 듣고 정균에게 비단 1,000필을 보내 주었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정균이 일평생 불우하게 지냈는데, 28자의 절구絕句 한 수로 1,000필의 비단을 얻었으니, 옛사람들이 재사才士를 소중히 여김이 극진했다고 하겠다.

당시唐詩에, “성년盛年(청춘靑春)에 부부가 길이 이별하였네〔盛年夫婦長別離〕”라는 것이 있다. 상고하여 보니, 기백岐伯이 말하기를, “사람이 나서 20세가 되

면 혈기血氣가 비로소 왕성하게 된다. 그래서 대체로 성년이라고 하는 것은 20세 때를 가리킨 것이다. 또 30세를 장년壯年, 40세를 강년彊年이라고 한다. 《한서》에 말하기를, '소무蘇武가 처음에 강장彊壯한 나이로 나갔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50세가 되면 쇠약하기 시작한다"라고 했다.

이빈李頻이 강남으로 돌아가는 서 처사徐處士를 송별하는 시에 말하기를, "고국의 우거진 풀 속에 들어가 창강에서 백신白身으로 마치네(故國入芳草 滄江終白身)"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백신은 백민白民(무위무관無位無官의 사람, 평민平民)과 같은 말이다. 《사기史記》에, "위魏나라에서는 백민白民으로서 곡식 500석石을 바치는 자에게는 벼슬을 주었다"라고 했고, 당唐나라 장준張濬은 백신으로서 과거에 급제한 일이 없다. 《추양전鄒陽傳》에는 말하기를, "본래 군인이 아닌 백도白徒의 집 사람들을 몰아내어"라고 했고, 또 《소설》에는 학문이 없는 사람을 백도라고 했다. 소위 백민이니 백도니 하는 것은 백정白丁(지위도 벼슬도 없는 평민)과 같은 것이다.

피일휴皮日休의 시에 말하기를, "연기年紀는 죽조의 낮은 것을 싫어한다(年紀翻嫌竹祖低)"라고 했다. 《옥당시선玉堂詩選》의 주를 상고하여 보니, 죽보竹譜에 "조종祖宗이 심은 대를 죽조竹祖라고 한다"고 하였는데, 이 설은 아마 잘못일 것이다.
당시唐詩에 "조죽祖竹의 떨기에서 새 순이 나온다(祖竹叢新筍)"라고 했고, 반산半山의 시에는, "울타리 가에 손자대가 난다(籬落生孫竹)"라고 하였으며, 소동파의 시에는 "빈랑이 아들을 낳고 대나무는 손자를 낳았네(檳榔生子竹生孫)"라고 했다. 소위 죽조라는 것은, 대체로 조죽祖竹이니 손죽孫竹이니 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내붕來鵬의 시에 말하기를, "연뿌리가 평지를 뚫어 연잎을 내고, 죽순은 동쪽

집을 지나가서 대숲을 이루었다(藕穿平地生荷葉 筍過東家作竹林)”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제민요술齊民要術》에 말하기를, “대나무의 성질이 동남쪽으로 뻗어가기를 좋아한다”라고 했다. 또 《소설》에 “서쪽 집에서 대나무를 심으면 동쪽 집에서 대나무 기를 땅을 매만진다(西家種竹 東家治地)”라고 했다. 시의 뜻은 이것을 말한 것이다. 나는 들으니, 비단 대나무만이 아니고 창포나 완초莞草 같은 것도 모두 동쪽으로 뻗어가기를 좋아한다고 한다.

당唐나라 이섭李涉이 도둑에게 준 시에 말하기를, “서로 만났을 때 피할 건 없네. 지금 세상 사람들 반은 그대와 같으니(相逢不用相回避 世上如今半是君)”라고 했다. 말이 매우 통절하다. 《한서》에 말하기를, “아전이 범이 되어서 갓을 썼다(吏作虎而冠)”라고 했고, 《사기史記》에는, “이들은 모두 강도이다. 그러나 창과 칼을 쓰지 않는 자일 뿐이다”라고 했다. 슬프다, 세도인심世道人心이 이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해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진우陳羽의 〈보허사步虛詞〉에 말하기를, “한무제漢武帝가 깨끗이 재계하고 정서鼎書[12]를 읽으니, 내관內官이 부축하여 화운거[13]에 오르네. 단 위에 달은 밝고 궁전 문은 닫혔는데 우러러 성두를 보고 허공에 절하네(漢武清齋讀鼎書 內官扶上畫雲車 壇上月明宮殿閉 仰看星斗禮空虛)”라고 했다.

또 조하趙嘏의 시에는 말하기를, “봄의 생약포에 지초芝草는 오히려 짧고, 밤의 초재단[14]에는 학이 돌아오지 않네(春生藥圃芝猶短 夜醮齋壇鶴未回)”라고 했다. 또한 아름답다.

12 옛날 한무제漢武帝 때에 분음汾陰에서 보정寶鼎이 나온 것을 기화로 하여, 제齊나라 사람 공손경公孫卿이 위조僞造하여 한무제를 속인 글. 고대古代 황제黃帝의 글이라 하고, 봉선封禪하면 한무제가 신선이 된다고 속였다고 한다.

13 구름을 그린 수레. 《사기史記》〈봉선서封禪書〉에 “文成言 上卽欲興神通 宮室被服 非象神 神物不至 乃作畫雲氣車.”

14 초재를 지내는 제단. 초재는 성신星辰에서 지내는 제사.

이군옥李群玉의 시에 말하기를, “1합合이나 되는 상사相思의 눈물을 강가에 이르러 가을에 뿌리네〔一合相思淚 臨江灑素秋〕”라고 했다. 당여순唐汝詢이 평하여 말하기를, “1합이라는 글자는 너무나 비속하다”라고 한 말은 옳다.

당唐나라 이원李遠의 시에, “긴 날을 오직 한 판의 바둑으로 보낸다〔長日惟消一局碁〕”라고 했고, 소동파蘇東坡의 시에는, “한평생을 보내는 데는 무슨 물건이 있어야 하는가〔斷送一生消底物〕”라고 했다. 대체로 소消는 수須와 같은 뜻이니, 옛사람들에게서 많이 통용되고 있다. 저물底物은 하물何物(무슨 물건)과 같은 뜻이니 아마 어록語錄일 것이다.

당唐나라 이원李遠의 〈총대시叢臺詩〉에 말하기를, “관현악管絃樂 소리는 변하여 산새소리를 이루어 지저귀고, 무늬 고운 비단들은 머물러 들꽃이 되어 피었구나〔絃管變成山鳥哢 綺羅留作野花開〕”라고 했다. 명나라 사람의 시에, “무늬 고운 비단은 화하여 봄바람의 나비가 되고, 관현악은 뒤쳐 밤비의 개구리 울음이 되었네〔綺羅化作春風蝶 絃管翻成夜雨蛙〕”라고 했다. 대체로 이 시는 이원의 시를 습용襲用한 것인데, 압운押韻의 개구리 와蛙 자가 좋다.

당시唐詩에 말하기를, “강둑에 상사류 심기를 배운다〔江頭學種相思柳〕”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상사수相思樹는 즉 남촉수南燭樹라는 나무로서 〈촉도부蜀都賦〉 속에 나온다. 또 《본초本草》에는, “상사자相思子는 영남嶺南에서 생산되는데 나무 높이가 한 길 남짓하다”라고 했다. 그러나 소위 상사류相思柳라는 것은 그 말의 출처를 보지 못했다. 내가 일찍이 규정시閨情詩를 지은 것이 있는데, “뜰 앞에 일찍이 상사나무 심었더니, 열매가 떨어져 다시 나서 나의 키만큼 자랐네〔庭前舊種相思樹 子落還生似妾長〕”라고 했다. 또한 이것을 인용한 것이다.

시견오施肩吾의 시에, "미치광이 초나라 손의 노래는 〈백설곡白雪曲〉을 이루고, 예쁘고 아름다운 오吳나라 계집은 〈염곡豔曲〉을 춤추네〔顚狂楚客歌成雪 嫵媚吳娘舞是豔〕"라고 했다《필담筆談》에 말하기를 "당나라의 장고杖鼓는 양쪽 머리를 모두 장구채로 치는데, 지금의 장고는 한쪽 머리를 손으로 친다. 또 장고의 곡조 이름에 돌궐염突厥豔 · 아작염阿鵲豔 · 석염昔豔 등이 있다"라고 했다.

당唐나라의 배사겸裴思謙이 급제及第하고 기생에게 지어준 시에 말하기를, "등잔불 비스듬히 등을 지고, 명주明珠의 귀걸이를 끄르면서, 속삭이는 말소리로 임의 급제 축하하네. 이제부터 난향蘭香도 사향도 귀한 줄을 모르겠구나. 밤 동안에 새로이 계지향을 끌어오리라〔銀缸斜背解明擋 小語偷聲賀玉郎 從此不知蘭麝貴 夜來新惹桂枝香〕"라고 했다. 말이 지나치게 자랑하고 있다.

당시唐詩에, "어망漁網을 둘러친 언덕의 봄 물결이 선미船尾를 친다〔罨岸春濤打船尾〕"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엄罨은 어망魚網이니 엄안罨岸은 어망을 둘러쳐서 언덕을 막은 것이다"라고 했다. 〈촉도부蜀都賦〉에, "비취翡翠를 그물질하고, 메기와 잉어를 낚시질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또 엄화罨畫는 즉 여러 가지 채색을 섞어서 그린 그림이다.

한굉韓翃의 시에, "바람이 산허리에 부니 멀리서 비 올 것을 알고, 이슬이 하상을 적시니 이미 가을임을 알겠네〔風吹山帶遙知雨 露濕荷裳已報秋〕"라고 했다《형주기荊州記》를 상고하여 보니, "형산荊山에는 아침에 구름이 있어서 산허리를 띠처럼 가로 두르면, 아침이 다 되기 전에 비가 온다고 한다. 이것을 산대山帶라고 한다"라고 했다.

당唐나라 임번任翻이 태주사台州寺를 제題한 시詩에 말하기를, "앞 봉우리에 달이 뜨니 온 강이 물이로구나. 중이 취미翠微(산꼭대기에서 조금 내려온 곳)에 있어서

죽방竹房을 열었네(前峯月出一江水 僧在翠微開竹房)"라고 했다. 그가 떠난 뒤에 어떤 사람이, "일강一江"을 "반강半江"으로 고쳐 놓았다. 임번이 수십 리를 가다가 반半이란 글자가 좋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돌아와서 고치려고 했다. 이미 반半 자로 고친 것을 보고 감탄하여 말하기를, "태주台州에 사람이 있구나. 진정 시를 지을 때에는 한 글자가 어렵다고 하는 말이 옳다"라고 했다.

육구몽陸龜蒙의 시에, "날의 길기가 해 같으니 한가롭다는 것을 바야흐로 깨닫겠구나. 일의 크기가 산과 같으니 취함도 또한 그치네(日長似歲閑方覺 事大如山醉亦休)"라고 했다.
한악韓渥의 시에는, "사계절 중에 가장 좋은 때가 3월이고,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오직 소년 시절일세(四季最好是三月 一去不回惟少年)"라고 했다.
이산보李山甫의 시에는, "늙음이 소년을 쫓아와서 마침내 놓아주지 아니하고, 욕됨이 영화 뒤를 따르니 정定함은 반드시 균평均平한 것이다(老逐少年終不放 辱隨榮後定須匀)"라고 했다.
또, "글을 능통하게 읽는 사람은 천하에 적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은 세상에 많다(能讀書人天下少 不如意事世間多)"라고 했다. 또, "젊은 때에는 이름을 위하여 억제하고 구속함이 많더니, 늙어지니 미친 듯이 놀려고 하여도 그럴 만한 흥이 나지 않네(少日爲名多檢束 長年無興可顚狂)"라고 했다.
또, "아이들이 나에게 무슨 일로 슬퍼하냐고 묻거든, 그 뜻은 다른 때에 네가 스스로 알게 된다고 말하리라(兒童問我悲何事 此意他年汝自知)"라고 했다. 이것은 누구의 작품인지 알 수 없으나, 말들이 모두 절실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슬퍼하고 탄식하게 만들기에 족하다.

한악韓渥의 시에, "손이 떨려 〈팔항서〉 펴는 것이 게으르고, 눈이 어두워 구국도 찾는 것을 쉰다(手風慵展八行書 眼暗休尋九局圖)"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팔항서八行書는 형소邢邵의 시에, "홀로 팔항서를 부친다(獨寄八行書)"라고 한 것이

나, 유우석劉禹錫의 시에, “이제 막 팔항서를 보았다〔方見八行書〕”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구국도九局圖〉라는 것은 대체로 《부응경符應經》의 양둔陽遁 · 음둔陰遁은 모두 구국九局이다. 그런 까닭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상고하여 보니, 《부응경》의 둔갑법遁甲法[15]은 세상에 전하는 말로는, 황제黃帝 때에 풍후風后(황제의 정승)가 지었다고 한다. 문門을 나누고 국局을 정하여 흉한 것을 피하고 길한 데에 나아가게 함이 가장 일용日用에 요긴하다. 그런 까닭에 옛 사람들이 이것으로써 임기응변하고 적을 제압했다고 한다. 그 법이 10간干 가운데서 갑甲은 항상 숨어 감추기 때문에 둔갑遁甲이라고 한다. 둔갑을 세속에서 갑甲으로써 형체를 숨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필담筆談》에 말하기를, “육구몽陸龜蒙이 약명藥名으로 시를 지어 말하기를, 까마귀가 벌레 먹은 뿌리를 쪼고 돌아간다〔烏啄蠹根回〕”라고 하였는데, 약명은 곧 오훼烏喙이고 오탁烏啄은 아니다. 또,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옥금玉琴의 소리가 슬프다〔斷續玉琴哀〕”라고 하였으나, 약명은 속단續斷이라는 것이 있을 뿐이고 단적斷續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했다.
내가 일찍이 의방醫方의 약명을 보니, 오탁묘烏啄苗가 있었다. 또 매미의 허물 벗은 것을 단속斷續이라고 한다. 그러니 육구몽의 시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육구몽陸龜蒙의 시에, “오용의 봄풀에 치매[16]가 교만하다〔五茸春草雉媒驕〕”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오용五茸은 땅 이름이니, 오왕吳王이 사냥하던 곳이다.

육구몽이 궁인사宮人斜(당나라 때의 궁인의 묘지)를 읊은 시에 말하기를, “풀과 나무에 근심 어린 연기 봄 같지 않은데, 늦은 꾀꼬리 나그네를 향해 구슬피 우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향기로운 뼈를 묻을 수 있는 한 가지 일만이라도

15 귀신을 부려 변신變身하는 술법.

16 사냥꾼이 길들인 꿩으로 들꿩을 꾀어내는 것.

오히려 왕소군王昭君이 오랑캐 땅의 티끌이 된 것보다는 낫다는 것을〔草樹愁煙似不春 晩鶯哀怨向行人 須知一種埋香骨 猶勝昭君作虜塵〕"이라 했다. 시의 뜻이 좋다.

육로망陸魯望의 시에 말하기를, "방두가 왕가王家의 일에는 모이지 않고, 진토에서 공연히 흰 모시 옷만 검게 더럽히네〔方頭不會王門事 塵土空緇白苧衣〕"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조영치趙令畤의 《후청록侯鯖錄》에 말하기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옹졸한 자를 방두方頭라고 한다.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방두方頭라는 것은 시의時宜에 통하지 않고 돌아보거나 꺼림이 없는 자를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고 하였다.

황소黃巢[17]가 이미 패하고 달아나 중이 되어서 시를 지어 말하기를, "30년 전에 야영野營하면서 분주히 뛰어다녔더니, 철갑옷 입어 다하고 중의 옷 입었구나. 천진 다리 위에 찾는 사람도 없어서, 홀로 높은 난간에 의지하여 석양을 보네〔三十年前草上飛 鐵衣着盡着僧衣 天津橋上無人問 獨倚危欄看落暉〕"라고 했다. 날아 치솟아서 발호跋扈(제멋대로 날뛴다는 뜻으로, 세력이 강해 제어하기 힘듦을 말함)하려는 뜻이 있는 것 같다.

당시唐詩에, "만 리 가을바람이 금수에 분다〔萬里秋風吹錦水〕"라고 했고, 《송시宋詩》에는, "만 리의 군왕이 촉중에서 늙네〔萬里君王蜀中老〕" 했다. 성도成都에 만리교萬里橋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당唐나라 승僧 일행一行이 명황明皇에게 말하기를, "폐하께서는 말년에 마땅히 멀리 만 리 밖에 노닐겠습니

17 당唐나라 조주曹洲의 사람으로서 대대로 소금을 팔아 집안이 부유했다. 소巢는 말 타고 활쏘기를 잘하고 서기書記에 통했다. 사계詐計가 많았으며, 망명자亡命者를 즐겨 돌봐주었다. 희종僖宗 때에 왕선지王仙芝가 반란을 일으키니, 많은 군사를 모아 호응했다가 왕선지가 패하니, 소는 그 무리를 거느리고 솔토대장率土大將·충천대장군이라 스스로 일컬으면서 여러 주州를 공략하고 기세를 몰아 낙양洛陽을 빼앗고, 동관潼關을 깨뜨리고 드디어 장안長安을 함락시켜 제제齊帝라고 일컬었다. 이극용李克用에서 패하여 자살했다. 이것을 '황소黃巢의 난亂'이라고 한다.

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오융吳融의 시에 말하기를, "자산子山의 사부가 쓸쓸하게 슬픔을 일으킨다(子山詞賦莫興哀)"라고 했다. 자출子出은 유신庾信의 자字이니, 그는 〈애강남부哀江南賦〉를 지었다. 그런 까닭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또 왕형공王荊公의 시에, "풍진이 유난성을 근심하게 했다(風塵愁殺庾蘭成)"라고 했다. 난성蘭成은 유신庾信의 어릴 때의 이름이다. 〈애강남부〉에, "왕자王子가 낙빈洛濱에 있던 해가 난성蘭成이 사책射策[18]하던 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장비張泌의 시에, "시내 바람이 비를 불어 보내어 가을 절을 지나가고, 계곡의 돌이 달리는 여울물에 놀라 밤 못에 떨어진다(溪風送雨過秋寺 澗石驚瀧落夜潭)"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낭瀧은 달리는 여울물이다. 어떤 이가 낭瀧을 용龍으로 쓰는 것은 잘못이다. 또 《당시품휘唐詩品彙》에는 낭瀧을 천泉으로 썼다.

두순학杜荀鶴이 야응野鷹(들새매)을 읊은 시에, "아마도 정요征徭(세금과 부역)를 회피할 계책이 없을 것이다(也應無計避征徭)"라고 했다. 《소설》에, "어떤 사람이 이 글귀를 지극히 칭찬하니, 어떤 이가 비난하여 말하기를, '들새매가 무슨 세금과 부역이 있단 말인가' 하니, 그 칭찬한 사람이 해명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그때에 새털을 부과 징수하였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그 글귀를 극찬한 것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두순학의 시에 말하기를, "세상이 혼란해지니 종이 주인을 속이고, 나이 들어 노쇠하니 귀신이 사람을 희롱하네. 바다도 마르면 마침내는 바닥을 보일 것인데,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을 알 수 없구나(世亂奴欺主 年衰鬼弄人 海枯終見底 人死

18 한漢나라 시대부터 선비를 시험하는 한 방법. 경서經書나 정치상의 의문을 책策에 써서 내걸고 해답자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여 그것을 고사考査한 성적으로 우열을 결정하는 시험.

不知心)"라고 했다. 정말 그러하다.

나은중羅隱中이 가을에 달을 못 본 것을 읊은 시에, "하늘이 항아의 청상靑孀 원한의 괴로움을 알고, 짐짓 서북쪽에 뜬구름이 일어나게 하였네(天爲素娥孀怨苦 故敎西北起浮雲)"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고악부》에 상아원孀娥怨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에, "한漢나라 사람이 중추中秋에 달을 보다가 이 곡조를 생각한 것이다"라고 했다. 상아孀娥는 달 속에 산다는 항아嫦娥를 가리킨 것이다.

섭소온葉少蘊이 《피서록避暑錄》에 말하기를, "당唐나라의 어선御膳(임금에게 진공進供하는 음식)에는 홍릉병담紅綾餠餤을 소중히 여긴다. 대개 붉은 비단으로 싼 떡이다. 소종조昭宗朝에 연燕에서 곡강령曲江令에게 선비를 천거하니, 태관太官(벼슬 이름)이 특별히 병담餠餤을 만들어 주었다." 노연양盧延讓의 시에 말하기를, "영락하고 쇠잔한 치아齒牙를 속이지 말라. 일찍이 홍릉병담을 씹어 왔으니(莫欺零落殘牙齒 曾喫紅綾餠餤來)"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당시唐詩에 말하기를, "뺨 가에 초楚나라 비는 바람에 떨어지고, 머리 위의 진나라 구름은 해를 향해 삭아지네(臉邊楚雨臨風落 頭上秦雲向日銷)"라고 했다. 《옥당시선玉堂詩選》의 주에, "초우楚雨는 눈물을 가리킨 말이고, 진운秦雲은 머리털을 말한 것이다. 대對가 매우 정교하다"라고 했다.

당시唐詩에 말하기를, "구름 밖에서 들려오는 새로운 음악소리 홀연히 〈구추곡九秋曲〉으로 변하네(雲外新聲忽變秋)"라고 했고, 또, "한 가락 노랫소리에 성안 가득히 〈구추곡〉이로구나(一聲歌發滿城秋)"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육사형陸士衡의 시에 말하기를, "붉은 입술에는 구추를 머금었고, 고운 발자취는 칠반을 능가하네(丹脣含九秋 姸迹凌七盤)"라고 했다. 〈구추〉는 가곡의 이름이고, 〈칠반〉은 초楚나라의 춤이다. 추秋 자는 아마 모두 여기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섭이중이 농가農家를 슬퍼하는 시에, “2월에 새 실을 팔고, 5월에 새 곡식을 판다〔二月賣新絲 五月糶新穀〕”라고 했다.

논평하는 자가 말하기를, “2월에는 아직 새 실이 나오지 않는다. 아마 마땅히 4월이라고 써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패사稗史》를 참고하여 보니 말하였기를, “이것은 대체로 새 실이 아직 나오기 전에, 곡식이 성숙하기 전에 가난한 백성이 미리 빚을 지고 미리 먼저 파는 것이다. 즉 상말에 인년寅年에 묘년卯年의 식량을 다 먹어버렸다〔寅年喫了卯年糧〕는 말과 뜻이 같은 것이다. 만약 실이 나온 뒤에 실을 팔고, 곡식이 익은 뒤에 판다면 그것은 떳떳한 이치이다. 무엇이 빈민의 생활이 극난하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 말이 옳은 것 같다.

육선공陸宣公의 글에, “누에 칠 일이 이제 막 일어났는데 이미 비단 세稅를 물어야 하고, 또 농사지은 것을 베기도 전에 갑자기 곡조穀租를 걷는구나”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당唐나라에 호생胡生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한소부韓少府가 방문하는 것을 기뻐하여 지은 시에, “홀연히 매복梅福[19]이 와서 찾는다는 말을 듣고, 웃으며 하의荷衣[20]가 초당草堂에서 나온 것을 보네. 아이들이 수레와 말을 보는 데에 익숙하지 않아서 다투어 갈대꽃 깊은 곳에 들어가 숨네〔忽聞梅福來相訪 笑看荷衣出草堂 兒童不慣見車馬 爭入蘆花深處藏〕”라고 했다. 또 어린아이가 낚시질하는 것을 보고 지은 시에는, “더벅머리 어린애가 낚시질을 배워서 매태莓苔(이끼)에 옆으로 앉았으니 풀빛이 몸에 비치네. 길 가는 사람이 물으려고 멀리서 손 흔들어

19 사람의 이름. 한漢나라 때의 수춘壽春 사람이니 자는 자진子眞이다. 상서尙書 곡략춘추穀梁春秋에 정통했다. 남창위南昌尉에 임명되었으나 뒤에 벼슬을 버리고 집에 살더니, 왕망王莽이 찬정簒政함에 구강九江에 가서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고사로 인하여 현위縣尉를 매복梅福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20 연잎으로 만든 옷. 은자隱者의 옷이나 세속을 초월한 사람의 의복을 일컫는 말. 선인仙人의 옷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부르건만, 물고기 놀랄 것을 두려워하여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네〔蓬頭稚子學垂綸 側坐莓苔草映身 路人借問遙招手 恐畏魚驚不應人〕"라고 했다.

두상杜常의 〈화청궁시華淸宮詩〉에 말하기를, "강남江南의 수십 리 길을 다 가서, 새벽바람 지는 달에 화청궁 들어가네. 조원각朝元閣 위에 서풍이 급하더니 장양長楊으로 모여들어 빗소리를 만드는구나〔行盡江南數十程 曉風殘月入華淸 朝元閣上西風急 都入長楊作雨聲〕"라고 했다. 이 시는 다만 같은 글자를 중첩해서 사용한 것이 병일 뿐 아니라 화청궁은 여산驪山에 있는데, '강남으로 다 가서〔行盡江南〕' 운운한 것은 온당하지 않다. 상고하여 보니, 양신楊愼이 말하기를, "두상은 송나라의 구양수歐陽修와 한때 사람으로서 당나라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이 시는 잘못되어 당시집唐詩集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했다.

18-2 오대시五代詩

구양형歐陽炯은 촉蜀나라의 맹창孟昶 때의 사람이다. 그의 시에 이런 것이 있다. "누樓 위에서 취하여 봄빛에 잠겨서 자노라니, 녹양綠楊(푸른 버들)의 바람이 작은 꾀꼬리 소리를 보내네〔樓上醉和春色寢 綠楊風送小鶯聲〕"라고 했다. 또, "푸른 눈썹, 붉은 뺨으로 웃으며 서로 맞으니, 또 해당화 꽃 아래 가서 마시네〔靑娥紅臉笑相迎 又向海棠花下飮〕"라고 했다. 또, "해는 높이 올랐는데 아직도 일어나지 않음은 원앙금침에 연정戀情이 아쉽기 때문이라네. 앵무가 황금의 새장에서 말하기를, 도아道兒[21]도 도리어 게으름쟁이〔日高猶未起 爲戀鴛鴦被 鸚鵡語金籠 道兒還是慵儘好〕"라고 했다. 진실로 좋다.

21 남조종南朝宗 사람인 사술謝述의 어린 때 이름. 자는 경선景先. 젊은 때부터 지행至行이 있으며 여러 형을 섬겨 우애가 있었다. 벼슬이 좌위장군左衛將軍 · 오흥태수吳興太守에 이르렀다.

남당주南唐主 이경李景의 시에 말하기를, “꽃이 떨어져 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일찍이 서로 아는 사이처럼 제비가 날아오네〔無可奈何花落去 似曾相識燕飛來〕”라고 했다. 또, “가느다란 비에 꿈이 계새의 먼 곳을 돌아오니, 작은 누樓에 흐느껴 부는 옥피리 소리 차가워라〔細兩夢回鷄塞遠 小樓吹徹玉笙寒〕”라고 했다. 또, “청조靑鳥가 구름 밖의 소식을 전해오지 않으니, 정향丁香의 봉오리가 공연히 빗속의 수심을 맺는구나〔靑鳥不傳雲外信 丁香空結雨中愁〕”라고 했다. 아름답다.

임금 이경李景이 신료臣僚들과 함께 못에서 물고기를 낚는데 홀로 잡은 것이 없었다. 이가명李家明이 앞에 나아가 입으로 부르기를, “못 둘레를 쌓은 벽돌담이 막 이루어지고, 흥은 무르익었는데, 어지御池에 봄은 따뜻하고 물은 용용하구나. 범상한 물고기들이 감히 임금의 낚싯밥을 먹지 못하니 임금께선 마땅히 용龍을 낚을 것을 알고 있네〔新甃垂成興正濃 御池春暖水溶溶 凡鱗不敢呑香餌 知道君王合釣龍〕”라고 했다.

한정사韓定辭의 시에 말하기를, “성대한 덕은 은관을 가지고 기술하기에 좋다〔盛德好將銀管述〕”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양梁나라의 원제元帝는 3가지의 붓을 가지고 있었으니, 충효가 완전한 자의 일은 금관金管의 붓으로 쓰고, 덕행이 순수한 자의 사적은 은관銀管의 붓으로 쓰고, 문장이 넉넉하고 뛰어난 자의 일은 반죽관斑竹管의 붓으로 기록했다고 한다.
임숙영任叔英이 차천로車天輅를 위한 만사挽詞의 한 연구聯句에 말하기를, “헛되게 반죽관의 붓을 가지고, 도리어 백요궁의 일을 기록하네〔空將斑竹管 却記白瑤宮〕”라고 했다. 역시 이 일을 인용한 것이다. 이장길李長吉의 〈백옥루기白玉樓記〉를 혹은 백요궁白瑤宮이라고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문장이 풍부하고 뛰어난 차천로車天輅의 일을 기록할 반죽관斑竹管의 붓을 잡았으나, 차車는 이미 하늘 위의 백옥루에 가고 없으니, 도리어 백요궁의 일을 쓰게 되었다고 라고 한 말이다.

한정사는 당나라 말기의 사람으로서 오대五代에서 벼슬한 사람이다.

18-3 송시宋詩

위야魏野의 시에 말하기를, "잎을 태운 화로 속에는 밤 지낸 불이 없고, 글을 읽은 창 아래에는 가냘픈 등잔불이 남아 있다〔燒葉爐中無宿火 讀書窓下有殘燈〕"라고 했다. 어떤 이가 잎〔葉〕을 약藥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또 말하기를, "유명하니 큰 부귀이고, 무사하니 작은 신선일세. 벼루를 씻으니 물고기가 먹을 머금고, 차를 달이니 학이 연기를 피하네〔有名閑富貴 無事小神仙 洗硯魚呑墨 烹茶鶴避烟〕"라고 했다. 후세 사람이 아래 연구聯句에 못가〔池邊〕와 소나무 아래〔松下〕라는 글자를 덧붙인 것은 뱀을 그리고 뱀의 발을 덧붙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왕흠약王欽若이 아직 급제하기 전에 시를 지은 것이 있다. "용은 늦은 연기를 띠고 동부洞府로 달려가고, 기러기는 가을빛을 끌고 형양衡陽(땅 이름)으로 들어간다〔龍帶晩煙歸洞府 鴈拖秋色入衡陽〕"라고 했다. 진종眞宗이 크게 상을 주고 사랑했다.
그가 뒤에 벼슬이 상상上相에 이르게 된 것도 실은 이 시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에 보면 별로 신기한 말이 아닌 시다.

왕우칭王禹稱이 학鶴을 두고 지은 시에, "무덤을 어찌 앵무총과 같이 하랴. 날고 우는 것이 봉황지鳳凰池[22]에는 이르지 않네〔埋瘞肯同鸚鵡冢 飛鳴不到鳳凰池〕"라고 했다. 장우張虞의 등제시登第詩(과거에 급제한 때에 지은 시)에는 말하기를, "단

22 금원禁苑 안에 있는 못의 이름. 곁에 중서성中書省이 있기 때문에 변전하여 중서성, 또는 재상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번에 수석首席으로 용호방에 이름이 올랐네. 10년이면 몸이 봉황지에 이르리라(一擧首登龍虎榜 十年身到鳳凰池)"라고 했다.
뒤에 두 사람이 모두 작은 벼슬에 그치고 마침내 그 지경에 이르지 못했다. 지금 보니 왕王의 시는 말이 빈약하고, 장張의 시는 말이 과대誇大하여 모두가 원대한 기상이 아니다.

왕증王曾이 포의布衣(벼슬하지 않은 사람)로 있을 때 조매早梅(이른 매화)를 두고 지은 시에 말하기를, "설중雪中이니 아직 음식 맛 조화하는 일은 말하지 않거니와, 먼저 온갖 꽃들의 머리 위를 향하여 피어 보리라(雪中未說調羹事 且向百花頭上開)"라고 했다. 여몽정呂蒙正이 말하기를, "이 젊은이가 장원급제하여 재상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뒤에 이적李迪과 함께 방榜을 이어 장원급제하고, 또 서로 이어 재상이 되니, 시를 지어 보내면서 말하기를, "일찍이 서로 이어 장원급제하고, 또 서로 교대하여 재상이 되었네(錦標得雋[23]曾相繼 金鼎調元[24]亦薦更)"라고 했다.

송나라 진종眞宗의 꽃구경하고 낚시질하는 연회의 시에서 오직 정위丁謂의, "꾀꼬리는 봉연에 놀라서 꽃을 뚫고 가버리고, 물고기는 용안龍顔을 두려워하여 낚시에 걸리는 것이 더디구나(鶯驚鳳輦穿花去 魚畏龍顔上釣遲)"라고 한 한 연구가 가장 좋다. 위 글귀는 아래 글귀만 못하다.

양대년楊大年이 부용芙蓉을 두고 지은 시에 말하기를, "어젯밤 3경更 때 항아가 옥비녀를 떨어뜨렸네. 풍이馮夷(물귀신의 이름)가 감히 받지 못하여 푸른 물결 가운데로 받들고 나왔네(昨夜三更裡 姮娥墮玉簪 馮夷不敢受 捧出碧波心)"라고 했다. 고려 때에 최해崔瀣는 빗속의 연잎을 두고 지은 시에서 말하기를, "후추 800곡

23 과거에 장원급제함. 탈금표奪錦標라고도 한다.
24 재상이 되어서 국정國政을 요리함.

저장한 것을 천고에 그 어리석음을 비웃는다. 어찌 푸른 옥말로 온 종일 명주明珠를 마질하는 것만 하겠는가〔貯椒八百斛[25] 千載笑其愚 如何綠玉斗 竟日量明珠〕"라고 했다. 두 작품이 서로 비등하다.

구래공寇萊公의 시에 말하기를, "들물에 건너는 사람 없건만, 외로운 배가 날이 다하도록 떠있네〔野水無人渡 孤舟盡日橫〕"라고 했다. 온전히 위소주韋蘇州의 시, "들나루터에 사람은 없는데, 배가 스스로 가로질러 있네〔野渡無人舟自橫〕"라는 글귀를 습용한 것이다. 그런데 후인後人들이 유독 내공萊公의 글만을 칭찬하여 재상의 뜻이 있다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안원헌晏元獻의 시에 이런 것이 있다. "배꽃 핀 원락院落(울을 두른 집)에는 달빛이 용용하고, 버들개지 날리는 지당에는 담담한 바람일세〔梨花院落溶溶月 柳絮池塘淡淡風〕" 또, "누대樓臺는 등불 꺼진 밤이 스산하고, 문거리는 눈 쓸어내는 때에 쓸쓸하다〔樓臺冷落收燈夜 門巷蕭條掃雪天〕"라고 했다. 또 "안정되었다간 다시 흔들리는 봄물 빛인가. 붉은 듯하다간 흰 듯도 한 것은 들에 핀 해당화라네〔已定復搖春水色 似紅如白野棠花〕"라고 했다.
이러한 글귀들은 곤체崑體(송나라 때 시체詩體의 한 가지) 같지 않다. 욀 만하다.

송나라 양휘지楊徽之는 태종太宗 때 사람으로, 시를 잘 짓는 것으로 이름이 드러났다. 그의 경구警句에 이런 것이 있다.
"개는 대나무 울타리에서 술 사오는 손을 보고 짖고, 학鶴은 이끼 낀 언덕에서 옷 빠는 중을 따라간다〔犬吠竹籬沽酒客 鶴隨苔岸洗衣僧〕", "꽃을 띄운 물은 구당협에 들어가고, 비를 지닌 구름은 월준주로 돌아가네〔浮花水入瞿塘峽 帶雨雲歸越嶲

25 후추를 800곡斛이나 저축함. 당唐나라 기산岐山 사람 원재元載의 자는 공보公輔이니, 이보국李輔國에 붙어서 대종代宗 때에 벼슬이 중서시랑에 이르렀는데, 보국이 죽으매 원재는 사사賜死되어 그의 집을 적몰籍沒하니 후추 800곡이 나왔다고 한다.

州〕”, “수루의 연기는 스스로 곧게 오르고, 싸움터의 비는 길이 비린내 난다〔戍樓煙自直 戰地雨長腥〕”, “새 서리는 단풍잎을 물들이고 흰 달빛은 갈대꽃을 빌어 빛난다〔新霜染楓葉 皓月借蘆花〕.”

진아陳亞에게 약명藥名을 넣어 지은 시가 100여 수 있다. “풍월風月은 앞 호수가 가깝고, 헌창軒窓(마루와 창문)은 반여름이 서늘하다〔風月前湖近 軒窓半夏凉〕”라든가, “바둑은 섣달 추위를 겁내어 바둑알을 입김으로 불어서 놓고, 옷은 봄의 따뜻함을 싫어하여 비단을 축소하여 짓는다〔碁怕臘寒呵子下 衣嫌春暖縮紗裁〕”라고 한 것 같은 것은 교묘하다. 반하半夏 · 축사縮紗는 약藥 이름이다.

석만경石曼卿의 〈주필역시籌筆驛詩〉에 말하기를, “뜻 가운데에는 흐르는 물이 멀고, 시름 밖에는 옛 산이 푸르구나〔意中流水遠 愁外舊山靑〕”라고 했다. 또, “즐거운 뜻으로 서로 관심을 가지니 새가 마주 말하고, 싱싱한 향기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나무가 꽃을 교차交叉하였네〔樂意相關禽對語 生香不斷樹交花〕”라고 했다. 주자朱子가 이 시를 지극히 아름답다고 했다.

포증包拯의 시에 말하기를, “곧은 줄기는 마침내 기둥이 되고, 진정 모진 쇠는 갈고리가 되지 않는다〔直幹終爲棟 眞剛不作鉤〕”고 했다. 그의 기상을 볼 수 있다.

《구양시화歐陽詩話》에 말하기를, “서남西南의 오랑캐들이 팔고 있는 만포궁의蠻布弓衣에 매성유梅聖俞의 〈춘설시春雪詩〉를 짜 넣었다. 시에 말하기를, ‘북풍이 사흘 동안 가만히 눈모래를 날리니, 교룡처럼 말아 일어나 모두 꽃을 이루었다. 꽃이 만 리에 날려서 흰 달빛을 빼앗고, 흰 돌 빛 선명하니, 오색 돌로 하늘을 보수補修한 여와女媧씨는 근심한다. 대명궁大明宮 넓은 뜰을 밟으면서 조하朝賀하니 치미雉尾에 쌓인 것 털지 않고, 궁화宮靴에도 붙네, 궁중의 재인才人들이 임금의 면전에서 술잔을 받들고 〈남산수南山壽〉를 부르네. 삼공三公은 책

임을 해제하고 백성들은 즐겨하니 십천十千의 말술을 누가 다시 아낄 것이랴〔朔風三日暗吹沙 蛟龍卷起皆成花 花飛萬里奪皓月 白石爛旺愁女媧 大明廣庭踏朝賀 雉尾不掃粘宮靴 宮中才人承聖顔 捧觴獻壽呼南山 三公免責百姓喜 斗酒十千誰復慳〕'라고 했다. 이 시가 《성유집聖俞集》 속에 있으나, 절창絶唱은 아니다. 아마 그의 명성이 천하에 높으므로 1편篇의 시詩와 한 번 읊는 글귀가 이적夷狄에게 전해지면 귀중히 여기기를 이와 같이 한 것이다"라고 했다.
내 생각에는, 이 시의 말과 뜻은 눈〔雪〕을 축하한 것이고, 봄눈을 읊은 시는 아닌 것 같다. 아마 오랑캐들이 소중하게 여긴 것은 그의 이름 때문이고, 정말 그 좋다고 할 만한 것을 알고서 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능히 알고서 좋아하는 사람은 천하에 드문 것이다.

구양공歐陽公의 시에, "은산의 갈고리가 주렴을 걸어 땅에 닿을 듯 드리웠다〔銀蒜鉤簾宛地垂〕"라고 했다. 또 《소사小詞》에 말하기를, "일찍이 동풍이 사나운 회오리바람을 짓기에, 한 쌍의 은산銀蒜을 적당히 배치하여 명주 장막을 진정시켰다〔早是東風作惡旋 安排一雙銀蒜鎭羅幕〕"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은산은 은으로 마늘 형상을 만들어서 주렴이 바람에 날리지 않게 누르는 것이다.

구양공의 시에 말하기를, "3월의 봄 그늘이 꽃을 기른다〔三月春陰正養花〕"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햇빛을 잠가 버리는 봄 그늘이 화혼을 기른다〔鎖日春陰養花魂〕"라고 했다. 소동파의 시에 말하기를, "꽃을 기르는 데에는 모름지기 온화하고 그늘진 날씨라야 한다〔養花須晏陰〕"라고 했다. 또 무명씨無名氏의 시에는 말하기를, "맑은 구름 보슬비에 꽃을 기를 때로구나〔淡雲微雨養花天〕"라고 했다. 대체로 날씨가 그늘지고 조금씩 오는 비는 꽃을 기른다고〔養花〕 한다. 《시학대성詩學大成》이라는 책에 시가 있는데, 말하기를 "하늘이 매화를 기르느라고 날마다 갠다〔天養梅花日晴〕"라고 했다. 이 시는 누구의 작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기른다는 양養 자를 잘못 쓴 것일 것이다.

구양공의 시에, “추위를 막기 위하여 나직이 낯을 가린다〔禦寒低便面〕”라고 했다. 편便은 거성去聲으로 읽는다.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옛날 사람들은 추운 철에도 또한 부채로 가렸던 모양이다. 상고하여 보니, 《운부군옥韻府群玉》 편면便面의 설명에, “낯을 가리는 것은 사람을 안 보려고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면 편안함을 얻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지금 중들이 가지는 대나무로 만든 부채가 그것이다.

매성유梅聖俞의 〈사금언시四禽言詩〉에 말하기를, “이활활泥滑滑 · 파병초婆餅焦 · 제호로提壺盧 · 귀거락歸去樂”이라고 했다. 소동파의 오금언五禽言의 시에는, “근주귀蘄州鬼 · 탈포과脫布袴 · 자고鷓鴣 · 고악姑惡 · 황려黃鸝”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고경명高敬命의 〈금언시禽言詩〉에는 말하기를, “죽고자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제게 삶이 있음을 후회함인 줄 알겠구나〔欲死緣何事知渠悔有生〕”라고 했다. 또 무명씨無名氏의 시에는 말하기를, “인간에도 구차하게 사는 것이 수없이 많음을 알 터인데, 어째서 일찍이 한 조각의 몸을 가볍게 여기는가〔人間苟活知無數 胡乃曾輕一片身〕”라고 했다. 이것은 세속에서 소위, “빨딱 죽고지라”라고 운다는 새를 가리킨 것이다. 이 새는 매년 봄이 되면 우는 소리가 매우 슬프다. 아마 원금怨禽(새 이름)일 것이다.

송나라 왕규王珪의 〈관등응제시觀燈應制詩〉의 끝구에 말하기를, “한 가락 〈승평곡昇平曲〉에 사람들이 모두 즐겨하니, 임금께선 또다시 자하배를 드시네〔一曲昇平人共樂 君王又進紫霞杯〕”라고 했다. 《소설》에 보니, 고려가 정조正朝(정월正月 초하루)를 축하하는 예물 중에 자하배紫霞杯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오색五色이 찬란한 유리잔이다. 이 저녁에 그것을 사용하여 술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요산당외기》에 말하기를, “고려의 자하배는 오색 유리이다. 〈승평昇平〉은 가곡歌曲의 이름이다”라고 했다.

소동파의 시에 말하기를, "남들은 모두 아들을 기르면서 총명하기를 바라지만, 나는 총명 때문에 일생을 그르쳤다네. 다만 아이를 낳으면 어리석고 또 미련하여서, 재앙도 없고 환난患難도 없이 공경公卿에 이르기를 원할 뿐일세〔人皆養子望聰明 我被聰明誤一生 但願生兒愚且魯 無災無難到公卿〕"라고 했다. 또 구종길瞿宗吉의 시에는 말하기를, "예부터 문장은 운명에 재액災厄을 주는 것, 총명이 반드시 어리석고 몽매한 것보다 나은 것은 아니다〔自古文章厄命窮 聰明未必勝愚蒙〕"라고 했다. 이것은 아마 소동파의 말을 인용한 것일 것이다.

왕안석王安石의 시에 말하기를, "지금 사람들이 상앙商鞅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상앙은 명령하면 그 명령을 반드시 실행하였느니〔今人未可非商鞅 商鞅能令令必行〕"라고 했다. 이 시를 보면 안석安石이 입으로는 선왕先王의 도道를 말하면서, 실은 상앙을 조술祖述(스승의 도道를 본받아서 서술하여 밝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소인小人이라는 꾸짖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산半山의 시에, "자마紫磨 같은 둥근 달이 평화롭게 올라오니, 제청帝青으로 꾸민 것 같은 운막雲幕이 고요히 걷히네〔紫磨月輪升靄靄 帝青雲幕卷寥寥〕"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금金의 좋은 것을 자마라고 이름한다. 제청帝青은 구슬 이름이니, 《화엄경華嚴經》에 나온다. 또 《사시事始》에 말하기를, "《귀장역歸藏易》에 말하기를, 여와女媧가 구름의 장막을 치고 신명神明에게 점을 쳤다고 하는데, 그것이 장막의 시초이다"라고 했다.

소동파의 시에 말하기를, "전당의 약옥선을 시원스럽게 쏟는다〔快瀉錢塘藥玉船〕"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옥당시선玉堂詩選》의 주에, "약옥선藥玉船은 약을 조합하여 만든 술잔이니, 그 잔으로 술을 마셔 장생長生을 기구祈求한다. 즉 지금의 자하배紫霞杯이다"라고 했다. 《운부韻府》에는 말하기를, "약으로써 돌을 구우니, 옥과 같아서 술잔을 만들 만하다"라고 했다.

왕반산王半山이 그림을 제목으로 한 시에 말하기를, “방제로 물을 받아 환약을 조화調和하니, 말끔한 생초가 여름과 겨울로 변하네(方諸承水調幻藥 洒落生綃變寒暑)”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방제方諸는 거울이다. 《주례周禮》에 보면, “사훤씨司烜氏가 거울로써 명수明水를 달에서 길어왔다”라고 했다.

《능엄경楞嚴經》에, “여러 큰 환사幻師들이 대음정大陰精을 구하여 그것을 사용하여 환약幻藥을 조화調和했다”라고 했다. 이 시에서 환사는 대체로 화사畫師를 가리킨 것이고, 환약은 아마도 채색彩色을 말한 것이며, 대음정은 물을 말한 것이다.

왕반산이 첫여름을 읊은 시에 말하기를, “갠 날 따뜻한 바람에는 보리 기운이 나고, 푸른 그늘 그윽한 풀이 꽃필 때보다 더 좋다(晴日暖風生麥氣 綠陰幽草勝花時)”라고 했다. 아조我朝의 부림군富林君 식湜의 시에 말하기를, “푸른 그늘 꽃다운 풀이 꽃필 때보다 더 좋다(綠陰芳草勝花時)”라고 했다. 이 글귀는 완전히 왕반산의 작품을 그대로 쓴 것이다. 다만 “그윽한 풀(幽草)”을 “꽃다운 풀(芳草)”이라고 고친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왕반산의 시에, “턱을 움직이면서 양정을 향하여 바야흐로 침을 흘리네(朶頤羊鼎方垂涎)”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양정羊鼎·우정牛鼎은 모두 솥의 이름이니, 그 형상에 따라서 붙인 이름이다.
진진陳震이 말하기를, 우정禹鼎(하우씨夏禹氏가 주조한 솥)은 하夏·은殷·주周 3대代에 서로 전하면서 신기神器라고 불렀다. 7웅雄이 참람하게 왕이라고 스스로 일컫던 시대에 이르러, 그들은 가만히 계책하기를, 솥을 얻는 자는 천하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를, 마치 후세에서 옥새玉璽를 전하는 것처럼 했다고 한다. 반표班彪의 《왕명론王命論》에 말하기를, “신기神器에 천명天命이 있다”라고 했다. 문중자文中子가 말하기를, “신기神器는 돌아가는 곳이 있다”라고 했

다. 소위 신기神器라고 하는 것은 모두 9정鼎[26]을 가리킨 것이다.

왕반산의 시에 말하기를, "지사志士도 때를 못 만나면 또한 소성小成에 그치고, 중등中等의 재능이라도 세상을 따르면 공명을 성취한다(志士無時亦小成 中才隨世就功名)"라고 했다. 대체로 옛날부터 뜻이 있으면서도 시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당시唐詩에서 말한 소위, "때가 오면 하늘과 땅이 모두 힘을 같이하고, 운수가 가버리면 영웅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時來天地皆同力 運去英雄不自由)"라고 한 것이 또한 이 시와 같은 뜻이다.

형공荊公이 종산鍾山에 물러가서 시를 짓기를, "양후穰侯[27]가 늙어서 관중關中의 일을 천단擅斷(저 하고 싶은 대로 결단決斷함)할 때에, 항상 제후들이 손님으로 오는 것을 두려워했다더니, 나도 또한 모년에 한 동학洞壑(골)을 전단하니, 거마車馬를 만날 때마다 문득 놀라고 시기하네(穰侯老擅關中事 長恐諸侯客子來 我亦暮年專一壑 每逢車馬便驚猜)"라고 했다.
그 전단專斷하고 독천獨擅하는 마음과 자기보다 나은 자를 꺼리는 뜻을 엿볼 수 있다. 산수山水의 풍경을 얻고 잃는 것을 근심하는 것이, 높은 벼슬을 얻고 잃는 것을 근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후청록侯鯖錄》에 말하기를, "왕개보王介甫가 어린 때에 〈석류화石榴花〉라는 시를 지어 말하기를, 짙게 푸른 1만 가지 속에 붉은 꽃 한 점, 사람을 감동시키는 봄빛이란 반드시 많은 것이 필요치 않다(濃綠萬枝紅一點 動人春色不須多)"라고 했

26 하우씨夏禹氏가 9목牧의 쇠를 거두어 9정鼎을 만들었으니 9주州를 상징한 것이다. 3대代 때에는 전국傳國의 보寶로 하여 항상 왕도王都를 따라 옮겼다. 그러므로 도읍을 정하는 것을 정정定鼎이라 했다. 주周나라 때에 그중 1개가 사수泗水에 침몰하여, 나머지는 8정鼎이 되었다. 그 뒤는 고증이 없다고 한다.

27 전국戰國 때, 진秦나라의 정승 위염魏冉이니, 양穰에 봉후되었으므로 양후穰侯라고 한다. 소왕昭王의 모후인 선태후宣太后의 아우로서, 소왕 때에 국정을 전단했다.

다. 상고하여 보니, 섭몽득葉夢得이 말하기를, "이것은 당나라 사람의 시이고 형공荊公의 시는 아니다. 그 전편全篇을 보지 못한 것이 애석할 뿐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시의 구법句法은 형공의 수법 같다. 《요산당외기》에도 또한 형공의 작품이라고 했다. 그런데 섭몽득이 당시唐詩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였는지 알 수 없다.

왕반산의 시에 말하기를, "가느다란 글자는 노인이 읽는 데 방해되고, 긴 삿자리는 혼곤히 잠자는 데 쾌적하다. 삿자리를 가져다 장차 한 번 쉬려고 하여 책을 던져서 소년에게 돌려준다〔細書妨老讀 長簟愜昏眠 取簟且一息 抛書還少年〕"라고 했다. 육방옹陸放翁의 시에 말하기를, "부들방석에 마주 앉았으니 잠 맛이 달고도 길어, 주인은 손을 잊고 손은 주인을 잊네. 한참 뒤에 손은 가고 주인도 잠을 깨니, 서창西窓 반쪽에는 석양이 없네〔相對蒲團睡味長 主人與客兩相忘 須臾客去主人覺 一半西窓無夕陽〕"라고 했다. 두 사람의 시가 서로 비슷하다. 그러나 육방옹의 시가 더욱 호방豪放하다.

왕반산이 백낙천의 시를 본받아 지은 시에 말하기를, "어느 곳에서 술 잊기가 어려운가. 영웅이 뜻을 잃었을 때다. 조정에는 왕망王莽과 동탁董卓이 살아 있고, 바위 골짜기에는 이윤伊尹 · 주공周公 같은 이가 죽어간다. 부렴賦斂에 중원中原이 곤궁하게 되고, 전쟁으로 천하가 근심에 잠기네. 이런 때에 술 한 잔 없으면, 장도壯圖(웅장한 꾀, 장한 계획) 그치는 한을 견딜 수 없으리〔何處難忘酒 英雄失志秋 廟堂生莽卓 巖谷死伊周 賦斂中原困 干戈四海愁 此時無一盞 難遣壯圖休〕"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왕반산이 신법新法을 힘써 시행하여, 온 천하에 해독을 흘려보냈으니 이 시는 정말 자신을 말한 것이다.
또 백낙천의 시에 말하기를, "주공周公은 그를 의심하는 유언流言이 퍼지던 날을 두려워하였으며, 왕망王莽은 선비를 대할 때에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고 공

경하였네. 만약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때에 몸이 문득 죽게 했다면, 그들 한평생의 참과 거짓을 누가 알 수 있었으랴〔周公恐懼流言日 王莽謙恭下士時 若使當年身便死 一生眞僞有誰知〕”라고 했다. 왕반산이 이 시를 항상 즐겨 외었다고 하니, 혹시나 또한 느끼는 바 있어서 그렇게 하였던가.

왕개보王介甫의 〈강행시江行詩〉에 말하기를, “잠잘 때는 송아지의 잠자는 풀밭을 나누어 얻고, 앉을 때에는 갈매기의 앉는 모래를 점령해 가진다〔眠分黃犢草坐占白鷗沙〕”라고 했다. 점占은 거성去聲으로 읽는다. 대체로 잠잘 때는 누른 송아지의 잠자는 풀을 나누어 얻고, 앉을 때에는 흰 갈매기의 앉는 모래를 점령해 가진다고 말한 것이다. “강가를 간다”는 것을 제목으로 하였기 때문에 시어詩語가 이와 같은 것이다. 미물微物과 더불어 세속적인 일이나, 욕념欲念을 잊으려는 심경을 읊은 것이다. 어떤 이가 분分과 점占 자를 가지고 분변分辨과 식인識認의 뜻으로 해석하였으나, 그렇게 한다면 점占은 마땅히 평성平聲으로 읽어야 할 것이니, 잘못이다.

왕안석王安石의 시에, “누워서 500궁弓의 너그럽고 한가함을 점령한다〔臥占寬閑五百弓〕”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서역西域에서는 팔로 땅을 잰다고 한다. 팔 4배의 길이를 1궁弓이라고 하는데, 당척唐尺으로 환산하면 500궁은 2리里 남짓한 거리이다.

소강절邵康節의 시에, “어디가 신선 사는 고을인가. 신선 사는 고을이란 자신의 거실居室을 떠나지 않는 것. 눈앞에 세속의 일이 없으면 마음은 스스로 맑고 서늘하리라〔何處是仙鄕 仙鄕不離房 眼前無俗事 心下自淸凉〕”라고 했다.
이종이李宗易의 시에 말하기를, “대체로 마음이 만족하면 몸도 도리어 만족한 것, 오직 몸은 한가롭되 마음이 한가롭지 않을까 두려울 뿐이네. 다만 마음이 한가로움을 얻어 곳에 따라 즐길 수 있다면, 조시朝市(조정과 저자)와 운산雲山(구

름같이 보이는 먼 곳의 산)을 구태여 가릴 것이 없느니(大都心足身還定 祗恐身閑心未閑 但得心閑隨處樂 不須朝市與雲山)"라고 했다.

소강절의 시에 말하기를, "평생에 눈썹 찡그릴 일을 하지 않았으니, 온 세상에 응당 나에게 이를 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平生不作皺眉事 擧世應無切齒人)"라고 했다. 또, "바람과 꽃과 눈과 달은 천금千金을 가진 부자가 부럽지 않고, 물과 대숲과 구름과 산을 가진 나는 만호후萬戶侯 못지않구나(風花雪月千金子 水竹雲山 萬戶侯)"라고 했다. 또, "당우의 읍하는 겸손도 지나고 보니 서너 잔의 술보다 더 소중할 것이 없구나. 은殷나라 탕왕湯王이나 주周나라 무왕武王의 전쟁도 이제 보니 한 판 바둑일 뿐이다(唐虞揖遜三杯酒 湯武交爭一局碁)"라고 했다. 그의 가슴속의 생각이 편안하고 즐거우며, 호방豪放한 것을 생각할 때에 천년을 지났건만 그의 시를 외면 그 사람을 보는 것 같다.

서단舒亶의 시에 말하기를, "향기는 마름풀에 비 오는 밤 조통에 뜨고, 푸르름은 바람 부는 봄의 꽃 언덕의 버들에 흔들린다(香泛釣筒萍雨夜 綠搖花塢柳風春)"고 했다. 또 "허공 밖에 물빛은 바람이 달을 흔들고,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꽃 기운은 눈(雪)이 매화를 감추었네(空外水光風動月 暗中花氣雪藏梅)"라고 했다. 또 "만동학洞壑에 물이 맑으니, 달이 흰 것을 알겠구나. 천 수풀에 서리가 무거우니 소나무 높은 것을 쳐다보네(萬壑水澄知月白 千林霜重見松高)"라고 했다. 서단은 송나라 때는 시의 명성이 없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수법手法의 높음이 이와 같다.

소동파의 사詞에 말하기를, "참 모습의 산 향기를 누가 그릴 수 있으랴. 옥노玉奴의 고운 손이 매화를 냄새 맡는 것을(眞態生香誰畵得 玉奴纖手嗅梅花)"이라고 했다. 《묵장만록墨莊謾錄》에 말하기를, 일찍이 《동파수서東坡手書》를 보니, "본래는 옥노섬수玉奴纖手를 '옥 같은 고운 손(玉如纖手)'이라고 했다. 양용수楊用脩도

또한 그것이 옳다고 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소동파의 시에, "옥노가 마침내 동혼후東昏侯[28]를 저버리지 않았다(玉奴終不負東昏)라고 했다. 이 옥노는 반숙비潘淑妃[29]를 가리킨 것이다. 또 말하기를, 옥노의 거문고는 화노의 갈고羯鼓의 협연協演을 찾는다(玉奴絃索花奴手)"라고 하였는데, 이 옥노는 양귀비楊貴妃를 말한 것이고, 화노花奴는 여양왕汝陽王 진璡을 가리킨 것이다. 이 사詞에서 말한 옥노玉奴도 또한 같은 뜻일 것이다. 어록語錄에서 말한 것은 아마 잘못일 것이다.

소동파의 시에, "여름이 가무니 맥인麥人이 파리하다(夏旱麥人臞)"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보리의 심心을 맥인이라고 한다. 《본초本草》에 말하기를, "교맥蕎麥(메밀)의 인人을 따다가 먹으면 기氣를 내린다"라고 했다. 소동파의 시에 또 말하기를, "새벽 사이에 매화나무가 이미 인人을 낳았다(曉來梅子已生人)"라고 했다. 인人은 모두 심心을 가리킨 것이다.

소자첨蘇子瞻이, "세상에는 오직 엎드려 있는 용이 있어서 알 것이다(世間惟有蟄龍知)"라고 한 글귀로 죄목罪目이 되었다. 상고하여 보니, 왕개보王介甫의 전전백시殿前栢詩(궁전 앞에 있는 잣나무)를 읊은 시에 말하기를, "뿌리가 어수御水(궁궐 안을 흐르는 물)를 통하였으니 용이 응당 엎드렸을 것이다(根通御水應蟄)"라고 했다. 소자첨이 만약 이것을 끌어 증언하였더라면 왕규王珪의 무리는 마땅히 둔사遁辭(책임을 회피하려고 억지로 꾸미는 말)가 있었을 것이다. 내가 직접 추소追訴하고자 하나 될 수 없다.

28 양梁나라 무제武帝가 남제南齊의 폐제廢帝 소보권蕭寶卷을 죽이고 낮추어 동혼후東昏侯라고 했다. 명제明帝의 둘째아들이니, 이름은 보권寶卷, 자는 지장智藏이다. 성질이 사치 · 음란 · 포학 · 방자하여, 갑자기 대신을 베곤 하니 조신들이 스스로 보전하지 못했다. 후궁에 화재火災가 있은 뒤에 다시 선화仙華 · 신선神仙 · 옥수玉壽 등의 궁전을 짓고, 사치가 극도에 이르렀으며, 반비潘妃를 총애하여 황음무도했다.

29 남제南齊의 동혼후東昏侯의 비. 이름을 옥아玉兒 또는 옥노玉奴라고 한다. 동혼후에게 신선神仙 · 선화仙華 · 옥수玉壽의 3전殿을 짓게 하고, 사치를 극도로 했다. 양무제梁武帝가 제나라를 깨뜨린 뒤에 그를 전안계田安啓에게 주려고 하니, 반비가 듣지 않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소동파의 〈목단시牧丹詩〉에 말하기를, "곱게 붉은 한 송이가 선명하여 흘러내릴 것 같다〔一朶妖紅翠欲流〕"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촉蜀나라의 말에 선취鮮翠는 선명鮮明과 같은 뜻이다. 촉나라 사람들은 또 창문 바르는 것을 이창泥窓이라고 한다. 그런 까닭에 〈화예부인궁사花蘂夫人宮詞〉에 말하기를, "붉은 비단으로 바른 창문이 사면四面의 낭무廊廡(나무 곁채)에 둘렀다〔紅錦泥窓遶四廊〕"고 했다.

소동파의 시에, "산은 희환을 생각하여 먼 꿈이 수고롭고, 땅 이름은 황공이어서 외로운 신하가 운다〔山憶喜歡勞遠夢 地名惶恐泣孤臣〕"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송나라의 형개邢凱가 말하기를, "촉蜀의 대산관大散關에 희환포喜歡鋪라는 곳이 있고, 만안현萬安縣에 황공탄皇公灘이라는 곳이 있다. 그런데 황공皇公을 황공惶恐으로 고쳐 써서 대對를 만든 것이다. 또 여릉廬陵에 이사탄二四灘이 있는데, 소동파의 시에는, "십팔탄十八灘 머리에 한 나뭇잎 같은 몸〔十八灘頭一葉身〕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구지仇池에는 99개의 샘이 있었는데 두시杜詩에서 "길이 십구천을 생각한다〔長思十九泉〕"라고 한 것은 생략해 쓴 글이다.

소시蘇詩에 말하기를, "사두가 밤에 내렸기에 옷 입기가 바쁘다〔詞頭夜下攬衣忙〕"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모든 사명辭命은 그 제목만 써서 문사文詞를 맡은 신하에게 내려주어 제술製述해 올리게 하는 것을 사두詞頭라고 한다. 또 당명황唐明皇이 즐겨 수조가두水調歌頭를 불렀다고 하였는데, 상고하여 보니, 가두歌頭는 노래의 첫 장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소동파의 시에, "묵은 보리가 구름에 이었는데, 농가는 몇 집이나 있는가〔宿麥連雲有幾家〕"라고 한 것이 있다. 보리는 해를 넘긴 뒤에 성숙하기 때문에 묵은 보리라고 한 것이다. 《회남자》에, "속이 비면 묵은 보리를 심는다〔虛中則種宿麥〕"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소동파의 시에, "일 없이 이렇게 고요히 앉았으니, 하루가 곧 이틀이다. 만약 70년을 산다면 문득 140년이 된다(無事此靜坐 一日是兩日 若活七十年 便是百四十)"고 했다. 이것은 "해가 기니 소년과 같다(日長如小年)"고 한 것과 같은 뜻이다.

소동파가 황사헌黃師憲을 송별하는 시에 말하기를, "그대 머리털이 세도록 하급 관리에 침체해 있으니, 녹의綠衣가 공정하게 하는 말이 있다(白首沈下吏 綠衣有公言)"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소동파가 말하기를, "우리 집에 조운朝雲이 있는데, 사헌師憲을 볼 때마다 그의 벼슬이 옮기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했다. 녹의綠衣(하인들이 입는 푸른 옷)는 조운朝雲을 지칭한 것인데, 조운은 동파의 시첩侍妾의 이름이다.

소동파가 어떤 사람에게 지어 준 시에 말하기를, "성선聖善(남의 어머니를 일컫는 말)은 바야흐로 30세를 당하였는데, 완건頑健한 춘부장은 이미 70세가 되었습니다(聖善方當而立歲 頑尊已及古稀年)"라고 했다. 그 사람의 아버지는 70세인데 그의 어머니는 바야흐로 30세이므로 그를 희롱한 것이다.
노수신盧守愼의 시에, "산다는 것은 의지해 있는 것이니, 돌아가야 면할 것인데 어느덧 70세가 되었네(寄也歸而免 居然到古稀)"[30]라고 한 것도 또한 이것이다.

소동파의 시에 말하기를, "아동들이 좋은 말씨를 배워 얻으면서, 1년에 반 이상을 성중에 있다(贏得兒童語音好 一年强半在城中)"라고 했다. 아마 청묘법靑苗法[31]

30 나이 70세 된 것을 일컫는 말. 두보杜甫의 시에,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고 한 것에서 유래한 말.

31 송나라 신종神宗 때에 왕안석王安石이 창설한 제도. 제로諸路의 상평창常平倉·광혜창廣惠倉의 전곡錢穀을 백성에게 빌려주고, 추수秋收 뒤에 반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그해에 흉년이 들면 기한을 연장하여 풍년에 반납하게 한다. 그 목적은 창고의 곡식을 줄이지 않고 빈민을 구제하며, 부호富豪의 고리高利의 폐단을 막으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뒤에 여러 가지 폐해를 일으켜서 백성을 병 되게 했다.

이 백성으로 하여금 휴식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촌村의 아이들이 오래도록 성중에 있게 되니 관화官話를 배워서 말씨가 좋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황산곡黃山谷이 《사안전謝安傳[32]》을 읽고 지은 시에 말하기를, "전진前秦의 군사를 깨뜨린 것은 사염謝琰과 사현謝玄이고, 교정矯情은 역서驛書 전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았네. 위태함을 지키는데 다행히 환온桓溫[33]이 죽었으니, 태부의 공명도 또한 우연한 일일세(傾敗秦師琰與玄 矯情不顧驛書傳 持危又幸桓溫死 太傅功名亦偶然)"라고 했다. 이 시가 시로써 잘되고 못된 것은 알 수 없으나 논평은 좋다.

황산곡黃山谷의 시에 말하기를, "좋은 술을 옥동서에 담았네(美酒玉東西)"라고 했고, 또 일찍이 다산茶山은 시에서 말하기를, "술자리가 무르익으니 금잔金盞이 동서東西에 비친다(酒酣金盞照東西)"라고 했다. 옥동서玉東西는 술그릇이니, 지금 한어漢語에서 집안 기물을 동서라고 한다. 속언俗言에 가사家事라고 하는 말이다. 상고하여 보니, "여동래呂東萊의 성질이 거칠고 사나워서, 음식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문득 가사家事를 쳐서 깨버린다(呂東萊性麁暴 嫌飮食不如意 便打破家事)"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곽공부郭功父의 노인시老人詩에 말하기를, "가까운 때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먼 일은 기억하며, 가까운 것은 보지 못하면서 먼 데 것은 본다. 울 때는 눈물이 없고 웃을 땐 눈물이 나며,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낮에는 잠이 많다. 아들은

32 진晉나라 양하陽夏 사람. 자는 안석安石,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젊은 때에는 회계會稽의 동산東山에 은거하더니, 뒤에 벼슬길에 나와 이부상서吏部尙書 · 중서감中書監 · 녹상서사錄尙書事에 이르고, 정토대도독征討大都督이 되어 부견苻堅의 군사 100만을 격파했다. 태보太保에 승진되고, 건창공建昌公에 봉작되었다.

33 진晉나라 용항龍亢 사람. 자는 원자元子. 남강장공주南康長公主에게 장가들었다. 여러 번의 외정外征에 전공戰功을 세우고 대권大權을 전단했다. 벼슬은 대사마大司馬 · 도독중외제군사都督中外諸軍事에 이르고, 남군공南郡公에 봉작되었으며, 구석九錫을 가했다. 드디어 불신不臣의 마음을 품고 제帝를 폐한 뒤, 간문제簡文帝를 세우고 가만히 찬탈을 꾀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병사했다.

아끼지 않고 손자만 아끼며, 큰일은 묻지 않고 자질구레한 것만 묻는다〔不記近事記遠事 不能近視能遠視 哭無淚笑有淚 夜不睡晝多睡 兒子不惜惜孫子, 大事不問問碎細〕"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밤비는 좀처럼 못 듣지만 귓속의 비는 듣고, 봄꽃은 겨우 알아보면서 헛꽃은 본다〔夜雨稀聞聞耳雨 春花微見見空花〕"라고 했다.
대체로 노인은 귓속에서 항상 바람소리 · 빗소리가 나서 실지의 빗소리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마자재馬子才의 시에 말하기를, "이백李白이 고래를 타고 하늘로 날아올라가니〔李白騎鯨飛上天〕"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한퇴지韓退之가 일찍이 말하기를, "태백太白이 신선이 되어 갔다. 원화초元和初에 어떤 사람이 북해에서 와서, 태백이 뿔 없는 용〔虬〕을 타고 한 도사道士와 함께 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라고 했다. 여기에서 고래를 타고 갔다고 한 것은 출처가 따로 있는 것일까, 혹은 고사의 인용을 잘못한 것일까.

《한서》에는 우미인虞美人의 일의 결말을 기재하지 않았다. 송나라 사람의 시에, "향기로운 혼魂이 밤에 칼빛을 따라 날아가니, 푸른 피가 화하여 언덕 위의 풀이 되었네〔香魂夜逐劍光飛 靑血化爲原上草〕"라고 했다. 주註에 말하기를, "항왕項王이 멸망하니 우희虞姬가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가씨담록賈氏談錄》에 말하기를, "포사산곡褒斜山谷에 우미인초虞美人草가 있으니, 모양이 닭의 벼슬 같다. 행인行人이 보고 〈우미인곡虞美人曲〉을 부르면 잎이 움직여 흔들리는 것이 사람이 손바닥을 어루만지는 형상과 같다. 그러나 혹 다른 가사歌辭를 부르면 고요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했다.

송나라 사람이 장성長城을 두고 지은 시에 말하기를, "순舜임금을 조술祖述하고 요堯임금을 조종祖宗으로 하였으면 나라는 저절로 태평할 것인데, 진황秦皇은 무엇 때문에 창생을 괴롭혔던고. 화禍가 소장蕭墻(문병내부門屛內部) 안에서

일어날 것을 알지 못하고 헛되게 오랑캐를 막는 만리장성을 쌓았네〔祖舜宗堯自太平 秦皇何事苦蒼生 不知禍起蕭墻內 虛築防胡萬里城〕"라고 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에 화답하여 말하기를, "석회를 바른 성가퀴가 가로 세로 만 리에 한결같으니 백성이 이것을 힘입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네. 만약 당시 진황의 죄를 들춰낸다면 그 죄는 선비들을 구덩이에 묻어 죽인 일에 있고 성에 있지 않다〔粉堞縱橫萬里平 黎民賴此得安生 當時若數秦皇罪 只在坑儒不在城〕"라고 했다. 그 뜻이 좋다.

송나라 채승희蔡承禧가 황후皇后의 만사挽詞를 지어 말하기를, "하늘 위 옥난간에서 이미 꽃을 꺾으니, 인간에서 방사方士가 어떻게 방술方術을 베풀 수 있겠는가〔天上玉欄花已折 人間方士術何施〕"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송나라의 강식姜識이, "신선의 술법이 있어서 죽은 자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한다"라고 했다. 황후가 죽으니, 식識이 그 방법을 시험하여 보았으나 효험이 없으니, 드디어 말하기를, "황후가 인종仁宗과 함께 백옥란간白玉欄干에 납시어 모란을 구경하고 있으니 다시 인간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 시의 말은 이 일을 쓴 것이다.

왕산곡의 시에는 "백구白鷗"라는 말을 즐겨 쓰고 있다. "강남의 들물이 하늘보다 더 푸른데, 그 가운데 백구가 있어서 한가롭기가 나와 같다〔江南野水碧於天中有白鷗閑似我〕"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꿈에 백구가 되어 날아가니 강과 호수의 물이 하늘에 닿았네〔夢作白鷗去 江湖水貼天〕"라고도 했다. 세상에서 왕산곡을 몽작백구夢作白鷗라고 하는 것은 이 시 때문이다.

장괴애張乖厓의 〈치사시致仕詩〉에 말하기를, "아이들이 비단옷의 영화榮華에 익숙하지 않아서, 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길 저편에서 맞이하네. 강 건너 높은 선비의 비웃음을 면치 못하겠구나. 천기天機(하늘의 기미機微)를 모두 잃어버리고 빈이름만 얻었으니〔兒童不慣錦衣榮 見我歸來夾道迎 不免隔溪高士笑 天機喪盡得虛名〕"

라고 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시는 뒷날 공경公卿들이 치사致仕할 때의 공장供狀이 되었다고 한다.
나는 말한다. 치사致仕한 자로도 오히려 남의 비웃음을 면치 못한다면, 누진漏盡[34]하여도 쉴 줄 모르는 자는 또 마땅히 어떻겠는가.

유여경柳如京의 〈새상시塞上詩〉에 말하기를, "명교鳴骹가 곧게 1,000장丈을 올라가니, 하늘은 고요하고 바람은 없는데 소리는 건조乾燥하다. 푸른 눈을 가진 오랑캐 300기가 모두 쇠굴레를 잡고 소리 나는 구름 사이를 향해 보네(鳴骹直上一千丈 天靜無風聲正乾 碧眼胡兒三百騎 盡提金勒向雲看)"라고 했다. 한때 세상에서는 그 시를 대단히 칭찬하였으며, 호사자好事者들은 병풍이나 장자障子(옛날 방의 칸을 막기 위하여 세운 것의 총칭. 미닫이, 칸막이)에 그림을 그리는 자가 많았다. 마침내 금金 · 원元의 화禍가 있었다.

이사중李師中이 관기官妓 가애경賈愛卿에게 준 시에 말하기를, "원컨대 맹수 같은 사나운 군대 천만 명을 얻어, 개와 양 같은 오랑캐의 소굴을 일시에 평정하고, 돌아와서는 봉후封侯의 인印을 받지 않고, 다만 임금께 애경愛卿을 주십사 하였으면(願得貔貅千萬兵 犬羊巢穴一時平 歸來不用封侯印 只向君王覓愛卿)"이라고 했다.

송나라 사람의 시에, "버들 밖에 보이는 조각한 말안장 위에는 귀공자가 취해 있고, 꽃 가에 움직이는 둥근 부채는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네(柳外雕鞍公子醉 花邊團扇麗人行)"라고 한 것이 있다. 그때 세상에서는 이 시를 절창이라고 했다. 이것을 보면 옛날에는 부인들이 부채로 자기의 낯을 가렸던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대부들은 비록 겨울철이라도 또한 부채로 낯을 가리니, 중

34 누진야행漏盡夜行의 준말이니, 연로年老하여 여명餘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관욕官欲에 연연하여 벼슬을 내놓지 않는 비유로 씀.

국 사람들이 보고 크게 웃는다. 아마 옛날 중국 부인들의 행동에 가깝다고 해서일 것이다.

후산后山의 시에 말하기를, “가을 반盤 위에는 압각鴨脚(풀이름)이 수두룩하고, 봄맛은 묘두를 권한다〔秋盤堆鴨脚 春味薦猫頭〕”라고 했다. 묘두猫頭는 죽순이다. 왕산곡의 시에 말하기를, “서리 내린 숲에서 압각을 거두고, 봄 냇물의 그물에서는 금고를 끌어올린다〔霜林收鴨脚 春網薦琴高〕”라고 한 것과 말과 뜻이 서로 비슷하다.
그런데 금고琴高는 잉어를 타고 다녔다는 옛날 선인仙人의 이름이다. 이제 이 시에서 금고를 끌어올린다고 한 것은 인용이 온당하지 않다.

장공역莊孔易의 시에 말하기를, “시집이 소매에 차가워라, 바다로 산으로 갖고 다녔으니. 강물이 고요하니 밤배는 성하星河에 앉았구나〔詩卷袖寒携海岳 夜舡江隱坐星河〕”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소동파가 말하기를, “내가 이 돌을 휴대하고 돌아가니 소매 속에 동해가 있네〔我携此石歸 袖中有東海〕”라고 했고, 또 심전기沈佺期가 말하기를, “배는 하늘 위에 앉은 것 같다〔舡如天上坐〕”라고 했다. 아마 이것을 인용한 것일 것이다. “江隱坐星河”의 은隱은 아마 온穩 자로 써야 할 것이다.

세상에 전하는, 악무목岳武穆이 손수 써서 장자암張紫巖에게 보냈다는 북벌시北伐詩에 말하기를, “호령이 천둥 벼락처럼 빠르니, 하늘 소리가 북쪽 먼 변방을 진동하네. 멀리 군사를 몰고 하락河洛(황하黃河와 낙수洛水)을 건너서 곧바로 연유燕幽(연주燕州와 유주幽州)를 친다. 말은 연지의 피를 밟고, 깃대에는 극한克汗(흉노匈奴 · 돌궐突厥 · 회흘回紇 등의 군주의 칭호)의 머리를 매달았구나. 돌아와 밝은 임금께 보고하기를, 옛 신주를 회복했다고 하네〔號令雷霆迅 天聲動北陬 長驅渡河洛 直擣向燕幽 馬蹀閼支血 旗梟克汗頭 歸來報明主恢復舊神州〕”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이 시는 웅혼하고 비장하여 당唐나라의 이름난 시인도 이보다 나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제 보니 글의 기세가 매우 웅건雄健하다. 사람들이 이 시를 써 붙이면 사귀邪鬼를 물리친다고 한다. 그러나 《패사稗史》에는 모두 거론하지 않았다. 아마 이 글은 우리나라에 흘러들어 와서 전하는 것으로, 중국 사람들은 아직 보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상고하여 보니, 자암紫巖은 장준張浚의 호號이다.

조재지晁載之의 〈소령부인사시昭靈夫人祠詩〉에 말하기를, “어찌 아들을 낳아서 유계劉季(한漢나라 고조高祖인 유방劉邦) 같은 사람을 만들었던고. 모년에 소령부인을 장사할 뼈가 없었으니〔安得生兒作劉季 暮年無骨葬昭靈〕”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한고조漢高祖가 군사를 일으켜, 들에서 싸우느라고 황향黃鄕에서 어머니를 잃었다. 뒤에 천하를 평정하고 재궁梓宮(임금이나 왕후의 구柩)을 가지고 들에서 혼魂을 부르게 하였더니, 붉은 뱀이 물에서 나와 재궁에 뛰어들어 갔다고 한다. 시호諡號를 소령부인昭靈夫人이라고 했다. 이 일이 《한서漢書》의 주註에 기술되어 있다.

사일謝逸의 자는 무일無逸이니, 나비〔蝶〕를 두고 지은 시가 300수나 있었다. 그 중에, “몸은 하안何晏처럼 전부 분을 바른 것 같고, 마음은 한수韓壽와 같아서 향香 훔치는 것을 사랑한다. 버들개지를 따라 날아다닐 때면 이따금씩 보이고, 배꽃 사이로 춤춰 들어가면 찾아볼 길 없다〔身似何郞全傅粉[35] 心如韓壽愛偸香[36] 飛隨柳絮有時見 舞入梨花無處尋〕”라고 함과 같은 글귀들은 유명하다. 당시에 사호접謝蝴蝶이라고 일컬었다. 그러나 그의 시로써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35 위魏나라의 하안何晏은 얼굴빛이 희어서 분을 발랐다고 남이 의심했다고 한다. 또 일설에는 하안이 항상 몸에 분을 지니고 다니면서 얼굴의 모양에 마음을 썼다고 한다.

36 진晉나라의 한수韓壽는 얼굴과 몸맵시가 아름다웠다. 사공司空 가충賈充에게 등용되었더니, 혜제惠帝가 가충에게 하사한 서역의 진기한 향을, 그의 딸이 훔쳐서 한수에게 주었다. 충은 자기의 딸이 한수에게 통한 것을 알고 드디어 딸을 한수의 아내로 주었다는 고사.

것이 이것뿐이니, 다른 것은 안 보아도 알 만하다.

곽호郭浩의 시에 말하기를, "농구隴口에 산은 깊고 초목은 거칠어, 길 가는 나그네 여기에 이르면 견딜 수 없게 슬퍼진다. 귀로 차마 앵무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데, 더군다나 가지 위에서 상황上皇의 일을 묻네(隴口山深草木荒 行人到此斷肝腸 耳中不忍聽鸚鵡 猶在枝頭說上皇)"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소설》에 말하기를, 농주隴州에서 해마다 앵무를 공물貢物로 바쳤다. 휘종徽宗이 앵무에게 시문詩文을 가르친 뒤에 본토에 돌려보내 놓아주었는데, 뒤에 곽호가 안변사按邊使가 되어 농구에 이르니, 붉은 앵무와 흰 앵무 2마리가 가지 위에서 상황의 안부를 물었다. 곽호가 상황은 이미 돌아가셨다고 말하니, 앵무가 슬피 울어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송시宋詩(송나라 사람이 지은 시)에, "포뢰 108이 선림禪林(선종禪宗의 여러 사원寺院)에서 성내 부르짖는다(蒲牢百八吼禪林)"라고 했다. 또 "108 포뢰 소리도 가늘어졌다(聲殘一百八蒲牢)"라고도 했다. 상고하여 보니, 포뢰蒲牢는 짐승의 이름이니, 고래를 두려워하여 문득 울부짖는다. 그런 까닭에 모든 종鐘을 포뢰의 형상으로 만들고 종치는 것을 경어鯨魚라고 한다. 황산곡의 시에, "선원禪院의 아침 죽을 재촉하는 화경華鯨[37]이 밤늦게 부르짖는다(催粥華鯨吼夜闌)"라고 했고, "바람이 매우니 승어僧魚[38]가 소리를 낸다(風冽僧魚響)"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포뢰가 운다(蒲牢吼)"라고 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제 화경후華鯨吼라고 한 것은 대체로 고사의 인용을 잘못한 것이다. 소동파가, "목어木魚(목탁)가 새벽에 울리니, 중의 아침 죽이 따라 나온다(木魚曉動隨僧粥)"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37 조각한 무늬가 있는 좋은 종鐘. 즉 화華는 조각의 무늬가 있음을 말한 것이고, 경鯨은 고래이다. 바닷가에 포뢰蒲牢라는 짐승이 있는데 고래를 매우 두려워한다. 고래가 포뢰를 칠 때에는 문득 크게 운다고 한다. 종을 크게 잘 울게 한다는 의미에서고 고래의 조각을 종에 새긴다고 한다.

38 중의 목어木魚이니, 목탁이다. 본래는 중국의 선원禪院에서 아침 죽 때와 낮의 밥 때에 쓰던 것.

호담암胡澹庵이 귀양살이에서 진회秦檜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지은 시에 말하기를, "꿈이 경애瓊崖(땅 이름)에 들어가니 몸은 더욱 건장하고, 연기가 금오를 잠가 버리니 더러운 냄새만이 헛되게 전하네〔夢入瓊崖身益壯 烟鎖金塢臭空傳〕"라고 했다. 뒤에 맹공孟珙이 금金나라를 멸망시키고 돌아오다가 진회秦檜의 무덤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군사들로 하여금 무덤 위에 대소변을 보게 했더니, 세상에서 더러운 무덤〔穢塚〕이라고 했다. 담암의 말이 대체로 들어맞았다. 연쇄금오烟鎖金塢라고 한 것은, 본래 미오郿塢(후한後漢 역신逆臣 동탁董卓이 쌓은 언덕)로써 진회에 비유한 것이지만, 또한 금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말이기도 하다.

주문공朱文公의 시에, "외로운 등잔이 차가운 불꽃을 깜박여서 이 한 창窓을 그윽이 비치네, 누워서 처마 앞의 빗소리를 들으니, 계속해 내리어 조금도 쉬지 않네〔孤燈耿寒焰 照此一窓幽 臥聽簷前雨 浪浪殊未休〕"라고 했다.
장남헌張南軒의 시에는 말하기를, "언덕 위에서 서산을 바라보니, 가을 뜻이 이미 저와 같구나. 구름 그림자가 강을 건너오더니, 반공半空에는 보슬비가 내리네〔坡頭望西山 秋意已如許 雲影渡江來 霏霏半空雨〕"라고 했고, 또 "산책하여 큰 배에 내려가니 물이 맑아서 물고기를 셀 수 있다. 문득 마름 캐는 배에 올라서 바람을 타고 남포를 지나간다〔散策下舸亭 水清魚可數 却上采菱舟 乘風過南浦〕"라고 했다. 양신楊愼은 이상의 두 시를 당나라의 격조가 있다고 말했다.

《요산당외기》에, "회옹晦翁이 일찍이 사위 채침蔡沈을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했다. 채蔡의 아내가 파국과 보리밥을 내오면서 간소하고 무례함을 사과하니, 회옹이 시를 지어 두기를, 파국과 보리밥은 2가지가 서로 마땅하다. 파는 단전丹田[39]을 기르고 보리는 주림을 고친다. 이 가운데 자양滋養과 맛이 박하다고 말하지 말라. 앞마을에는 오히려 끼니를 잇지 못하는 집들도 있으니〔葱湯麥飯兩

39 배꼽 아래로 한 치쯤 되는 곳. 아랫배. 여기에 힘을 주어 항상 심신心身의 정기精氣를 모아 두면 몸이 건강해져서 장수長壽한다고 함.

相宜 葱養丹田麥療飢 莫謂此中滋味薄 前村猶有未炊時〕"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밥을 대할 때에 먼저 밥 짓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니, 군자君子의 마음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자창韓子蒼의 시에 말하기를, "근심은 밀어내도 가지 않고 돌아와 서로 찾게 되고, 늙음과는 기약한 일이 없건마는 점차 침노해 오네〔推愁不去還相覓 與老無期稍見侵〕"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왕혜공王荊公의 시에, "문을 닫고 수심을 밀어내고자 하였으나, 수심은 마침내 가려고 하지 않네〔閉戶欲推愁 愁終不肯去〕"라고 했고, 유빈객劉賓客의 시에는 "늙음과 더불어 기약한 일 없건만, 예사인 양 찾아오네〔與老無期約到來如等閑〕"라고 하였으니, 대체로 이것을 인용한 것이다.

육방옹陸放翁의 시에 말하기를, "새벽에 마시는 술은 개미가 뜨는 단지에서 가득히 잔질하고, 밥 먹은 다음에 자는 낮잠은 나비를 꿈꾸는 침상에 가로 누워 잠든다〔澆書滿挹浮蛆甕 攤飯橫眠夢蝶床〕"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송나라 사람들은 새벽에 술 마시는 것을 요서澆書(글에 물을 댄다는 뜻)라고 하고, 낮잠을 탄반攤飯이라고 한다. 아마 속어俗語일 것이다. 대체로 옛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면 반드시 글을 읽기 때문에, 새벽에 마시는 술을 요서라고 한 것이다.

육방옹의 시에 말하기를, "푸른 명주로 상투를 싸고, 흰 행전을 둘렀네. 범인도 아니고 신선도 아닐세. 집이 낙양성 안에 살고 있어서, 구리쇠 피리를 뉘어 불면서 이천을 지나가네〔靑羅包髻白行纏 不是凡人不是仙 家在洛陽城裡住 臥吹銅笛過伊川〕"라고 했다. 그 호방한 기상을 볼 수 있다. 다만 이 시 가운데 와취臥吹라고 한 와臥 자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겠다. 《여산당기堯山堂紀》에는 이것을 주희진朱希眞(송나라 주돈유朱敦儒)의 시라고 했다.

양성재楊誠齋의 시에, “늙어서 글을 읽으니 흥이 식기 쉽다. 따라서 알겠구나, 병을 요양하는 데는 일 없는 것만 같지 못함을. 대나무 침상에 기왓장 베개로 서쪽 마루 위에 누워 강남의 비 온 뒤의 산을 본다〔老讀文書興易闌 從知養病不如閑 竹床瓦枕西堂上 臥見江南雨後山〕”라고 했다. 그 풍류 있는 뜻과 운치는 완상할 만하다. 송나라 말기의 작품이라고 하여 얕게 평할 수 없다. 상고하여 보니, 《계신잡지癸辛雜識》에서는 이 시를 여형양呂滎陽의 작품이라고 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양성재의 절구絕句에 말하기를, “매실梅實은 신맛을 흘려서 이빨을 적시고, 파초는 푸르름을 나누어서 창문의 비단에 오른다. 해는 긴데 잠에서 일어나니, 정취情趣의 단서端緖가 없어서 한가롭게 아이들이 버들개지 잡는 것을 본다〔梅子流酸濺齒牙 芭蕉分綠上聰紗 日長睡起無情緖 閑看兒童捉柳花〕”라고 했다. 장자암張紫岩이 보고 말하기를, “양정수楊廷秀의 흉금이 트이고 초탈超脫했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자암紫巖의 평론이 지나친 것 같다. 또 잡는다는 착捉 자는 아존하지 않으니, 쫓는다는 진趁 자로 고치는 것이 어떨까.

송시宋詩에, “연蓮은 뜨거움이 있음으로 인하여 먼저 일산을 받치고, 버들은 추위가 없다고 하여 점차로 솜을 벗어 버린다〔荷因有熱先擎盖 柳爲無寒漸脫綿〕”라고 했다. 《소설》에서 이것을 가작佳作이라고 칭찬했다. 그러나 교묘한 것 같으나 실은 졸렬하여 전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송시宋詩에, “그대에게 권하노니 살쩍의 흰 것을 뽑지 말아요. 살쩍이 흴 때까지 살기도 어려운 일이라오. 하고 많은 주문朱門(지위가 높은 관원의 집안)의 젊은 사람들이, 업풍業風에 불리어 북망산北邙山으로 올라갔다네〔勸君休鑷鬢毛斑 鬢到斑時亦自難 多小朱門少年子 業風吹上北邙山〕”라고 했다. 말이 또한 익숙하다. 여소재廬蘇齋가 만년에 흰 털을 족집게로 뽑는 것을 그치지 않으므로, 손님이 왜 그

렇게 뽑느냐고 물으니, 공이 대답하기를,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는 법인데, 백발이 사람을 죽일 수 있으므로 제거하는 것이요”라고 했다. 손이 크게 웃었다고 한다.

《패사稗史》에 등중보鄧中甫가 문산文山에게 보낸 시가 실려 있다. 끝구에 말하기를,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다. 외로운 분노는 구현九縣을 가로지르네. 태위太尉인 당신의 일을 만 분의 일이라도 중승인 나에게 전하기 바라오〔餘生諒須臾 孤憤橫九縣 庶幾太尉事 萬一中丞傳〕”라고 했다. 문산(문천상文天祥의 호)이 연옥燕獄에 있으면서 중보中甫에게 글을 부쳐 말하기를, “오래된 약속이 어찌 이다지 낙락落落한가. 말로末路는 거듭 안타깝기만 하네. 죽더라도 북방 사람들의 옳으니 그르니 하는 여론을, 번거롭지만 공은 전해 주시오〔久要何落落 末路重依依 死矣煩公傳 北方人是非〕”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말이 과연 그랬다면 문산文山도 또한 이름에 뜻이 있던 사람일 것이다. 혹은 호사자好事者들이 한 말일까.

금나라의 군주 경璟의 〈유앙산시遊仰山詩〉에 말하기를, “금색계金色界[40] 속의 도솔천兜率天의 경치이고, 푸른 연화蓮花 속에 범왕의 궁전이로구나. 학鶴은 맑은 이슬 3경更 달에 놀라고, 범은 성긴 수풀 일만一萬 골의 바람에 으르렁거린다〔金色界中兜率景[41] 碧蓮花裡梵王宮 鶴驚淸露三更月 虎嘯疎林萬壑風〕”라고 했다. 또 일찍이 한 글귀를 생각하여 말하기를, “두 사람이 흙 위에 앉으니〔二人土上坐〕”라고 했다. 그의 비妃 이씨李氏가 대답하기를, “한 달이 해 곁에서 밝네〔一月日邊明〕”라고 했다. 세상에서 경묘警妙하다고 칭찬했다.

금나라 왕 양亮이 대나무를 읊은 시에 말하기를, “나의 마음은 정말 그대 마음

40 금색金色 세계世界의 준말. 황금빛을 띤 세계. 즉 문수보살의 정토淨土의 이름. 극락정토極樂淨土라고도 한다.

41 도솔천兜率天의 경치. 도솔천은 욕계欲界, 즉 6천天의 제4천이니, 욕계欲界의 정토淨土이다.

과 서로 같으니, 다만 구름 속에 높이 솟은 가지가 푸른 공중에 떨치기를 기다리네〔我心正與君相似 只待雲梢拂碧空〕”라고 했다. 또 유기경柳耆卿의 사詞를 열람하다가, “삼추三秋에는 계수나무 열매가 열고, 10리里에 걸쳐 연꽃이 핀다〔三秋桂子 十里荷花〕”라고 한 말을 보고 드디어 강江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뜻을 일으켜 시를 짓기를, “서호西湖 위에 군사 100만을 이끌고 와서, 오산吳山의 제일봉第一峰에 말을 세운다〔提兵百萬西湖上 立馬吳山第一峰〕”라고 했다. 그의 걸오桀驁(길들지 않은 말과 같이 사납고 거친)한 기상을 생각할 수 있다.

18-4 원시元詩

여휘지呂徽之는 원元나라 때 사람이다. 일찍이 큰 눈이 왔을 때에 칡 등〔藤〕이란 글자와 등나라 등〔滕〕이라는 두 글자를 운자韻字로 시를 짓기를, “하늘 위의 구룡九龍은 법수法水를 베풀어 주고, 인간의 이서二鼠는 마른 등나무를 깨무네. 눈 오는 밤에 들오리와 거위의 소리가 어지러우니 이소李愬가 채蔡에서 전공戰功을 거두고, 나비처럼 눈이 날아오니 등왕滕王의 그림보다도 더욱 묘하다〔天上九龍[42]施法水 人間二鼠嚙枯藤[43] 鵞鵝聲亂功收蔡[44] 蝴蝶飛來妙過滕[45]〕”라고 했다. 다시 담曇 자를 운자韻字로 하여 화답하기를, “대나무는 긴 몸을 내맡기고, 차가운 게

42 9마리의 용. 속설俗說에 용은 9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각기 특징이 있다고 함.

43 불교 용어. 5욕欲에 집착하여 생사生死에서 초월하지 못한다는 비유. 이서二鼠는 2마리의 쥐란 뜻이니, 해와 달을 의미하고, 등藤은 생명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설경雪景을 읊은 시이므로, 이 말을 인용하여 한편으로는 눈이 와서 쥐가 먹을 것이 없으므로 마른 등나무를 갉아먹는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44 당唐나라 원화元和 연간年間에 오원제吳元濟가 채蔡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소李愬가 밤에 군사를 이끌고 채주蔡州에 이르니 마침 큰 눈이 내렸다. 성城의 주변은 모두 오리와 거위의 못이었다. 이소가 군사들에게 그 오리들을 쳐서 요란한 소리를 냄으로써 적의 군정軍情을 혼란하게 하라고 했다. 그러나 적은 의연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날 샐 무렵에 눈이 그쳤다. 이소가 원제元濟의 바깥 집에 진주進駐하니 성이 드디어 함락하고 원제를 사로잡았다는 고사.

기는 소리를 내며, 소나무는 짧은 털을 눈에 묻으니, 늙은 부처 같다〔竹委長身寒郭索[46] 松埋短髮老瞿曇[47]〕"라고 했다.

살천석薩天錫의 〈추궁사秋宮詞〉에 말하기를, "맑은 새벽에 임금의 수레가 건장궁建章宮을 나오니, 자색紫色 옷 입은 시위侍衛의 작은 대열이 두세 줄일세. 돌난간 밖에 은등잔불이 지나가니, 부용 잎 위에 내린 서리가 비쳐 보이네〔淸曉宮車出建章 紫衣小隊兩三行 石闌干外銀燈過 照見芙蓉葉上霜〕"라고 했다. 왕기王沂는 이 시를 성당盛唐의 작품에 따라갈 만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원元나라의 시 가운데서 잘 지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요수姚遂가 나이 80에 시첩侍妾을 통하니 첩이 뒷날 증거가 될 기록을 얻기를 원했다. 드디어 시를 지어 주기를, "80년래에 이 봄을 만났으니, 이 봄이 지난 뒤에는 다시 봄은 없으리라. 비록 나를 붙들어 모시는 힘을 얻을 수는 없으나, 아마 내 무덤 앞에서 절하고 소제하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八十年來遇此春 此春過後更無春 縱然不得扶持力 也作墳前拜掃人〕"라고 했다. 뒤에 요수姚遂가 죽고 아들을 낳으니, 집안사람들이 그가 외인外人을 사통私通했다고 의심했다. 첩이 이 시詩를 내보여 의심은 풀게 했으나 한때 세상에 전파되어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한다.

장도張圖의 《서향화瑞香花》라는 시詩에 말하기를, "꽃을 꺾을 때 가지 위의 나비를 치지 말라. 양대陽臺의 꿈속 사람을 놀라게 해 깨게 할까 두렵구나〔採花莫撲枝頭蝶 驚覺陽臺夢裡人〕"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서향의 다른 이름이 수향睡

45 눈이 펄펄 날리는 것이 마치 나비가 날아오는 듯하여, 등왕滕王의 나비 그림보다 더 기묘하다는 말. 등왕滕王은 당唐나라 이원영李元嬰이니, 등에 봉왕되었으며 나비 그림을 썩 잘 그렸다. 등왕협접滕王陜蝶이라고도 일컬어진다.

46 게가 와삭와삭 기어가는 소리. 게의 이칭異稱. 마음이 안정하지 않고 조급하게 움직이는 상태.

47 부처. 석가모니의 성.

香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원元나라 진강중陳剛中이 〈박랑사博浪沙〉를 제목으로 한 시에 말하기를, “어떻게 12개의 금인金人[48]을 만든 이외에 오히려 민간에 녹지 않은 철鐵이 있었던가(如何十二金人外 猶有民間鐵未銷)”라고 했다. 범증范增의 무덤을 제목으로 한 시에는 말하기를, “평생의 신기한 계책이 다른 일은 없다. 오직 홍문연鴻門宴에서 한왕漢王을 죽일 것을 권하였을 뿐이다(平生奇計無他事 只勸鴻門殺漢王)”라고 했다.

명나라 고계高啓가 명비明妃를 읊어서 말하기를, “원컨대 군왕께서는 모연수毛延壽[49]를 죽이지 마시고 머물러 두었다가 상암商巖의 꿈속의 어진 이를 그리게 하소서(願君莫殺毛延壽 留畫商巖夢裏賢[50])”라고 했다. 장성長城을 읊은 시에는 말하기를, “비록 장성이 만 리에 걸쳐 구름에 이어졌다고 하나, 어찌 요임금 때의 석 자 섬돌의 높이만 하겠는가(雖然萬里連雲際 爭及堯天三尺高)”라고 했다. 뜻은 비록 좋으나 글귀를 만든 법이 비속해서 칭찬할 만한 것이 못 된다.

48 진시황秦始皇이 천하를 통일하고 모든 나라의 쇠붙이를 모두 모아다가 커다란 사람 형체 12개를 만들었다. 다른 나라에서 병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이었다. 이것을 금인金人이라고 했다.

49 한漢나라 두릉杜陵 사람. 사람의 형상을 잘 그려, 못난 것, 잘난 것, 늙은 것, 젊은 것의 모습이 실물과 비슷했다. 원제元帝 때에 후궁이 매우 많아서, 모연수에게 후궁의 그림을 그려오게 하여 미인을 골라 가까이 했다. 궁녀들이 다투어 연수에게 뇌물을 주었으나, 왕소군王昭君만은 자신이 뛰어난 미인이므로 그러한 뇌물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에게 총애를 얻지 못하였더니, 뒷날 흉노가 미인을 요구하므로 가장 박색인 왕소군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실지의 인물을 보고 임금은 매우 놀랐다. 그리하여 뇌물을 주고받음이 폭로되어 연수 등은 사형을 당했다고 한다.

50 왕소군의 얼굴을 일부러 추하게 그린 모연수毛延壽를 죽이지 말고 머물러 두었다가 상商나라 고종高宗이 부암傅巖에서 노동하는 부열傅說이라는 현인을 꿈꾸어 얼굴을 그린 것처럼, 어진 선비의 얼굴을 그리게 하라는 것이 이 시의 뜻이다. 옛날 상商나라 시대에 고종이 어진 선비의 꿈을 꾸고 그 모양을 그리게 하고 천하에 찾다가, 부암傅巖에서 노동하는 부열을 찾아내어 정승을 삼았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우집虞集》이 일찍이 누樓에 의지해 서서, “5경의 북과 피리를 잔설에 분다(五更鼓角吹殘雪)”라고 하는 글귀를 읊으니, 한 아이가 있어서 말하기를, “피리는 불 수 있으나 북은 불 수가 없어요” 하고는 홀연히 간 곳이 없었다. 아마 시 귀신일 것이라고 한다.

고려의 설손偰遜은 회골回鶻 사람이다. 원元나라 말년에 단본당端本堂 정자正字 벼슬에 있다가 피란하여 우리나라에 왔다. 일찍이 중국의 옛 친구들에게 시를 부쳐 보내기를, “오! 아름답다, 선문각宣文閣이여. 화락하고 조용한 단본당이여, 꿈속에서는 어제와 같건만, 깨고 나니 타향이로구나. 만 가지 일에 마음은 철석같으나, 3년 동안에 머리털은 이미 희어졌네. 살아서 돌아가는 일이 혹여나 가능하다면 달게 교서랑으로 늙어 가리라(於穆宣文閣 雍容端本堂 夢中猶昨日 覺後是他鄕 萬事心如鐵 三年髮已蒼 生還倘能遂 甘老校書郎)”라고 했다.

공민왕恭愍王 때에, 관향貫鄕을 경주慶州로 정하여 주었다. 아들 장수長壽와 손자 순循도 또한 과거에 급제하여 현관顯官의 지위에 올랐다. 지금 설偰이란 성姓은 곧 그 후예들이라고 한다.
또 송나라의 원외랑元外郎 정신보鄭臣保는 송나라가 망하니, 바다를 건너와서 서산瑞山에 살았다. 그의 아들 인경仁卿이 어릴 때 시를 지어 말하기를, “오랑캐의 티끌이 우주에 넘치니, 만 리에 외로운 신하가 떨어져 왔네. 어느 날에나 건곤이 바로잡혀서 거듭 조씨의 봄을 돌이킬 것인가(胡塵漲宇宙 萬里落孤臣 何日乾坤正 重回趙氏春)”라고 했다. 지금 서산의 정씨鄭氏들이 바로 그 후예라 한다.

목은牧隱(이색李穡)이 원나라에 들어가서, 과거에 제3위로 급제하고 한림지제고翰林知制誥에 제수되었다.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장원인 우계지牛繼志가 송별시를 지어 말하기를, “나에게 대장부의 눈물이 있으니 울어도 떨어뜨리지 않음이 30년일세. 오늘 이별하는 마당에서 그대를 위하여 봄바람 앞에

뿌리네(我有丈夫淚 泣之不落三十年 今日離亭畔 爲君揮洒春風前)"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도홍경陶弘景의 시에, "나에게 두어 줄 눈물이 있으니 10여 년 동안 떨어뜨린 일이 없네. 오늘 그대를 위하여 모두 합해 가을바람 앞에 뿌리네(我有數行淚 不落十餘年 今日爲君盡 倂洒秋風前)"라고 한 것이 있으니, 이를 습용한 것이다.

18-5 명시明詩

홍무洪武 때에 전재錢宰가 시를 짓기를, "새벽 북소리 둥둥 울릴 때에 일어나 옷을 입건만 오문午門(북경北京 자금성紫禁城의 정문正門)의 조현에는 오히려 더딘 것을 꺼리네. 어느 때에 전원田園의 즐거움을 얻어 이루어서 인간의 아침밥이 익을 때까지 잠잘 수 있을꼬(曉鼓鼕鼕起着衣 午門朝見尙嫌遲 何時得遂田園樂 睡到人間飯熟時)"라고 했다. 태조太祖가 보고 말하기를, "짐이 일찍이 너를 꺼린 일이 없는데, 어찌 근심한다는 우憂 자를 쓰지 않고 꺼린다는 혐嫌 자를 썼느냐" 하고, 이어 시골로 쫓아 보냈다고 한다. 나는 말한다. 이 시는 매우 맛이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의미가 심장深長하고, 맛이 있게 여김을 그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말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구양공歐陽公의, "10년 동안 말을 타고 아침 닭 우는 소리를 들었네(十年騎馬聽朝鷄)"라는 글귀가 뜻이 둥글어서 자취가 없는 것만 못하다.

명시明詩에 말하기를, "둑 위의 버들이 자고자 하나 꾀꼬리가 불러일으키네(堤柳欲眠鶯喚起)"라고 한 것이 있다. 《패사稗史》를 살펴보니, 한漢의 금원禁苑 안에 버들이 있는데, 형상이 사람의 형체와 같아서, 인류人柳(사람 버들)라고 불렀다. 그 버들은 하루에 세 번 일어나고 세 번 잠잤다고 한다. 이 시에서 잔다(眠), 일어난다(起)라고 하는 두 글자를 쓴 것은 그 출처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명나라의 임형태任亨泰가 고려의 사신을 송별하는 시에 말하기를, "삼한三韓이 예전에는 현토의 험함을 의거하였더니, 이제 이중二重의 통역을 거쳐서 월상씨越裳氏의 흰 꿩을 따라왔네〔三韓舊控玄菟險 重譯今隨白雉來〕"라고 했다. 토菟 자를 평성平聲으로 쓴 것은 아마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운서韻書에 "토菟는 거성去聲이니, 토사菟絲(식물 이름, 새삼)이다"라고 했다. 또 당시唐詩에서도 거성으로 쓴 것이 많다. 이백李白의 〈약시藥詩〉에 말하기를, "들에 번개를 쳐서 현토玄菟를 맑게 하고, 피리를 높이 불어 백랑에 떨친다〔電野淸玄菟 騰笳振白狼〕"라고 한 것과 같다. 토菟는 또 토兎로 쓰기도 한다. 양거원楊巨源의 시에, "성城이 멀어서 현토는 아득하고, 냇물이 맑아서 백랑을 알아본다〔城遠迷玄兎 川明辨白狼〕"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본초몽전本草蒙筌》에 말하기를, "토사菟絲의 씨는 조선에서 많이 생산된다"라고 했다. 현토玄菟라는 명칭도 이 때문에 생겼는지도 모른다. 지금 약명藥名에 현토단玄菟丹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또한 토사菟絲에서 이름을 붙인 것이다.

유기劉基가 그림 홍매紅梅를 제목으로 하여 지은 시에, "수정궁水晶宮 안의 옥진비玉眞妃가 요대에서 잔치를 마치고 달빛 속을 걸어 돌아가네. 가다가 적성赤城에 이르니, 하늘은 아직 새벽이 아닌데, 차가운 놀이 육수의[51]에 날아오른다〔水晶宮裡玉眞妃 宴罷瑤臺步月歸 行到赤城天未曉 冷霞飛上六銖衣〕"라고 했다.
이 시를 다시 설명하면, 신선의 궁전인 수정궁에서, 선녀인 옥진비玉眞妃가 잔치를 마치고 돌아간다고 한 것은, 흰 매화의 청초한 맵시를 표현한 것이다. 적성赤城은 산 이름이니, 온 산의 흙빛이 붉다고 한다. 그 청초한 선녀가 적성산赤城山에 이르니 붉은 빛이 선녀의 매우 가벼운 옷에 노을처럼 비쳐서, 그 옷이 붉게 보인다는 것이니, 홍매의 붉은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본다.

51 하늘사람이 입는다는 지극히 얇고 가벼운 옷. 수銖는 중량의 단위이니 냥兩의 24분의 1. 그러니 육수의六銖衣는 육수의 무게밖에 안되는 가벼운 옷이다.

장무章懋가 휘종徽宗의 화병畫甁에 그려져 있는 계화桂花를 제목으로 하여 지은 시에 말하기를, “옥색관병이 궁인의 집에서 나왔는데, 하늘 향기를 누가 달 속의 계화에 담았던고. 육궁六宮이 다만 신량新凉이 좋은 것만을 사랑하고, 금풍金風이 천자의 깃발을 말았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구나(玉色官甁出內家 天香誰貯月中花 六宮只愛新凉好 不道金風卷翠華)”라고 했다.

해진解縉이, 범이 여러 작은 범을 돌아다보는 그림(虎顧衆彪圖)을 제목으로 응제應製(임금의 명령에 응하여 지음)하여 말하기를, “범은 모든 짐승의 어른이니, 누가 감히 그 성냄을 건드리겠는가. 오직 부자父子의 정情이 있어서 한 걸음에 한 번씩 돌아다보네(虎爲百獸尊 誰敢觸其怒 惟有父子情 一步一回顧)”라고 했다. 아마 풍자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

《요산당외기》에 말하기를, “우겸于謙이 젊었을 때에, 창문 밖에 어떤 사람이 와서 부채 1개를 갖고 그것에 시를 지어 주기를 빌었다. 우겸이 즉시 쓰기를, 크게 건곤의 손을 만들었으니, 무겁게 사직을 부지扶持할 때로구나(大造乾坤手重扶社稷時)”라고 하니, 그 사람이 놀라서 뛰어가 버렸다. 귀신이었다고 한다. 나는 말한다. 여기에 경국제세經國濟世의 수단을 볼 수 있다.

우겸于謙의 시에 말하기를, “손(客)을 사절하고 다만 바람만이 방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허하며, 주렴을 걷어서 때로는 제비를 내놓아 대마루에 돌아가게 한다(謝客只容風入戶 捲簾時放燕歸梁)”라고 했다. 또, “취하면 땅을 쓸어 꽃 그림자에 누우며, 한가롭게 있을 때엔 창문에 의지하여 약방문을 본다(醉來掃地臥花影 閑處倚窓看藥方)”라고 했다. 또 〈십팔학사도十八學士圖〉[52]를 보고 지은 시에는 말하기를, “합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학업을 가졌으며, 흩어져서는 눈을 재단하고 얼음을 끊는 듯한 맑은 글을 짓는다(都將治世安民業 散作

裁冰剪雪詞)"라고 했다.

변공邊貢의 문산천문상文山天文祥의 사당을 제목으로 한 시에 말하기를, "꽃 가의 자규는 연시의 달밤에 울고, 버들 밖의 정위精衛[53]는 절강의 조수潮水로구나(花外子規燕市月 柳邊精衛浙江潮)"라고 했다. 왕세정王世貞이 그 교묘하고 고움을 칭찬했다. 상고하여 보니, 문산文山의 시에 "화하여 두견새가 되어서 피를 띠고 울며 돌아가리라(化作啼鵑帶血歸)"라고 한 것이 있다. 아래 글귀는 대체로 강을 건너려고 하여도 조수가 이르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말뜻이 위 글귀만 못하다.

이동양李東陽의 문생門生이 귀성歸省과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 왕준汪俊이 시를 지어주기를, "천년 묵은 지초芝草(모균류帽菌類에 속하는 버섯. 상서로운 상징으로 여김. 영지靈芝)는 신령한 약을 제공하고, 오색의 흐르는 샘에 도道의 기틀을 씻으시오(千年芝草供靈藥 五色流泉洗道機)"라고 했다. 사람들이 매우 잘 지었다고 말하니, 동양東陽이 말하기를, "귀성과 병 요양의 2가지 일인데, 지금 이 두 글귀는 단순히 병 요양만을 말하고 귀성에는 언급이 없으니, 이것은 반신불수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고는 고쳐 말하기를 "오색의 궁포宮袍(궁중에서 입는 옷)로 무의舞衣를 삼는다(五色宮袍當舞衣)"라고 하니, 여러 사람이 탄복했다.

52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염립본閻立本에게 명령하여 초상을 그리게 하고, 저량褚亮에게 찬贊을 짓게 한 18인의 문학인의 그림. 그 18인은 두여회杜如晦·방현령房玄齡·우지녕于志寧·소세장蘇世長·설수薛收·저량褚亮·요사렴姚思廉·육덕명陸德明·공영달孔穎達·이현도李玄道·이수소李守素·우세남虞世南·채윤공蔡允恭·안상시顏相時·허경종許敬宗·설원경薛元敬·개문달蓋文達·소욱蘇勖 등이다.

53 새 이름. 바닷가에 사는데 까마귀와 비슷한 작은 새. 옛날 염제炎帝의 딸 여와女媧가 동해에 빠져 죽었는데, 혼이 화하여 이 새가 되었다고 한다. 항상 서산西山의 나무, 돌 따위를 물어다가 동해를 메우려고 한다는 전설이 있다.

중국 사신 장녕張寧의 시에 말하기를, “누가 주렴을 걷고 신월新月을 바라보고 있는고. 자신은 긴 피리를 불면서 사양斜陽에 의지해 섰네〔誰捲疎簾望新月 自吹長笛倚斜暉〕”라고 했다. 처음에는 모두 그 글 뜻을 알지 못하였더니, 하인下人이 말하기를, “사신께서 사랑하는 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 시는 “채찍을 휘두르며 만 리를 가노니 어찌 향기 나는 규방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揮鞭萬里去 安得念香閨〕”라고 한 시와는 생각이 다르다.

이동양李東陽이 수상首相이 되어 아첨으로 자신의 지위의 보전을 꾀하니, 어떤 선비가 시를 던져 주어 말하기를, “재주의 명성은 곧 북두北斗와 태산泰山같이 높건만, 중서中書와 함께 식사하느라고 오늘도 또한 날이 저무네. 머리를 돌리니 상강에 봄풀은 푸른데 자고새는 울다 지치고, 자규가 우는구나〔才名直與斗山齊 伴食中書[54]日又西 回首湘江春草綠 鷓鴣啼罷子規啼〕”라고 했다. 대체로 자고새〔鷓鴣〕는, “가서는 안 돼〔行不得〕” 하고 울고, 자규는 “돌아가기만 못해〔不如歸〕” 하고 운다. 그런 까닭에 세상의 영화를 탐내어 물러설 줄 모르는 자는 마땅히 이것을 보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세상에 전하는 이야기에, 중국 사람으로서 나이 어려서 과거에 합격한 자가 있었는데, 친구인 서생書生을 절에 올려 보내는 시에 말하기를, “어린 나이에 급제를 하니, 내 힘으로는 견디기 어려워서 길이 제군들이 푸른 산으로 향하는 것이 부럽구나. 혹여나 한직閑職을 얻어서 할 일이 없게 되면 강과 산의 옛 자취를 거듭 찾아보기로 하겠네〔弱年登第力難任 長羨諸君向碧岑 倘得閑官無箇事 溪山舊跡擬重尋〕”라고 했다고 한다. 이 시는 시격詩格이나 글의 힘이 매우 졸렬하여 중국 사람의 작품 같지 않다.

54 반식재상伴食宰相이라고도 한다. 무능한 재상을 비웃는 말. 정객正客을 모시고 식사나 같이하는 사람이라는 뜻. 당唐나라 노회신盧懷愼을 조롱한 말에서 유래함.

조종조祖宗朝에서는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 때에 여악女樂을 사용했다. 그러므로 중국 사신 기순祁順은 기녀妓女를 물리치는 시를 지어 말하기를, "성조의 풍화를 만방萬方이 우러러보느니, 남녀 사이의 강상綱常[55]은 근엄함이 소중하오〔聖朝風化萬方瞻 男女綱常貴謹嚴〕"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그윽한 맹세는 다만 차가운 매화와 함께할 뿐, 아름다운 꽃을 위해 따로 정情을 움직이지 않는다〔幽盟只與寒梅共 不爲閑花別動情〕"라고 했다. 서사가徐四佳가 차운次韻하기를, "스스로 우리나라의 옛 예절을 따라서 감히 남녀 간의 일로써 높은 심정을 괴롭혔습니다〔自是東韓遵古禮 敢將雲雨惱高情〕"라고 했다. 용어가 너무 절박하다. 공용경龔用卿이 중국 사신으로 왔을 때에는, 기녀妓女 일타홍一朶紅이 매우 뛰어난 미인이었는데, 공 사신龔使臣이 그를 좋아해서 술이 취했을 때, 먹을 담뿍 찍은 붓으로 그녀의 낯에 칠하는 장난을 했다고 한다. 두 사신의 기상氣象이 같지 않다. 임진왜란 이후로는 모든 연회에 다만 남자의 악사들만 출연시키고 기녀는 참석시키지 않게 되었다.

중국 사신 동월董越의 시에 말하기를, "강 비는 추위를 빚어서 나무 끝에 오고, 재〔嶺〕의 구름은 어둠을 나누어 바위 언덕에 떨어뜨린다〔江雨釀寒來樹抄 嶺雲分瞑落岩阿〕"라고 했다. 바로 왕형공王荊公의, "재의 구름은 어둠을 나누어 황혼에 준다〔嶺雲分瞑與黃昏〕"라고 한 글귀를 습용한 것이다. 또 격률格律이 그다지 고묘高妙하지도 않다. 그런데 정호음鄭湖陰이 이 글귀를 가장 좋아하여, 항상 읊조리면서 칭찬했다고 하니 알 수 없는 일이다.

명나라 사람 난정서蘭廷瑞의 〈겨울밤〔冬夜詩〕〉이라는 시에 말하기를, "베개 위

55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근본이 되는 도덕인 3강綱과 5상常. 즉 삼강三綱은 유교儒敎의 기본이 되는 3가지 강綱으로서, 임금과 신하, 어버이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곧 군위신강君爲臣綱 · 부위자강父爲子綱 · 부위부강夫爲婦綱이며, 오상五常은 사람으로서 항상 지켜야 할 5가지 도리로서 인仁 · 의義 · 예禮 · 지智 · 신信을 말하는 것.

에서 시가 이루어지니 기뻐서 잠이 안 오네. 일어나 붓과 벼루를 찾고 등잔불도 밝히고, 매화를 꽂아 둔 은병銀瓶에서 물을 부으려 하니, 이미 서리와 바람에 얼어서 얼음이 되었구려(枕上詩成喜不睡 起尋筆硯旋呼燈 銀瓶取浸梅花水 已被霜風凍作冰)"라고 했다. 비록 당시唐詩의 격조는 아니나, 또한 기력이 있다.

양신楊愼의 시에 말하기를, "동관彤管[56]은 티끌에 덮인 지 오래되고, 투진妬津[57]은 낙하洛河에 생겼네. 역사는 인체人彘[58]를 슬퍼하고, 누른 구름은 여자의 거짓말에 놀라네. 진실로 안장 없는 소에 태워 조리를 돌려야 하겠구나. 금과옥조金科玉條 같은 좋은 법이 있으니(彤管久塵翳 妬津生洛河 靑史傷人彘 黃雲驚女訛 騸牛[59]信可乘 良法在金科)"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위서緯書에, "누른 구름이 날면 여자의 거짓말이 나라를 놀라게 한다"라고 했고, 또 원元나라의 형률刑律에, "질투하는 여자는 안장 없는 소에 태워 부락으로 조리 돌리게 되어 있다"라고 했다. 오랑캐의 풍속이니, 아마 인용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고율唐皐律의 시에, "천자가 즉위하고 조서가 있어서 고려에 반포했다(龍飛有

56 붉은 칠을 한 붓대. 옛날 여사女史가 가지고고 궁중宮中의 정령政令과 후비后妃의 일을 기록하는 데에 쓰던 것.

57 나루터의 이름. 진晉나라 유백옥劉伯玉의 처가 백옥을 원망하고 투신자살한 곳이라고 한다. 백옥의 아내의 성은 단씨段氏, 자는 명관明光이니, 질투가 심했다. 백옥이 항상 아내 앞에서 〈낙신부洛神賦〉를 외고 말하기를, "이러한 아내를 얻는다면 나는 한이 없겠다"라고 했다.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어째서 물귀신을 아름답다고 하고 나를 가볍게 여기려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어찌 물귀신이 되지 않으랴" 하고 드디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그 뒤로 여인이 거기를 건너려면 옷을 헐고 화장을 지운 뒤에 건너지 않으면 반드시 풍파가 사납게 일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추부醜婦가 건너면 옷을 헐거나 화장을 지우지 않아도 무사했다고 한다.

58 사람 돼지. 인시人豕라고도 한다. 한고조漢高祖의 황후 여후呂后가 고조의 애희愛姬 척부인戚夫人의 손과 발을 끊어버리고, 또 눈을 빼어 소경 · 벙어리로 만들어 변소便所에 두어두고 인체人彘라고 했다는 고사.

59 질투하는 여자는 안장이 없는 소의 등에 태워 가지고 부락에 조리돌림을 시킴. 원元나라의 형률刑律에 그러한 조항이 있었다고 한다.

詔頒高麗〕”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려麗의 음은 리離이니 나라 이름이다. 위시량魏時亮의 시에는, “노옹노구老翁老嫗(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세월에 늙었다〔翁嫗老歲華〕”라고 하였는데, 구嫗는 거성去聲이다. 그런데 평성으로 쓰고 있다. 성헌成憲의 시에는, “객客이 세상을 피하여 도망해 가니 산은 응당 감사할 것이다〔客逋山應謝〕”라고 하였는데, 포逋는 평성平聲이다. 그런데 거성去聲으로 쓰고 있다 주지번朱之蕃의 시에, “내가 자못 창주의 취향을 아는 것을 어여삐 여긴다〔憐予頗諳滄洲趣〕”라고 했다. 암諳은 평성이다. 중국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또한 상고하지 못하였던가.

명나라 사람의 〈사희시四喜詩(4가지 기쁜 일을 읊은 시)〉에 말하기를, “오랜 가뭄에 단비가 오고, 타향에서 옛 친구를 만난다. 신방에 화촉을 밝히는 밤과, 급제의 명단에 이름이 올랐을 때〔久旱逢甘雨 他鄕遇故知 洞房花燭夜 金榜掛名時〕”라고 했다. 내 생각에는 고지故知를 고인故人(친구)으로 시時를 진辰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명나라의 정선부鄭善夫는 처음에 왕정상王廷相과 서로 낯을 알지 못하였는데, 그의 〈만흥시漫興詩〉에 말하기를, “하늘 아래 왕자형王子衡이 시를 말하니, 봄바람 속에 노魯나라의 여러 유생儒生들이 둘러앉았네〔海內談詩王子衡 春風[60]坐遍魯諸生〕”라고 했다. 자형子衡은 정상廷相의 자字이다. 정선부가 죽은 뒤에 왕정상이 비로소 그 사실을 알고, 그쪽을 향하여 통곡하고, 천 리에 사람을 보내어 치전致奠(사람이 죽은 때에 친척이나 또는 벗이 슬픈 뜻을 나타내는 제식祭式)하였으며, 이어 그가 남긴 글을 비석에 새기게 했다고 한다. 대체로 사람이 서로 안다는 것은 생존과 사몰死歿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다. 왕정상이 한 일이 비록 이름을 좋아하는 행위에 가깝기는 하나, 실은 지우知遇에 감동한 것으로서 또한 지금

60 여기에서는 “여좌춘풍지중如坐春風之中”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고 있다. 선생의 지도를 받고 있으면 봄바람이 만물을 발육시키는 것처럼 저절로 훈도薰陶된다는 것이다.

세상에 드문 일이다.

왕감주의 〈악왕묘시岳王墓詩〉[61]에 말하기를, "삼전三殿에는 북극에 조회하는 사람이 있고, 육릉六陵에는 악왕묘岳王墓의 남쪽 가지〔南枝〕[62]에 비견比肩할 나무가 없다〔三殿有人朝北極 六陵無樹對南枝〕"라고 했다. 아마 송나라가 남도南渡한 뒤에 고종高宗에서 도종度宗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섯 임금인데, 다 무릎을 꿇고 오랑캐를 섬기면서 복수할 뜻이 없으니, 악왕岳王의 무덤 나무가 모두 남쪽으로만 가지를 뻗은 것에 상대될 만한 나무가 육릉에는 없다고 한 것이다.

후예后羿를 읊은 시에서는 말하기를, "그의 조각한 활이 9개의 해를 쏘아 떨어뜨리고, 홀로 밝은 달만을 남겨두어 항아를 숨게 했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不信雕弧摧九日[63] 獨留明月隱姮娥〕"라고 했다.

변화卞和[64]를 읊은 시에는 말하기를, "오직 빙거憑據하여 낙정자樂正子[65]에게 말

61 송나라의 악비岳飛. 탕음湯陰 사람이니, 자는 붕거鵬擧이다. 소흥紹興 때에 이성李成을 토벌하여 강회江淮를 평정하고 무안군승武安軍承 선사宣使에 임명되었다. 태위太尉에 승진하고 소보少保에 임명되었으며, 여러 번 금병金兵을 깨뜨렸다. 군사를 주선진朱仙鎭에 진주시켰는데, 그때 진회秦檜가 화의를 주창하고 악비岳飛를 불러들여 죄를 씌워 그의 부자父子를 체포하고 옥중에서 죽이니, 그때 나이 39세였다. 뒤에 효종孝宗이 그의 벼슬을 회복하고 무목武穆이라는 시호諡號를 주었으며, 다시 충무忠武로 고쳤다. 가정嘉定 연간年間에 악왕鄂王에 추봉追封되었다.

62 남쪽으로 뻗은 가지. 악비岳飛의 무덤의 나뭇가지가 모두 남쪽으로 뻗쳐, 북쪽을 향하지 않았다고 한다.

63 요堯임금 때에 해가 10개가 있어서 초목과 곡식이 모두 타니, 임금이 근심하여 후예后羿에게 명령하여 9개의 해를 활로 쏘아 떨어뜨리게 했다는 전설이 있다.

64 주周나라 때 초楚나라 사람. 옥덩어리를 얻어 초楚의 여왕厲王에게 바쳤더니 거짓이라고 하여 그의 왼쪽 발을 베어버렸다. 무왕武王 때에 다시 바쳤더니 또다시 거짓말이라고 하여 그의 오른쪽 발을 베어버렸다. 문왕文王이 즉위하여 옥공玉工에게 그 옥덩어리를 갈게 하니 과연 보배로운 옥이었다. 이 옥을 화씨지벽和氏之璧이라고 한다.

65 낙정자춘樂正子春을 가리킨 것. 낙정자춘이 마루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다쳤다. 두어 달 동안이나 밖에 나오지 않고도 오히려 근심하는 빛이 있었다. 제자가 그 까닭을 물으니, "남의 아들은 그 몸을 손상하지 않으며, 그 몸을 욕되게 하지 않은 완전한 것으로 보전하는 것이 효도이다. 군자는 잠깐 걷는 동안에도 효도를 잊지 않는 것인데, 이제 내가 효도를 잊었기 때문에 근심한다"라고 했다. 변화卞和가 두 발을 베인 것에 대한 경계의 뜻을 보인 것이다.

을 붙이노니, 석 달 동안을 어째서 마루에서 내려오지 않았던가(惟憑寄與樂正子三月如何不下堂)"라고 했다. 그 용의用意함이 깊다. 상고하여 보니, 변화卞和가 옥을 얻어서 임금에게 바치니 임금이 낙정자樂正子로 하여금 점을 치게 했다. 낙정자가 옥이 아니라고 말하니, 임금은 변화卞和가 임금을 속인다고 하여 그의 한 발을 베어버렸다고 한다.
상고하여 보니, 원元나라 사람의 시에, "외로운 무덤에 사람이 있어서, 와서 말에서 내리노니 육릉六陵에는 새가 깃들일 나무가 없다(孤塚有人來下馬 六陵無樹可棲鳥)"라고 했다. 이 시도 글귀 만든 수법이 같다.

왕감주가 고시체古詩體를 본받아 지은 시에, 대략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우虞나라 임금 순舜은 본래 한낱 홀아비였는데, 헛이름으로 도당씨陶唐氏의 왕위를 훔쳤다. 서백西伯 주문왕周文王은 늙은 대머리 할아범으로서 유리에 갇혔을 때에는 미인에게 뇌물을 주고 벗어났다. 순舜이 창오蒼梧에 귀양 가서 금방 죽게 되었을 때에, 우禹를 천거한 것은 무엇인가 빚진 것이 있는 것 같다. 오랑캐의 말이 주유왕周幽王을 밟아 죽인 것은, 실은 요희妖姬 포사褒姒 때문이다. 당시의 영달榮達한 사람들에게 성사聲謝를 보내노니, 성현聖賢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말라(虞帝小鰥夫 虛名攘唐祚 西伯老禿翁 脫身美人賂 舜死竄蒼梧 薦禹如有負 戎馬踐幽王 實以妖姬故 寄聲謝時達 毋爲聖賢誤)"라고 했다. 그가 성인을 업신여김이 또한 심하다.

왕감주가 이창명李滄溟에게 주는 시에 말하기를, "들 지아비가 흥興이 나니 다시 누를 수 없어라. 큰 바다에 바람이 도니 붉은 물결이 이는 것 같구나. 제남의 기절奇絕한 곳을 알고자 하거든 하늘 반공半空에 솟은 아미산을 눈 속에서 바라보라(野夫興到不復刪 大海回風生紫瀾 欲識濟南奇絕處 峨眉天半雪中看)"라고 했다. 제남濟南은 창명滄溟을 가리킨 것이나, 아마 창명을 빌어 그 자신을 또한 매우 높게 자랑한 것이다.

중국 사신 주지번朱之蕃이 부처를 그린 화첩畫帖에 쓰기를, 내가 일찍이 꿈에, 산으로 돌아간 늙은 중이 된 일이 있다. 깬 뒤에 시로써 기술한다. “꿈속에는 옛 불당의 등불이 명멸하더니, 깬 뒤에도 마음이 산사山寺의 경내와 함께 맑구나. 시냇물에는 배추꽃이 둘려 있고, 소나무에는 달이 걸렸는데, 꾸부러진 돌 위에 머리 흰 중이었네〔夢中明滅舊龕燈 覺後心隨境共澄 澗繞菜花松掛月 盤陀石上白頭僧〕”라고 했다. 옛날 방관房琯은 영선사永禪師의 후신後身이었다고 하더니, 혹시나 공公도 또한 그런 것일까.

중국 사신 웅熊이 관반館伴 이호민李好閔에게 준 시에 말하기를, “백두산으로 다시 와서 상금을 찾는다〔白嶽重來訪尙禽〕”라고 했다. 이 공이 나에게 말하기를, “상금尙禽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라고 했다. 내가 상고하여 보니, 한漢나라 상장尙長의 자字는 자평子平이니 숨어살면서 벼슬하지 않았는데 북해의 금경禽慶과 함께 오악五嶽의 명산에 놀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종말을 알지 못한다. 《도연명집陶淵明集》에 〈상장금경찬尙長禽慶贊〉이 있는데 당시唐詩에, “금상의 뜻을 펼 수 있다〔得展禽尙志〕”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중국 사신 웅熊이 거련관車輦館의 반송蟠松을 읊은 시에 말하기를, “비로소 푸른 소로 변하는 것도 또한 너의 재주라는 것을 믿는다〔始信靑牛亦爾才〕”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잡서雜書에 말하기를, “큰 소나무가 천년을 묵으면 그 정精이 화하여 푸른 소가 된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천년 묵은 나무의 정精은 화하여 푸른 양羊이 되고, 만년 된 나무의 정精은 화하여 푸른 소가 된다”라고 했다. 이 시는 아마 이것을 인용한 것일 것이다.

무술년에 명나라 장수인 제독 4명이 10여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왜병과 서로 대치하여 여러 해에 걸쳐 나아가 토멸하지 못하니, 총병總兵 유정劉綎이 방휼시蚌鷸詩를 보여 말하기를, “늙은 조개가 양지를 찾는 것은 추위를 무서워하

기 때문인데, 들새가 무슨 까닭으로 괴롭게 서로 간여하였는고. 조개의 몸이 굴혈窟穴을 떠났으니 구슬태〔珠胎〕가 손상되고, 새는 모래 여울에서 힘이 다하였으니 푸른 날개가 잔약해졌네. 조개는 입을 닫은 채 입을 열면 해로울 것을 생각하고, 새는 이미 머리를 넣었으니 바야흐로 머리 빼내기 어려운 것을 믿네. 일찍이 모두 어부의 손에 떨어질 것을 알았더라면 새는 구름을 날고 조개는 물에 잠김이 각기 스스로 편할 것을〔老蚌親陽爲怕寒 野禽何事苦相干 身離窟穴珠胎損 力盡沙灘翠羽殘 閉口却思開口害 入頭方信出頭難 早知俱落漁人手 雲水飛潛各自安〕" 이라고 했다. 대체로 조개를 왜병에 비유한 것이다. 그때 이 시를 유정劉綎이 지은 것이라고 하였는데, 뒤에 잡서를 보니, 그 속에 이 시가 실려 있었다. 그래서 유정의 작품이 아닌 것을 알았다.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명나라 홍무洪武 초년에 왜인이 들어가 공물貢物을 바쳤다. 명나라 황제가 그 나라의 풍속이 어떤가를 물으니, 왜사倭使가 시詩로써 대답하기를, "나라는 중원국中原國에 비길 만하고, 사람은 상고上古 사람들과 같습니다. 의관衣冠은 당唐나라의 제도이고, 예악禮樂은 한漢나라의 군신들과 같습니다. 은 항아리에 새 술을 거르고, 금칼로 생선을 회 칩니다. 해마다 2, 3월이 되면 복숭아꽃 · 자두꽃 모두가 봄입니다〔國比中原國 人同上古人 衣冠唐制度 禮樂漢君臣 銀甕蒭新酒 金刀鱠錦鱗 年年二三月 桃李一般春〕"라고 했다. 세상에서 간혹 이 시를 안남사신安南使臣이 지은 것이라고 말하나 잘못이다.

명나라의 원외員外 유황상劉黃裳이 동정東征 때 나와서 시를 지은 것이 있다. "물고기 껍질의 말안장은 아침 해에 빛나고, 초선貂扇은 강바람을 끌어당긴다〔魚鞍耀朝日 貂扇引江風〕"라고 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풍속이, 물고기의 껍질로 말안장을 싸고〔包〕 겨울 추위에 수달의 털로 부채를 하는 것을 비웃은 것이다. 그러나 상고하여 보니, 《본초本草》에 말하기를, "상어 껍질〔鮫魚皮〕로 안장이나 칼을 장식하며 칼집을 꾸민다"고 했다. 상어 껍질을 어안魚鞍이라고 말하는 것

도 또한 오래된 일이다.
또 말하기를, “소아素兒가 능히 객客을 취하게 한다〔素兒能醉客〕”라고 했다. 소아는 술을 일컬은 말이다. 중국말로 우리나라 말을 번역한 것이다.

중국 사신 웅화熊化의 시에 말하기를, “백일白日에 한 꽃이 떨어지고, 청천靑天에 외로운 새가 날아간다〔白日一花落 靑天孤鳥飛〕”라고 했다. 사람들이 가작佳作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상고하여 보니, 이몽양李夢陽의 시에 말하기를, “백일에 외로운 돛이 숨고, 푸른 하늘에 한 새가 날아간다〔白日孤帆隱 靑天一鳥飛〕”라고 한 것이 있다. 아마 이것을 습용하여 지은 것일 것이다. 이몽양의 시도 또한 이백李白의, “하늘이 맑으니 한 기러기가 멀고, 바다가 넓으니 외로운 돛이 더디다〔天淸一雁遠 海闊孤帆遲〕”라고 한 글귀의 말을 그대로 습용한 것이다.


권13

19. 문장부文章部-6

19-1 동시東詩(우리나라 시)

《요산당외기堯山堂外紀》에 을지문덕乙支文德의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또 그가 수隋나라 장수에게 준 시도 기재했다. 시에 말하기를, "뛰어난 책략은 천문天文을 연구했고, 신묘한 계산은 지리地理를 궁구窮究하였구나. 싸움에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할 줄 알고, 원컨대 그만 그치는 게 좋겠소〔長策究天文 妙算窮地理 戰勝功旣高 知足願云止〕"라고 했다. 그 글이 옛 것에 가깝다.

《요산당외기》에 말하기를, "고려의 사신使臣이 바다를 지나다가 시를 짓기를, 물새는 떴다간 다시 잠기고, 산 구름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네〔沙鳥浮還沒 山雲斷復連〕"라고 했다. 그때에 가도賈島가 뱃사공으로 가장하고 있다가 아래 글귀를 이어 말하기를, "노는 물속의 달을 뚫고 배는 물속의 하늘을 누른다〔棹穿波底月 船壓水中天〕"라고 하니, 고려의 사신이 탄복했다고 했다. 고려의 사신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다. 세속에서 최치원崔致遠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잘못일 것이다. 다만 여사麗使라고 한 것은 신라 때인 것 같다.

지리산智異山에 한 늙은 중이 있었다. 산의 석굴石窟 속에서 이상한 책 여러 질을 발견하였는데, 그중에 최치원이 쓴 시첩詩帖 하나가 있었다. 시가 16수였는데, 지금 그 반은 잃어버렸다. 구례군수求禮郡守 민대륜閔大倫이 그것을 얻어서 나에게 보내주었다. 그 필적筆跡을 보니 정말 최치원의 글씨였고, 시도 또한 기묘하고 예스러워서 그것이 최치원의 작품이란 것은 의심이 없다. 매우 진귀한 것이다. 그 시들은 이러하다.

東國花開洞 동국 꽃피는 골에
壺中別有天 별천지가 있네
仙人推玉枕 선인이 옥베개를 권하니
身世欻千年 몸과 세상이 홀연히 천년일세
萬壑雷聲起 일만 골에서는 우레 소리가 일어나고
千峯雨色新 일천 봉우리에는 비 빛이 새로워라
山僧忘歲月 산의 중이 세월을 잊어버리나
唯記葉間春 오직 잎 사이의 봄은 기억하네

雨餘多竹色 비 뒤에 대나무 빛이 많구나
移坐白雲開 옮겨 앉으니 백운이 열리네
寂寂因忘我 고요하고 고요하여 나를 잊고 있노라니
松風枕上來 솔바람이 베개 위에 오는구나

春來花滿地 봄이 오니 꽃이 땅에 가득하고
秋去葉飛天 가을이 가니 잎이 하늘에 날리네
至道離文字 지극한 도는 문자를 떠나서
元來在目前 원래 눈앞에 있는 것

澗月初生處 시내에 달이 처음 나는 곳에
松風不動時 솔바람 움직이지 않을 때에
子規聲入耳 두견새 소리 귀에 들어오니
幽興自應知 그윽한 흥은 스스로 응당 알고 있으리

擬說林泉興 임천의 흥을 말하려고 하나
何人識此機 어떤 사람이 이 기틀을 알겠는가

無心見月色 무심히 달빛을 보며
默默坐忘歸 묵묵히 앉아서 돌아가기를 잊네

密旨何勞舌 기밀한 뜻을 어찌 혀를 괴롭혀 말할 것이랴
江澄月影通 강이 맑으니 달그림자가 통하네
長風生萬壑 긴 바람은 일만 골에서 나고
赤葉秋山空 붉은 잎에 가을 산은 비었구나

松上靑蘿結 소나무 위에는 푸른 칡이 얽히고
澗中流白月 시내에는 흰 달이 흐르는구나
石泉吼一聲 돌샘이 한결같은 소리 부르짖으니
萬壑多飛雪 일만 골에 날리는 눈이 많다

가야산伽倻山의 석부암石負庵 바위 위에 새겨 놓은 시가 있다. “신라의 말세에 언덕과 산을 사랑하여, 깊이 구름숲을 잠그고 진환塵寰(티끌세상, 속계俗界)에 나가지 않네. 세 번이나 선도仙桃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보았으니, 다른 사람들이 100년 사이에 늙는 것이 우습다(新羅末裔愛丘山 深鎖雲林不出寰 三見仙桃花結子 笑他人老百年間)”라고 했다. 전하는 사람들은 최치원의 작품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시격詩格이 근사하지 않다. 말예末裔라고 한 말은 말세末世라고 말함과 같은 것이다.

정지상鄭知常의 〈단월역시丹月驛詩〉에 말하기를, “취하도록 술 마시고 베개에 의지할 때 그림 병풍 나직하더니, 앞마을의 첫닭 소리에 꿈이 깨었네. 돌이켜 생각하노니, 밤 깊어 운우雲雨는 흩어지고, 푸른 하늘에 외로운 달이 작은 누각의 서쪽에 기울었구나(飮闌欹枕畫屛低 夢覺前村第一鷄 却憶夜深雲雨散 碧空孤月小樓西)”라고 했다. 또 이런 시도 있다. “푸른 버들 가에 문을 닫은 여덟, 아홉 집

들이 있고, 밝은 달빛 속에 주렴을 걷는 서너 사람들이 보이네(綠楊閉戶八九屋 明月捲簾三四人)"라고 했고, 또 영곡사靈鵠寺를 읊은 시에는, "위로는 하늘의 별을 만질 만큼 집은 삼각三角이 솟았고, 반은 허공에 나와 있는 다락이 한 간일세(上磨星斗屋三角 半出虛室樓一間)"라고 했다. 또, "땅은 푸른 공중과 상응相應하여 많이 멀지는 않구나. 사람은 흰 구름과 더불어 한가롭게 마주대하네(地應碧落不多遠 人與白雲相對閑)"라고 했다. 비록 요체拗體(일정한 평측平仄의 형식에 의하지 않는 근체한시近體漢詩)이기는 하나 역시 좋다.

세상에 전하는 정지상鄭知常의 시에 이런 것이 있다. "3자루 촛불은 다하고 하늘은 이제 곧 새벽이 되려 하는데, 팔각의 문장이 이루어지니 계화桂花는 이미 향기를 풍기네. 떨어져 가는 달빛은 뜰에 가득하고, 사람들은 요란하구나. 알지 못하노니 누가 장원랑壯元郎일까(三丁燭盡天將曉 八角章成桂已香 落月蒲庭人擾擾 不知誰是壯元郎)."

내가 상고하여 보니, "3정丁"이라고 한 것은 3자루(三條)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다. 지금 봉상시奉常寺에서는 제사 때 촛불 1자루를 1정丁이라고 하고, 3자루를 3정丁이라 한다. 8각角은 즉 율律을 8자 운韻으로 짓는 것을 말한 것이다. 상고하여 보니, 《요산당외기》에 말하기를, "당唐나라의 제도에,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들에게 시험 보는 날이 이미 저물면 한 사람에게 촛불 3자루씩을 쓰도록 허락했다"라고 했다. 그런 까닭에 위승이韋承貽의 시에 "3자루 촛불이 다하니 종이 처음 우는구나. 아홉 번 고쳐 구운 단약丹藥(단사丹砂를 이겨 만든 환약. 장생불사長生不死의 약藥)이 이루어졌으나 솥은 아직 열지 않았네. 지는 달은 점점 낮아지고 사람들은 요란하네, 누가 적선謫仙(이백李白과 소식蘇軾을 칭찬하여 일컬음)의 재주인지 알 수 없구나(三條燭盡鐘初動 九轉丹成鼎未開 殘月漸低人擾擾 不知誰是謫仙才)"라고 했다. 정지상의 작품은 아마 이것을 습용한 것일 것이다.

세상에 정지상이 지었다고 전하는 〈하운다기봉夏雲多奇峯(여름 구름은 기이한 봉우리가 많다)〉이란 시가 있다. "번개 빛은 나무꾼의 도끼 빛이고, 우레 소리는 은사隱寺의 종소리다. 중이 보고는 절이 있는가 의심하고, 학은 보고 소나무 없는 것을 한탄한다〔電影樵童斧 雷聲隱寺鐘 僧看疑有刹 鶴見恨無松〕"라고 했다. 대체로 어린 아이들의 유치한 말이다. 어떤 이는 정지상의 작품이 아니라고 한다.

이규보李奎報가 우물 속의 달을 읊은 시에 말하기를, "산의 중이 달빛을 탐내서, 물과 아울러 한 병 속에 길어 넣네. 절에 이르러서 바야흐로 깨달을 것이다. 병을 기울이면 달도 또한 비었다는 것을〔山僧貪月色 並汲一甁中 到寺方應覺 甁傾月亦空〕"라고 했다.
최간이崔簡易가 이것을 차운次韻하여 말하기를, "중이 가서 우물물을 길으니 달빛을 타서〔和〕 큰 바리에 가득하였네. 절에 들어가니 보이는 게 없다. 바야흐로 색色이 곧 공空이라는 것을 알겠구나〔僧去汲井水 和月滿盂中 入寺無所見 方知色是空〕"라고 했다. 두 작품의 우열이 하늘과 땅 같다.

이규보의 〈산사시山寺詩〉에 말하기를, "종鐘과 범패梵唄(불교에서 여래如來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의 소리 속에 한 등불이 붉구나〔鐘梵聲中一燈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옛 글에, "5대를 불을 고치지 않으면 빛이 붉기가 피 같다〔五世不改火則色赤如血〕"라고 했다. 아마 이것을 인용한 것일 것이다. 김시습金時習의 시에도 또한 말하기를, "불전에 오히려 삼대 묵은 등불이 있다〔佛殿尙留三世火〕"라고 했다. 모두 장명등長明燈을 말한 것이다.

고려 때의 학사學士 진화陳澕는 홍주洪州 사람이다. 그의 시는 매우 맑고 고왔으니, 이규보와 한때 사람이다. 《한림별곡翰林別曲》에 소위 이정언李正言과 진한림陳翰林이 쌍운雙韻으로 붓을 달렸다고 한 자이다. 그의 〈오대산시五臺山詩〉에서 말하기를, "그때 그림 속에서 오대산을 보니, 구름을 쓸어버린 푸른 산이

높고 낮음이 있었다. 지금 만 동학洞壑에서 물이 다투어 흐르는 곳에 왔건만, 스스로 구름을 뚫고 길을 찾아갈 수 있네(畫裏當時見五臺 掃雲蒼翠有高低 今來萬壑爭流處 自覺穿雲路不迷)"라고 했다. 또 이런 시도 있다. "시를 짓는 것도 또한 참 흥취를 방해하는 것, 한가롭게 동풍이 낙화 쓰는 것을 보고 있네(作詩亦是妨眞興 閑看東風掃落花)"라고 했다.

진화陳澕의 시에, "도리어 우습구나. 노니는 사람의 마음 너무도 조급하네. 한 번 와서 최고봉에 오르려고 하니(還笑遊人心大躁 一來欲上最高峰)"라고 했다. 정도전鄭道傳의 시에는 말하기를, "먼 곳을 바라보고자 할 때에는, 다시 더 멀기를 근심하게 되느니, 높은 데 오를 때에 최고봉에는 오르지 말아요(望欲遠時愁更遠 登高莫上最高峰)"라고 했다. 이 두 사람의 시를 보니, 진화陳澕의 시는 매우 좁아서 남은 맛이 없으니, 그가 먼 곳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정도전의 시는 만족할 줄 아는 것 같으나, 전진하기를 탐내어 그칠 줄을 모르다가 마침내 스스로 화禍를 입었으니, 또한 칭도稱道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이제현李齊賢이 곡령鵠嶺에 올라서 지은 시에는 말하기를, "뒤에 오던 사람이 눈앞을 지나감을 괴이하게 여기지 말라. 천천히 가도 마침내는 또한 산정山頂에 도달할 것이니(莫怪後來當面過 徐行終亦到山頭)"라고 했다. 그의 원대한 기상을 볼 수 있다.

김극기金克己가 가을에 핀 자두 꽃을 읊은 시에, "기이한 좋은 향기들이 와서 굴에 모인들 어찌하랴. 한漢나라의 궁중에서 이부인李夫人[1]을 거듭 보겠네(無奈異香[2]來聚窟 漢宮重見李夫人)"라고 했다.
이인로李仁老의 〈백작약시白芍藥詩〉에 말하기를, "태진太眞[3]이 이제 막 온천의

1 한무제漢武帝의 부인으로 이연년李延年의 누이. 뛰어나게 아름답고 춤을 잘 추었다. 무제의 총애를 받았으나 일찍 죽으니, 무제가 그의 형상을 감천궁甘泉宮에 그려 놓고 생각하여 마지않았다고 한다.
2 이상한 향기. 무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좋은 향기.
3 당唐나라 양귀비楊貴妃의 호.

목욕을 마쳤을 때, 백옥 같은 피부에 연지를 찍지 않았네(太眞纔罷溫泉浴 白玉肌膚未點紅)”라고 했다. 아름다운 것 같다.

전조前朝의 오세재吳世才가 〈극암시戟巖詩(창 모양으로 생긴 바위를 읊은 시)〉에 말하기를, “북쪽 재에 높고 험한 돌이 있어, 곁의 사람들이 창바위라 부른다. 멀리 솟음은 학을 타고 날아간 왕자진王子晉에 부딪칠 것 같고, 높고 뾰족함은 하늘에 오른 무함巫咸을 찌른 것 같다. 자루를 불려서 바로잡는 데는 번갯불이 풀무가 되고, 칼날을 씻어 예리하게 다듬는 데는 서리가 소금이라네. 어찌 마땅히 병기兵器를 만들어서 초楚도 패하고 또한 범凡도 망하게 하였는고(北嶺石巉巉 傍人號戟巖 迥撞乘鶴晉 高刺上天咸 揉柄電爲火 洗鋒霜是鹽 何當作兵器 敗楚亦亡凡)”라고 했다. 운자韻字를 단 것이 매우 교묘하다.

장일張鎰의 〈승평연자루시昇平燕子樓詩〉에 말하기를, “연자루에 서리와 달이 처량하구나. 낭관郎官이 한 번 간 뒤 꿈조차 아득하네. 당시의 자리 위에 있던 손님들은 늙은 것 슬퍼 말아요. 누상樓上에서 웃던 미인들도 이제 또한 백발이 되었으니(霜月凄凉燕子樓 郎官一去夢悠悠 當時座客休嫌老 樓上佳人亦白頭)”라고 했다. 승평昇平은 지금의 순천부順天府이다. 장일張鎰이 일찍이 이 고을의 판관으로 있었을 때에, 태수太守 손억孫億이 관기官妓 호호好好를 귀여워했다. 장일張鎰이 부사府使로 거듭 왔을 때에는 호호가 이미 늙었으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낭관은 손억을 가리킨 것이다. 신광한申光漢의 시에, “부사府使가 거듭 오니, 도로 청안靑眼[4]인데 이별한 뒤에 가인佳人은 이미 백두白頭가 되었네(重來邑宰還靑眼 別後佳人已白頭)”라고 한 것도 또한 이와 같은 뜻이다.

고려 때의 정여령鄭與齡은 진주晉州 사람이다. 일찍이 남의 집 벽에 걸려있는 진주 지도를 보고 시를 지어 말하기를, “두어 점 푸른 산이 푸른 호수를 베개

4 친근한 사람을 대하는 눈. 마음과 기분이 서로 맞는 친한 벗.

로 하였는데, 공이 말하기를 이것이 〈진양도〉라고 하네. 물가의 초가들 많고 적음을 알겠는데, 그중에는 우리 집도 있건만, 그림에는 없네(數點靑山枕碧湖 公言此是晉陽圖 水邊草屋知多少 中有吾廬畫也無)"라고 했다. 세상에서 가작佳作이라고 칭찬한다. 그러나 둘째 글귀가 아름답지 않다.

고려 때의 위원개魏元凱와 문개文凱는 장흥長興 사람이다. 형제가 모두 장원급제하여 이른바, "한 집에서 두 용의 머리[5]를 낳았다(一家生得兩龍頭)"라고 하는 자들이다. 위원개는 뒤에 중이 되어 호를 원감圓鑑이라 하고는 승평昇平의 정혜사定惠寺에 있었다. 시를 지어 말하기를 "누가 알겠는가, 계족산鷄足山 속의 늙은 중이, 일찍이 용두龍頭 좌상座上의 손이었음을(誰知鷄足山中老 曾是龍頭座上賓)"이라고 했다. 또 시를 짓기를, "떨어진 돌이 냇물에 달리니, 맑은 옥을 깨뜨리는 것 같고, 구름 속에 들어간 푸른 산 빛은 서늘함이 가을을 갈고 있는 것 같다(落石奔川淸碎玉 入雲層翠冷磨秋)"라고 했다.

전조前朝의 최충崔沖의 시에 말하기를, "뜰에 가득한 달빛은 연기 없는 촛불이고, 좌석에 들어오는 산 빛은 청하지 않은 손이로다. 다시 솔바람의 현악絃樂이 있어서 악보樂譜 밖의 곡조를 연주하니, 다만 견디어 진중하게 여길 뿐 남에게 전할 수는 없네(滿庭月色無烟燭 入座山光不速賓 更有松絃彈譜外 只堪珍重未傳人)"라고 했다. 이 시를 세상에서 가작佳作이라고 칭찬한다. 그러나 다만 미전인未傳人 세 글자는 타당하지 않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작자는 최충이 아니고 최항崔沆이라고 한다.

이자량李資諒이 송나라에 사신으로 가니, 휘종徽宗이 친히 사연賜宴하고 시를 지어 화답해 올리라고 했다. 자량資諒이 시를 짓기를, "녹명鹿鳴의 아름다운 모임이 현량賢良을 잔치하니, 신선神仙의 음악이 양양하게 동방洞房(깊숙한 방, 부인

5 과거에 장원급제한 사람. 장원급제.

婦人의 방)에 나오네. 하늘이 내려주신 꽃은 머리 위에 곱고, 반盤 가운데에 임금이 주신 귤은 손안에 향기롭다. 황하黃河는 거듭 천년의 상서로움 아뢰고, 푸른 거품은 가볍게 만년을 축수하는 잔에 떴구나. 오늘 배신陪臣이 성대한 자리에 참석하여, 천보天保(하느님이 도와 편안하게 함)를 노래하여 길이 잊음이 없기를 원하네〔鹿鳴嘉會[6]宴賢良 仙樂洋洋出洞房 天下賜花頭上艶 盤中宣橘手中香 黃河再報千年瑞[7] 綠醑輕浮萬壽觴 今日陪臣參盛際 願歌天保永無忘〕"라고 했다. 아름답다.

이제현李齊賢이 회안군淮安君의 출가出家한 것을 듣고 지은 시에 말하기를, "불속의 좋은 옥이요, 물속의 연꽃 같은 자질로, 한밤중에 성을 넘어 아득히 가버렸네. 기다란 장삼으로 바꿔 입고 새 면목으로 오니, 아내는 짧은 인연이 다한 것을 울고 있네〔火中良玉水中蓮 半夜踰城去杳然 雲衲換來新面目 綠窓啼盡短因緣〕"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회안대군淮安大君은 익재益齋의 동서〔友壻〕다. 전조前朝 때에는 왕자王者가 치의緇衣(중들이 입는 옷)를 입고 중이 되는 일이 많았으므로 그 시가 이러한 것이다. 반야半夜에 성을 넘어갔다는 말은, 불설佛說을 상고하여 보니, 석가釋迦가 왕자의 몸으로 야반에 성을 넘어 나가서 설산雪山에 들어가 수도修道했다고 하였는데, 아마 이것을 인용한 것일 것이다.

이제현李齊賢이 범려范蠡를 읊은 시에 말하기를, "공을 평론한다면 어찌 강한 오나라를 깨뜨린 일뿐이겠는가. 조각배로 오호五湖에 떠간 일은 가장 공이 크

6 군신君臣이 모여 연회를 베풀어 《시경》〈소아小雅〉의 〈녹명장鹿鳴章〉을 외는 모임. 이것을 일컬어 녹명군신지연鹿鳴君臣之宴이라고 한다.

7 황하가 거듭 1,000년의 상서를 알린다고 한 말. 황하는 중국의 제2의 큰 강. 단순히 하河라고 부르기도 한다. 황하청黃河淸이라고 하여, 본래 혼탁한 황하가 맑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런 일은 대체로 1,000년에 한 번씩 있는 현상으로서, 황하가 맑아지면 성인聖人이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매우 소중한 상서로 생각한다. "黃河千年一淸 淸則聖人生於時也"

다. 서자西子[8]를 싣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월나라의 궁전에는 한 고소대姑蘇臺[9]가 생겼을 것이다(論功豈啻破强吳 最在扁舟泛五湖 不解載將西子去 越宮還有一姑蘇)"라고 했다. 그 뜻이 매우 새롭다.

전조前朝의 이규보李奎報·이제현李齊賢·이색李穡과 아조我朝의 김시습金時習이 가장 시詩의 명가名家로 불린다. 그들의 뛰어난 글귀를 적어보면, 이규보가 이 급사李給事에게 바친 시에 말하기를, "신선 자라의 장한 힘은 산을 붙들어 일으키고, 금호부금金虎符金으로써 범 모양을 만든 부절符節의 웅정雄精은 번개처럼 큰소리치며 달린다(仙鰲壯力扶山起 金虎雄精叱電驅)"라고 하였으며, 사원寺院을 제목으로 한 시에는 말하기를, "원院에 가득한 소나무와 대는 중이 부귀롭고, 한 강의 연기와 달은 절이 풍류 있다(滿院松篁僧富貴 一江烟月寺風流)"라고 했다. 갯마을(浦村)을 읊은 시에는, "호수가 맑으니 공교하게 강심江心에 달을 찍고, 포구浦口가 넓으니 탐내어 어귀에 들어오는 조수를 머금는다(湖淸巧印當心月 浦闊貪呑入口潮)"라고 했고, 임피군臨陂郡에서 지은 시에는, "객사客舍에서는 새로 수양이 서 있는 길을 다스리고, 인가人家의 반은 꽃이 비친 문짝을 달았구나(客舍新除垂柳路 人家半掩映花扉)"라고 했다. 〈문기장시文機障詩〉에 말하기를, "세 번 만세를 부르니 신산神山이 솟아오르고, 한 번 익는데 천 년이 걸리는 바다과일이 왔네(三呼萬歲神山湧 一熟千年海果來)"라고 하였으며, 〈묘암사시妙巖寺

8 서시西施. 춘추시대의 월越나라 여자. 월왕越王 구천句踐이 회계會稽의 싸움에서 패한 뒤에, 범려范蠡의 계책에 따라, 저라산苧羅山에서 땔나무를 팔고 있는 절세미인 서시西施를 얻어 아름답게 다듬어서 오왕吳王 부차夫差에게 바쳤으니, 부차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여 정치를 그르치게 하기 위함이었다. 과연 서시에게 침혹沈惑되어 고소대姑蘇臺를 쌓고 사치하고 음탕한 생활을 계속하더니 드디어 구천에게 패망했다. 뒤에 월나라에서는 서시를 범려에게 주어서 오호五湖로 함께 가게 했다고도 하고, 일설에는 강에 던져 죽게 했다고도 한다.

9 고소산姑蘇山 위에 있는 대臺의 이름. 오왕吳王 부차夫差가 월越나라를 깨뜨리고 월왕越王 구천句踐이 바치는 절세미인 서시西施를 거처하게 하기 위해 쌓은 대臺이니, 높이가 300장丈이나 된다. 다른 이름을 서대胥臺·고서姑胥라고 한다. 부차는 항상 그 위에서 서시西施와 더불어 잔치하며 놀았다고 한다.

詩〉에서는 말하기를, "그윽한 시내에 물이 괴니 원숭이가 움켜 마시고, 양지바른 언덕에 풀이 부드러우니 사슴이 와서 뜯네〔幽澗水渟猿掬飮 陽崖草滑鹿來啣〕"라고 했다. 〈덕연원시德淵院詩〉에는 말하기를, "대나무의 속이 빈 것은 객客의 성품과 같고, 소나무가 늙은 것은 중의 나이와 비등하다〔竹虛同客性 松老等僧年〕"라고 했다.

이제현의 〈기행시紀行詩〉에는 말하기를, "비는 추운 송아지를 재촉해서 어점漁店으로 돌아가게 하고, 물결은 가벼운 갈매기를 보내 객客의 배에 가까이 오게 한다〔雨催寒犢歸漁店 波送輕鷗近客舟〕"라고 했다. 또 "궁한 가을에 비는 푸른 신수神樹를 잠그고, 해 지는 날에 구름은 백제성白帝城[10]에 가로질렀네〔窮秋雨鎖靑神樹 落日雲橫白帝城〕"라고 했다. 또, "푸른 구름은 저문 날에 어부수魚鳧水를 가로막고, 붉은 나무는 가을이 조서산鳥鼠山에 이었구나〔碧雲暮隔魚鳧水 紅樹秋連鳥鼠山〕"라고 했다. 또, "신기蜃氣[11]는 창문 사이 햇빛이고, 갈매기 소리는 섬돌 아래에 조수潮水로구나〔蜃氣窓間日 鷗聲砌下潮〕"라고 했다. 또, "들이 질펀하니 산이 땅에 숨고, 마을이 멀리 보이니 나무가 공중에 뜬다〔野平山隱地 村遠樹浮空〕"라고 했다.

이색李穡의 〈조춘시早春詩〉에는 말하기를, "차가운 소리가 방안에 들어옴은 바람이 대숲을 두드림이고, 푸른 그림자가 창문에 옴은 해가 오동나무 그림자를 굴리기 때문이다〔寒聲入榻風敲竹 翠影當窓日轉梧〕"라고 했다. 산중시山中詩에서는 말하기를, "바람 맑은 대나무 집에서 중을 만나 이야기하고, 풀이 부드러운 양지 언덕에선 사슴과 함께 잠잔다〔風淸竹院逢僧話 草軟陽坡共鹿眠〕"라고 했다. 〈천

10 성城의 이름. 사천성四川省 봉절현奉節縣 동쪽 백제산白帝山에 있음. 한말漢末에 공손술公孫述이 이곳에 웅거하여 스스로 백제白帝라 했다.

11 대기大氣의 밀도의 분포가 이상적異常的이어서, 광선光線이 굴절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물상物象이 나타나 보이는 현상. 사막이나 해상, 그 밖에 공기가 부분적으로 또는 층을 이루어 온도의 차이가 있는 곳에 흔히 나타나는데, 먼 곳의 육지 · 수목 · 가옥 등의 상像이 거꾸로 서거나 곧게 서서 아래쪽 또는 공중 높이 솟아 보임. 해시海市라고도 한다.

수절시天壽節詩〉에는 말하기를, "육합六合(천하天下)이 한 집안이니, 요순의 시대 같은 태평 세상이고, 세 번 만세를 부르는 신하들은 한漢나라의 예의 바른 의관들일세〔六合一家堯日月 三呼萬歲漢衣冠〕"라고 했다. 〈즉사시卽事詩〉에는 말하기를, "개미는 헌함軒檻(난간) 앞 나무에 기어다니고, 꾀꼬리는 창문 가까운 가지에서 울고 있다〔蟻行當檻樹 鶯語近窓枝〕"라고 했다. 또, "지나가는 구름도 오히려 비 내릴 뜻이 있고, 누워 있는 나무도 또한 꽃 피울 마음을 지녔다〔行雲猶雨意 臥樹亦花心〕"라고 했다.

김시습金時習의 〈산거시山居詩〉에는 말하기를, "바람은 깊은 골의 구름을 끌고 먼 골짜기로 돌아가고, 기러기는 차가운 달그림자를 이끌고 먼 봉우리로 내려온다〔風曳洞雲歸遠壑 雁拖寒月下遙岑〕"라고 했다. 또, "움직이는 꾀꼬리는 나비를 좇아 헌함을 비껴 뚫고, 쏘다니는 개미들은 벌레를 끌고 거꾸로 섬돌을 올라온다〔流鶯趁蝶斜穿檻 遊蟻拖蟲倒上階〕"라고 했다. 또, "아내가 들나물을 솎으니 흰 뿌리가 섞이고, 아이가 산배를 따오니 누른 잎이 달려 있다〔妻挑野菜和根白 兒摘山梨帶葉黃〕"라고 했다. 또, "새가 돌아가니 뜰에 자취가 있고, 꽃이 떨어지나 나무에 소리가 없다〔鳥歸庭有跡 花落樹無聲〕"라고 했다. 또, "꽃은 산중山中의 달력이고, 바람은 고요한 때에 손님이 된다〔花是山中曆 風爲靜裡賓〕"라고 했다.

다만 이색李穡의 시에서, "푸른 그림자가 창문에 옴은 해가 오동나무 그림자를 굴리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은 이른 봄의 경치로는 온당하지 않다.

관서關西 지방에는 평시에 시를 지어 걸어 놓은 것이 대체로 많다. 그러나 중국의 사신이 올 때면 모두 걷어치우고, 오직 목은牧隱의 〈부벽루시浮碧樓詩〉와 정지상鄭知常의 〈대동강시大同江詩〉 두 작품만은 남겨 둔다. 중국 사신 허국許國의 〈부벽루시浮碧樓詩〉에 이런 글귀가 있다. "문 위에 오히려 고려의 시를 달아 놓았으니, 그때에 이미 중화中華의 글자를 알았구나〔門端尙懸高麗詩 當時已解中華字〕"라고 했다. 조금도 칭찬하는 말이 없고 다만 글자를 알았다고 말한 것은 혹여나 불만인 데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

이색의 〈신흥즉사시晨興卽事詩〉에 말하기를, “해가 세 길이나 높이 오르도록 명주 이불 따뜻하여, 한 조각 건곤이 흑첨에 붙었네〔日高三丈紬衾暖 一片乾坤屬黑甛〕”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낮잠을 흑첨黑甛이라고 한다. 또, 해가 세 길이나 높이 올라왔다고 하였으니, 새벽에 일어난〔晨興〕 것은 아니다. 또 상고하여 보니, 옛글에 말하기를, 잠이 단 것을 흑첨이라 하고, 술 마신 것을 연포軟飽라고 한다고 했다.

목은牧隱의 시에 말하기를, “요새 물가가 다 올랐는데, 홀로 나의 문장만은 돈 값이 없네〔邇來物價皆騰湧 獨我文章不直錢〕”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시서詩書를 공부했다고 반드시 다 군자는 아니다. 공경公卿과 재상宰相도 본래 필부에서 일어난 것이다〔詩書未必皆君子 卿相由來匹夫起〕”라고 했다. 아마 그 당시의 세상을 슬퍼해서 지은 것일 것이다. 상고하여 보니, 공민왕恭愍王 때에 간신諫臣이 상언上言하기를, “아무 벼슬도 하지 않던 자가 갑자기 경상卿相에 임명되고, 하인이던 자가 함부로 조관朝官의 반열班列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도은陶隱 이숭인李崇仁은 고려 말년의 여러 학사學士들 중에 가장 후진後進으로서 글에 대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더니, 하루는 옛 그림 장우障于를 벽에 걸어 놓고, 그 위에 절구 한 수를 써 놓았는데, “산 북쪽과 산 남쪽은 가느다란 길로 나뉘었는데 송화가 비를 머금고 어지럽게 떨어지네. 도인이 물을 길어 띠집으로 돌아가더니 한 줄기 푸른 연기가 흰 구름을 물들인다〔山北山南細路分 松花含雨落紛紛 道人汲水歸茅舍 一帶靑烟染白雲〕”라고 했다. 목은牧隱이 보고, 당시唐詩에 아주 가깝다고 했다. 그리하여 명성이 드디어 성대盛大했다.

세상에 전하는 둥근 부채〔圓扇〕를 읊은 시에 말하기를, “요임금 때에 10개의 해가 한꺼번에 동쪽에서 나오니 초목이 타고 말라서 바람에 떨어졌다. 요임금이

홀로 근심하여 후예后羿에게 해를 쏘라고 명령하더니, 지금까지 남은 활촉이 월륜月輪 가운데를 뚫고 있다〔堯時十日並生東 草木焦枯零落風 帝獨憂之命羿射 至今遺鏃貫輪中〕"라고 했다. 어떤 이는 이색李穡의 작품이라고 한다. 그러나 말이 매우 유치하여 정말 이색의 작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의 시에 말하기를, "향과 등불로 곳곳에서 모두 부처께 빌고, 풍악 소리는 집집마다 다투어 신神을 제사하는데, 오직 두어 간 되는 부자夫子(공자孔子)의 사당에는, 뜰 가득히 가을 풀만 우거지고 적적하게 사람이 없구나〔香燈處處皆祈佛 絃管家家競祀神 唯有數間夫子廟 滿庭秋草寂無人〕"라고 했다. 대체로 고려 말기에 다투어 가며 불교를 숭상했는데, 공公이 능히 분개하여 사문斯文(바른 학문, 즉 유학儒學)에 뜻이 있음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척약재惕若齋 김구용金九容이 고려 말년에 중국에 사신으로 갔더니, 중국 황제는 좋은 말 5,000필을 공납하라고 명령한 것이 도착하지 않음을 문책하여, 공을 운남雲南의 대리大理로 귀양 보냈다. 가다가 악양도岳陽道에 이르러 병들어 죽었다. 그의 시에 말하였기를, "좋은 말 5,000필이 어느 날 오려는가. 도화관 밖에 풀은 우거졌는데〔良馬五千何日到 桃花關外草芊芊〕"라고 했다.

백문절白文節의 시에 말하기를, "지독한 더위는 인간세상이 바야흐로 한낮인데, 누워서 처음 뜨는 해가 소나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본다〔苦熱人間方卓午 臥看初日上松頭〕"라고 했다. 이진李瑱의 시에는 말하기를, "자는 안개는 밤에 깊은 나무에 깃들여 있더니, 낮 바람에 불리어 보슬비로 변하네〔宿霧夜棲深樹在 午風吹作雨霏霏〕"라고 했다. 산에 사는 경치를 묘사한 것이 매우 좋다. 상고하여 보니, 이진은 익재益齋(이제현)의 아버지다.

이존오李存吾가 10여 세 되었을 때에 강물이 불은 것을 보고 지은 시에 말하기

를, "큰 들이 다 빠져들어 갔으나 외로운 산이 홀로 항복하지 않는다〔大野皆爲沒 孤山獨不降〕"라고 했다. 그의 뜻과 절개를 상상할 만하다. 만약 공으로 하여금 혁명革命의 시기를 당하게 했다면 그의 절개 세움이 어찌 포은圃隱의 아래에 있었겠는가. 상고하여 보니, 고산孤山은 여주驪州에 있으니, 이존오李存吾가 살고 있던 곳이다. 고산을 어떤 이는 고산高山으로 쓰기도 하지만 옳지 않다.

정포은鄭圃隱(정몽주)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지은 시에 말하기를, "아롱진 옷은 생각건대 진秦나라의 동남동녀童男童女로부터 배웠을 것이나, 이를 물들이는 것은 일찍이 월越나라의 풍속과 통한다. 길 가는 사람은 신을 벗고 존장尊長을 맞이하고, 지사志士는 칼을 갈아 해묵은 원수를 갚네〔斑衣想自秦童化 染齒曾將越俗通 行人脫履邀尊長 志士磨刀報世讐〕"라고 했다. 또, "매화가 핀 창문에는 봄빛이 이르고, 판자로 덮은 지붕엔 빗소리가 많다〔梅窓春色早 板屋雨聲多〕"라고도 했다. 모두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또 일찍이 시를 지어 말하기를, "용은 해가 저문 것을 근심하여 깊은 골에 숨고, 학은 가을이 갠 것을 기뻐하여 푸른 하늘로 날아오른다〔龍愁歲暮藏深壑[12] 鶴喜秋晴上碧天〕"라고 했다. 이것은 시사時事를 비유한 것이다.

정포은鄭圃隱(정몽주)의 시에, "봄바람에 괴롭게 이장사를 생각한다〔春風苦憶李長沙〕"라고 했다. 즉 이존오李存吾가 장사長沙의 감무監務가 되었으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 공이 어둡고 어지러운 때를 만나 죄를 받고 배척되었다. 그러나 감무가 되었으니 또한 우대된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외직外職을 중하게 여긴다. 문관文官으로서 성망聲望이 있는 자는 멀고 가까운 곳을 가리지 않고 지방관地方官 되기를 바란다. 구하여도 유력한 사람이 아니면 또한 얻지 못한다. 지금과 예전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12 때를 만나지 못한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서 숨는 것을 비유한 말. "君子得時則大行 不得則 龍蛇"

정포은鄭圃隱의 〈정부사征婦詞〉에 말하기를, “한 번 이별한 뒤로 여러 해 동안 소식이 드무니, 새원塞垣(장성長城)에서 죽고 산 것을 알 길 없네.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겨울옷을 부쳐 보내면서, 임 가실 때 뱃속에 있던 아이를 울며 보낸다〔一別年多消息稀 塞垣存歿有誰知 今朝始寄寒衣去 泣送歸時在腹兒〕”라고 했다. 이 사詞는 끝 글귀는 좋으나, 첫 글귀는 매우 졸렬하여 결코 당나라의 시격詩格이 아니다.

이원필李元弼은 고려 말기의 사람이다. 군수郡守로 있다가 안렴사按廉使 조 모趙某에게 내쫓겼다. 시를 지어 말하기를, “누樓에 의지하여 생각 없이 긴 피리만 불었더니, 남가일몽南柯一夢 같은 영화榮華의 꿈 놀라 깨었네〔倚樓長笛無情思 驚破南柯夢裡榮〕”라고 했다.

고려의 말년에 조운흘趙云仡이 벼슬에서 물러나 광주廣州의 몽촌夢村에 살더니, 하루는 죄를 입고 귀양 가는 사람을 보고 시를 짓기를, “해가 낮이나 되어 사람이 부르기에 가시문을 열고 나가, 수풀 정자에 걸어가서 돌이끼에 앉았으니, 어젯밤 산중에 비바람이 사나웠던가. 시내 가득히 흐르는 물에 꽃이 떠내려 오네〔柴門日午喚人開 步出林亭坐石苔 昨夜山中風雨惡 滿溪流水泛花來〕”라고 했다.

전조前朝 때 유숙柳淑의 〈벽란도시碧瀾渡詩〉에 말하기를, “오래도록 강호의 약속을 저버리고, 붉은 티끌 속에서 20년을 보냈구나. 흰 갈매기가 비웃고자 하는 듯이, 짐짓 누樓 앞으로 가까이 오네〔久負江湖約 紅塵二十年 白鷗如欲笑 故故近樓前〕”라고 했다. 뒤에 신돈辛旽이 참소하여 죽였다. 남추강南秋江(남효온南孝溫)이 말하기를, “사암思庵(고려 공민왕 때의 정치가인 유숙柳淑의 호號)의 충성스럽고 맑고 큰 절개가 도적 신돈의 무함으로 암흑 속에 죽임을 당하였으니 슬프다”라고 하고, 드디어 그의 시의 뜻을 뒤집어서 시로 화답하기를, “붉은 티끌의 길을 알지 못한 채, 강호에서 40년을 살았네. 사암은 도적의 손에서 마쳤으나,

나는 흰 갈매기 앞에 있구나(未識紅塵路 江湖四十年 思庵終賊手 余在白鷗前)"라고 했다. 그러나 추강도 마침내 또한 화禍를 면치 못하였으니, 더욱 슬픈 일이다.

원송수元松壽의 시에 말하기를, "젊은 날에 마음으로 기약하기를, 늙기 전에 물러가리라 하였더니, 벼슬길에 선 붉은 얼굴이 늙어지기 쉽더라. 임금의 은혜를 갚아 마쳤으니 장차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나의 눈은 푸른 산을 볼 인연이 없네(少日心期未老閑 宦遊容易損紅顔 君恩報了方歸去 吾眼無由見碧山)"라고 했다. 아마 송수松壽가 정당政堂의 지위에 올랐으므로 물러가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시가 이와 같았을 것이다. 나 같은 자는 재주가 용렬하고 지위도 낮아서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면서 결단해 떠나가지 못하니, 더욱 송수의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슬퍼한다.

이승휴李承休가 구름을 두고 지은 시에 말하기를, "한 조각이 겨우 진흙 위에서 나오더니, 가로세로, 동서남북 문득 덮어 버리네. 장맛비 이루어서 말라진 것 살린답시고, 공연히 중천中天의 밝은 해와 달만 가리네(一片纔從泥上生 東西南北便縱橫 謂成霖雨蘇群槁 空掩中天日月明)"라고 했다. 이제현李齊賢이 칭찬했다. 그러나 송나라의 시, "장맛비는 이루지 않고 공연히 하늘만 가렸네(不成霖雨謾遮天)"라고 한 글귀의 뜻을 전적으로 습용한 것이니, 아마 칭찬할 만한 것이 못될 것이다.

초은樵隱 이인복李仁復이 원元나라에 들어가서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이 고려시중高麗侍中에 이르렀다. 일찍이 동년同年인 원元나라의 학사學士 마언휘馬彦翬와 부자통傅子通에게 보낸 시에 말하기를, "매양 경림瓊林[13]의 사연賜宴에서 취

13 경림원瓊林苑의 약칭. 개봉부開封府 성서城西에 있던 원苑으로 일찍이 송나라에서 진사進士에 합격한 자를 여기에서 사연賜宴했다. 그 일로 인연하여 후세에서 전시殿試에 급제한 자를 방방放榜한 뒤에, 여러 진사들에게 사연하는 것을 경림원瓊林宴이라고 일컬었다.

해 돌아오던 일 생각하노니, 어사화御賜花에 봄은 따뜻하고 그림자는 나란히 이어졌네. 이별하고 오니 다시 교정交情의 두터움을 깨닫겠구나. 늙어서 어찌 세상일이 잘못될 줄을 알았으랴. 노둔한 말〔馬〕이 아직도 마판馬板의 콩을 생각하는 것이 부끄럽구나. 대붕大鵬처럼 높이 날 때 누가 다시 먼 번방藩邦(국가의 번병藩屛이 되는 나라, 즉 제후諸侯의 나라)을 돌아다보겠는가. 청컨대 그대는 동이東夷가 비천하다고 웃지 말라. 바다 위에 삼신산三神山이 푸르게 솟아 섰느니〔每向瓊林憶醉歸 賜花春暖影離離 別來更覺交情厚 老去安知世事非 駑鈍尙慙懷棧豆[14] 鵬飛誰復顧藩籬 請君莫笑東夷陋 海上三山聳翠微〕"라고 했다. 점필재佔畢齋(김종직)가, 그때 원나라가 바야흐로 어지러웠으므로, 이 시의 끝 글귀는 "두 사람에게 그곳을 피하여 우리나라에 오라고 초청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제 시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말이 그럴 것 같다.

여조麗朝의 장령掌令 서견徐甄이 이씨李氏의 혁명 이후로 금천衿川에 살면서 벼슬하지 않았다. 시를 지어 말하기를, "천재에 신도神都가 아득히 멀기만 하구나. 충량한 많은 신하들이 밝은 임금을 도왔네. 삼한三韓을 통일한 공이 지금 어디에 있는고. 문득 전조의 왕업 길지 않음이 한스러워라〔千載神都隔渺茫 忠良濟濟佐明王 統三爲一功安在 却恨前朝業不長〕"라고 했다. 대간臺諫에서 그에게 죄를 주고자 하니, 太宗이 말하기를, "서견徐甄이 고려의 신하였으니 시를 지어 생각하는 것은 백이숙제伯夷叔齊의 무리이다. 상을 줄지언정 죄줄 수는 없다〔甄臣高麗 作詩思之 是夷齊之流 可賞 不可罪也〕"라고 했다. 아아, 이 말은 진정 착한 임금의 말로서 하늘과 땅처럼 그 도량度量이 넓다. 이 시의 묘망渺茫을 어떤 이가 한양漢陽이라고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정이오鄭以吾가 무주茂朱에서 지은 시에 말하여, "송곳을 세울 만한 좁은 땅도

14 말이 마판馬板의 콩을 생각함. 사소한 이익을 단념하지 못함을 비유하는 말. 또는 졸렬한 재질을 가진 자가 과분한 것을 그리워한다는 비유.

모두 공후公侯의 집 소유가 되었으나, 오직 푸른 산만은 남아 있어 고을에 소속된 것이 많다. 아이들은 군국軍國의 일을 알지 못하고, 구름을 뚫고 서로 땔나무 베는 노래를 주고받네〔立錐地盡入侯家 唯有靑山屬縣多 童稚不知軍國事 穿雲互答採樵歌〕"라고 했다. 대체로 고려의 말기에 세력 있는 집들이 토지를 모두 합쳐 가져, 백성들은 한 치만 한 땅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가 세상을 슬퍼한 뜻이 절실하다.

조준趙浚이 〈청천강시淸川江詩〉에서 말하기를, "살수가 한창 파도쳐 푸른 하늘빛을 출렁이니, 수隋나라의 백만 군사가 물고기로 화해 버렸다네. 지금까지 어부와 나무꾼들의 이야기로 남아서, 정부征夫의 한 웃음거리에도 차지 않네〔薩水湯湯漾碧虛 隋兵百萬化爲魚 至今留得漁樵話 未滿征夫一笑餘〕"라고 했다. 중국 사신 축맹헌祝孟獻이 차운次韻하여 말하기를, "수병隋兵이 다시 일어남이 어찌 헛된 일이랴. 이 땅이 거의 학철부어涸轍鮒魚(수레바퀴가 지나간 자리에 괸 물에 있는 붕어)가 되었으니, 당시 당나라의 장수 설인귀薛仁貴와 이적李勣이, 깃발을 휘두르며 곧바로 부여에 이르렀던 일을 보지 못하였던가〔隋兵再擧豈成虛 此地幾爲涸轍魚 不見當時唐李薛 直揮旌節到扶餘〕"라고 했다. 조준의 시가 말이 너무 과대하기 때문에, 축맹헌이 이렇게 헐뜯어 깎아 말한 것이다. 다만 수양제隋煬帝가 요동을 정벌한 뒤에, 마침내 나라가 어지러워져서 망하였으니, 다시 일어났다고〔再擧〕 말한 것은 또한 빈말이다.

의정議政 박원형朴元亨은 세조世祖 때 사람이다. 세 번이나 원접사遠接使가 되어서 고결하다는 칭찬을 받았다. 그의 아들 안성安性이 생일날에 헌수獻壽하니, 공이 입으로 시를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등잔불 앞에서 술이 두어 순배 도니 네 나이가 32세의 청춘이로구나. 우리 집의 오래된 보물은 오직 청백淸白뿐이니, 잘 가져서 길이 자손에게 서로 전하자〔今夜燈前酒數巡 汝年三十二靑春 吾家舊物惟淸白 好把相傳無限人〕"라고 했다. 이 시는 권면勸勉하고 경계하는 뜻이 있어

서, 자제子弟들을 가르치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종직金宗直의 시에 말하기를, “시서詩書의 구업舊業은 창으로 기장을 찧는 것처럼 이루기 어렵고, 문학의 새 공부는 수달이 물고기로 제사하듯 많은 고사故事를 참고하네(詩書舊業戈舂黍 翰墨新功獺祭魚)”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순자荀子》에 말하기를, “예의를 말하지 않고 시서詩書로써 하는 것은 창으로 기장을 방아 찧는 것과 같다. 공功을 거두기 어렵다”라고 한 말이 있다. 또 옛글에 말하기를, “이상은李商隱은 글을 지을 때에 많은 서적을 하나하나 검열檢閱하여 참고하느라고 좌우에 물고기 비늘처럼 늘어놓았다. 그것을 수달이 물고기를 제사한다고 불렀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글 짓는 데에 고사故事를 인용하여 엮어 붙이는 것으로써 능사를 삼는 것은 문인의 한 병病이다. 근세에 정사룡鄭士龍이 여러 서적에서 종류별로 초기抄記한 것을 큰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글 지을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다녔다. 그런 까닭에 그의 시는 억지로 끌어다 붙인 것과, 도끼와 끌로 깎고 뚫듯 기교를 부린 흔적이 많아서, 평온한 기상이 전연 없다. 대체로 또한 이 병에 걸린 것이다.

《잡기雜記》에 말하기를, “신숙주申叔舟가 원수元帥로서 북방의 정벌에 나가 깊이 오랑캐의 경내에 들어갔더니, 오랑캐가 밤을 이용하여 와서 공격했다. 진영陣營 안이 시끄럽게 떠들고 부르짖었으나, 숙주叔舟는 굳게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막료幕僚를 불러서 구두口頭로 시를 부르기를, ‘오랑캐 땅에 서리가 떨어지니 새원(장성長城)이 춥구나. 100리 사이에 철기가 종횡으로 달리네. 밤 싸움이 쉬지 않고 하늘은 새벽이 되려 하는데, 누워서 북두칠성이 난간에 바로 비치는 것을 바라본다(虜中霜落塞垣寒 鐵騎縱橫百里間 夜戰未休天欲曉 臥看星斗正闌干)’라고 했다. 장수와 군사들이 그의 안정하고 고요한 것을 보고 힘입어 요동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숙주叔舟가 능히 동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가 한 일은 교정진물矯情鎭物(일부러 안한安閑한 태도를 꾸며서 침착한 체함)의 행동에서 나온 처사로서 그것이 바로 동요한 것이다.

성삼문成三問이 북경北京에 갔을 때에, 어떤 사람이 백로白鷺를 그린 장자障子에 쓸 시를 지어 주기를 요구하면서 그 본 그림을 보이지 않았다. 공이 붓을 달려 먼저 두 글귀를 지으니, "눈으로 의상을 짓고, 옥으로 발가락을 지었네. 갈대 사이에 물고기를 엿본 것이 얼마나 많은 때였던고〔雪作衣裳玉作趾 窺魚蘆渚幾多時〕"라고 했다. 그러한 뒤에 그림을 내보이는데 수묵화水墨畫였다. 드디어 다음 두 글귀를 채워 짓기를, "우연히 산음현山陰縣을 날아 지나다가, 잘못 왕희지王羲之의 벼루 씻은 못에 떨어졌다네〔偶然飛過山陰縣 誤落羲之洗硯池〕"라고 하니, 그 사람이 매우 놀랐다고 한다.

명양정鳴陽正 현손賢孫이 남추강南秋江과 더불어 벗이 되었다. 시를 지은 것이 있으니, "수의水衣[15]는 주춧돌을 따라 올라오고 뜰의 풀은 담을 지날 만큼 길었네. 물집〔水閣〕에는 청노靑奴[16]가 서늘하고, 돌밭에는 부비腐婢(팥꽃, 소두화小豆花)가 향기롭다. 시내 새는 비를 맞아 전신이 젖었고, 산감〔山柿〕은 서리가 지나가니 반 뺨이 붉었구나〔水衣緣礎上 庭草過墻長 水閣靑奴冷 巖田腐婢香 溪禽帶雨全身濕 山柿經霜半臉紅〕"라고 했다.

하위지河緯地가, 어떤 사람이 도롱이〔蓑衣〕를 보내온 것을 사례하는 시에 말하기를, "남아가 뜻을 얻고 잃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머리 위에는 분명하게 태양이 내려다보네. 도롱이를 보내준 것은 응당 의미가 있을 것이니, 오호五湖의 연기와 빗속에서 좋게 서로 찾읍시다〔男兒得失古猶今 頭上分明白日臨 持

15 수면水綿. 못 · 늪 등에 돋는 청록색의 풀.

16 죽부인竹夫人의 다른 이름. 더운 때에 이불 속에 넣어서 서늘함을 취하는 죽제竹製의 기구.

贈蓑衣應有意 五湖烟雨好相尋〕”라고 했다. 시의 뜻은 이러한데 물러나가기를 결행決行하지 못한 것은 혹여나 가야 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일까.

유응부兪應孚는 무인武人이니, 즉 사육신死六臣의 한 사람이다. 평일에 시를 지은 것이 있으니, “좋은 말 5,000필은 버들 아래에서 울고, 가을 새매 300마리는 누樓 앞에 앉았네〔良馬五千嘶柳下 秋鷹三百坐樓前〕”라고 했다. 그의 기상을 상상할 수 있다.

김시습金時習은 5세 때 기동奇童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세종대왕이 불러들여 삼각산三角山이란 시제詩題로 시를 짓게 하였더니, 시에 말하기를, “세 봉우리를 묶어 세워 하늘을 뚫었으니, 오르면 북두칠성도 딸 수 있겠네. 한갓 멧부리들이 구름과 안개를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능히 왕도王都로 하여금 만세萬世에 편안하게 한다〔束聳三峰貫大靑 登臨可摘斗牛星 非徒岳峀興雲霧 能使王都萬世寧〕”라고 했다.
뒷날 거짓 미쳐서 중이 되었다. 시를 지어 말하기를, “월越나라 개가 눈〔雪〕을 보고 짖듯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 진정 영광스러운 징조이고, 고래가 물 위에 날아오르듯, 함부로 날뛰는 것은 화를 부르는 일이다. 양두羊頭를 익히고자 한다면 너의 동산의 매화나무는 땔나무로 다할 것이다[17]〔越吠眞榮兆 飛鯨是禍胎 羊頭如欲爛 柴盡爾園梅〕”라고 했다.
한명회韓明澮가 〈태공조어도太公釣魚圖〉를 가지고 와서 시를 지어 달라고 요구하니, 김시습이 지어주기를, “바람과 비가 소소하게 낚시터를 휩쓰는데, 위수渭水의 물고기와 새들도 그가 세상의 욕망 잊은 것을 알더니, 어째서 늙어 용맹스런 장수가 되어 가지고, 공연히 백이伯夷 · 숙제叔齊로 하여금 굶주려 고사리를 캐게 했던가〔風雨蕭蕭拂釣磯 渭川魚鳥識忘機 如何老作鷹揚將 空使夷齊餓采薇〕”라고 했다. 아마 풍자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어떤 이는, 그의 〈삼각산〉 시는 세

17　함부로 벼슬을 탐낸다면, 천하에 아름다운 선비들은 모두 없어질 것이라는 뜻.

상에서 위작僞作한 것이라고 한다.

최수崔修의 〈벽사시甓寺詩〉에 말하기를, "벽사의 종소리 한밤에 우니, 광릉廣陵의 돌아가는 객客이 꿈을 놀라네. 만약 장계張繼로 하여금 일찍이 이곳을 지나가게 했다면 한산사寒山寺가 반드시 홀로 이름을 들날리지는 못하였을 것을〔甓寺鐘聲半夜鳴 廣陵歸客夢初驚 若敎張繼曾過此 未必寒山獨擅名〕"이라고 했다. 뜻은 좋으나 격格이 졸렬하다.

사인소舍人所(사인의 직소職所)의 연정蓮亭에는 예전에 강혼姜渾의 시가 있었다. "죽엽주竹葉酒 맑은 단지와 백옥白玉의 술잔, 옛날의 놀던 묵은 자취에 공연히 머리를 돌려보네. 뜰 가득한 밝은 달빛에 배나무꽃은, 묻노니 지금도 피는가 안 피는가〔竹葉淸樽白玉杯 舊遊陳迹首空回 滿庭明月梨花樹 爲問如今開未開〕"라고 했다.

허봉許篈의 시에는 말하기를, "전에 지나간 유랑劉郞이 홀로 또 오니, 매미 소리는 어지럽고 나무는 깊숙한 옛 지대池臺로구나. 주인이 상여相如처럼 글 읽기 좋아하는 병에 걸려서, 당년當年의 백옥배白玉杯를 등한히 물리쳤다네〔前度劉郞又獨來 亂蟬深樹舊池臺 主人正抱相如病 閑却當年白玉杯〕"라고 했다. 두 사람의 시에 우열이 있는 것 같다.

강혼姜渾의 〈동래정변루시東萊靜邊樓詩〉에 말하기를, "대마도對馬島의 푸른 산은 외로운 기러기 날아가는 저편이고, 부상扶桑의 붉은 해는 상서로운 구름의 끝이로구나〔對馬靑山孤雁外 扶桑紅日靄雲端〕"라고 했다. 또, "붉은 제비가 섞여 나는데 바람은 버들을 떨치고, 푸른 개구리가 어지럽게 우니 비가 산에 어둡다〔紫燕交飛風拂柳 靑蛙亂叫雨昏山〕"라고 했다.

서거정徐居正의 〈울산동헌시蔚山東軒詩〉에는 말하기를, "누樓는 악양루岳陽樓와

필적한 천하의 첫째이고, 땅은 바다 가운데에 있는 세 봉래산에 이웃하였네(樓敵岳陽天下一 地隣蓬島海中三)”라고 했다.

안침安琛의 〈추월헌시秋月軒詩〉에는 말하기를, “흔들리는 물결은 흩어져서 100개의 동쪽 언덕을 만들고, 그림자를 대하니 진정으로 가장 흰 것이 셋이로구나[18](搖波散作東坡百 對影眞成太白三)”라고 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글귀라고 칭찬한다.

뇌계㵢溪 유호인俞好仁은 성종成宗 때의 학사學士로서 가장 특별한 우대를 받았다. 영남嶺南으로 부모를 뵈러 귀성하게 되었을 때 임금이 중사中使(궁중에서 보내는 사신使臣)에게 명령하여 중로中路에 달려가서 그가 시 지어 놓은 것을 수색해 오게 하였더니, 그가 조령鳥嶺에 올라서 지은 시에, “북쪽을 바라보니 임금과 신하는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고, 남쪽으로 오니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만나게 되었네(北望君臣隔 南來母子同)”라고 했다. 임금이 칭찬하고 감탄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충효忠孝가 구비한 사람이다”라고 했다.

정민수鄭民秀는 불우한 선비였다. 일찍이 박연폭포朴淵瀑布에 놀러 갔는데 의관衣冠이 몹시 초라했다. 막대를 끌고 가니 마침 많은 선비들이 모여 있다가 그 사람됨을 업신여겨 이르기를, “네가 시를 지을 줄 아느냐”라고 했다. 민수民秀가 쓰기를, “날아서 곧게 3,000척尺을 내려오니, 의심하건대 은하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일까(飛流直下三千尺 疑是銀河落九天)”라고 쓰니, 여러 사람들이 서로 보며 냉소했다. 곧 달아서 쓰기를, “이태백李太白의 이 글귀를 이제 바야흐로 증험하였으니, 반드시 여산廬山 폭포가 박연폭포보다 나을 것이 없구나(謫仙此句今方驗 未必廬山勝朴淵)”라고 했다. 이에 선비들은 크게 놀라며 그를 상좌에 앉히고 존경했다고 한다.

18 달과 달그림자와 사람의 백발을 의미한 것.

김계희金係熙가 승평昇平을 제題하여 읊은 시詩에 말하기를, “10월에 산다山茶가 난만하게 붉다〔十月山茶爛熳紅〕”라고 했고, 정철鄭澈이 함경咸鏡 감사가 되었을 때 지은 시에는, “다정한 10월의 함산국화咸山菊花가, 중양重陽에는 손을 위하여 피지 않는다〔多情十月咸山菊 不爲重陽爲客開〕”라고 했다.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의 풍토風土가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최숙정崔淑精이 의묘懿墓에서 지은 시에 말하기를, “생학笙鶴(선학仙鶴)이 하늘에 조회朝會하여 가서 돌아오지 않으니 성 서쪽 10리가 곧 구산緱山(중국中國 하남성河南省에 있는 지명)일세. 연기와 노을은 어둡게 소나무와 전나무의 길을 잠그고 구름과 안개는 깊이 호표관虎豹關을 감추었구나. 이 날의 마름과 다북쑥은 깨끗하여 제물祭物로 바칠 만하다. 당년當年의 임금의 모습은 아득히 멀어서 뵐 길 없네. 두견새 소리 괴로운 울음에 마음이 슬퍼서, 봄바람에 눈물을 뿌려 점점이 아롱지네〔笙鶴朝天去不還 城西十里卽緱山 煙霞暗鎖松杉路 雲霧深藏虎豹關 此日蘋蘩明可薦 當年弓劒渺難攀 傷心杜宇聲聲苦 淚洒春風點點斑〕”라고 했다. 최숙정이 전사관典祀官으로서 이 시를 재궁齋宮의 벽에 써 놓았더니, 성종成宗이 친히 거둥하여 시를 보고 매우 감탄하고 칭상했다. 이것으로 인하여 갑자기 대관大官에 올랐다고 한다.

신영희辛永禧의 시에 말하기를, “보리타작하는 소리 높이 들리고 술은 동이에 가득한데, 노인은 일 없이 쓸쓸한 시골 마을에 누웠네. 아이를 불러 방에 바람 막는 장막을 내리노니, 새로 옮긴 자죽紫竹(대나무의 일종, 마디 사이의 겉껍질에 자흑색紫黑色의 반점이 있음)의 뿌리를 흔들까 두렵기 때문이다〔打麥聲高酒滿盆 老人無事臥荒村 呼童室下遮風幔 恐擾新移紫竹根〕”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진사進士 신영희辛永禧의 호는 안정安亭이니, 김한훤당金寒暄堂(김굉필) · 남추강南秋江(남효온)과 친한 벗이었다. 사화士禍가 장차 일어날 것을 알고 숨어 살면서 벼슬하지 않았다. 문장과 덕행으로 한 세상이 높이 받들었다고 한다.

주계군朱溪君 심원深源의 호는 성광醒狂이다. 시를 지어 말하기를,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맑은 향기가 비관鼻觀(코의 구멍)을 통해 들어오니, 멀리서 수풀 아래에 남은 꽃이 있음을 알겠다(陣陣淸香通鼻觀 遙知林下有殘花)”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왕반산王半山의 시에 “그윽한 향기가 한 차례 바람에 따라 일어나니, 장미가 시내 바닥에 꽃피고 있음을 알겠다(暗香一陣連風起 知有薔薇澗底花)”라고 한 것이 있다. 이 시는 아마 그 뜻을 습용한 것일 것이다.

삼괴당三槐堂 신종호申從濩가 기녀妓女 상림춘上林春의 집을 지나다가 입으로 부른 시에 말하기를, “제5교 다리 가에 연기 어린 버들이 비꼈는데, 늦게 바람과 햇빛은 더욱더 맑고 온화하구나. 비단 주렴 12폭 안에 미인은 옥과 같은데 청쇄문靑瑣門의 글 잘하는 신하는 말 가는 대로 맡겨 지나가네(第五橋頭烟柳斜 晩來風日轉淸和 緗簾十二人如玉 靑瑣詞臣[19]任馬過)”라고 했다. 종호從濩는 당시에 있어서 당시체唐詩體를 배웠다고 이름이 있었는데, 그의 작품이 과연 당시唐詩에 가까운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상고하여 보니 상림춘上林春은 거문고를 잘 타서 그때에 제일가는 솜씨라고 일컬었으며, 광통교廣通橋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세상에 전하는 것으로 장승을 두고 지은 시에 말하기를, “천고 영웅 초패왕楚霸王(중국 초나라 항우項羽를 높여 일컫는 말)의 영혼이 강을 건너오니, 낯은 없고 다만 형체만 있다. 당년當年에 음릉陰陵 길 잃은 것을 후회하여, 길이 행인을 향하여 갈 길을 가리킨다네(千古英雄楚霸靈 渡江無面只存形 當年悔失陰陵道 長向行人指去程)”라고 했다. 우리나라 사람의 작품이라고 일러 오고 있으나 내가 당나라의 책인 《시학대성詩學大成》을 보니, 그 속에 이 시가 있었다. 비로소 중국 사람이 지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19 청쇄靑瑣는 청쇄문이니, 본래 한漢나라의 궁문宮門으로서, 푸른 빛 무늬를 조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금중禁中의 뜻으로 쓰고 있다. 사신詞臣은 문신文臣, 곧 문사文詞를 맡은 신하라는 뜻이다.

옛날에 한 늙은이가 남루한 옷을 입고 촌야村野로 다니며 쌀 동냥을 했다. 글 읽는 서생書生을 만나 말하기를, “선비님께서는 글 읽느라고 매우 수고하십니다. 저는 평생에 빌어먹는 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말하고, 이어 절구 한 수를 지어 보이기를, “게으르게 사창에 의지하니 봄날이 더디구나. 청춘의 고운 낯이 꽃 떨어지는 때에 헛되게 늙었네. 세상의 온갖 일이 모두 이와 같으니, 옛날 영척甯戚이 쇠뿔을 두드리면서 노래하던 일을 그 누가 알겠는가〔懶倚紗窓春日遲 紅顔空老落花時 世間萬事皆如此 叩角謳歌[20]誰得知〕”라고 했다. 말뜻이 매우 뛰어나다. 아마 은자隱者일 것이다.

이악정二樂亭 신용개申用漑가 강정江亭에서 지은 한 연구聯句에 말하기를, “모래가 따뜻하니 뭇 새들이 모이고, 강이 맑으니 달이 뜨네〔沙暖集群鳥 江淸浮太陰〕”라고 했다. 홍유손洪裕孫이 감탄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성당盛唐의 풍운風韻이다”라고 했다. 그가 세상에서 중시됨이 이와 같았건만, 그의 시문이 후세에 많이 전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신용개가 대학사大學士 때에 남곤南袞의 집에 들렀더니, 남곤이 시를 지어 감사하기를, “버드나무 그늘은 침침하고 낮닭이 울려고 할 때에, 홀연히 쓸쓸한 집 앞에 수레소리 · 말굽소리 넘치네. 귀빈貴賓의 풍채를 다투어 보느라고 이웃집들은 비고, 술잔치 재촉해 마련하기에 늙은 아내는 바쁘구나. 흥을 타니 다만 술잔 기울이는 일만 알고, 마음으로 친하니 정서鞓犀 끄는 것 깨닫지 못하네. 침음沈吟하여, 높은 수레가 들러주신 일 글 짓고자 하나, 정중하여 거친 글 감히 쓰지 못하네〔楊柳陰陰欲午鷄 忽驚窮巷溢輪蹄 爭看風裁空隣舍 促具盤筵窘老妻 乘興但知傾蘂玉[21] 忘形不覺挽鞓犀 沈吟欲賦高軒過 鄭重荒詞未敢題〕”라고 했다. 용개가 탄상

20 소의 뿔을 두드리며 노래 부르는 일. 춘추시대에 제齊나라의 영척甯戚이 소의 뿔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러서 자신이 등용登用되기를 바랐다는 고사에서 온 말. 스스로 등용되기를 요구하는 일.

21 술잔의 이름.

嘆賞하기를, "의발衣鉢[22]이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더니, 얼마 안 되어 남곤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고 한다. 지금 그 시를 보니, 비속함에 가깝다. 그리고 단지但知니 정중鄭重이니 하는 등의 말은 흠이 있는 것 같다. 또 욕欲 자를 2자씩이나 겹쳐 쓰고 있다. 이 시를 가작佳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남이南怡의 시에 말하기를,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 다하고, 두만강 물은 말이 마셔 없어진다. 남아가 20세에 나라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고 말하겠는가(白頭山石磨刀盡 豆滿江波飮馬無 男兒二十未平國 後世誰稱大丈夫)"라고 했다. 말뜻이 제멋대로 날뛰고 평온한 기상이 없으니 화를 면하기 어렵다.

연산군燕山君이 한 궁녀宮女를 잃고 매우 슬퍼하여 이희보李希輔에게 시를 지으라고 명령했다. 시에 말하기를, "궁문宮門은 깊이 잠기고 달은 황혼인데 열두 번의 종소리 밤중에 이르렀네. 어느 곳 푸른 산에 옥 같은 뼈를 묻었는가. 가을바람에 잎 떨어지는 소리 차마 들을 수 없네(宮門深鎖月黃昏 十二鐘聲到夜分 何處靑山埋玉骨 秋風落葉不堪聞)"라고 했다. 연산이 기뻐했다고 한다. 소위 "십이종성十二鐘聲"이라는 용어는 그 나온 곳을 알 수 없다. 혹여나 억지로 만든 말일까.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이 선무사宣撫使가 되었을 때에 일본의 사신 미중彌中이, 《역경》을 읽는다는 것을 제목으로 하여 시를 지어주기를 청하고는 이어 험운險韻(달기 어려운 운자韻字)을 불렀다. 모재慕齋가 즉시 응대하기를, "큰 고깃국에는 원래 매실梅實이나 소금을 타지 않고, 지극히 심오한 것은 붓이나 혀끝으로 형용하기 어렵다. 고요한 속에서 묵묵히 소장消長하는 이치를 보면, 달이 둥글

22 스승이 제자에게 전법傳法의 표로서 주는 가사袈裟와 식기食器. 전轉하여 스승에게 전수받은 도법道法.

때는 거울 같지만 또 낫 같기도 하다〔大羹元不和梅鹽至妙難形筆舌尖 靜裏默觀消長理 月圓如鏡又如鎌〕”라고 하니, 미중彌中이 무릎을 치면서 탄복했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이 반달을 제목으로 하여 시를 짓기를 청하고 운자韻字를 불렀다. 즉시 짓기를, “신기한 구슬이 이지러져 깨어지니 용과 물고기가 다투다가 은두꺼비를 찢어 죽여 반은 벌레가 먹었네. 망서望舒(달의 어자御者)를 꺼꾸러뜨려서 그대로 말 모는 방법을 잘못하니, 축軸은 없어지고 바퀴는 부러져 수레를 이루지 못한다〔神珠缺碎鬪龍魚 剮殺銀蟾半蝕蛆 顚倒望舒仍失馭 軸亡輪折不成輿〕”라고 했다. 그가 능히 벽운僻韻(흔히 쓰지 않는 괴벽한 운자)을 이와 같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두춘李逗春이라는 자는 이름 없는 선비이다. 그런데 그가 지은 《단양협중시丹陽峽中詩》에 말하기를, “재〔嶺〕는 춤추는 것 같고 돌은 날고자 하는데, 동천洞天 깊은 곳에서 손은 돌아가기를 잊는다. 맑은 못에 해가 떨어지고 흰 구름이 이는데, 가는 길에 신선의 바람이 우의羽衣를 분다〔嶺欲蹲蹲石欲飛 洞天深處客忘歸 澄潭日落白雲起 一路仙風吹羽衣〕”라고 했다.

전우치田禹治의 시詩[23] “紫蛙周禮正王法 南相文章眞伊 周璞亦璞鼠亦璞 隋珠珠魚目珠 蝘蜓嘲龍眞龍羞 山人掉頭歸去早 桂樹丹崖風月好” 소위 남상南相은 남곤南袞을 가리킨 것이다. 시詩의 말이 매우 기이하다.

눌재訥齋 박상朴祥이 충주忠州를 읊은 한 연구聯句에 말하기를, “서북의 두 강물은 태고 때부터 흐르고, 동남의 두 재는 신라를 뚫어 놓았다〔西北二江流太古 東南雙嶺鑿新羅〕”라고 했다. 절창絕唱이라고 한다. 그런데 “착신라鑿新羅” 석 자는 어세語勢가 거슬리는 것 같아서 온당하지 않다.

23 역자 주 : 이 시는 글귀가 빠진 것, 글자가 빠진 것, 또는 글자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 번역할 길이 없으므로, 그대로 옮겨 놓음에 그치기로 한다.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선생의 시에 말하기를, “만물이 변천하는 것은 일정한 형태가 없다. 한 몸이 한적함은 저절로 때를 따르는 것, 근년에는 점차 경영하는 힘을 덜어서, 길이 청산靑山을 대한 채 시를 짓지 않는다(萬物變遷無定態 一身閑適自隨時 年來漸省經營力 長對靑山不賦詩)”라고 했다. 말뜻이 매우 고상해서 구구한 시구詩句나 짓는 자들이 따라갈 바 아니다. 또 시를 짓기를, “만물이 때를 얻으면 모두 스스로 즐긴다. 한 몸이 분수分數를 따르면 또한 근심이 없다(萬物得時皆自樂 一身隨分亦無憂)”라고 했다. 또, “정신이 맑고 참기운이 큰 때를 기다려 얻는다면, 한 몸이 도리어 한 당우의 세상이 된다(待得神淸眞氣泰 一身還是一唐虞)”라고 했다. 이것을 보면 선생의 수양을 알 수 있다.

허암虛庵 정희량鄭希良이 사화士禍를 입고 도망하여 중이 되었다. 혹은 이천년李千年이라 자칭하면서 산수山水 사이에 떠돌아다니며 노닐더니 늙은 뒤의 종말을 알지 못한다. 일찍이 원사院舍(여관)의 벽에 시를 써 놓기를, “바람과 비에 전일前日을 놀랐더니, 이때엔 문명文明을 저버렸네. 외로운 막대로 우주에 노니노니, 어지러움이 싫어서 시 짓는 것도 그쳤다(風雨驚前日 文明負此時 孤節遊宇宙 嫌鬧並休詩)”라고 했다. 또 “새는 집의 무너진 지붕 구멍을 엿보고, 중은 석양의 샘물을 긷네. 천지에 집 없는 손은 건곤 어느 곳이 가(邊)인고(鳥窺頹院穴 僧汲夕陽泉 天地無家客 乾坤何處邊)”라고 했다. 그가 지은 《추명서推命書(사람의 운명을 추정하는 책)》라는 것이 지금 세상에 유행되고 있는데 신기하게 잘 맞는다고 한다.

몽정夢井 성하산成夏山이 강정江亭을 두고 지은 시에 말하기를, “다투어 한강가의 좋은 곳들을 점령하여, 정자와 누대가 도처에 강을 향해 새롭구나. 붉은 난간들이 대개는 모두 비어 있으니, 누구나 술을 갖고 와서 그 난간에 의지하는 사람이 주인이더라(爭占名區漢水濱 亭臺到處向江新 朱欄大抵皆空寂 携酒來憑是主人)”라고 했다. 달관한 사람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성담수成聃壽의 시에는 말하기를, “낚싯대를 갖고 날이 다하도록 강가에서 머

무르다가, 맑은 물결에 발을 드리우고 곤하게 한잠 자노라니, 꿈에 갈매기와 함께 만 리를 노닐었는데, 깨어 보니 몸은 그냥 석양 하늘 아래 있더라(持竿盡日趁江邊 垂脚淸波困一眠 夢與沙鷗遊萬里 覺來身在夕陽天)"라고 했다. 뜻과 흥이 또한 높다. 제3구를, "꿈에 백구와 함께 바다 밖을 날아다녔는데(夢與白鷗飛海外)"라고 하는 이도 있다. 담수聃壽는 하산夏山의 숙부叔父이다.

어무적魚無迹의 자는 잠부潛夫이니, 천서賤庶로서 글재주가 있었다. 이 주서李注書(길재吉再, 즉 야은冶隱)의 옛 마을을 제題하여 지은 시에, "낙락落落한 높은 표격標格 길吉 주서는 금오산 아래에 문을 닫고 살았네. 수양산 고사리는 은殷나라의 남긴 풀이고, 율리栗里의 전원은 진晉나라 도연명의 옛터라네. 만고에 이름을 전하여 대의大義를 심으니, 지금도 사람이 지나다간 마을 앞에서 고개 숙이네. 남아가 세상에 나서 누군들 담이 없으랴. 서고 선 봉우리들이 모두 나를 일으키네(落落高標吉注書 金烏山下閉門居 首陽薇蕨殷遺草 栗里田園晋故墟 萬古名垂扶大義 至今人過式前閭 男兒生世誰無膽 立立峯巒摠起予)"라고 했다.

박희겸朴撝謙이 군관軍官으로 북경北京에 갔을 때, 3월 3일 시詩에 말하기를, "3월 삼짇날 날씨가 좋아, 시냇가 버들의 푸른빛이 처음으로 가지런하구나. 답청踏靑(3월 3일)의 곡수曲水의 잔치하는 좋은 모임에 고향 집에서는, 응당 술 단지 앞에서 멀리 떠난 사람 생각하리라(三月三日天氣新 澗邊楊柳綠初勻 踏靑佳會家山事 應向樽前憶遠人)"라고 했다.

박희겸은 세조世祖 때의 사람이다. 생원生員으로서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부장部將이 되었다. 북정北征에 종군하여 공이 있었으나,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물러나와 천안天安에 살았다. 그가 지은 노장시老將詩에 말하기를, "흰 말이 바람에 울건만 버들가지에 매어 두고, 장군이 일이 없으니 칼을 칼집에 감추었네. 나라의 은혜를 갚지 못하고 몸이 먼저 늙었구나. 꿈에 관산關山(고향)을 밟으니

눈이 아직 녹지 않았네〔白馬嘶風繫柳條 將軍無事劍藏鞘 國恩未報身先老 夢踏關山雪未消〕"라고 했다. "초鞘라는 글자는 거성去聲인데 평성平聲으로 쓴 것이 흠이다. 시풍嘶風을 어떤 이는 "한가하게 운다〔閑嘶〕"라고 쓴다.

부학副學 김구金絿가 어릴 때, 어른들이 〈석류石榴〉를 제목으로 하여 시험하였더니 즉시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가호[24]의 어리석음과 같이 배 가득히 밝은 구슬을 감추었는고〔如何賈胡愚 滿腹藏明珠〕"라고 하니, 온 좌중이 기이하게 여겼다고 한다.

충청수영忠淸水營의 영보정永保亭은 제일가는 승지勝地로서 예전부터 제題하여 읊은 것이 매우 많다. 그런데 오직 박은朴誾의, "땅은 푸드덕푸드덕하여 장차 날아가려는 날개 같고, 누각은 흔들흔들하여 매지 않은 배 같구나〔地如拍拍將飛翼 樓似搖搖不繫蓬〕"라고 한 글귀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우는 것이다. 나도 또한 한 연구聯句를 지은 것이 있으니, "가을빛은 아래위가 푸른 구리쇠를 갈아 놓는 것 같고, 밤의 광채는 동쪽 서쪽에 백옥白玉이 떴구나〔秋色磨靑銅上下 夜光浮白玉東西〕"라고 했다. 이야말로 당돌서시唐突西施(추부醜婦는 화장하여도 미인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25]

이용재李容齋에게 고향의 친구가 납약臘藥과 역서曆書를 요구하였으므로 시詩를 지어 회답하기를, "편안하고 한가함이 약이 되고, 잎의 피고 지는 것에 봄과 가을을 안다. 멀리 알리거니와, 산중山中의 객客인 나는 길이 그러한 가운데서 살아왔다오〔安閑爲藥餌 開落是春秋 遠報山中客 長從這裏求〕"라고 했다.

24 서역 오랑캐의 상인商人. 가호는 아름다운 구슬을 얻으면 배를 쪼개고 그 속에 감추었다 한다. 《자치통감資治通鑑》 당기唐紀에 "太宗貞觀元年 吾聞 西域賈胡得美珠 剖身以藏之"라고 했다.

25 자신의 시가 박은朴誾의 시에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겸사의 뜻이다.

이용재가 원접사遠接使가 되었을 때에, 안주安州 백상루百祥樓에서 지은 시에 말하기를, "두 갈래의 물이 겹치니 감괘坎卦를 이루고, 세 산이 끊어져서 곤괘坤卦를 만들었다(二水重成坎 三山斷作坤)"라고 하니, 중국 사신이 잘 지었다고 칭찬했다.
상고하여 보니, 이희보李希輔가 통군정統軍亭을 제題하여 읊었는데 말하기를, "한 줄기 물이 흘러 환괘渙卦[26]를 이루고 세 산 끊어져 곤괘坤卦를 만든다(一水流成渙 三山斷作坤)"라고 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용재容齋가 이 글귀를 빌어다 썼으나, 이희보李希輔의 시보다 잘되었다고 한다.

이용재李容齋의 증별시贈別詩에 말하기를, "늙어가니 이별하는 것이 중난重難하고, 정이 많으니 말 나오는 것이 더디다(老去分襟重 情多出語遲)"라고 했다. 김 교리金校理 첨瞻의 시에는 말하기를, "살아 있어서는 이별을 면하기 어렵고, 늙게 되니 이별이 가장 심정에 걸린다(在生難免別 垂老最關情)"라고 했다. 말뜻은 서로 같으나 김첨金瞻의 시가 더욱 좋다.

소요정逍遙亭은 즉 심정沈貞의 별장이다. 어떤 사람이 제題하여 읊기를, "떨어진 잎은 가을 구렁을 감추고, 사양은 반쪽 산을 비친다(落葉藏秋壑 斜陽映半山)"라고 했다. 대체로 가추학賈秋壑과 왕반산王半山을 인용하여 나무란 것이다. 그런데 심정沈貞이 깨닫지 못했다. 장옥張玉이 소요정의 서序를 매우 아름답게 지었다. 그런데 그중에 이런 말이 있다. "다른 해에 높으신 말씀을 받들어 듣고, 옥잔에 마시다 남기신 술을 얻어 마시고자 합니다(奉瓊唾[27]於他年 霑玉斝之餘瀝)"라고 했다. 남들이 병病이라고 한다.

26 환괘渙卦는 바람을 상징하는 손괘巽卦가 위에 있고, 물을 상징하는 감괘坎卦가 아래에 있다 . 그러니 물은 흘러가고 그 위에 바람이 부는 것이 환괘渙卦의 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뜻일까?
27 해타咳唾와 같은 뜻. 남의 말을 높여서 일컫는 말. 장자長者의 언어.

정일두鄭一蠹 선생의 악양시岳陽詩에 말하기를, "바람부들 둥둥 떠서 가볍게 부드럽게 하늘거리는데, 4월의 화개花開에 보리는 이미 가을이로구나. 유두산流頭山 천만 첩은 보아 다하고, 외로운 배로 또한 큰 강을 흘러 내려간다〔風蒲泛泛弄輕柔 四月花開麥已秋 看盡流頭千萬疊 孤舟又下大江流〕"라고 했다. 그 기상을 볼 수 있다. 악양岳陽 · 화개花開는 진주晉州의 땅 이름이다.

정사룡鄭士龍이 도화총桃花驄(털빛이 붉은 말)을 읊은 시에 말하기를, "망이궁 안에서 천진을 잃고, 도원桃源[28]에 달아나 들어가서 포학한 진秦나라를 피했다. 등 위에 떨어진 꽃을 그대로 두어 쓸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오히려 무릉의 봄을 띠고 있네〔望夷宮裡失天眞[29] 走入桃源避虐秦 背上落流仍不掃 至今猶帶武陵春〕"라고 했다.

성수종成守琮의 시에 말하기를, "작은 산은 앞에 있고, 긴 강은 뒤에 있어, 산비와 강 소리는 밤에 창문에 떨어진다. 아침에 누워서 어부의 혜시惠施를 짐작하노니, 떨어진 자리문〔席門〕 앞에 삽살개 짖는구나〔小山當面背長江 山雨江聲落夜窓 朝來臥卜漁人惠 破席門前吠老尨〕"라 했다. 강가에 사는 취미를 매우 잘 살렸다.

28 땅 이름. 무릉산중武陵山中에 있으니, 주씨朱氏와 진씨陳氏가 진秦나라의 학정虐政을 피해 이 속에 들어가 숨어 살았다고 한다. 그곳은 멀리 깊은 산중에 있을 뿐 아니라, 동구洞口가 바위로 막히고, 조그만 통로가 있을 뿐이었는데 그곳에 복숭아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도원동桃源洞, 혹은 진인동秦人洞이라고 한다. 뒷날 진晉나라 때가 되어서 무릉武陵의 어부漁夫가 처음으로 물에 떠내려오는 복숭아 꽃을 보고 찾아갔을 때에도 그들은 아직 진秦나라가 멸망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도연명陶淵明이 《도화동기桃花洞記》를 지은 뒤로는 세상에서 선경仙境의 뜻으로 쓰고 있다.

29 망이궁望夷宮은 진秦나라의 궁宮 이름. 승상丞相 조고趙高가 일찍이 사슴을 가리키면서 이세황제二世皇帝에게 말이라고 하니, 황제가 그것이 사슴이지 어찌 말이냐고 했다. 조고趙高가 거기에 있는 여러 신하에게 물으니, 모두가 조고를 두려워하여 그것을 말이라고 했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천진天眞은 하늘에서 타고난 순수한 본질을 가리키는 말이니, 사슴이 말로 되었으므로 천진을 잃었다고 한 것이다.

기재企齋 신광한申光漢의 시에 말하기를, "구름은 쏟아질 듯하면서도 쏟아지지 않는 비를 안고 있고, 봄은 먼저 피고 뒤에 핀 꽃으로 가득하다〔雲含欲滴未滴雨 春滿先開後開花〕"라고 했다. 또 일찍이 양주루원楊州樓院을 보니 어떤 사람이 시를 지어 놓았는데, "냇가의 구름은 비 내리고자 하나 비가 되지 않고, 길가의 장승은 사람을 맞이하곤 도리어 사람을 보내곤 하네〔溪雲欲雨未爲雨 路堠迎人還送人〕"라고 했다. 이 두 시의 글귀의 말이 서로 닮았다.

서화담徐花潭의 시에 말하기를, "몸을 가지고 하늘의 한가운데에 섰으나 부끄럽지 않다. 흥興은 맑고 온화한 지경에 들어가네. 내 마음이 공경公卿 · 재상宰相을 가볍게 여김이 아니라, 종래부터 평소의 뜻이 임천林泉(세상을 버리고 은둔하기에 알맞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성誠과 명덕明德의 사업은 칼 놀리는 것이 회통恢通(넓고 능통함)하고, 현묘한 기관機關은 일부러 채찍질하는 일이 적다. 경敬을 주로 하는 공부가 이루어져 천지신명을 대하면, 창 가득한 바람과 달에 저절로 마음은 유연하네〔將身無愧立中天 興入淸和境界邊 不是吾心薄卿相 從來素志在林泉 誠明事業恢遊刃[30] 玄妙機關少着鞭 主敬功成方對越 滿窓風月自悠然〕"라고 했다.

조용문趙龍門 욱昱이 화답하여 말하기를, "지극한 사람의 마음 자취는 본래 하늘과 같은 것인데, 작은 지혜는 구구하게 한쪽 구석에 침체하게 한다. 높은 지위가 질곡桎梏이 된다고 함부로 말을 하지만, 원래 마음이 정하면 성시城市가 곧 임천林泉인 것이다. 배가 급한 물을 만나면 돌리기 어려운 것이고, 말이 긴 여정旅程에 있을 때는 채찍을 받게 마련인 것이다. 성誠과 경敬이 진실로 용이한 일이 아닌데, 그대의 아름다운 글귀를 외면서 진정 그러한가를 묻노라〔至人心迹本同天 小智區區滯一邊 謾說軒裳爲桎梏 從來城市卽林泉 舟逢急水難回棹 馬在長途合受

30 소를 해체解體할 때에 관절과 근육 사이에 있는 틈을 따라 칼을 쓰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칼 쓰는 것이 너그럽고 자유스럽다는 말. 변전變轉하여 일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일의 본질을 파악하여 순리로 처리하여가는 능숙한 수법을, 여유가 있고 자유스럽다는 뜻으로 쓴다〔彼節者有間 而刀刃者無厚 以無厚入有間 恢恢乎其於游刃必有餘地矣…… 《장자莊子》〕.

鞭 誠敬固非容易事 誦君佳句問其然〕”라고 했다.
대체로 화담花潭의 시가 매우 스스로 만족해하는 뜻이 있으므로 권면勸勉하는 말로 화답한 것이다.

성효원成孝元의 시에 말하기를, “꿈속에서 이별의 회포를 말함이 거듭되면서, 서로 옛 모습의 파리해졌음에 놀랐더니, 깨어 보니 몸은 높은 다락 위에 있는데, 바람은 빈 물가에 치고 달은 산 저편으로 숨었네〔夢裡離懷說自重 相驚憔悴舊形容 覺來身在高樓上 風打空江月隱峯〕”라고 했다. 첫 구를 어떤 이는 “마음속의 미인을 꿈속에 만나서〔心裡佳人夢裡逢〕”라고 한다.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시는 곧 최수성崔壽峸이 꿈에 김충암金冲庵을 보고 지은 것이라고 한다.

정북창鄭北窓 염磏이 검단사黔丹寺의 설경雪景을 읊은 시詩에서 말하기를, “산길에는 사람이 없고 새도 돌아오지 않으니, 외로운 마을은 암담하고 싸늘한 구름만 쌓였다. 사원寺院의 중이 유리계를 밟고 가서, 강 위에서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온다〔山徑無人鳥不回 孤村暗淡冷雲堆 院僧踏破琉璃界 江上敲氷汲水來〕”라고 했다. 어떤 이는 이 시를 백광훈白光勳의 작품이라고 말한다.

정렴鄭磏이 임종臨終에 시를 지어 말하기를, “하루에 만 권의 책들을 모두 읽고, 하루에 천 종鍾의 술을 마셔 다하였네. 고상한 담화는 복희씨 이상의 일만 말하고, 속된 이야기는 평생에 입에 담지 않았네. 안회顔回는 30세에 아성亞聖[31]이라고 일컬었는데, 선생의 수壽는 어찌 그리 오래였는고〔一日讀盡萬卷書 一日飮罷千鍾酒 高談伏羲以上事 俗說生來不到口 顔回三十稱亞聖 先生之壽何其久〕”라고 했다. 쓰기를 마치고 죽으니 그때 나이는 40여 세였다.

31 성인聖人인 공자孔子에 버금가는 큰 현인賢人. 거의 성인의 경지에 이른 대신인大賢人. 곧 안연顔淵 또는 맹자를 일컬음.

쌍한雙閑 박수량朴守良은 강릉江陵 사람이다. 용궁현감龍宮縣監에서 물러나 고향에 은거하더니, 김충암金冲庵(충암은 김정金淨의 호號)이 풍악楓岳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를 찾아 방문하고 철쭉나무 지팡이를 시와 함께 증정했다. 그 시에 말하기를, “일만 봉 옥 같은 바위 층 속에, 구추九秋의 눈과 서리를 견뎌낸 가지랍니다. 갖고 와서 군자께 드리노니, 해가 저물면 이 마음 알겠네(萬玉層巖裡 九秋霜雪枝 持來贈君子 歲晩是心知)”라고 했다. 공이 화답하기를, “곧은 것이 먼저 베임을 싫어하는 듯하여 짐짓 그 뿌리를 굽혔네. 곧은 심성心性이 오히려 속에 있었으니, 어찌 도끼날을 모면할 수 있었으랴(似嫌直先伐 故爲曲其根 直性猶存內 那能免斧斤)”라고 했다.
대체로 그에게 화禍를 피할 것을 경계한 것이다. 그런데 충암이 마침내 화를 면치 못하였으니 애석한 일이다.

임석천林石川의 〈쌍계사시雙溪寺詩〉에 말하기를, “치원致遠은 선인仙人이다. 표연히 세상 기운을 멀리하였네. 짧은 비석에는 아직도 글자가 남아 있으나 깊은 골에는 본래부터 무덤은 없다. 탁한 세상에는 몸만 붙여 있었을 뿐, 푸른 하늘에서 고고孤高한 학鶴이라네. 높은 산을 어떻게 우러러볼 것인가. 한갓 이 맑은 향기를 움킬 뿐이네(致遠仙人也 飄然謝世氛 短碑猶有字 深洞本無墳 濁世身如寄 靑天鶴不群 高山安可仰 徒此挹淸芬)”라고 했다.
박수암朴守庵(박지화朴枝華)의 시에는 말하기를, “고운孤雲은 당나라의 진사進士로서, 처음부터 신선神仙을 배우지 않았다. 오랑캐가 삼한三韓을 침범하던 날이요, 바람과 티끌이 사해四海에 가득한 때였다. 영웅이 나오기를 어찌 예측할 수 있었으랴. 신선의 참 비결은 본래부터 전하는 것이 없다. 한 번 이름난 산속으로 들어간 뒤로, 맑은 바람이 500년을 불고 있네(孤雲唐進士 初不學神仙 蠻觸三韓日 風塵四海天 英雄那可測 眞訣本無傳 一入名山去 淸風五百年)”라고 했다. 세속에서 고운孤雲이 신선이 되었다고 전하기 때문에 석천石川의 시가 이러하였으나, 수암守庵이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그의 말이 옳다. 다만 고운의 일은 지

금부터 800년 전인데 500년이라고 말한 것은 온당하지 않다.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이 술에 대한 시를 짓는데, 운을 부르니 즉시에 시를 지어 말하기를, "늙어 가니 바야흐로 이 맛을 알겠구나. 석 잔을 기다릴 것 없이 한 잔이면 도道가 통한다. 그대는 혜강嵇康 · 완적阮籍 · 도연명陶淵明 · 유령劉伶 · 이백李白을 보라. 그들은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32]을 부러워하지 않았느니〔老去方知此味甘 一杯通道不須三 君看嵇阮陶劉李 不羨公侯伯子男〕"라고 했다.

세상에 전하는 은대계축銀臺契軸의 시에 말하기를, "방울 줄〔鈴索〕[33]을 당긴 나머지에 자면서도 오히려 경계를 하고, 니서泥書[34]를 써서 마치니 먹이 아직도 마르지 않았네〔掣殘鈴索眠猶警 題罷泥書墨未乾〕"라고 했다. 북경北京 가는 이에게 지어준 송별시에 말하기를, "모년暮年에 손이 되었으니 모름지기 음식이나 더 많이 드시고, 해 떨어질 때에 집을 생각하여 누樓에 의지해 서진 마시오〔暮年作客須加飯 落日思家莫倚樓〕"라고 했다. 그 절실한 맛이 있다고 하여 경구警句라고 일컬어진다. 다만 전편全篇을 볼 수 없고, 또 누구의 작품인지도 알 수 없다.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임화정林和靖은 매화梅花로 아내를 삼고, 학鶴으로 아들을 삼았다"라고 했다. 임억령林億齡이 〈매화정시梅鶴亭詩〉에 말하기를, "집사람은 여러 번 매화 보는 역서를 볕 쬐고, 아이는 거듭 학鶴 싣는 배를 수리한다〔家人屢曬觀梅易 童子重修載鶴船〕"라고 했다. 그 뜻이 가만히 화정和靖에 견준 것이라고 한다.

32 하夏 · 은殷 · 주周 때의 제후諸侯의 다섯 계급의 이름. 한漢나라 이후에는 공公 위에 왕王을 두고, 백伯 · 자子 · 남男을 폐하여 왕王 · 공公 · 후侯의 3등작等爵으로 했다.

33 방울을 매달아 놓은 줄. 사람을 부를 때에 신호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옥당玉堂에 가설되어 있던 것. "夜久忽聞鈴索動 玉堂西畔響丁東"이라고 한악韓偓 시가 있다.

34 봉서封書. 봉니封泥한 편지.

퇴계退溪 선생의 〈과청평산시過淸平山詩〉에 말하기를, “흰 달빛이 공중에 가득하니 흰 도포가 남았고, 갠 안개가 자취 없는 것처럼 뜬 영화를 보냈네. 동한東韓은 일의 사적事迹을 누가 닦아 전할 것인가. 작은 흠을 지적하여 옥을 물리치지 말라(白月滿空餘素袍 晴嵐無迹遣浮榮 東韓隱逸誰修傳 莫指微疵屛玉珩)”라고 했다. 대체로 고려 때의 이자현李資玄이 청평淸平에 은거隱居함이 37년으로서, 또한 한때의 높은 선비이다. 그런데 사가史家에서 그를 탐욕하고 인색하다고 헐뜯은 것은 터럭을 불고(吹) 흠을 찾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퇴계의 이 시는 정론定論이 되기에 족하다.

퇴계 선생이 19세 때에 시를 지어 말하기를, “근래에 근원根源에 도달한 것 같다. 나의 온 마음을 가지고 태허太虛(우주의 근본 원리)를 본다(邇來似與源頭會 都把吾心看太虛)”라고 했다. 그가 조년早年에 수양해서 얻음이 이미 이와 같았다.

조남명曹南冥(조식)의 시에 말하기를, “남의 앞을 꺼리지 않고 어찌 반드시 시사時事를 말해야 할 것이랴. 산을 말하고 물을 말하는 것도 또한 말이 많은 것인데(捫蝨何須談世事 談山談水亦多談)”라고 했다. 성대곡成大谷의 시에는 말하기를, “사람을 만나면 산의 일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산일도 자꾸 말하게 되면 또한 남의 뜻을 거스르게 되느니(逢人不喜談山事 山事談來亦忤人)”라고 했다. 말뜻이 더욱 높다.

조남명曹南冥의 시에 말하기를, “사람들이 바른 선비 사랑하는 것이 범의 가죽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살았을 때에는 죽이고자 하고, 죽은 뒤에야 비로소 아름답다고 칭찬한다(人之愛正士 愛虎皮相似 生前欲殺之 死後方稱美)”라고 했다. 이 말은 반드시 격激한 데가 있어서 한 말일 것이다. 당시 세상의 병폐를 바로 맞혔다.

임금호林錦湖가 인묘仁廟의 만사挽詞를 지어 말하기를, “하늘이 사문斯文을 없애고자 하니, 신臣이 어찌하여 이런 때를 만났을까. 차마 오늘의 눈물을 가지고 거듭 거년去年의 수건을 적십니다. 평생의 뜻을 본받아 갚고자 하나, 붙잡고 울부짖되 죽지 못한 몸입니다. 산릉山陵의 준공을 보지 못한 채 남쪽 바다로 옮겨감을 진실로 마음 슬퍼합니다(天欲斯文喪 臣胡際此辰 忍將今日淚 重濕去年巾 報效平生志 攀號未死身 喬山功未就 南海倍傷神)”라고 했다. 대체로 중묘中廟가 승하한 지 일주년이 못 되어서 인묘가 승하했다. 금호錦湖가 그때 산릉도감山陵都監 낭청郎廳이 되었다가 산릉의 일을 마치지 못하고 나가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여소재慮蘇齋가 진도珍島에 귀양 갔을 때에 지은 시가 있다. “천지天地의 동쪽이고 나라의 남쪽인, 옥주의 성 밖에 있는 두어 간 암자로구나. 용서받기 어려운 죄와 고치기 어려운 병이 있고, 충성되지 않은 신하이고 불효한 아들이 되었네. 객지에서 3,400일을 살아 있는 것이 다행일까. 생년生年인 을해乙亥와 금년 병진丙辰이 부끄럽다. 너 노수신은 장차 취하는 일이 없어서, 공사公私의 일에 견딜 수 있게 하라(天地之東國以南 沃州城外數間庵 有難赦罪難醫病 爲不忠臣不孝男 客日三千四百幸 生年乙亥丙辰慚 汝盧守愼將無醉 補得公私底事堪)”라고 했다. 한때 세상에서 칭송할 뿐 아니라 입에 올리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글귀의 말이 우체優體를 면치 못했다. 시를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상고하여 보니, 공은 을해생乙亥生으로서 병진년丙辰年에 이 시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객일삼천사백客日三千四百”이라고 한 것은 아마 귀양살이한 세월을 말한 것이리라고 한다.

노소재盧蘇齋는 인묘仁廟의 동궁東宮 때에 우사서右司書로 있었는데 만년晩年에 효릉孝陵을 제사하는 시에 말하기를, “묘호廟號는 온 심덕心德을 표시하는 인仁이고, 능명陵名은 백행百行의 근원인 효孝입니다. 임의 의상衣裳 차마 볼 수 없

으며, 사직社稷은 말이 없고자 하네. 하늘은 상주喪主로서 한 해를 넘기는 수명을 인색해했고, 사람은 만고의 원통함을 머금네. 세자궁世子宮의 옛 요속僚屬들로 이제는 오직 우사서右司書 한 사람만이 생존해 있을 뿐입니다〔廟表全心德 陵名百行源 衣裳圖不見 社稷欲無言 天靳逾年壽[35] 人含萬古寃 春坊舊僚屬 唯有右司存〕"라고 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눈물이 맺혔다고 할 수 있다.

노소재盧蘇齋가 손을 송별하느라고 술에 취한 뒤에 시 한 글귀를 지었으나, 대對를 맞출 글귀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매미가 소나기에 몰려 좌석 앞에 떨어지는 것이 있었다. 공이 즉시 글귀를 맞추기를, "가을바람이 일어나니 제비는 손과 같고, 늦은 비가 사납게 지나가니 매미는 미친 것 같구나〔秋風乍起燕如客 晩雨暴過蟬若狂〕"라고 했다. 귀신의 도움이라도 있는 것 같았다. 두시杜詩에 말하기를, "가을 제비는 이미 손과 같은 것〔秋燕已如客〕"이라고 하였는데 소재蘇齋가 바로 이것을 인용한 것이다.

유성춘柳成春의 집 하인이 복숭아나무를 베었으므로 성춘이 시를 짓기를, "나무 베는 일을 아이에게 시킨 것을 후회한다. 작은 동산 안의 복숭아나무를 모두 베어 버렸네. 동군東君의 소식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들을 때에, 무슨 물건을 갖고 봄바람에 대답할까〔悔將伐木課兒童 斫盡夭桃小苑中 聞道東君消息至 更將何物答春風〕"라고 했다.

나식羅湜의 호는 장음정長吟亭이다. 시사時事가 위험한 것을 보고 과거를 보지 않은 채 힘써 스스로 자취를 숨기더니, 정미년丁未年의 벽서壁書의 사화士禍가 일어나니 그의 형인 부제학숙副提學淑과 함께 화를 모면하지 못했다. 일찍이 역귀疫鬼 쫓는 푸닥거리 소리를 듣고 지은 시가 있다. "역귀 쫓는 북소리가 둥

35 부왕父王이 죽은 뒤, 1년을 지날 수 있는 수명. 즉 선왕이 죽으면 상고에는 해를 넘겨야 새 임금이 즉위하였으며, 연호年號를 바꿀 수 있었다.

둥둥 사방四方의 거리에 일어나니, 동쪽으로 몰고 서쪽으로 쫓아 형세 어지럽구나. 해마다 푸닥거리 소리를 듣고 한갓 백발만 붇는구나. 나라 안에서 일찍이 한 귀신이라도 제거한 일이 있느냐〔儺鼓鼕鼕動四閭 東驅西逐勢紛如 年年聞汝徒添白 海內何曾一鬼除〕"라고 했다. 대체로 끝 글귀는 지적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말뜻이 매우 노골적이어서 화를 모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시에 말하기를, "얕고 깊은 술잔을 주고받고, 길고 짧은 노래들을 부르고 화답하곤 한다. 이 사이에 참뜻이 있느니 누구가 큰 소리를 알겠는가. 낯을 하늘로 향하여 한 번 웃음을 터뜨리고, 고요히 소나무 바람의 거문고를 듣는다〔酬酢淺深杯 唱和長短吟 此間有眞意 誰人知大音 仰面發一笑 靜聽松風琴〕"라고 했다. 이 시는 방광放曠(마음에 여유가 있고 사물에 구애되지 않는 상태)하여 즐겨할 만하다.

김하서金河西의 〈죽림사시竹林寺詩〉에 말하기를, "처마 밖에 높이 자란 대나무들은 10만의 대장부가 서 있는 것 같고, 난간 앞의 고운 꽃들은 삼천궁녀가 웃고 있는 것 같다〔十萬丈夫軒外竹 三千宮女檻前花〕"라고 했다. 아래 글귀는 아마 이규보李奎報의, "꽃은 삼천궁녀의 뺨처럼 애교를 지녔고, 버들은 15살 동기童妓의 허리처럼 한들거린다〔花媚三千宮女臉 柳搖十五妓兒腰〕"라고 한 글귀를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절을 두고 짓는 글에 인용하는 것은 아마 좋지 않을 것이다.

정형鄭礥이 연안부사延安府使가 되었을 때, 해주海州 부용당芙蓉堂의 현판懸板에 있는 여러 시를 보니, 모두 마음에 만족하지 않았다. 드디어 절구 한 수를 지어 말하기를, "연꽃 향기와 달빛은 맑은 밤에 좋다.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이 옥퉁소를 불어 보내는고. 열둘의 굽은 난간 위에 앉았노라니 잠도 꿈도 안 오는데, 벽성碧城의 가을 회포 멀기만 하여라〔荷香月色可淸宵 更有何人弄玉簫 十二曲欄無夢寐 碧城秋思正迢迢〕"라고 했다. 세상에서 절창絶唱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

의 의견으로는 속되지 않다고 한다면 그럴듯한 말이지만, 절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정승 상진尙震은 인품人品과 도량度量이 넓고 커서 일찍이 남의 장단점을 말하는 일이 없었다. 판서判書 오상吳祥이 시를 지어 말하기를, “복희씨 시대의 속악俗樂이 지금은 쓴 듯이 없어졌으나, 다만 봄날의 술자리에만 있다(羲皇俗樂今如掃 只在春風杯酒間)”라고 하니, 상공尙公이 보고 말하기를, “어찌 말을 그렇게 절박하게 하는가” 하고 고치기를, “복희씨 시대의 속악俗樂이 지금도 오히려 있어서, 봄바람 부는 술자리에서 볼 수 있다(羲皇俗樂今猶在 看取春風杯酒間)”라고 했다. 두어 글자를 고쳐 놓으니 원만하여서 드러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기상을 볼 수 있다.

여성군礪城君 송인宋寅이 일찍이 서경西京을 유람하다가, 띠를 풀어 기녀妓女에게 주고 이별하는 시를 지어 말하기를, “이별하는 자리에서 내 옷의 띠를 풀어 주어, 옥 같은 가는 허리를 한 둘레 묶게 하노라. 생각건대 화장을 하고 나면 더욱 아름다울 것을, 누구에게 이끌려 비단 장막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臨分解帶當留衣 敎束纖腰玉一圍 想得粧成增宛轉 被誰牽挽入羅幃)”라고 했다.

첨지 유순선柳順善의 〈가매시假梅詩〉의 한 연구聯句에 말하기를, “그 잎을 보라, 어찌 거짓이라고 하겠는가. 그러나 만일 그것이 참이라면 어찌 향기가 없는가(何以假爲須看葉 如其眞也豈無香)”라고 했다. 또 복숭아나무에 매화나무를 접붙이는 것을 읊은 시에 말하기를, “옛날의 번화하던 복숭아꽃은 이제 적막하게 되었으나, 뒷날 매화의 성긴 그림자 아래에서는 거닐 만하겠지(舊日繁華歸寂寞 異時疎影可徘徊)”라고 했다. 말은 교묘하나 운치가 없다.

승지 이충작李忠綽의 시에 말하기를, “백발인 용양위[36]가 벼슬이 한가하여 낮에 사립문을 닫았네. 중이 삼각산에서 와서 나의 오언시五言詩를 받아가네(白首龍驤衛 官閑晝掩扉僧 從三角至 求我五言歸)”라고 했다. 자못 자연에 가깝다.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이 젊었을 때 〈단사부丹砂賦〉라는 글로 진사 시험에 2위로 합격하여 이름이 있었다. 일찍이 강서사江西寺를 지나가는데 절의 중이 영접하여 말하기를, “공公이 〈단사부〉를 지으신 손님이십니까”라고 했다. 봉래가 크게 웃고 절구 한 수를 지어 말하기를, “바람과 비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로하는 이 없더니, 강서사江西寺의 주인이 가장 즐거이 맞아주네. 서로 만나 문득 〈단사부〉를 말하니, 산중의 중도 또한 내 이름 아는 일이 너무나 부끄럽구나(風雨無人慰客行 江西寺主最歡迎 相逢便說丹砂賦 殊愧山僧亦識名)”라고 했다.

양사언의 〈월출봉시月出峯詩〉에 말하기를, “삼천 리에 높이 물 거울을 달아 놓으니 한 번 건곤 만고萬古의 마음을 씻어주네(高懸水鏡三千里 一洗乾坤萬古心)”라고 했다. 차천로車天輅의 시에는 말하기를, “은하銀河의 갠 빛은 삼천세계三千世界에 통하고, 옥도끼의 맑은 광휘光輝는 팔도八都[37]에 가득하다(銀河曙色通三界 玉斧淸輝滿八都)”라고 했다. 말이 모두 기이하고 서늘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알 수 없다.

양봉래가 사선정四仙亭에서 지은 시에 말하기를, “거울 같은 바닷속에 부용 같은 산봉우리는 36봉, 하늘가에 상투처럼 땋아 올린 1만 2,000봉은 금강산일세. 그 중간의 한 조각 창주 돌은 마땅히 동쪽으로 온 바다 손님이 잠자는 것을 보았으리라(鏡裡芙蓉三十六 天邊鬟髻萬二千 中間一片滄洲石 合看東來海客眠)”라고

36 조선 초기에 설치한 오위五衛. 별시위別侍衛 1,500명과 대졸隊卒 300명으로 구성됨.

37 팔방八方과 같다. 동 · 서 · 남 · 북과 건방乾方(서북) · 곤방坤方(서남) · 간방艮方(동북) · 손방巽方(동남)이다.

했다. 처음에는 2,000을 쌍천雙千이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병病이라고 했다.

영평永平의 금수담金水潭은 다른 이름으로 우두연牛頭淵이라 한다. 산과 물의 경치 좋음이 기내畿內에서 으뜸이다. 옛날에 김윤복金胤福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살았는데, 그는 평생에 거문고를 좋아해서 호號를 금옹琴翁이라고 했다.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이 그곳 바위에 시를 새기기를, "녹기금綠綺琴[38] 같은 거문고에 백아伯牙[39]의 마음 같은 마음, 종자기鍾子期[40]라야 그 소리 알아듣겠네. 한 번 타고 다시 한 번 읊으니, 서늘한 빈 바람은 먼 봉우리에서 일고 강의 달은 어여쁜데 강물은 깊었네(綠綺琴 伯牙心 鍾子是知音 一鼓復一吟 冷冷虛籟起遙岑 江月娟娟江水深)"라고 했다.

양봉래楊蓬萊가 차식車軾과 함께 발연사鉢淵寺에 유람하다가 각기 절구 한 수씩을 지어 반석盤石에 새겼다. 양봉래의 시에는 말하기를, "백옥경白玉京 봉래도蓬萊島는 넓고 넓어 경치는 예스럽고, 밝고 밝은 바람과 햇빛은 좋구나. 벽도碧桃 꽃 아래에 한가롭게 오고 가는데, 선학仙鶴의 한 소리에 천지는 늙었네(白玉京蓬萊島 浩浩烟霞古 熙熙風日好 碧桃花下閑來往 笙鶴一聲天地老)"라고 했다. 차식의 시에는 말하기를, "아침에는 현포玄圃(곤륜산崑崙山에 있다는 신선神仙이 사는 곳), 저녁에는 봉래蓬萊. 발연사에는 산에 달이 뜨고, 계수대에는 향기로운 바람이 분다. 동해東海를 굽어보고 마고麻姑(손톱이 긴 선녀仙女의 이름)에게 읍하고, 신선

38 거문고의 이름. 한漢나라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양왕梁王으로부터 하사받은 거문고. 사마상여가 〈옥여의부玉如意賦〉를 지으니 양왕이 즐거워하여 녹기綠綺를 내려주었다고 한다.

39 춘추시대의 사람으로 거문고를 잘 탔다. 종자기鍾子期와 친했는데, 거문고 소리를 듣고 종자기는 백아의 생각을 알았다고 한다. 지음知音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생긴 것이다. 종자기가 죽으니, 백아는 세상에 자기 거문고 소리를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고 하여 거문고의 줄을 끊어버렸다고 한다.

40 백아伯牙의 지기지우知己之友. 백아의 거문고 소리를 듣고 백아의 생각하는 바를 알았다고 한다.

세계의 육육궁六六宮에 갔다가 돌아오네〔朝玄圃暮蓬萊山 月鉢淵寺 香風桂樹臺 俯臨東海揖麻姑 六六壺天[41]歸去來〕”라고 했다.

양봉래가 안변부사安邊府使가 되었으나 장부와 문서에 뜻을 두지 않고 오직 산을 찾고 물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때는 열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일찍이 금강산을 유람하다가 다만 시 한 연구聯句를 지었으니, “바다는 하늘을 머금어 가서 다하고, 산은 돌을 이고 오는 것이 많다〔海啣天去盡 山戴石來多〕”라고 했다. 마침내 그 아래 글귀를 짓지 못했다. 상고하여 보니, 당唐나라 이빈李頻의 시에 말하기를, “들은 하늘을 머금어 가서 다하고, 산은 한수漢水를 끼고 와서 깊다〔野含天去盡 山夾漢來深〕”라고 했다. 말뜻이 비록 공교하나 남의 것을 좇아 그대로 했다는 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판서 이후백李後白이 소년 때에 관찰사 앞을 말을 타고 지나가는 잘못을 저질렀다. 관찰사가 벌 대신 그에게 시를 지으라고 했다. 공이 즉시 절구 한 수를 지어 말하기를, “먼 들의 비낀 햇빛이 서쪽 동쪽으로 눈이 부시고, 눈〔眼〕을 때리는 티끌 모래가 북풍에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잘못 관찰사의 행차에 부딪친 것을 알고 한恨하지 않습니다. 낭선浪仙이 이 일로부터 한 공을 안 것처럼 될 것을〔遠郊斜日眩西東 撲眼塵沙困北風 誤觸牙旌知不恨 浪仙從此識韓公〕”이라고 하니, 관찰사가 매우 경탄하여 예로써 보내주었다고 한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것은 옛사람의 작품인데 이 공이 빌려 쓴 것이라고 한다.

이후백이 규정시閨情詩를 지어 말하기를, “첩의 몸은 다만 문 앞의 버드나무 같아서 눈썹 모양은 비록 새로우나 이미 마음은 썩었답니다〔妾身只似門前柳 眉樣雖新已朽心〕”라고 했다. 김극검金克儉이 시에 말하기를, “은 등잔은 도리어 첩妾과 같아서, 눈물이 다하고, 도리어 마음이 타네〔銀釭還似妾 淚盡却燒心〕”라고 했

41 호천壺天은 별계別界. 6 · 6은 36동천洞天이니, 신선이 사는 별세계라는 말이다.

다. 아름다운 것 같다.

퇴계 선생이 벼슬을 그만두고 남쪽으로 돌아가던 날, 한때의 명사들이 한강漢江에 나와서 전송하니, 증별贈別의 시가 많았다. 그런데 이순인李純仁의 시가 가장 아름다웠다. 그 시에 말하기를, "한강물 유유히 밤낮으로 흘러서 외로운 돛이 손을 위해 가는 것을 멈추지 않네. 고향의 산이 점점 가까워 오고 종남산終南山이 멀어지면, 아마 시름이 없기도 하고 도리어 있기도 하리라〔江水悠悠日夜流 孤帆不爲客行留 家山漸近終南遠 也是無愁還有愁〕"라고 했다.

이순인李純仁의 송인시送人詩에 말하기를, "한 술단지 앞의 오늘 저녁의 모임을 어느 곳에서 가장 서로 생각나게 할까. 옛 역驛에서 밝은 달을 만났을 때와, 강남江南에 두견새 울 때이겠지〔一樽今夕會 何處最相思 古驛逢明月 江南有子規〕"라고 했다. 하응림河應臨의 시에는 말하기를, "마음 괴로운 서교西郊의 이별, 떠나는 자리에서 술 한 잔을 잡았네. 푸른 산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비낀 날에 홀로 돌아가네〔草草西郊別 臨分把一杯 靑山人不見 斜日獨歸來〕"라고 했다. 두 사람의 시가 모두 아름답다. 그런데 이순인李純仁의 것이 더욱 당시唐詩에 가깝다.

승지 이순인은 시명詩名이 있었다. 최경창崔慶昌과 서로 벗하고 있었는데 번번이 말하기를, "가운嘉運(최경창의 자字)의 시는 천편일률千篇一律하다. 그래서 옛 시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다. 그가 지은 절구에 말하기를, "저자에 사람 소리가 끊어지니, 멀고 아득하게 얼어붙은 나무가 어둡다. 도리어 거년去年의 눈 오던 때처럼, 적막하게 강촌江村에 누워 있네〔市郭人聲絕 蒼茫凍樹昏 還如去年雪 寂寞臥江村〕"라고 했다.

윤생尹生 기紀는 일찍부터 뛰어난 재주가 있어 윤장원尹長源과 사이가 좋았다. 을사년乙巳年 사림士林의 화를 만나게 되니, 거짓 미쳐서 과거에 응시하지 아니

하고 벽란도碧瀾渡에 숨어 살았으니, 그의 시에 이런 것이 있다. "사립문에 볕은 선명하고 복숭아꽃은 고요한데, 무수한 잠자리가 오르며 내리며 나네. 낮꿈을 처음 깨니 아이가 말하기를, '살찐 고사리를 광주리 가득 꺾어 왔어요' 하네(柴門日晏桃花靜 無數蜻蜓上下飛 午夢初醒童子語 折來山蕨滿筐肥)"라고 했다. 병이 위급하게 되었을 때에 붓을 잡고 쓰기를, "연하煙霞 속에 떨어진 지 30번 봄이 넘었구나. 우주를 따라 길이 가노라(落煙霞三十餘春 撫宇宙而長辭)"라고 하고 드디어 죽었다. 윤장원尹長源이 시를 지어 슬퍼하기를, "벽란도 가에 100척이나 되는 높은 누각이 있으니, 산은 제대로 우거지고, 물은 제대로 흐르네. 오직 백구가 두세 마리 있어서 바다 어귀의 가을을 날아가고 날아오곤 하건만(危樓百尺碧瀾頭 山自蒼蒼水自流 唯有白鷗三兩在 飛來飛去海門秋)"이라고 했다.

사암思庵 박순朴淳의 〈호당우후시湖堂雨後詩〉에 말하기를, "어지러운 물들은 들을 거쳐 강어귀로 들어가고,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은 아직도 난간 밖의 가지에 남았구나. 울타리에는 도롱이를 걸쳐 놓고, 처마에는 그물을 말리네. 바라보니 어촌에 석양이 가득하여라(亂流經野入江沱 滴瀝猶存檻外柯 籬掛蓑衣簷晒網 望中漁屋夕陽多)"라고 했다.

박사암朴思庵의 〈백운동시白雲洞詩〉에 말하기를, "취해 신선의 집에서 자다가 깬 뒤에 의심이 나서, 흰 구름이 골을 평평히 메꾸고 달이 잠긴 때에, 홀연히 홀로 긴 수풀 밖에 나오니, 돌길의 막대 소리를 자던 새가 알아듣네(醉睡仙家覺後疑 白雲平壑月沈時 修然獨出脩林外 石逕筇音宿鳥知)"라고 했다. 그때의 사람들이 박朴을 숙조宿鳥라고 불렀다고 한다.

박사암이 〈송광사松廣寺〉를 제목으로 한 시에 말하기를, "물방아 소리가 3경更의 달빛 속에 떨어져, 인간의 만곡수萬斛愁(썩 많은 수심愁心)를 찧어 깨뜨리네(水砧聲落三更月 舂破人間萬斛愁)"라고 했다. 그 전편全篇을 보지 못한 것이 한恨스럽

다. 다만 침砧은 옷을 두드리는 돌이다. 물방아(水碓)를 수침水砧이라고 쓴 것은 아마 적당하지 않을 것이다.

참찬參贊 이준민李俊民이 이율곡李栗谷을 위한 〈만사挽詞〉에 말하기를, "지란芝蘭[42]의 집이 비니 향기를 맡을 수 없구나. 석 잔 술을 드리고 나니 늙은 눈물이 그칠 줄 모르네. 끊어진 비, 쇠잔한 구름이 율곡 마을을 잠갔으니, 이 세상에 선 나의 미치광이를 알아줄 이 다시없네(芝蘭空室不聞香 奠罷三杯老淚長 斷雨殘雲藏栗谷 世間無復識吾狂)"라고 했다. 또 일찍이 지은 시가 있으니, "늙어 가니 공명功名이란 늙은 첩과 같구나. 이별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이별하니 도리어 슬프다(老去功名如老妾 不難離別別還憐)"라고 했다.

이율곡이 백사정白沙汀의 〈금사사金沙寺〉에서 지은 시에 말하기를, "소나무 사이로 걸음을 옮기니 낮바람이 서늘하다. 손으로 금모래를 장난치다 보니 석양이 되었네. 1,000년 전 아랑阿郞을 찾을 곳 없어라. 신기루는 모두 사라지고 바다 하늘만 길구나(松間引步午風凉 手弄金沙到夕陽 千載阿郞無處覓 蜃樓消盡海天長)"라고 했다. 아랑이라고 한 것은 술랑述郞·영랑永郞의 무리를 말한 것이다. 지금 아랑포阿郞浦라는 곳이 있는데, 즉 그들이 놀던 곳이다. 신기루는 홀로 서해만이 아니고, 영동嶺東과 같은 곳에도 모두 있다고 한다. 백사정白沙汀은 장연長淵에 있는 땅이니, 흐르는 모래가 있어서 매우 진기하다.

송강松江 정철鄭澈은 퇴계 선생이 고향으로 돌아가던 날, 뒤따라가 전송하려 하였으나 때가 늦어 버렸다. 시를 지어 말하기를, "뒤쫓아 광릉에 이르니, 신선의 배는 이미 아득히 멀리 갔네. 봄바람에 강 가득한 생각으로, 비낀 날에 홀로 정자에 오른다(追至廣陵上 仙舟已杳冥 春風滿江思 斜日獨登亭)"라고 했다. 세상

42 영지靈芝와 난초蘭草. 모두 향초香草. 일설에 지芝는 지芷의 잘못이라 함. 전轉하여 선인재자善人才子의 뜻.

에서 가작佳作이라고 말한다.

선조宣祖 초에 어떤 사람이 제천정濟川亭에 시를 써 놓기를, "일찍이 선조先朝에서 자두나무 심은 때를 보니, 꽃이 열두 번의 봄에 피겠더라. 시詩를 화표묘華表墓 앞에 세우는 망주석望柱石 따위 천년의 기둥에 쓰고, 눈물을 청산靑山의 한 움큼 티끌에 뿌린다. 바람 부는 언덕의 새벽 종소리는 신륵사이고, 연기 어린 모래밭에 늦은 피리 소리는 광릉의 나루터. 맑은 가을에 돛대를 두드리며 여강을 가노니, 누樓 위의 어떤 사람이 동빈을 알겠는가〔曾見先朝種李辰 花開一十二回春 詩題華表千年柱 淚灑靑山一掬塵 風岸曉鐘神勒寺 烟沙晩笛廣陵津 淸秋叩枻驪江去 樓上何人識洞賓〕"라고 했다. 호사자好事者들은 진짜 신선이 지은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한다. 뒷날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니 선宣·정靖 두 능陵을 사람들이 "청산일국진靑山一掬塵"이라고 한 말이 징험한 것이라고 했다.

고산高山 이굉李宏은 소년 때 재주 있다는 이름이 있었다. 하루는 벗을 데리고 세심대洗心臺에 놀러 갔더니 그 주인 이향성李享誠이 병이라고 칭탁하고 나와 보지 않았다. 공公이 벽 위에 시를 써 놓기를, "마루 앞의 푸른 대나무도 속됨을 고치기 어려우며, 대臺 아래의 맑은 냇물도 마음을 씻지 못하네〔堂前綠竹難醫俗 臺下淸流未洗心〕"라고 했다.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전해 퍼뜨리니, 향성享誠이 그것을 병 되게 여겨 드디어 성대한 술자리를 마련하고 공을 맞아다가 전에 지은 시를 고치기를 청하니, 공이 붓에 먹물을 찍어가지고 고치기를, "마루 앞의 푸른 대나무는 진정 속된 것을 고치고, 대 아래의 맑은 시냇물은 마음을 씻을 수 있구나〔堂前綠竹眞醫俗 臺下淸流可洗心〕"라고 했다. 또 용문산龍門山에 놀러 가서 지은 한 연구聯句에는, "북쪽을 바라보니 삼각산은 어린애 같고, 동쪽으로 임하니 오대산은 옷의 뒷자락 같구나〔北望孩三角 東臨裔五臺〕"라고 했다.

강사문姜斯文 극성克誠이 새 역서曆書를 읊은 시에서 말하기를, "천시天時와 인

사人事가 너무나 단정端正함이 없으니, 새 역서를 어찌 견뎌 병후病後에 볼 수 있는가. 알지 못하겠구나, 금년 300일을. 바람과 비는 몇 번이고, 슬프고 기쁜 것은 몇 번일까(天時人事太無端 新曆那堪病後看 不識今年三百日 幾番風雨幾悲歡)"라고 했다.

강극성姜克誠이 홍문수찬弘文修撰에서 파면되어 한가하게 있을 때에 지은 시에서 말하기를, "조정朝廷의 옷을 모두 전당 잡혀 술집에서 잠자며, 하사하신 말을 팔아 장차 두어 이랑 밭을 마련하려 하네. 진중한 나라 은혜를 오히려 갚지 못하여, 꿈에 잔월殘月에 잠기면서 홀로 하늘에 조회朝會하네(朝衣典盡酒家眠 賜馬將謀數頃田 珍重國恩猶未報 夢和殘月獨朝天)"라고 했다. 명묘明廟가 듣고 칭탄稱歎하여 특명으로 거두어 서용敍用했다. 대체로 특이한 처우處遇인 것이다.

이약포李藥圃 해수海壽의 청심루淸心樓 제영題詠의 운韻을 화답한 시에 말하기를, "여강驪江의 가을 물이 거울처럼 맑은데, 강 위의 청산靑山들은 층층으로 서 있네. 외로운 따오기와 떨어지는 노을은 진정 색칠한 그림이로구나. 그러나 기러기 소리와 갈매기의 꿈은 누가 그림 그릴 것인가(驪江秋水鏡澄澄 江上靑山面面層 孤鶩落霞眞罨畫 雁聲鷗夢畫誰能)"라고 했다. 한때 가작佳作이라고 했다. 그러나 화畫라는 글자를 거듭 사용한 것은 온당하지 않다.

신 감사辛監司 응시應時는 시를 잘 짓는다는 명성이 있었다. 일찍이 고성高城에서 시를 짓기를, "북쪽을 바라보니 산은 다 뼈뿐이고, 동쪽을 굽어보니 바다엔 조수潮水의 들고 남이 없네(北望山皆骨 東臨海不潮)"라고 했다. 〈청천시菁川詩〉에는 말하기를, "시내 다리에는 누운 돌이 많고, 산중의 술집은 반은 단풍에 의지하였네(溪橋多臥石 山店半依楓)"라고 했다. 병랑兵郎이 되었을 때에 지은 시에

는, "때가 태평하니 군국軍國에 일이 없어서, 기생騎省[43]의 낭관郎官이 밤에 글을 읽고 있네〔時淸軍國渾無事 騎省郎官夜讀書〕"라고 했다. 또 선조宣祖가 상중喪中에 있을 때에 왕명王命에 의하여 지은 〈두견시杜鵑詩〉에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지금 애통한 가운데 계시니, 상림上林에 가까이 와서 울지 말라〔吾王方在疚 莫近上林啼〕"라고 했다. 순회세자順懷世子의 〈만사挽詞〉에는 말하기를, "금화는 이미 마음 슬프게 하는 땅이 되었건만, 궁중의 누각漏刻은 오히려 세자가 부왕께 새벽 문안드리던 시각을 알리고 있네〔金華已作傷心地 玉漏猶傳問寢晨〕"라고 했다. 세상에서 잘 지었다고 한다.

최 사문崔斯文 경창慶昌이 북경에 갔을 때, 중국의 총병摠兵 양조楊照는 명장인데, 그 사당이 영원위寧遠衛에 있었다. 공이 시를 짓기를, "운중雲中에 날은 저물고 불은 산을 비치니, 선우單于(흉노의 왕의 칭호)가 이미 녹두관에 가까이 왔구나. 장군이 홀로 천인을 거느리고 가서 밤에 요하를 건너서 싸웠으나 돌아오지 않았네〔日暮雲中火照山 單于已近鹿頭關 將軍獨領千人去 夜渡遼河戰未還〕"라고 했다. 가작佳作이다. 그러나 다만 녹두관鹿頭關은 요遼가 아니고 계薊 땅이다. 또 운중雲中·요하遼河도 모두 지명이니, 중첩된 것 같다.
백광홍白光弘의 옛 애기愛妓에게 준 시에는 말하기를, "비단 같은 연기와 노을은 의연히 옛 빛이고, 능라 비단 같은 꽃다운 풀은 지금도 봄이로구나. 선랑仙郎이 가신 뒤로 소식이 없어, 한 가락 《관서별곡關西別曲》에 눈물은 수건을 적시네〔錦繡烟霞依舊色 綾羅芳草至今春 仙郎去後無消息 一曲關西淚滿巾〕"라고 했다. 백광홍이 일찍이 평안평사平安評事로 있다가 죽었는데, 그가 지은 《관서별곡》은 지금도 극단劇團에서 전해 부르고 있어서 여러 기녀들이 듣기만 하면 곧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금수연하錦繡烟霞니, 능라방초綾羅芳草니 하는 말은 모두 《관서별곡》 속에 나오는 말이다.

43 위魏나라 때 둔 관아官衙. 송宋·제齊·북주北周 때에는 집서성集書省이라 하였는데 수隋나라 때 폐지하였음. 산기성散騎省이라고도 한다.

성 사문成斯文 아무개가 양주목사楊州牧使가 되어 매화梅花라는 창기娼妓를 두었는데, 빠지고 매혹되어 아참衙參 벼슬아치가 조석으로 조정에 모이는 일을 폐하니, 최경창崔慶昌이 시를 지어 보내기를, “관아官衙의 다리에 눈이 개니 새벽이 매우 차갑구나. 아래 아전이 이른 아침에 아참衙參에 나오네. 사군使君이 항상 늦게 나오는 것을 괴이쩍게 여기지 말라. 취해서 동각東閣을 열고 매화를 완상하고 있으니〔官橋雪霽曉寒多 小吏門前候早衙 莫怪使君常晏出 醉開東閣賞梅花[44]〕”라고 했다. 대체로 하곤何遜[45]의 고사를 이용하여 나무란 것이다.

교수敎授 정작鄭碏의 시에 이런 글귀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중양절重陽節을 가장 좋아하지만, 반드시 중양이 흥興을 더 깊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국화를 보며 술잔을 기울인다면, 구추九秋 어느 날인들 중양이 아니랴〔世人最愛重陽節 未必重陽引興長 若對黃花傾白酒 九秋無日不重陽〕”라고 했다. 또 산사山寺에 유람하면서 지은 시의 한 연구聯句에는 말하기를, “산은 흰 구름 저편에서 그림처럼 보이고, 길은 사원寺院의 홍엽紅葉 진 나무 속으로 들어가네〔山如圖畫白雲外 路入招提紅樹中〕”라고 했다.

하응림河應臨의 시에 말하기를, “아름다운 계집아이 나이는 13살, 거문고 타는 두 손이 곱구나. 소리만 듣고 낯은 보지 못하느니, 소리는 도화주렴 속에서 나네〔佳兒年十三 彈琴雙手纖 聞聲不見面 聲出桃花簾〕”라고 했다. 유영길柳永吉의 시에는 말하기를, “녹양綠陽으로 그늘진 길가 집은 누구의 집인가, 한 창문의 구슬발이 두 처녀를 가렸네. 동풍이 불어 고운 곡의 가락이 새어 나와서, 공연히

44 양梁나라의 하손何遜이 동각東閣(동쪽의 작은 문)을 열고 문인들을 초대하여 매화梅花를 구경한 고사. 이 시는 양주목사 성 모成某가 창녀娼女 매화에 침혹하여 아참衙參을 폐하므로 하손何遜의 고사를 인용하여 풍자한 것이다.

45 양梁나라 사람이니, 자는 중언仲言이다. 문장文章을 잘하여 유효작劉孝綽과 병칭竝稱되어 세상에서 하류何劉라고 일컬었다. 일찍이 양주법조楊州法曹가 되어서 동각東閣을 열고 문인들을 초청하여 매화를 관상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길가는 나그네의 마음을 괴롭게 하네〔臨道誰家蔭綠楊 一窓珠箔護雙娘 東風吹漏孤雲曲 枉使行人也斷腸〕”라고 했다. 이 두 작품은 서로 비슷하다. 그러나 하응림河應臨의 시가 더 우수하다. 고운곡孤雲曲은 아마 가야금을 말한 것이리라.

정지승鄭之升의 시에 말하기를, “풀은 왕손王孫의 한恨에 들어오고, 꽃은 두견새의 슬픔을 더한다. 물가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목란주木蘭舟를 움직이네〔草入王孫恨 花添杜宇愁 汀洲人不見 風動木蘭舟〕”라고 했다. 《당시집唐詩集》 속에 섞어 써서 보이니, 최경창 등 여러 사람들이 모두 구별해 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자세히 음미하여 보니, 당시唐詩와 같지 않은 데가 있다. 또 그가 일찍이 경구警句를 지은 것이 있으니, “남쪽 집은 가난하나 술이 있어서 아침의 취한 기분이 흐뭇하고, 북쪽 집은 부유함이 하늘을 지킬 것 같아서 밤에 피리 소리가 높구나〔南貧置酒朝醺足 北富熏天夜笛高〕”라고 했다.

정지승鄭之升이 영남嶺南을 유람하면서 다만 한 연구聯句만을 지었으니, “열 집쯤 되는 작은 인동仁同 고을이고, 봉우리가 천이나 되는 지리산이로다〔十室仁同縣 千峯智異山〕”라고 했다. 다시 한 구를 지으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유영길柳永吉이 절구 찧는 여인을 읊은 시에 말하기를, “옥공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가냘픈 팔이 가볍게 움직인다. 때로는 비단 적삼이 들려 눈 같은 살결이 드러나네. 달의 궁전에서 장생약長生藥을 찧던 일에 익숙하여, 인간에 귀양와선 그 수법 이루었네〔玉杵高低弱臂輕 羅衫時擧雪膚呈 蟾宮慣搗長生藥 謫下人間手法成〕”라고 했다.

선왕조先王朝에서 문신文臣들에게 〈남훈금南熏琴〉이라는 제목으로 칠언배율七言排律 20운韻을 시험하였는데, 윤탁연尹卓然이 수위首位의 성적을 얻었다. 그

경구警句에 말하기를, “본래부터 옛 음악이 오히려 지금의 음악인 것을 안다. 〈훈풍곡薰風曲〉이 순舜임금의 풍화風化만을 읊은 것이라고 말하지 마오〔從知古樂猶今樂 莫道薰風是舜風〕”라고 하여, 전적으로 《시학대성詩學大成》에 있는 대구對句를 그대로 본떴다. 다만 “종지從知”와 “막도莫道” 네 글자만을 고쳤을 뿐이다.

임자순林子順의 시에 말하기를, “세상에는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어서 소는 타고 말에는 짐을 싣고 간다. 쓰기를 이미 그 재질에 어긋나게 하고는 채찍질을 조금도 용서함이 없네. 태행산太行山 같은 험한 길과 청니판淸泥板 같은 수렁에 이르면 말은 거꾸러지고 소는 엎드러지는데 장차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 슬프다, 슬프다. 건장한 소와 좋은 말이 일시에 피로하였으니 누가 짐을 지고 누가 말을 부릴 것인가〔世有病心人 騎牛馬載去 用之旣違材 鞭策不少恕 太行之路靑泥坂 馬蹶牛僨將何助 吁嗟吁嗟 健牛良馬一時疲 誰爲負也誰爲馭〕”라고 했다. 이것은 배우俳優의 말에 가깝지만 뜻은 좋다.

임자순의 〈방우시訪友詩〉에 말하기를, “나무꾼 아이와 늙은 농부에게 가며 묻고, 흐르는 물에 사립문이 있는 곳이면 곳곳마다 그대 집인가 의심하네〔樵童野老行行問 流水柴門處處疑〕”라고 했다. 향렴체香奩體(미인을 읊은) 시詩에는 말하기를, “15살 월계越溪의 계집아이, 남이 부끄러워 말없이 이별하고, 돌아와 안문을 닫더니, 배꽃에 비친 달을 향하여 울고 있네〔十五越溪女 羞人無語別 歸來掩洞房 泣向梨花月〕”라고 했다. 산사山寺에서 지은 시에는, “밤중에 중이 숲에서 자니, 겹친 구름이 초의草衣(속세를 떠나서 숨어 사는 사람의 옷)을 적시네. 느직해서야 바위 문을 여니, 깃들인 새가 비로소 놀라 날아가네〔夜半林僧宿 重雲濕草衣 巖扉開晩日 棲鳥始驚飛〕”라고 했다. 또 경구警句가 있으니, “나뭇잎 떨어지니 바람은 말이 없고, 강물이 흐르니 달에 소리가 있네〔木落風無語 江流月有聲〕”라고 했다.

임제林悌의 시에 말하기를, “남변南邊 장사의 칼에 티끌이 나네, 손수 〈음부경

병서陰符經兵書〉의 이름을 읽음이 30년인데. 포단에 누워 잠자고 일어나 술을 찾으니 촌의 중이 다만 그를 심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네〔南邊壯士劒生塵 手閱陰符三十春 臥睡蒲團起索酒 野僧只道尋常人〕"라고 했다. 또, "오랑캐가 일찍이 20주를 엿보기에, 그때 말을 달려 공을 세우고 봉후封侯가 되었더니, 지금은 먼 변방에 연기와 티끌이 고요하여, 장사壯士가 한가하게 옛 역驛의 다락에 잠자고 있네〔胡虜曾窺二十州 當時躍馬取封侯 如今絕塞烟塵靜 壯士閑眠古驛樓〕"라고 했다. 그의 호기豪氣를 볼 수 있다. 당시當時라는 말을 본래는 장군이라고 쓰고 있었다.

판서判書 이후백李後白이 함경감사가 되어 정사政事하는 것이 청렴하고 밝으며, 힘써 묵은 폐단을 제거하니, 온 도내道內가 칭송했다. 그러나 조세租稅를 감면하여 주는 일이 너무 지나쳐서, 각 고을의 재정財政이 곤핍하게 되고, 따라서 정식 부세賦稅 이외에 억지로 받아들이게 되니, 백성들이 괴로워하게 되었다. 임제가 시를 지어 말하기를, "난초는 서리바람에 꺾이고 옥은 티끌에 싸였구나. 한때의 맑은 덕이 관리들을 감동시켰건만 가엾다, 맥貊에서 도를 이어가기가 마침내 어렵게 되었으니. 상국相國[46]이 백성의 병을 고쳐준다는 일이 도리어 백성을 병 되게 하네〔蕙折霜風玉委塵 一時淸德動簪紳 可憐貊道終難繼 相國醫民是病民〕"라고 했다.

황찬黃璨이 경성판관鏡城判官으로 가니, 임자순이 병중病中에서 시를 지어 송별하기를, "원수대元帥臺 앞이 바닷가 하늘에 닿았는데 일찍이, 글과 칼을 갖고 융단戎壇(대장의 자리)에서 취하였네. 음산陰山엔 8월이면 항상 눈이 날려, 때로는 긴 바람을 따라 춤추는 자리에 떨어지기도 하겠네〔元帥臺前海接天 曾將書劒醉戎壇 陰山八月恒飛雪 時逐長風落舞筵〕"라고 했다. 그 뒤 얼마 안 되어 죽었다.

46 백관百官의 우두머리. 진시황秦始皇이 여불위呂不韋를 임용한 데서 시작됨. 처음에는 승상보다 높았으나 후세에는 승상도 상국相國이라 일컬어 마침내 재상宰相의 통칭通稱이 됨.

허봉許篈이 진상인眞上人에게 준 시에 말하기를, “동풍이 새벽에 들어와 꽃가지 서늘하고, 옥관玉琯(옥으로 만든 피리의 일종) 소리 처음 옮기니 갠 날의 낮이 길구나. 잠깐 얼음샘의 그윽하고 목 메인 듯한 소리를 듣고, 수심에 잠겨 구슬주렴을 드리우니 그림자가 영롱하다〔東風曉入花枝冷 玉琯初移晴晝永 乍聽氷泉幽咽聲 愁垂珠箔玲瓏影〕”라고 했다. 또, “난혜蘭蕙(향기로운 풀)의 장막 쓸쓸하고, 묵은 향기는 짙은데, 동천洞天 속의 선인仙人을 어떻게 만날 수 있으랴. 연기는 학이 멍에 한 삼주수三珠樹에 잠기고, 달은 구슬에 비치는데, 5경更의 종소리 들리네〔蕙帷惆悵宿香濃 洞裏仙人那可逢 烟沈鶴駕三珠樹 月照瓊樓五夜鐘〕”라고 했다. 또, “처마의 풍경 소리 쟁그랑쟁그랑 옥을 깨뜨리는 듯 차갑고, 왕손王孫의 꽃다운 풀은 우거져 푸르구나. 소상瀟湘(강의 이름. 소수瀟水와 상수湘水)으로 돌아가는 벽운 스님이여, 나의 〈고산류수곡高山流水曲〉에 화답하세요〔簷鐸丁丁碎寒玉 王孫芳草萋萋綠 瀟湘歸去碧雲師 和我高山流水曲〕”라고 했다. 이 시는 규방閨房의 정을 노래하는 염체艶體이다. 이런 시로써 중에게 지어 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달李達의 시에, “샘 소리 바람에 떨어지니 가을산은 비었는데, 돌문에 달은 성긴 종소리 뒤에 뜨네. 도인道人이 《황정경黃庭經》을 읽고 나서, 밤에 천단天壇(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단)을 쓸고 북두성을 예배하는구나〔泉響風落秋山空 石門月出疎鐘後 道人讀罷黃庭經 夜掃天壇拜北斗〕”라고 했다. 최경창의 시에는, “한밤중에 요단瑤壇(신선이 사는 곳의 흰 구름)을 쓸고, 분향하며 멀리 옥신군玉宸君(천제天帝)을 예배하니 달 속의 절하는 그림자를 보는 이 없는데, 구슬나무가 천 겹으로 궁전 문을 잠갔네〔午夜瑤壇掃白雲 焚香遙禮玉宸君 月中拜影無人見 琪樹千重鎖殿門〕”라고 했다.
이 두 작품은 모두 가작佳作이나 최경창의 시 끝구에 방운旁韻을 단 것이 아깝다.

이달李達이 일찍이 호남湖南에 객客으로서 유람하고 다닐 때, 어떤 상인商人이

비단을 팔고 있었다. 그가 좋아하는 여인이 그것을 갖고자 하나 이달 자신에게 치러줄 돈이 없었다. 드디어 시를 지어 고을의 수령 최경창에게 올려 말하기를, “오랑캐 장수가 강남江南의 시장에서 비단을 파는데, 아침 해가 그것을 비치니 붉은 연기가 나는 듯하다. 아름다운 여인이 치마와 띠를 만들고 싶어 하나, 손으로 화장대의 서랍을 더듬어 보니 값을 치를 돈이 없다네〔商胡賣錦江南市 朝日照之生紫烟 佳人正欲作裙帶 手探粧奩無直錢〕”라고 했다. 최경창이 크게 즐거워하여 그 값을 후하게 주었다. 이달李達이 이 일로 인하여 유명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시는 세상에서 가작佳作으로 칭찬한다. 그러나 상商과 호胡 두 글자는 온당하지 않다.

이달李達이 최경창崔慶昌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영월寧越에 놀러 갔을 때에, 〈노산묘魯山墓〉라는 같은 제목으로 시를 짓게 되었는데, 이달이 먼저 한 글귀를 지어 말하기를, “동풍에 촉혼蜀魂(두견새의 딴 이름)이 괴롭고, 저무는 해에 노릉魯陵이 차갑구나〔東風蜀魂苦 西日魯陵寒〕”라고 하니 여러 사람들이 드디어 붓을 놓고 감히 쓰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 그 전편全篇을 보니 오직 이 글귀만이 아름답다.

이달의 〈사시사四時詞〉에 말하기를, “이슬이 장미의 횃대에 젖더니, 향기가 두관화에 어리네. 은상銀床에 여름날이 길고, 금정金井에 뜬 참외를 찾는다〔露濕薔薇架 香凝荳蔻花 銀床夏日永 金井索浮瓜〕”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두구荳蔻의 뾰족한 머리가 2월 초에 나온다〔荳蔻梢頭二月初〕”라고 했다. 두관화는 봄 경치이다. 아마 이달이 깊이 상고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한 것이니 웃을 만하다.

이한음李漢陰이 이 제독李提督(명나라 이여송李如松을 가리킴)의 접반사接伴使가 되었을 때에, 왜적이 거짓으로 화친和親하자고 하는 제의를 듣고 명나라의 장수가 머뭇거리고 의심하여 일의 기틀을 그르치게 되었다. 하루는 제독이 적벽

赤壁의 그림을 내보이니, 한음이 시를 지어서 말하기를, "이기고 지는 것은 한 판의 바둑처럼 분명한 것, 병가兵家에서 가장 꺼리는 것은 머뭇거리고 의심하는 일이다. 모름지기 알아야 할 것이다. 적벽 싸움에서 무전無前의 큰 공을 이룬 것은, 다만 장군이 창으로 책상을 칠 때에 있게 된 것임을(勝敗分明一局碁 兵家最忌是遲疑 須知赤壁無前績 只在將軍斫案時)"이라고 했다. 말에 지간知諫과 풍자가 있으므로 명나라 장수가 머리를 앞뒤로 끄덕였다고 한다.

태헌苔軒 고경명高敬明이 〈부여회고시扶餘懷古詩〉에 말하기를, "그대에게 부탁하노니 온가溫家의 일일랑 말하지 마오. 옛일을 조상하여 봄을 슬퍼하면 머리털 희어지기 쉬울 것을(憑君莫話溫家事 弔古傷春易白頭)"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동국사東國史》에 말하기를, "백제百濟의 시조 고온조高溫祚"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세계世系가 부여에서 나왔으므로"라고 했다. 여기에서 온溫을 성으로 하여 쓴 것은 잘못이다.

송익필宋翼弼이 일찍이 탕춘대蕩春臺에 놀면서 지은 시에 말하기를, "짧은 멧부리는 잔 속의 그림이고, 긴 바람은 소매 속의 가을이로다(短嶽杯中畫 長風袖裡秋)"라고 했다.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옥에 갇혔을 때에 지은 시에는 말하기를, "일생을 몸은 고인古人의 예를 지켜 왔는데, 사흘 동안이나 머리에 군자의 갓이 없구나. 숲의 꽃이 떨어져 다한 산 아래의 나의 집에, 새벽하늘에 돌아가는 꿈이 물과 구름 사이를 헤매네(一生身服古人禮 三日頭無君子冠 落盡林花山下宅 曉天歸夢水雲間)"라고 했다.

양포楊浦 최전崔澱은 소년 시절에 뛰어난 재주가 있었다. 영동嶺東에 유람한 시가 있는데, "봉호蓬壺(신선이 산다고 하는 성. 모양이 병과 같음)에 한 번 들어가니 3,000년이 되었네. 은해銀海는 아득히 멀고, 물은 맑고 얕구나. 난생鸞笙(피리의 이름)을 불며 오늘 홀로 돌아오니 벽도화 아래에 보는 사람 없구나(蓬壺一入三千

年 銀海茫茫水淸淺 鸞笙今日獨歸來 碧桃花下無人見〕”라고 했다. 나이 약관弱冠(20세 전후)에 일찍 죽었다.

영서역迎曙驛에 어떤 사람이 시를 써 놓기를, “꽃다운 풀에 길이 동쪽 서쪽으로 뚫렸고, 보내고 맞이함은 아침과 또 저녁이로다. 가고 오는 사람 그침이 없으나, 그 사람들 반半은 이 가운데서 늙는다네〔芳草路東西 送迎朝又暮 往來人不休 半是此中老〕”라고 했다. 아마 풍자함이 있을 것이다.

임진왜변壬辰倭變 때에 신생로申生櫓가 달아나 북도北道에 숨었더니, 명묘明廟의 제삿날을 당하여 시를 지어 말하기를, “선왕께서 이날 여러 신하를 버리고 가실 때에, 마지막 명령으로 간절하게 성인聖人(임금을 가리킨 말)을 부탁하셨습니다. 26년 동안 향화香火가 끊어지니, 흰 머리로 울부짖는 것은 오직 남긴 백성들뿐입니다〔先王此日棄群臣 末命丁寧托聖人 二十六年香火絶 白頭號哭只遺民〕”라고 했다.

해평海平 윤근수尹根壽가, 내가 북경에 갈 때에 지어준 시에 말하기를, “전대專對[47]하는 것은 공公의 능숙한 일이고, 시를 좋아하기로는 일찍이 명성이 있었다. 맑은 글은 아로새기고 꾸미는 것을 사절하고, 아름다운 글귀는 날아가는 듯 소리 내 우는 듯하다. 대력체大曆體[48]의 새로운 격조에 놀라고, 높은 표격標格은 무거운 이름을 쳐다보게 한다. 도리어 이별하는 날에 노종老鍾의 평론을 본받았네〔專對公能事 耽詩夙有聲 淸文謝雕飾 佳句近飛鳴 大曆驚新調 高標仰重名 還從離別日 却效老鍾評〕”라고 했다. 노종老鍾을 알지 못하는 이가 많다. 대체로 종영鍾嶸(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양梁의 시인詩人)은 소제蕭齊 때의 사람으로서 시평詩評이 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47 전단專斷으로 응대함. 독단獨斷으로 자유로이 응대하는 것.

48 시체詩體의 한 가지. 당唐나라 대종代宗의 대역년간大曆年間에 명성을 떨치던 10인의 시풍詩風.

우홍적禹弘績은 나와 같은 연배로, 진사進士에 장원했고, 시재詩才가 있었다. 그의 증별시贈別詩에 말하기를,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영남의 구름을 바라보고, 이별의 수심은 강 언덕의 풀을 슬퍼하네. 곧 흥이 다한 때를 기다려서, 비로소 그대 떠나는 길에 오르게 하리라(歸思嶺南雲 離愁江岸草 直待興盡時 許君方上道)"라고 했다. 이오봉李五峯이 매우 칭찬했다.

정언눌鄭彦訥은 경사經史에 널리 능통하였으나 불운하여서 급제하지 못하고 서울에서 걸식乞食했다. 그의 시에, "술 먹는 중에는 천 날도 적고, 난리 뒤에는 한 몸도 많구나(飮中千日少 亂後一身多)"라고 했다. 또, "기괴하게 생긴 돌은 밤에 범이 될 수 있고, 외로운 소나무는 가을에 거문고가 되고자 한다(怪石夜能虎 孤松秋欲絃)"라고 했다. 그의 크게 고생함이 이와 같았다.

첨정僉正 이춘영李春英은 시문詩文에 힘을 썼으나 숭상하는 바가 높지 않아서 세상에 전할 만한 것이 적다. 경인년庚寅年에 내가 황해도사黃海都事로 가게 되었을 때, 나에게 준 증별시贈別詩에 말하기를, "부용당이 싸늘하니 잔설이 남아 있고, 고죽성이 비었으니 다만 저녁연기뿐이로구나(芙蓉堂冷餘殘雪 孤竹城空只暮烟)"라고 했다. 이것은 회고懷古의 시이지, 증별시로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런데 임진왜란에 대가大駕(임금의 수레)에 수행하여 해주海州에 머물게 되었는데, 눈에 보이는 경치가 완연히 이 시 속의 말과 같았다. 이상한 일이다.

신현옹申玄翁은 소년 시절부터 문장을 닦아서 문득 스스로 일가一家를 이루었으므로 남들이 감히 흠잡지 못했다. 일찍이 나에게 준 증별시에 말하기를, "세상만사 마침내 무엇이 있는가. 해내海內(사해四海의 안이라는 뜻으로, 국내國內 또는 천하天下를 이름) 100년 사이에 오직 우리 무리로구나. 구정九鼎(우왕禹王 때 주조鑄造한 솥. 하夏 · 은殷 · 주周 삼대三代로 전해오는 보배)이 어찌 일찍이 질그릇 가마와

다를 것이랴, 태산泰山도 본래는 스스로 추호秋毫와 같은 것. 새 볕이 가냘프니 봄 경치는 연약하고, 멀리멀리 가는 손은 행색이 괴롭구나. 손을 잡고 문에 나오니 배倍나 마음 섭섭하여라. 망망한 한강漢江 물에 봄 물결만 높다〔世間萬事竟奚有 海內百年唯我曹 九鼎何曾異瓦釜 泰山本自同秋毫 新陽曖曖韶華嫩 遠客悠悠行色勞 握手出門倍惆悵 茫茫漢水春波高〕"라고 했다. 그의 시가 또한 노성老成하고 전중典重(언행言行이 법도에 맞고 점잖음)함이 이와 같으니,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다.

선왕조先王朝에 경흥慶興의 녹둔도鹿屯島에 백성을 모집하여 주둔하면서 농사짓게 하였더니, 오랑캐의 큰 부대가 침입하여 와서 거의 모두 죽음을 당하니, 임금이 슬퍼하여, "녹둔도에서 싸우다 죽은 장사를 애도한다〔悼鹿屯島戰亡將兵〕"라는 어제御題를 내어 가까이 모시는 신하들에게 율시律詩를 짓게 했다. 한림翰林인 유천柳川 한준겸韓浚謙이 수위首位를 차지했다. 그 끝구에 말하기를, "변방의 일은 원래 사실을 모두 아뢰기 어려운 것이니, 구중궁궐九重宮闕에서 어찌 이 일 속의 원통한 사정을 모두 알 수 있겠습니까〔邊奏由來難盡實 九重寧悉此間寃〕"라고 했다. 말이 약간 풍간諷諫하는 데가 있다. 임금에게 고하는 글의 바른 체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의 〈회양판상시淮陽板上詩〉에 말하기를, "하늘은 거듭된 관새의 험한 것을 옹호하고, 강물은 2개의 재를 길게 서리고 있다. 구름과 연기는 신선굴을 보호하고, 해와 달은 부상扶桑이 가깝다. 가을에는 생선회가 가늘고, 봄 술에는 백엽栢葉이 향기롭다. 임기가 차서 혹여나 대신하기를 허락한다면, 나는 회양의 수령 자리를 박하다고 하지 않겠네〔天擁重開險 江蟠二嶺長 雲烟護仙窟 日月近扶桑 秋膾銀鱗細 春醪栢葉香 瓜時倘許代 吾不薄淮陽〕"라고 했다. 을사년에 홍수가 나서 온 고을이 물속에 잠기게 되었다. 시판詩板이 떠내려가서 강화江華 땅에 이른 것을 어부가 주워 와서 도로 벽 위에 걸게 했다. 내가 원운元韻에 차운次韻하여 말하기를, "을사년乙巳年의 재앙은 예전에 없던 것, 연성連城

에 수해가 많으니, 아득히 넓은 물속에 사람들은 물고기로 변하고, 잠깐 사이에 상전桑田은 바다가 되었네. 하늘은 시명詩名이 중한 것을 위하고, 신神은 아름다운 글귀의 향기로움을 아꼈네. 침몰된 저 비석은 어떤 것이기에 신고辛苦하는 양양襄陽이 우습구나〔乙巳災無古 連城水害長 蒼茫人化鼈 頃刻海成桑 天爲詩名重 神慳寶唾香 沈碑彼何者 辛苦笑襄陽〕"라고 했다. 연성連城은 즉 회양淮陽의 옛 이름이다. 한때 세상에서 전해 외면서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사문斯文 이원손李遠孫이 은계역銀溪驛에서 지은 시의 한 연구에 말하기를, "산협이 묶은 울타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개와 닭이 적고, 문이 긴 길에 가까이 있으니 말과 소가 피로하다〔峽擁束籬鷄犬少 門臨長道馬牛殘〕"라고 했다. 나도 회양에서 또한 말하기를, "바위 위의 거친 땅을 개간하여 평지가 적고, 물가의 울타리들은 두어 채 가난한 집이로구나〔巖頂菑畬平地少 水邊籬落數家貧〕"라고 했다. 대체로 그곳은 땅이 험하고 좁아서 산을 개간하여 먹으며, 풍속은 우물을 파지 않고 물가에서 산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권필權韠이 정철鄭澈의 무덤을 지나다가 지은 시에 말하기를, "빈산에 나뭇잎은 비처럼 소소하게 떨어지는데, 상국의 풍류는 이미 적막하구려. 슬프다, 술 한 잔 다시 드리기 어렵건만, 옛날의 노래 한 곡조는 지금도 전하네〔空山落木雨蕭蕭 相國風流已寂寥 悃悵一杯難更進 昔年歌曲卽今朝〕"라고 했다. 대체로 정철鄭澈이 평일에 지은 〈장진주사將進酒詞〉라는 가곡이 있어서 세상에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정문부鄭文孚가 길주목사吉州牧使로서 회양淮陽을 지나가는데, 마침 정월 초하룻날을 만나 일행이 굶주리고 추워서 외상술을 먹으려고 하니, 주인이 듣지 않았다.

이에 시를 지어 말하기를, "회양이 박한 것이 아니라 인정이 박하고, 철령이

높은 것이 아니라 술값이 높구나〔淮陽不薄人情薄 鐵嶺非高酒價高〕”라고 하였다.

최표崔豹의 《고금주古今註》에 말하기를, “옛사람들은 서로 이별할 때에 문무文無를 주었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문무文無는 당귀초當歸草이다. 내가 담양潭陽 이안눌李安訥을 보내는 시에 말하기를, “이별을 아끼는 마당에 장차 무엇을 가져다줄까. 문무초는 아직 자라지 않았으니〔惜別將何贈 文無草未長〕”라고 하였더니, 보는 사람들 중에서 이오봉李五峯·차오산車五山 같은 여러 사람들이 모두 그 출처를 몰랐다고 했다. 웃을 만한 일이다.

내가 홍양洪陽의 수령으로 있을 때 차오산車五山이 호서湖西에서 호탕하게 놀면서 나에게 시 수백 편篇을 보내주었다. 그중에는 이런 글귀들이 있었다. “푸른 하늘에 학은 차가운데 구름은 오색이고, 긴 바람에 고래가 움직이니 바다에는 물결이 층으로 일어나네〔碧落鶴寒雲五色 長風鯨動海層瀾〕”라고 했다. 또, “학이 날아가는 하늘의 옛날에는 거문고 마음이 깨끗하고, 고래가 움직이는 바다의 층 짓는 물결처럼 필력筆力을 구사驅使한다〔鶴天古月琴心淨 鯨海層瀾筆力驅〕”라고도 했다. 또, “학이 푸른 공중을 날아가니 푸른 구름이 넓고, 고래가 층을 이룬 물결을 희롱하니 큰 바다가 길다〔鶴飛碧落靑雲闊 鯨戱層波長海長〕”라고도 했다. 또, “고래는 옥 같은 바다의 천 층 물결을 찌르고, 학은 금빛 하늘의 만 겹의 구름을 뚫는다〔鯨衝玉海千層浪 鶴透金天萬疊雲〕”라고도 했다. 또, “학이 푸른 하늘에 이르니, 구름이 만 리이고, 고래가 창해를 뒤치니 눈이 천 층이로다〔鶴到碧天雲萬里 鯨翻滄海雪千層〕”라고도 했다.
이러한 글귀들은 다 같은 뜻으로서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못한가를 알 수 없다.

종실宗室 석양정石陽正 정霆이 고성高城에서 시를 짓기를, “1,000리에 손이 와서 삼일포三日浦에 노닐고, 100년에 사람이 사선정四仙亭에 의지해 섰네〔千里客

遊三日浦 百年人倚四仙亭〕"라고 했다. 또 박사문朴斯文 경신慶新의 〈구월산시九月山詩〉에는, "산 이름이 구월九月이니 가을에 구경하는 것이 알맞고, 절이 심원深源(심원사深源寺는 절의 이름이나, 근원이 깊은 곳에 있다는 뜻이다)에 있으니 며칠에 찾을까〔山名九月宜秋賞 寺在深源幾日尋〕"라고 했다. 이것이 더 좋은 것 같다.

나는 일찍이 병을 앓느라고 문학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런데 한두 개의 졸렬한 시구詩句가 남들에게 칭송되고 있다. 〈한거시閒居詩〉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깨서도 주광酒狂이 있는데 술을 얻으니 말하기가 두렵고, 하급 관직에 숨어 있으니 조정에서의 자취 또한 기이하다〔醒狂[49]得酒言堪柏 吏隱[50]居朝迹太奇〕."

"사람은 물과 구름이 가로막혔는데 가을은 만 리이고, 달은 일천 집에서 다듬이질 하는 밤에 걸렸구나〔人隔水雲秋萬里 月懸砧杵夜千家〕."

"왕존이 어질게 되고 아첨영망(간사하고 망령됨)하게 됨은 남이 사랑하고 미워함에 달렸고, 거원蘧瑗이 벼슬에 나가고 숨는 것은 도道가 있고 없음에 따른 것이다〔王尊賢佞人憎愛 蘧瑗行藏道有無〕."

"사람 세상의 일은 일찍이 새옹塞翁[51]이 말을 잃은 것과 같고, 한 길을 가지 않

49 술을 먹지 않고 주광酒狂을 부림."寬饒曰 無多酌我乃酒狂 丞相笑曰 次公醒而狂 何必酒也"

50 낮은 관직官職에 숨어 있음. 또는 긴 세월을 낮은 벼슬에 머물러 있음.

51 인생의 화복禍福은 무상한 것. 그러므로 복이 있다고 하여 기뻐할 것이 없고, 화가 있다고 하여 슬퍼할 것이 없다는 비유. 새옹塞翁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하여 버렸다. 남들이 위로하니 새옹이 말하기를, "이것이 복의 원인이 될지 어떻게 알겠는가" 했다. 두어 달 뒤에 그 말이 오랑캐의 준마駿馬를 데리고 돌아왔다. 남들이 축하하니, 새옹이 말하기를, "이것이 갑자기 화禍의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집이 부유하고 말이 좋으니 그 아들이 말을 즐겨 타고 다니다가 떨어져 다리를 다쳤다. 남들이 위로하니 새옹이 말하기를, "이것이 복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어찌 알겠는가"라고 했다. 1년 뒤에 오랑캐가 크게 침입하니 장정들이 싸움에 나가서 열에 아홉은 전사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불구자이기 때문에 출전하지 않고 부자가 서로 보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는 이웃 손이 몇 번이나 양羊을 잃었던고〔人世塞翁曾失馬 路岐隣客幾亡羊〕.”[52]

“시詩는 교묘한 공예와 같아서 만물을 아로새기고, 술은 긴 비가 되어서 일천 가지 수심을 쓸어버린다〔詩似巧工雕萬物 酒爲長帚掃千愁〕.”

“세상일은 한 마당 뭇 개미의 구멍이고, 인생은 열 걸음에 아홉 걸음은 구부러진 양의 창자 같은 길일러라〔世事一場群蟻穴 人生十步九羊腸〕.”

“시詩는 담담한 가운데를 향하여 치우치게 맛이 있고, 술은 근심 뒤에 마시면 문득 공효가 없다〔詩向淡中偏有味 酒從愁後便無功〕.”

“인정은 옛 비와 지금 비가 다르고, 세상길은 푸른 구름이 흰 구름을 가로 막는다〔人情舊雨殊今雨[53] 世路靑雲[54]隔白雲〕.”

“숲 사이 길이 가늘어서 겨우 우물에 통하고, 대속에 누樓가 높으니 산이 막히지 않는다〔林間路細纔通井 竹裏樓高不礙山〕.”

“빗속의 애교스러운 붉은 꽃에는 눈물이 있고, 연기 가운데의 얕게 푸른 풀은 무정하기만 하다〔雨裏嬌紅花有淚 烟中淺碧草無情〕.”

남에게 지어준 시에는 이렇게 말했다. “공명은 풍진세상에서는 졸拙한 데 맡겨두고, 시주詩酒로 우주 사이에서 교정交情을 논한다〔功名任拙風塵下 詩酒論交宇宙間〕.”

“만고萬古 건곤에 오늘 밤 달이요, 백년 호해에서 고인故人의 술잔이로구나〔萬古乾坤今夜月 百年湖海故人杯〕.”

“청하靑霞(고상한 뜻을 의미하는 말)의 뜻이 중하여 천 잔도 적고, 〈백설가白雪歌〉의 노래가 높으니 6월이 춥구나〔靑霞意重千杯少 白雪詞高六月寒〕.”

“천애에서는 열흘에 아홉 번은 바람과 비. 나그네 칠 년 동안에 이별이 세 번

52 한 가지 일에 전념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을 비유한 말. 장臧은 독서하느라고 양羊을 잃어버리고 곡穀은 장기 두느라고 양을 잃어버렸다는 고사. 사업은 다르지만 한 가지 일에 전념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함은 같다는 것이다.

53 우雨는 우友와 같은 뜻이니, 옛 벗과 새 벗. 두보杜甫의 시詩 소서小序에 말하기를 “臥病長安旅次多雨 尋常車馬之客 舊雨來今雨不來”라고 했다.

54 푸른 구름. 높은 이상理想이나 벼슬을 가리키는 말.

일세〔天涯十日九風雨 客子七年三別離〕."
"바람이 구새九塞(먼 변방)에 나니 가을에 칼을 가로지르고, 눈이 상하三河를 비치는데 밤에 군사가 건넌다〔風生九塞秋橫劍 雪照三河夜渡兵〕."
북경北京에 갔을 때의 시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늘이 한해瀚海(몽고의 대사막)에 이었으니 가을이 항상 이르고, 땅이 음산陰山에 닿았으니 여름도 또한 서늘하구나 〔天連瀚海秋常早 地接陰山夏亦凉〕."
"인가의 연기가 언덕을 사이하니 청제靑齊가 가깝고, 오랑캐의 불이 산에 이었으니 북쪽의 사막이 황혼이로구나〔人煙隔岸靑齊近 虜火連山朔漠昏〕."
"가을 소리는 고각鼓角에 서리가 일천 나무요, 밤빛은 관하關河(함곡관函谷關과 황하黃河)에 달빛이 일만 집이로구나〔秋聲鼓角霜千樹 夜色關河月萬家〕"
"유관楡關(산해관山海關의 딴 이름)에 나무가 어두우니 돌아가는 새를 보고, 안새鴈塞(땅 이름)에 하늘이 맑으니 오랑캐의 티끌을 알아보겠네〔楡關樹暗看歸鳥 鴈塞天淸辨虜塵〕."
"만세를 세 번 부르니 우레가 땅을 흔들고, 일천 관원官員이 다섯 번 절하니 해가 하늘에 오른다〔萬歲三呼雷殷地 千官五拜日升天〕."
"제후들의 예물은 삼천의 나라이고, 만력의 건곤이 사십 번의 봄이로구나〔諸侯玉帛三千國 萬曆乾坤四十春〕."
"나그네의 회포가 쓸쓸함은 병으로 인함이 많고, 손의 꿈이 길고 짧아서 집에 이르는 것이 적다〔羈懷冷落多因病 客夢參差少到家〕."
"시름은 황제의 서울, 향과 등불의 밤에 불사르고, 꿈은 고향의 팥죽 쑤는 새벽에 배부르다〔愁燒帝里香燈夜 夢飽家山豆粥晨〕."
"피리 소리 · 노래 소리로 일만 집에 봄 구름이 뜨겁고, 복숭아꽃 · 자두 꽃으로 일천 문에는 밤비가 향기롭구나〔笙歌萬戶春雲熱 桃李千門夜雨香〕."
"천 리의 어지러운 산들은 시름 밖의 길이고, 일 년 꽃다운 풀은 꿈속의 사람이라네〔千里亂山愁外路 一年芳草夢中人〕."
"시가 이루어지니 염천에 흰 눈이 날리는 것 같고, 부賦를 이루니 창해에 큰 바

람이 일어나는 듯하다(詩就炎天飛白雪 賦成滄海起雄風).”
“천 리 먼 곳의 나그네 시름은 취한 힘에 의지하여 잃어버리고, 백 년의 노쇠한 흥치는 시의 힘을 빌려 호기스럽다(千里旅愁憑醉失 百年衰興倚詩豪).”
“바다 역驛에 시를 쓰니 봄빛이 나고, 요성에 말을 달려 저녁구름을 깨뜨린다(題詩海驛生春色 跋馬遼城破暮雲)”라고 했다.
사람을 북경으로 보내는 증별시에는 이렇게 말했다. “연산 8월에는 기러기 앞에 눈이요, 화표華表 천년에는 학 밖에 서리로구나(燕山八月鴻前雪 華表千年鶴外霜).”
“천자의 어질고 밝음은 요堯임금 · 순舜임금 · 우禹임금이요, 조정의 예악禮樂은 하夏나라 · 상商나라 · 주周나라 제도이다(天子聖明堯舜禹 朝廷禮樂夏商周).”
기행시紀行詩에는 이렇게 말했다. “말은 푸른 나무 그늘 가의 길을 가고, 사람은 푸른 산 그림자 속의 마을에서 말한다(馬行綠樹陰邊路 人語靑山影裡村).”
“강마을 여관의 배꽃은 삼월의 비에 젖고, 역사驛舍의 누樓 앞에 버드나무는 소춘小春의 바람을 분다(江館梨花三月雨 驛樓楊柳小春風).”
“시내 구름이 해를 가리니 하늘은 장차 저녁이고, 들불이 산을 둘러싸니 풀이 봄 하지 않는다(溪雲翳日天將夕 野燒籠山草不春)”라고 했다.
학성鶴城에서 읊은 시는 이러하다. “하늘 밖의 돛단 조각배 나라의 섬에 오니, 나무 머리의 저녁별에 회양이 보이네(天外片帆來國島 樹頭殘日見淮陽).”
“시름 밖의 연기 띤 꽃은 봄이 변방에 들고, 꿈속 칡덩굴의 달은 밤에 산으로 돌아가네(愁外烟花春入塞 夢中蘿月夜還山).”
철령鐵嶺에서 지은 시에는 말하기를, “언뜻 깎아지른 구렁을 굽어보고 땅이 없다고 의심하였더니, 물러나 평평한 언덕을 내려오니 딴 세상이 있네(乍臨絕壑疑無地 却下平原別有天)”라고 했다.
석왕사釋王寺에서 지은 시에는 말하기를, “샘이 물방아를 찧으니 우레는 일천 절굿공이이고, 달이 배꽃을 비치니 눈이 한 뜰이로구나(泉舂水碓雷千杵 月照梨花雪一庭)”라고 했다.

홍양洪陽에서 지은 시는 이러하다. “시를 옛 벽에 쓰니 붓에 바람이 나고, 그윽한 난간에서 술을 명命하니 달이 잔에 가득하네〔題詩古壁風生筆 命酒幽軒月滿杯〕.”
“연기는 버들 장막을 열어서 조각한 난간을 둘렀고, 비는 연잎으로 돈을 만들어 작은 못에 점을 찍었다〔烟開柳幄圍雕檻 雨鑄荷錢點小池〕.”
“뜰 앞의 푸른 대는 아이들의 말이고, 못 가의 푸른 부들은 태수太守의 채찍이다〔階前翠竹兒童馬 池畔靑蒲太守鞭〕.”
통제統制 이순신李舜臣을 슬퍼하는 시에는 말하기를, “오랑캐의 요기妖氣는 밤에 호수 밖의 달에 거두고, 장수의 별은 새벽에 바닷속의 구름에 떨어졌네〔蠻祲夜收湖外月 將星晨落海中雲〕”라고 했다.
유구사琉球使에게 지어준 시에는 이렇게 말했다. “땅이 파도에 들어가니 위와 아래가 아득하고, 하늘에 별이 달렸으니 서쪽 동쪽을 분별한다〔地入波濤迷上下天懸星斗辨西東〕.”
“해와 달은 하늘의 안과 밖을 아울러 밝히고, 파도는 바다의 동쪽 · 남쪽을 격리시키지는 못한다〔日月並明天內外 波濤不隔海東南〕”라고 했다.
승평昇平에서 지은 시에는 이렇게 말했다. “난간과 창窓이 물에 가까우니 더위에 매우 마땅하고, 정원庭院에 매화를 옮겨 놓으니, 봄 얻는 것이 이르다〔軒窓近水偏宜暑 庭院移梅早得春〕.”
“서리 밖의 새벽 소리는 고각을 듣고, 눈 속의 봄빛은 매화를 본다〔霜外曉聲聞鼓角 雪中春色見梅花〕.”
“매화나무 그림자는 바람에 춤을 추면서 베개 위에 오고, 대숲 소리는 달을 갈면서〔磨〕 창문 앞에 이르네〔梅影舞風來枕上 竹聲磨月到窓前〕.”
“문에 다섯 그루 버들이 드리웠으니 봄바람이 이르고, 정원庭院에는 일천 그루의 대나무가 둘렀으니 밤비 소리가 많다〔門垂五柳春風早 院繞千篁夜雨多〕.”
개성시開城詩에는 이렇게 말했다. “청석靑石의 쌍협 길은 눈이 묻어 버리고, 백양에는 연기가 십왕릉十王陵을 잠갔다〔靑石雪埋雙峽路 白楊烟鎖十王陵〕.”
“황대의 달에는 일천 년의 한恨이 있고, 별간에는 하룻밤 사이의 얼음에 소리

가 없다〔荒臺有恨千年月 別澗無聲一夜冰〕.”
〈백상루시百祥樓詩〉에는 말하기를, “창에는 작은 빗소리 들리는데 하늘은 새벽 되기 어렵고, 성은 차가운 강을 베개 하였으니 땅이 가을되기 쉽다〔窓聞小雨天難曉 城枕寒江地易秋〕”라고 했다.
〈강촌시江村詩〉에는 말하기를, “돛단배는 좋은 바람에 아침 뒤에 배부르고, 물결 머리의 새 물은 밤에는 높지 않다〔帆腹好風朝後飽 浪頭新水夜來高〕”라고 했다.
사직社稷의 제사를 모시는 시에는 말하기를, “정기가 달을 덮으니 삼천三天의 빛이고, 환패(고리 모양의 패옥佩玉)가 바람을 두드리니 오야오경에 소리가 난다〔旌旗掩月三天色 環佩鼓風五夜聲〕”라고 했다.
시연시侍宴詩에는 말하기를, “잔 속의 만수무강은 남산南山에 가깝고, 자리 위의 일日·월月·성星 세 빛은 북극이 높다〔杯中萬壽南山近 席上三光北極高〕”라고 했다.
수재水災를 읊은 시에는 말하기를, “방할수防割水는 요임금의 세상에 가로질렀고, 불주산不周山은 여와씨女媧氏[55]의 하늘을 찢는다〔方割水橫堯帝世 不周山裂女媧天〕”라고 했다.
병후病後의 시에는 말하기를, “꽃다운 풀에 삼월 이후로 문을 닫았고, 떨어지는 꽃에 지팡이를 의지하여 거닌 것은 한봄 이전이네〔芳草閉門三月後 落花扶杖一春前〕”라고 했다.
끝구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한 지름길이 비스듬히 수양버들의 바닥을 뚫고, 대나무 수레가 그림 같은 경치 속으로 돌아간다〔一徑斜穿垂柳底 竹輿歸去畫圖中〕.”
“석 잔으로 배꽃의 달을 마셔 다하고, 새 시를 써내니 글자 글자에 향기가 나네〔三盃吸盡梨花月 寫出新詩字字香〕.”
“푸른 산이 마치 세상일을 근심하는 사람 같아서, 하룻밤 사이의 동풍에 모두

55 중국 상고시대上古時代 임금의 이름. 복희씨의 동모매同母妹, 처음으로 생황笙簧을 만들었고, 가취嫁娶의 예禮를 제정하여 동족同族의 혼인을 금했다고 함. 또 오색五色의 돌을 반죽해서 하늘을 깁고, 큰 자라의 발을 잘라서 사극四極에 세웠다고 함.

백두白頭가 되었네〔靑山也似憂時客 一夜東風盡白頭〕.”

“창문을 밀치고 바로 빈 뜰의 달을 보니, 배꽃나무 맨 위의 가지에 걸려 있네〔推窓正見空庭月 掛在梨雅最上枝〕.”
“물을 사이에 두고 저편의 누구 집에서 비단 사창紗窓을 열었는고, 버들이 늘어진 문항門巷(문호門戶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 가장 풍류스럽게 보이네〔隔水誰家開繡戶 柳邊門巷最風流〕.”

오언대구五言對句로는 이러하다. “저녁 숲에는 샛길을 여는 일이 적고, 가을 잎에는 문을 깊게 닫았네〔夕林開逕少 秋葉閉門深〕.”
“맑은 달은 시 속의 빛이요, 차가운 샘은 꿈속의 소리로다〔淡月詩中色 寒泉夢裡聲〕.”
“눈 덮인 집에는 거문고와 책들이 싸늘하고, 매화 핀 창 앞에는 웃음과 말의 향기가 나네〔雪屋琴書冷 梅窓笑語香〕.”
“이름을 다투는 마당에서는 먼저 물러나고, 늘그막에는 이미 누에처럼 잠만 자고 있다네〔名場先鷁退 老境已蠶眠〕.”
“오랫동안 가난하니 늙음이 먼저 오고, 오랫동안 병들어 있으니 스스로 의사가 되었네〔長貧先得老 久病自知醫〕.”
“물과 구름은 흥을 멀리 이끌어가고, 호수에 내리는 비는 시詩 속에 들어와 차갑다〔水雲牽興遠 湖雨入詩寒〕.”
“세상의 형편 구름이 뒤치듯 하고, 인정은 옛 벗과 지금 벗이 다르네〔世態雲翻覆 人情雨舊今〕.”
“포구는 조수를 삼키어 크고, 산허리는 안개를 띠어 낮다〔浦口呑潮大 山腰帶霧低〕.”
“세상일은 꽃을 따라 웃고, 시의 뜻은 대나무 숲에 아득하다〔世事從花笑 詩情被竹迷〕.”

“냇가가 깊으니 물고기의 세상이고, 못물이 불어나니 갈매기의 생애로구나〔浦深魚世界 池漲鷺生涯〕.”

“좋은 술을 삼해三亥[56]에 기울이니, 아름다운 채소는 오신五辛[57]을 갖추었다〔美酒傾三亥 嘉蔬備五辛〕.”

“난간 앞에는 꽃이 부귀롭고, 못가에는 버드나무가 풍류스럽다〔檻前花富貴 池畔柳風流〕.”

“땅이 마르니 앙마秧馬 모를 심을 때 말처럼 타고 심는 농구는 누웠고, 밭이 타는 듯하니 보리의 심이 파리하다〔地乾秧馬臥 田熯麥人臞〕.”

“무너진 담에 뱀이 구멍을 만들고, 빈 집에는 새가 집을 짓는다〔壞墻蛇作穴 空院鳥爲家〕.”

“새벽 가마솥에는 시내의 푸른 물을 끓이고, 봄 밥상에는 해홍채海紅菜(식물의 이름. 식용할 수 있음)가 으른다〔曉釜烹溪綠 春盤薦海紅〕.”

“섬돌의 꽃은 저문 날 비에 울고, 성의 버들은 봄 연기를 짠다〔砌花啼暮雨 城柳織春烟〕.”

“물소리는 오늘밤의 꿈이고, 산 빛은 지난해의 시詩로다〔水聲今夜夢 山色去年詩〕.”

“해가 떨어지니 행인의 걸음이 빠르고, 날씨가 추우니 자는 새가 바보 같다〔日落行人疾 天寒宿鳥癡〕.”

“수목은 임호의 요새이고, 산하山河는 한무제의 무대로구나〔樹木林胡塞 山河漢武臺〕.”

“들나비를 보니 장주莊周의 꿈인가 의심하고, 산새소리를 듣고 월越나라의 노래를 배운다〔野蝶疑莊夢 山禽學越吟〕.”

“손의 꿈이 먼저 꽃다운 풀에 있으니 돌아갈 기약은 낙화보다 뒤진다〔客夢先芳草 歸期後落花〕.”

56 정월正月에 해일亥日이 세 번 있는 것.

57 5가지 매운 맛이 있는 채소. 부추 · 염교〔薤〕 · 파〔葱〕 · 마늘〔蒜〕 · 생강〔薑〕.

"기러기 소리는 푸른 공중에서 처음 들리고, 귀뚜라미 소리는 황혼에서 시작된다〔雁聲初碧落 蛩語自黃昏〕."
"대나무가 아리따우니 서리는 분이 되고, 소나무가 늙으니 눈이 수염을 짓는다〔竹嬌霜作粉 松老雪爲髯〕."
"대나무 빛은 시 속에서 살고, 매화는 꿈속에서도 차갑다〔竹色詩中活 梅花夢裡寒〕."
"세월은 시름 속의 모습이고, 산천은 병病 뒤의 시詩라네〔歲月愁中貌 山川病後詩〕."
"밤 서늘한 것은 외로운 베개에서 깨닫고, 가을 뜻은 가만히 우는 벌레소리에서 안다〔夜凉孤枕覺 秋意暗蟲知〕."
"밤바람은 어두운 대숲에서 생기고, 봄빛은 찬 매에서 새어 나온다〔夜風生暗竹 春色漏寒梅〕."
"풀빛이 푸르니 꿈인가 의심되고, 산 얼굴이 깨끗하니 시詩와 같구나〔草色靑疑夢 山容淨似詩〕"라고 했다. 결구結句에는 이렇게 말했다. "멀리 모옥茅屋(누추한 집을 이름)이 있는 곳을 보니, 버드나무 늘어진 작은 다리 서쪽일세〔遙看茅屋處 楊柳小橋西〕."
"창을 사이에 두고도 비 오는 것을 알겠구나. 소리가 푸른 오동의 동쪽에 있으니〔隔窓知有雨 聲在碧梧東〕."
"회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조금 잤더니, 서쪽으로 기운 해 그림자는 남쪽 가지에 내려왔게〔槐陰成小睡 西日下南柯〕."
"외로운 성城이 바다에 가까운 것을 알겠구나. 백조가 관가 뜰에 내려왔으니〔孤城知近海 白鳥下官庭〕."

판관判官 이후근李厚根이, 금강산에 놀러 가는 사람을 보내는 시에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금강산은 삼산三山 중의 제일이라고 하네. 구름 속의 멧부리들은 옥칼을 벌여 놓은 것 같고, 돌 사이의 냇물은 구슬 비파를 울리는 듯하다지.

그대 같은 풍류 좋은 사람이, 그 위에 이곳의 손이 된다니, 나도 쫓아가 놀고 싶으나, 작은 벼슬에 몸은 괴롭게 얽매였네. 날개 일산을 잡을 수 없으니, 신선과 범인凡人이 이로부터 가로막히네. 12,000봉의 많고 적은 산수의 경치를, 하나하나 새로운 시에 넣었다가 돌아와 나에게 설명하여 주게나(吾聞金剛山三山之第一雲巒列玉劒石磵鳴瑤瑟以君好風流更作此中客我願從之遊微官苦纏縛羽蓋不可攀仙凡從此隔一萬二千峯 多少烟霞色一一入新詩 歸來向我說)"라고 했다.
잘 지었다.

성이민成以敏이 어등魚燈을 읊은 시에 말하기를, "초나라 물이 흘러서 다함이 없으니 영균靈均(초楚나라 굴원屈原의 자字)의 恨이 진정하지 않네. 지금까지도 물고기 뱃속에서, 한 치 마음의 밝은 것을 머물러 있게 하였네(楚水流無極靈均恨不平至今魚腹裡留得寸心明)"라고 했다. 이 시를 사람들이 간혹 칭찬한다. 그러나 첫 글귀가 좋지 않다. 또 말이 치기稚氣를 띠고 있어서 결코 가작佳作은 아니다.

만력萬曆 무신년戊申年에 내가 홍주목사洪州牧使가 되니, 그 전임자前任者는 동악東嶽 이안눌李安訥이었다. 동악이 시를 남겨 내게 주었는데, 그 끝 글귀에 말하기를, "작은 재주가 도리어 큰 수법手法이 아님을 부끄러워하는데, 부질없이 남들로 하여금 정鄭과 소蘇의 때에 비하게 하네(小技却慚非大手謾敎人比鄭蘇時)"라고 했다. 대체로 가정嘉靖 때에 정사룡鄭士龍과 소세양蘇世讓이 서로 교대하여 목사牧使가 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내가 차운次韻하기를, "옛날 사람의 자취를 추종한다는 것이야 내 어찌 감히 하겠는가. 오직 때를 같이하여 교대 받은 것을 다행하게 생각할 뿐이오(追蹤往昔吾何敢唯幸交承得共時)"라고 했다. 두 시가 함께 《홍양록洪陽錄》 속에 수록되었다.

중 유정惟政의 호는 사명산인四溟山人이다. 왜놈들이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로

는 감히 화의和議를 통해 오지 못하더니, 계묘년癸卯年에 이르러 신사信使를 청해 왔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분하고 원통해했으나, 조정에서는 그들과 말썽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여 사명산인을 보내어 적의 정세를 알아보게 했다. 산인山人이 고루 조관朝官들에게 송별시送別詩를 청하므로 나도 지어 주었는데, “성세盛世에 명장名將이 많건만 뛰어난 전공戰功은 홀로 늙은 스님일세. 배는 노련魯連[58]의 그 바다를 가고, 혀는 육생陸生의 말을 구사하겠네. 변하고 속이는 것을 오랑캐는 싫어하지 않으니, 얽매일 일이 혹은 두렵구나. 허리에 찬 긴 칼을 어루만지며, 오늘에 내 남아男兒가 부끄럽다(盛世多名將 奇功獨老師 舟行魯連海 舌騁陸生辭 變詐夷無厭 羈縻事恐危 腰間一長劍 今日愧男兒)”라고 했다. 차오산車五山이 보고 붓을 던져버렸다고 한다.

만력萬曆 신해년辛亥年에 태학太學의 여러 유생들이 어떤 일로 인하여 분격하여 관館을 비우고 나오니, 한 유생이 시를 지어 말하기를, “모진 서리가 사월에 청아菁莪(부추와 다북쑥. 인재를 교육하는 일)에 내리니, 이는 다만 미치고 어리석은 일일 뿐 어찌 다른 뜻이 있으랴. 머리를 돌리니 반궁泮宮[59]에 향화香火는 꺼지고, 행단杏壇[60]은 적막한데 떨어지는 해가 처음 비꼈구나(嚴霜四月下菁莪 只是狂愚豈有他 回首泮宮香火滅 杏壇寥落日初斜)”라고 했다.

이수근李壽根은 나의 종질從侄로서, 뛰어난 재주가 있다. 어린 때에 종묘宗廟를 보고 지은 시에 말하기를, “태묘의 문을 처음 들어서니 소나무와 전나무가 길을 끼고 푸르다. 자연히 마음이 공경하고 두려워져서 감히 앞뜰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太廟門初入 松杉夾路靑 自然心敬畏 不敢近前庭)”라고 했다. 또 고죽병학도

58 전국시대戰國時代 제齊나라의 의사義士. 조趙·위魏 두 나라 왕에게 진秦을 높여 제帝를 일컫게 하려는 것을 반대하도록 함. 노중련魯仲連.

59 주대周代에 제후諸侯의 도읍에 설립한 대학大學. 동서東西의 문이남門以南은 물로 둘려 있음.

60 단壇의 이름. 산동성山東省 곡부현曲阜縣의 공자孔子의 묘전墓前에 있음. 또 학문學問을 가르치는 곳. 공자가 행단杏壇 위에 앉고 제자가 그 곁에서 강학講學한 고사故事에서 나옴.

枯竹病鶴圖(마른 대나무와 병든 학의 그림)에 시를 쓰기를, “두 줄기 모진 마디는 말라도 오히려 곧고, 만 리를 날고 싶은 마음은 병들어서도 그치지 않는다〔兩竿勁節枯猶直 萬里飛心病不窮〕”라고 했다. 장차 원대한 경지에 도달하려니 하였더니, 성동成童이 되어서 죽었다. 애석하다.

명나라의 사신으로 태감太監인 염등冉登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은폐銀幣를 강요하기가 한이 없어서, 나라 안이 텅 비도록 소비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시를 지어 말하기를, “불꽃 바람이 삼한三韓을 모두 말아 가지고 가니, 다만 산천만이 남아서 옛날과 같구나〔炎風捲盡三韓去 只有山川似昔時〕”라고 했다. 아마 때가 바로 6월이고, 또 그의 성이 염冉이니 염冉과 염炎은 음이 닮았으므로 염풍炎風이라고 말한 것일 것이다.

일찍이 보니, 궁궐 안의 주춧돌 위에 시를 써놓은 것이 있었는데, “향신鄕信(고향의 소식)은 봄이 믿음성 있게 오는 것만 못하구나. 손의 심정이 어찌 돌처럼 무정할 수야 있는가. 쇠약함을 상심하여 부질없이 스스로 강장强壯함을 생각하고, 난리를 지나고 나니 공연히 태평을 말하네〔鄕信不如春有信 客情那似石無情 傷衰謾自思强壯 經亂空勞說太平〕”라고 했다. 물어보니 군사軍士가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 한스럽다.

사문斯文 윤尹 아무개가 어느 고을의 수령이 되어서, 고을의 창녀娼女와 사통私通했다. 교체된 뒤에 백성들이 거사비去思碑[61]를 세웠더니, 창녀가 그 비 앞을 지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어떤 사람이 시를 지어 말하기를, “알지 못하거니와 당일 양곡羊公의 비석에, 일찍이 가인佳人이 있어서 눈물을 흘린 일이 있는지 없는지〔不知當日羊公石 曾有佳人墮淚無〕”라고 했다.

61 덕정德政을 베푼 지방관이 떠나간 뒤에 백성들이 그를 생각하여 세운 송덕비頌德碑.

일찍이 보니 역정驛亭에 시를 써 놓은 것이 있었다. “여러 새들이 가지를 같이 하여 자고는, 날이 새면 각기 저대로 날아가 버린다. 인생도 또한 이와 같은 것, 어찌 반드시 이별의 눈물로 옷을 적셔야 하는가(衆鳥同枝宿 天明各自飛 人生亦如此 何必淚霑衣)”라고 했다. 누구의 작품인지 알 수 없다.

글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은 배우는 자의 큰 병病이다. 세상에 전하는 시가 있다. “10리 강산을 반은 졸면서 지나가니, 그 가운데의 지세地勢와 풍경風景의 뛰어남이 어떠하던가. 다른 때에 만약 문득 말을 돌리게 한다면, 몸은 거듭 오지만 눈은 처음일 것이다(十里江山和睡過 箇中形勝問如何 他時若使便回馬 身是重來眼是初)”라고 했다.
역시 잘 비유했다.

시에는 간혹 한 연구聯句만이 세상에 전할 만한 것이 있는 경우가 있다. 상국相國 김귀영金貴榮이 영남嶺南을 유람하면서 지은 시에 말하기를, “단풍나무 1만 산에 자주 말을 멈추고, 흰 구름 천 리 길에 홀로 누樓에 오르네(紅樹萬山頻駐馬 白雲千里獨登樓)”라고 했다.
동지同知 강부성康復誠의 시에는 말하기를, “한가한 가운데에 손이 있으니 오직 중이로구나. 병중에서 책을 보니 약방문일세(閑中有客惟僧子 病裡看書是藥方)”라고 했다.
참의參議 홍경신洪慶臣의 시에는 말하기를, “길이 길어 손 된 것이 오래고, 꿈이 짧으니 집에 이르기가 어렵다(路長爲客久 夢短到家難)”라고 했다.
홍산鴻山 심종직沈宗直의 시에는 말하기를, “문을 닫으니 소나무 그림자를 오로지하고, 평상平床을 옮기니 대나무 그늘이 깨어진다(門掩專松影 床移壞竹陰)”라고 했다.
장성長城 양경우梁慶遇의 시에는 말하기를, “눈길에는 겨우 말이 통하고, 바람 가지는 새를 받지 않는다(雪逕纔通馬 風枝不受鳥)”라고 했다.

석주石洲 권필權韠의 시에 말하기를, "골이 비었으니 사람의 말이 울리고, 다리가 기울었으니 말 가기가 위태롭다〔谷虛人語響 橋側馬行危〕"라고 했다.

세상에 전하는 시에 이런 것이 있다. "밭 가는 소에게는 묵은 풀도 없으나 창고의 쥐에게는 남는 양식이 있다. 일만 가지 일에 분수分數가 먼저 정하여 있는 것을 덧없는 인생들이 공연히 스스로 바빠한다〔耕牛無宿草 倉鼠有餘糧 萬事分前定 浮生空自忙〕"라고 했다. 누구의 작품인지 알지 못한다.

명나라 나염암羅念菴의 시에 말하기를, "닭장 속의 닭은 먹을 것이 있으나 삶아질 재난이 가깝고, 들의 학은 양식이 없으나 천지가 너그럽다〔籠鷄有食湯災近 野鶴無粮天地寬〕"라고 한 글귀가 있다. 말이 더욱 활달하다.


권14

20. 문장부文章部-7

20-1 방류시旁流詩

제齊나라의 중 보월寶月이 〈고객사估客詞(상인商人의 노래)〉를 지어 말하기를, "낭군이 10리 길을 떠나는데, 나는 9리까지 따라가 송별하네. 나의 머리 위의 비녀를 빼서, 낭군에게 주어 노자로 쓰게 하네(郎作十里行 儂作九里送 拔儂頭上釵 與郎資路用)"라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난설헌蘭雪軒의 시집詩集을 보니, 전문全文을 훔쳐 쓰고 있다. 웃을 만한 일이다.
또 말하기를, "높다란 큰 배의 머리가, 양주의 어느 곳에서 출발하였는가. 묻노니 배 위의 낭군도 내가 즐겨할 것을 아는가(珂峨大艑頭 何處發楊州 借問艑上郎 見儂所歡否)"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유우석劉禹錫의 사詞에 말하기를, "높다란 큰 배가 돛을 내리고 온다(珂峨大艑落帆來)"라고 했다. 바로 이것을 인용한 것이다.

한산자寒山子는 당唐나라 때의 이상한 중이었다. 그의 시집 가운데에 이런 글귀들이 있다. "풀을 밟아서 세 갈래의 지름길을 이루고, 구름을 쳐다보고 네 이웃을 삼는다(踐草成三徑 瞻雲作四隣)"라든가, "밤이 되면 명월을 노래하고, 이른 새벽에는 흰 구름에 춤을 춘다(入夜歌明月 侵晨舞白雲)"라든가, "숲이 그윽하니 치우치게 새가 모여 오고, 시내가 넓으니 본래부터 물고기를 간직하고 있다(林幽偏聚鳥 溪闊本藏魚)"라든가, "이끼가 미끄러운 것은 비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소나무가 우는 것은 바람의 힘을 빈 것이 아니다(苔滑非關雨 松鳴不假風)" 라든가, "무릎은 푸른 곰가죽의 자리에 앉았고, 몸에는 청봉靑鳳의 깃으로 만든 갖옷을 입었다(膝坐綠熊席 身披靑鳳裘)" 라든가, "치마에는 금실로 나비를 수놓고, 살쩍에는 원앙의 모양으로 만든 옥꾸미개를 꽂았다(綴裙金蛺蝶 插鬢

玉鴛鴦)”라든가 하는 글귀들은 역시 아름답다. 그런데 당唐나라 사람은 칭찬해 말한 이가 없다. 주자朱子가 홀로 그의 시가 아름답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당나라 중 현람玄覽의 시에 말하기를, “큰 바다는 물고기가 제 마음대로 뛰고, 긴 공중은 새가 제 힘껏 날아다닌다(大海從魚躍 長空任鳥飛)”라고 했다. 이것은 가만히 《중용中庸》의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닿고, 물고기는 못에서 뛴다”라고 한 말을 따온 것이다. 그러나 쓴 뜻은 다르다. 근세에 김공희金公喜라는 이가 있어서 풍역정風詠亭의 시를 차운次韻하기를, “새소리에 《대학大學》을 듣고 물고기 뛰는 것에서 《중용中庸》을 본다(鳥聲聞大學[1] 魚躍見中庸[2])”라고 했다. 비속하고 상스러워서 웃을 만하다.

송나라의 중 혜숭惠崇의 시에 이런 글귀들이 있다.
“지형은 촉을 삼켜 다하고, 강의 기세는 만蠻을 안고 돈다(地形呑蜀盡 江勢抱蠻迴).”
“물결은 회포를 지나서 넓고, 산은 귀문에 들어와 차다(浪經淮浦闊 山入鬼門寒).”
“하수河水에 얼음이 굳으니 말이 건너가고, 변방에 눈이 빽빽하여 보라매를 감춘다(河氷堅渡馬 塞雪密藏雕).”
“이별한 해가 오래니 얼굴이 고쳐지고, 서로 만난 밤에는 이야기가 길다(久別年顔改 相逢夜話長).”
“새가 돌아가니 전나무에 눈이 떨어지고, 중이 좌정坐定하니 돌이 구름에 잠긴

1 새소리에서 《대학大學》을 듣는다는 뜻이니, 《대학》에 “緡蠻黃鳥 止于丘隅, 子曰 於止 知其所止 可以人而不如鳥乎”라는 말이 있다. “꾀꼴꾀꼴 우는 꾀꼬리, 초목이 우거진 언덕 위에 머무네. 공자가 말씀하기를 그치는데 그쳐야 할 곳을 아는구나, 사람이 새만 못할 수 있겠는가”라는 뜻이다. 그러니 새소리를 들으니 《대학》의 이 대문을 듣는 것 같다는 말일 것이다.

2 물고기가 뛰어 《중용中庸》을 본다고 한 말. 즉 《중용》에 “魚躍于淵”이라는 말이 있다. “물고기가 제 마음대로 못에서 뛴다”는 뜻이다. 그러니 이 시는, 물고기 뛰는 것을 보니 《중용》의 이 말을 보는 것 같다는 뜻일 것이다. 지봉芝峰은 이 시를 어린아이 소리 같다고 했다.

다(鳥歸杉墮雪 僧定石沈雲).”

“빈 못에 사슴의 물 마시는 소리 들리고, 성긴 나무엔 중 가는 것이 보인다(空潭聞鹿飮 疎樹見僧行).”

“학은 창해滄海의 소식을 전하고, 중은 백운시白雲詩를 화답한다(鶴傳滄海信 僧和白雲詩).”

“돌에 앉으니 구름이 소매에서 생기고, 샘물을 길으니 달이 병에 들어간다(坐石雲生袖 添泉月入甁).”

“날이 저무니 학은 절에 깃들이고, 가을에 중은 돌다리를 지나간다(瞑鶴棲金刹秋僧過石橋).”

“작은 문에서 먼저 새벽을 알고, 작은 못에서 따로 하늘을 본다(圭竇[3]先知曉 盆池別見天).”

“학은 금찰의 이슬에 놀라고, 용은 옥병의 샘에 엎드렸다(鶴驚金刹露 龍蟄玉甁泉).”

“올 때에는 구름이 장삼을 안더니, 이별하는 밤에는 달이 막대를 따르네(來時雲擁衲 別夜月隨筇).”

“칼이 고요하니 칼은 칼집에 돌아가고, 깃발이 한가로우니 기에 그린 범은 깃대에 감긴다(劒靜龍歸匣 旗閑虎繞竿).”

“구름의 그늘은 한새로 옮기고, 돌빛은 진천으로 들어간다(雲陰移漢塞 石色入秦天).”

“긴 바람은 말이 뛰는 길에 불고, 작은 눈은 솔개를 쏘는 하늘에 날린다(長風躍馬路 小雪射雕天).”

이들이 비록 썩 잘된 것은 아니나, 소순지기蔬笋之氣[4]가 없는 것 같다.

《소설小說》에 말하기를, “원元나라 중 현휘玄暉가 만세봉萬歲峯을 두고 지은 시

3 문 옆에 있는 작은 문.

4 채소나 죽순만 먹고 육식肉食하지 아니한 자의 풍기風氣.

에, '한 조서詔書로 일찍이 만민萬民을 노역하게 하고, 한 봉우리를 쌓기 위하여 능히 구주九州로 하여금 가난하게 만든다. 강산江山의 가설假設이 바야흐로 이루어지니, 참 강산은 이미 남에게 귀속되었구나〔一詔曾敎役萬民 一峯能使九州貧 江山假設方成就 眞箇江山已屬人〕'라고 했다. 이 시가 외람되고 속되나 세상을 경계하기에 족하다"라고 했다.

《요산당외기堯山堂外紀》에 말하기를, "고황후高皇后를 장차 매장하려 하니,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며 천둥과 번개가 일어났다. 황제가 중 종륵宗泐을 불러 게偈(부처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를 짓게 하니 말하기를, '비가 떨어지는 것은 하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우레가 우는 것은 땅이 거애擧哀[5]함이로다. 서방西方의 여러 부처들이 같이 말을 보내온 것 같다〔雨落天流淚 雷鳴地擧哀 西方諸佛子 同送馬如來〕'라고 하니, 하늘이 홀연히 열리고 날씨는 개었다"라고 했다. 또 송나라 장구성張九成의 대책對策에 말하기를, "하늘이 눈물 비를 흘렸다고 한 것은 고종高宗을 가리킨 말이다. 그래서 하늘의 눈물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했다.

명나라의 중 몽당夢堂이 배 위에서 초蕉 자를 운韻으로 하여 지은 시에 말하기를, "남북이 침침하고 하늘이 비를 내리니, 누워 들으니 뱃전의 빗소리가 파초 소리를 닮는구나〔南北沈沈天作雨 臥聽蓬韻學芭蕉〕"라고 했다. 또 중 월주月舟는 성색聲色을 좋아하므로 어떤 사람이 유명한 기녀妓女가 있다고 속여서 초대하였더니, 와서 즉석에서 벽 위에 걸려 있는 채화협접도菜花蛺蝶圖(배추 꽃과 나비를 그린 그림)에 시를 쓰기를, "한 조각의 봄빛도 도무지 보이지 않는데 도리어 나비로 하여금 잘못 날아오게 하였네〔一段春光都不見 却敎蝴蝶誤飛來〕"라고 했다.

전조前朝 때에 고승高僧 정사正思가 시를 지어 말하기를, "고불암古佛巖 앞의 물이 슬피 울고 또다시 목메어 흐느끼네. 아마 인간에 이르게 되면 길이 구름에

5 사자死者에게 제례祭禮할 때에 소리 내어 우는 것.

잠겨 있는 산과는 이별할 것을 한탄함이겠지〔古佛巖前水 哀鳴復鳴咽 應恨到人間 永與雲山別〕”라고 했다. 또 중 혜문惠文의 시에는 말하기를, “문 밖에 길이 길다라니 사람은 남쪽 · 북쪽으로 가고 바위가 늙은 소나무에는 달이 예나 지금이나 걸리네〔路長門外人南北 松老巖邊月古今〕”라고 했다. 좋다.

전조前朝의 중 선탄禪坦은 곡성谷城 사람이다. 그의 〈조춘시早春詩〉에 말하기를, “피리 · 거문고 소리는 대숲 밖의 도랑물 소리에 깨어지고, 연기 속의 산은 수묵水墨으로 점點 찍어 그린 것 같구나. 말을 세우고 채찍을 멈춘 채 바라보고 또 바라보니, 꾀꼬리가 봄바람 앞에 오르락내리락하는구나〔管絃聲碎竹外磵 水墨畫點烟中山 立馬停鞭望復望 蒼庚上下春風端〕”라고 했다. 또 영동嶺東에 노닐면서 지은 시에는 말하기를, “명사십리에 해당화는 붉은데, 흰 갈매기가 둘씩 성긴 빗속을 날고 있네〔鳴沙十里海棠紅 白鷗兩兩飛疎雨〕”라고 했다. 어떤 사람이 장차 관동關東에 놀러 가려고 하다가 선탄禪坦의 이 글귀를 듣고 말하기를, “이미 제일 좋은 글귀는 그가 얻었구나” 하고 가기를 중지했다고 한다.

《동인시화東人詩話》에 말하기를, “고려 말기에 어떤 중이 포은圃隱에게 보낸 시에 말하기를, ‘강남江南 만 리에 들꽃이 피었으니, 어느 곳엔들 봄바람에 좋은 산이 없으리오〔江南萬里野花發 何處春風無好山〕’라고 했다. 아마 포은圃隱에게 자취를 감추게 하고자 한 것일 것이다. 포은옹圃隱翁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슬프다, 이미 늦었구나’라고 했다. 아마 남의 신하된 몸이 이미 임금께 몸을 바쳤으니, 이때에 이르러 물러가야 할 도리는 없다는 뜻일 것이다. 중이 어찌 포은옹을 충분히 알 수 있었겠는가”라고 했다.

백대붕白大鵬은 전함사典艦司의 종인데, 시를 꽤 잘 지었다. 일찍이 취해서 길가에 누웠으니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이가 있었다. 대붕大鵬이 시로써 대답하

기를, "취해서 수유茱萸[6]를 꽂고 홀로 스스로 즐기노니, 산 가득한 밝은 달에 빈 병을 베개 하였네. 곁의 사람들은 뭐하는 자냐고 묻지 말라. 머리털이 희도록 풍진에 시달려 온 전함사의 종이라오(醉揷茱萸獨自娛 滿山明月枕空壺 傍人莫問何爲者 白首風塵典艦奴)"라고 했다.

유희경劉希慶은 천한 계급에서 나왔으나, 소탈하고 아존하며, 착한 일을 좋아하고, 어머니를 지극한 효도로 섬기는 것으로 이름이 있었다. 스스로 호를 시은市隱이라 했다. 그의 시 짓는 것이 매우 맑고 뛰어났다. "대 잎은 아침에 이슬을 기울이고, 소나무 가지에는 밤에 별이 걸리네, 돌은 이끼의 무늬를 띠고 늙었으며, 산은 비 기운을 머금고 푸르다(竹葉朝傾露 松梢夜掛星 石帶苔紋老 山含雨氣靑)"라고 한 글귀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내가 일찍이 그에게 시를 지어 주기를, "오직 당나라의 이백李白 · 두보杜甫만을 따르고, 송나라의 진후산陳后山 · 황산곡黃山谷은 배우지 않네. 눈 덮인 집에는 거문고와 책이 싸늘하고, 매화 피는 창 앞에는 웃음과 말이 향기가 나네(惟追唐李杜 不學宋陳黃 雪屋琴書冷 梅窓笑語香)"라고 했다.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정옥세鄭玉世는 천인賤人이다. 오강烏江[7]회고懷古의 시를 지어 말하기를 "만인萬人을 대적하는 무예를 배운 것이 무슨 소용이냐. 어지럽게 천하에 8년 동안의 전쟁만 일으켰네. 홍문鴻門의 잔치[8]를 헛되게 파하니, 모신謀臣이 울었고, 옥장막에서 미인의 노래가 슬프니 장사가 놀랐네. 달빛 검은 못 가운데서는 오추마烏騅馬(항우項羽가 탔었다는 준마駿馬)도 가지 않고, 바람이 쇠잔한 강 위에는 노

6 운향과芸香科에 속하는 낙엽교목落葉喬木. 열매는 기름을 짜서 머릿기름으로 쓰며, 또 9월 9일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열매를 머리에 꽂으면 사기邪氣를 물리친다고 함.

7 강 이름. 옛날 초楚나라의 항우項羽가 한漢나라의 유방劉邦에게 쫓겨 가다가 자살한 곳.

8 옛날 항우項羽와 유방劉邦이 홍문鴻門이라는 곳에 연회의 명목으로 모였던 일. 항우는 범증范增의 권유에 좇아 여기에서 유방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유방은 장량張良의 계책에 따라 무사히 위기를 모면했다. 이 기회에 유방을 죽이지 못한 것이 항우가 패망한 기틀이 되었다.

젓는 소리도 없구나. 영웅의 한 칼에 자문自刎한 천추千秋의 붉은 피는, 차가운 물결로 화하여 밤낮으로 우네〔學敵萬人何所用 紛紛天下八年兵 鴻門宴罷謀臣泣 玉帳歌悲壯士驚 月黑澤中騅不逝 風殘江上櫓無聲 英雄一劍千秋血 化作寒波日夜鳴〕"라고 했다.

강형수姜亨壽는 시정市井의 천인賤人이다. 그가 지은 시에 이런 글귀들이 있다. "문을 여니 눈이 석 자나 내렸는데, 저편 집에서는 5경更의 닭이 우네〔開門三尺雪 隔屋五更鷄〕" 또, "금중禁中의 종소리는 차가운 빗소리에 가렸고, 궁궐의 버들은 늦게 연기가 난다〔禁鐘寒翳雨 宮柳晩生烟〕"라고 했다.

20-2 규수시閨秀詩

《열녀전列女傳》에 말하기를, "유하계柳下季가 죽으니 그의 아내가 스스로 뇌문誄文[9]을 지었다"라고 했다. 《서경잡기西京雜記》에 말하기를,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죽으니 그의 아내 탁문군卓文君이 그를 위해 뇌문을 지었다"라고 했다. 나의 생각으로는, 탁문군이 칭찬을 받는 것은 아마 이 글 때문일 것이다.

소약란蘇若蘭의 이름은 혜蕙이니 진秦나라 부견符堅 때의 안남장군安南將軍 두도竇滔의 아내이다. 두도가 양양襄陽을 지킬 때에, 약란若蘭이 회문시回文詩[10]를 지어 비단으로 싸서 부쳐 보냈으니 이름하여 〈선기도璇璣圖〉라 한다. 모두 840글자로 시 3,752수를 만들었는데, 기교奇巧하기가 비할 데 없다. 무측천武則天(측천무후則天武后)이 서문을 썼다고 한다. 또 최홍崔鴻이 말하기를, "두도竇

9 죽은 사람에 대한 생전의 공덕을 찬양하는 뜻을 나타내는 글.

10 시詩의 특별한 체體. 전진前秦의 소백옥蘇伯玉의 아내가 반중시盤中詩 지은 것이 이 시체의 처음이다. 진秦나라 두도竇滔의 아내가 〈선기도璇璣圖〉를 지음에 이 시의 체제가 크게 갖추어졌다고 한다. 그 체는 시의 글귀를 바둑판처럼 늘어놓아 끝에서부터 읽어도, 중앙에서 선회하여 읽어도 모두 시가 되고, 평측平仄도 맞고 운韻도 맞게 짓는다.

滔가 유사流沙(사막沙漠의 옛 칭호)로 귀양 가니 그의 아내가 회문시를 지어 비단으로 싸 가지고 남편의 죄를 속죄했다"고 했다. 어느 설이 옳은지 알 수 없다.

《소설》에 말하기를, "목란木蘭은 여자로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10년 동안이나 변방의 수비에 나갔다 돌아오니, 어떤 사람이 그를 위하여 시를 지었다. 그러나 그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는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시詩 속에 가한可汗이라는 말이 있으니, 가한은 수隋나라 때부터 당唐나라까지 있었으니, 그가 살던 때가 수나라 때가 아니면 당나라 때라는 것을 알겠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고악부》의 〈목란시木蘭詩〉에 말하기를, "어젯밤에 군첩軍帖(군부軍部에서 보내는 통지서)을 보니, 가한이 대대적으로 군사를 점열點閱하고 있단다. 군서軍書 20권에 책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실려 있다. 아버지에겐 큰아들이 없고 목란에게는 큰형이 없다. 원컨대 안장과 말을 사서, 지금부터 아버지 대신 싸움터에 나가려 한다(昨夜見軍帖 可汗大點兵 軍書二十卷 卷卷有爺名 阿爺無大兒 木蘭無長兄 願爲市鞍馬 從此替爺征)" 운운했다. 번천樊川의 시에, "활을 당겨 가지고 싸움터에 나가서 사내 노릇을 한다(彎弓征戰作男兒)"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사문유취事文類聚》에서는 목란을 진晋나라 사람이라고 했다. 동진東晋 때에 유연柔然이 가한이라고 자칭하였으니, 《소설》에서 가한은 수나라 · 당나라 때부터 있었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다만 가한으로 본다면, 목란木蘭은 진晋나라 사람이 아니다. 아마 북조北朝의 사람일 것이다.

진陳나라의 여인女人 심만원沈滿願의 잔등殘燈을 읊은 시詩에 말하기를, "남은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꺼지려다가 다시 빛을 뿜는다. 오히려 한두 개의 불꽃이 남았으니 아직 명주옷 끈을 풀 수는 있네(殘燈猶未滅 將盡更揚輝 惟餘一兩焰 猶得解羅衣)"라고 했다.
위응물韋應物에게도 또한 잔등시殘燈詩가 있으니 말하기를, "홀로 푸른 창문을 오래 비추더니 차가운 여신餘燼을 따라 꺼지려 하네. 은자隱者가 장차 자려고

하여, 갑자기 띠를 풀다가 도로 맺어지네〔獨照碧窓久 欲隨寒燼滅 幽人將遽眠 解帶翻成結〕"라고 했다. 《요산당외기》에 "위시韋詩가 실은 심沈 여인의 시에서 나왔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위응물의 시는 별로 심 여인의 시를 그대로 쓴 것이 없다. 어찌 심 여인의 시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 심 여인의 시를 어떤 이는 기소유紀少瑜의 작품이라고 한다.

수양제隋煬帝의 후궁後宮은 무수하게 많아서 임금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많았다. 후부인侯夫人이라는 이가 있어서 갑자기 스스로 목매어 죽었는데 팔에 비단 주머니를 매달고 있었다. 거기에 시가 있으니 말하기를, "화장化粧을 하고 나니 스스로 한恨이 많고, 꿈이 좋으니 도리어 슬픔을 이루네. 봄이 오면 곳을 따라 날아다니는 버들개지 마음에도 따르지 못하는 이 몸이라네〔粧成多自恨 夢好却成悲 不及楊花意 春來隨處飛〕"라고 했다. 또, "비각에는 선훼仙卉를 잠그고, 조방雕房(조각한 방)에는 옥인玉人을 가두었네, 모연수군毛延壽君은 진정 무찔러 죽여야 하겠다. 왕소군王昭君의 고운 얼굴 그리기를 즐겨하지 않았으니〔秘閣扃仙卉 雕房鎖玉人 毛君眞可戮 不肯寫昭君〕" 운운했다. 시는 진실로 아름다우나 유탕流蕩하고 원망하고 성내는 생각이 있어서 칭찬할 만한 것이 못 된다.

당태종唐太宗의 서현비徐賢妃는 이름을 혜惠라고 한다. 정벌征伐을 간하는 소疏가 있는데, 그 문사文辭가 곱고 아름답다. 시도 또한 그러했다. 반첩여班婕妤 이후의 한 사람일 뿐이다. 나이 23살에 죽었으나, 대체로 여자 중 왕자안王子安(왕발王勃이니 그도 일찍 죽었다)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소疏는 또 왕자안王子安도 능히 그만큼 지을 수 없을 것이다.

당명황唐明皇의 시녀 강채빈江采蘋이 글을 잘 지었다. 성질이 매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름을 매비梅妃라고 했다. 뒤에 태진太眞(양귀비楊貴妃)이 은총를 빼앗으니 상양궁上陽宮으로 옮겼다. 임금이 그를 생각하여 진기한 구슬 1곡斛(10말의

용량)을 봉해서 비밀히 보내 주었더니, 비妃가 받지 않고 시를 지어 사자使者에게 부치기를, "계수나무 잎 같은 쌍눈썹을 오래도록 그리지 않았는데, 남은 화장이 눈물에 섞여 붉은 비단 옷을 적십니다. 긴 문에 날이 다하도록 머리 빗고 세수하는 일이 없으니, 어찌 반드시 진주가 적막하고 쓸쓸함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桂葉雙眉久不描 殘粧和淚濕紅綃 長門盡日無梳洗 何必眞珠慰寂寥)"라고 했다. 《품휘品彙》에서 이 시를 양귀비의 작품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두고杜羔가 과거에 낙제하고 집에 돌아가려 하니 그의 아내 조씨趙氏가 시를 지어 보내기를, "낭군께선 명백하게 뛰어난 재주가 있는데 어째서 해마다 낙제하고 돌아오십니까. 이제는 첩의 낯이 임의 낯 보기가 부끄러우니, 임이여 집에 도착할 때에는 밤 들어서 오소서(良人的的有奇才 何事年年被放廻 如今妾面羞君面 君到來時近夜來)"라고 했다. 고羔가 그 시를 받아보고는 곧 돌아가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다고 한다. 아내가 또 시를 짓기를, "낭군께서 뜻을 이루고 한창 나이 젊으니, 오늘 밤에 취하여 어느 곳 청루靑樓에서 자는지(良人得意正年少 今夜醉眠何處樓)"라고 했다.

화예부인花蘂夫人[11]의 궁사宮詞 28수 가운데서, "수라간에서 올리는 음식에는 철따라 새 식품이 가득히 모였는데, 모시고 앉은 이는 측근의 신하 아닌 사람 없네(御廚進食簇時新 列坐無非侍近臣)"라든가, "해가 낮이 되니 전두殿頭(내공봉內供奉을 맡은 관원)가, 임금께서 물고기 회를 찾는다고 말하니, 꽃을 사이에 두고 물고기 회 치는 사람을 재촉해 부른다(日午殿頭宣索鱠 隔花催喚打魚人)"라든가, "곧 홍수紅樹를 옮기고 푸른 이끼를 깎아, 용지龍池를 다시 파서 만들게 하라는 어명을 전하네. 푸른 물결이 넓기가 바다 같음을 펴서 얻으니 물 가운데의 누전이 봉래보다 더 좋구나(旋移紅樹斲靑苔 宣使龍池再鑿開, 展得綠波寬似海 水心樓殿勝蓬

11 여기에서는 오대五代 후촉後蜀의 임금인 맹창孟昶의 부인을 가리키고 있다. 성은 비費, 청성靑城 사람. 문장文章이 뛰어났다. 왕건王建의 궁사宮詞를 본받아 궁사 100수를 지었다.

萊〕”라든가, “아름다운 낯에 새벽 화장이 이루어지니, 꽃가지 훔쳐 꺾어 가지고 물가를 따라가다가, 도리어 내관內官에게 멀리서 들켜, 짐짓 홍두紅豆나무로 꾀꼬리를 치네〔春風一面[12]曉粧成 偷折花枝傍水行 却被內官遙噓見 故將紅豆打黃鶯〕”라든가, “이원제자梨園弟子[13]가 못가에 모여 물약을 갖고 와서 연유燕遊에 문안드리네. 시험 삼아 은피리를 잡고 먼저 박자를 맞춰 보니, 해당화 아래에서는 양주곡梁州曲이 알맞겠네〔梨園弟子簇池頭 水藥携來候燕遊 試挾銀笙先按拍 海棠花下合梁州〕”라든가, “월초月初마다 꽃 살 돈 나누어줄 때면 궁전에 가득한 궁녀들이 수천 명에 가깝다오. 이름을 불리게 되면 많이는 대답하지 않은 채, 부끄러운 태도로 어상御床 앞을 달아나 지나가네〔月頭支給買花錢 滿殿宮娥近數千 遇着唱名多不應 含羞走過御床前〕”라든가 하는 이러한 글귀들이 가장 아름답다. 다만 왕건王建의 궁사宮詞에 나오는 용어를 많이 습용하고 있다.

송나라 조조曹組의 어머니 왕씨王氏가, “미인이 눈 속에서 오는 것을 보고 시를 지어 말하기를, 양왕이 연회를 파하고 요대를 내려가니, 좁고 좁은 붉은 신발이 눈으로 걸어오네. 마치 양춘陽春의 늦은 삼월에 버들개지 날리는 곳에 모란이 핀 것 같구나〔梁王宴罷下瑤臺 窄窄紅鞋步雪來 恰似陽春三月暮 楊花飛處牡丹開〕”라고 했다.

송나라의 이안거사易安居士 이씨李氏는 조정지趙挺之의 며느리이다. 재주가 뛰어나며 학식이 넓었고, 그의 시詩와 사詞는 세상에 전하는 것이 많다. 당唐나라의 여관女冠(여도사女道士) 이야李冶의 자는 계란季蘭이니, 여자의 시호詩豪로는 이 두 사람이다. 상고하여 보니, 이안易安은 늙어서 절개를 잃었으니 일컬을 만

12 미인의 아름다운 얼굴.

13 연극의 배우. 배우가 연기를 배우는 곳. 당현종唐玄宗이 장안長安의 금원禁苑 안에 있는 이원梨園에 자제子弟 300명을 뽑아서 속악俗樂을 배우게 하고, 또 궁녀 수백 명을 의춘宜春 북원北院에 두고 이원제자梨園弟子라고 한 고사故事에서 온 말.

한 사람이 못 된다.

송나라 때에 한 부인은 그의 남편이 상상上庠(대학大學)에 있었는데, 신과 버선을 부치면서 시를 지어 보내기를, "잘 가져서 푸른 구름 위를 온건하게 걷고, 평강을 향하여 함부로 티끌을 일으키지는 말아요(好將穩步靑雲上 莫向平康謾惹塵)"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평강平康은 마을의 이름이니, 당나라의 여러 기녀妓女들이 사는 곳이다.
또 명나라의 심우沈愚는 비단신을 두고 율시律詩를 지어 말하기를, "남쪽 언덕에서 푸른 것을 밟으니 봄이 자취가 있고, 서쪽 집에서 달에 섰으니 밤에 소리가 없다. 꽃을 보느라고 또 창태蒼苔(푸른 이끼)의 이슬에 젖었기에 말리려고 창 앞의 늦은 햇볕을 향하여 달려가네(南陌踏靑春有跡 西廂立月夜無聲 看花又濕蒼苔露 晒向窓前趁晩晴)"라고 했다.

주숙진朱淑眞의 〈원석사元夕詞〉에 말하기를, "지난해 정월 보름날 밤에는, 꽃 저자에 등불이 낮과 같았네. 달은 버들가지 위에 올라오고, 사람은 황혼 뒤를 약속하더니, 금년의 정월 보름밤에도 달과 등불은 예나 다름이 없건만, 거년의 사람을 볼 수 없어서 눈물이 봄 적삼의 소매를 적시네(去年元夜時 花市燈如書 月上柳梢頭 人約黃昏後 今年元夜時 月與燈依舊 不見去年人 淚濕春衫袖)"라고 했다. 숙진淑眞은 송나라 때의 재주 있는 여인이다.

《소설》에, 여승女僧이 도를 깨닫는 시에서 말하기를, "날이 저물도록 봄을 찾았으나, 봄을 보지 못한 채 짚신으로 고루 언덕 위의 구름을 밟고 다녔더니, 돌아와 웃으며 매화를 비틀어 냄새를 맡으니, 봄이 가지 위에 있음이 이미 십분일세(盡日尋春不見春 芒鞋踏遍隴頭雲 歸來笑撚梅花嗅 春在枝頭已十分)"라고 했다. 즐겨할 만하다.

고려 충선왕忠宣王이 원元나라에 들어가서 한 사람의 미희美姬를 사랑하였는데,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길 위에서 연꽃 한 송이를 추증追贈하였더니, 희姬가 감사하여 시를 부쳐 보내기를, “연꽃 한 송이를 보내주셔서 처음 왔을 때엔 눈부시게 붉더니, 가지를 떠난 지가 이제 며칠인지 파리하기가 나와 같아요〔贈送蓮花片 初來的的紅 辭枝今幾日 憔悴與人同〕”라고 했다. 그 사詞가 곱고 맛이 있다. 이 일은 《용재총화慵齋叢話》에 자세히 나온다.

종실宗室 숙천령肅川令의 내자內子는 시를 잘 지었다. 어릴 때에 비를 읊어 말하기를, “옥 새끼줄은 처마에 곧게 이었고 은방울은 땅에 둥글게 떨어진다〔玉索連簷直 銀鈴落地圓〕”라고 했다. 또 선조대왕宣祖大王 초년의 거둥을 구경하고 시를 짓기를, “하늘에는 새로운 일월日月이고, 수레 아래에는 옛 백성일세〔天中新日月 輦下舊臣民〕”라고 했다.

난설헌蘭雪軒 허씨許氏는 정자正字 김성립金誠立의 아내이니, 근대의 규수작가閨秀作家로서 제1인자이다. 일찍이 죽었으나 시집詩集이 있어서 세상에 돌아다닌다. 평생에 부부 사이의 의가 좋지 않아서 원망하고 생각하는 작품이 많다. 그의 〈채련곡采蓮曲(연 캐는 노래)〉에는 말하기를, “가을이 깨끗하니 긴 호수는 푸른 옥이 흐르는 것 같구나. 연꽃 깊은 곳에 난주蘭舟(목란木蘭)으로 만든 아름다운 배를 매네. 낭군을 만나 물을 사이에 두고 연밥을 던져주다가, 멀리 남의 눈에 띄어서 한나절 부끄러워하네〔秋淨長湖碧玉流 荷花深處繫蘭舟 逢郎隔水投蓮子 遙被人知半日羞〕”라고 했다. 중국 사람이 그의 시집을 사 가지고 가서, 《이담耳談》에 넣기까지에 이르렀다.

김성립金誠立이 젊었을 때 강사江舍에서 글을 읽고 있었더니, 그의 아내 허씨가 시를 지어 보내기를, “제비가 비낀 처마를 스치면서 둘씩 나는데, 떨어지는 꽃이 어지럽게 명주옷을 치네. 동방洞房에서 눈〔目〕 가득한 봄을 슬퍼하는 뜻은,

강남에 풀은 푸르렀건만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서일세(燕掠斜簷兩兩飛 落花撩亂撲羅衣 洞房極目傷春意 草綠江南人未歸)"라고 했다. 이상의 두 작품은 유탕流蕩에 가깝기 때문에 시집 속에는 싣지 않았다고 한다.

난설헌의 시집 속에, 봉숭아꽃으로 손가락을 물들이는 노래는 명나라 사람의, "그 손가락을 거울에 떨치니 불별이 밤달에 흐르는 것 같고, 눈썹을 그리니 붉은 비가 봄 산을 지나는 것 같다(拂鏡火星流夜月 畫眉紅雨過春山)"라고 한 글귀를 전부 따다가 점화點化(전인前人이 만든 시문詩文을 고쳐 새로운 체재를 내놓음)한 것이다. 〈유선사遊仙詞〉 가운데의 2편은 바로 당唐나라 조당曹唐의 시이고, 궁인宮人이 중이 되어 가는 것을 보내는 한 편의 율시律詩는 명나라 사람 당진唐震의 시다. 그 밖의 악부樂府·궁사宮詞 등의 작품은 옛 시를 훔쳐 쓴 것이 많다.
그런 까닭에 참의參議 홍경신洪慶臣과 정랑正郎 허적許嫡은 한 집안 사람들로, 항상 말하기를, "난설헌의 시는 2, 3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작僞作이다. 그리고 그의 백옥루白玉樓 상량문上樑文도 또한 허균許筠이 이재영李再榮과 함께 찬술한 것이다"라고 했다.

근세의 부인으로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의 야행시夜行詩(밤길을 가면서 지은 시)에 말하기를, "깊은 산속의 물은 차갑고 아직 달은 나오지 않았는데, 칡은 컴컴하게 땅에 드리워 있고, 사람 다니는 일이 드물다. 촌집이 앞 봉우리 밖에 있다는 것을 알겠구나. 맑은 안개와 성긴 별에 한 다듬이 소리가 들려오니(幽澗冷冷月未生 暗藤垂地少人行 村家知在前峯外 淡霧疎星一杵鳴)"라고 했다.

또 가위를 두고 지은 시에는 말하기를, "뜻이 있어서 두 가슴을 합했고, 정이 많아서 두 다리를 연다. 움직이고 흔드는 것은 나에게 달렸지만, 깊게 하고 얕게 하는 것은 그대에게 맡겨둔다(有意雙胸合 多情兩股開 動搖於我在 深淺任君裁)"라고 했다. 말은 교묘하나 지나치게 외설스럽다.

20-3 기첩시妓妾詩

상고하여 보니 소소소蘇小小는 전당錢塘의 명기名妓이니, 동진東晉 때의 사람이다. 백낙천白樂天 · 유몽득劉夢得의 시에 그를 칭찬해 읊은 것이 많다. 상고하여 보니 백낙천의 시에, “소씨蘇氏 집의 소녀 이름은 간간簡簡인데, 부용의 꽃 같은 빰이고, 버들잎 같은 눈이라네(蘇家小女名簡簡 蓉芙花腮柳葉眼[14])”라고 한 것이 아마 이 사람일 것이다.

당나라의 어현기魚玄機는 시사詩詞를 잘 지었다. 처음에 여관女冠이 되었다. 그의 시에 이런 것이 있다. “버드나무 늘어진 동쪽 서쪽에서 손의 배에 벗이 되었네(楊柳東西伴客舟).” 또 말하기를, “꿈에 나비가 되어서도 또한 꽃을 찾겠네(蒙爲蝴蝶亦尋花)”라고 했다. 뒤에 간음으로 죽임을 당했다. 소위 여자의 탐욕은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설도薛濤는 본래 양가良家의 여자이다. 어렸을 때에 우물가의 오동나무를 두고 지은 시에 말하기를, “가지는 남쪽 북쪽의 새를 맞이하고, 잎은 오고 가는 바람을 보낸다(枝迎南北鳥 葉送往來風)”라고 했다.
또 송나라 때에 한 소녀가 들꽃을 두고 지은 시에는 말하기를, “다정한 초부樵夫(나무꾼)와 목동牧童은 자주 머리에 꽂고, 주인 없는 벌과 꾀꼬리에게는 잠자는 방으로 내맡긴다(多情樵牧頻簪髻 無主蜂鶯任宿房)”라고 했다. 뒤에 두 소녀는 모두 창녀가 되었다고 한다. 시는 그 사람의 성정에서 나온다고(詩出性情) 한 말은 진실로 그러한가 보다.

육방옹陸放翁의 첩은 역졸驛卒의 딸이다. 시를 지은 것이 있다. “다만 눈썹 위에 나타난 수심만을 알고, 수심이 오는 길은 알지 못한다. 창 밖에 파초가 있

14 유엽미柳葉眉라고도 한다. 버들잎처럼 가늘고 예쁜 눈썹을 가진 눈. 미인美人의 아름다운 눈.

으니, 줄기줄기 황혼의 비가 우네. 새벽에 일어나 새 단장을 꾸미고, 정돈하여 수심을 가게 하려 하여, 춘산春山 미인의 눈썹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겠네. 여전하게 수심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테니〔只知眉上愁 不識愁來路 窓外有芭蕉 陣陣黃昏雨 曉起理新粧 整頓敎愁去 不合畫春山 依舊留愁住〕”라고 했다. 좋다.

첨지僉知 조원趙瑗의 첩 이씨李氏의 호는 옥봉玉峯이다. 여강驪江으로 가는 사람을 송별하는 시에 말하기를, “신륵사神勒寺·연파사煙波寺이고, 청심루淸心樓·설월루雪月樓일세〔神勒烟波寺 淸心雪月樓〕”라고 했다. 이것을 뜻으로 새기면 “정신은 연기 어린 물가에 있는 절에 빼앗기고, 마음은 눈과 같이 깨끗한 누에서 맑아지겠네”라는 말이다.
찾아온 사람에게 사례하여 말하기를, “음수飮水는 문군文君의 집이고, 푸른 산은 사조의 집이라네. 뜰의 흔적은 빗속의 나막신 자국인데 문에는 눈 속에 나귀가 이르렀구나〔飮水文君宅 靑山謝眺廬 庭痕雨裡屐 門到雪中驢〕”라고 했다. 음수는 그가 사는 곳의 지명이다.

그의 〈노산묘시魯山墓詩〉에는 말하기를, “오일장관五日長關을 사흘 걸러 넘어와서, 노릉魯陵의 구름을 끊고 애사를 읊네. 첩의 몸도 또한 왕손의 딸이니, 이곳의 두견새 소리 차마 듣지 못하겠네〔五日長關三日越 哀詞吟斷魯陵雲 妾身亦是王孫女 此地鵑聲不忍聞〕”라고 했다.
또 〈규정시閨情詩〉에는 말하기를, “언약이 있었건만 어찌하여 늦는가, 뜰의 매화는 지려고 하는데. 홀연히 가지 위의 까치 소리 듣고, 헛되게 거울 속의 눈썹을 그리네〔有約郎何晩 庭梅欲謝時 忽聞枝上鵲 虛畫鏡中眉〕”라고 했다. 아름답다.

조원趙瑗의 첩 이씨李氏는 글을 잘 지었다. 어떤 한 촌부村婦가 그의 남편이 소를 훔쳤다는 혐의로 옥에 갇혔다. 이씨가 그를 위하여 소장訴狀을 써 주는데 그 끝에다 말하기를, “첩의 몸은 직녀가 아닙니다. 남편이 어찌 견우牽牛(소를

몰고 간다는 뜻)일 수 있겠습니까(妾身非織女 郎豈是牽牛)"라고 했다. 태수太守가 보고 기이하게 여겨 마침내 석방했다고 한다.

《요산기堯山紀》를 살펴보니, 이백李白이 아직 이름이 없을 때에, 소를 몰고 고을 수령이 앉은 마루 아래를 지나가니 수령의 아내가 성내어 꾸짖었다. 이백이 시를 지어 사과하기를 "만약 직녀가 아니라면 어찌 소를 몰고 가는 자(牽牛)를 물을 수 있겠습니까(若非是織女 何得問牽牛)"라고 하니, 수령이 놀라고 기이하게 여겼다고 한다. 또 이 글귀는 《시학대성詩學大成》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소를 훔쳤다고 하는 경우에 인용한 것은 즐겨할 만하다.

양사문楊斯文 사기士奇의 첩이 사詞를 지을 줄 알았다. 사기士奇가 풍천부사豐川府使로 안악安岳에 가서 돌아오지 않으니, 그의 첩이 시를 지어 보내기를, "슬프게 먼 길 바라보며 사립짝을 닫지 않고 섰노라니, 밤이 깊어 바람과 이슬에 명주옷이 젖네. 양산관楊山館 안에는 꽃이 1,000그루나 있다는데, 날마다 날마다 꽃을 보느라고 돌아오지 않으시는가(悵望長途不掩扉 夜深風露濕羅衣 楊山館裡花千樹 日日看花歸未歸)"라고 했다. 양산楊山은 안악安岳의 다른 이름이다.

천창賤娼 취선翠仙의 호는 설죽雪竹이다. 그의 시에 이런 것이 있다. "봄단장을 재촉해 마치고, 거문고의 음운을 조정하노라니, 구슬 발 가볍게 밝으면서 아침 해 붉게 올라오네. 밤에는 향기로운 안개가 많은데, 아침 이슬이 무거워, 해당화는 작은 담 동쪽에서 울고 있구나(春粧催罷倚焦桐 珠箔輕明日上紅 香霧夜多朝露重 海棠花泣小墻東)"라고 했다. 또 "동천洞天은 물과 같고 달빛은 푸른데, 나뭇잎은 소소하고 밤에는 서리가 오네. 12폭 비단 주렴에 사람이 홀로 자노라니, 도리어 옥병풍에 그려진 한 쌍의 원앙이 부럽구나(洞天如水月蒼蒼 樹葉蕭蕭夜有霜 十二緗簾人獨宿 玉屛還羨畫鴛鴦)"라고 했다.

계랑桂娘이라는 자는 부안扶安의 천창賤娼이니, 스스로 호를 매창梅窓이라고 했다. 일찍이 어떤 나그네가 그의 명성을 듣고 시를 지어 보내서 부추기니, 계랑이 즉시 차운次韻하여 말하기를, "평생에 동쪽 집에서 밥 먹고 서쪽 집에서 잠자는 일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화 창문에 달그림자 비낀 것을 사랑할 뿐이지요. 글 하는 사람들이 나의 그윽하고 한아閑雅한 뜻을 알지 못하여, 행운行雲(연정戀情)을 지점指點(어느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킴)하는 일이 부질없이 스스로 많답니다(平生不學食東家 只愛梅窓月影斜 詞人不識幽閑意 指點行雲枉自多)"라고 했다. 그 사람이 섭섭한 마음으로 갔다고 한다. 계랑이 평일에 거문고와 시를 좋아하였으므로 죽은 때에 거문고를 부장품副葬品으로 묻어 주었다고 한다.

20-4 가사歌詞

《설부》에 말하기를, "일정한 법칙이 없는 곡조를 요謠라고 하고, 제齊나라의 노래를 구謳라고 하며, 오吳나라의 노래를 유歈라고 하고, 초楚나라의 노래를 염艶이라고 하며, 군사軍士를 정제整齊하여 행진하는 노래를 개凱라고 한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옛 시에, "오유초염吳歈楚艶이라고 한 말의 염艶을 지금 사람들이 아름답고 곱다는 뜻으로 아는 것은 잘못이다."

《요산당외기》에 말하기를, "송나라 사람이 전사塡詞[15]를 뽑고 〈초당시여草堂詩餘〉라고 했다. 초당草堂은 태백太白의 시의 이름이니, 《초당집草堂集》이라는 것이 정초鄭樵의 도서 목록에 보인다. 이백李白은 본래 촉蜀의 사람으로서, 초당은 촉에 있다. 그러니 고국을 그리워하는 뜻이다."
시여詩餘라고 하는 것은, 사詞는 시의 나머지라는 뜻이다. 100대代의 가사와

15 시여詩餘 · 사詞라고도 한다. 한시漢詩의 한 체體. 악부樂府에서 변화한 일종의 사곡詞曲으로서, 악부의 음부音符에 맞추어 자구字句를 메우기 때문에 전사塡辭라고 한다.

가곡의 조상이다. 상고하여 보니, 두보杜甫도 또한 호를 초당이라고 했다. 세상에서는 모두 두보의 호가 초당인 것은 알지만, 이백李白의 초당은 알지 못한다.

왕세정이 말하기를, "우리 명나라에서 사詞의 명가名家인 유백온劉伯溫의 사는 풍부하고 섬세하여 운치가 있으나, 송나라 것에 비하면 아직 조금의 차이는 있다. 하공근夏公謹의 사는 가장 웅대하고 상쾌하다고 하지만, 신가헌辛稼軒에 비하면 정사情思가 적은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시詩 300편이 없어진 뒤에 소부騷賦[16]가 생기고, 소부가 악부樂府에 들어가기 어렵게 된 뒤에 고악부古樂府가 생겼으며, 고악부가 소악俗樂에 들어가지 않게 된 뒤에 당唐나라의 절구絕句가 악부로 되고, 절구가 변화함이 적다고 한 뒤에 사詞가 되었다"라고 했다. 대체로 사詞가 송나라 때에 크게 성盛하였으므로 명나라 사람은 그것에 따라갈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묵객휘서墨客揮犀》에 말하기를, "소자첨蘇子瞻이 스스로 말하기를, '평생에 3가지 남만 못한 것이 있다'라고 했다. 그것은 바둑 두는 것, 술 마시는 것, 가곡歌曲을 창唱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의 사詞가 비록 공교하나 노래의 곡조에 맞지〔入腔〕[17] 않는 것이 많았다. 바로 가곡을 창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말을 보니 우리나라 사람이 음률音律을 이해하지 못하니, 비록 작은 사詞를 지은들 그것이 곡조에 맞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왕세정이 말하기를, "가歌나 행行에 있어 헌길獻吉(명나라 이몽양李夢陽의 자)은 용

16 문장의 한 체재. 초楚나라의 굴원屈原이 〈이소離騷〉를 지은 데에서 시작되어 그를 조술祖述하는 유파의 작품인 시부詩賦를 일컫는 말.

17 강조腔調, 즉 음악의 곡조에 맞음.

과 같은 존재이고 중묵仲默(명나라 하경명何景明의 자)과 우린于鱗(명나라 이반룡李攀龍의 자)은 기린 같고 봉황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봉의 바탕에 용의 변화를 가진 자를, 나는 그러한 말은 들었으나 아직 그러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것은 아마 왕세정이 자신을 자랑하는 말일 것이다. 또한 지나치게 풍을 치고 있다.

상고하여 보니 한漢나라 명제明帝가 태자太子로 책봉되었을 때에, 여러 신하들이 가시歌詩 4장章으로 태자의 덕을 찬양했다. 첫째는 해가 거듭 빛나고〔日重光〕, 둘째는 달이 거듭 둥글며〔月重輪〕, 셋째는 별이 거듭 빛나며〔星重輝〕, 넷째는 바다가 거듭 윤택하다는〔海重潤〕 것이었다. 태자의 덕에 비한 것이기 때문에 거듭이라고 한 것이다. 대체로 밝음이 거듭한 것으로 이괘离卦의 뜻[18]을 취한 것이다.

《소설》에, "당나라 선종宣宗이 애창하던 〈보살만사菩薩蠻詞〉에 말하기를, '모란꽃이 이슬을 띠니 진주알 같구나. 미인이 꺾어 들고 뜰 앞을 향하여 가다가, 부끄러움을 머금고 낭군에게 묻는다. 꽃이 더 고운가 내가 더 고운가'라고, 낭군이 짐짓 놀려주려고 '다만 꽃가지가 좋아'라고 한다. '한 번 낭군을 향하여 애교스럽게 성내고 꽃을 찢어 비벼서 임을 치네〔牧丹帶露眞珠顆 佳人折向庭前過 含羞問檀郎 花强妾皃强 檀郎故相惱 只道花枝好 一向發嬌嗔 碎挼花打人〕'라고 했다. 이 사詞가 진실로 좋고 아름답다"라고 했다.

궁사宮詞는 당나라 왕건王建의 작품이 100편, 송나라 왕규王珪의 작품이 100

18 《역경易經》에서 불을 상징하는 괘 둘을 포개어 밝음이 거듭됨을 상징하는 이괘离卦가 되었는데, 그 괘사卦辭의 대상大象에 "밝은 것을 상징하는 이离가 겹쳤으니, 대인이 밝음을 계승하여 사방에 비친다〔明兩作离 大人以繼明 照于四方〕"라고 했다. 태자는 임금의 밝음을 이어 장차 사방에 광명을 비칠 자이므로 이괘离卦로 태자를 상징한 것이다.

편, 휘종徽宗의 작품이 100여 편 있다. 일찍이 중국 사람이 이것들을 모아서 한 사집詞集을 만든 것을 보니, 중초仲初(왕건王建의 자字)의 작품은 진실로 좋다. 우옥禹玉(왕규王珪의 자字)의 작품도 또한 잘되었다. 휘종의 작품은 모두가 아름답지는 못했다.

송나라 인종仁宗 때에 노인성老人星이 보이니, 유기경柳耆卿이 내시에게 청탁하여, 〈취봉래사醉蓬萊辭〉라는 축하의 사詞를 올렸다. 인종仁宗이 훑어보다가, 첫 글귀 “점정고엽하漸亭皐葉下”라고 한 것에서 점漸 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신유봉련하처宸遊鳳輦何處(임금의 노니는 수레는 어디에 있는고)”라는 글귀에 이르러서는 어딘가 진종眞宗의 만가挽謌와 비슷하여 오래도록 슬픈 빛을 지었다. “태액파번太液波翻(태액지太液池에 물결이 뒤친다)”이라는 글귀에 이르러서는 분연히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어째서 태액에 물결이 맑다고〔太液波澄〕 하지 않았는가” 하고는 땅에 던져버린 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왕세정이 말하기를, “유기경柳耆卿의 사詞가 촉휘觸諱[19]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간의 글이 노인성老人星이 나타난 것을 형용하지 못하여 스스로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유기경이 내시에 청탁하여 그를 매개로 하여 올렸으니, 인종仁宗이 그 사람을 얕게 여겼을 것은 마땅하다. 다만 그의 사詞가 아름답지 않다는 것만 이 이유는 아닐 것이다.

안숙원晏叔原의 〈자고천사鷓鴣天詞〉에 말하기를, “이별한 뒤로부터 서로 만나기를 생각하여 몇 번이나 혼이 꿈에서 그대와 함께 하였던고, 오늘밤에는 은등잔에 촛불을 넉넉히 가져다가 비쳐 보노니, 오히려 우리 서로 만난 것이 꿈

19 높은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즉 어른의 휘자諱字를 바로 부르는 것. 촉기觸忌와 같으니 남이 꺼리고 싫어하는 일을 건드려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위.

속이나 아닌가 두렵기에(從別後憶相逢 幾回魂夢與君同 今宵剩把銀釭照 猶恐相逢是夢中)"라고 했다. 아름답다.

안숙원의 사詞에 이런 것이 있다. "양류루 안의 달은 춤추다 보니 낮아졌구나. 도화선 바람 앞에 노래를 불러 다하네(舞低楊柳樓心月 歌盡桃花扇底風)"라고 했다. 또, "아침 구름 소식이 끊어졌으니, 간 곳이 어디인가. 아마 무산巫山 양지쪽의 봄꿈이 되어 갔을 것이다. 붉은 빛 준마가 예전에 놀던 자취를 알고 있어서, 그림 그린 다리의 동쪽 길을 소리쳐 울며 지나가네(朝雲信斷知何處 應作巫陽春夢去 紫騮認得舊遊踪 嘶過畫橋東畔路)"라고 했다.

송나라 신유안辛幼安이 제題한 〈강서사江西詞〉에 말하기를, "강이 석양이 되니 바로 나를 근심하게 하는구나. 산은 깊은데 자고새 소리를 듣네(江晚正愁予 山深聞鷓鴣)"라고 했다. 나태경羅太經이 말하기를, "송나라가 남쪽으로 건너 온 처음에 오랑캐가 융우태후隆祐太后를 뒤쫓아 와 조구造口에 이르렀으나,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다. 자고새 소리를 들으니 회복할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자고새는 뜻이 남쪽을 향하고 있다. 비록 동쪽 서쪽으로 날아다니더라도 날개를 처음 펼 때에는 반드시 먼저 남쪽을 향해 날아오른다고 한다. 내 생각으로는 유안幼安의 이 글귀는 아마 송나라가 남쪽으로 옮겼으나, 오랑캐를 피하여 더욱 남쪽으로 가라는 것을 말한 것일 것이다.

원元나라 사람의 사詞에 말하기를, "연한 푸른 빛 못은 잠자는 오리를 감추고, 맑게 누른 버드나무에는 깃들인 까마귀가 누른빛을 띠네(嫩綠池塘藏睡鴨 淡黃楊柳帶棲鴉)"라고 했다. 아래 글귀는 바로 송나라 하방회賀方回의 사詞의 글귀이다. 비록 노련하고 기운찬 맛은 없으나, 또한 스스로 아름답다. 다만 위 글귀는 자못 떨어진다. 또 장藏 자가 알맞지 않다.

명묘조明廟朝에 대궐 동산의 황국黃菊을 꺾어 옥당관玉堂官에게 내려주고 가사歌詞를 지어 올리라고 명령했다. 옥당관이 창졸간에 지을 수가 없었다. 그때 송순宋純이 재상으로서 총부摠府에 번 들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빌어 지어 올렸더니, 임금이 보고는 놀라고 기뻐하여 이 가사를 지은 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옥당관이 감히 숨기지 못하고 사실대로 대답했다. 드디어 크게 상을 내렸다고 한다. 그 사詞가 지금까지 악부樂府에 전하고 있다.

이오성李鰲城이 중국 장수將帥의 접반사接伴使가 되었을 때에, 중국 장수가, 우리나라 사람이 노래 부르는 것을 듣고 그 뜻을 물었다. 오성鰲城이 글로 써서 보이기를, "옛날이 진실로 이와 같았으니 이 몸을 어떻게 지탱하랴. 수심은 실이 되어 굽이굽이 도로 매듭을 짓네. 풀고자 하고 다시 또 풀고자 하건만, 끝 있는 곳을 알지 못하겠네〔昔日苟如此 此身安可持 愁心化爲絲 曲曲還成結 欲解復欲解 不知端在處〕"라고 하니, 중국 장수가 좋다고 칭찬했다. 상고하여 보니, 강백가康伯可의 〈규정사閨情詞〉에 말하기를, "이번의 생각하는 마음은 한 치 창자가 일천 올의 실이 되네〔此度相思 寸腸千縷〕"라고 했다. 대체로 사思와 사絲는 음이 같기 때문이다. 이의산李義山의 시에, "봄누에가 죽기에 이르니 실이 바야흐로 다하였네〔春蠶到死絲方盡〕"라고 한 것도 또한 이러한 뜻이다.

우리나라의 가사歌詞는 방언方言을 섞어서 지었기 때문에 중국의 악부樂府와 나란히 견줄 수 없다. 근세의 송순宋純 · 정철鄭澈의 작품이 가장 좋으나, 사람 입에 널리 오르내리는 일에 그침에 불과하니 애석하다. 긴 노래로는 〈감군은感君恩〉 · 〈한림별곡翰林別曲〉 · 〈어부사漁父詞〉가 가장 오래되었고, 근세에는 〈퇴계가退溪歌〉 · 〈남명가南冥歌〉, 송순宋純의 〈면앙정가俛仰亭歌〉, 백광홍白光弘의 〈관서별곡關西別曲〉, 정철鄭澈의 〈관동별곡關東別曲〉 · 〈사미인곡思美人曲〉 · 〈속사미인곡續思美人曲〉 · 〈장진주사將進酒詞〉 등이 널리 세상에 유행된다. 그 밖에는 〈수월정가水月亭歌〉 · 〈역대가歷代歌〉 · 〈관산별곡關山別曲〉 · 〈고

별리곡古別離曲〉·〈남정가南征歌〉 등 종류가 매우 많다. 나에게도 또한 〈조천곡朝天曲〉 전후前後의 2곡이 있으나 또한 유희일 뿐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고공가雇工歌〉는 선왕先王께서 지으신 거라고 한다. 세상에 널리 유행하고 있다. 완평完平 이원익李元翼이 또 〈고공답주인가雇工荅主人歌〉라는 것을 지었다. 그러나 내가 들으니, 어제御製가 아니고 허전許塡의 작인 것을 세상에서 잘못 전한 것이라고 한다. 허전은 진사進士로서 무과武科에 급제한 사람이다.

20-5 여정麗情

한창려韓昌黎의 시에 말하기를, "이별한 이래로 버드나무는 길가의 나무여서, 봄바람에 헤쳐 어지럽게 되어 다만 날고자 할 뿐인데, 오직 동산 속에 작은 복숭아나무가 있어서 꽃을 머물러 두고 피지 않은 채 낭군 돌아오기를 기다리네〔別來楊柳街頭樹 擺亂春風只欲飛 惟有小桃園裏在 留花不發待郎歸〕"라고 했다. 《소설》을 상고하여 보니, 한퇴지韓退之에게는 시첩侍妾이 있었는데, 이름을 유지柳枝·강도絳桃라고 했다. 퇴지退之가 왕정주王庭湊에게 사자로 갔다가 돌아오니, 유지柳枝는 달아나 버렸다. 이때부터 오로지 뜻을 강도絳桃에게만 쏟았다고 한다. 지금 퇴지가 도중에서 지은 시에 말하기를, "동산의 복숭아꽃도 거리의 버들도 보이지 않고 말 머리에는 오직 둥글고 둥근 달이 있을 뿐이로구나〔不見園桃并巷柳 馬頭惟有月團團〕"라고 했다. 소위 원도園桃니 항류巷柳니 하고 말한 것도 또한 가리킨 것이 있었던 것이다.
그의 태산泰山 북두北斗 같은 문장으로도 희첩姬妾이 오히려 버리고 가는 자가 있었으니, 이것으로 백낙천白樂天이 첩을 스스로 내보낸 것이 가장 마땅함을 알겠다.

백낙천白樂天이 비첩婢妾을 잃고 지은 시에 말하기를, “집 주위에는 작은 담이 낮고, 방리坊里의 문에는 방첩榜帖(게시문)이 더디었네. 옛 은혜는 스스로 박정하였던 것이 부끄럽구나. 지난 일은 후회하여도 돌이킬 수 없어라. 새장 속의 새는 정한 주인이 없는 것이고, 바람에 날리는 꽃은 옛 가지를 사모하지 않겠지. 오늘밤에는 어느 곳에 있는가. 오직 저 달이 알고 있을 뿐이네〔宅院小墻卑 坊門榜帖遲, 舊恩慚自薄 前事悔難追 籠鳥無常主 風花不戀枝 今宵在何處 惟有月明知〕”라고 했다.

또 이런 시도 있다. “병病과 낙천樂天은 서로 벗이 되어 살더니, 봄이 번자를 따라 한때에 돌아왔네〔病與樂天相伴住 春隨樊子一時歸〕”라고 했다.

유몽득劉夢得이 이것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봄이 다하니 버들개지 날아가는 것을 머물게 할 수 없구나. 바람 따라 잘도 가니 누구 집에 떨어질까〔春盡絮飛留不得 隨風好去落誰家〕”라고 했다. 아마 낙천樂天이 스스로 번소樊素를 보낸 것이 아니고, 번소가 마침내 제 스스로 간 것 같다.

당나라 · 송나라 때에는 군수郡守가 고을의 기녀妓女를 가까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융욱戎昱이 영릉零陵의 군수로 있을 때에 노래 잘하는 기녀가 있었다. 양수襄帥 우적于頔이 그를 찾았다. 욱昱이 그를 보내는 시를 지어 말하기를, “은근히 좋게 양왕의 꿈을 취하고, 요대를 향하여 사군을 꿈꾸지 말라〔殷勤好取襄王夢 莫向瑤臺夢使君〕”라고 했다. 우적이 듣고 말하기를, “어찌 남의 사랑하는 여자를 빼앗아 자기의 오락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하고, 곧 돌려보냈다고 한다. 원진元稹이 설도薛濤에게 준 시에 말하기를, “하나하나의 공후公侯들이 칼 꿈〔夢刀〕[20]을 꾸고자 한다네〔箇箇公侯欲夢刀〕”라고 한 것도 또한 이

20 영전榮轉하는 것. 지방의 관장官長이 되는 것. 옛날 진晋나라의 왕준王濬이 3개의 칼에 1개의 칼을 더 보태는 꿈을 꾸니, 이곡李穀이 축하하기를, “협刕는 주州 자의 속자俗字인데, 칼을 더하였으니 그것은 익주益州가 된다. 공이 장차 익주자사益州刺史가 될 꿈입니다”라고 했다. 뒤에 과연 그렇게 되었다는 고사故事에서 온 말.

때문인 것이다.

장자야張子野가 오흥吳興에서 소기小妓 두랑兜娘을 보고 그 얼굴빛이 고운 것을 칭찬하였는데, 10년 뒤에 경구京口에서 다시 보니, 그때의 얼굴빛과 태도는 전연 없었다. 느낀 바 있어 시를 지어 말하기를, "그때에는 스스로 청춘의 힘을 의지하여, 동풍東風(봄바람)이 사람을 그르칠 줄 안다는 것을 믿지 않았는데〔當時自倚靑春力 不信東風解誤人〕"라고 했다. 슬프다, 어찌 다만 여색女色만이 그러하겠는가. 나도 느끼는 바가 있다.

송나라에 기녀妓女 도심陶心이라는 자가 있었다. 소동파의 사詞에 말하기를, "이지러진 달이 사람을 향하여 얌전하고 고운 마음을 펴고, 세 별이 창호에 마주 대하여 깊고 아득하게 비추네〔缺月向人舒窈窕 三星當戶照綢繆〕"라고 했다. 풀이하는 이가 결월缺月(이지러진 달)과 삼성三星을 심心 자라고 한다. 나는 생각하기를, 결월이 사람을 향했다고 한 것은, 즉 도陶 자를 가리킨 것이고, 세 별이 창호를 대했다고 한 것은, 즉 심心 자일 것이다. 만약 두 글귀가 모두 같은 한 가지 말이라고 한다면 아마 잘못일 것이다.
진소유秦少游와 사詞에, "한 갈고리 지는 달이 세 별을 띠었네〔一鉤殘月帶三星〕"라고 한 것은 바로 심心 자인 것이다.

유극장劉克莊의 호는 후촌後村이다. 〈십로시十老詩(열 가지 늙은 것을 읊은 시)〉를 지었는데, 그 가운데 노기老妓를 두고 지은 시에 말하기를, "기적妓籍에 오른 사람 중에 노래와 춤으로 예전에는 이름을 드날리고, 지금 초췌하여졌으나 오히려 태도와 정은 남아 있네. 그때 옛 관장官長이 사랑하던 일을 즐겨 이야기하고, 지내던 손님의 젊은 때의 이름만을 부른다. 엷아진 머리털은 빠져서 빗을 꽂기 어렵고, 반쪽 이불은 길게 비어 있으니 잠을 이룰 수 없구나. 도리어 이웃집 여인은 문호門戶가 뜨거워서, 담을 사이에 두고 촛불을 밝힌 채 밤을

새우는 것이 부럽구나(籍中歌舞昔馳聲 憔悴猶存態與情 愛說舊官當日寵 偏呼狎客少時名 薄鬢已脫梳難就 半被長空睡不成 却羨鄰姬門戶熱 隔墻張燭到天明)"라고 했다. 시격詩格은 비록 낮으나 묘사를 잘했다.

임춘林椿이 밀주密州의 수령에게 준 시에 말하기를, "붉은 단장에 새벽을 기다려 금비녀를 꽂고, 재촉해 부름을 받아 비단 자리에 올라가네. 장관長官의 엄한 호령은 겁내지 않고, 부질없이 지나가는 손님의 나쁜 인연을 성내는구나. 누樓에 올라서는 퉁소를 부는 손의 반려伴侶가 되지 못하니, 달 속에 달아나서 도리어 약을 훔친 신선이 되고자 한다네. 청운靑雲의 진학사眞學士에게 말을 부치노니, 어진 마음을 부들 채찍을 보이는 일에 쓸 것은 없소(紅粧待曉貼金鈿 爲被催呼上綺筵 不怕長官嚴號令 謾嗔行客惡因緣 乘樓未作吹簫伴[21] 奔月還爲竊藥仙[22] 寄語靑雲眞學士 仁心不用示蒲鞭[23])"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밀주密州는 지금의 밀양密陽이다. 임林이 과거에 낙제하고 또 기생에게서도 마음을 얻지 못하였으니 진실로 박행薄幸하다고 하겠다.

판서判書 윤현尹鉉이 충청도의 관찰사가 되었을 때에, 청주淸州에 가까이 하였던 여인이 있었다. 뒤에 시를 지어 말하기를, "인생의 떠나고 모이는 것이 가지런하지 않음이 괴롭구나. 눈물을 참고 그때 슬프게 헤어졌지. 만약 꿈속의 혼으로 하여금 다니는 것이 자취가 있게 한다면 서원西原의 성북城北이 모두 길을 이루었을 것이다(人生離合苦無齊 忍淚當時愴解携 若使夢魂行有跡 西原城北摠成

21 옛날 진목공秦穆公 때에 소사簫史라는 사람이 퉁소를 잘 부니, 목공의 딸 농옥弄玉이 그를 좋아하였으므로 농옥을 그에게 시집보내고 봉대鳳臺를 지어 함께 퉁소를 불며 살게 했다는 고사를 이용한 것.

22 예羿가 서왕모西王母에게 청하여 얻은 불사약不死藥을 예가 미처 먹기 전에 그의 아내 항아姮娥가 훔쳐 먹고 선인仙人이 되어서 달 속에서 살고 있다는, 《회남자》에 나오는 전설을 인용한 말.

23 옛날 한漢나라의 유관劉寬이 남양태수南陽太守가 되었을 때에, 아전이나 백성에게 잘못이 있으면 부들 채찍으로 쳐서 욕을 보일 뿐 고통을 주지는 않았다. 그래서 관후한 정치를 표현하는 말로 포편지정蒲鞭之政이니 포편지벌蒲鞭之罰이니 하고 말한다.

蹊)"라고 했다. 오직 끝구가 좋은 것 같다.

백광홍白光弘은 호남湖南 사람이다. 평안평사平安評事가 되었을 때에, 풍정風情에 절제가 없었다. 영변寧邊의 기녀妓女를 사랑한 것으로 인하여 병을 얻어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갔다. 뒤에 관서關西로 유람 가는 사람을 송별하는 시에 말하기를, "그대 백상루 아래에 이르러 물으면, 비녀 꽂은 기녀 중에 응당 몽강남夢江南이라는 여인이 있을 것이네(君到百祥樓下問 笄中應有夢江南)"라고 했다. 오래지 않아서 죽었다. 대체로 사물에 구애되지 않는 성격의 선비로서 한 미녀美女에게 매혹되어 못내 그리워함을 이와 같이 하니, "10년에 한 번 양주의 꿈을 깬다(十年一覺楊州夢)"라고 한 것과는 또한 다르다. 지금까지도 관서關西의 기생들은 그의 풍류를 사모하여 반드시 "백서기白書記"라고 말한다고 한다. 시 가운데 계笄 자는 적당하지 않다.

사문斯文 조휘趙徽가 서장관書狀官으로 북경北京에 갔을 때 얼굴을 사紗로 가린 한 여인을 만났는데, 얼굴이 매우 묘했다. 조趙가 그와 가까이 앉아서 농담하다가 이어 시를 지어 주기를, "아마 길 가는 나그네가 부끄러워 가벼운 비단으로 낮을 가렸겠지. 맑은 밤에 엷은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듯이 은은히 고운 얼굴 보이는구려. 벌의 허리 같은 가느다란 한 줌 허리를 묶기 위하여 새로 석류빛 비단 치마감 끊어줄 것을 약속하네(也剪行路護輕紗 淸夜微雲漏月華 約束蜂腰纖一掬 羅裙新剪石榴花)"라고 했다. 세상에서 이 글을 기상氣象이 적다고 한다. 마침내 청현淸顯의 벼슬자리에는 오르지 못했다. 이달李達의 유고遺稿 속에 이 시를 자기의 작품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석아石娥라는 사람은 여성위礪城尉 집의 여비女婢인데 노래 잘하는 것으로 이름이 있다. 〈수월정사水月亭詞〉에 소위 절창가아絕唱佳兒라고 말한 자이다.
박지화朴枝華의 시에 말하기를, "주인집 정자는 한강 가의 가을인데, 쌀 창고

에 달은 어렴풋하고, 물만이 흐르는구나. 오직 하늘 밖의 곡曲으로 봉황곡이 있어서, 인간에서 넉넉히 금전두錦纏頭[24]를 얻었네〔主家亭子漢濱秋 庾月依俙逝水流 唯有鳳凰天外曲 人間贏得錦纏頭〕"라고 했다.
임제林悌의 시에는 말하기를, "진秦나라 봉루鳳樓에는 공자公子의 풍류가 다하고, 단판檀板(악기의 이름)을 다루던 미인은 취대翠黛(미인의 눈썹)가 낡아졌네. 오직 그때의 노래하고 춤추던 곳은 있어서, 봄 강의 물과 달이 붉은 난간을 비추네〔秦樓[25]公子風流盡 檀板佳人[26]翠黛殘 唯有當時歌舞處 春江水月映朱欄〕"라고 했다. 여성礪城의 정자 이름이 수월정水月亭이므로 두 사람의 시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판관判官 신식申拭이 일찍이 서경西京을 유람하다가 자비사慈悲寺에 이르러 정든 기녀妓女와 이별하여 말하기를, "자비령 아래 자비사에서 말없이 마주 보며 말에 오르는 것 더디구나. 오늘의 나그네 회포 어디에서 가장 괴로울까. 역루에 비낀 석양에 홀로 오를 때이겠지〔慈悲嶺下慈悲寺 脉脉相看上馬遲 今日客懷何處惡 驛樓殘照獨登時〕"라고 했다.

기생 옥생향玉生香이 젊었을 때에 청원위靑原尉 한경록韓景祿과 가까이 지내더니, 문정왕후文定王后가 그를 의금부義禁府에 하옥시켜 국문하여 죄를 다스리고, 의주義州로 귀양을 보냈다. 뒤에 황정욱黃廷彧이 그에게 시를 지어 보내기를, "신릉의 호걸스런 귀인貴人과 친하게 놀 때에는, 심양강潯陽江의 영락한 여인이 비파를 어루만지던 슬픈 일은 말하지 않더니, 한번 압록강 가에 떨어진 뒤로는 갈 길이 없네. 세상에서 어찌 홀로 어여쁜 눈썹의 여인만을 원망하는

24 노래와 춤을 보여준 자에게 주는 사례의 금품金品. "賜歌舞者利物曰錦纏頭"

25 진목공秦穆公의 딸 농옥弄玉과 그의 남편 소사簫史가 봉대鳳臺 위에서 통소를 불며 살다가 신선이 되어 갔다는 고사. 뒤에는 변하여 기루妓樓의 뜻으로 쓰게 되었다.

26 단판檀板은 악기樂器의 이름이니, 음악의 박자를 맞추는 나무 판板이다. 단판가인檀板佳人은 악기를 다루는 미인. 또 연주를 지도하는 미인이라는 뜻이다.

가〔信陵豪貴狎遊時 不道潯陽撫瑟[27]悲 一落鴨江無去路 世間寧獨怨蛾眉〕"라고 했다. 이 시는 의미가 없지 않다. 다만 전연 염체奩體[28]에는 가깝지 않다. 또 심양강潯陽江 비파의 일을 인용하여 다만, 무슬撫瑟(비파를 어루만짐)이라고 한 것은 아마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정랑正郎 이대해李大海는 말〔馬〕을 좋아하는 버릇이 있었으며, 또 한 사람의 창녀를 데리고 있었는데, 빠지고 매혹되어 병을 이루었다. 임진년壬辰年에 이르러서 31세로 일어나지 못하고 임종臨終에 시를 지어 말하기를, "임금의 행차가 서쪽으로 거둥하여 풍진에 막혔는데, 나는 한 병에 걸려서 몇 봄이나 지났는고. 말〔馬〕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용과 같고, 여인은 옥과 같은데, 그것들이 영락하여 누구의 집에 가 붙을지 알 수 없구나〔六龍西幸隔風塵 一病沈綿度幾春 馬似游龍姬似玉 不知零落屬誰人〕"라고 했다. 금방 죽게 되어서도 오히려 미인을 못내 아쉬워함은 무엇인가.

20-6 애사哀辭

《장자莊子》에 말하기를, "불구紼謳(만가挽歌.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했다. 사마표司馬彪가 말하기를, "불紼은 영구靈柩를 끄는 새끼줄이다. 불紼을 끌면서 노래하는 것이 만가이다. 상여를 멘 사람들에게 힘을 일제히 갖기를 재촉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좌전左傳》에는, "노魯나라의 공손하公孫夏가 그의 무리에게 우빈虞殯(장송가葬送歌의 일종)을 노래하게 했다"라고 했다. 이것

27 백낙천白樂天의 〈비파행琵琶行〉 속에 나오는 이야기. 즉 젊은 때 서울의 기녀妓女로서 호화한 나날을 보내다가 늙어서 상인商人의 아내가 되어 심양강潯陽江 가에 와서 살면서, 남편은 장사에만 바빠 멀리 장사하러 가고 홀로 달 밝은 가을밤에 배에서 비파를 타며 마음을 달랜다고 한, 영락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

28 시체詩體의 한 가지. 염정艶情을 노래하는 곱고 아름다운 시체.

으로 장례를 보내는 노래가 주周나라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겠다.
상고하여 보니, 전횡田橫이 스스로 목을 찔러 죽으니, 문인門人들이 감히 울지 못했다. 그러므로 해로호리薤露蒿里의 노래를 했다고 한다. 한漢나라의 이연년李延年이 해로와 호리의 2장章으로 나누었다. 그리하여 해로薤路는 왕王·공公·귀인貴人을 장송葬送할 때에, 호리蒿里는 사대부와 서인을 장송할 때에 영구靈柩를 운반하는 자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했다. 그래서 만가挽歌라고 한 것이다. 《사시事始》에, "만가挽歌가 전횡田橫에게서부터 일어났다"라고 한 것은 틀리다. 그러나 대체로 이 2곡은 전횡田橫의 때에 시작된 것이다.

옛날에 도연명陶淵明이 스스로 자신의 만사挽詞와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을 지었고, 배진공裴晉公은 자기의 〈화상찬畫像贊〉을 지었다. 백낙천白樂天은 스스로 〈취음선생전醉吟先生傳〉과 묘지명墓誌銘을 지었고, 소강절邵康節은 스스로 〈무명공전無名公傳〉을 지었으며, 진요좌陳堯佐는 스스로 묘지墓誌를 지었다. 근세에는 노소재盧蘇齋가 또한 스스로 지문誌文을 지었다. 혹시나 또한 이름에 뜻이 있었던 것일까.

안연지顏延之가 도징사陶徵士의 뇌문誄文(죽은 사람의 생전의 공덕을 칭송하는 글)을 지어 말하기를, "춘추春秋(나이)는 63세, 원가元嘉 4년에 졸卒하다"라고 하고, 어느 달 어느 날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상고하여 보니, 도연명이 스스로 지은 제문祭文에는 말하기를, "해는 정묘년丁卯年, 1년의 절서로는 9월에, 도자陶子가 장차 나그네의 집을 하직하고 영원히 본집으로 돌아가다〔歲惟丁卯 律中無射 陶子將辭逆旅之館 永歸於本宅〕"라고 했다. 무사無射는 즉 9월이다. 또 〈만가사挽歌辭〉에 말하기를, "엄한 서리가 내리는 9월중에 나를 보내어 먼 들 밖으로 나가게 하다〔嚴霜九月中 送我出遠郊〕"라고 했다.

《요산당외기》에 보면, "도연명이 장차 영원히 떠나려고 하는 저녁에 스스로 만

가挽歌를 지었다"라고 했다. 혹여나 공公이 자기의 죽음을 먼저 알고 하였던가. 또 제문祭文에는 말하기를, "인생이란 실로 어렵다. 죽는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했다. 또 만사挽詞에는 말하기를, "다만 한스러운 일은 세상에 있을 때에 술을 실컷 마시지 못한 것이다〔但恨在世時 飮酒不得足〕"라고 했다. 이 늙은이가 하늘의 정한 대로를 즐겨 천명天命을 안다고 하였는데, 죽고 사는 일에 담담할 수 없었던 것은 무슨 까닭인가.

진후산陳后山의 만사挽詞에 말하기를, "일대一代의 풍류가 다했다〔一代風流盡〕"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사안謝安을 그때 세상에서 풍류 재상이라고 했다. 또 장서張緖가 죽으니 장융張融이 통곡하며 말하기를, "우리 형님의 풍류가 갑자기 다하였구나〔阿兄風流頓盡〕"라고 했다. 그때 익주益州에서 촉류蜀柳라는 버들을 바쳤는데, 가지가 매우 길어서 마치 실을 늘여 놓은 것 같았다. 제무제齊武帝가 말하기를, "양류楊柳의 풍류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장서張緖와 같다"라고 했다고 한다. 풍류라는 문자는 아마 본래 진晉나라 사람의 말이었던가 보다.

송나라의 진중미陳仲微가 병부시랑兵部侍郎이 되었다가 애산崖山의 싸움에서 패하고 안남安南으로 도망하였는데, 임종臨終에 시를 짓기를, "죽어서는 타국 타향의 귀신이 되었으나, 살아서는 강남의 직간直諫하는 신하였네〔死爲異國他鄕鬼 生是江南直諫臣〕"라고 했다. 안남국安南國 왕이 만사挽詞를 지어 말하기를, "강남江南의 늙은 거경을 통곡하여 봄바람에 손가락으로 눈물을 누르며 마음 슬퍼하네. 무단無端히 하늘 위에서는 연월年月을 엮으면서, 인간에 죽고 삶이 있는 것은 관리하지 않는구나. 일만 겹 흰 구름은 고국을 막았고, 한 무더기 누른 흙은 향기로운 이름을 덮었네. 하늘을 돌이킬 만한 역량이 흐르는 물을 따라가, 여울머리에서 흐르는 물과 불평을 함께 하는구나〔痛哭江南老鉅卿 春風揾淚爲傷情 無端天上編年月 不管人間有死生 萬疊白雲遮故國 一堆黃土覆香名 回天力量隨流水 流水灘頭共不平〕"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송사宋史》〈열전列傳〉에, 중미仲微가

송나라의 이부상서吏部尙書가 되었다고 했다.

상국相國 이준경李浚慶이 명묘明廟의 대점大漸(임금의 병이 매우 심해감) 때에 수상首相으로서 와내臥內(침실)에 들어가 유교遺敎를 받았다. 그의 만사挽詞에 말하기를, "한밤중에 재촉해 부르시기에, 창황히 침전에 올라갔더니, 용안은 겨우 뵈올 수 있었으나 옥궤玉几(옥으로 장식한 안석案席)에는 이미 일어나 기대실 힘이 없으셨네. 황제의 후사로는 전에 정하신 대로 좇으니, 종팽宗祊(종묘宗廟)에는 드디어 받들 이가 있습니다. 삼조三朝를 섬겨온 이 몸이 오히려 죽지 않아서, 차마 화禍가 서로 이어짐을 보는구나(半夜催宣召 蒼皇寢殿升 龍顔纔及覩 玉几已難憑 聖嗣由前定 宗祊遂有承 三朝猶未死 忍見禍相仍)"라고 했다. 말이 매우 슬프고 절실하다.

성대곡成大谷의 시에 말하기를, "물결이 마르니 용은 타 죽고, 소나무가 거꾸러지니 학이 놀라 날아가네. 황천에서는 은혜도 원한도 잊으련만, 인간에서는 옳고 그른 것을 말하고 있구나(波乾龍爛死 松倒鶴驚飛 地下忘恩怨 人間說是非)"라고 했다. 대체로 을사사화乙巳士禍에 죽은 여러 사람들을 슬퍼한 것이다. 아래 연구는 능히 여러 어진 선비들의 심사心事를 말한 것으로 통곡할 만하다.

성대곡成大谷이 우생友生(벗, 친구)을 위한 만사의 한 연구에 말하기를, "술자리에서는 이미 술잔을 전해줄 손(手)을 잃었구나. 서랍 속에는 오히려 병을 묻던 편지가 들어있네(樽前已失傳杯手 篋裏猶藏問疾書)"라고 했다. 아름답다. 다만 위 글귀는 기녀妓女를 슬퍼한 말 같다.

상국相國 이준경李浚慶이 노성老成한 몸으로 몸가짐을 무게 있게 하니, 후진後進들과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당시의 세상에서 미워했다. 죽은 뒤에도 비방하는 논의가 그치지 않았다. 판서判書 오상吳祥이 만사挽詞를 지어 말하기를, "공

功은 종묘에 있고 은택恩澤은 백성에게 있네, 능히 처음이나 끝이나 온전하게 한 이는 홀로 이 사람이로구나. 10년을 기다리지 않고 공평한 논의는 정하여질 것이니, 비방하는 말이 어찌 땅속의 임의 몸에 누를 미칠 수 있겠는가〔功在宗祊澤在民 能全終始獨斯人 不待十年公議定 謗言何累地中身〕"라고 했다. 지금 정승의 공업功業을 말하는 이들은 공公을 제1위로 받든다. 오吳의 말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달李達이 남격암南格菴을 위한 만사에 말하기를, "난새를 멍에 하여 표연히 약목진若木津을 떠났으니, 군평君平[29]의 주렴 아래 다시 어느 사람이 있는가. 상동床東의 제자가 유초遺草(작자作者가 살아 있을 때 써 둔 시문詩文의 초고草稿)를 거두니, 옥동玉洞[30]의 복숭아꽃이 일만 나무 봄이로구나〔鸞馭飄然若木津 君平簾下更何人 床東弟子收遺草 玉洞桃花萬樹春〕"라고 했다. 격암格菴은 남사고南師古의 호이다. 사고師古가 일찍이 이인異人에게서 진결眞訣을 배워 드디어 비술秘術에 능통했다고 한다. 이 글에 약목진이라고 한 것은 아마 석목진析木津[31]이라는 말을 잘못 인용한 것일 것이다.

차오산車五山이 죽으니 서경西坰 유근柳根이 만시挽詩를 지었는데, 그 한 연구에 말하기를, "《노자老子》·《장자莊子》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를 유독 많이 읽었고, 이태백李太白·두자미杜子美·한시韓詩에 가장 익숙하고 정통했다〔老莊馬史偏多讀 李杜韓詩最熟精〕"라고 했다. 이것은 비록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기는 하나, 만사의 말로서는 미진하다. 오산五山은 학문이 넓고 들은 것이 많으니, 평생에 그가 읽어 익숙한 것이 여기에 열거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29 엄군평嚴君平이니, 점을 잘 쳤다고 한다. 변하여 점치는 명인名人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30 옥으로 된 동혈洞穴. 신선이 사는 곳, 또는 은자隱者가 사는 곳을 일컫는 말로 쓰고 있다.

31 성차星次의 명칭이니, 기箕와 두斗의 사이에 있는 은하수의 진도津渡이다. "析木津 箕斗之間漢津也", "箕斗之間 有天漢故謂之析木之津"

나에게도 또한 그를 위한 만사가 있다. "공명은 한 세상에서 도리어 분수가 없었으나, 우주 천년에 처음으로 그대가 있었네(功名一世還無分 宇宙千年始有君)"라고 했다. 또, "연진에 칼이 가버리니 하늘은 광채를 거두고, 원교에 자라가 죽으니 땅이 영기靈氣를 잃었네(延津劍去天收彩[32] 圓嶠鼇亡地失靈)"[33]라고 했다. 또 "사림詞林(시문詩文 또는 문필文筆의 모임)의 활기는 3춘春[34]이 다했고, 학해의 긴 물결은 하루저녁에 말랐구나(詞林活氣三春盡 學海長波一夕乾)"라고 했다. 서경西坰이 보고 말하기를, "이 글귀의 말이 차오산에 알맞다고 하기에 넉넉하다"라고 했다. 서경도 아마 일찍이 오산을 알지 못하였던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만사挽詞를 짓는 일이 당나라 · 송나라 때에 성행盛行하였는데, 교유간交游間에 슬퍼하는 말일 뿐이었다. 지금은 자제子弟들이 부형父兄을 위하여 골고루 한때의 시문에 능통한 선비에게 요구하여 과장하고 찬미하기를 힘쓴다. 심지어 평소에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르기까지 또한 강요한다. 구경산丘瓊山(구준丘濬)이 그르다고 한 말은 옳다.

32 연진延津에 칼이 없어지니 하늘이 광채를 거두었다는 말. 《진서晋書》〈장화전張華傳〉에 보면, 두성斗星과 우성牛星 사이에 항상 붉은 기운이 있었다. 예장豫章의 뇌환雷煥이 말하기를, "보검寶劒의 기운이 위로 하늘에 뻗쳤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화華가 묻기를, "어느 군에 있는가", "예징이 풍성豐城에 있습니다"라고 했다. 즉시 환煥을 성령城令에 임명했다. 환煥이 고을에 와서 옥獄이었던 터를 파서 석함石函 1개를 찾아내니 광채가 대단하고 그 가운데에 보검이 있었는데 1개는 용천龍泉, 1개는 태아太阿라고 새겨 있었다. 이날 밤부터 하늘의 두성과 우성 사이에 보이던 광채가 사라졌다고 한 고사를 인용한 것.

33 《열자列子》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인용한 말이다. 원교산員嶠山에서 자라가 없어지니 땅이 영기靈氣가 없게 되었다는 말. 《열자》의 〈탕문편湯問篇〉에 보면, "발해渤海의 동쪽에 큰 골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5개의 산이 있다. 즉 대여岱輿 · 원교員嶠 · 방호方壺 · 영주瀛洲 · 봉래蓬萊가 그것이다. 이 산들은 뿌리박은 데가 없어서 항상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상제上帝가 큰 자라 15마리에게 시켜서 3교대交代로 한 번에 5마리씩 다섯 산을 머리 위에 이고 있게 했다. 그리하여 6만 년에 한 번씩 교대하게 하니, 오산五山이 비로소 안정했다. 그런데 용백龍伯이라는 나라에 거인巨人이 있어서 한 낚시로 자라 6마리를 낚아 가지고 한꺼번에 가지고 돌아가 버렸다. 그 뒤로 다섯 산 가운데에 대여산岱輿山과 원교산員嶠山의 두 산은 북극으로 흘러가서 큰 바다 속으로 침몰했다" 운운했다. 이 시는 그것을 인용한 것이다. 다만 《열자》의 원문에는 원교員嶠로 되어 있다.

34 봄의 3개월, 즉 음력으로 정월을 맹춘孟春, 2월을 중춘仲春, 3월을 계춘季春이라 한다.

20-7 창화唱和

《소설》에 왕형공王荊公이 소노천蘇老泉과 함께 운자韻字를 불러서, 지오강知吳江이 되어 가는 사람을 보내는 시를 짓게 되었다. 노천老泉이 이而를 운자로 하여 맞추기를, "시를 담론하는 것은 자네가 깊이 연구하였네〔談詩究乎而〕"라고 하니, 형공荊公이 화답하기를, "채경이 파도에 항거하니 바람이 비늘과 뺨과 턱에서 일어난다〔采鯨抗波濤 風作鱗之而〕"라고 했다. 말이 매우 뛰어나게 아름답다. 《주례周禮》〈고공기考工記〉의 주에, "지이之而는 뺨과 턱이다〔之而頰頷也〕"라고 했다. 세상에서 해설하는 자가 말하기를, "왕형공과 소노천이 서로 언짢게 된 것은 실은 여기에서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한다. 어찌 그럴 리야 있겠는가.

중국 사신 당고唐皐의 〈백은탄시白銀灘詩〉에 말하기를, "강물이 광대廣大하게 흘러가니 이 여울에 흰 은이 떴구나. 국가의 금령禁令도 지키지 않고 버려서 통진을 향하게 하네〔江水浩浩去 玆灘浮白銀 無乃守國禁 棄捐向通津〕"라고 했다.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은銀의 유출流出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용재李容齋가 화답하기를, "은이라고 이른 것은 그 빛이 은 같기 때문이니, 이 물에서 어찌 은이 나겠는가. 오늘 옥 같은 사람이 지나가니, 다시 마땅히 옥진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 것이다〔名銀取其色 此水豈生銀 今日玉人過 更宜名玉津〕"라고 했다. 이 시가 급하게 응한 것이기 때문에 잘되고 못된 것을 논하지 않고 세상에서 칭찬하는 이가 많다.

이율곡李栗谷이 원접사遠接使가 되어서, 중국 사신의 〈연광정시練光亭詩〉를 차운次韻한 시의 끝구에 말하기를, "멀리서 알거니와 빈 강석에 궁중의 촛불이 그대를 기다리면서 타고 있을 것이다〔遙知虛講席 宮燭待君然〕"라고 했다. 바로 종사관從事官 고경명高敬明이 대신 지은 것이다.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말한다. 그러나 양무제梁武帝가 궁촉宮燭을 태우며 밤 깊도록 독서한 고사를 인용하면서

다만 연然 자만을 붙인 것은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또 〈부벽루浮碧樓〉·〈도대동강渡大同江〉·〈봉산도중鳳山道中〉 등의 시에 대한 차운도 또한 경명敬命이 지었다. 그 〈부벽루시〉에는 말하기를, "가운데에 멀리 아득히 날아가는 듯한 누樓가 있으니, 흰 구름만 천년 동안을 공연히 유유히 떠도네. 기린을 탄 천손天孫은 어느 곳에서 노니는고〔中有縹緲之飛樓 白雲千載空悠悠 麟馬天孫何處游〕"라고 하여 전부 옛 글귀를 그대로 습용하고 있다. 아마 칭찬할 만한 것이 못될 것이다.

중국 사신 주지번朱之蕃이 왔을 때에 유영경柳永慶이 정승이었으나 시문詩文을 해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창화唱和한 시는 모두 최육崔昱의 손에서 나왔다. 중국 사신이 역관譯官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비록 시에는 그다지 뛰어나지 못하나, 문文에는 능숙한 사람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아마 그는 시를 아는 사람이었던가 보다.

중국 사신 웅화熊化가 한강漢江에 노닐면서 시를 짓는데, 매枚를 운자로 하니 화답하는 자가 어렵게 여기므로 제술관製述官 임전任錪이 고매皐枚라고 달았다. 아마 매고枚皐가 옛 사람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또 다른 제술관 아무개는 차운하기를, "문단文壇의 늙은 졸병은 입에 재갈을 물려야 마땅하다〔騷壇老卒合啣枚[35]〕"라고 했다. 세상에서 혹 칭찬하는 이가 있으나 소단騷壇이라는 말로 인하여 노졸老卒이니 함매啣枚니 하는 것은 억지로 끌어다 붙인 것 같다.

용재容齋 이행李荇이 원접사遠接使가 되고, 이희보李希輔·정사룡鄭士龍·소세양蘇世讓 등이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용만龍灣에 있을 때에 부경사赴京使의 기녀

35 옛날에 진군進軍할 때에 군졸軍卒이나 말이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입에다 나무를 물리던 일. 매枚는 젓가락같이 생긴 나무. 입에 물리고 양쪽 끝에 끈을 달아 목뒤로 매게 되었음.

妓女를 이별하는 시를 희롱 삼아 지었다. 용재容齋가 첫 글귀를 지어 말하기를, "오고 오고 가고 가는 것이 모두가 무정하다(來來去去摠非情)"라고 하고는, 여러 종사관들에게 그것에 잇따라 짓게 했다. 이李 · 정鄭 · 소蘇가 차례로 각기 한 글귀씩 부르기를, "쾌하게 말을 달리는 먼 길에 붉은 소매는 가볍구나. 신고하는 건 압록강 위의 돌이지. 먼젓번 사신 행차에 돌을 막 깨뜨렸는데 또 이번 행차라니(快馬長程紅袖輕 辛苦鴨江江上石 前行纔破又今行)"라고 했다. 북경으로 가는 모든 부경사赴京使를 압록강에서 전별할 때에는, 강가의 작은 돌을 주워서 깨뜨려 각기 반 조각씩 갖고 정든 사람끼리 신표로 삼았다는 것은 고사故事이다. 동파東坡의 시에 말하기를, "고생하는구나, 여산驪山 위의 흙이여, 아방궁의 공사가 겨우 끝났는데, 또 화청궁의 공사라니(辛苦驪山山上土 阿房纔廢又華淸)"라고 했다. 이 시의 끝 글귀는 과연 여기에서 나왔을 것이다.

소양곡蘇陽谷이 의주義州의 취승정聚勝亭에서 휘暉 자를 차운하여 "맑은 강물이 바랜 것 같으니, 사현휘謝玄暉로구나(澄江如練謝玄暉)"라고 하여 한 구는 지었으나 그 대對를 생각해내지 못했다. 학관學官 어숙권魚叔權이, "새 달이 낫과 같으니 한 이부韓吏部(한퇴지韓退之)(新月似鎌韓吏部)로다"라고 대對를 맞추니 한때 잘했다 하여 칭찬했다. 그러나, "새 달이 갈아 놓은 낫 같다(新月似磨鎌)"라고 한 것은 처음부터 고상한 말이 아니다. 또 글귀를 만드는 법이 어린아이들의 말과 같아서 말할 만한 것이 없다. 황장계黃長溪도 또한, "고각이 변방에 둘렀으니 두공부杜工部, 긴 강이 바랜 것 같으니 사현휘謝玄暉(鼓角緣邊杜工部 長江如練謝玄暉)"라고 하였는데, 세상에서 간혹 칭찬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참봉參奉 유석준柳錫俊은 나의 자형姊兄이다. 일찍이 호서湖西에서 호탕하게 놀다가 이달李達을 객지에서 만났다. 매우 좋은 칼을 차고 있었는데 이달이 그것을 원했다. 유柳가 말하기를, "들으니 그대는 시를 잘 짓는다고 하니 만약 즉석에서 시를 짓는다면 마땅히 줄 것이다"라고 했다. 이달이 문득 한 글귀를 지

어 말하기를, "칼을 사랑하기는 서자徐子와 같고, 시를 잘한다는 것은 두릉杜陵에 부끄럽다〔愛劒同徐子[36] 能詩愧杜陵〕"라고 하니, 이에 매우 즐겨하여 시가 다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급히 칼을 풀어주고, 차운하기를, "글을 논하여 이백李白을 만나고 칼을 풀어 연릉延陵을 배운다〔論文逢李白 解劒學延陵〕"라고 했다. 그의 호방하고 시원스러움이 이와 같았다.

내가 북경北京에 갔을 때에 안남국安南國 사신 풍극관馮克寬을 만나서 부르고 화답한 시집詩集이 있다. 그중의 한 연구聯句에 말하기를, "산은 이상한 형상으로 빼어났는데 코끼리의 뼈가 풍부하고, 땅은 신령스러운 기운을 쪄서 용향龍香을 생산한다〔山出異形饒象骨 地蒸靈氣産龍香〕"라고 했다. 다만 교지交趾에서 상아象牙와 용연향龍涎香 등이 생산된다고 하여 그렇게 말하였을 뿐이다. 뒤에 포로가 되어 갔던 선비 조완벽趙完璧이라는 이가 왜국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장사하는 왜인倭人을 따라 안남安南에 갔더니, 그 나라 사람들이 나의 시를 칭찬하여 외면서 가리켜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출상산出象山이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아름답다'라고 한다……"고 했다고 한다. 내가 듣고 의아하게 여겼더니, 뒤에 《강목綱目》을 상고하여 보니 주註에 말하기를, "안남의 코끼리가 산출되는 곳을 상산象山이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며, 《양비외전楊妃外傳》에, "교지交趾에서 서룡뇌향瑞龍腦香을 올리니 선장향蟬蠶香과 같았다. 늙은 나무의 옹이에 있다"라고 했다. 실로 우연히 맞은 것이다.

36 춘추시대에 오왕吳王 수몽壽夢의 넷째아들 계찰季札이 서徐나라의 임금을 만난 일이 있다. 그때 서군徐君은 계찰이 차고 있는 칼을 매우 좋아했다. 그러나 감히 말하지를 못하는데 계찰이 그것을 속마음으로 알아차렸다. 계찰이 용무를 마치고 다시 왔을 때는 서군은 이미 죽었다. 계찰이 자기의 천금의 보검을 서군의 무덤의 나무에 걸어 놓고 가니, 수행하던 사람이 말하기를, "서군이 이미 죽었는데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라고 했다. 계찰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 마음으로 이미 허락하였으니 어찌 그가 죽었다고 하여 나의 마음을 어기겠는가"라고 했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 다만 서군을 서자徐子라고 표현하고 있다. 계찰은 연릉延陵에 봉작되었으므로 연릉계자延陵季子라고 부른다. 그래서 연릉괘검延陵掛劒이니, 계자괘검季子掛劒이니 하는 말들이 있다.

전배前輩들의 창화唱和는 반드시 즉석에서 하였으니 그 풍류스러움이 숭상할 만하다. 내가 젊었을 때에 제배儕輩(나이와 신분이 서로 비슷한 사람들) 가운데 작자作者들을 보면, 모여서 놀 때마다 술자리에 붓과 벼루가 교착交錯해 있어서, 한 잔 먹고는 한 번 읊곤 하여 서로 오고 감이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미처 짓지 못한 자에게는 드디어 소위 문자음文字飮이라는 벌배罰杯를 마시게 했다. 근래에는 이러한 풍습이 점점 변하여 한 번 창화唱和할 때마다 혹은 날을 넘겨서 짓는 일이 있다. 그리하여 중국 사신과 부르고 화답하는 데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그러하니 일이 예전과는 다르다.

20-8 대구對句

세상에 전하는 연근蓮根을 읊은 연구聯句에 말하기를, "한 번 굽히니 서시西施의 팔 같고, 일곱 구멍은 비간比干의 마음과 같다(一彎西子臂 七竅比干心[37])"라고 했다. 아마 송나라의 시에, "피부가 맑고 깨끗함은 미인의 팔 같고, 구멍은 영롱한 지혜 있는 선비의 마음과 같다(皮膚瑩淨佳人臂 孔竅玲瓏智士心)"라고 한 것의 뜻을 따라 썼을 것이다. 그러나 말이 더욱 좋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 연구聯句는 바로 명나라 고황제高皇帝가 창화唱和한 작품이라고 한다.

명나라 효종孝宗 때에 전정殿庭에서 진사進士 시험을 보게 하는데 임금이, "바람이 불어도 영아초는 울리지 않는다(風吹不響鈴兒草)"라고 한 글귀를 지어서 그것에 대구對句를 짓게 했다. 마탁馬鐸이 대구를 지었는데, "비가 때려도 고자화

37 연뿌리에는 7개의 구멍이 있다고 한다. 이 일곱 구멍이 있는 것은 비간比干의 마음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옛날 은殷나라의 포악한 임금 주왕紂王의 제부諸父인 비간比干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왕紂王의 잘못을 직간直諫하니 주왕紂王이 성내어, "내 들이니 성인聖人의 마음에는 일곱 구멍이 있다니 정말인가"라고 하고는 드디어 비간을 죽여 그의 심장을 쪼개어 보았다고 한다. 이 시는 그것을 인용하고 있다.

는 소리가 없다〔雨打無聲鼓子花〕"라고 했다. 드디어 장원으로 뽑았다고 한다. 상고하여 보니, 고자화鼓子花는 즉 금규화〔菝〕이다. 《소설》에 말하기를, "마탁馬鐸이 일찍이 꿈속에서 이 글귀를 얻었다고 한다. 또한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다.

세상에 전하기를 "고려왕이 서경西京에 행차하여 모란봉에서 글을 짓기를, '북두칠성 서너 점〔北斗七星三四點〕'이라고 했다. 그 대對를 얻지 못하니, 한 선비가 아뢰기를, '남산만세南山萬歲는 십천의 가을〔南山萬歲十千秋〕'이라고 하니 적실한 대對"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설부》를 상고하여 보니, 양대년楊大年이 이것으로써 하늘이 낸 짝이라고 하였으니, 혹은 이 시와 암합暗合한 것일까. 아니면 세상에 전하는 말이 잘못된 것일까.

온정균溫庭筠이 벌과 나비를 읊은 연구聯句에 말하기를, "꿀을 맡은 관원은 금날개가 달린 사자使者이고, 꽃 도둑은 옥 같은 허리를 가진 놈이로구나〔蜜官金翼使 花賊玉腰奴〕"라고 했다. 위 글귀는 벌을 말한 것이고, 아래 글귀는 나비를 말한 것이다.
한악韓渥의 시에는 말하기를, "거위 새끼는 자황雌黃 빛 부리로 쪼아 먹고, 봉자鳳子의 윤기 나는 분바른 허리는 가볍고 오동통하다〔鵝兒雌黃觜 鳳子輕盈膩粉腰〕"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고금주古今註》에, "나비의 큰 것을 봉자鳳子라고 이름한다〔蛺蝶大者名鳳子〕"라고 했다. 그런 까닭에 이 시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설부》에 말하기를, "구준寇準의 시에, '물속의 달이 하늘 위의 달이로구나〔水底月爲天上月〕'라고 하니, 양대년楊大年이 대對하기를, '눈 가운데의 사람은 얼굴 앞의 사람과 같다〔眼中人似面前人〕'라고 하니, 한때 세상에서는 꼭 들어맞는 대라고 했다"라고 한다. 나는 그것을 "눈앞의 꽃이 안개 속의 꽃이 되네〔眼前花作霧中花〕"라고 하고 싶다. 어떨지 알 수 없다.

왕형공王荊公이 말하기를, “삼대三代는 하夏 · 상商 · 주周”라고 하니, 유공부劉貢父가 대對하기를, “네 시詩는 풍風 · 아雅 · 송頌”이라고 했다.
원우元祐 때에 요遼나라 사신이 대對를 내서 “세 빛은 해 · 달 · 별〔三光日月星〕”이라고 하니 동파東坡가, “네 시詩는 풍 · 아 · 송〔四詩風雅頌〕”이라고 대하매, 요遼나라 사신이 탄복했다고 한다. 대체로 유공부劉貢父의 시에서 나온 것이다.
또 원元나라의 초기에 구기산丘機山이, “네 가지 벼슬은 공후公侯 · 백伯 · 자子 · 남男”이라는 글귀로, “오행五行은 금金 · 목木 · 수水 · 화火 · 토土”라고 한 글귀의 대를 맞추었다. 또한 묘하다.

동파東坡가 향기 향香과 서늘할 냉冷 두 글자로 한 연구를 지으라는 시령詩令을 내어 말하기를, “돌을 털고 앉았으니 옷과 띠가 서늘하고, 꽃을 밟으며 돌아가니 말굽이 향기롭다〔拂石坐來衣帶冷 踏花歸去馬蹄香〕”라고 했다. 작은 누이가 있어서 사부詞賦를 잘하였는데 부르기를, “달밤에 부르짖는 두견새는 목과 혀가 서늘하고, 꽃에 잠자는 나비는 몽혼夢魂이 향기롭다〔叫月杜鵑喉舌冷 宿花蝴蝶夢魂香〕”라고 했다. 내 생각으로는 “돌을 털었다”라고 말하였으니, 대帶 자는 소매 수袖 자로 고쳐 놓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초학기初學記》에 말하기를, “이양李陽이 나면서 자두나무를 가리켜 성姓이라고 하였으니 나면서부터 아는 것이다〔李陽生指李樹爲姓 生而知之〕”라고 한 것을, 양대년楊大年이 대對를 맞추기를 “마원馬援이 죽어서 말가죽으로 시체를 싸겠다고 하였으니, 죽은 뒤에야 그칠 것이다〔馬援死以馬革裹屍 死而後已〕”라고 했다. 잘했다. 어떤 이는 위의 생生 자와 사死 자를 떼어 버리면 더욱 좋겠다고 말한다.

《요산당외기》에 말하기를, “교지交趾(지금의 베트남 북부)의 왕은 본래 진씨陳氏이다. 여계리黎季犛라는 한 중국 사람이 그 나라에 도착하여 보니 모래 위에 글자

가 쓰여 있는데, '광한궁 속의 일지매(廣寒宮裏一枝梅)'라고 했다. 뒤에 계리季釐는 벼슬을 얻어 했다. 하루는 임금이 청서전淸暑殿에 있다가 궁전 앞에 계수나무가 1,000그루 있으므로 대를 내기를, '청서전 앞에 1,000그루의 계수나무로구나(淸暑殿前千樹桂)'라고 했다. 여러 신하들이 대를 맞추지 못했다. 계리季釐가 모래 위에서 본 글귀로써 대對하니 임금이 놀라면서 묻기를, '어떻게 우리의 궁중의 일을 아는가'라고 했다. 계리가 사실대로 아뢰었다. 임금에게 딸이 있었으니 이름이 일지매一枝梅로, 광한궁을 짓고 그곳에 거처하고 있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하늘이 정한 운명이다'라고 하고, 드디어 배필을 삼아 주었다"라고 했다. 그 일이 이상하다.

《요산당외기》에 말하기를, "전개사傳凱使가 오랑캐 땅에서 꿈을 꾸니 유자孺子가 노래하기를, '청초유사 66의 항만港灣(靑草流沙六六灣)'이라고 했다. 이국夷國에 이르러 술자리에서 이왕夷王이 대對를 청하여, '황하 탁수 33굽이(黃河濯水三三曲)'라고 했다. 즉시 전에 꿈꾼 것으로 대對하니 이왕이 놀라고 탄복했다. 대체로 오랑캐 땅에 36항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내 의견으로는 글귀 속에 유사流沙니 황하黃河니 하는 등의 말이 있으니, 소위 오랑캐 땅이라고 한 것은 서역을 가리킨 것 같다. 《패사稗史》에 이것을 당고唐皐가 조선에 사신으로 가서 한 일이라고 한 것은 망령된 말이다.

명나라 사람의 대구對句에 말하기를, "초승달도 활 같고 이지러진 달도 활 같으니 상현궁 · 하현궁(初月如弓 殘月如弓 上弦弓 下弦弓)이로구나", "아침노을은 비단 같고, 저녁노을도 비단 같으니 동쪽 내도 비단이요, 서쪽 내도 비단일세(朝霞似錦 晩霞似錦 東川錦 西川錦)"라고 했다. 또, "새 대나무는 촌 노파 같아서 철을 만나면 얇은 분을 바르고, 떨어지는 매화는 늙은 기녀 같아서 나뭇가지를 내려오면서도 오히려 남은 향기를 띠고 있다(新竹似村姑 遇節略施薄粉 落梅如老妓 下梢猶帶餘香)"라고 했다. 세상에서 뛰어난 경구警句라고 칭찬한다.

《패사稗史》에, “당고唐皐가 한림翰林으로 조선에 사신으로 나가니, 조선에서 대對를 청하기를, ‘금슬비파는 큰 왕이 여덟인데 머리와 낯은 하나같다〔琴瑟琵琶八大王 一般頭面〕’라고 했다. 즉시 대하기를, ‘이매망량은 작은 귀신이 넷인데, 위胃와 창자가 각기 다르다〔魑魅魍魎四小鬼 各自肚腸〕’고 했다……”라고 하였다. 우리나라가 중국 황제의 사신을 존경해 대접하는데 어찌 글귀를 내놓아 천자天子의 조서를 갖고 온 사신에게 대對를 강요하는 일이 있었겠는가. 《소설》에 전하는 말은 모함이 지나치다.

명나라의 육찬陸粲이 대對를 만들어 말하기를, “대추나무 가시로 땔나무를 만드는데 끊고 쪼개어 네 묶음을 만들었고, 창문閶門에 집을 짓는데, 많은 것을 옮겨다가 적은 데에 보태어 두 간을 만든다〔棗棘爲薪 截斷劈開 成四束 閶門起屋 移多補少 作雙間〕”라고 했다. 또, “임林 자를 쪼개어 여니 목木 자가 둘이 되고, 조棗 자를 끊으니 속束 자가 둘이 되네〔林字折開成兩木 棗字截斷成兩束〕”라고도 했다.

김모재金慕齋(김안국)가 선위사宣慰使가 되었을 때에, 일본 중이 입으로 부르기를, “얼음이 한 점 녹으니 도로 물이 된다〔氷消一點還成水〕”라고 했다. 모재慕齋가, “나무가 2그루 서면 곧 숲을 짓는다〔木立雙條便作林〕”라고 대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모재가 반나절이나 신음하였으나 마침내 대를 맞추지 못했다. 이 글귀는 뒷사람이 지은 것이다”라고 한다.
또 중국의 사신이 부르기를, “처난의 이름을 황우지라고 한다〔處難名曰黃憂地〕”라고 하니, 원접사遠接使가 즉시 대하기를, “거이의 자를 백낙천이라고 한다〔居易字云白樂天〕”라고 했다. 중국 사신이 탄복했다고 한다. 상고하여 보니 글단契丹(거란)의 아보기阿保機 자돌子突이 귀화하고자 하므로 당나라에서 성명을 이찬화李贊華라고 내려주었다. 글재주가 있고 그림을 잘 그렸으며, 스스로 황거난黃居難이라 하고, 자字를 낙지樂地라고 하여 백거이白居易에 비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 처난處難이니 우지憂地니 하고 말한 것은 억지로 갖다 붙였다

는 비평을 면치 못하겠다.
또 중국 사신 기순祁順이 부르기를, "삼각산三角山의 모양은 산山이란 글자의 형상이다〔三角山形山字象〕"라고 했다. 사사가徐四佳가 원접사로서 대를 맞추지 못했다고 한다.

병오년丙午年에 중국 사신 주朱와 양梁이 한강漢江에서 노닐었는데, 술이 취하여 중국 사신이 주령酒令을 내고 놀았다. 주朱가 먼저 부르기를, "한 잔 한 잔 또 한 잔〔一杯一杯復一杯〕"이라고 하니, 양梁이 이어서, "그대를 권하여 다시 술 한 잔을 올리네〔勸君更進一杯酒〕"라고 했다. 이어 연회에 참석한 재상 유영경柳永慶의 차례가 되었다. 영경이 대답하기를, "서쪽으로 양관에 나가면 고인故人이 없으리〔西出陽關無故人〕"라고 하니, 중국 사신들이 크게 웃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령酒令이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탄할 만하다.
상고하여 보니, 주령酒令이란 것은 동한東漢 때에 시작된 것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매우 숭상한다. 당나라 설도薛濤가 말한, "구口라는 글자는 자루가 빠진 말〔斗〕과 같은 데가 있고, 천川이란 글자는 3가지의 서까래 같은 데가 있다〔口有似沒梁斗 川有似三條椽〕"라고 한 것이나, 양대년楊大年이 말한, "세상의 어느 사람이 가장 한가하다고 부르는가, 사간이 옷을 떨치고 화산으로 돌아간다〔世上何人號最閑 司諫拂衣歸華山〕"라고 한 것도 또한 주령이다. 또 잡서雜書에 〈안아당주령安雅堂酒令〉이라는 한 편이 실려 있다. 상고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강목綱目》의 주註에 말하기를,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주령을 시행하여 즐거움을 돕는 것은 당나라 말년의 풍속이다"라고 했다.

무종기武宗紀에, "임금이, 양주楊州의 창녀娼女가 주령을 잘한다는 것을 듣고, 감군監軍에 명령을 내려 뽑아 바치게 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어떤 이가 연구聯句를 지어 말하기를, “구름은 한 발도 없건만 천 리를 간다〔雲無一足行千里〕”라고 하니, 대對하는 이가 말하기를, “달은 바퀴가 1개이건만 구천九天을 굴러 간다〔月有孤輪輾九天〕”라고 했다. 또 대對가 있으니, “하늘에는 두 눈동자가 있어서 구주九州를 비춘다〔天有雙眸照九州〕”라고 했다. 두 눈동자라고 한 것은 아마 해와 달을 말한 것일 것이다.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모르겠다.
중국 사람이 한 글귀를 부르기를, “여女와 자子가 어깨를 가지런하게 하여 합해서 인간의 좋은 것을 짓는다〔女子比肩 合作人間之好〕”라고 하니, 우리나라 사람이 대對하기를, “일日과 월月이 몸을 가지런히 하여 빛나서 하늘 위의 밝음이 된다〔日月齊體麗爲 天上之明〕”라고 하니, 중국 사람이 신기하게 여겼다고 한다. 그러나 위 글귀만큼 묘하지 못하다.

장영헌張永憲이 중국 사신으로서 왔을 때에, 간성杆城 이극인李克仁이 어린아이의 몸으로 가서 구경하니, 중국 사신이 불러 묻기를, “소년은 무슨 글을 읽는가”라고 했다. 대답하기를, “《한서》를 읽습니다”라고 하니, 사신이 입으로 시를 부르기를, “네 벽의 창문을 열어 놓으니, 동서남북의 바람이로구나〔豁軒窓四壁 東西南北之風〕”라고 했다. 그것에 대對를 맞추라고 하니, 극인克仁이 즉시 대하기를, “한 구역의 동산을 다스리니 춘하추동의 경치로구나〔治園囿一區 春夏秋冬之景〕”라고 했다. 중국 사신이 매우 기이하게 여겼다고 한다.

20-9 시화詩禍

《소설小說》에 말하기를, “유희이劉希夷의 시에, ‘연년세세年年歲歲에 꽃은 서로 같으나, 세세연년歲歲年年에 사람은 같지 않다〔年年歲歲花相似 歲歲年年人不同〕’라고 했다. 그의 장인 송지문宋之問이 이 글귀를 사랑하여 자기에게 주기를 간절히 빌었으나 주지 않았다. 지문之問이 성내어 흙주머니로 눌러 죽였다”라고 했

다. 나는 말한다. 희이希夷의 시는 시당始唐의 시에 비하면 떨어지는 것 같다. 지문이 어찌 이것을 가지고 나으니 못하니 할 수 있겠는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이 시가 지금 지문의 시집 속에 있으니, 의심하건대 지문이 이것을 자기의 작품으로 한 것인가. 후인後人이 잘못 편입한 것인가?

〈백거이전白居易傳〉에 말하기를, "거이居易가 시 100여 편을 지어서 시사時事를 규간規諫(바르게 간함)하고 풍자하니, 임금이 보고 즐겨하여 불러들여 한림학사翰林學士를 시켰다"라고 했다. 이 일은 옛일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다. 송나라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시 때문에 죄를 받은 자가 있게 되었다.

《요산당외기》에 말하기를, "왕형공王荊公이 시부詩賦로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시부를 즐겨하지는 않았다. 국정에 간여하게 된 뒤에는 경의經義[38]로써 선비를 뽑았으며, 드디어 명령을 분명히 하여 사士 · 서인庶人으로서 시부詩賦를 전해 익히는 자는 곤장 100대의 형刑에 처한다고 했다. 그런 까닭에 장순민張舜民의 시에 말하기를, '술자리에서 이백李白과 두보杜甫는 모두 붓을 던지고, 지하의 반班 · 양楊도 또한 수레를 끌 것이다(酒間李杜皆投筆 地下班楊亦引車)'라고 했다"라고 했다. 시의 도道가 이에 이르렀으니 하나의 큰 재앙이라고 하겠다.

홍무洪武 때에 중 내복來復은 원元나라의 한림학사翰林學士로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일찍이 임금이 불러서 음식을 하사함을 받들고 감사하는 시를 짓기를, "기원의 화우花雨가 새벽에 향기를 부는데, 손으로 가사를 당기며 어상御床에 가까이 갔네. 궁궐 아래의 채색 구름은 치미雉尾 의장儀仗의 한 가지에 나고, 좌중의 붉은 향기에는 용광龍光[39]이 움직인다. 금반金盤으로 만든 소반의

38 경서經書의 뜻. 과거科擧의 고시考試에서 경서 중에서 낸 문제에 대하여 그 뜻을 설명하는 글.
39 군자君子의 덕을 일컫는 말. 임금의 은총을 말함.

소합蘇合(약명藥名)은 먼 이역에서 왔고 옥항아리의 제호醍醐[40]는 상방尙方[41]에서 나온다. 조밀하고 거듭해서 외람되이 하늘 위에서 내려주심을 입고, 스스로 도당陶唐[42]을 송축할 만한 덕이 없음을 부끄러워하네(淇園花雨曉吹香 手挽袈裟近御床 闕下彩雲生雉尾 座中紅茀動龍光 金盤蘇合來殊域 玉盌醍醐出尙方 稠疊濫承天上賜 自慚無德頌陶唐)"라고 했다. 임금이 성내어 말하기를, "너의 시에 수殊 자를 쓴 것은 내가 주朱를 배반했다고 말한 것이냐. 또 도당陶唐을 송축할 만한 덕이 없다고 한 것은, 짐朕이 덕이 없어서 비록 도당이 나를 칭송하고자 하여도 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라고 하고는 드디어 사형에 처했다.

원元나라의 중인 수인守仁이 〈비취翡翠〉라고 제목한 시에 말하기를, "말을 들으니 염주炎洲에서 취의翠衣(비취새의 깃과 털로 만든 옷)를 진상하기 위하여, 온종일 동서東西에 고루 그물을 쳤다네. 날개와 털도 또한 몸에 누累가 되기에 넉넉하니 어떻게 하면 가을 숲 고요한 곳을 얻어 깃들일 수 있을까(見說炎洲進翠衣 網羅一日徧東西 羽毛亦足爲身累 那得秋林靜處棲)"라고 했다. 고황제高皇帝가 보고 말하기를, "네가 나에게 벼슬하기를 싫어하여, 나의 그물이 촘촘하다고 말하느냐" 하고 드디어 저자에서 죽였다. 수인守仁은 바로 벼슬을 피하여 중이 된 자이다. 다만 날개와 털이 누累가 된다는 것은 알았으나 글자가 누가 된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니 가소로운 일이다.

장상례張尙禮의 〈궁원시宮怨詩〉에 말하기를, "정원庭院은 침침하고 낮 누수漏水 소리는 맑은데, 문을 닫으니 봄풀이 시름과 함께 자라는구나. 꿈속에서 한창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는데, 꾀꼬리의 부르짖는 한 소리에 놀랐네(庭院沈沈晝漏淸 閉門春草共愁生 夢中正得君王寵 却被黃鸝叫一聲)"라고 했다. 고황제高皇帝가 궁궐

40 딴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우락牛酪 · 소젖 · 우유.

41 천자天子의 어물을 만들고 저장하는 관부官府.

42 요堯임금. 처음에 도陶라는 땅에 살다가 당唐이란 땅으로 이사하였으므로 이름.

깊은 방안의 궁인의 심사心事를 능숙하게 묘사했다고 하여 잠실蠶室[43]에 가두어 죽게 했다고 한다. 나는 말한다. 이 시가 뛰어나게 아름다운 것이 아닌데, 화禍를 사는 일을 면치 못한 것은 아마 그 말이 외설스럽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최수성崔壽峸은 강릉江陵 사람이니, 호를 원정猿亭이라고 했다. 성질이 활달하여 작은 일에 구애되지 않았다. 기묘사화己卯士禍 뒤에 그의 숙부 최세절崔世節이 승지承旨가 되니, 공公이 편지와 시를 부쳐 보내어 외직外職에 보임補任되기를 청하라고 권하였는데, 분개하는 말이 있었다. 그 시에 말하기를, "날 저문 창강滄江 위에, 하늘은 차갑고 물은 저절로 물결치네. 외로운 배 일찍 정박停泊함이 좋겠구나. 밤에는 응당 풍랑이 많을 테니〔日暮滄江上 天寒水自波 孤舟宜早泊 風浪夜應多〕"라고 했다. 세절世節이 그 글을 가지고 위에 고발하니 수성壽城은 드디어 신문訊問을 받다가 죽었다.

20-10 시참詩讖

대언부大言賦 · 소언부小言賦는 초楚나라의 당륵唐勒 · 경차景差 · 송옥宋玉에게서 시작되었다. 양소명梁昭明이 세언細言을 지어 말하기를 "앉으나 누우나 빈 티끌을 이웃하고, 초명충蟭螟虫(아주 작은 벌레)의 날개에 의지해 붙었으니, 지척을 넘는데 삼추三秋가 걸리고, 호리毫釐(아주 짧은 거리)를 지나는데 아홉 번 쉬는구나〔坐臥隣空塵 憑附蟭螟翼 越咫尺而三秋 度毫釐而九息〕"라고 했다. 글 뜻이 짧고 촉박하니, 그가 요절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

43 궁형宮刑(불알을 썩히는 형벌)에 처할 자를 훈부燻腐시키는 감방. 바람이 없는 밀실密室에 뜨거운 불을 피워 놓는 것이 누에를 치는 방과 같으므로 잠실이라고 한다.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 말하기를, "하늘은 높고 땅은 멀어 우주의 무궁함을 깨닫겠고, 흥興이 다하여 슬픔이 오는 것이니, 가득 차고 텅 비는 것이 운수가 있음을 알겠구나〔天高地迴 覺宇宙之無窮 興盡悲來 識盈虛之有數〕"라고 했다. 사람들이 이 글귀를 단명短命할 징조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글 중에 "석 자 되는 몸의 가냘픈 목숨〔三尺微命〕"이라고 한 문구나, "좋은 땅은 항상 계속될 수 없고, 성대한 놀음은 거듭하기 어렵다〔勝地不常 盛遊難再〕"라고 한 말을 보면 더욱 슬프다. 또 설화薛華를 이별하는 시에는, "슬프고 쓸쓸한 1,000리 길이고, 슬프게 끝나는 100년의 생명이로구나. 가는 사람도 머무는 사람도 모두가 이 꿈속의 사람이라네〔悲凉千里道 凄斷百年身 無論去與住 俱是夢中人〕"라고 하였으며, 또 "양자강과 한수漢水는 깊어서 끝이 없고, 양산梁山과 민산岷山은 높아서 오를 수가 없네. 산천 운무雲霧 속에 노니는 사람 어느 때나 돌아올까〔江漢深無極 梁岷不可攀 山川雲霧裏 遊子幾時還〕"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왕발이 교지交趾로 아버지를 뵈러 가는 길에 남해를 건너다가 물에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이 시는 시참詩讖에 가깝다.

《소설》에 조당曹唐이 시를 지어 말하기를, "골 안에 하늘이 있는데 봄은 적적하고, 인간에는 길이 없는데 달빛만 아득하다〔洞裏有天春寂寂 人間無路月茫茫〕"라고 했다. 두어 날 뒤에 죽었다고 한다. 지금 이 글귀를 보니 정말 귀신의 말 같다.

이욱李煜의 낙화시落花詩에 말하기를, "꾀꼬리가 미쳐서 날뛰는 것도 응당 한계가 있을 것이고, 나비가 춤추는 것도 이미 오래지는 못하리〔鶯狂應有限 蝶舞已無多〕"라고 했다. 얼마 안 되어서 나라가 망했다고 한다.
송자경宋子京의 낙화시에는, "향기는 벌꿀을 따라 다하고, 붉은 것은 제비의 흙에 들어가 말랐구나〔香隨蜂蜜盡 紅入燕泥乾〕"라고 했다. 또한 멀지 않아서 죽었다고 한다. 아마 시참일 것이다.

진소유秦少游가 귀양살이 중에 꿈에 사詞를 지었으니 말하기를, “취해서 옛 등나무 그늘에 누웠으니, 아득하여 남북을 알지 못한다〔醉臥古藤陰下 杳不知南北〕”라고 했다. 후에 북으로 돌아가서 등주藤州에 머물다가 술에 취하여 죽었다. 산곡山谷의 시에, “서쪽 바람이 옛 등주의 꿈을 분다〔西風吹夢古藤州〕”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성중엄成重淹이 홍문박사弘文博士로서 연산燕山 때에 하동河東으로 귀양을 가서, 조매계曹梅溪의 시 한 연구를 차운하여 말하기를, “지난 일은 눈 위에 기러기가 진흙 발자국을 찍은 것 같고, 뜬 이름은 창해에 칼의 흔적이 없는 것처럼 자취가 없다〔往事春泥鴻着爪[44] 浮名滄海劍無痕〕”라고 했다.

전한典翰 기준奇遵이 옥당玉堂에 있을 때에 꿈을 기록한 시의 끝 글귀에서 말하기를, “창파 만 리에 돌아오는 노가 없어서, 푸른 바다는 망망하고 서신은 통하지 않네〔滄波萬里無廻掉 碧海茫茫信不通〕”라고 했다. 뒤에 종성鍾城으로 귀양 갔다.
두 분이 모두 귀양 간 곳에서 죽었다. 어찌 시참詩讖이 아니겠는가.

김홍도金弘度가 호당湖堂에 있을 때에 동료들이 술자리에 모여서 장난으로 공公의 생만사生挽詞(산 사람의 만사를 짓는 것) 한 구를 지어 말하기를, “남령의 감군으로서 호령이 엄했고〔南嶺監軍嚴號令〕”라고 하고는 아래 연구를 짓지 못하니, 공이 갑자기 말하기를, “어째서 ‘동호의 대책으로 문장을 천명擅名(명예를 혼자서 차지함)했다〔東湖對策擅文章〕’고 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대체로 공이 일찍이 감군어사監軍御史가 되었으며, 또 응제책應製策이 있었으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44 돌아가는 기러기가 다시 올 때의 목표를 위하여 눈이나 진흙 위에 발자국을 찍어 놓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곧 사라져 흔적이 없어진다.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발자취, 또는 유람한 자취가 곧 사라지는 것에 비유하는 말. 홍조鴻爪라는 낱말로 널리 쓰인다.

사람들이 꼭 맞는 대對라고 말했다. 오래지 않아서 공이 죽으니 드디어 시참詩讖을 이루었다고 한다.

허하곡許荷谷 봉篈이 갑산甲山으로 귀양 갈 때에 친구를 이별하는 시를 지어 말하기를, “깊은 나무에 까마귀 우는 저무는 날에, 한 병 술로 와서 귀양 가는 신하의 슬픔을 위로하네. 이생에서 서로 다시 볼 날은 응당 없을 것이니, 바로 황천을 가리켜서 뒷기약을 짓네〔深樹啼鴉薄暮時 一壺來慰楚臣悲 此生相見應無日 直指重泉作後期〕”라고 했다. 뒤에 비록 방면됨을 입었으나, 성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오성李鰲城이 귀양 갔을 때에 지은 시가 있으니, “구름 덮인 해는 쓸쓸하고 낮은 어두컴컴한데, 북풍이 멀리 가는 옷을 불어 찢는구나. 요동의 성곽은 응당 의구하겠지만, 다만 영위令威가 가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두렵다〔雲日蕭蕭晝晦微 北風吹裂遠征衣 遼東城郭應依舊 只恐令威去不歸〕”라고 했다. 얼마 안 되어서 죽으니 사람들이 시참詩讖이라고 말한다. 상고하여 보니, 영위令威의 영令은 거성去聲이다. 공이 알고 썼는지 알 수 없다.

윤계선尹繼善 이술而述이 나와 함께 북경에 갔는데, 재주가 매우 많아서 비록 정련精鍊되지는 않았지만 붓만 잡으면 그 자리에서 지었다. 일찍이 나의 시를 화답한 시의 끝구에 말하기를, “벼슬 바다에 풍파가 사나워서 나의 배에 돛을 떨어뜨리는 것이 이른 것을 본다〔宦海風波惡 看吾早落帆〕”라고 했다. 나는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반드시 벼슬길이 오래가지 못하겠구나”라고 하였더니, 마침내 현달顯達하지 못하고 요절했다. 그가 평일에 지은 시에 이런 것들이 있다. “세상일은 한봄에 꽃 떨어지는 것이 바쁘다〔世事一春花落忙〕”라고 했고, “손가락 한 번 튀기는 동안에 광음光陰은 바쁘다〔一彈指處光陰忙〕”라고도 하였으며, “내 장차 가리라. 청산에 놀리로다〔余將逝矣遊靑山〕”라고도 했다. 또 그

의 산문散文에는 이런 것이 있다. "필해筆海(많은 문자文字)에는 대통으로 표범을 엿보는 것 같고, 문원文苑에는 모기의 눈썹에 깃들인 초명蟭螟(아주 작은 벌레)과 같은 아주 작은 존재이다〔筆海窺豹[45] 文苑棲螟[46]〕"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가을 수풀의 저녁볕에 초요鷦鷯(뱁새)가 깃들일 한 가지가 정하지 않았다〔秋林夕照未定鷦鷯之一枝〕"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재주는 풀 반딧불 같아서 해를 보는데 광휘가 없음을 어찌하랴〔才如草螢 奈無輝於日觀〕"라고 했다. 대체로 단수短壽의 징조라고 한다.

20-11 시예詩藝

상고하여 보니, 양梁나라의 유효작劉孝綽이 한 편의 좋은 시를 지으면 그때마다 모두들 암송하여 하삭河朔 지방에까지 흘러들어 정자亭子와 원사院舍의 기둥과 벽에 써 붙이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당唐나라의 잠삼岑參이 한 편의 매우 뛰어난 시를 지었을 때마다 사람 사람이 전해 베껴서 비록 먼 오랑캐의 나랏일지라도 읊고 익히지 않음이 없었다. 이익李益이 한 편을 성취하면 악공樂工들이 다투어 뇌물을 쓰면서 구해다가 현가絃歌로 작곡하여 천자天子에게 바치곤 했다. 그의 〈정인조행편征人早行篇〉 등은 온 천하가 모두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곤 했다. 아, 이 몇몇 사람들의 시만이 어찌 홀로 사람들로 하여금 경모景慕함이 이에 이르게 하였는가. 나는 보니, 지금 세상의 선비는 비록 재주가 뛰어났더라도, 사람들이 돈독하게 좋아하는 이가 없다. 어찌 지금과 예전이 달라서, 좋은 글을 좋아하는 자를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45 규표窺豹는 규표일반窺豹一斑의 약어略語. 대통 구멍을 통하여 표범의 반점斑點 하나를 엿본다는 뜻이니, 즉 작은 한 부분만을 볼 뿐, 전체를 알지 못한다는 비유의 말.

46 초명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벌레가 모기의 눈썹 속에 깃들여 있다는 말. 지극히 작은 존재라는 뜻.

《소설》에 말하기를, "시확柴廓에게 〈행로난行路難〉이라는 한 편의 시가 있었다. 중 보월寶月이 이것을 훔쳐서 새겨 놓고 자기의 작품이라고 했다. 시확의 아들이 매우 분하게 여겨 수본手本(소장訴狀)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니, 보월이 뇌물을 후하게 주고 일을 면했다고 한다." 이것을 보면 남의 글을 훔치는 폐단은 예전부터 있었으며, 판각板刻의 유래도 또한 오래이다.

《두시집杜詩集》의 서문序文에 말하기를, "자미子美는 당시에 있어서는 이름이 이백李白의 다음이었고, 또 이백보다 10여 세나 나이가 적었으며, 평소에 아는 자도 또한 드물었다. 원화元和 연간年間에 이르러서는 천하가 다투어 원진元稹·백거이白居易의 시를 외게 되고, 자미에게는 비평과 헐뜯음을 퍼붓더니, 한퇴지韓退之가 '두자미杜子美의 시는 만 길이나 높이 솟을 듯한 광채와 불꽃이 있다. 어찌 헐뜯어 손상시킨단 말인가'라고 한 말이 있었으며, 또 원미지元微之도 극도로 칭찬하여, '이백李白이 따라갈 수 없다'고 하기에 이르러서야, 이에 자미의 이름은 빛나서 일월日月과 함께 광휘光輝를 나타내게 되고 사예辭藝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그를 으뜸으로 받들게 되었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자미의 문장으로도 오히려 후인은 기다려서야 드러났으니, 하물며 지금 세상의 선비이겠는가.

두소릉杜少陵은 이한림李翰林에게 대해 가장 숭배하였으니, "이후李侯에게 아름다운 시구가 있어서 왕왕 음견陰鏗과 같다. 청신하기는 유개부庾開府와 같고, 준일俊逸하기는 포참군鮑參軍 같다. 민첩하게 시 천 수를 짓고 영락한 대로 술 한 잔을 마신다. 붓이 떨어지면 바람과 비가 놀라고, 시가 이루어지면 귀신이 운다. 천추 만세의 이름은, 쓸쓸한 몸이 간 뒤의 일일세〔李侯有佳句 往往似陰鏗 淸新庾開府 俊逸鮑參軍, 敏捷詩千首 飄零酒一杯 筆落驚風雨 詩成泣鬼神 千秋萬世名 寂寞身後事〕"라고 한 것과 같다. 이백李白은 소릉少陵에 대하여는 별로 숭배하는 말이 없다. 그가 말한, "다만 종전대로 시 짓기에 신고辛苦하고 있다〔只爲從前作詩苦〕"라

고 한 것은 또 비웃어 희롱하는 것 같기도 하다. 무슨 까닭인가.

이한림李翰林의 시집은 시가 970여 편이고, 두공부杜工部는 시가 1,405편이며, 고시古詩가 399편이고 근체시近體詩가 1,600수이니 많다고 말할 수 있다. 송나라에 이르러서는 소동파蘇東坡의 시문詩文이 여러 시집 가운데서 가장 많다. 명나라의 왕감주의 시집은 소동파에 비하여 배나 된다. 고금古今의 시인 중에서 백낙천白樂天 이외에는 육구몽陸龜蒙과 육방옹陸放翁의 작품이 가장 많은데, 세상에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백李白의 〈촉도난蜀道難〉의 시고詩稿를 송도松都 불운사佛雲寺의 부처의 뱃속에 감춰 두었더니, 근년에 무뢰한들의 훔쳐간 바 되었다. 어떤 사람이 그 초고草稿를 보았다는데, 고친 곳이 많았으며, 첫 글귀를 “우돌재吁咄哉(탄식하는 감탄사)”라고 고쳤다가, “희우희噫吁戲(탄식하는 감탄사)”로 고쳤더라고 한다. 이백李白은 시詩의 성인聖人으로서 마땅히 생각하지 않고 지어질 것인데도, 하나하나 고치고 다듬는 일을 피하지 않았으니, 옛 사람들이 시 짓는 일을 쉽게 여기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동지同知 김상준金尙寯이 말하기를, “일찍이 영광군수靈光郡守로 있을 때에 고을의 무인武人의 집에 두자미杜子美의 시고詩稿 2장이 수장收藏되어 있었다. 그 중의 하나는 바로 “성곽城廓을 등지고 집을 지어 흰 띠 풀로 덮었다〔負郭堂成蔭白茅〕”라고 한 시였는데, 짙은 먹물로 고친 곳이 매우 많았다고 한다. 그것은 평시에 표류해 온 중국 사람에게서 얻은 것이라고 한다.” 두시杜詩에, “새 시를 다 고치고 나서 스스로 길게 읊는다〔新詩改罷自長吟〕”라고 한 것이 있다. 아마 사실일 것이다. 상고하여 보니, 이백이 장조張祖를 보내는 서序의 첫머리에 말하기를, “우돌재吁咄哉”라고 했다. 그러니 촉도난蜀道難의 시고詩稿 첫머리를 “우돌재”라고 썼다가 고쳤다고 한 그 말은 더욱 믿을 만하다.

잡설雜說에 말하기를, “왕유王維는 맹호연孟浩然의 음아吟哦하는 풍도風度(풍채와 태도)를 사랑하여 그림을 그려 놓고 완상하였으며 이동李洞은 가도賈島의 시명詩名을 사모하여 상像을 주조鑄造하여 놓고 스승으로 섬겼다”라고 했다. 아, 옛 사람들이 인재를 사랑하고 아낌이 이와 같았는데, 지금 세상은 인재人才를 사랑하지 않음이 지나친다. 다만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는 이도 또한 드물구나.

고적高適은 50세에 처음으로 시를 지었으나, 그 시가 문득 뛰어났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고적의 시는 기묘하고 건전하며, 웅혼하여 성당盛唐의 고수이다. 공부함이 깊지 않고는 이렇게 뛰어날 수는 없다. 아마 달부達夫(고적의 자字)가 50세 이전에는 시를 마음에 감추어 두었다가 50세 이후에 비로소 붓으로 발표한 것일 것이다.

시詩는 그 사람의 성정性情에서 나온다는 말은 오래됐다. 가도賈島의 시에 말하기를, “벼를 심는데 흰 물을 갈고, 땔나무를 하기 위해 푸른 산을 찍는다〔種稻耕白水 負薪斫靑山〕”라고 했다. 그에게 한 치의 땅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맹교孟郊의 시에는 말하기를, “귀밑에 비록 실이 있으나, 차가운 옷을 짜낼 수는 없다. 혹여나 베로 짤 수 있게 한다면 다소의 베를 얻을 수 있으련만〔鬢邊雖有絲 不堪織寒衣 縱使堪織 能得多少〕”이라고 했다. 궁하고 괴롭다고 말할 수 있다.

《백거이전白居易傳》에 말하기를, “거이居易의 시를 사람들이 다투어 전했다. 계림鷄林의 상인商人이 그 나라의 재상에게 파는데 모두 한 편에 금 하나씩 바꿨다”라고 했다. 계림은 바로 신라新羅이다. 그러나 국상國相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그가 무척 좋아했다는 것은 혹시나 알고 좋아한 사람이었을까, 아마 그 시가 이항里巷(마을의 거리)의 상말 같이 쉽고도 사리事理에 가깝고, 정태情態를 곡진하게 표현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중시됨이 이와 같았을 것이다.

송나라의 휘종徽宗이, 진여의陳與義가 지은 묵매시墨梅詩를 보고 좋게 여겨, 급히 소대召對(임금의 명령으로 불러들여 임금과 만남)를 명하고 이어 등용했다가, 고종高宗 때에 참지정사參知政事가 되었다. 이것으로 하여 사람들이, “시가 능히 사람을 현달顯達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나 고금의 시인에는 궁곤한 자가 많고 현달한 이는 적다. 그러므로 나는 감히 이 말을 믿지 못한다.

성용재成慵齋(성현成俔)가 말하기를, “서사가徐四佳(서거정徐居正)의 시는 오로지 한韓·육陸을 배웠다”라고 했다. 한韓·육陸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어떤 이는, 한韓은 한창려韓昌黎이고, 육陸은 육구몽陸龜蒙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뒤에 사가四佳가 손수 초抄한 육집陸集과 그가 스스로 지은 서문을 보니 육방옹陸放翁을 지극히 칭찬했다. 또 말하기를, “방옹放翁의 시는 한자창韓子蒼에게서 나왔다”라고 했다. 여기에서 한韓은 즉 한자창이란 것을 알겠다. 용재와 사가는 한 시대의 인물이니, 그의 말이 반드시 함부로 한 말은 아닐 것이다. 사가의 숭상한 것이 이와 같았으니, 그의 시재詩才가 화려하고 풍부한(華贍) 작품에 그친 것은 당연하다.

정호음鄭湖陰의 시는 주로 소동파蘇東坡와 황산곡黃山谷을 배웠는데 만년晩年에 가서는 매우 그들을 업신여기고, 매양 번천樊川과 의산義山의 시를 읽었다고 한다. 허하곡許荷谷은 젊어서는 소동파蘇東坡를 배웠는데 뒤에는 당음唐音과 이백李白을 즐겨했다. 스스로 말하기를, “전일의 버릇을 바꾸고자 하였으나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임석천林石川은 말로는 이백李白을 배운다고 하면서 항상 《낙천집樂天集》을 읽었다고 한다. 전배前輩들의 문장과 재예才藝로도 오히려 이러하였으니, 혹은 소蘇·황黃에게는 물들기 쉽고, 이백李白은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이었을까.

중국의 경리經理 양호楊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의 시를 보

여 달라고 했다. 전조前朝 사람들의 《시선詩選》을 보여주니, 경리가 말하기를, “글의 기운이 매우 약해서 좋지 않다”라고 했다.
또 중국 사신 주지번朱之蕃이 우리나라 사람의 시를 보여 달라고 하기에, 최창경崔昌慶 · 백광훈白光勳의 시집을 보였더니, 주 사신朱使臣이 감탄하고 칭찬하여 말하기를, “마땅히 가지고 강남江南에 돌아가 출판해서 귀국의 문물文物이 성대한 것을 자랑해야 되겠다”라고 했다. 혹은 두 사람의 시가 당시唐詩에 가깝기 때문에 좋아한 것일까.

이상국李相國 준경浚慶이 일찍이 시를 지어 정사룡鄭士龍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나의 시를 옛 사람의 시에 비견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정사룡이 말하기를, “비록 옛 사람의 것만은 못하나 친구를 위하여 별장別章(이별의 정을 나타내는 시문)을 짓는 데는 충분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공이 이때부터 다시는 시를 읊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편강偏强함이 이와 같았다. 지금 사람은 어설프게 응속문자應俗文字를 지을 수 있게 되면, 망령되게 옛 사람에 견주어 발딱발딱 날뛰면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꼴은 과연 어떠한가.

양사문楊斯文 사준士俊은 봉래蓬萊의 아우이다. 문사文詞에 힘써서 정상룡鄭上龍의 숭배하는 바 되었다. 그러나 봉래는 매양 그의 시가 어려운 것을 비난했다. 일찍이 시를 지은 것이 있다. “낚시터에 물이 물러가니 물새가 발자국을 남기고, 게 구멍에 흙이 비니 갈대가 뿌리를 드러낸다(魚磯水退禽留跡 蟹穴泥空荻露根)”라고 했다. 그러나 들으니 그가 평일에 한문韓文을 4,000번이나 읽었다고 한다. 그러고도 세상에 문명文名을 떨치지 못하였으니 그의 재주를 알 수 있다.

교관敎官 정작鄭碏이 일찍이 어느 연회 자리에서 사운射韻(옛 시에 있는 운자를 찾아내는 유희)을 하면서 놀았는데, 모暮 자가 나왔다. 여러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모暮 자 운韻이 달린 글귀를 불렀다. 정작이 스스로 한 글귀를 지어 가지고 말하기를, "요량寥亮(소리가 높고 명랑하게 울려 퍼짐)하게 강천江天이 저문다(寥亮江天暮)"라고 하니, 여러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이 말은 무리하다. 어느 시집에 나오는가"라고 했다. 정작이 말하기를, "'멀고 먼 모래 위의 사람을, 처음에는 외로운 백로白鷺인가 의심하였더니, 바람 앞에 서서 홀연히 피리를 부니, 그 소리 높고 명랑하게 울려 퍼지고 강 하늘은 저무네(遠遠沙上人 初疑雙白鷺 臨風忽橫笛 寥亮江天暮)'라고 한 당시唐詩가 있다"라고 하니, 여러 사람들이 믿고 승복했다고 한다.

임제林悌가 속리산俗離山에 들어가 《중용中庸》을 800번 읽고 시 한 구를 지었으니 말하기를, "도道가 사람을 멀리함이 아니고 사람이 도를 멀리함이요, 산이 속된 것을 떠난 것이 아니라 속된 것이 산에서 떠난 것이다(道不遠人人遠道 山非離俗俗離山)"라고 했다. 《중용》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여소재廬蘇齋는 평생에 《논어》를 읽었기 때문에 그의 시에는 《논어》의 전全 글귀를 그냥 쓴 것이 매우 많다. 일찍이 말하기를, "나의 시문詩文은 《논어》 안에서 가장 많이 힘을 얻었다"라고 했다 한다.

나의 숙부 지사知事 휘諱 희득希得은 나이 80세에 몽은蒙恩(은혜를 입음)하여 정2품에 오르매 드디어 연회를 열어 성대하게 축하했다. 잔치에 모인 사람이 수십 명이었다. 금계군錦溪君 동량東亮이 늦게 왔으므로 제공諸公이 주벌酒罰을 시행하니, 서경西坰 유근柳根이 희롱하여 한 글귀를 지어 말하기를, "문득 태백太白을 띄우니 진짜 일이 많구나. 끝에 도착한 상여相如가 가장 소년일세(便浮太白眞多事 末至相如最少年)"라고 했다. 만좌滿座가 칭찬했다. 그때 박 공의 나이 36세로서 가장 젊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오산五山 차천로車天輅는 문장이 웅건雄建 기장奇壯하여 정精하게 다듬는 것을

일삼지 않았다. 마치 긴 강물과 큰 바다는 쏟을수록 더욱더 무궁한 것과 같다. 짝을 맞추는 글에 가장 능숙하다. 젊었을 때 송계松溪에 돌을 깨뜨려서 다리를 만드는 것을 보고 시를 짓기를, "푸른 산에 하우씨夏禹氏의 도끼가 날더니, 흰 돌이 진秦나라의 채찍에 떨어진다(靑山飛禹斧[47] 白石落秦鞭[48])"라고 했다. 이것은 고금에 뛰어나는 말(語)이다. 일찍이 통신사通信使를 따라 일본에 다녀왔는데, 시 4,000여 수를 지었다. 그중의 한 연구에 말하기를, "하늘은 노수魯叟가 뗏목을 타던 바다에 이어졌고, 땅은 진秦나라의 동남동녀童男童女가 약 캐러 가던 산을 안았다(天連魯叟乘桴海[49] 地包秦童採藥[50]山)"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동쪽 바다에는 물결이 여섯 자라의 섬에 뒤치고, 북쪽 하늘에는 바람이 대붕의 구름을 세운다(東海波翻六鰲島[51] 北冥風立大鵬雲[52])"라고 했다. 이것으로 그 일단一端을

47 고대에 하우씨夏禹氏가 홍수洪水를 다스려 물을 바다로 끌어내기 위하여 산을 뚫어 황하黃河의 도수로導水路를 개통했다는 고사. 즉 하우씨가 도끼로 산을 찍고 나무를 베었다는 뜻.

48 흰 돌이 진秦나라의 채찍에 떨어진다고 한 말. 옛날 진나라 시황始皇이 돌다리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가서 해 돋는 곳을 보고자 했다. 그때에 신인神人이 있어서 돌을 몰고 바다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돌이 가는 것이 빠르지 않았다. 신인이 문득 채찍으로 치니 돌이 모두 피를 흘려, 지금까지 모두 붉다고 하는 전설에서 나온 말. 이 시는 산에 도끼질하여 돌을 깨내고 다리를 놓는다는 것을, 고사를 인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49 노수魯叟는 공자孔子를 일컬은 말. 승부乘桴는 뗏목을 타는 것. 《논어》〈공야장公冶長〉편에 보면, 공자는 도道가 행하지 않는 것을 개탄하여, "나는 뗏목을 타고 바다에 떠 가고 싶구나. 그러면 나를 따라올 자는 자로子路일 것이다(道不行 乘桴於海 從我者 其由與)라고 한 것이 있다. 이 시에서 그것을 인용하여 바다를 표현하고 있다.

50 진秦나라의 아이들이 약을 캐러 간다는 말. 옛날 진시황秦始皇은 서불徐市이라는 사람의 말을 믿고, 동남동녀童男童女 수천 명을 서불로 하여금 거느리게 하고, 바닷속에 있는 신선의 산에 가서 불사약不死藥을 구하게 했다는 고사.

51 동해의 다섯 신산神山을 머리에 이고 있던 큰 자라 15마리 중에서, 용백국龍伯國의 거인이 한 낚시로 6마리를 낚아간 그 섬이라는 뜻. 《열자》에 나오는 전설을 인용한 것이다.

52 《장자莊子》의 〈소요유逍遙遊〉편에 말하기를, "북쪽에 명해冥海라는 것이 있으니 천지天池이다. ……새가 있으니 그 이름을 붕새(鵬)라고 하는데, 등은 태산泰山 같고 날개는 하늘에 드리운 구름 같다. 날개를 쳐서 회오리바람을 양의 뿔처럼 구부정하게 일으키며, 9만 리를 올라가서 구름을 끊고 푸른 하늘을 등지고……"라고 한 구절이 있다. 이 시에서는 이것을 인용하여 바다를 항행할 때의 풍경을 표현한 것이다.

알 수 있다.

진사進士 성여학成汝學의 호는 쌍천雙泉이다. 젊은 때부터 시를 전공하였으나 불운하여 나이 60세가 되도록 일명一命(처음 받는 낮은 벼슬)도 얻지 못하였으니 애석하다. 그의 경구警句에 말하기를, "풀 이슬에 귀뚜라미 소리가 젖고, 수풀 바람에 새 꿈이 위태롭다〔草露蛩聲濕 林風鳥夢危〕"라고 하였으며, "차가운 나무에서는 새가 꿈이 없고, 어두운 창문에는 벌레의 소리가 있다〔寒樹鳥無夢 暗窓蟲有聲〕" 했다. 또, "이지러진 달은 깊은 나무에 깃들이고, 차가운 새는 깨진 울타리에 집을 짓는다〔缺月栖深樹 寒禽穴破籬〕"라고도 했고, "비 뜻은 치우치게 꿈을 침노하고, 가을빛은 시詩를 물들이고자 한다〔雨意偏侵夢 秋光欲染詩〕"라고도 했다. 그의 청고淸苦함이 이와 같다.

생원 유도柳塗는 젊어서 박행薄倖하다는 것으로 화류계花柳界에 이름이 있었다. 오래도록 과거의 응시 자격을 정지당했다. 시를 지어 말하기를, "10년을 청루에서 먹고 있으니, 하늘을 거스를 만큼 남들의 비방이 쌓였구나. 미친 마음이 오히려 그치지 않아서 백마白馬를 또 황혼에 달리네〔十載靑樓食 熏天積謗喧 狂心猶未已 白馬又黃昏〕"라고 했다. 이아계李鵝溪(이산해李山海)가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의 그 재주가 아깝다"라고 했다.
또 생원 권협權韐은 〈송도회고시松都懷古詩〉에 말하기를, "눈과 달은 전조前朝의 빛이고, 바람과 종은 고국故國의 소리로구나. 남쪽 문에 슬퍼하며 홀로 섰노라니, 성곽에 차디찬 연기가 나네〔雪月前朝色 風鐘故國聲 南門愁獨立 城郭冷烟生〕"라고 했다.
송호宋昈의 〈제화시題畫詩〉에는 말하기를, "위태한 다리에 말 모는 것이 더딘데, 강천江天의 저녁에 새는 모두 돌아갔네〔危橋驅馬遲 鳥盡江天夕〕"라고 했다. 이것은 모두 소년 때에 지은 것이다.

근세의 시인은 호남湖南에서 많이 나왔다. 박눌재朴訥齋 상祥 · 임석천林石川 억령億齡 · 임금호林錦湖 형수亨秀 · 김하서金河西 인후麟厚 · 양송천梁松川 응필應弼 · 박사암朴思庵 순淳 · 최고죽崔孤竹 경창慶昌 · 백옥봉白玉峯 광훈光勳 · 임백호林白湖 제悌 · 고태봉헌高苔峰軒 경명敬命 등은 모두 남달리 우뚝 뛰어난 사람들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시는 반드시 전공을 한 뒤에야 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를 잘하는 이는 한고곤액寒苦困阨한 가운데서 나오는 일이 많다. 당唐나라의 이한림李翰林 · 두공부杜工部 · 맹양양孟襄陽 동야東野 · 가랑선賈浪仙 · 노옥천盧玉川 같은 이는 한고寒苦했다"라고 했다.
근세의 일을 말한다면 이용재李容齋 · 김모재金慕齋 · 신기재申企齋 · 정호음鄭湖陰 · 임석천林石川 · 여소재盧蘇齋 같은 이들로 어떤 이는 오래도록 귀양살이를 했고, 어떤 이는 오래도록 한가히 물러나 있었다. 백광훈白光勳 · 이달李達 · 차천로車天輅는 모두 한고寒苦한 데서 나왔다. 옛날과 지금의 이와 같은 자들을 이루 다 열거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오직 궁한 자가 뛰어날 수 있었을 뿐이고, 시가 사람을 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또 하늘이 이 사람들에게 만약 그들의 몸이 궁액窮阨한 것을 보살펴서, 그들의 마음이 시詩에 향할 수 없을 사인事因을 더하고 보태어 그들로 하여금 궁함이 심하지 않게 했다면, 그들은 반드시 이렇게 뛰어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한유韓愈의 송궁送窮(궁한 것을 보냄)은 그 또한 우활迂濶한 것이다.


권15

21. 인물부人物部

21-1 성현聖賢

《순자荀子》〈비상非相〉편에 말하기를, "제요帝堯가 임금 노릇한 동안은 길었고, 제순帝舜은 짧았다. 문왕文王의 임금 노릇한 동안은 길었고, 주공周公은 짧았다. 중니仲尼가 도를 행한 동안은 길었고, 자궁子弓은 짧았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상고한 데가 있어서 한 말이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자궁子弓은, 곧 《사기史記》에서 말하는 간비자궁馯臂子弓[1]일 것이다. 또 《논어》에는 이것을 일민逸民[2] 주장朱張[3]이라고 했다. 왕필王弼은 말하기를, "주장朱張의 자字는 자궁子弓으로서 순경荀卿은 그를 공자孔子에 비교한 사람이다"라고 했다. 진사도陳師道는 말하기를, "순자荀子의 학문은 자궁子弓에게서 나왔으니 이 자궁子弓이란 곧 중궁仲弓이다"라고 했다. 한창려韓昌黎[4]는 말하기를, "순자荀子의 글에서는 성인聖人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중니仲尼·자궁子弓이라고 했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 말일 것이다.

주周나라 초년의 성군聖君으로는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이 있었다. 또 성신聖臣으

1 전국시대戰國時代 강동江東 사람. 자字는 자궁子弓. 《주역》을 교비자용橋庇子庸에게 배웠음. 《사기史記》에 의하면 《역易》을 공자孔子가 적구商瞿에게 전했고 구瞿는 간비자궁馯臂子弓에게 전했다고 했다.

2 학문과 덕행이 있으면서 숨어서 지내는 사람.

3 주周나라 사람. 자字는 자궁子弓. 숨어 살아 벼슬하지 않았음. 《논어》〈미자微子〉편에 보면, 옛 일민逸民으로는 백이伯夷·숙제叔齊·우중虞仲·이일夷逸·주장朱張·유하혜柳下惠·소련少連이 있었다고 했다.

4 중당中唐의 문호文豪. 이름은 유愈, 자는 퇴지退之. 창여昌黎는 그가 살던 고을 이름으로서 사람들이 창여 선생이라고 불렀음.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 유종원柳宗元과 함께 고문古文 부흥에 힘썼음.

로는 주공周公과 태공太公이 있었다. 은殷나라에는 삼인三仁[5] 이외에 백이伯夷와 숙제叔齊가 있었다. 그러니 말하자면 이때에 이르러 가위 성盛했다 할 것이다.

왕충王充의 《논형論衡》에 말하기를, “성인聖人은 앞으로 천년 동안의 일을 알고, 뒤로 만년 동안의 일을 안다〔聖人前知千歲 後知萬歲〕”라고 했다. 공자孔子가 남긴 글에 이런 말이 있다. “한 남자가 있어 말하기를, ‘진시황秦始皇은 나의 침상에 올라가서, 나의 의상衣裳을 거꾸러뜨린 다음 사구沙丘에 가서 죽는다’고 했다”라고 했다. 과연 그 뒤에 진시황은 사구에 가서 죽었다.
또 말하기를, “동중서董仲舒[6]는 나의 글을 어지럽힐 것이다〔董仲舒亂我書〕”라고 하더니, 그 후에 동중서는 《춘추》를 논하여 전기傳記를 지었다.
나는 말한다. 《중용中庸》에, 정성스러우면 일을 먼저 알 수가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다만 공자孔子의 유서遺書에 말한 것은 경전經傳에는 나와 있지 않고, 왕충의 끝에만 나온 것은 무슨 까닭일까.

한창려韓昌黎는 말하기를, “맹가孟軻는 죽은 뒤에 그 전기傳記를 남기지 못했다〔軻之死不得其傳〕”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맹자는 순수하고 순수했었다. 순경荀卿과 양주楊朱[7]는 가려서 배우기는 했어도 정밀하지는 못하다”라고 했다. 이천伊川[8]이 그 말을 견식見識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한퇴지韓退之는, 맹자를 높여 “그의 공로가 결코 우왕禹王의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하였으며,

5 은殷나라 말년의 충신 세 사람. 곧 미자微子 · 기자箕子 · 비간比干.

6 전한前漢의 대학자大學者. 유교일존주의儒敎一尊主義를 세워 유교 독립의 기반을 마련함. 《춘추번로春秋繁露》라는 글을 저술하여 《춘추》를 말했음.

7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사상가思想家. 자字는 자거子居. 극단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제창하여 묵구墨瞿의 겸애론兼愛論에 대립함.

8 북송北宋의 대학자大學者. 이름은 이頤, 자字는 정숙正叔. 이천백伊川伯을 봉했다 해서 모두 이천伊川 선생이라고 부름. 주렴계周濂溪에게서 배웠고, 처음으로 이기理氣의 철학을 제창함. 명도선생明道先生 정호程顥의 아우.

또 말하기를, “성인聖人의 도道를 보려고 한다면 반드시 맹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것은 한퇴지韓退之의 독특한 의견이다. 그런데도 선유先儒들은 일찍이 이것을 하나도 지적하지 않고 용허하는 것은 무슨 때문일까.

왕감주는 말하기를, “안자顔子가 맹자보다 나은 것은 그 기질氣質이다. 그러나 맹자는 선생님에게서 배우지 않았어도 지혜를 가져서 정통을 세운 공로가 있다(顔子之勝孟子 氣質也 孟子有無師之智 有立統之功)”라고 했다. 이것도 곧 왕감주의 독특한 의견으로 한다.

21-2 사우師友

《설부》에 말하기를, “자子란 남자의 통칭이다. 그런데 성현聖賢은 이들을 으레 자子라고 일컫고, 공자孔子는 다시 부자夫子라고 했다. 이것은 공자가 일찍이 노魯나라 대부大夫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벼슬까지 합쳐서 높이 부른 것일 따름이다. 열자列子의 글에 자열자子列子라 일컫고, 묵자墨子의 글에 자묵자子墨子라고 했고 주자朱子도 이렇게 말했다. 정자程子도 자정자子程子라고 했으니, 이것은 대개 그 스승을 높이는 뜻에서 한 말들이다”라고 했다.

한창려韓昌黎는 말하기를, “자하子夏의 학문은 그 뒤에 전자방田子方[9]이 있었고, 자방의 뒤에는 이 학문이 흘러내려 장주莊周가 되었다”라고 했다. 또, 진사도陳師道는 말하기를, “장자의 학문은 전자방에게서 나왔고, 자방의 학문은 다시 자공子貢에게서 나왔다”라고 했는데, 어느 말이 옳은지 알 수 없다.

9 전국시대戰國時代 위魏의 학자. 문후文侯의 스승. 문후는 자방子方을 인인仁人이라 하여 국보國寶로 받들었음.

문중자文中子[10]는 나이 15세에 벌써 남의 스승이 되었다. 왕효일王孝逸은 일찍 통달해서 거만한 사람이었으나 백수白首로 그의 제자 노릇을 하였으며 방房 · 두杜 · 위魏 · 설薛[11] 등이 모두 그 문하門下에서 나왔으니, 반드시 남보다 뛰어남이 크다고 하겠다.

전조前朝 때 이제현李齊賢은 15세에 진사進士에 올랐다. 당시 사람들이 모두 그의 호號를 불러 익재益齋라고 하고, 이름은 부르지 않았으니, 그 재주와 학문이 일찍 이루어졌던 것을 가히 알 수가 있다. 상고해 보건대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왕통王通은 죽을 때 그 나이 겨우 30여 세였다"라고 했다.

한퇴지韓退之는 사설師說을 지어 그 속에 말하기를, "기예技藝에 100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은 서로 스승으로 모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대부의 족속은 서로 스승으로 하지 않으니, 이들은 자기의 지위가 낮으면 부끄러워하고, 또 벼슬이 높으면 아첨하기 쉽기 때문이다(技藝百工之人 不恥相師 士大夫之族 乃不相師 以謂位卑則足羞 官盛則近諛)"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당시 세상일을 걱정해서 한 말이다.

당唐나라 때에 있어서도 이러했는데 더구나 오늘날에 있어서이겠는가? 오늘날에는 어리석고 어린 아이들이 어자魚字와 노자魯字[12]의 분별을 못하면서도 선생이나 어른들 보기를 하찮게 여기고, 스승으로 모시고 배움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그러고는 겨우 과거 볼 공부를 터득하고 보면 저 스스로 이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아무 분별도 없고 전혀 자기가 나갈 방향에 어둡다. 거기에다가 다시 자기 몸을 위하는 학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 세도世道가 이런 것은 실로 조그만 근심거리가 아니다.

10 수隋나라 사람 왕통王通. 자는 중엄仲俺. 《논어》를 본떠 지은 《문중자文中子》 10권이 있음.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시서역례詩書易禮를 익힌 대유大儒. 즉 왕통王通.

11 방현령房玄齡 · 두여회杜如晦 · 위징魏徵 · 설인귀薛仁貴. 모두 당대唐代의 정치가로서 명황明皇을 도와 창업創業의 공을 이룸.

12 이는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음.

이중호李仲虎의 자는 풍후風后, 호는 이소재履素齋이니 중종中宗 때 사람이다. 기묘사화己卯士禍[13] 뒤로 사도師道를 자기의 책임으로 삼으니, 이에 옷을 걷고 그에게 배움을 받고자 모여드는 자가 날마다 수백 명이나 되었다.
인조仁祖가 승하하자 그는 문도門徒들을 데리고 대궐 문 밖에 가서 울고는 곧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의 뒤로는 교도敎導로 이름 있는 자로서 김근공金謹恭 · 박지화朴枝華 · 유임兪任 · 박주朴洲 등이 있었다. 지금에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책임이 다만 음사蔭仕(부모의 덕으로 한 벼슬)의 계제階梯(사닥다리. 전轉하여 일을 하는데 차례로 밟아 올라가는 경로)를 삼을 뿐 조금도 그 실효가 없으니 참으로 탄식할 일이다.

《소설》에 말하기를, "장기나 바둑으로 사귄 친구는 하루를 가지 않고, 음식으로 사귄 친구는 한 달을 가지 못하며, 또 세리勢利로 사귄 친구는 1년을 가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도의로 사귄 친구만은 그 몸을 마칠 때까지 간다(博奕之交不日 飮食之交不月 勢利之交不年 唯道義之交可以終身)"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성실한 말이라 하겠다.

책선責善하는 것은 곧 친구의 도리이다. 선배들이 친구를 사귀는 데는 반드시 그 허물이 있는 것을 서로 경계해 주고 도의道義로 서로 권면해 주는 것을 나도 역시 보았다. 그러나 세상 습관이 한 번 변한 뒤로는 말하는 것을 서로 꺼려서 친구 사이에도 역시 경계하고 간諫하는 풍도가 없다.
그러니 아아, 옛날의 올바른 도道를 이제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다.

13 조선왕조 중종中宗 14년에 일어난 사화士禍. 홍경주洪景舟 · 남곤南袞 · 심정沈貞 등에 의하여 조광조趙光祖 · 김정金淨 등 연소年少 · 신진新進 학자들이 유배流配 또는 사사賜死된 사건.

21-3 군자君子

진晉나라 두이杜夷[14]는 말하기를, "옥玉은 돌로써 분별하고, 흰빛은 검은빛이 있는 때문에 밝게 보인다. 그런 때문에 추한 것과 좋은 것은 서로 형태가 구별되는 것이다(玉以石辨 白以黑昭 故醜好相形)"라고 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말한다. 소인小人이 군자君子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의 몸이 구별되기 때문이다.

염계선생濂溪先生이 말하기를, "군자는 덕으로 자기 몸을 채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자기 몸이 편안한 것을 부자富者로 여겨서 항상 태평하여 부족한 것이 없게 여긴다(君子以德充爲貴 身安爲富 常泰無不足)"라고 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재물이 많은 것을 부자로 여겨서, 항상 불편스럽고 부족한 점이 많은 것처럼 여기고 있으니 어째서인가?
대체로 군자君子가 귀중히 여기는 것은 도道이다. 이 도가 자기 몸에 족해진 뒤에 몸뚱이가 살찌는 것이다. 왕공王公도 그 귀한 것을 잃고, 진초晉楚도 그 부富한 것을 잃는다. 이것은 맹자가 말한, "사람에게 갖추어진 미덕"이라는 것이다. 또 이것은 《대학》에서, "그 집을 윤택하게 하는 데 비유한 것"이기도 하다.

소자邵子는 말하기를, "윗사람이 덕德을 좋아하면 백성들은 바른 것을 좋아하고, 윗사람이 아첨하는 것을 좋아하면 백성들은 간사한 것을 좋아한다. 비록 성군聖君이 위에 있다 해도 소인小人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소인 노릇 하기가 어렵다. 비록 어리석은 임금이 위에 있다고 해도, 군자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군자 노릇 하기가 어렵다(上好德則民好正 上好佞則民好邪 雖聖君在上不能無

14 진晉나라 사람 숭崧의 아우. 자는 행제行齊, 호는 유구자幽求子. 백가서百家書에 정통함. 벼슬은 국자제주國子祭酒, 40세 이후에는 고향에 돌아가 후진들을 가르침.

小人 而難其爲小人 雖庸君在上 不能無君子 而難其爲君子〕”라고 했다.
소인 노릇 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소인 된 자가 그 악한 것을 함부로 하기 어렵다는 말이고, 군자 노릇 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군자 된 자가 그 도를 행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대체로 양陽이란 반드시 강剛한 것이니, 강하면 반드시 밝게 마련이요, 밝으면 알기가 쉽다. 이와 반대로 음陰이란 반드시 유柔하고, 유하면 반드시 어두우며, 어두우면 알기가 어렵다. 그런 때문에 성인聖人이 역易을 지을 때에 양陽으로 군자君子를 삼고 음陰으로 소인小人을 삼았다. 그 빛이 밝고 바르며, 크고 멀며, 화창하고 통달한 것이 마치 푸른 하늘 흰 태양과, 높은 산 큰 냇물과도 같다. 또 번개와 천둥, 비 · 이슬과도 같고, 용과 범 · 기린 · 봉과도 같다. 그러므로 마음이 활달해서 터럭만큼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자는 반드시 군자인 것이다. 이와 반대로 남에게 붙어 아첨하고 때 묻고, 이리저리 숨어서 서로 맺고 얽히기를 마치 지렁이처럼 하고, 자질구레하기는 서캐〔蟣蝨〕와 같고, 귀신과 여우 같고, 도둑이 저주하는 것 같아서 갸웃거리고 교활하여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소인이다”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기에, 이 말로 본다면, 군자와 소인은 다만 강剛하고 유한 것과, 밝고 어두운 것의 구별에 있으며, 이로써 간사하고 바른 것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다.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은 오직 의리와 이익 사이에 그 분별이 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종류의 사람은 이 2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서, 의리를 행하려 하다가도 실상은 이익에 걸리고, 또는 이익 되는 일을 행하려 하다가도 차마 의리를 아주 버리지는 못한다. 이리하여 이리저리 머뭇거리다가 모든 기회를 놓쳐 버리고 만다. 이런 사람은 비록 보잘것없는 소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어찌 버젓한 군자라고 말할 수 있으랴? 더구나 이 2가

지 사이를 드나들다가 필경에는 이익이 이기게 되어 소인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면치 못하는 자가 많으니, 어찌 경계할 일이 아니랴?

혹은 말하기를, 소인을 사랑하는 자로 군자만 한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말은 실언失言이라고 모두들 규정한다. 대체로 군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 소인은 모두 쫓겨 물러나서 분한 마음을 머금고, 험상한 마음을 가져 답답한 마음을 펴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으로 보면 군자가 소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악한 것을 억제해서 그 몸을 온전하게 해주는 때문에, 군자는 소인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잘못이 아니다.

저 소인들이란, 자기 몸을 사랑할 줄 알지 못한다. 하루아침에 뜻을 얻어서 성공하면, 도리어 군자를 원수로 알고는 권리를 탐내며 세력을 좋아하고, 위력이 있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 짓이나 행하다가 마침내는 집이 없어지고 몸을 망친 뒤에야 그만둔다. 그러니 소인이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역시 분명하다 하겠다. 그런즉 소인을 사랑하는 자로 누가 군자보다 더한 자가 있겠는가? 이렇게 보면 먼저 말한 혹자或者의 말은 옳은 말이라 하겠다.

21-4 소인小人

음陰이란 양陽에게 굽혀야 한다. 굽히지 않고 거스르면 곧 흉한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신하가 임금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오랑캐가 중국에게, 또는 소인이 군자에게 있어서는 모두 음陰이 양陽을 대하는 것과 같다. 그런 때문에 이들은 모두 굽힐지언정 절대로 거슬려서는 안 된다. 거슬리고 보면 곧 어지러워져서 변이 생길 것이다.

《필기筆記》[15]에 말하기를, "요堯임금 때의 4흉凶[16]은 지금의 간신奸臣도 능히 그만큼 간악할 수 있으나 주周나라 때의 10란亂[17]은 지금의 어진 신하들이 그만큼 어질지 못하다. 이것은 옛날과 지금이 서로 같지 않은 때문이다(堯之四凶今之奸臣能之 周之十亂今之賢臣不能 古與今交相勝耳)"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옳다고 생각한다.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은 비단 그 일만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며, 또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자는 비단 그 일만 하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러니 이것은 역시 옛날과 지금의 세도世道가 변한 때문이다.

잘 다스려지는 세상이 군자에게는 다행하지만, 소인에게는 불행한 일이다. 어지러운 세상은 소인에게는 다행한 일이지만, 군자에게는 불행한 일이다. 소인이, 잘 다스려지는 세상을 만나면 자기의 뜻을 행할 수가 없으니 불행한 것 같기도 하다. 또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면 뜻이 만족하고 기운을 얻어서 권세를 차지하고 사랑을 얻게 되어 마침내 나라가 망하고 제 몸이 없어지지 않고는 그치지 않으니, 다행한 듯싶으면서도 실상은 크게 불행한 일이다.
그렇다면 잘 다스려지는 세상은 실로 군자에게 다행한 일인 동시에 또한 소인에게도 다행한 일이다. 또 어지러운 세상은 실로 군자에게도 불행한 일인 동시에 역시 소인에게도 불행한 일이라고 하겠다. 아아, 소인 된 자가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안다면, 이야말로 다행한 일이다.

15 송나라 송기宋祁가 지은 책으로 3권. 석속釋俗 · 고정考訂 · 잡설雜說의 3부로 나누었음.

16 요堯임금 때의 네 악인惡人. 공공共工 · 환두驩兜 · 삼묘三苗 · 곤鯀을 일컬음.

17 주周의 무왕武王의 치신治臣들. 주공단周公旦 · 소공석召公奭 · 태공망太公望 · 필공畢公 · 영공榮公 · 태전太顚 · 굉요閎夭 · 산의생散宜生 · 남궁괄南宮适 · 문모文母 등 열 사람을 말함. 난亂은 즉 치治로서, 무왕武王을 도와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한 신하들. 문모는 혹 읍강邑姜의 잘못이라고도 한다.

정암선생靜菴先生[18]이 말하기를, "대체로 보통 사람은 그 마음이 과연 착하다고 하면 반드시 착한 사람을 사모해서 그를 보고자 하는 것이요, 그 마음이 만일 착하지 않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착한 사람을 대하는 것을 반드시 두려워하고 몸을 움츠려서 만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大抵常人 其心果善則 必思慕善人 而欲見之 其心不善則 其遇善人必畏縮 而不喜相見)"라고 하였으니, 나는 이 말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그 마음이 착하지 않은 자 중에도 유약柔弱한 자는 착한 이를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그중에서도 몹시 강인强忍한 자는 착한 이를 반드시 꺼려할 것이다. 그러니 이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찌 군자를 해치지 않는다고 말하겠는가? 군자 된 사람이 능히 소인에게 화를 면하기란 몹시 어려운 일이다.

《당사唐史》에 말하기를, "이임보李林甫[19]는 임금의 측근에 있으면서 아첨으로 섬기고 뜻을 잘 맞추어서 그 사랑을 굳혀 놓은 다음, 바른말 하는 길을 막고 임금의 총명을 가려서, 이것으로 자기의 간사한 짓을 마음대로 했다. 또 어진 사람을 시기하고, 능한 사람을 미워하며, 자기보다 나은 자를 배척하고 억압해서 이것으로 자기의 지위를 보전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여러 번 큰 옥사獄事를 일으켜 귀신貴臣을 내쫓거나 죽여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켰다"라고 했다. 이에 진서산眞西山[20]은 말하기를, "여기에 이임보李林甫의 마음의 자취가 모두 나타났도다"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기에, 예로부터 간신奸臣이란 그 행위가 모두 이러한데 어찌 홀로

18 중종中宗 때 학자 조광조趙光祖. 정암靜菴은 그의 호.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남곤南袞 · 심정沈貞 · 홍경주洪景舟 등의 모함에 의해 사사賜死됨.

19 당현종唐玄宗 때의 재상. 교활하고 권모술수에 능해서 재조在朝 19년 동안 정치를 제 마음대로 농간한 사람.

20 송나라 진덕수眞德秀. 학자들이 그를 서산西山 선생이라고 일렀음. 주자朱子의 학문을 숭상하여 《대학연의大學衍義》 · 《당서고의唐書考疑》 등 많은 저서를 남겼음.

이임보뿐이겠는가?

소동파蘇東坡의 아들 우遇와 범순부范淳父[21]의 아들 온溫은 모두 양사성梁師成의 문하門下에서 나왔으며 사성을 아버지처럼 섬겼다. 또 사성의 아내가 죽자 어머니에게 하는 예로 쇠복衰服(상복喪服)을 입고 갔었다고 한다.
상고하여 보니, 사성師成이란 환자宦者(환관宦官)이다. 그런데 두 사람의 아들로서 이렇게까지 하게 했으니, 가위 불초不肖한 자들이라고 하겠다.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송나라 장열張說이 한림승지翰林承旨가 되자, 선비들 중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모두 그를 찾아다녔다. 이때 왕질王質과 심영沈瀛 두 사람은 모두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매양 사람들이 장열에게로 드나드는 것을 서로 경계해 왔었다. 어느 날 왕질이 비밀히 장열의 집에 가니, 심영이 먼저 와 있었다. 이들은 서로 보고 모두 깜짝 놀랐다. 여기에서 당시 밝은 의논을 하는 이들은 이들 두 사람을 비루하게 여겼다"라고 했다.

대체로 권세를 가진 간사한 신하가 국가의 세력을 오랫동안 잡고 보면, 그 영향이 점점 커져서 온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들게 마련이니, 그들 두 사람처럼 되지 않는 자가 드물 것이다.

남곤南袞은 이미 선비들을 얽어 해를 끼치고 나서 자기 스스로 만세萬世에 죄를 지은 것을 알았다. 그는 자기의 글이 세상에 나간다면 거듭 사람들의 욕거리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죽을 때에 자기가 지은 글의 원고를 모두 불태워 버렸으니, 그 죽은 뒤의 일까지 생각한 것을 가위 교활하다 하겠다. 하지만 지금에 그의 한두 편의 시문詩文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역시 모두 좋지 못한 것 같다.

21 북송北宋의 역사가歷史家 범조우范祖禹.

송신암宋頣菴[22]은 남곤의 외손外孫이다. 그는 일찍이 말하기를, "외조부外祖父의 글이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시 세상에서 이름을 얻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기묘년己卯年의 당적黨籍은 자못 자세하다. 그러나 이것을 당적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온당치 못하다. 이것은 차라리 기묘년의 제현록諸賢錄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정순명鄭順明 같은 이도 이 기록 속에 있으니, 어째서 먼저는 옳게 하다가 뒤에는 그르게 했단 말인가? 슬프다. 당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어진 이들의 이름이 길이 전해지게 되고, 또 남곤南袞·심정沈貞의 마음속이 남김없이 드러나기에 이르러 이 글을 보는 사람마다 다투어 가며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꾸짖기를 오늘날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 간사한 적의 무리들이 마땅히 조금은 뉘우쳐 징계할 것이다.

남곤南袞이 유자광柳子光의 전기傳記를 지음에 몹시 교묘한 생각을 썼는데, 특히 사화史禍의 대목에 가서는 더욱 그 사정을 마치 그림처럼 그려 놓았다. 그러니 이것은 가위 자기의 마음속을 곡진曲盡하게 묘사했다고 하겠다.
어느 사람이 이것을 두고 시詩를 지어 말하기를, "마침내 자기의 마음속 잘도 그려 놓았네, 자신이 그 글 속의 주인인 줄 모르고(畢竟肺肝誰得似 不知身作傳中人)"라고 했다.

《어초한화漁樵閑話》에 말하기를, "온 세상에 창귀倀鬼가 되지 않는 자 몇 명이나 있겠는가? 구차하게 자기 몸이 벼슬에 나가기만 애쓰고, 이익이나 봉록俸祿을 급히 하여 사냥개나 매 노릇이라도 해서 남에게 불리기를 구하는 간사한 짓을 하고, 거짓을 하기에 급급해서 남에게 부림을 받는다. 이것을 처음에 얻지 못하면 머리를 숙이고 온갖 겸손한 말씨를 써서 마치 남의 첩 모양 아양을

22 선조宣祖 때 학자 송인宋寅. 신암頣菴은 그의 호. 글과 글씨에 능했음.

떤다. 그러다가 요행 이것을 얻고 보면 장황스레 독한 벌레처럼 쏘아서 사람을 죽이고 남을 해친다. 또 그가 하루아침에 벼슬자리를 잃고 보면, 창황하게 쫓겨나가서 죽을 곳을 알지 못하건만, 그래도 자기의 그렇게 된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고는 때때로 오히려 슬픈 감회마저 갖기가 일쑤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창귀란 범에게 잡아먹힌 사람이 그 범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귀신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말로 실로 그 정상을 극진히 나타냈다고 하겠다.

21-5 인재人才

옛사람이 말하기를, "풀이나 나무 중에서 정精하고 빼어난 것을 영英이라 하고, 짐승 중에서 뛰어난 것을 웅雄이라 한다. 장량張良은 영英이요, 한신韓信은 웅雄이다(草木之精秀者英 獸之拔群者雄 張良是英 韓信是雄)"라고 했다.
유공재劉孔才는 말하기를, "총명이 빼어난 것을 영英이라 하고, 담력이 남보다 지나친 것을 웅雄이라 한다. 그러므로 영英은 되지만 웅雄이 못 되는 자도 있고, 웅雄은 되어도 영英이 되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고 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재주가 1,000명 중에 뛰어난 자를 호豪라고 하고, 만 명 중에 뛰어난 자를 걸傑이라 한다"라고 했다.

중황자中黃子는 말하기를, "사람 중에 제일 윗길에 5가지가 있으니, 신인神人·진인眞人·도인道人·지인至人·성인聖人이다. 다음으로 또 5가지가 있으니, 덕인德人·현인賢人·지인智人·선인善人·변인辨人이다. 중간으로 또 5가지가 있으니, 공인公人·충인忠人·신인信人·의인義人·예인禮人이다. 그 다음으로 5가지가 있으니, 사인士人·공인工人·우인虞人[23]·농인農人·상인商人이다. 맨

23 산림山林과 소택沼澤을 지키는 아전.

밑으로 5가지가 있으니, 중인衆人 · 노인奴人 · 우인愚人 · 육인肉人[24] · 소인小人이다. 맨 위의 5가지와 맨 밑의 5가지는 마치 사람과 우마牛馬의 차이와 같다"라고 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성인聖人의 위에 또다시 네 등급의 사람이 있다고 한 것은, 곧 장자莊子와 소문素問 등 제가諸家의 설說이다.

촉蜀 땅은 진秦나라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중국과 통했는데 인재는 역시 많이 나왔다. 한漢나라 때에는 엄군평嚴君平 · 사마상여司馬相如 · 왕포王褒 · 양웅揚雄이 있었고, 당唐나라 때에는 원천강袁天綱 · 진자앙陳子昂 · 이백李白이 있었으며, 송나라 때에는 범진范鎭과 삼소三蘇[25]가 있었다. 또 부인으로도 사자연謝自然과 화예부인花蘂夫人이 있었으며, 탁문군卓文君 · 설도薛濤 같은 사람도 역시 재주 있는 여자였다.

사안謝安은 4세에 벌써 풍채가 뛰어났고, 구양수歐陽修는 4세에 글을 읽었다. 이백李白은 5세에 육갑六甲을 외웠고, 육운陸雲은 6세에 벌써 형 기機와 함께 이름이 났었다. 육적陸績은 6세에 귤橘을 품속에 넣었으며[26], 이하李賀는 7세에 고헌과高軒過를 지었다. 안수晏殊는 7세에 글을 잘 지었고, 가황賈黃은 7세에 신동神童으로서 과거에 급제했다. 유안劉晏은 8세에 송頌을 지어 임금께 바쳤고, 양오揚烏는 9세에 현문玄文(오묘한 문장)을 지었다. 사마천司馬遷은 10세에 고문古文을 외웠고, 사혜련謝惠連은 10세에 글을 지었다. 양억楊億은 11세에 임금 앞에서 부賦 5편을 지어 비서정자秘書正字가 되었다. 감라甘羅는 12세에 진秦나라 상경上卿이 되었고, 임연任延은 12세에 시詩와 역易과 《춘추》에 밝아 성동聖

24 이상한 병에 걸려서 피부가 모두 벗겨진 사람. 이 사람은 항상 소젖만을 먹고 살아야 한다.

25 북송北宋의 3대 문장가인 소순蘇洵과 그의 아들 소식蘇軾 · 소철蘇轍 형제. 순洵을 노소老蘇, 식軾을 대소大蘇, 철轍을 소소小蘇라고도 하여 구별함.

26 후한後漢때 육적陸績이 6세에 원술袁術을 만났더니, 원술은 귤橘을 내다가 대접했다. 이에 육적은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귤을 품속에 넣고 갔다는 고사故事.

童이란 이름을 들었다. 동방삭東方朔은 13세에 삼동三冬 동안 글을 배워 문장文章과 역사歷史를 마음껏 썼다. 왕발王勃은 13세에 《등왕각서滕王閣序》를 지었고, 황헌黃憲은 14세에 남들이 사표師表라고 일렀다. 형돈부邢敦夫는 14세에 명비인明妃引을 지었고, 진번陳蕃은 15세에 자기가 거처하는 방을 고치지 않았다. 원진元稹은 15세에 명경과明經科에 급제했고, 동방삭은 16세에 22만 단어를 외웠다. 전희백錢希白은 17세에 진사進士에 뽑혀 어시御試 삼제三題를 한나절에 지었다. 가의賈誼는 18세에 박사博士가 됐고, 자기子奇는 18세에 제동아수齊東阿守가 되었다. 곽거병霍去病은 18세에 표요교위嫖姚校尉(한漢나라 때의 무관武官의 이름)가 되었고, 주자朱子는 19세에 〈원유편遠遊篇〉을 지었다. 육기陸機는 20세에 문文과 부賦를 지었고, 육손陸遜은 21세에 비로소 막부幕府에 벼슬했다. 소자첨蘇子瞻은 22세에 과거에 급제했고, 정명도程明道는 23세에 정성서定性書를 지었다. 등우鄧禹는 24세에 사도司徒가 됐고, 주유周瑜는 24세에 건위중랑建威中郎이 됐다. 엄무嚴武는 24세에 촉蜀을 막았고, 왕검王儉은 29세에 복야僕射가 되었다. 염희헌廉希憲은 30세에 평장정사平章政事가 되었고, 장준張俊은 31세에 원추元樞가 되었다. 반악潘岳은 31세에 처음 이모二毛(반백班白의 머리)를 보았고, 왕부王溥 범종윤范宗尹은 32세에 정승이 되었다. 이와 같이 옛날 명인들은 조숙早熟한 자가 많았다.

당唐나라 때에 흑치상지黑齒常之 · 왕사례王思禮 · 왕모중王毛仲 · 고선지高仙芝는 모두 동한東韓 사람으로서 당시 세상에 높이 쓰여서 이름을 역사에 드날렸다. 최치원崔致遠도 역시 문장으로 한때를 감동시켰으니, 어찌 그때는 규모가 크고 넓어서 그랬겠는가? 원元나라 때에 우리나라 문인들 가운데서 중국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한 자가 심히 많았으나, 목은牧隱은 부자父子가 중국의 한림학사翰林學士가 되어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다.

신라에는 김생金生이 있어 마치 진晉나라의 왕희지王羲之와 같이 글씨로 유명

했다. 고려의 이규보李奎報는 송宋의 소자첨蘇子瞻과 같고, 정몽주鄭夢周는 송宋의 문천상文天祥과 같다. 본조本朝에 육신六臣이 있는 것은 또한 명나라에 방효유方孝孺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것과 같다.

아조我朝의 인재는 선조대왕宣祖大王 때 이르러 가위 성盛하다 하겠다. 간이簡易 최입崔岦의 글과 석봉石峰 한호韓濩의 글씨, 취면醉眠 김시金禔의 그림은 모두 세상에 드문 재주들이다. 또 양장良將에 있어서는 이순신李舜臣 · 곽재우郭再祐가 있고, 사절死節에 있어서는 조헌趙憲 · 김천일金千鎰 · 송상현宋象賢이 역시 모두 옛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니 어찌 이것이 200년 동안 길러온 유택遺澤이 아니겠는가?

송경松京은 500년 옛 도읍으로서 인물도 역시 많이 나왔다. 근래에 와서 한호韓濩의 글씨와 차천로車天輅의 문장은 모두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근년에 또 황진이黃眞伊가 있어 얼굴이 아름답고 거문고와 노래를 잘하며, 시사詩詞에 능했으니 또한 창녀娼女 중에 특히 뛰어난 자이다.
진이眞伊가 일찍이 말하기를, "송도에 3절絕이 있으니, 그 첫째는 박연 폭포요, 둘째는 화담 선생이요, 셋째는 곧 나다(松都有三絕 其一朴淵瀑布 其二花潭先生 其三卽我也)"라고 했다.

판서判書 윤현尹鉉은 호가 국간菊磵이다. 한평생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일찍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재주 없는 것이 제일이다"라고 했다. 〈목안설木鴈說〉을 지어서 자기의 뜻을 나타냈다.
공은 글재주가 있어서 독서당讀書堂에 뽑혀 통정通政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문집 속에 있는 시문은 잘 지었다고 일컬을 만한 것이 적다. 뒤에 호조판서가 되어 재물 다스리는 일을 하였으니, 때문에 그를 계승할 자가 없었다. 대개 관리 노릇 하는 재주가 글재주보다 나았던 것이다.

21-6 절의節義

소무蘇武는 흉노匈奴에게 잡혀 있을 때에, 목을 내밀고 칼날을 받는 데 있어서도 죽고 사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렇건만 오히려 눈(雪)과 담요의 털을 먹고 목숨을 살려서 오랑캐 여자를 얻어 아들을 낳았으니, 무武의 충절忠節로서도 먹는 것과 여색女色에는 이같이 했으니 무슨 까닭인가? 어찌 그 2가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커서 그런 것일까?

송宋은 애산崖山에 있어 배(舟)를 가지고 나라를 세웠으나 백관百官과 사졸士卒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육수부陸秀夫[27]가 임금을 업고 바다로 들어갈 제 그를 따라 빠져 죽은 자가 6, 7만 명이나 되었으니 이들은 모두 충의忠義가 있는 사람들이다. 전횡田橫[28] 때의 500명의 선비는 오히려 적다고 할 것이다. 옛날부터 나라가 망해도 이와 같은 일은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빠져나와 안남安南으로 도망한 자도 또한 많았다고 한다.

송宋이 망하자 진의중陳宜中은 섬라暹羅에 들어가서 이내 돌아오지 않았다. 숨어 산 채 몸을 마치도록 원元나라에 벼슬하지 않은 자는 은징殷澄 · 허월경許月卿 · 소계邵桂 · 마단림馬端臨 · 장산옹張山翁 · 사국광謝國光 등, 그 성명을 상고할 수 있는 자만도 수십 명이나 된다. 또 허노재許魯齋 · 오초려吳草廬도 큰 선비인데, 그 나아가고 물러나는 절개가 뒷세상 사람들의 의논을 면치 못하였으니, 아아! 아까운 일이다.

27 송나라 염성鹽城 사람. 자는 군실君實. 재주가 있고 성품이 침착하여 남에게 알려지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애산崖山이 망할 때에 그는 처자들을 몰아 먼저 바닷물 속에 넣고, 자기도 몸소 왕을 엎고 바닷물 속에 들어가니 그를 좇아 죽은 자가 6, 7만 명이나 되었다는 고사故事.

28 제왕齊王 전영田榮의 아우. 한신韓信이 제왕齊王 광廣을 사로잡고 스스로 왕이 되자, 전횡田橫은 부하 500명을 데리고 섬 속으로 피해 갔다. 뒤에 고조高祖가 그를 불렀으나 그의 신하 되기를 거부하고 자살하니, 부하 500명도 모두 함께 죽었다는 고사故事.

상고하여 보니, 당태종唐太宗이 이세적李世勣에게 말하기를, “내가 듣기에 안시성安市城은 험준하고 군사도 정예하며, 그 성주城主는 인격이 있어 개소문蓋蘇文의 난亂에 성을 잘 지키고 항복하지 않았다 한다”라고 했다. 그러니 대체로 그 성주城主의 충의와 큰 절개는 이미 천하에 나타났던 것이다. 당태종唐太宗이 군사를 돌려 돌아갈 제 성주城主는 성 위에 올라가서 작별해 보냈다고 하니 또한 예를 아는 군자라 하겠다. 아아! 한쪽 귀퉁이에 있는 나라로서 이같이 잘난 선비가 있었으니 어찌 위대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역사에는 그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니, 아까운 일이다. 혹 말하기는, 안시성주安市城主의 이름은 양춘陽春으로서 고기古記 속에도 나와 있다고 한다.

권양촌權陽村(권근權近)의 시詩의 주註에 말하기를, “장원狀元 곽린郭麟은 서장관書狀官으로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아 그의 무덤이 일본에 있다. 그러나 그 무덤 위에 있는 풀들은 모두 서쪽을 향해 자라고 있다. 그리하여 그의 손자 충수忠守는 그를 위하여 영모정永慕亭을 지었다(郭狀元麟以書狀 官使日本不返 其墳在日本 草皆西向而生 其孫忠守作永慕亭)”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여사麗史》에, “충렬왕忠烈王 때에 감찰어사監察御史 김유성金有成, 직문한서直文翰署 곽린郭麟을 일본에 보내서 선무시켰는데, 일본은 일찍이 우리나라가 저들을 정벌한 일을 원망해서 이들을 잡아두고 돌려보내지 않았다”라고 써 있다.

고려 말년의 김주金澍는 선산善山 사람이다. 공양왕恭讓王 때에 예조전서禮曹典書로서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국경에 이르러서 우리 태조太祖가 혁명革命을 일으켰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김주金澍는 도로 중국에 들어갔는데 어디에서 죽었는지 모른다. 지금 그의 자손들은 선산에 많이 사는데, 중종中宗 때의 상신相臣 김응기金應箕도 그의 자손이다.
전번에 중국의 복건福建 사람 허유성許惟誠이 나와서 자기는 김주金澍의 외손外

孫이라고 말하고 그의 본관과, 또 그의 자손이 있고 없는 것을 물었으나, 역관譯官은 이어 대답하지 못했다고 한다.

권절權節이란 자는 힘이 남보다 뛰어나서 남이南怡와 한때 이름이 났었다. 광묘光廟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 소문을 듣고 그의 집에 가서 비밀히 큰일을 의논했다. 그러나 절節은 거짓으로 귀먹은 체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고, 드디어 재주와 학식을 감추는 술법을 써서 병들고 미쳤다 칭탁하여 종신토록 벼슬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 사람은 가위 그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겠다. 그가 저술한《율정난고栗亭亂稿》에 이율곡李栗谷이 서문을 썼다.

승지承旨 정성근鄭誠謹은 연산조燕山朝 때에 충효忠孝로써 화를 입었다. 그 아들 주신舟臣 · 매신梅臣과 매신의 아들 원린元麟 · 원기元麒, 또 그의 아들 효성孝成은 모두 효행孝行으로 정문旌門을 세웠으니 대개 4대代에 정문을 받은 자가 6명이나 되어 옛날에는 일찍이 없던 일이었다. 이리하여 세상에서는 이 정씨 집을 효문孝門이라고 한다.
이안눌李安訥이 시詩에, "한 문의 충효, 여섯 정려旌閭가 섰네(一門忠孝六旌閭)"라고 한 것은 이것을 말한 것이다.

조헌趙憲은 김포金浦 사람이다. 한미寒微한 데서 나서 힘써 공부하여 과거에 올랐고, 몸소 농사지어 그 어머니를 봉양했다. 그러나 매양 국가의 일을 걱정하여 마치 미친 듯이 서둘러 전후前後에 소疏를 올려, 당시의 정치에 대해 의견을 말한 것이 여러 10만 언言이나 된다.
이때 왜사倭使 현소玄蘇 등이 강화할 것을 요구하자, 헌憲은 글을 올려 현소와 평의지平義智의 머리를 베어서 거리에 달자고 청하니 사람들이 미쳤다고 지목했다. 그러나 임진년壬辰年에 이르러서는 의논하는 자들이 일찍이 그의 말을 쓰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

그는 또 천문天文에 밝았다. 어느 날 동남쪽에서 천둥 같은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울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천고天鼓(천둥)의 소리다. 지금 왜병이 바다를 건너고 있을 것이다” 하더니 그 말이 과연 맞았다. 이에 난리가 났다는 말을 듣고 곧 의병義兵을 모으고 격문을 돌려 적을 치니 원근遠近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그는 마침내 적과 싸우다가 죽으니, 이때 함께 죽은 자가 700명이나 된다. 이는 대개 충의忠義의 성품을 가진 자이다.

고경명高敬命의 호는 제봉霽峰이니 광주光州 사람이다. 임진년에 집에 있는데, 여러 고을들이 왜병이 왔다는 소문만 듣고 무너진다는 말을 듣고 강개하여 분한 마음을 참지 못했다. 이에 그는 원근 지방에 격문을 보내서 의병을 모아 금산錦山에 온 적을 치다가 싸움에 패해서 아들 인후因厚와 함께 죽었다.
큰아들 종후從厚는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하고, 분연히 의병을 일으켜 진주晉州에서 적을 막다가 성이 함락되매 죽었다. 부자 세 사람이 다 함께 나랏일에 죽은 것은 옛날에나 지금에나 둘도 없는 일이니, 아아! 장한 일이로다.

송상현宋象賢은 임진년에 동래부사東萊府使로 있었다.
왜적이 성 밑에 몰려오니 성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부채에 글을 쓰기를, “외로운 성을 적이 포위했으니, 이 큰 진鎭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임금과 신하의 의리는 중하고, 아버지와 자식의 은혜는 가볍습니다(孤城月暈 大鎭不救 君臣義重 父子恩輕)”라고 하여 종을 시켜 어버이에게 알렸다.
성이 함락되자 관 쓰고 띠를 맨 채 의자에 걸터앉았는데, 적이 그를 끌어내리려 했다. 이에 상현象賢이 꾸짖기를, “이웃 나라끼리 사귀는 것에 도리가 있는 법이다. 우리나라가 너희를 저버리지 않았는데 너희는 어찌 이 지경에 이르느냐?” 하니, 적은 크게 노하여 그를 죽여 시체를 성 동쪽에 묻고 나무를 세워 그곳을 표했다. 그 뒤에 적들이 우리 포로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 충신은

오직 동래부사 한 사람뿐이다”라고 했다 한다.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은 임진년에 수군水軍을 거느리고 바다 가운데서 적을 막아 여러 번 왜선倭船을 부수고 적을 사로잡아 죽이기를 수없이 했다. 적은 두려워하여 다시는 감히 수로水路를 통하여 서쪽으로 오지 못했다. 그래서 양호兩湖(호서湖西와 호남湖南)가 안전함을 얻어 나라를 회복한 것은 모두 그 힘이다.
무술戊戌년 9월에 왜장倭將이 달아나자 순신舜臣은 말하기를, “적의 군사를 온전히 돌아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즉시 바다 위로 나가 싸워서 적의 배를 불태우고 크게 이겼다. 이리하여 적은 물러갔으나 순신은 적의 탄환에 맞아 죽으니, 변방 백성들로 울지 않은 자가 없었다.
뒤에 순천順天 수영水營에 사당을 세우고 충민忠愍이라는 액자額字를 내렸으며, 해마다 3월과 9월 상순上旬에 제사를 지내게 했다.

군수郡守 조종도趙宗道는 함안咸安 사람이다. 임진왜변壬辰倭變에 서생書生의 몸으로 의병을 일으켜 적을 쳤다. 정유년丁酉年에 황석산성黃石山城에 들어가 적군을 막다가, 성이 함락되자 그곳에서 죽었다.
일찍이 시詩를 지은 것이 있는데, “공동산[29] 밖에서는 사는 것이 비록 즐거우나, 순원[30]의 성 가운데서는 죽는 것도 또한 영화롭다(崆峒山外生雖樂 巡遠城中死亦榮)”라고 했으니 대개 그 마음을 평소부터 이렇게 정했던 것이다.

29 중국의 산 이름. 원래 전설상에 나오는 산이나, 여기에 대해서 후세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감숙성甘肅省에 있다는 설이 타당할 것임. 명산名山의 하나로서 이 산의 주위에 또 허다한 명승지名勝地가 있었으며, 또 일설에는 황제黃帝가 도道를 광성자廣成子에게 물은 곳이 여기라 하고, 또 진시황秦始皇이 이곳에서 놀았다고도 한다.

30 장순張巡과 허원許遠을 말하는데 이들은 당현종唐玄宗의 충신으로 안녹산安祿山의 난에 함께 저양성雎陽城을 사수死守하다가 성이 함락되어 잡혀 죽음. 여기에서는, 이들 두 사람과 같이 충성을 다하다가 죽는 것도 역시 영화로운 일이라는 말.

연풍年豐이란 자는 금천金泉의 역노驛奴이다. 임진왜변壬辰倭變에, 나는 원임이부랑原任吏部郎으로서 방어종사관防禦從事官이 되어 영남嶺南으로 내려갔다. 이때 적의 형세는 도처에 꽉 차 있어서 따라가던 사졸들은 모두 도망해 흩어지는데, 유독 연풍만이 말을 가지고 나를 따라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은 우리가 밭고랑에서 노숙露宿하는데, 적의 진영이 매우 가까웠다. 밤중이 되자 군중軍中이 놀라 사람과 말이 모두 흩어지는데, 연풍은 급히 나를 붙들어 짓밟히는 것을 면했다.

또 금산金山의 촌집에 있을 때, 나는 누워 있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불시에 적이 몰려나와 서로의 거리가 불과 열 발짝밖에 되지 않았다. 이때 연풍이 급히 말을 몰아 겨우 골짜기 뒤로 들어가 보니, 적들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 자가 수없이 많았으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운봉雲峰에 다다랐으나 성을 지킬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나는 같이 간 장사들과 함께 서쪽을 향해 통곡하니, 연풍도 역시 매우 섧게 운다. 하는 수 없어 나는 삼도三道의 군사들과 함께 수원水原 경계에 진을 쳤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북쪽으로 달아나는데 적군은 거의 등 뒤까지 따라온다. 연풍이 서둘러 말에 채찍질하여 진흙 속에서 빠져나와 겨우 화를 면했다. 이리하여 간신히 의주義州의 행재소行在所에 도착했다.

이내 나는 어사御史의 책임으로 함경북도咸鏡北道에 가게 되었다. 이때 나는 연풍에게 말하기를, “너의 신고辛苦가 매우 많구나. 이제 또 나는 불모不毛의 땅에 가게 되었지만, 너는 여기 머물러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려라”라고 했다. 그러나 연풍은 말하기를, “어찌 저 혼자 뒤에 처진단 말입니까?” 하고 굳이 청해서, 부득이 같이 가게 되었다.

이듬해 계사년癸巳年에 이르러 경성京城의 적병이 물러가자, 연풍은 비로소 나와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어미는 탈 없이 살아 있었으며 그 아내는 상복을 입고 남편이 죽은 지 이미 오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서로 만나니, 마치 귀신이 아닌가 의심하는 것 같더라는 것이다.

그 다음 해에 연풍은 또 나를 서울로 찾아와서 보고 가더니, 그 뒤 얼마 안 되어 죽었다.

대체 내가 영남으로부터 의주에 이르고, 다시 북도北道로 들어가는데 길을 걷기도 몇 만 리나 되지만, 적병 속을 헤치고 들어가 위태한 지경을 겪은 것만도 여러 번이 된다. 그러나 적이 가까이 올 때에는 연풍은 종일토록 멀리 망보기도 하고, 혹은 새벽까지 자지 않고 말고삐를 잡고 기다리기도 했다. 밤에 길을 가다가 험한 곳을 만나면, 연풍은 오른손으로는 말을 잡고 왼손으로는 내 몸을 부축한 채 위아래로 보호하여 말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었다. 이리하여 일을 주선하고 몸을 보호해 주는 것이 모두 지성에서 나왔고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영남에 있을 때에는 그 집이 불과 수십 리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곳에 있건만, 그 어미와 아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한 번도 집에 가려는 뜻이 없었다. 적을 피해 달아날 때에는 좌편에도 우편에도, 등 뒤에도 앞에도 모두 적병들이다. 이럴 때는 분명 금시에 반드시 죽을 것을 알건만, 그는 시종하여 떠나가지 않았다.

가끔 양식이 떨어지면, 혹 종일토록 먹지 못하기가 일쑤이니, 그 배고프고 곤하기가 얼마나 심했겠는가?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을 말하는 일이 없었다. 사람들이 혹시 왜 떠나가지 않느냐고 물으면 연풍은 말하기를, "제가 떠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차마 떠나갈 수가 없는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아아! 나와 연풍은 본래부터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다. 또 내가 무슨 은혜나 위세로 그를 부릴 만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와 나는 하루아침에 졸지에 만난 사이언만 이렇게 지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연풍은 천한 종의 출신으로 일찍부터 사군자士君子의 행동을 알지도 못한다. 또 남에게 잘 뵈어 칭찬을 받아서 이것으로 벼슬을 하고 봉급을 타 보려는 것도 아니다. 그렇건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으니 참으로 가상한 일이다.

이때를 당해서는 종이 주인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린 자가 얼마든지 있다. 심지어는 벼슬자리에 있는 신하가 혹은 제 목숨 살기를 위해서 도망친 자도 있고, 아내와 자식이 보고 싶어서 임금을 잊고 나라를 배반한 자도 있다. 비록 자기의 몸에 의관이 엄연히 있으면서도 이런 짓을 했으니, 이 사람에게 비교한다면 어떠한가. 연풍은 이때 그 나이 20세로서 사람됨이 근실하고 침묵하며 질박한 데가 있었다.

21-7 열녀烈女

만력萬曆 임진년壬辰年 왜변이 일어났을 때, 난리를 피하는 선비 집 여자들은 모두 징파澄波 나루에 이르러 다투어 배를 타고 건너니, 거리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이다. 한 부인이 계집종을 따라서 여기에 나왔으나, 배에 미처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본 뱃사공이 부인의 손을 끌어 배에 태우려고 하자, 부인은 큰 소리로 울면서, "내 손이 너에게 더럽혀졌으니 내가 이제 살면 무엇을 하랴" 하고 이내 물에 빠져죽었다. 이에 그 부인을 따라 나온 계집종이 울면서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이미 죽었는데 나 혼자서 차마 어떻게 산단 말인가?" 하고 또한 물에 빠져 죽었다.
아아! 장한 일이다. 당시 경황이 없는 때에 이같이 한 자가 어찌 하나 둘이리오만, 이것이 세상에 전하는 것은 몹시 드물고, 혹 전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누구인지 모르니 실로 아까운 일이다.

임진년 왜변에 한 처녀가 왜적을 만나 달아나다가 그 부모와 형제를 잃은 채 숲 속에 숨어 있었다. 이때 늙은 중 하나가 이곳을 지나다가 그 처녀를 보니 굶은 지가 이미 여러 날이 되어 숨이 거의 끊어질 것만 같았다. 중은 몹시 불쌍히 여겨 절로 데리고 가서 쉬게 하려고 해보았으나, 처녀는 듣지를 않았다.

중은 하는 수 없이 절로 돌아와 밥을 지어가지고 가서 먹으라 했으나 처녀는 또 먹으려 하지 않는다.
중은 어찌할 수가 없어 밥을 처녀의 곁에 놓아두고 갔다가 며칠 뒤에 가보니 처녀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 놓아둔 밥은 한 숟가락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니 그 처녀는 정결貞潔하고 의리를 지켜, 죽음에 임해서도 구차한 짓을 하지 않았으니, 이야말로 보통 여자로는 못할 일이다. 그런데도 그 이름은 묻혀 전해지지 않으니 한스러운 일이다.

임진왜란에 여자들이 절개를 지켜 죽은 자는 하도 많아서 이루 기록할 수가 없다. 다음으로는 효자의 수가 많았고, 또 그 다음이 충신이다. 그러나 이 역시 뚜렷이 나타내서 칭찬할 만한 것은 몇이 되지 않는다.
아아, 선비 된 자로서 평상시에 글을 읽고 의리를 말할 적에는 그 어느 누가 "나는 대장부다" 하고 말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위태로운 일에 임해서 임금에게 생명을 바치는 데에는 도리어 여자만도 못하니 어찌 얼굴 가죽이 두껍다고 하지 않겠는가?

선비 한 사람이 새로 첩을 얻었다. 어느 날 밖에서 돌아와 보니, 첩의 눈 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다. 선비가 그 까닭을 물었지만 첩은 쉽게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이에 계집종에게 그 까닭을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낭자께서 경대 서랍 속에 흰 머리털 한 뭉치를 두어두었는데, 주인이 계시지 않을 때면 이것을 내 보고는 우신답니다"라고 했다. 주인은 이 말을 듣고 그 여인의 전 남편이 노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측은히 여겨 급히 그를 내보냈다.

의정議政 유관柳灌은 을사년乙巳年[31]에 죄를 입었다. 정순명鄭順明이 그가 역모

31 명종明宗이 즉위한 처음 소윤小尹이 정권을 잡고 일으킨 것이 을사사화乙巳士禍. 이때 유관柳灌은 원상院相으로 있다가 이 사화士禍에 걸려 서천舒川으로 유배流配 도중 과천果川에서 사사賜死됨.

를 꾸몄다고 얽어서 자기는 위훈僞勳에 도록圖錄[32]되고, 관灌의 식구와 종들을 모조리 몰수해서 자기 집 종을 삼았다. 그때 갑甲이라는 계집종 하나가 있었는데 나이는 겨우 14, 5세로서 총명하고 지혜 있기가 남에게 뛰어났다. 정鄭은 이 종을 매우 사랑하여 의복과 음식을 자기 자녀와 같이 대우하니, 갑도 또한 그 뜻을 받아 일마다 정성을 다했다. 갑은 혹 옛주인을 만나면 반드시 욕하면서 꾸짖기를, "저들은 일찍이 나를 대접하기를 소홀하게 해서 아무런 은혜도 없었으니 나도 또한 이렇게 갚는 것이오"라고 했다. 이것을 보고 정鄭은 더욱 갑을 믿고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어느 날 갑은 정鄭의 집 보기寶器를 감추었더니, 정은 갑에게 이를 추궁했다. 갑은 울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곳에 온 뒤로 주공主公의 옷을 입고 주공의 음식을 먹고 살았사오니 그 은혜 비할 데 없사온데, 무엇 때문에 도둑질을 하겠습니까?"라고 한다. 이 말을 듣고 정은 속으로 의심은 했으나 놓아주었다.

갑은 이보다 먼저 그 집 나이 젊은 종과 간통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훔친 물건 때문에 주인이 나를 책망하면 나는 매에 못 이길 것이니, 그때 나는 네 이름을 대서 증인을 세울 테다"라고 했다. 이에 그 종은 크게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된단 말이냐?" 하고 걱정한다. 갑은 그 종에게 다시 말하기를, "그럼 내 말을 들어다오. 내가 기도 드릴 일이 있어 필요하니, 요새 새로 역질疫疾로 죽은 시체의 팔이나 다리 하나만 얻어다 다오"라고 했다. 그 종은 갑이 시키는 대로 역질로 죽은 사람의 팔 하나를 잘라다가 주니, 갑은 그것을 비밀히 순명順明의 베개 속에 넣어 주었다.

이리한 지 오래지 않아 순명이 역질에 걸려 죽으니 그 집에서는 이것을 발견하고 즉시 갑이 한 짓으로 알아 갑을 조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갑은 도리어 꾸짖기를, "네가 우리 주인을 죽였으니 너는 곧 나의 원수다. 내가 죽이려 한 지가 오래다가 이제 비로소 원수를 갚았으니 이제는 내가 죽을 곳을 알게 되었

32 본래 훈공勳功이 있는 사람을 장부에 적는 것을 녹훈錄勳이라 하는데, 이 위훈僞勳이란 올바른 훈공이 아닌 것을 임시로 훈공인 체 기록하는 것을 말함.

다. 너희는 무엇을 내게 묻느냐?" 하고 즉시 자결해 죽었다.
아! 이 계집은 천한 사람이다. 천한 계집으로서 오히려 씩씩한 장부의 마음을 가졌으니 실로 공경할 만하도다. 그 이름을 묻어 버릴 수는 없다.

21-8 부인婦人

《오월춘추吳越春秋》에 말하기를, "월왕越王이 상相 보는 사람을 시켜 예쁜 여자를 온 나라 안에 두루 구했다. 마침내 저라산苧羅山에서 땔나무를 팔고 있는 서시西施라는 여자를 정단鄭旦의 집에서 발견했다. 이에 그 여자를 나곡羅穀[33]으로 단장시키고 3년 동안 걸음걸이까지 가르쳐서 오나라에 바쳤다. 오나라 회계會稽에는 원래 동시東施의 집과 서시西施의 집이 있는데, 성이 시施이고 집이 서쪽에 있는 까닭에 서시西施라고 했다"라고 했다.
또 《환우기寰宇記》에는 말하기를, "구천句踐이 나무하는 서시西施와 정단鄭旦 두 여인을 얻어서 이를 오왕吳王에게 바쳤다"라고 하여 여기에서는 서시와 정단 두 여자로 되어 있다. 다만 《오월춘추》에는, 나무 장사 하는 여자 서시를 정단의 집에서 얻었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정단은 당시 시施의 집 주인 이름인 듯싶다. 그런데 나무를 판 여자로서 역시 정단을 가리켰으니, 《환우기》의 기록이 아마 잘못된 듯싶다.

여자에게 후侯를 봉한 자는 한漢나라 허부許負·여수呂嬃가 있고, 여자로서 시중侍中이 된 자는 위魏나라 원차元叉의 아내 호胡 씨가 있다. 여자로서 상서尚書가 된 자는 위魏나라 명제明帝가 글을 아는 여자를 골라서 이것을 시켰다. 또 여자로서 학사學士가 된 자는 당唐나라 덕종德宗 때 송宋씨의 다섯 딸, 즉 약신

33 엷은 비단. 《후한서》에 보면 공주公主·귀인貴人·비妃 이상의 사람이 시집갈 때 입는 비단 이름이라 했음.

若莘 · 약소若昭 · 약화若華 · 약륜若倫 · 약헌若憲이 있다. 여자로 박사博士가 된 자는 송나라 효무孝武 때에 한난영韓蘭英이 있고, 여자로서 교서敎書가 된 자로는 설도薛濤가 있다. 여자로서 진사進士가 된 자는 송나라 임묘옥林妙玉이 혼자 여동女童으로서 시험에 응했었다. 정치를 맡아 한 자로는 제齊나라 육태희陸太姬가 있고, 제도를 맡아서 처리한 자는 당唐나라 상관上官 완아婉兒가 있다. 역사를 지은 자는 한漢나라 조대가曹大家가 있고, 병사兵事를 주장한 자는 당나라 평양공주平陽公主 세부인洗夫人이 있다. 자기가 거짓으로 남자 행세를 한 자는 제齊나라 양주녹사楊州錄事 누령婁逞과 또 당나라 소의군병마사昭儀軍兵馬使 석石씨, 삭방병마사朔方兵馬使 맹孟씨, 사호참군司戶參軍 황숭하黃崇嘏가 있다.

또 《완위여편宛委餘編》에 말하기를, "진陳나라 여자 백경아白頸鴉는 글단契丹(거란)의 장군이 되었는데, 시부侍夫가 수십 명이나 되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더욱 해괴한 일이다.

부인婦人으로서 웅장하고 용맹했던 자는 옛날에 징칙徵則 · 손부인孫夫人 · 세洗씨 · 양육랑楊六娘이 있다. 고려의 말년 홍건적紅巾賊 때에, 한 적장이 가장 씩씩하고 용맹스러워 창포검菖蒲劍을 써 좌우로 시살厮殺하니 사람들이 아무도 이를 대적하지 못했다.

어느 날 세수를 하려고 물을 찾자, 봉산鳳山 사람 하나가 물동이에 끓는 물을 가득 담아 가지고 와서 그 얼굴에 들이부어 그를 죽이고 보니, 그 사람은 곧 여자였다. 그 장수가 쓰던 창포검이란 원래 원元나라 호변虎變의 집에 있던 것으로서, 칼자루는 사람의 가죽으로 쌌고, 칼날은 열 가닥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 난리가 지난 후에도 잘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촉蜀에는 화예부인花蘂夫人이 둘이 있다. 하나는 왕건王建의 첩 서徐씨요, 하나는 맹창孟昶의 비妃 비費씨로서 시詩에 능했고 악부樂府를 잘했다. 촉이 망하자 송宋으로 들어가니, 송태조宋太祖도 역시 그에게 반했다. 일찍이 독약을 만들

어 난을 일으키고자 하였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태종이 진저晉邸에 있을 때 태조太祖에게 그를 멀리하라고 여러 번 간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느 날 원중苑中으로 사냥 나가는데 화예부인花蘂夫人도 따라가 그 곁에 있었다. 이에 태종은 활을 당겨 짐승을 쏘는 체하다가 갑자기 돌이켜 화예부인을 쏘아 죽였다. 이 일은《소설》에 나온다.

진자앙陳子昂이 지은 곽공郭公의 희姬 설薛씨의 묘지墓誌가 있다. 여기에 말하기를, "설薛씨는 동명국왕東明國王 김金씨의 아들이다. 금왕金王에게 아들이 있어 따로 설薛 땅을 식읍食邑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성을 설薛이라고 했다. 그의 아버지 승충承冲이 김인문金仁問과 함께 고종高宗 때 당唐나라로 들어갔다. 희姬는 나이 어려서부터 얼굴이 아름다웠으나, 곽공에게로 시집가자 이내 죽었다 한다"라고 했다.
이 곽공이란 원진元振이요, 금왕金王이란 곧 신라왕新羅王이다. 그러나 동명東明은 곧 고구려인데 신라를 동명국이라 한 것은 잘못이다.

《감주별집弇州別集》에 말하기를, "영락년중永樂年中에 있던 권귀비權貴妃·임순비任順妃·이첩여李婕妤·최부인崔夫人은 모두 조선朝鮮에서 바친 여자들이다"라고 했다. 또 거기에 말하기를, "권귀비의 아버지는 광록경光祿卿 영균永均이요, 임순비任順妃의 아버지는 홍려경鴻臚卿 첨년添年이며 이소의李昭儀의 아버지는 광록소경光祿少卿 문명文命이요, 여첩여呂婕妤의 아버지는 광록소경 귀진貴眞이며, 최부인崔夫人의 아버지는 홍려소경鴻臚少卿 득비得霏였으니, 모두 조선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비록 귀하게 되어 경卿의 지위에 올라갔건만, 그래도 조선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선덕년중宣德年中에 이르러 영균永均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중국에서는 백금白金과 쌀과 포목을 보냈다 한다"라고 했다.
상고해 보건대, 영락永樂 6년에 중국 황제의 명命으로 권집중權執中의 딸과 임첨년任添年의 딸, 또 이문명李文命의 딸, 여귀진呂貴眞의 딸, 최득비崔得霏의 딸

들을 보내 바쳤다. 또 영락永樂 7년에 광록경 권영균權永均은 중국 도성에 갔다 왔으니, 이 영균은 곧 권씨의 형이다. 또 홍희洪熙 원년에 황제는 상보감尙寶監 김만金滿을 보내서 권씨의 형 영균에게 제사를 내렸다. 그러니 감주弇州가 이를 권귀비의 아버지라고 한 것은 잘못이었다.

21-9 척환戚宦

옛날부터 외척外戚으로는 한漢나라의 여산呂產·여록呂祿·곽우霍禹·상관안上官安·왕망王莽·두헌竇憲·정척鄭隲·염현閻顯·양기梁冀·아진阿進과, 당唐나라의 무삼사武三思·양국충楊國忠이 있고, 송나라의 한구주韓仇胄·가사도賈似道가 있다.

엄환閹宦(환관)으로는 진秦나라의 조고趙高와 한漢나라의 홍공弘恭·석현石顯·조절曹節·장양張讓·황호黃皓, 그리고 당唐나라의 이보국李輔國·정원진程元振·전영자田令孜, 또 송나라의 동관童貫이 있다.

권신權臣으로는 진秦나라의 이사李斯, 한漢나라의 동탁董卓, 당唐나라의 이임보李林甫·원재元載·노기盧杞, 송나라의 채경蔡京·왕보王黼·진회秦檜가 있다.

이들은 혹은 죽음을 당하거나, 혹은 귀양 가거나 해서 모두 집이 파괴되고 몸을 망치고야 말았다. 오직 한漢나라의 음陰·마馬 두 족族만은 몹시 근신했기 때문에 온전했었지만, 두무장竇武長·손무기孫無忌같이 충성되고 어진 사람으로서도 역시 화禍를 면치 못했다. 또 이임보李林甫·진회秦檜는, 자기 몸은 다행히 화를 면했지만, 혹은 죽은 뒤에 그 관棺을 쪼개는 화를 당했다.

고려나 조선에 와서도 권간權奸으로서 그 몸을 온전히 보전한 자가 역시 몇 명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세상의 슬기 있는 선비들은 오히려 이것을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

환관宦官을 위인謂人이라 하고, 또 탁인椓人이라고도 한다. 탁椓이란, 《설문說文》에 보면 음기陰器를 없애는 형벌이라고 했다. 또 이것을 화자火者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대개 부형腐刑을 말하는 것이다. 또 이것을 정신淨身이라고도 하는데, 스스로 불알을 없애는 자를 말한다.

《사기史記》에 보면, 한漢나라 석현石顯은 벼슬이 파면되자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함께 고향으로 이사해 돌아갔다고 한다. 당唐나라의 고력사高力士 · 이보국李輔國은 모두 아내를 맞이했다.

《감주별집》에 말하기를, "성화년간成化年間에 어마감御馬監 용규龍閨는 고故 남도후南都侯 방영方瑛의 첩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다. 대개 환관이 아내를 가진 일은 옛날부터 있던 것이다. 지금의 환관들도 아내를 얻지 않은 자가 없고, 첩을 가진 자까지 있으니 실로 이상한 일이다.

22. 성행부性行部

22-1 선악善惡

전傳에 말하기를, "착한 일이 쌓이지 않고는 그 이름을 이룰 수가 없고, 악한 일이 쌓이지 않고는 그 몸이 멸해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기에, 착한 일을 쌓으면 오직 이름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자손들에게까지 미쳐 나갈 것이요, 악한 일을 쌓으면, 그 몸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화가 종족宗族에게까지 미칠 것이니, 그 이치는 반드시 그러하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꼭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옛날부터 착한 일을 하는 자는 적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많은 것은 유독 무슨 마음들일까.

소자邵子는 말하기를, "사람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귀신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사람이 착한 일을 쌓으면 양陽이 많아져서 귀신은 이것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악한 일을 쌓으면 음陰이 많아져서 귀신은 이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내가 생각할 적에, 착한 것이란 곧 양陽이니, 이 착한 일이 쌓여서 양陽이 성하면, 곧 사람의 기운이 모든 것을 이기는 때문에 사람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귀신들이 저 스스로 사람을 두려워한다. 반대로 악한 것은 곧 음陰이니, 악한 일이 쌓여서 음陰이 성하면, 귀신의 기운이 모든 것을 이긴다. 그런 때문에 사람도 역시 귀신이 될 것이니, 귀신이 어찌 이것을 두려워하겠는가?

《동파지림東坡志林》에 말하기를, "봉황鳳凰은 높이 천 길을 날고, 까마귀나 솔개는 쏘아도 가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말하면, 아주 고상한 사람은 사람 중의 봉황과 같고, 벼슬에 나가기를 좋아하고 물러나기를 어렵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 중의 까마귀나 솔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진퇴進退하는 것으로 이것을 정하기에 넉넉하다.

내가 새를 볼 때 난鸞이나 봉鳳은 귀한 새이고, 솔개는 천한 새이다. 또 짐승을 보면, 기린은 그 수가 적고 개나 돼지는 그 수가 많다. 역시 풀이나 나무를 볼 때도, 지초芝草(버섯 따위, 상서로운 상징으로 여김)나 계수桂樹는 보기 드물지만, 형극荊棘(가시나무)은 매우 흔하다. 또 보기 나쁜 풀은 그 뿌리도 크고, 가지와 잎도 무성해서 뽑아 내버리면 다시 또 난다. 하지만 보기 아름다운 풀은 뿌리도 적고, 가지와 잎도 드물어서 아무리 손질해 가꾸어도 잘 자라지 않는다.
대개 이것은, 천지 사이에 순수한 기운은 적고 잡된 기운은 왕성하며, 탁한 기운은 강하고 밝은 기운은 약하다. 그런 때문에 그 기운이 잡되고 또 탁한 것을 얻은 자는 자연 강하고 왕성해서 오래 살게 마련이요, 이와 반대로 밝고 순수한 기운을 얻은 자는 적고 약해서 일찍 죽는 일이 많으니, 결코 괴상할 것이 없다. 예부터 착한 사람은 적고, 악한 사람은 많으며, 군자는 화를 입고, 소인小人이 이기며 잘 다스려지는 날이 짧고 어지러운 때가 긴 것이다. 사람이 불행히 밝고 순수한 기운을 많이 얻은 자는 마땅히 이것을 보존하고 아껴야 할 것이다.

22-2 염결廉潔

옛날 원덕수元德秀는 비에 막혀 굶어 죽었고, 진무기陳無己는 옷을 받지 않아 얼어 죽었다. 아아! 세상에는 늙도록 부귀에 넘쳐서 몸을 마치는 자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덕德이 있고 재주가 있는데도 춥고 굶주림을 면치 못했다. 그런 까닭에 군자가 하늘의 도道를 의심하는 것이다.

하정夏亭 정승政丞 유관柳寬의 처음 이름은 관觀이니, 나의 외外5대代 할아버지이다. 당시 황희黃喜 · 허조許稠와 함께 세종조世宗朝의 정승으로서 청백淸白한 것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었다. 흥인문興仁門 밖에 초가집 두어 간을 세웠다. 그러나 비가 오면 우산을 가져야 그 새는 것을 받을 수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그는 부인에게 말하기를, "우산이 없는 집에서는 어떻게 한다오?"라고 했다 한다. 이 사실은 《필원잡기筆苑雜記》와 그 밖의 서적에 보인다.
어느 날, 임금이 그의 집에 가서 울타리도 없이 사는 것을 보고, 선공관繕工官을 명하여 주인 모르게 밤에 울타리를 둘러주라 했다. 이것은 임금이 그의 청백淸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알면 필경 사양하겠기에 그런 것이다.
이튿날 공公이 비로소 이 사실을 알고 대궐에 나가 사례하고 나서 다시 사양했다. 그러나 임금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뒤에 공의 아들 판서判書 계문季聞이 집을 자못 높다랗게 짓고 살았는데, 공이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놀라 즉시 고치게 했다. 이것을 지금 사람들도 전해 듣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안다.
뒤에 우리 아버님이 공의 옛 집에 사시면서 짚으로 지붕을 하였더니, 손들이 이것을 보고 웃으면서 너무 소박하고 누추하다고 했다. 이에 아버님은 말하기를, "이것은 역시 우산에 비하면 사치스럽지 않은가?" 하니, 듣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탄복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시詩를 지은 것이 있으니 이러하다. "하정夏亭의 옛터 서울 모퉁이에, 청백한 집이 전해 오더니 나에게 다다랐네. 어찌 우산 하나로 천만 리를 구제해서, 천하사람 모두 비 맞지 않게 하리(夏亭遺址洛城隅 淸白家傳也到吾 安得傘周千萬里 盡遮天下不沾濡)."

참판參判 조원기趙元紀는 정암선생靜菴先生(조광조)의 숙부叔父이다. 청백한 것으로 칭찬을 받아 가선嘉善에 오르고 자헌資憲에까지 이르렀다. 중종中宗이 의정부議政府에 하교하기를, "조정 신하들 중에 맑은 절개가 본래부터 나타나서 늙

게까지 변하지 않아, 여러 사람들이 믿고 복종하는 자가 있으면 위에 보고하라”라고 했다. 이에 조정에서는 원기元紀를 보고하자, 곧 계급을 초월하여 숭정崇政으로 올려서 이를 장려했다.

이와 같은 때에, 판부判府 송흠宋欽이 맑고 검소하고 욕심이 없어 원기元紀와 함께 이름이 났었고, 역시 여러 번 승진하여 계급이 1품品에 올랐으니, 나라에서 그 격려하고 배양培養하는 뜻이 가위 성盛하다고 하겠다.
혹은 말하기를, 송 공은 수학數學에 정밀해서 지금 세상에 행하는 명서命書가 그의 저술이라고 한다.

판서判書 이우직李友直은 성품이 청렴하고 깨끗해서 아무런 생업도 일삼지 않고, 오직 술만 마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손이 혹 세상일을 말하면, 그는 문득 대답하기를,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했다.
정송강鄭松江(정철鄭澈)이 만사挽詞를 지어 읊기를, “만 가지 일에 아무 관계없는 손이, 오직 술이 있고 없는 것만 아는체 했네(萬事何關客 惟知酒有無)”라고 했다.

22-3 검약儉約

묵재默齋 홍언필洪彦弼의 집안 법도는 심히 엄했다. 그 아들 영의정 섬暹이 일찍이 승지承旨가 되었는데도 오히려 날마다 글 읽는 것을 일과로 했다. 아들과 사위가 아무리 현달顯達했어도 매양 문까지 나가서 기다렸다가 벽제소리를 모두 제하게 한 뒤에 나아가게 했다.
그의 회갑 날, 자제들이 노래와 음악으로 술자리의 흥치를 돋우려 하자, 공은 말하기를, “내 외람되이 높은 지위에 있어 항상 경계하고 삼가고 있는데 감히 노래하고 즐기는 즐거움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다. 그 검약함이 이와

같았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님을 뵈면 잡수시는 것이 몹시 검소했고, 또 평시에 손님을 대할 때에도 항상 무명옷을 입었으며, 비록 조복朝服이라도 일찍이 비단으로 장식하는 일이 없었다. 내가 자라자 괴원槐院에 벼슬하여 허다한 제조提調[34] 들을 보았으나, 그중에 오직 황정욱黃廷彧과 윤탁연尹卓然만이 비단옷을 입고 호상胡床을 탑용搭用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는 그러한 이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겨우 당상堂上에 오른 자도 안팎을 모두 비단으로 해 입었고, 혹은 백문단白紋段으로 바지를 해 입는 자까지 있다. 심지어 시정市井의 천한 사람들의 옷차림도 화려하기 끝이 없다. 대개 우리나라가 생긴 이후로 사치하는 풍습이 오늘날보다 더 심한 때가 없었으니, 만일 가의賈誼가 다시 살아난다면 어찌 눈물 흘리고 탄식할 뿐이겠는가?

22-4 염퇴恬退

황산곡黃山谷이 말하기를, "옥을 허리에 차고도 마치 마른 나무를 찬 것처럼 생각하고, 조정에 서서도 뜻은 동쪽 산에 있다〔佩玉而心若槁木 立朝而意在東山〕"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선비란 하루라도 이 마음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니, 선비로서 이 마음이 없으면 부귀富貴와 이달利達에 움직여져서 반드시 거취去就를 가볍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 마음이 있는 자는 벼슬하면서도 숨은 자이고, 이 마음이 없는 자는 숨어서 살아도 벼슬을 하는 자이다.

34 각 사司나 청廳에 관제상官制上의 우두머리가 아닌 사람으로 그 관청의 일을 다스리게 하면 벼슬로서, 종1품 · 종2품의 사람이 되는 경우의 일컬음.

《피서록避暑錄》에 말하기를, "백낙천白樂天은 양우경楊虞卿과 사돈이 되나 우경虞卿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다. 원진元稹과 우승유牛僧孺와도 사이가 가까웠지만 원진이나 승유와 당黨을 함께하지는 않았다. 또 배진공裴晉公이 소중히 여겨 주었지만, 진공에 의해서 승진하지 않았다. 이문요李文饒와는 본래 사이가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문요에게 깊은 해를 입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승진하는 일에 급급해하지 않고, 뜻은 물러가는 데에 있었다. 그래서 능히 편안한 마음으로 나가고 물러갈 수 있었으며, 사랑하고 미워하는 일에 매양 여유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건대, 낙천樂天이 이미 물러나갔으니 세상일에는 마땅히 초탈超脫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성색聲色과 연음宴飮으로 스스로 즐겼으니, 이것은 대개 한가하게 처하지 못하고, 오직 물건을 기다려서만 즐거워했던 것일까?

명나라 양수진楊守陳은 성품이 조용하고 욕심이 없었다. 5품 벼슬에 있은 지 16년이 되어도 일찍이 승진하려고 애쓰는 일이 없었다.
권세 있고 조정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혹 그의 어진 것을 소중히 여겨 올려 쓰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수진守陳은 이를 사양하여 말하기를, "나는 마치 과부와 같소. 이제 절개를 지킨 지가 30년이나 되었는데 지금은 이미 늙었소. 그런데 이 흰 머리를 가지고 절개를 고칠 수가 있는가?"라고 했다.
내가 사대부들을 보건대, 나이 젊어서는 그래도 자기 스스로 몸을 닦아 나가다가도 나이 먹어서는 그 절개와 지조를 굳게 지키지 못한다. 그리하여 처음 뜻을 변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자가 많다. 그런데 이 수진守陳 같은 자는 가위 어질다고 하겠다.

지추知樞 이현보李賢輔는 예안禮安 사람이다. 일찍이 영남관찰사嶺南觀察使로 갔는데, 그 도道에는 본래 옛 친구들이 있으므로 한번 사사로이 만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는다면 이로 인해서 정법政法이 반드시 파괴될 것이라 생각했다.

이현보는 이에 엄격히 이것을 방지하는 법을 세워서, 아무리 그의 자제나 친척이라도 감히 공관公館에 와서 인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리하여 그는 나이 70세가 지나 호조참판戶曹參判으로서 벼슬에서 물러나와 시골로 돌아갔다.
뒤에 중종中宗 · 인조仁祖 · 명종明宗이, 그가 명예나 지위를 사양하는 것을 아름답게 여겨 여러 번 승진시켜 숭정崇政에 이르렀고 나이 89세에 죽었다.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는 장성長城 사람으로서 문장이 풍부했다. 젊었을 때 관과館課 칠석부七夕賦에 제1로 뽑혀, 이로써 이름이 매우 드러났다.
인묘仁廟가 동궁東宮으로 있을 때 시강원侍講院 설서說書가 되었고, 수찬修撰으로 있을 때, 부모가 늙었으므로 외직外職으로 보내주기를 빌어서 옥과현감玉果縣監이 되었다. 그러나 인묘가 승하한 뒤에는 물러가 있었으며 벼슬하지 않았다. 매양 인묘의 제삿날을 당하면 반드시 깊은 산속에 들어가 종일토록 통곡했다. 그가 저술한 시문이 세상에 행行한다.

박사암朴思庵(박순朴淳)은 얼굴이 아름다워, 마치 빙옥氷玉과도 같았다. 그 시詩도 또한 맑고 깨끗해서 당시唐詩에 가까웠다. 원접사遠接使가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겨우 45세로, 행동이 단아하니 중국 사신들이 그를 매우 칭찬했다. 대제학大提學이 되었을 때 이퇴계李退溪 선생은 제학提學이 되었다. 공이 사양하기를, 자기는 아직 나이 어리고 학문도 이루지 못했으니 퇴계 선생에게 대제학을 주어 달라고 청했다. 이에 임금도 즉시 이를 승낙하니, 당시 의논하는 자들은 모두 그가 사양한 것을 아름답게 여겼다.
정승을 그만두자 영평永平으로 물러나 살면서 세상일에서 뜻을 끊으니, 그 맑고 깨끗한 절개는 늙을수록 더욱 높았다. 근래 대신大臣들의 나가고 물러나고 하는 것이 종시 공 같은 이는 적다.

22-5 음덕陰德

음덕陰德이란 음陰으로 남에게 덕德을 베푸는 것을 말한다. 만일 모든 것을 대보고,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음덕이 아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음덕은 마치 귀에 울려오는 소리와 같아서, 혼자만이 이것을 알고 다른 사람은 아는 자가 없는 것이다(陰德其猶耳鳴己 獨知之人無知者)"라고 하였으니, 과연 이 말은 옳다.
우공于公은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일로 음덕을 베풀었고, 왕옹유王翁孺는 사람을 살리는 일로 음덕을 베풀었다. 등우鄧禹는 사람을 아무렇게나 죽이지 않는 것으로 음덕을 베풀고 스스로 말하기를, "내 집은 후세에 반드시 흥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니 이들은 모두 기대하는 뜻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음보陰報를 받은 것은 무슨 때문일까?
《연수서延壽書》에는 말하기를, "음덕이란 또한 수壽를 늘이기도 한다"라고 했다.

고려 이행검李行儉이 형부랑刑部郎이 되었다. 동료들은 권세에 몰려서 송사訟事를 올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자기 뜻을 굽히고 있었다. 그러나 행검行儉은 이것을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마침 행검行儉이 휴가로 쉬는 날 동료는 이것을 즉결卽決하고 말았다.
이 일이 있은 후 어떤 사람의 꿈에 날카로운 칼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형부刑部의 관리를 모두 목 베어 죽이는 것이었다. 얼마 안 되어 형부의 관리들은 모두 갑자기 병들어 죽었는데, 행검만이 혼자 아무 병 없이 지냈다.
그 뒤에 행검은 벼슬이 직학사直學士에 올랐고, 그의 손자 공수公遂는 익산부원군益山府院君이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음덕陰德의 갚음이 아니겠는가. 이것으로 본다면 법을 어기고 사사로운 일을 행해서 그 마음을 속이는 자는 반드시 하늘의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옛날 상국相國 황희黃喜가 아직 미천할 때의 일이다. 어디를 가다가 노상路上에서 쉬노라니, 농부 한 사람이 소 2마리에 쟁기를 메워 밭을 갈고 있었다. 황희는 묻기를, "그 2마리 소 중에 어느 소가 밭을 잘 가나요?"라고 했더니, 농부는 대답을 하지 않고 밭을 다 갈고 나더니 황희의 곁으로 와서 귀에 입을 대고 조그만 목소리로, "이쪽 소가 잘 갑니다"라고 했다. 황희는 괴상히 여겨 묻기를, "그 말을 왜 귓가에 입을 대고 은근히 하시오"라고 했더니, 농부는 말하기를, "비록 짐승일지라도 그 마음은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답니다. 이쪽이 잘한다고 하면 저쪽은 일을 잘 못하는 것이 될 테니, 그 소가 들으면 어찌 불평스러운 마음이 없겠소?"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황희는 크게 깨달아 이로부터는 다시 남의 장점과 단점을 말하지 않았다 한다.

22-6 사치奢侈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말하기를, "의관衣冠이란 모습을 꾸미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남들이 한다는 말을 들으면 이것을 사모하고 좋아서 쓴다. 그러니 이것은 의관을 귀로 본단 말인가? 음식은 입에 맞으면 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실과나 떡에 빨갛고 파랗게 새겨서 먹으니 이것은 눈으로 먹는단 말인가〔衣冠所以爲容也 世人聞人所尙而慕 之非以耳視乎哉 飮食所以適口也 世人取果餌而刻鏤朱綠 之非以目食乎哉〕"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기에, 사치라는 것의 해독害毒은 사람의 본마음을 잃게 해서, 귀나 눈이 하자는 대로 하게 하는 것이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랴.

송나라 휘종徽宗이 옥玉으로 만든 술잔을 신하들에게 내보이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큰 잔치에 내놓고 쓴다면 사람들이 지나치게 화려하다고 하겠지!"라고 하니, 채경蔡京이 말하기를, "무슨 일이든지 이치에 맞으면 남의 말을 근심

할 것이 못 됩니다. 폐하께서는 온 천하를 차지하고 계신 터에 그까짓 옥술잔쯤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라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생각한다. 휘종徽宗의 말에는 오히려 방자하지 않으려는 뜻이 있지만, 저 소인은 교묘한 말솜씨로 남의 비위 맞추기를 이같이 했으니, 참으로 미운 일이다.
옛날에 기자箕子가 말하기를, "저 상아 젓가락을 만드는 것은 장차 옥술잔도 만들 장본이다"[35]라고 했다.
옥술잔은 제왕帝王도 이것을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보통 사람도 혹 연회에 쓰고 있으면서 태연하게 조금도 괴상히 알지 않으니, 풍속의 사치스러움이 심하다.

탁왕손卓王孫은 가동家僮이 1,000여 명이 있었고, 여석위呂石韋와 미축糜竺은 만 명, 원옹元雍은 6,000명에다 기생이 500명이 있었다. 석숭石崇은 가동이 800명에 아름다운 계집종이 1,000여 명 있었다. 양소楊素도 가동이 수천 명 있었고 곽분양郭汾陽도 3,000명이 있었다. 그러니 정정程鄭의 집 800명이나 원광한袁廣漢의 900명 같은 것은 족히 말할 것이 못 된다.

하증何曾은 날마다 만 냥어치 음식을 먹었고, 자소子劭는 날마다 2만 냥어치를 먹었다. 임개任愷는 한 번에 만 냥어치를 먹었고, 화교和嶠는 하루에 3만 냥어치를 먹었다. 또 원옹元雍은 한 번에 만 냥어치를 먹었다. 두종杜悰은 날마다 다섯 번을 먹는데, 한 번에 만 냥어치를 먹었다. 이덕유李德裕는 국 한 그릇을 만드는데 2만 냥을 들였고, 원재元載는 자기가 먹는 음식의 그릇이 3,000개나 되었다. 채경蔡京은 부엌에서 일하는 계집종이 수백 명이었으며, 날마다 메추리새끼 1,000여 마리를 먹었다. 그것으로 보면 사치한 사람 치고 그 끝이 아름

35 사치가 싹트는 것을 비유해 하는 말. 상저象箸는 처음 주紂가 만들었는데, 기자箕子가 보고 그 장차 사치로 해서 나라가 망할 것을 탄식한 데서 나온 것임.

다웠던 자가 드물다.

사령운謝靈運은 문에 모여드는 친구들이 항상 수백 명씩 되었으며, 집은 화려하고 넓은 데다가 산천山川의 좋은 경치를 모두 꾸며 놓았었다. 서담徐湛의 동산과 연못, 그리고 기악伎樂의 아름다움은 가장 뛰어났으며, 한때는 문생門生들이 1,000여 명이나 되었다.
서군청徐君蒨은 그를 모시는 첩이 수십 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금과 비취를 몸에 달았고 비단옷을 끌고 있었으며, 때때로 이들 첩을 태우고 놀러 다니기도 했다.
왕감주가 말하기를, "글하는 선비가 이런 것을 얻었으니, 이것은 하늘이 준 복이다"라고 했다. 내가 듣건대 감주가 세상에 있을 적에 좌우에서 모시고 있는 문생門生들이 항상 수백 명이나 되었고, 금과 비단과 이름난 말을 가지고 와서 지명誌銘을 구하는 자가 줄 지어 섰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오히려 부러워하고 사모한 것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일까.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 박원종朴元宗은 무인武人이다. 폐조廢朝 때 벼슬이 정2품에 이르렀는데도, 반정反正의 모의를 앞장서서 세웠기 때문에 지위가 수상首相의 자리에 올랐다. 이에 그는 자기 스스로 공이 크고 지위가 높은 것을 알고, 오직 술이나 마시고 즐기면서 죽을 날을 재촉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음악과 기생이 그 앞에 가득하여 낮과 밤으로 즐기니, 이렇게 수년 동안 계속하다가 나이 겨우 40여 세에 죽었다.
정호음鄭湖陰은 젊어서 글 잘한다는 칭찬이 있었다. 승문원承文院 정자正字가 되었을 때, 공사公事로 박 공을 뵈었더니, 공은 잔치를 크게 차려 대접하는 것이었다. 호음湖陰이 밖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재상으로서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호음이 한평생 동안 호화스럽고 사치한 것은 대개 박 공이 하던 것을 사모하고 본받은 것이었다고 한다.

정호음의 별장은 흥인문興仁門 밖에 있다. 그 거처하는 것과 음식이 온갖 사치를 다 하다가 나이 81세에 죽었는데, 근대의 부귀한 사람의 집으로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 글 베끼는 학관學官들까지도 달밤에 모여서 놀게 하고, 같이 자면서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그들을 시켜 상고해 오게 했다. 또 시詩를 지으면 그들을 시켜 써두게 하고, 공은 다만 편안히 앉아서 입으로 부르기만 할 뿐이었다.

또 공은 산문散文에는 능하지 못해서, 이것을 지을 때는 학관 어숙권魚叔權을 시켜서 대신 짓게 했다. 그런 때문에 공의 글은 세상에 전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

22-7 탐색貪嗇

옛날 원재元載의 집에는 후추 800섬이 있어서 이것을 세상에서는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고해 보니, 명나라 정덕正德 연간年間에 주녕朱寧의 집 재산을 몰수하니, 후추가 3,500석이나 있었으며, 그 밖의 물건은 이루 셀 수도 없었다고 한다. 가위 이것은 지금이 옛날보다 더하다고 하겠다.

대관재大觀齋의 꿈을 기록한 글에 보면, 변계량卞季良은 말할 때마다 반드시 머리를 흔들었으며, 그 경솔하고 조급하기가 짝이 없었다. 또 유호인俞好仁은 키가 크고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 존자尊者의 상像과도 같았다고 했다. 이것은 그 시대가 멀지 않은 때문에 필연 그 사람됨을 안 것일 것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춘정春亭은 몹시 인색해서 생선이나 고기가 생기면 이것이 썩어서 못 먹게 된 뒤에 도랑에 버리고, 남에게는 주지 않았다. 그가 물건을 함부로 쓰고 아까운 줄 모른 것이 이와 같았다"라고 했다. 대관재란 심의沈義의 호다.

22-8 실절失節

《소설》에 보면, 원元나라 장수 장홍범張弘範은 장세걸張世傑의 형이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홍범弘範이 애산崖山에 이르러 세걸에게 글을 보내어 항복하기를 전했다. 그러나 세걸은 여기에 회답도 하지 않았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마땅히 믿을 만한 말이다.
문벽文璧은 문산文山의 아우로서 원元나라에 벼슬했다. 대체로 이 두 사람의 충성과 의리는 1,000년이 지난 뒷날까지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일으킬 만한데, 그런데 형제간을 감화시키지 못한 것은 무슨 일일까. 상고해보건대, 《원사元史》에는, 홍범은 금金나라에서 항복한 장수 장유張柔의 아들이라고 했다.

조맹부趙孟頫는 송나라 후예로서 원元나라의 부마駙馬가 되었다. 그러니 이것은 비단 그 절개를 잃었을 뿐만이 아니다. 대체로 원나라가 중국의 주인이 되는 것은 만고萬古의 큰 변으로서, 조금이라도 기개와 절개가 있는 자로서는 반드시 그 조정에 벼슬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더구나 조맹부로서 원수인 오랑캐 나라의 사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후세 사람들이 시詩로써 이것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왕유[36] 같은 시詩와 그림, 그리고 종요의 글인데〔王維詩畫鍾繇書〕"라고 했고, 또, "그림 솜씨 초계苕溪에서 나와 망천輞川과 같았네〔畫出苕溪似輞川〕"[37]라고 했으니, 이것은 모두 그의 절개를 깎아 말한 것이다. 다만 그가 절개를 잃은 것만을 나무라고 오랑캐 나라의 사위가 된 죄는 말하지 않았으니, 그래도 말할 것을 다 말했다고는 할 수 없다.

36 당唐나라 때 시인詩人이며 화가. 종요鍾繇는 삼국三國 때 위魏나라 사람으로 서書에 능한 사람. 여기에서는 왕유王維 같은 시詩의 솜씨와 그림 재주, 그리고 종요鍾繇 같은 글씨 솜씨가 있으면서도 그런 짓을 했느냐고 비방하는 뜻에서 말한 것.

37 초계苕溪 · 망천輞川은 모두 중국의 이름난 명승지名勝地로서 그림의 자료로 많이 쓴 곳.

23. 신형부身形部

23-1 용모容貌

공자孔子는 성탕成湯의 자손이다. 그런데 탕湯의 키도 9척 6촌이요, 공자의 키도 역시 9척 6촌이다. 장홍萇弘이 공자를 보고 성탕의 용모와 비슷하다고 했으니 이상한 일이다.

상고하여 보니, 위衛나라 공손려公孫呂는 키가 7척이요 얼굴 길이가 3척에 너비가 3촌이었는데, 이름이 천하에 떨쳤다. 오원伍員은 키가 10척이나 되고, 눈썹 사이가 1척이나 되었다. 상유한桑維翰은 키는 작았지만 얼굴 길이는 1척이나 되었다. 환온桓溫은 얼굴에 별 7개가 있었고, 소식蘇軾은 얼굴에 검은 점 7개가 있었다. 안영晏嬰 · 순우곤淳于髡 · 전문田文 · 공수龔遂는 모두 키가 작았고, 곽해郭解 · 엄연년嚴延年 · 누호婁護 · 이신李紳은 모두 키가 작으면서도 정력이 있고 날래었으니, 대개 이 정력과 날랜 것이 키 큰 것보다 낫다고 한다.

전傳에 말하기를, "사람의 얼굴 모양이나 말하는 기운은 곧 덕德의 증거이다(容貌辭氣乃德之符)"라 했고, 선유先儒들은 말하기를, "배우는 자들은 모름지기 기상氣象을 깨달아 알라(學者須要理會氣象)"라고 했다.
소위 기상이란, 말하는 것과 얼굴 모습과 행동하는데 있어서 가볍고 무거우며 빠르고 느린 것을 보아 아는 것이다. 이것으로 해서 오직 군자와 소인이 구별될 뿐만 아니라, 역시 귀천과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까지도 여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

상서相書에 말하기를, "움푹 들어간 눈에 널찍한 입은 봉록 1,000석을 먹을 수

있는 상이다(河目海口食祿千鍾)"라고 했고, 그 주註에 말하기를, "눈은 빛이 밝고 눈알이 튀어나오지 않으며, 입은 반듯하면서도 쳐들리지 않으면, 이것은 귀하게 되고 나라의 봉록을 먹을 상이다"라고 했다. 하목河目 · 해구海口란 곧 말하는 것을 용납하고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주단계朱丹溪는 말하기를, "사람의 형상은 긴 것이 짧은 것만 못하고, 큰 것이 작은 것만 못하며, 살찐 것은 야윈 것만 못하다. 또 사람의 얼굴빛은 흰 것이 검은 것만 못하고, 고운 것이 건장한 것만 못하고, 얇은 것이 두꺼운 것만 못하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살찐 사람은 습기가 많고, 파리한 사람은 화기火氣가 많다. 얼굴빛이 흰 사람은 폐肺가 허약하고, 검은 자는 신기腎氣가 튼튼하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말들은 모두 사람의 기품에 대해서 말한 것일 뿐, 결코 그 사람이나 신체 모양의 아름답고 나쁜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의 귀하고 천한 것은 그 사람의 눈썹과 눈에서 보고, 지혜는 그 가죽과 털에서 살피고, 고통스럽고 즐거운 것은 그 손과 발을 관찰하고, 가난하고 부한 것은 그 턱과 볼을 보라(貴賤視其眉目 智慧察其皮毛 苦樂觀其手足 貧富觀其頤頷)"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대강을 말한 것이다.

당唐나라 일행一行이 말하기를, "사람을 보는 법은 홍범洪範의 5복福[38], 6극極[39]을 주로 한다. 대개 충성되고, 효성스럽고, 어질고, 의리가 있는 사람은 길한 사람이고, 불충하고 불효하고 어질지 못하고 의리가 없는 자는 흉한 사람이다. 길한 사람은 반드시 5복의 보답을 받으며, 흉한 사람은 반드시 6극의 형

38 5가지의 복福, 곧 수壽 · 부富 · 강녕康寧 · 유호덕攸好德 · 고종명考終命. 또는 수壽 · 부富 · 귀貴 · 강녕康寧 · 자손중다子孫衆多.

39 6가지의 크게 불길한 일. 곧 흉단절凶短折 · 질疾 · 우憂 · 빈貧 · 악惡 · 약弱.

벌을 받는다. 이것은 혹 자기 몸이 받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자손이 받게 마련이다. 다만 이것은 그 사람의 풍골風骨이나 기색氣色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앞길의 잘되고 못되는 것으로 한다〔相人之法以洪範五福六極爲主 大概忠孝仁義者吉人也 不忠不孝不仁不義者凶人也 吉人必獲五福之報 凶人必獲六極之刑 縱不在其身必在子孫 不但於風骨氣色中 料其前程休咎〕"라고 했다. 그러니 일행 같은 사람은 사람의 상相을 잘 보았다 하겠다.

상고하여 보니, 항왕項王은 솥을 들고 산山을 뽑았으며, 촉蜀의 5정丁 역사力士는 산을 옮겨 놓고 만 균鈞이나 되는 무게를 들었다. 진秦나라 오획烏獲 · 하육夏育은 모두 1,000균을 들었다 하는데, 이 1,000균은 대개 3만 근이다. 상商나라 숭후호崇侯虎는 600석 되는 무거운 모래를 들었고, 위衛나라 석번石蕃은 모래 1,200근을 등에 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개 120석이다.
나는 생각하기에, 만 균은 마땅히 30만 근이라야 옳으니, 이 말들은 더욱 허탄한 말이다. 옛날의 근斤이나 양兩, 또 두斗나 석石은 모두 지금과는 같지 않다고 하지만, 그런대로 이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또 5정丁이란 역사力士 5명을 말하는 것이고, 결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옛날에 살찌고 무거운 사람으로는, 안녹산安祿山이 350근, 사마보司馬保는 800근, 맹업孟業은 1,000근이었다. 또 오자서伍子胥는 키가 1길에 허리둘레가 열 아름이고, 거무패巨無霸도 키가 1길에 허리둘레가 열 아름이어서 초거軺車에도 탈 수가 없고 말 3필로도 모자랐다고 하니, 이것이 그중에 가장 심한 예들이다.

불어佛語에 말하기를, "지地와 수水와 화火와 바람이 화합해서 사람이 이루어진다. 힘줄이나 뼈, 피부와 살은 모두 땅에 속하고, 피와 진액津液은 모두 수水에 속하고, 호흡하고, 따뜻한 기운은 모두 화火에 속하고, 신령스러운 활동은

모두 바람에 속한다고 한다. 그래서 바람이 멎으면 곧 기운이 끊어지게 되고, 화火가 없어지면 곧 몸이 차가워지며, 수水가 마르면 곧 피가 없어지며, 토土가 흩어지면 곧 몸뚱이가 찢어지게 된다〔地水火風和合成人 筋骨肌肉皆屬于地 精血津液皆屬于水 呼吸溫煖皆屬于火 靈明活動皆屬于風 是以風止則氣絕 火去則身冷 水竭則無血 土散則身裂〕"라고 했다. 이것이 소위 형체를 이룬다는 4가지의 큰 것이다.

23-2 심신心神

소자邵子는 말하기를, "신神이란 사람의 주인이다. 사람이 장차 자려고 할 때는 이 신神이 비脾(지라)에 있고 깊이 잠들면 신腎에 있다. 또 장차 깨려고 할 때는 간肝에 있고, 아주 깼을 때는 마음에 있게 마련이다〔神者人之主 將寐在脾 熟寐在腎 將寤在肝 正寤在心〕"라고 했다.
이것으로 본다면 마음은 양명陽明의 자리가 되고, 신神이 깃들이는 곳이 된다. 이에 임금이 남쪽을 향하고 앉아서 만 가지 물건을 주장해 다스리는 때문에 이를 천군天君이라고 한다.
《내경內經》에 말한, "마음이란 군주의 주장이요, 신명이 여기에서 나온다〔心者君主之官 神明出焉〕"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의서醫書에 말하기를, "마음의 구멍은 사방이 1치인데, 여기에 신명이 깃들이고 있다〔心竅方寸神明居焉〕"라고 했으니, 이 방촌方寸이란 것은 바로 마음의 구멍이다.

서서徐庶가 말한, "사방 1치 되는 땅"이란 곧 마음을 가리켜 한 말이다. 지금 사람들은 여기에 인해서 바로 마음을 가지고 방촌方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다.

《도경道經》에 말하기를 "하늘에 3가지 보배가 있으니, 해 · 달 · 별이요, 사람에게 3가지 보배가 있으니, 정신精神과 기운氣運과 신神이다(天有三寶日月星 人有三寶精氣神)"라고 했다.
담경승譚景昇은 말하기를, "3가지를 가지고 1가지를 지키는 자는 정신을 연마하여 기운으로 화하게 하고, 기운을 연마하여 신神으로 화하게 하고, 신神을 연마해서 도道에 합하게 한다(存三抱一者 錬精化氣 錬氣化神 錬神合道)"라고 했다.
상천옹象川翁은 말하기를, "정신은 능히 기운을 낳고, 기운은 능히 신神을 낳으니 한 몸을 호위하는 데는 이것보다 큰 것이 없다(精能生氣 氣能生神 榮衛一身 莫大於此)"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기에, 이 3가지 보배 중에서 정신을 주로 하여야 옳은 것이니, 정신이란 또 기운과 신神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23-3 외형外形

상고해 보건대, 사람의 구멍과 기혈氣血, 호흡하는 것은 모두 하늘에 통한다. 하늘에는 구중九重이 있고, 사람에게는 구규九竅가 있다. 하늘에는 4시時가 있어서 12월을 제어하고, 사람에게는 4지肢가 있어서 12절節을 부리고 있다. 또 하늘은 서북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의 바른편 귀와 눈이 먼저 쇠약해지고 땅은 동남쪽이 부족한 때문에 사람의 왼편 손과 발이 먼저 쇠약해진다.
《소문素問》에 말하기를, "오른편 귀와 눈이 왼편보다는 밝지 못하고, 왼편 손과 발이 오른쪽보다 강하지 못하다(右耳目不如左明 左手足不如右强)"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한 가지 증거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코 속의 기운이 양陽인 때는 왼쪽에 있고, 음陰인 때는 오른쪽에 있으며, 해시亥時와 자시子時 사이에는 두 코가 모두 통한다(鼻中之氣 陽

時在左 除時在右 亥子之交 兩鼻俱通〕”라고 했다. 이것은 도가道家에서 말한, ‘옥동쌍개玉洞雙開’라는 것이다.

일찍이 내가 한 늙은 중을 보니, 그는 곧잘 두 코로 숨을 쉬면서 시간을 알아내는데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

노자老子는 말하기를, “오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五色令人目盲〕”라고 했고, 또 양생서養生書에는 말하기를 “조호皁糊 까맣게 칠한 것의 병풍은 눈의 힘을 길러준다〔皁糊屛風可養目〕”라고 했다. 양생서에는 또 말하기를, “집에서 기르는 짐승의 간肝은 먹지 않는데,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 죽을 때에는 그 분한 기운이 간으로 모여서 눈을 밝게 하는 데 해롭다〔不食畜獸肝 蓄獸臨宰之時 忿氣聚肝 不宜於目明矣〕”라고 했다. 그러나 본장本章에 보면, 푸른 양의 간이나 소의 간, 돼지 간, 토끼 간 등은 모두 눈을 밝게 한다고 했으니, 말들이 서로 같지 않다.

장담張湛의 “목질방目疾方”에 말하기를, “글 읽는 것을 적게 하고 생각하기를 적게 하며, 안으로 보는 것을 오로지 하고 밖으로 보는 것을 간략하게 한다.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고, 밤에는 일찍 잔다. 이 6가지는 신화神火(정신상精神上의 화기火氣)를 볶고 기사氣篩를 내려 보내 가슴속에 감추어 두는 것으로서, 이것을 오래 계속하면 비단 눈만 밝아질 뿐만 아니라, 또한 수壽를 늘일 수도 있다〔損讀書減思慮 專內視簡外觀 朝晩起夜早眠 凡六物熬以神火 下以氣篩蘊於胸中 長服不已 非但明目 亦可延年〕”라고 했다.
지금 사문斯文 원탁元鐸은 어려서 고래 기름으로 불을 켜고 글을 읽다가 눈을 상해서 아무 것도 보지 못했다. 의원이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침이나 약으로 고칠 수가 없으니, 반드시 3년 동안 눈을 감고 있으면 나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원元은 그 말에 의해서 문밖에 나가지 않기를 3년 동안 했더니, 비로소 눈을 뜨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보았다고 한다.

상고하여 보니, 입 위에 있는 수염을 자髭라고 하고, 입 아래에 있는 것을 승장承漿이라 하는데 장漿은 수水란 말이다. 턱 아래에 있는 수염을 수鬚라 하고, 볼에 있는 수염을 염髥이라 하고, 그 위에 머리털과 연해 있는 것을 빈鬢이라고 한다. 또 그 위로부터는 목 · 목덜미 · 인후咽喉 · 목구멍 · 가슴 · 명치(膈)가 있고, 중간에는 겨드랑이 · 어깨 · 팔 · 팔꿈치 · 팔 · 손 · 손바닥이 있고, 아래로는 허리뼈 · 넓적다리 · 무릎 · 다리(下肢) · 정강이 · 발 · 발꿈치 · 발뒤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이름이 다르다. 이 밖에도 사람의 몸뚱이에 있기는 하지만, 자기 스스로 그 이름을 모르는 것이 많다.

코 밑, 입 위를 인중人中이라고 한다. 조맹부趙孟頫는 말하기를, "이 인중 위로 있는 눈 · 귀 · 코는 모두 구멍이 둘이 있고, 인중으로부터 아래에 있는 입과, 앞뒤에 있는 편구便口는 모두 구멍이 하나다. 3획은 음陰이요 3획은 양陽이니 태괘泰卦[40]를 이룬다(自此而上眼耳鼻皆雙竅 自此而下口暨二便皆單竅 三畫陰三畫陽 成泰卦也)"라고 했다.
왕감주는 말하기를, "여자를 두고 말한다면 아래에 젖이 둘이 있으니 어찌 구멍이 하나라고 하느냐(以婦人言之下有雙乳豈單竅乎)"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기에, 두 젖은 9규竅에 들지 않으니, 감주의 말은 희롱으로 한 말이다.

23-4 모발毛髮

《완위여편宛委餘編》에 말하기를, "상투(髻)는 수인씨燧人氏 때부터 머리털을 동여서 만들었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때는 머리털을 묶는 일이 없었다.
여와씨女媧氏는 대나무로 비녀(笄)를 만들었고, 요堯는 구리로 비녀를 만들었

40 64괘의 하나. 곤괘坤卦와 건괘乾卦가 거듭된 것인데, 하늘과 땅이 서로 사귐을 나타냄.

다. 주周의 문왕文王은 여기에 비취로 만든 꽂꽂이를 꽂게 하여 이것을 봉고鳳髻라고 하고, 또는 보요고步搖髻라고 했다. 진晉나라 영가永嘉 연간年間에는 여자들의 쪽을 흠씬 늦추어서 이마를 덮어 귀를 지나게 했다. 태원太元 연간年間에는 여자들이 귀밑털을 내려뜨리고, 쪽을 기울게 하고서 거기에 좋은 장식을 했다. 가발假髮에 머리털을 사용하는 것이 이미 많아서 항상 머리에 이고 있을 수 없었다. 이에 먼저 나무나 채롱 위에 장식해 놓고 이것을 가고假髻라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 부인들이 가수假首를 쓰는 것은 대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옛적에는 어린애의 태발胎髮[41]은 반드시 깎아 주었다. 그런 때문에 《역서曆書》에 보면, 머리를 깎는 길일吉日이 따로 있고, 또 정일丁日에는 머리를 깎지 않는다(丁不剃頭)는 글귀도 있다. 옛 속담俗談에 말하기를, "어린애의 머리를 깎아 주지 않으면 반드시 배를 앓는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수서隋書》에 말하기를, "고려高麗의 부인은 머리털을 땋아 머리에 두르고 또 거기에는 비단과 구슬로 장식을 한다"라고 했다. 동월董越의 부賦에 말한, "여자의 머리털이 귀를 덮어 귀고리 한 것이 보이지 않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니 습관과 풍속이 이루어진 것이 매우 오랜 것이다.

당唐나라 이광필李光弼의 어머니는 턱수염이 수십 개가 있고, 길이가 5치가량이었다. 한국부인韓國夫人에 봉해졌고, 그의 두 아들은 모두 군주君主에 봉해졌으니 역시 이상한 일이다.

41 어린애가 날 때 뱃속에서 자라가지고 나온 머리털.

23-5 몽매夢寐

《유양잡조酉陽雜俎》에 말하기를, "소경은 꿈이 없으니 꿈을 아는 것은 습관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장자莊子의 말에, "지인至人은 꿈이 없다"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소경은 모두 지인至人(도덕道德이 지극히 높은 사람)에 가깝단 말인가. 그는 다만 안으로만 보고 모든 생각과 근심을 하지 않는 때문에 능히 꿈을 꾸지 않는단 말인가.

《잡조雜俎》에는 또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꿈이 적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곧 유독 지인至人만이 꿈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양신楊愼이 말하기를, "무정武丁은 일찍이 백성들 사이에 살았을 때에 이미 부열傅說이 어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를 들어서 백성과 신하들의 위에 앉힌다면 백성들은 반드시 첩연帖然(침착하고 안정된 모습)한 태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꿈으로 징험해서 보인 것이다. 대체로 상商나라의 풍속은 질박하고 귀신을 믿었다. 그런 때문에 백성의 믿는 바를 따라 그들을 이끄는 것은 성인이 일을 성취시키는 기밀機密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용수用修[42]의 이 말은 진실로 보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 그도 자기의 사사로운 마음으로 성인聖人의 마음을 헤아려본 폐단을 면치는 못할 것이다.

상고해 보건대, 《사기史記》의 주註에 말하기를, "황제黃帝는 큰 바람이 먼지를 불어 가는 꿈을 꾸고, 또 사람이 1,000균鈞이나 되는 쇠뇌(弩)를 잡고 만 마리

42 양신楊愼의 자. 명나라 신도新都 사람. 호는 승암升菴 · 화조구천花朝舊天 진일眞逸. 벼슬이 수찬修撰에 이르고 《단궁총훈檀弓叢訓》 · 《기자운奇字韻》 등 수많은 저술이 있음.

나 양떼를 모는 꿈을 꾸고서 여기에서 풍후風后[43]와 역목力牧[44]을 얻었다〔黃帝夢大風吹塵垢 又夢人執千鈞之弩 驅羊萬群 於是求得風后力牧〕"라고 했다.
대개 옛날 성인聖人은 정신으로 신神을 만날 수 있었고, 이것을 잘 사귀어 감응感應시켜서 이 같은 일이 있었으니, 이런 이치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소설》에 말하기를, "송宋의 휘종徽宗은 전무숙왕錢武肅王이 양절兩浙의 옛 땅을 돌려보내 주기를 비는 꿈을 꾸고 깨니 위비韋妃가 왕자王者를 낳았다는 보고가 왔다. 이가 곧 고종高宗이다. 이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고종은 전왕錢王이 다시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라고 했다.
전왕의 수壽는 81세로, 고종도 역시 수壽가 81세였으니 이상한 일이다.

어변갑魚變甲은 태종조太宗朝 때 사람이다. 장차 전시殿試를 보려고 하는데, 대제학大提學 정이오鄭以吾가 꿈에 시詩 한 수를 얻으니, "삼급三級 바람과 천둥에 고기가 갑甲으로 변하고, 한 봄 좋은 경치에 말 우는 소리 들리네. 비록 상대될 사람이 본래부터 있었지만, 어찌 용문상객龍門上客의 이름을 따르리〔三級風雷魚變甲 一春煙景馬希聲 雖云對偶元相敵 那及龍門上客名〕"라고 했다.
방榜이 나자 과연 어변갑이 장원이 되매 사람들은 이를 이상히 여겼다.

신광한申光漢이 젊었을 때 빛깔 있는 새가 날아서 입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는데, 이로부터 재주와 생각이 날로 진보되었다. 장차 대제학大提學이 될 무렵인데, 또 꿈을 꾸니 빛깔 있는 새가 입으로 들어왔다. 이것은 곧 옛날 나합羅含

43 상고上古 때 사람으로 황제黃帝의 삼공三公 중의 한 사람. 황제가 일찍이 큰 바람이 온 천하의 먼지를 불어가는 꿈을 꾸고 나서 말하기를, "바람이란 호령하는 것, 먼지는 구垢인데 흙이 날아가고 나면 후자后字만 남는 것이니, 천하에 성은 풍風이요 이름이 후后인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내 바닷가에 가서 풍후風后라는 사람을 구해다가 정승을 삼았다는 고사故事가 있음.

44 상고 때 사람으로 황제黃帝의 신하. 황제는 1,000균鈞이나 되는 쇠뇌를 잡고 몇 만 마리의 양떼를 모는 꿈을 꾸고 대택大澤에서 역목力牧을 얻어 그로 장수를 삼았다 한다.

이 꿈에 오색五色이 영롱한 새를 삼킨 것과 같은 것이다.
중국 사신 장승헌張承憲이 왔을 때 신광한이 원접사遠接使가 되어 그와 주고받은 시詩가 있는데, 당시 승헌承憲은 그의 시를 크게 칭찬했다.
다음 해에 온 중국 사신 왕학王鶴은 공을 보고 치사하기를, "《황화집皇華集》을 보니 장승헌張承憲이 그대에게 진 데가 많더군요"라고 하였으니, 중국 사신들이 경복敬服한 것이 이와 같았다. 그러나 이들 장승헌과 왕학 두 사신은 모두 문장文章의 사士가 아니었으니 이들의 칭찬을 그다지 소중하게 여길 것은 못된다.

정림당鄭林塘은 일찍이 꿈속에, "꿈에 물고기와 새를 따라 강 하늘로 들어갔네〔夢隨魚鳥入江天〕"라는 글귀를 얻고, 그 뒤에 동쪽 호숫가에 정자를 짓고, 정자 이름을 몽뢰정夢賚亭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시詩를 지어 말하기를, "머리 흰 선조先朝의 늙은 판서判書가, 바쁜 틈에도 분수 따라 또 편안히 사네. 고기 잡는 늙은이 와서 봄 강물이 따뜻하다 하면서, 꽃도 피지 않았는데 쏘가리〔鱖〕를 주네〔白首先朝老判書 閑忙隨分且安居 漁翁報道春江暖 未到花時薦鱖魚〕"라고 했다. 임당林塘은 그 뒤에 정승이 되었으니 몽뢰夢賚라는 이름이 맞은 것 같다.

인재忍齋 홍섬洪暹이 이조좌랑吏曹佐郎으로 있을 때 금부禁部에 잡혀 형벌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때 매를 맞다가 아픈 중에도 꿈을 꾸니 관부官府 문이 크게 열리면서 나장羅將이 큰 소리로 "판부사判府事께서 들어오신다" 하는데, 자기 몸이 중문을 거쳐 들어와서 마루 위 의자에 앉으니 여러 아전들이 엎드려 예를 하는 것이었다.
꿈에서 깨자 이상히 여겼더니, 그 뒤에 귀양에서 풀려나와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가 되었는데 모든 일이 하나같이 꿈속에서 본 것과 같았다고 한다. 이상한 일이다.

이상二相 정응두丁應斗가 아직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꿈속 일을 적은 시詩에 말하기를, “새벽빛 처음으로 옥전玉殿 봄에 열리는데, 그 지위 용호龍虎로 나뉘어 뜰을 끼고 벌려있네. 중관中官(환관宦官 중인中人)은 임금께서 내리는 술을 보내오고, 궁중 꽃이슬에 젖어 머리 가득 새롭네(曙色初開玉殿春 位分龍虎夾階陳 中官賜罷天廚醞 浥露宮花滿首新)”라고 했다. 이윽고 과거에 급제하매 꿈속 일과 같았다고 한다.

이율곡李栗谷이 젊었을 때의 꿈에 관청에 들어가니 아전이 문부를 검열하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아전은 말하기를, 여기에는 사람들의 수명壽命이 길고 짧은 것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시詩 하나를 써 주는데, “사향노루 봄 산을 지나가니 풀이 저절로 향기롭도다(麝過春山草自香)”라고 했다. 이것은 대개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이 마치 사향노루가 산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 남아 있는 것은 이름뿐이라는 말이다. 공이 졸卒했을 때 나이 겨우 49세였다.

완성完城 이헌국李憲國이 젊었을 때 꿈을 꾸니, 문익공文翼公 정광필鄭光弼이 먹 2자루를 내다가 1개는 임당林塘 정유길鄭惟吉에게 주고 1개는 자기에게 주었다. 그런 뒤에 임당과 공은 벼슬이 모두 좌의정左議政에 이르렀다.

가정嘉靖 경신년庚申年에 어느 사람이 꿈을 꾸니, 2마리의 봉이 그 꼬리가 불에 타면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해 별시別試에 민덕봉閔德鳳이 첫째로 합격하고 구봉령具鳳齡이 둘째요, 정염丁焰이 셋째로 합격했다.
만력萬曆 갑신년甲申年에 민몽룡閔夢龍이 꿈을 꾸니, 대숲 속에서 범이 뛰어나왔다. 이에 그 꼬리를 붙잡아 보이더니 과연 과거의 방말榜末에 몽룡의 이름이 붙었고, 박호朴箎가 장원에 뽑혔다. 이상한 일이다.

내가 갑진년甲辰年 가을에 순청巡廳(야수夜巡을 맡아보던 관청)에 연달아 입직入直할 때의 일이다. 꿈에 나는 외임外任이 되어서 고개와 바다 밖으로 부임해 갔는데, 말소리와 풍토가 모두 서울과 달랐다. 꿈에서 깨어 이 일을 기억하여 절구 한 수를 지었으니 말하기를, "오랫동안 번을 든 순청 장수는, 바로 용량위 부호군일세. 무단無端(처음과 끝이 없음)한 밤중 꿈에, 가을의 고개 동쪽 구름 속에 들어갔네(豹直巡廳將 龍驤副護軍 無端中夜夢 秋入嶺東雲)"라고 했다.
이듬해에 나는 안변부사安邊府使가 되어 그곳에 도착해 보니, 한결같이 꿈속에 본 것과 같았다. 대개 인생人生의 가고 오는 것은 모두 태어나기 전에 정해진 바 아닌 것이 없으니 이상한 일이다.

임진왜변壬辰倭變에 임금은 서쪽으로 파천하고, 적의 날카로운 기세는 나라 안에 가득차서 서로 통하지 않았다.
나는 당시 영남嶺南에서 장차 의주義州 행재소行在所로 가려고 적들의 소굴을 뚫고 영평永平의 촌집에 다다랐다.
이때는 7월 초승인데 밤에 꿈을 꾸니, 주상主上께서 대명전大明殿에 거둥하셨는데 위엄이 마치 평시와 같았다. 이에 왜병 수십 명을 묶어 포로로 뜰에 내다가 바치니, 이들을 차례로 목 베어 죽이고 나서 백관들이 앞에 벌여 서서 절하고 하례한다. 나는 중흥시中興詩를 지어서 바쳤다.
꿈에서 깨자 그 시詩 한 구를 기억했는데 그 시에는, "조정 명령으로 천 리 길을 가서, 계후季后의 산하와 9주를 회복하네(朝廷命令行千里 季后山河復九州)"라고 했다.
이 시를 즉시 피난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서로 위로하며 기뻐했으나 아무래도 계후季后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뒤에 의주義州에 이르러 이 이야기가 나오자 허성許筬 공이 한참 동안 이상히 여기더니 말하기를, "계季자에서 한 획을 떼면 이李 자가 되는 것이니 고려 때에도 이런 참언讖言이 있었지"라고 했다. 그 뒤에 내가 《동국사東國史》를 상고해 보니, 과연 "계季 자에 획

이 없으니 고려가 망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 이듬해인 계사년癸巳年에 국가는 회복되었으니 이상한 일이다.

임자년壬子年 봄에 나는 북경北京 옥하관玉河館에 있었다.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니 내가 전시殿試에 들어가 장원이 되었다. 어느 사람이 시권試券을 가지고 오는데 몹시도 꼭 붙여서 떨어지지 않는다. 내 아들 민구敏求가 나와서 이것을 떼어 보니 이것은 책문策文이었다. 여기에서 나는 시詩를 지어 말하기를, "봉은 기이한 털이 찬란하고, 난새는 두 꼬리가 새로 나왔네〔鳳有奇毛蔚 鸞生二尾新〕"라고 했다.
이때 갑자기 축하하는 손들이 뜰에 가득히 나타나면서, 한 기생이 나와서 술을 따른다. 그 이름을 물으니 채운선彩雲仙이라고 했다.
꿈에서 깨어났으나 꿈속 일이 뚜렷했다. 나는 그 다음 귀를 채워, "채운선이 술을 올리니, 노래와 춤이 뜰에 가득한 봄일세〔彩雲仙獻酒 歌舞滿庭春〕"라고 했다.
이 해 가을에 민구敏求가 대책對策[45]으로 과거에 급제했으니, 이 꿈은 그 조짐이었다. 그리고 기모奇毛와 이미二尾의 대어對語도 또한 기이하다.

나는 꿈속에서 글귀를 얻으면, 혹은 1연聯, 혹은 1절絕, 혹은 율시律詩 등으로서 깨고 난 뒤에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많다.
연구聯句에는, "버들이 잠자는 것 같은 건 바람 밖에서 깨닫고, 꽃이 핀다는 소식 빗속에 전해오네〔柳眠風外覺 花信雨中傳〕" 같은 것도 있고, 또, "하늘이 해와 달을 열어 풍운風雲 같은 붓이 나왔고, 땅에선 교룡이 나와 안개와 비를 뿌리네〔天開日月風雲筆 地出蛟龍霧雨濤〕" 같은 구도 있었다.
절구絕句로는, "오정을 봉래산으로 옮기니, 파릉은 동정호를 잃었네. 붕새 등에 타고 가려 하여, 두 옷소매로 하늘을 헤치네〔鼇頂移蓬島 巴陵失洞庭 欲乘鵬背去

45 과거科擧에서 정치 또는 경의經義에 관한 문제를 내어 그 답안을 쓰게 하는 일.

雙袖破靑冥〕”라고 하였으니, 오정鼇頂과 파릉巴陵은 기이한 대對다.

또, “내 임금 위해 북두성北斗星을 평정하여, 손으로 하늘 술을 기울여 생민生民들에게 쏟으리. 기분 좋게 한 세상 중화中和한 속에, 희황의 만고의 봄을 즐기리〔我欲爲君平斗極 手斟天酒注生民 陶然一世中和裏 鼓舞羲皇萬古春〕”라고 한 글귀도 있다.

또 꿈에 사람에게서 붓과 벼루를 받고 지은 시詩에 말하기를, “세 줄기 악무는 푸르고 누른빛이요, 2개 산 정기精氣는 자색과 붉은 무늬일세〔三條嶽武靑黃色 兩個山精紫赤紋〕”라고 하였는데, 악무嶽武라는 두 글자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또 중국 도성에 갔다가 꿈에 절구絶句를 얻었는데, “한 시대 풍운아들 모였는데, 천 년의 예악이 새로워라. 은혜 있는 물결 만 리 길에, 꽃은 봉성 봄에 따뜻하네〔一代風雲會 千年禮樂新 恩波萬里道 花暖鳳城春〕”라고 했다.

관사館舍에 머문 지 다섯 달 만인 3월 그믐에 이르러 떠났는데, 꽃과 버들이 성안에 가득하여 마치 꿈속에 보던 것과 같았다.

또 젊었을 때의 꿈에 정승 심수경沈守慶이 운韻을 부르자 풍자시風字詩를 지어 말하기를, “소리 없는 것이 도리어 소리 있는 것에게 불리니, 시원하여 처음엔 만 가지 소리인가 놀라네. 밤에 대나무 사이를 향해서 소리가 크고, 가을에 마름 끝 지나려면 다시 쓸쓸해지네. 언덕 머리 새로 자라는 보리는 물결을 이루고, 산 위에 늙은 소나무 들으니 물결소리 나네. 일찍이 남풍훈南風薰 곡조 속에 들어 성낸 것 풀어주었네. 원컨대 붕새 날개 따라서 하늘에 날고 싶구나〔無聲還被有聲招, 颯爽初驚萬竅號 夜向竹間偏浙瀝 秋生蘋末更蕭騷 壟頭新麥看成浪 山上長松聽作濤 曾入薰絃能解慍 願隨鵬翼控扶搖〕”라고 했다.

이러한 글귀들은 모두 몹시 이상스러워서 평시에는 하지 못하던 소리들이다. 요새 몇 해 동안은 혹시 꿈을 꾸어도 깨고 나서 기억을 하지 못하니, 어찌 쇠약한 탓이 아니겠는가.

판관判官 이후근李厚根이 일찍이 말하기를, “꿈에 모란꽃이 많이 피고 꽃잎이 몹시 큰데, 꽃 위에는 모두 허실許實이라는 두 글자가 써 있었으니 이것은 무슨 징조일까”라고 했다. 내가 이 꿈을 풀어 말하기를, “이것은 허실許實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과거에 급제할 조짐이요. 옛 시詩에 말하기를, ‘저 모란꽃 저렇게 큰 것 우습기도 하더니, 씨 하나도 맺지 못하고 부질없이 빈 가지일세(堪笑牧丹如許大 不成一子謾空枝)’라고 하였으니, 다만 아들을 얻지 못할 것이 두려울 뿐이오”라고 했다.

그런지 얼마 안 되어 좌랑佐郎 허실許實이 과연 과거에 급제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일찍 죽고 다시 아들이 없었으니 괴상한 일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정소종鄭紹宗이 젊었을 때 꿈에 한 늙은이가 시를 주었는데 말하기를, “우禹의 발자취는 산천 밖이요, 우虞의 뜰은 새 짐승 사이일세(禹跡山川外 禹庭鳥獸間)”라고 했다.

연산燕山 갑자년甲子年에 별거전시別擧殿詩에 “봄에 이원梨園 방악坊樂을 사열査閱한다”는 글제로 칠언율시七言律詩를 짓게 되었다. 소종紹宗은 갑자기 꿈속에서 얻은 시를 생각하고 1연聯을 생각해 짓기를, “봄빛은 우禹의 자취 산천 밖에 무르익었고, 풍류소리는 우虞의 뜰의 새와 짐승 사이에서 들리네(春濃禹跡山川外 樂奏虞庭鳥獸間)”라고 했다.

김모재金慕齋가 고관考官으로 있었는데 이 글을 보고 “이것은 귀신의 글이다”라고 하고 크게 칭찬한 다음 드디어 상등上等으로 뽑았다고 하니 이상한 일이다.


권16

24. 어언부語言部

24-1 잡설雜說

《완위여편宛委餘編》에 말하기를, “우禹의 아버지는 화해서 누런 곰이 되고, 자기도 역시 검은 곰으로 화했다. 아내는 죽어서 돌로 화했고, 첩은 하늘로 시집가서 성고聖姑[1]가 되었다 하나 이것은 대체로 온당치 못한 의논들이다. 그러나 유독 우禹를 갸륵하게 여기는 때문에 신우神禹라고 이름한다”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기에, 우禹는 물을 잘 다스려서 신공神功이 있었다. 또 물物의 형상으로 신간神姦(귀신)을 아는 까닭에 이름 지은 것이니, 이를 온당치 못하다고 하는 말이야말로 옳지 못한 것이다.
상고해 보건대, 신우神禹의 두 글자는 《장자莊子》에서 처음 나왔다. 그리고 또 《소설小說》에는, 우禹는 100가지 신神이 두려워하는 까닭에 무당은 이것을 본받아서 우보禹步를 한다고 했다. 이것도 역시 우禹가 신령스러운 때문일까.

《고악부》의 주註에 말하기를, “대왕大王이 오래 병으로 있자 위位를 계력季歷에게 전하여 창昌에게 이르게 하고자 했다. 이에 태백太伯은 우중虞仲과 함께 머리 풀고 살에 먹물로 글씨와 그림을 그리고는 왕을 위해서 약을 캐러 간다고 핑계하고 오랑캐 땅으로 가버렸다. 뒤에 대왕이 죽자 그들은 달려가 문에서 곡哭하면서 말하기를, ‘오랑캐 나라의 사람은 임금의 뜰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계력은, ‘태백이 마땅히 임금이 되어야 한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만류했으나 듣지 않고 마침내 가버리니 계력은 슬퍼하고 사모하는 노래를 지었다 한다”[2]라고 했다. 《오월춘추吳越春秋》 등의 책에 이런 말이 나와 있다.

1 우禹가 치수治水 작업을 할 때 하늘이 그에게 내려보내 준 신녀神女.

소자蘇子의 논문에 말하기를, "무왕武王은 성인聖人이 아니다. 당시 양사良史를 쓴 동호董狐[3] 같은 자가 있었다고 하면 남소南巢[4]의 일은 반드시 이를 반叛했다고 썼을 것이요, 목야牧野[5]의 일은 반드시 살殺했다고 썼을 것이다"라고 했다. 아아! 이 말은 지나치다. 이것은 후세에 〈비비무왕론非非武王論〉을 짓게 한 원인이 될 것이다.

《동파지림東坡志林》에 말하기를, "완적阮籍이 광무廣武에 올라가서 탄식하기를, 이때에 영웅이 없어 더벅머리 자식들이 그 이름을 이루게 한다 하였으니, 이는 당시에 유항劉項이 없음을 상심해서 한 말이요, 더벅머리 자식이란 위魏와 진晉나라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옳은 말이다.

이백李白의 시詩에는 "주색에 잠긴 채 남을 더벅머리라 부르니 미친 말 심히 공정하지 못하네(沈酒呼豎子 狂言非至公)"라고 하였는데, 이 의견은 잘못이다.

《소설》에 말하기를, "달기妲己(은殷나라 주왕紂王의 아내)는 곧 여우의 정기精氣로서 즐겨 사람의 피를 먹었다. 그런 때문에 사람 죽이기를 기뻐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이 일찍이 경사經史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 대개 이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 가려서 사람들을 속이고 헛갈리게 한 것이다.

《패해稗海》에 말하기를, "《한서》에 장건張騫이 하수河水의 근원에까지 갔었다고 실려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신이 되어 먼 곳에 갔다는 것을 말한 것이요, 실

2 주周의 시조始祖로서 고공단보古公亶父의 셋째아들이다. 그 아버지가 계력季歷에게 왕위를 전하려는 것을 알자, 큰아들 태백太伯과 둘째아들 우중虞仲은 오랑캐 땅으로 도망하여 아우에게 위位를 양보했다.

3 춘추春秋 때 진晉나라의 사관史官. 조순趙盾은 영공靈公에게 죽을 것을 알고 국외로 도망했다. 그러나 조천趙穿이 영공을 죽이게 되자 그는 돌아왔다. 이에 순盾은 자신이 정경正卿인데도 국경을 넘기 전에 난리가 일어났고, 또 그랬는데도 돌아와서 적을 치지 않았다고 해서 "조순시기군趙盾弒其君"이라고 역사에 썼다. 이것은 법에 의하여 숨기지 않고 쓴 역사라고 해서 양사良史라고 했다.

4 땅이름. 성탕成湯이 걸桀을 내쫓은 땅.

5 땅이름. 무왕武王이 주紂를 쳐서 멸한 곳.

은 천하天河(은하수)라는 말은 없다. 오직 《박물지》에 말하기를, 사람이 바다 위에 살고 있어 해마다 8월이면 배를 타고 천하天河에 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을 후세 사람들이 인용해서 장건의 일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두시杜詩에, "배를 타고 가서 소식 끊어지니, 어느 곳에 장건張騫의 간 곳 물으리〔乘槎斷消息 無處問張騫〕"라고 한 것은 잘못일 것이다.

《소설》에 말하기를, "한漢나라의 조과趙過가 비로소 소로 밭을 가는 법을 마련했다. 이보다 이전에는 대개 모두 사람이 밭을 갈았다"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에, 옛날 장저長沮·걸익桀溺도 소에 멍에를 메워 밭을 갈았다고 되어 있다. 또 염경冉耕의 자字는 백우伯牛이니, 춘추春秋에 역시 소로 밭을 간 것 같다.

상고해 보건대 《동국사東國史》에 보면, 신라의 지증왕智證王 때에 비로소 소로 밭을 갈았다고 했다. 지난 임진왜변壬辰倭變 이후에는 소가 거의 없어져서 여자와 아이들이 힘써 밭을 갈았으니, 그 괴로움이 오죽했으랴. 예전부터 전해오는 참설讖說에 말하기를, "열 집이 소 1마리를 가지고 함께 농사지으며, 여자 아홉이 한 남자를 섬기고 산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이때에 이르러 들어맞았다.

옛날에 말한 바 용양군龍陽君[6]이란 여색女色이 아니다. 상고해 보건대 옛글에 말하기를, 모용충慕容沖은 나이 12세에 용양龍陽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 부견符堅이 이를 사랑했다고 한다.

또 오대五代의 사언옹謝彦顒은 수면首面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을 받았다고

6 전국戰國 때 위왕魏王의 사랑하는 신하 중에 용양군龍陽君이란 자가 있어 남색男色으로써 벼슬했다. 이 말이 바뀌어져서 남색을 파는 자의 이칭異稱이 되었다. 일설에는 사랑받는 계집을 일컬은 것이라고도 함.

했으니, 이 수면이란 곧 용양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당唐나라 희종僖宗이 죽은 것은 말에게 밟혔기 때문이고, 송나라 태종太宗이 죽은 것은 화살에 맞은 자리가 덧나서였다”라고 한다. 희종의 일은 《소설》과 그 밖의 여러 가지 글에 나온다. 그리고 태종이 글단契丹(거란)을 치다가 패하니 따라간 궁빈宮嬪(궁녀)들까지도 모두 함몰했고, 태종 자신은 다리에 화살 2개를 맞았다. 이 자리가 해마다 덧났다고 한다. 그러나 역사책에는 모두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 대체로 당시에는 이를 숨겼던 것이다.
이목은李牧隱(이색李穡)이 〈정관행貞觀行〉에 말하기를, “어찌 현화玄花가 흰 화살에 떨어질 줄 알았으리(那知玄花落白羽)”라고 하였으니, 당태종唐太宗이 동쪽을 정벌하다가 화살에 눈을 다친 것을 말한 것이다. 이 일은 비록 모든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목은牧隱이 원元나라에 벼슬하였으니, 반드시 그 일을 자세히 들은 뒤에 이렇게 말한 것일 것이다. 그러니 필경 맹랑한 말은 아닌 것이다.

《패사》에 말하기를, “조자령趙咨令 동해東海는 말린 생선 2마리를 2년 동안 먹어도 다 먹지 못했다 하니 사람이 실로 이와 같이 한다면 어찌 욕심 때문에 생기는 부끄러움을 받겠는가”라고 했다.
속담에 말하기를, 안동安東 땅에 인색한 자가 살고 있었다. 생선 1마리를 벽에 걸어 놓고 밥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쳐다보면서 먹었다 한다. 이것도 곧 호사자好事者의 말이다. 그러나 《패사》에 말한 이야기와 비슷하다.

옛날 양梁나라 소찰蕭察은 부인婦人을 가까이 대하는 것을 싫어해서 몇 발짝 떨어져서 저만큼서 그 냄새를 맡았다고 한다.
당唐나라 원덕수元德秀는 나이 60세가 되기까지 여색女色을 모르고 죽었다 한다. 우리나라 제안대군齊安大君은 일찍이 시첩侍妾을 가까이하지 않아 마침내

아들이 없었다.
전傳에 말하기를, 여색을 좋아한다는 것은 사람의 상정常情이라고 했는데, 역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것이다.

당나라 최식崔湜은 나이 38세에 정사政事를 잡았는데, 항상 저물 무렵이면 단문端門[7]을 나서 말고삐를 늦추고 시를 읊으며 다니니 장열張說이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글과 지위地位는 그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나 젊은 나이는 그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했다.
상고해 보건대, 식湜은 음후淫后에게 아첨해서 여기에 붙어 녹祿과 지위地位를 이루었으니, 이것은 부끄러워할지언정 결코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장열은 이것을 좋게 여겨 사모했으니 역시 비루하다 하겠다.

두목杜牧은 당시 그 호를 두자미杜紫薇라고 했으니 이것은 그 벼슬을 가지고 호를 지은 것으로서 노두老杜(두보杜甫)와 구별한 것이다.
《소설》에 말하기를, "두목杜牧에게 첩妾이 있었는데 태기가 있는 것을 두균杜筠에게 시집보내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가 곧 순학荀鶴이다. 순학은 주량朱梁 초년에 시詩를 지어 바쳐 한림학사翰林學士를 하다가 죽었다. 비록 재주는 있었지만 그 사람됨은 말할 만한 것이 못된다."

《요산당외기》에 말하기를, "동파東坡가 남쪽으로 옮겨갈 때 그의 첩 하나에 태기가 있었는데 첩은 동파를 따라가지 못하고 손씨孫氏에게로 시집갔다. 그가 돌아와서 첩을 찾아보니 아들을 낳아서 6, 7살이 되었고, 이름을 적覿이라고 했다. 뒤에 벼슬이 상서尙書에 이르렀으니 이가 곧 손적孫覿이다"라고 했다.
나는 상고하건대, 적覿은 명인名人인데, 만일 그가 동파에게서 나왔다면 어찌 그의 성姓을 따르지 않았을 이치가 있겠는가. 또《외기外紀》에는, 양사성梁師成

7 궁전宮殿 앞에 있는 정문正門. 또는 어사부御史府를 말함.

도 역시 동파의 소생이라고 한다. 《주자어류朱字語類》에는 말하기를, "양사성은 스스로 동파의 유복자遺腹子라고 하여 그 집안을 대접하여 마치 친형제와 같이 했다"라고 했다.

송나라는 돼지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태조太祖와 태종太宗이 모두 해생亥生인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진晉나라는 전오典午라고 한다. 상고하건대 옛글에 보면, "진晉은 그 성을 피하여 사마司馬라는 벼슬 이름을 고쳐서 전오典午라고 했는데, 뒤에 와서 이것에 인해서 진晉을 전오라고 했다"고 하였다.

금金나라 장수 점몰갈粘沒喝은 또한 점한粘罕이라고도 한다. 점한은 2제帝의 모든 궁을 북쪽으로 옮긴 자이다. 《소설》에 말하기를, 점한은 바로 송나라 태조太祖의 후신後身이니, 이것은 불알에 있는 흠으로 징험하게 되었다 한다. 그러나 이 말은 몹시 황당무계해서 상고할 수가 없다. 그런데 《속강목전續綱目傳》에는 이것을 인용해서 사실을 만들었으니 이는 무엇에 근거했는지 알 수가 없다.

육방옹陸放翁이 말하기를, "옛날의 이른바 읍揖이라는 것은 다만 손을 들 뿐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 거수사시인擧手謝時人이라든가 거수사로오擧手謝盧敖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은 읍揖과는 같지 않은 것 같다. 중국 사람들은 말 위에서 손을 들어서 읍했으니 이것은 이백李白의 시詩에, "높이 산호채찍을 들어 읍한다〔高揖珊瑚鞭〕"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논어》에 말하기를, "읍할 때나 서 있을 때는 옷이 앞뒤가 가지런해야 한다"라고 했다. 《주례周禮》의 숙배肅拜 주註에는 말하기를, "숙배는 다만 구부리고 손을 내릴 뿐이니 이것이 곧 지금의 읍의揖撎인 것이다. 손을 밀어 올리는 것을

읍揖이라 하고 손을 잡아당기는 것을 대擡라 한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읍과 손을 드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송나라 태조가 여러 신하들에게 묻기를, "왜 남자는 절하는데 무릎을 꿇고 여자는 무릎을 꿇지 않는가"라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때 왕이손王貽孫이 말하기를, "옛 시에 오래도록 무릎을 꿇고 옛 남편의 안부를 묻는다(長跪問故夫) 했습니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보면 부인도 역시 무릎을 꿇고 절하는 법인데 당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 때에 와서 비로소 절만 하고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장건장張建章의 《발해국기渤海國記》로도 증거가 된다.
섭몽득葉夢得의 《석림연어石林燕語》에 말하기를 "예禮에 절은 아홉 번 하고, 비록 남자라도 또한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이손貽孫의 말은 대체로 비루하다 하겠다.
그러나 내가 상고해 보건대, 《고악부》에 말하기를, "좋은 부인이 나와서 손을 맞는데, 허리를 펴서 두 번 절하고 무릎 꿇었네(好婦出迎客 伸腰再拜跪)"라고 했고, 또 왕건王建의 궁사宮詞에도, "모두 달려와서 함께 무릎 꿇고 절하네(一半走來齊跪拜)"라고 했다. 또 주자朱子도 말하기를, "여자가 절하는 데는 옛날에 있어서도 역시 무릎을 꿇었었다. 다만 머리를 땅에 닿도록 숙이지 않았을 뿐이다(婦人之拜 在古赤跪 但首不至地耳)"라고 했다.
또 상고해 보면, 주천원周天元은 명부命婦[8]로 하여금 남자의 절을 시켰다고 했다.

중국의 부인은 모두 발을 싸맨다. 두번천杜樊川의 시詩에, "자개자로 마르려니 4분이나 감해지는데, 푸른 유리 미끄러워 봄 구름에 싸인 듯(鈿尺裁量減四分 碧琉璃滑裏春雲)"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8 봉호封號를 받은 부인의 통칭通稱. 내명부內命婦 · 외명부外命婦의 구별이 있음.

《격치총서格致叢書》에 말하기를, “발을 싼 것은 달기妲己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 대개 달기는 여우의 정기精氣인데 다만 발만은 아직 변하지 못한 때문에 그것을 쌌던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풍속이 되었다”라고 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취검록吹劍錄》에 말하기를, “해와 달이 모두 밝으니 이는 천자天子가 공경하여 섬기는 바이다. 그런데 글하는 사람과 글씨 쓰는 이들은 항아姮娥의 설[9]을 읊고는 희롱을 다하여 매우 버릇없이 군다”라고 했으니 이 말이 옳다.
근세에 와서는 〈월황月荒〉이라는 글 제목을 가지고 선비를 뽑는 일도 있는데, 이는 대개 달 속에 항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온당치 못한 말이다.

《고어古語》에 말하기를, “그 아비를 알지 못하거든 그 자식을 보고, 그 주인을 알지 못하거든 그 집 심부름꾼을 보라(不知其父視其子 不知其主視其所使)”라고 했다. 이 말은 오랜 습관이 쌓이면 거기에 감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수瞽瞍에게 순舜이 있고, 순에게 상균商均이라는 아들이 있는 것은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육홍점陸鴻漸이 장지화張志和에게 물었다. “누구와 서로 왕래하는가.” 지화志和가 대답한다. “태허太虛(하늘. 우주의 근원根源)를 방으로 삼고 밝은 달을 촛불로 해서 사해四海의 제공諸公과 함께 거처하여, 일찍이 잠시도 떠나지 않았는데 어찌 왕래하는 것이 있겠는가.” 나는 이 말을 외면 언뜻 가슴속이 시원해서 막히는 것이 없는 듯싶다.

《묵객휘서墨客揮犀》에 말하기를, “벼슬하는 데 3가지 어려운 것이 있다. 첫째

9　원래 항아姮娥는 달의 다른 이름. 또는 달나라에 산다고 하는 미인의 이름. 예羿가 서왕모西王母에게 청하여 얻은 불사약不死藥을 훔쳐 마시고 달로 도망쳐 달의 정精이 되었다고 하는 설화說話.

는 10만 명의 무리를 통솔하여 장수가 되는 일, 둘째는 한림학사翰林學士가 되는 일, 셋째는 극읍劇邑(사무가 복잡한 큰 고을)의 수령守令이 되는 일이니, 이 3가지는 실로 그 인재가 아니면 일을 반드시 그르치고 만다. 이 3가지를 제한다면 비록 재상이라 할지라도 보통 재주로서도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세상 사람들을 보건대, 자기의 재주도 생각하지 않고 외람되이 중한 책임을 맡고도 또한 그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다.

구경산丘瓊山은 공자孔子에게 왕王을 봉한 것과 시호를 준 것이 예禮가 아니라고 했다. 또 허형許衡을 배척하여 마땅히 원元나라에 벼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으니, 이 말은 옳은 말이다. 그는 진회秦檜[10]를 논평하는 데 있어, 송나라에는 재조再造의 공이 있고, 오랑캐와 강화한 것도 소견이 없다고는 하지 못할 것이라 했고, 악비岳飛로는 반드시 능히 나라를 회복할 수 없으리라고 말한 것에 이르러서는 궤변과 괴이함도 또한 심하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자식은 아비의 가난한 것을 원망하고, 아우는 형의 부자로 사는 것을 미워한다. 아내와 첩은 주인의 풍성하고 검소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슬퍼하곤 한다. 종들은 주인의 잘되고 못되는 것을 보고 부지런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다. 그러니 시도市道[11]는 문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말은 비록 너무 지나친 것 같으나 역시 세정世情을 경험한 말이다.

《소설》에 말하기를, "어떤 떡을 파는 자가 매양 화로를 끼고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것을 보던 어느 사람이 이를 어여삐 여겨 돈 만 냥을 주었더니,

10 남송南宋 고종高宗 때의 재상. 자字는 회지會之. 악비岳飛를 무고하여 죽이고 주전파主戰派를 탄압하여 금金나라와 굴욕적인 화약和約을 체결하였으므로 후세에 대표적인 간신姦臣으로 꼽힘.

11 이利 있으면 합하고, 이利 없으면 떠나는 장삿속 같은 인심.

그로부터는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 까닭을 물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나의 가진 밑천이 이미 커져서 마음이 추솔하게 변했기 때문에 다시는 〈양관위성곡陽關渭城曲〉을 노래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하였다.
내가 보니 곤궁하고 청빈淸貧한 선비가 글을 읽다가 한번 벼슬을 하고 보면 태연히 만족하게 여겨서 다시는 글을 읽지 않고 드디어 공부를 폐하고 만다. 이것은 모두 떡을 파는 자의 유類로서 슬픈 일이라 하겠다.

구양공歐陽公이 말하기를, "문자를 생각하는 데에는 3가지 위의 좋은 곳이 있다. 즉 이것은 말 위, 변소 위, 베개 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후세 사람이 시詩를 지어 말하기를, "시詩는 3가지 위에서 찾고, 이치는 1가지 한가운데서 구하라(詩從三上覓 理向一中求)"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나는 생각하기에, 시인詩人들이 읊은 것은 대개 3가지의 가운데에서였으니, 그것은 취한 가운데, 근심하는 가운데, 그리고 병으로 앓는 가운데가 그것이다.

《산거사요山居四要》에 말하기를, "무릇 누워서 노래를 부르거나 시詩를 읊는 것은 크게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라고 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밤에 누워서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일찍 죽는다고 하였으니 대체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또 말하기를, "밤에 길을 걸으면서 노래 부르고 큰소리치지 말라. 일찍이 듣건대, 범이나 표범은 밤에 사람의 떠드는 소리를 듣고 이를 해친다고 했다. 그러니 마땅히 이것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대낮에 남의 말을 하지 말라. 남의 말을 하면 곧 해가 생기는 법이다. 어두운 밤에 귀신의 말을 하지 말라. 귀신의 말을 하면 괴상한 일이 생기는 법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비록 속담이라고 하지만 역시 이

치가 있는 말이다.

허노재許魯齋(허형許衡)가 말하기를, "말은 상등上等 말을 탈 것이요, 소는 중등中等 소를 부릴 것이요, 사람은 하등下等 사람을 부릴 것이다. 상등 말은 능히 먼 곳을 갈 수가 있고, 중등 소는 길들이기가 좋고, 하등 사람은 부려먹기가 쉬운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만일 총명하기가 나보다 지나친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부림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은 실로 옳은 말이다. 종을 부리는 법으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감주별집弇州別集》에 말하기를, "도구중陶垕仲이 복건안찰사福建按察使가 되었을 때, 포정사布政使 설대방薛大方이 너무 재물을 탐하는 것을 탄핵하다가 그와 함께 불려서 서울로 왔다. 이에 그 지방 백성들이 시詩를 지어 말하기를, "도구중 안찰사按察使 다시 오면 하늘도 눈이 있는 것, 설 공薛公이 가지 않아 이 지방 땅에는 가죽도 남지 않네〔陶使再來天有眼 薛公不去地無皮〕"라고 하더니 뒤에 과연 도구중이 다시 부임해 왔다"라고 했다. 땅에 가죽도 남지 않는다는 것은 백성들을 몹시 벗겨먹는다는 말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벼슬이 3품에 이르면 상서相書를 읽지 않아도 저절로 이 귀인貴人을 알아보게 된다"라고 했다. 세상일을 많이 겪은 때문이다.
전번에 상신相臣 성희안成希顔은 정광필鄭光弼을 추천했고, 상진尙震은 이준경李俊慶을 추천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고 한다. 대체로 이것을 말한 것인가.

한비韓非·주창周昌·사마상여司馬相如·양웅揚雄·등애鄧艾 등은 모두 말을 더듬었다. 대개 이들은 입으로 변론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 변론한 자들이었다.

만력萬曆 기유년己酉年에 중국 사신 웅화熊化가 나왔을 때 한 신하가 말하기를, “마땅히 불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사신이 국경을 넘어서자 평양성平壤城 안에 불이 나서 집 1,000여 호戶가 타고, 이때 대동문大同門도 역시 탔으며, 또 개성開城에서도 불이 나서 수백 호가 연소延燒되었으니 괴상한 일이다.
상고해 보건대, 남종南宗 때에 곰이 성 아래로 내려오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곰(熊)이란 글자는 능화能火이니 마땅히 불조심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더니 과연 민가民家가 17, 8호나 연소되었다.
또 명나라 효종황제孝宗皇帝 때에 곰 1마리가 서울 서쪽 문으로 들어왔는데 얼마 안 되어 성안 여러 곳에 화재가 있었으니, 지금 말하는 것들은 대개 여기에 보이는 것이다.

부인 한 사람이 혼자 있는데 도둑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침상 밑에 숨어서 세간이 있는 곳을 도둑에게 가르쳐주면서 자기를 살려주기만 빌었다. 그랬더니 마침내 도둑은 그 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부인은 불빛 속에서 가위 끝으로 도둑의 옷깃을 조금 잘라 놓았다.
이튿날 이웃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어 도둑이 들었다고 하여 위문을 한다. 부인은 종 하나를 시켜 이 사람들을 엿보게 했더니 그중에 옷깃이 잘라진 사람이 섞여 있었다. 곧 이 사람을 체포하여 관청으로 보내고 그 나머지 무리들도 모두 잡으니 사람들은 그 부인의 지혜와 담략에 탄복했다.

옛날 성간成侃과 성현成俔은 모두 모양은 추하게 생겼으나 글로 이름이 있었다. 당시 여러 사람들이 잔치하고 모일 때는 반드시 그를 청하여 자리에 앉혔다. 그런 때문에 속담에, 모양이 추하게 생긴 사람을 가리켜 좌객坐客이라고 했으니, 이 말은 실상 여기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조남명曹南冥(조식曹植)이 말하기를, "조선은 이서吏胥[12]로 해서 나라가 망한다" 라고 하였으니, 실로 통절痛切한 말이라 하겠다. 오늘날에 와서도 아전의 해는 자못 심한 바 있다. 벼슬하는 자는 아침에 바뀌고 저녁에 바뀌어 자리가 따뜻할 겨를이 없다. 그런데도 아전의 무리들은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책임을 맡은 채 태연하게 있어 일을 조종하고 처리하는 것이 오로지 그들의 손에 있다. 그러고 보니, 다만 장부와 책은 없애버리고 재물을 도둑질하는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속담에 말한, 강물은 흘러도 돌은 구르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일로서 중국 사람들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4가지가 있다. 그것은 부인이 절개를 지키는 것, 천한 사람도 상喪을 치르는 것, 소경이 점을 잘 치는 것, 무사武士의 편전片箭 쏘는 재주 등이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나고 중국에 없는 것이 4가지가 있다. 그것은 경면지鏡面紙 · 황모필黃毛筆 · 화문석花紋席 · 양각삼羊角參 등이다.

24-2 속언俗諺

상고하건대, 월왕越王 구천句踐의 구句는 즉 오랑캐들이 흔히 글귀 앞에 놓는 말이니, 오吳나라를 구오句吳라고 부르는 따위와 같다.

또 《사기史記》에는 오왕吳王의 아우 부개夫槪가 있었다. 또 부차夫差는 월越나라를 부초夫椒라는 땅에서 패배시켰다고 했다. 그 주註에 보면 부초는 즉 지금의 초산椒山이라고 했다. 이 부夫 자는 대개 또한 어조사語助辭로서 뜻이 없다.

12 각 관청에 속한 벼슬아치의 통칭. 서리胥吏. 연리椽吏. 아전.

《운곡잡기雲谷雜記》에 말하기를, "지금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보내는 것을 인사人事라고 한다"라고 했다. 한퇴지韓退之의 주장奏狀에 말하기를, "칙서를 받들어 평호서비平湖西碑를 지음에 있어 엎드려 성은聖恩을 입사오며 비본碑本을 주어 한홍韓弘 등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한홍이 비단 500필을 신臣에게 보내어 인사人事를 치르오니 물건은 감히 받지 않았사오나 삼가 이 일을 기록해 아뢰나이다"라고 했다. 그러니 인사人事라고 말하는 것은 대개 당唐나라 때도 이미 그러했던 것이다.

고어古語에 말하기를, "장안長安은 서쪽에 있는데도 동쪽을 보고 웃는다. 그런 까닭에 도성都城을 바라보는 것을 서소西笑라고 한다"라고 했다.
왕형공王荊公이 주낭중朱郎中의 어머니를 맞아 동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내는 시詩에 말하기를, "채색 옷으로 동쪽을 바라보면서 웃고 돌아가는 배에 오르네〔彩衣東笑上歸舡〕"라고 했다. 이것은 대개 서울에서 동쪽으로 돌아가는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아爾雅》에 말하기를, "안주란 곧 술을 먹기 위한 반찬이니, 매성유梅聖俞의 시詩에 이 말을 많이 썼다. 또 당唐나라 이화문李華文은 말하기를, '내가 먹고 싶은 것은 술 한 그릇, 과일 한 그릇, 말린 생선 자반뿐이다'라고 했다"라고 했다. 지금 풍속에 안주를 자반이라고 하는 말은 대개 시작된 지가 오래다.

당唐나라 《교방기敎坊記》에 말하기를, "교방敎坊[13]의 한 어린애는 근두筋斗[14]가 뛰어났다"라고 했다. 대개 이 근두란 곧 지금의 광대들이 거꾸로 서는 놀이이다.

13 기생 학교. 또는 그 기생 학교가 있는 지방을 이렇게 불렀음. 우리나라에서는 장악원掌樂院의 좌방左坊과 우방右坊을 합쳐서 이렇게 일컬었음.

14 곧 곤두. 곤두서는 재주를 말함.

또 주자朱子가 남악南岳에서 놀 때 〈문장노화거시聞長老化去詩〉에 말하기를, "다만 저 빈 하늘에 근두를 때리네〔只麽虛空打筋斗〕"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기고봉奇高峰 대승大升은 말하기를, "옛날에 중 하나가 장로長老에게 나가서 계偈를 받고 곧 근두筋斗한 뒤에 갔으니 이 말은 《전등록傳燈錄》에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자세한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위魏나라 문제文帝의 조서詔書에 말하기를, "삼세三世의 장자長者는 음식을 안다"라고 했다. 상고해 보건대, 이 장자長者라는 두 글자가 불서佛書에 많이 나온다. 사위국舍衛國에는 급고독장자給孤獨長者가 있었고, 사가조국斯訶條國에 대부장자大富長者가 있었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속담에 부호富豪한 자를 장자長者라고 하는데 대개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속담에 장로長老를 고불古佛이라고 하며, 또 남의 아버지를 역시 고불이라고 하니, 곧 부모를 존경해서 하는 말이나 그 유래는 알 수가 없다. 상고하건대 불어佛語에 보면 구담瞿曇을 고불이라 했고, 석가釋迦를 가리켜 문불文佛이라고 했으니 대개 여기에 근본이 있는 것이다.

송나라 《소설》에 말하기를, "연북燕北 풍속은 선비이거나 서인庶人이거나를 묻지 않고 모두 자기를 소인小人이라고 일컫는다"라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존귀한 자에게 대해서만 자기를 소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개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상고하건대 한漢나라 임상任尙은 반초班超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초超에게 말하기를, "소인이 외람되이 그대의 뒤를 잇게 되었소"라고 했으니 이런 말이 나온 지 오래된 것이다.

송나라 주밀周密의 《계신잡지癸辛雜識》에 말하기를, "조정 의논이, 지금 노는

선비가 많은데도 이를 단속하지 않아서 풍속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드디어 각 고을에 행하行下하여 저마다 학문을 하게 했다〔朝議以游士多 無檢束 風俗寢壞 遂行下各州 自試于學〕"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행하行下라는 두 글자는 원래 《당사唐史》와 육선공陸宣公의 주의奏議에 나온다. 또 《주자대전朱子大全》 중에도 모든 공문서公文書에는 모두 이 글자를 쓰고 있으니 이 말의 유래는 오래됐다.

구양공歐陽公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하는 말에 봄추위와 가을 더위와 늙은이의 건강, 이 3가지는 마침내 오래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지금 속담에 즐겨 이 말을 쓰고 있는데 대체로 구양공의 말에 근본이 있는 것이다.

동파東坡의 시詩에 보면, "오래 머문 손이 오랑캐 반찬을 싫어하네〔久客厭虜饌〕"라고 했다. 상고해 보건대 육방옹陸放翁이 말하기를, "남조南朝 사람들은 북쪽 사람을 창부傖父(천한 사람, 촌뜨기)라 하고, 촉蜀 땅 사람들은 중원中原을 가리켜 노자虜子(오랑캐)라고 했다"라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이 말이다. 보통 때에 관서關西 사람은 당唐나라 사람을 보고 오랑캐라고 하는데, 비록 몹시 잘못된 말이지만 역시 여기에 가까운 말이다.

왕언장王彦章이 말하기를, "표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豹死留皮 人死留名〕"라고 했다. 또 속담에 말하기를, "나무는 늙으면 열매에게 전하고, 사람은 늙으면 자식에게 전한다〔樹老傳果 人老傳子〕"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사람이 죽어서 남겨둘 만한 이름이 없고, 자식이 있어도 전해줄 만한 업業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청이록淸異錄》에 말하기를, "속담에, 꽃이 필 때 부는 바람을 화구선花韝扇이라 하고, 꽃이 무르익을 때 오는 비를 화목욕花沐浴이라 한다. 꽃이 시들었는데 바람과 비를 그치지 않고 보내온다면 이것은 화형花刑이라고나 할 것인가"

라고 했다. 또, “번개를 천리경千里鏡이라 하고, 해와 달을 천리촉千里燭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들은 새롭다고 하겠다.

송나라 왕군옥王群玉이 말하기를, “마른 밥을 빨리 먹고, 자면서 등불을 오래 돋우어 두며, 한길에 물건을 버리는 것은 종의 상相이다”라고 했다. 나는 여기에 더 보태서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기름을 가득 부은 그릇을 비뚤어지게 자리에 놓아두고, 낮잠을 즐겨 자고, 배부르게 먹고 곧 눕는 것도 종의 상이다.

《백가명서百家名書》에 말하기를, “대자帶子는 성품이 독하다. 업신여겨 희롱했다간 원한을 초래하기 쉽다”라고 했다. 이 대자란 즉 눈이 하나 멀거나 몸에 흠집이 있거나, 한 쪽 발을 저는 따위의 사람을 말한다. 지금의 속담에 화자火者(고자)는 성품이 급하다고 하는 것이 역시 이것이다.

《이의산잡찬李義山雜纂》에 말하기를, “조대措大[15]가 음악을 터득하게 되면 곧 공부를 폐하게 되고, 부인이 시詩를 지을 줄 알면 곧 물의를 일으키게 된다. 또 종놈이 글자를 알게 되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니,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다. 이 말은 진정 옳은 말들이다.

옛말에 말하기를, “늙은이를 귀하게 여겨 근친近親처럼 섬긴다”라고 했다. 이것은 내 늙은이를 늙은이로 대접하여 이 마음을 남의 늙은이에게까지 미친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지금 풍속에는 오히려 늙은이를 천하게 여기는 폐단이 있으니 무슨 마음에서일까.

지금 풍속에 제 아비를 아부阿父라고 하고 어머니를 아미阿彌라고 한다. 어디

15 서생書生. 큰일을 조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서생의 미칭美稱으로 쓰였으나, 전轉하여 조롱, 또는 청빈한 선비나 겸손을 나타낼 때에도 씀.

가 아프면 곧 아야阿爺라고 부르고, 놀라거나 두려운 일이 있으면 곧 아모阿母라고 부른다. 이것은 곧 옛날 굴원屈原이 말한, 사람이 병이 있어 아프거나 슬픈 일을 당하면 일찍이 그 부모를 부르지 않는 일이 없다고 한 뜻이다. 아미阿彌라는 글자는《이장길전李長吉傳》과 최치원崔致遠의《진감비서眞鑑碑序》에 나오는데, 원래 당唐나라 말이다.

《잡서雜書》에 말하기를, "배나무 씨 10개를 심으면 그중에서 2개는 배나무가 나지만 나머지는 모두 아가위(杜)가 난다. 매(鶻)가 새끼 3마리를 낳으면 그중에 1마리는 솔개(鴟)가 된다. 또 황새(鸛)가 새끼 3마리를 낳으면 그중 1마리는 학鶴이 된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말들은 그 가부可否를 모르겠다.

《유양잡조酉陽雜俎》에 말하기를, "까치가 대들보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보면 반드시 귀하게 된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아래턱이 아무 까닭도 없이 가려우면 별다른 음식을 먹을 것이다"라고 했다.

《서경잡기西京雜記》에는 말하기를, "눈이 깜빡거려지면 술과 밥이 생기고 눈에 불이 튀기면 돈이나 재물이 생긴다"라고 했다. 상고해 보건대, 순瞤이란 움직이는 것이니 순瞬과 같다. 지금의 이런 속담들은 모두 여기에서 근원 한 것이다.

《유양잡조酉陽雜俎》에 말하기를, "그림자는 물속이나 우물, 그리고 목욕 그릇 속에 비치고자 하지 않는다. 옛사람이 자기 그림자를 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다. 이른바 걸으면서 자기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는 것은 대개 또한 이 뜻이었던가"라고 했다.
송 진사宋進士 몽인夢寅에게 〈수중영水中影〉이라는 시詩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보고 상서롭지 못하다고 했더니, 과연 일찍 죽었다.

《유양잡조》에 말하기를, “속담에 5월에는 지봉 위에 올라가는 것을 꺼린다고 말하는 것은, 5월에 사람이 옷을 벗고 지붕에 올라가서 자기의 그림자를 보면 혼魂이 가버린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지금 속담은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매성유梅聖俞가 말하기를, “어느 사람이 죽었는데 시체를 목욕시켜 염斂했더니 염이 끝나자 시체가 뜨거워 불과 같았다. 이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상서롭지 못할 징조이니 반드시 또 초상이 날 것이라 하더니, 과연 얼마 안 되어 거듭 초상이 났다”라고 했다. 지금 속담에, 죽은 사람의 몸뚱이가 부드러우면 거듭 초상이 난다고 하는 것은 대개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설부》에 말하기를, “밤에 누워서 자고 있는 풀 위에서 한 줄기를 뽑아내어 그 길이가 3치가 되면 귀신과 도깨비가 감히 와서 침입하지 못한다. 또 밭이나 들에 나가서 도깨비불을 만났을 때 말안장에 붙은 두 등자(鐙)를 서로 부딪쳐서 소리를 내면 도깨비불이 즉시 없어진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송장누에(殭蠶)를 가지고 말 입술 안팎을 씻어주면 그 말이 사람을 물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집을 판 돈으로 종과 생물生物을 사면 모두 사람에게 이롭지 않다. 또 노새를 판 돈을 가지고는 며느리를 얻는 비용에 쓰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것은 집 재산을 없애고 또 편안치 못하게 만든다”라고 했다.

장화張華의 《물류상감지物類相感志》에 말하기를, “도망간 사람의 옷을 우물 속에 걸쳐 두면 도망간 사람이 곧 돌아온다. 시루(甑)를 감은 삼끈을 외로 감아서 이것으로 종들의 옷 등솔 1자 6치를 꿰매면 그 종이 달아날 마음이 없어진다”라고 했다.
《본초本草》에 보면, “도망가는 사람의 머리털을 수레 위에서 취해다가 이것을 거꾸로 돌리면 도망가는 사람이 어지러워서 갈 곳을 모른다”라고 했다. 지금 풍속에, 종이에 도망간 사람의 성명을 적어서 대들보 위에 붙이는 것도 역시

이 종류이다.

송나라 나점羅點이 말하기를,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은 자는 그 시체 아래에 반드시 가루숯〔麩炭〕이 있다. 날이 갈수록 깊이 들어가는 것이니, 하루속히 이것을 파내면 화가 즉시 그친다”라고 했다. 여기에 말한 부탄麩炭이란 혹은 뜬 숯〔浮炭〕이라고도 한다.
또 말하기를, “벼락 맞아 죽은 자는 장사 지내지 않는다”라고 했다. 내가 일찍이 들으니, 김구령金九齡이란 자가 관서關西의 손이 되어 갔을 때 벼락을 맞아 죽었다. 그런데 장사 지내려고 발인하는 도중에 또 벼락을 맞았고, 장사 지낸 뒤에도 또 벼락을 맞았다고 하니 그 이치를 알 수가 없다.

자곡자炙轂子가 말하기를, “망상罔象이란 귀신은 즐겨 죽은 사람의 간肝과 뇌腦를 먹는다. 하지만 범과 잣나무는 무서워한다. 그런 때문에 묘 위에는 잣나무를 심고 묘 앞에는 범의 형상을 해서 세운다”라고 했다.
또 《소설小說》에는 말하기를, “땅속에 운蝹이라는 물건이 있어 죽은 사람의 뇌를 먹는다. 그러니 잣나무를 가지고 그 머리를 뚫으면 이내 죽는다. 그런 때문에 묘 앞뒤에 잣나무를 심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들은 모두 상고할 것이 못 되지만, 그래도 전해 온 지가 오래된 말들이다.

중 범지梵志의 시에, “원래는 똥 · 오줌주머니이던 것을 억지로 연지와 분칠을 했네. 화인化人이 아는 바 없어서 불러서 한 덩어리 꽃을 만들었네. 서로 이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니, 이것이 곧 원수일세〔本是屎尿袋 强作脂粉揉 化人無所識 喚作一團花 相牽入地獄 卽此是寃家〕”라고 했다.
여기에 원가寃家라고 한 것은 곧 원수를 말한 것인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곳을 가리켜 원가라고 했다. 이 말은 대개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속담에 말하기를, "계집의 예쁘고 좋은 것은 가장 3가지 위〔三上〕와 3가지 아래〔三下〕에 있을 때다. 대개 누각 위 · 담 위 · 말 위가 3가지 위이고, 발〔簾〕 아래 · 촛불 아래 · 달빛 아래가 3가지 아래이다"라고 했다.

상말에 말하기를, "다리〔橋〕에 이르거든 모름지기 말에서 내려야 한다. 걸어서 갈 길이 있거든 배를 타지 말라"라고 했다.
사문斯文 조응문趙應文은 평생 길을 가다가 다리를 만나면 반드시 말에서 내렸다. 그가 늙었을 때 병이 있어 걸어 다니지 못할 때에도 다리를 만나면 반드시 내렸으니, 그 조심하고 삼가기를 이와 같이 했다.

속담에, 글을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다리 잘린 연구聯句도 또한 짓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말에는 출처가 있다.
옛날 한 어린 선비가 연구聯句 짓는 것을 배우는데 격식을 몰랐다. 이에 8자씩 1구를 지어서 어른에게 바치니, 어른은, 이것은 격식을 어겼다고 해서 드디어 맨 밑에 있는 글자 1자씩을 없앴다. 그래서 요새 다리 잘린 연구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킨 것이다.

속담에 말하기를, "강철强鐵이 가는 곳은 가을이라 해도 봄과 같다"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한다. 이 말 뜻을 시골 노인에게 물어보니, 이 강철이란 즉 짐승의 이름으로서, 이 짐승이 있는 곳에는 몇 리 안의 풀과 나무와 곡식이 모두 타고 말라 죽는다 한다. 그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상고해 보건대, 《산해경》에 말하기를, "비蜚라는 짐승은 소처럼 생겼는데, 물 속으로 가면 물이 마르고, 풀 속으로 가면 풀이 타죽는다. 또 이 짐승을 보면 전쟁이나 역질이 일어난다"고 했다. 《운부韻府》에는 말하기를, "비蜚는 곡식을 해치는 벌레이고, 또 짐승의 이름에도 비蜚가 있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이런 따위이다.

24-3 방언方言

《소설》에 말하기를, "무거운 것을 들려고 여럿이 힘을 쓸 때에 앞장서서 소리치는 것을 호두號頭라 하고, 여럿이 모두 여기에 화답하는 것을 타호打號라고 한다. 지금은 흙을 다지는 자를 달고達苦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대개 타호라는 소리가 잘못 전해져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했다.

《소설》에 말하기를, "천축국天竺國에서는 술을 수酥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니, 우리나라에서 술을 수아酥兒라고 하는 것과 같다. 또 중들은 술을 반야탕般若湯이라고 하나, 이는 석전釋典[16]에 나와 있지는 않다. 이것은 대체로 은어隱語를 써서 법계法戒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상고하건대, 호어胡語에는 물을 용龍이라고 한다. 그런 때문에 중국에는 영평부永平府에 노용현盧龍縣이 있다. 《석의釋義》에 말하기를, "노盧는 검은 것이니, 이것은 검은 물을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흑룡강黑龍江은 역시 물을 가지고 이름 지은 것이니 흑수말갈黑水靺鞨 같은 것이 대개 이것이다.

우리나라 향어鄕語에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은, 임금이 먹는 음식을 '수라水剌'라 하고, 내관內官을 '설리薛里'라고 하는 말이다. 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일컬어 '진사進賜'라고 하고, 종이 주인을 일컬어 '상전上典'이라고 하고, 또 종들의 공貢을 거두는 자를 '달화주達化主'라고 하는 말들이다. 이것은 곧 호원胡元[17]의 다루가치[達魯化赤][18]가 잘못 전해진 것이다.

16 여기에서는 불교佛敎의 전적典籍.

17 중국 원元나라를 말함. 북쪽 이민족異民族에게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함.

18 원대元代의 관명官名. 몽고어로 관장官長의 뜻. 원대元代에 성로부주현省路府州縣 기타 각 방면의 장관長官으로 삼고, 몽고인을 임명했음.

여진국女眞國을 금金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굳은 것을 취해서 한 것이다. 호어胡語로는 은銀을 몽고蒙古라고 한다. 그런 때문에 원元나라 초년에는 이것으로 호號를 삼았다. 우리나라는 금金과 원元을 두려워했다. 그런 때문에 감히 금金이란 성을 바로 부르지 못한다. 원종元從의 원元 같은 자는 이것을 고쳐서 원原자를 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유독 당唐나라 · 송宋나라에 대해서는 숨기지 않는 것은 무슨 때문일까.

속담에, 임금 군君 자를 풀이하여 이음尼音이라 하는데, 지금 이 말은 원래 신라 때부터 나왔다. 대체로 신라 때에는 이(齒)가 많은 사람을 어질다고 해서 떡을 물어 이를 시험해서 잇자국이 많은 자를 추대해서 임금으로 삼고 이를 이사금尼師今이라고 불렀다.
《삼국사三國史》를 상고하여 보니, 신라에서는 임금을 가리켜 이사금尼斯今이라고 했으며, 그 중엽 이후에 비로소 무슨 왕王이라고 일컬었으니, 이것은 옛날 이름을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을 당唐나라라고 부른다. 대개 이것은 당나라의 위령威令이 온 천하에 오랫동안 행해왔기 때문이다. 또 화어華語를 가리켜 한어漢語라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복이나 그릇 등의 체제는 모두 당나라 옛것을 많이 답습하고 있다.
내가 들으니, 중국의 선비 여영명呂英命은 말하기를, "중원中原에는 옛날에 쓰던 그릇이나 옷을 보관해 두고 있는 것이 있어서, 너희 나라 그릇과 옷이 당나라 제도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예스럽고 질박해서 볼 만한 것이 있다"라고 했다.

《풍토기風土記》에 말하기를, "진랍국眞臘國에서는 야인野人을 데려다가 종을 삼았는데, 속담에 이것을 종種이라고 불렀다. 나라 사람들은 서로 욕하려면 종

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을 들으면 어찌나 분해하는지 그 말이 뼈에 사무친다"라고 했다. 그러니 이것은 대개 이 종을 천하게 여기는 때문이다. 종을 가리켜 종種이라고 한 것은 우리나라 방음方音과 같다.
또 말하기를, "그 나라에는 2가지 형상을 가진 사람이 10여 명씩 무리를 이룬 것이 많다"라고 하였으니 역시 괴상한 일이다.

상고해 보건대, 《격치총서格致叢書》에 보면 몽고蒙古에서는 신腎을 가리켜 복아卜兒라고 한다고 했다. 또 《운부군옥韻府群玉》에 보면, 글단契丹에서는 하수河水를 몰리沒里라고 한다고 했다. 이런 말들은 곧 우리나라의 속음俗音과 서로 같은 것이다.

호어胡語에는 송아지를 불화不花라고 부르고, 얼굴이 잘 생긴 자를 백안伯顔이라고 한다. 이것을 한어漢語로 번역하면 곧 우리나라 방음方音과 비슷하다. 혹은 말하기를, "호인胡人들은 특히 두역痘疫(천연두天然痘)을 두려워하는데 그런 때문에 불화로 그 이름들을 많이 지었다"라고 했다.

《두시언해杜詩諺解》는 즉 성종成宗 때 유신儒臣 조위曹偉 등이 지은 책이다. 또 《훈몽자회訓蒙字會》는 중종中宗 때 최세진崔世珍이 만든 책이다. 그런데 거기에 쓴 방음方音은 이미 지금 세상에서 쓰는 것과 같지 않은 것이 많다. 이것으로 보면 속음俗音이란 변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여러 나라 말들은 서로 다르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다만 사람이 웃는 소리와 어린애의 우는 소리는 이하夷夏(미개한 오랑캐와 중국)가 모두 같은 것은, 대개 이것은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이고 억지로 지어서 내는 소리가 아닌 때문이다.

24-4 유오謬誤

《마사馬史》에 말하기를, "《역易》에, 터럭만큼의 어긋남이 있으면 그 차이가 천리나 된다"라고 했고, 그 주註에는 "《역易》에는 이런 말이 없고 《역위易緯》에 있다"라고 했다.
또 왕충王充의 《논형論衡》의 주에 말하기를, "《역易》의 위문緯文이 이것이다"라고 했다.
《소설》에는 말하기를, "구양공歐陽公은 이것을 《역경易經》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고, 드디어 《역易》이란 완전한 글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잘못이다. 아아! 구양공도 글을 아직 연구하지 않은 곳이 있으니, 하물며 이 밖의 다른 사람이겠는가.

한퇴지韓退之의 아들 창昶은 어둡고 용렬했다. 집현전集賢殿 교리校理가 되었는데, 그는 《사기史記》의 금근거金根車가 잘못이라고 해서 근根자를 모두 은銀으로 고쳐 놓았다. 아아! 창려昌黎의 아들로서도 이와 같았으니, 아비로서도 아들에게 전하지 못한다는 말은 진실로 그러하구나.

세상에 전하는 말에, 세조대왕世祖大王이 금강산金剛山에 행차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단발령斷髮嶺에 이르러 머리를 깎고 중이 되려고 하는 것을 여러 신하들이 이를 간해서 그만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은 몹시 황당무계한 말로서 상고할 수가 없다.
박사암朴思庵 순淳의 시詩에 말하기를, "설라薛蘿[19]에 임금 기운 통하니 새들도 임금의 뛰어난 모습 알아보네. 속담에는 부질없이 잘못된 말 많다. 동쪽으로 순수함은 곧 사방을 살피심이라네[薛蘿通御氣 禽鳥識龍章 俗語空多誤 東巡是省方[20]]"

19 그 당시 신라新羅를 중국에서 이렇게 불렀다.
20 천자가 사방을 순행하면서 민정民情을 시찰하는 일.

라고 한 것이 곧 이것이다.
상고하여 보니, 남효온南孝溫의 《유금강록遊金剛錄》에 말하기를, "고려 태조太祖가 동쪽을 정벌할 때 고개에 올라 머리를 깎아 나무에 걸고 이로써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라고 했다. 그러면 이것은 곧 세조世祖의 일이 아니다. 대체로 이것은 승도僧徒들이 꾸며서 만든 말이다.

종묘宗廟 제사에 대축大祝을 맡았던 아무개는 예종睿宗의 시호諡號가 양도대왕襄悼大王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쇠도대왕衰悼大王이라고 잘못 읽어서 세상 사람들의 웃음을 샀다.

선왕조先王朝에 한 대관臺官이 있었다. 병사兵使와 수사水使가 재물을 탐하고 뇌물 받은 일을 탄핵해서 말하기를, "화제추반火齊推盤"[21]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고어古語를 써서 한 말이다.
이에 선왕先王이 묻기를, "우리나라에도 화제火齊가 있느냐" 하니, 대관臺官은 말이 막혀 벼슬을 사퇴했다. 그러니 신하로서 임금에게 고하는 말은 반드시 충분히 살펴서 해야 할 것이다.

옛날 한 절도사節度使가 국상國喪 때의 위전慰箋 중에 "성환성변誠懽誠忭"[22]이란 말을 썼다. 이때 언관言官들은 이것이 불경不敬하다고 해서 탄핵했다. 대체로 무인武人들은 글을 알지 못하여 그 잘못이 이와 같았으니 웃을 일이다.

중국에서는 역曆을 반포하기를 10월 초하루에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동지

21 여기에서 화제火齊란 아름다운 옥玉을 말하는 것으로 옥을 소반에 밀어놓을 만큼 재물을 많이 가짐의 비유. 그러나 이 화제라는 미옥美玉은 중국에만 있는 것임.
22 글자 그대로, 실로 기뻐하고 실로 좋아할 일이란 말. 이것은 주로 경사 때나 쓰는 말로서 국상國喪 때는 쓰지 않는 말임.

冬至 하표賀表[23]에 반삭頒朔이란 말을 많이 썼으니, 이것은 온당치 못한 말이 아닌가 싶다. 혹은 말하기를, "명나라 초년에는 동짓날에 역曆을 반포했었다. 그런데 그 뒤에 와서 10월 초하루에 반력頒曆했다." 그렇다면 당초에는 여기에 의해서 시작되어 이 말을 쓴 것인데, 후세 사람들이 살펴보지도 않고 예전 일을 도습해 써온 것일까.

행자行者라는 일컬음은 불가佛家에서 나왔다. 이것은 대개 고기를 먹지 않고 행동을 닦는 자를 가리켜 한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풍속에는 종이 주인을 위해서 상복喪服을 입는 자를 가리켜 행자行者라고 하고, 또 그 복服도 역시 중의 옷을 모방해서 검은빛을 쓰고 있으니 가소로운 일이다.
지금 사대부의 집에서는 한결같이 예문禮文에 따라 중들도 모두 상복喪服을 지어 입으면서 이것을 아직도 행자라고 한다. 혹은 또 이것을 행제노行祭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동호東湖 사람들은 독서당讀書堂을 독사당毒蛇堂이라 하고, 한강漢江 사람들은 압구정狎鷗亭을 악호정惡虎亭이라고 한다. 이것은 아마 그 말들이 잘못 전해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혹은 말하기를, "독서당 하인들이 그 세력을 빙자해서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를 괴롭게 여겨서 그렇게 부른다"라고 했다.

아버지의 초상을 당하면 이것을 내우內憂, 또는 외간外艱이라고 하고, 어머니의 초상은 외우外憂, 또는 내간內艱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풍속에는 이것을 잘못 써서 아버지 초상을 외우라 하고, 어머니 초상을 내우라고 한다. 심지어 근세의 문집 속에도 이렇게 잘못 쓴 것이 많으니 가소로운 일이다.

23 조정 또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신하가 올리는 축하하는 글.

24-5 해학諧謔

《설부》에 말하기를, “당唐나라 태종太宗 때의 고최외高崔嵬란 사람이 농弄을 좋아했다. 황제는 급사給事를 시켜 그의 머리를 붙들고 물속에 한참 동안 집어넣었다가, ‘경卿은 어디에 갔다가 왔는가’ 하고 물으니, 최외崔嵬는 대답하기를, ‘굴원屈原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굴원은 말하기를, 나는 초楚나라 회왕懷王을 만나서 멱라수汨羅水에 빠져 죽었지만 너는 현명한 임금을 만났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느냐 하더군요’라고 했다. 그리하여 황제는 웃고 상을 주었다”라고 했다.

세상에 전하기를, 조종조祖宗朝 때 어득강魚得江이 물에 빠졌는데 이를 구원해 건져 놓았다. 임금이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묻자 그는 대답하기를, “굴원을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어두운 임금을 만났기에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지만, 너는 밝은 임금을 만났는데 왜 여기에 왔느냐고 하더군요” 라고 했다. 이것은 당태종唐太宗 때 일을 모방한 것이다.

상고하건대, 《감주별집》에 말하기를, “고최외는 북제北齊 문선왕文宣王 때 사람이니, 자기가 어두운 임금을 만났다고 말한 이야기는 곧 명나라 태조太祖 때 배우俳優의 일이다”라고 했다.

옛날에 유백룡劉伯龍은 구경九卿의 자리를 지냈건만 집이 몹시 가난했다. 이에 그는 장차 십일什一(10분의 1, 즉 장사)의 방도를 해보려 했더니 귀신이 옆에 와서 크게 웃었다고 한다.

또 어느 가난한 사람은 독 1개를 얻어다 놓고 밤에 그 속에서 자면서 마음으로 계획하기를, “이 독을 팔면 독 2개를 살 수 있을 것이요, 2개를 가지고 다시 4개를 살 수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고 보면 그 이利가 무궁할 것이다”라고 하고, 하도 기뻐서 그 속에서 춤을 추다가 독이 깨져버렸다고 한다.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대체로 사람의 빈부貧富와 득실得失이란 모두 정해진 분

수가 있는 것이어서 함부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설》에 보면, 동파東坡가 황강黃岡으로 옮기자 서울에서는 그가 죽었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런 때문에 그가 올린 사표謝表에 보면, "병으로 앓은 지 여러 해가 되어 사람들은 혹 이미 죽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춥기 여러 달이 되오니 신臣도 또한 스스로 남은 생명이 싫어졌습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근년에 참판參判 허진許晉은 아무런 병도 없는데 그가 죽었다고 잘못 전해지고, 그 말이 저보邸報에 실리기까지 했다. 조회 때가 되어 공公이 대궐에 다다르자 아전이 가까이 앞에 나와 절하면서 말하기를, "영공令公께서 돌아가신 일은 이미 상감께서 아뢰어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공이 깜짝 놀라 도로 돌아가니 일시에 이 소문이 전해져서 웃었다.

《설부》에 말하기를, "왕형공王荊公이 장난으로 경서經書 속에 있는 말들을 따다가 새소리를 만들었는데, 제비소리라고 한 것을 보면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知之謂知之 不知謂不知 是知也(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다)'라고 했다"고 했다.
"유공부劉貢父가 이것에 대를 맞추어 집비둘기의 소리라고 하여 '고불고觚不觚 고재觚哉 고재觚哉(옛 제도의 고觚가 아니니 고觚라고 하겠는가 고觚라고 하겠는가)' 했다"고 하였다.
나는 여기에서 개구리의 울음소리라고 하여, "독락락獨樂樂 여중락락與衆樂樂 숙락孰樂(혼자서 풍악을 즐기는 것과 여럿이서 풍악을 즐기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즐거운가)"라고 했다. 이것으로 대를 만들면 《논어》와 《맹자》에서 나온 말과 같을 것이니 더욱 좋을 것 같다.

송나라 이정언李廷彦의 100운시韻詩에 말하기를, "사제舍弟는 강남江南에서 죽

었고, 가형家兄은 새북塞北에서 죽었네〔舍弟江南沒 家兄塞北亡〕"라고 했다. 이것을 보는 자들은 모두 놀라서 "뜻밖의 흉한 화가 이렇게 거듭할 수가 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나 정언廷彦은 말하기를, "사실은 이런 일이 없고, 다만 대구對句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것이다"라고 했다 한다.

나는 생각하기를, 지금 사람들이 억지로 100운韻이니 200운韻이니 하고 짓는 것도 모두 이런 병통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설》에, "원元나라 지원至元 연간年間에 말이 잘못 전해져서, 장차 국가에서는 동남동녀童男童女를 뽑아 달단韃靼[24]에게 주어 종을 삼게 한다 했다. 이에 민가에서는 아들딸의 나이가 12, 3세 이상만 되면 곧 장가들이고 시집보내느라고 황급하고 절박하고 요란하게 하더니, 10여 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쳤다"라고 했다.

백자정栢子庭이 이것을 웃어 말하기를, "한 봉서封書의 임금의 조서도 참으로 믿지 않고, 두 잔 묽은 술로 문득 혼인을 이루네. 밤 되어 명월루明月樓 머리에서 바라보니, 오직 달 속에만 시집 안 간 계집이 있네〔一封丹詔未爲眞 二盃淡酒便成親 夜來明月樓頭望 唯有姮娥不嫁人〕"라고 했다.

정덕正德 신사년辛巳年에 무종황제武宗皇帝는 우리나라에 칙령勅令을 보내 여자를 뽑아 바치라고 했다. 이리하여 사대부 집 여자들은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창졸간에 일찍 시집보내서 시집 안 간 여자는 거의 하나도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마침 황제皇帝가 붕崩해서 이 일은 중지되었으니 대개 고금의 일이 이렇게 같았던 것이다.

세상에 전하는 권학시勸學詩에 말하기를, "어리고 젊어서 모름지기 부지런히 배울 것이니, 문장을 해야만 가히 몸을 세우는 것. 조정에 가득한 저 귀한 사

24 몽고족의 한 갈래. 원元나라가 망한 뒤 몽고족의 일부가 흥안령興安嶺 서남 지방으로 북진北進하여 북원국北元國을 세웠는데, 달단韃靼이라 불렸음. 후일 몽고 전체의 이름이 되었음.

람들은 모두 이 글 읽는 사람들일세(小少須勤學 文章可立身 滿朝靑紫貴 皆是讀書人)"
라고 했다.
《소설》에 말하기를, "명나라 어사御史 풍휘馮徽는 일이 있어 요동遼東 땅으로 귀양 가 있었다. 이때 이 글을 바꾸어, "어리고 젊어서는 학문에 부지런하지 말라, 문장은 반드시 자기 몸을 그르치는 것, 요동 땅 3만 명은 귀양살이하는 사람, 모두 다 글 읽는 사람들일세(小少休勤學 文章誤了身 遼東三萬衛 盡是讀書人)"
라고 했다." 이것은 대개 글하는 사람이 귀양 가는 일이 많아서 한 말이다.
요새는 선비를 재주로 뽑지 않고 오직 뇌물 주는 것으로 뽑든지, 또는 남에게 차작借作으로 글을 받아서 뽑히기가 일쑤다. 그래서 다시 그 글을 고쳐 말하기를, "어리고 젊어서 누가 학문을 부지런히 하랴, 문장 가지고는 몸을 세우지 못하는 것. 조정에 가득한 저 귀한 사람들, 모두 글 읽은 사람 아닐세(少小誰勤學 文章未立身 滿朝靑紫貴 不是讀書人)"라고 하였으니 가소로운 이야기다.

《소설》에 말하기를, "장석張錫은 글을 민첩하게 지었다. 그러나 그가 문장에 인용하는 일은 모두 증거가 확실치 못한 것이 많았다. 사람들이 혹시 그 출처를 물으면 《태평광기太平廣記》에 있는 말이라고 대답했으니, 대체로 그 책이 세상에 귀해서 보기 힘든 책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요새 이척李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됨이 몹시 가볍고 허황했다. 항상 스스로 말하기를, 모든 글을 읽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다. 허봉許篈이 그를 보고, "목자심역木子心易이라는 글도 본 일이 있느냐"라고 묻자, 그는 말하기를, "그 책은 내가 익숙히 보았다"라고 했다. 이 목자木子란 즉 이李요, 심역心易이란 척惕으로서 파자破字를 말한 것이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허리가 끊어지도록 웃었다.

공기孔頎라는 자는 성질이 몹시 굳세고 활달했다. 관시館試를 보는데, 과거 보러 온 사람이 모두 51명으로서 한 사람만 떼놓으면 모두 합격하게 되었다. 공

기는 자기의 재주를 믿고 초장初場에 글을 짓지 않고 나와서 말하기를, “공기가 어찌 여기서 떨어질까 보냐” 하고 자신만만했다. 중장中場에는 또 술을 먹고 들어갔기 때문에 글을 짓지 못하고 나와서 말하기를, “종장終場이 남아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마침내 종장이 되니, 그들 50명은 서로 짜고 술과 안주를 가져다가 취하도록 권하니 공기는 태연히 술을 마시고 종일토록 쓰러져 있었다. 이리하여 50명은 과거에 합격하고 공기만이 떨어졌다.
그 뒤에 공기는 사신이 되어 중국 도성에 가게 되었다. 그는 길가에 사람들이 많은데도 오줌을 누고 있었다. 역관譯官이 그를 보고, “중국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했으나 그는 태연히 말하기를, “조선에서 온 이 공기를 누가 알겠는가”라고 하였으니, 그 활달하기가 이와 같았다.

첨지僉知 윤기尹祈는 젊었을 때 그 아버지를 따라서 광주光州 임소任所에 가 있었다. 을묘년乙卯年 왜란이 일어나 적들의 칼날이 미구에 몰려오게 되었다. 이때 감사監司 김주金澍는 말에 채찍질하여 서울로 향해 도망하려 했다. 윤기尹祈가 칼을 잡고 말을 막아서면서 눈을 부릅뜨고 꾸짖어 말하기를, “공公은 도주道主의 몸으로서 의리상義理上 도망하지 못하오”라고 했다. 이리하여 감사는 드디어 억지로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일이 평정되자 김 공은 여러 번 이런 말을 했다. “저번 난리에 내가 왜놈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오직 그 윤 모某의 눈동자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전한典翰 김홍도金弘度는 기개가 호탕하여 남을 업신여겼다. 일찍이 말하기를 “집의執義란 사람들은 의리 아닌 것을 잡고 있고, 지평持平이란 사람들은 불공평한 것만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대관臺官으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더니 마침내 화를 입었다고 한다.

옛날 종실宗室 아무개는 아름다운 수염이 한 자가 넘으니, 성종成宗이 그의 모

양을 좋아해서 일찍이 불러 보고 또 물건을 매우 후하게 하사했다. 이것을 보고 종친宗親 한 사람이 희롱하여 말하기를, "전하께서 그대를 좋아하시지만 그 수염만은 몹시 싫어하시네〔上寵君矣而 但嫌長鬒耳〕"라고 했다. 그 사람은 이 말을 듣자 이내 수염을 깎아 버렸다. 그런 뒤 어느 날 임금은 또 그를 불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염이 하나도 없는 보잘것없는 늙은이였다. 임금이 놀라서 까닭을 묻자, 그는 사실대로 고했다.
이에 임금은 웃으면서 혼잣말로, "이 사람이 몹시 복이 없군!" 하고는 다시 불러보지 않으니 그 사람은 드디어 마음에 불쾌해하다가 병이 들어 죽었다.

《사재척언思齋摭言》에 말하기를, "정사룡鄭士龍은 시문詩文에는 능하지만 경술經術은 다스리지 못했다. 응교應敎로서 경연經筵에서 진강進講할 때면 언제나 눈썹을 찡그리고 머리를 긁으면서 차라리 학질 열 번을 앓는 게 낫지 경연에 한 번 나오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하였다.
나는 생각하기에, 경연에서 진강하는 것을 학질에 비한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하겠다. 사룡士龍의 문사文詞 실력으로서도 오히려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하물며 토룡土龍만 못한 사람으로서 외람되이 논사論思의 지위에 있는 자는 어떠하겠는가.

정호음鄭湖陰은 홍주목사洪州牧使가 되었을 때 사달정四達亭을 짓고 날마다 글 읊는 것으로 일을 삼았다. 그는 백성들에게 영을 내려 소송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살아 있는 메추리를 바쳐야만 비로소 일을 처리해 준다고 했다.
이때 한 백성이 그의 문간까지 왔는데 가지고 온 메추리가 죽어 있었다. 이것을 보고 문간에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그 백성은 목사牧使에게 들어가 이 사실을 호소하였으나 공은 오히려 이를 허락하지 않고 내쫓았다.

신기재申企齋(신광한申光漢)는 문사文詞에는 능했지만 관리 노릇하는 재주는 부

족했다. 형조판서刑曹判書가 되었으나 일을 처리할 줄을 몰라, 죄수들이 많이 밀려 감옥이 가득 차서 받아들일 곳이 없었다. 이에 나라에 아뢰어 감옥 집을 더 늘려서 죄수들을 가두어둘 것을 청하니, 당시 사람들이 모두 이를 웃었다. 그는 또 이독吏讀를 알지 못해서 패자牌字[25]를 쓰는데도 역시 시어詩語를 인용해서, "관청 위엄이 너를 잡아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니, 모름지기 동쪽 바람을 좇아 2월에 오도록 하라〔官威提致非難事, 須趁東風二月來〕"라고 했다.

금호錦湖 임형수林亨秀는 기개가 호걸스럽고 재주가 뛰어났었다. 이조좌랑吏曹佐郎이 되었을 때 정랑正郎 한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몹시 심하게 굴었다. 정랑이 출근할 때쯤 해서 그 책상에 쓰기를, "밉고 미운 이 물건 누가 낳았는가. 세상에 나면서 오로지 아랫사람 볶는 재주만 늘었네. 양식 끊어졌던 그해에 왜 죽지 않고서, 이미 첨정僉正을 겪고 또다시 여기 왔는가〔憎憎此物孰胚胎 生世偏長虐下才 絶穀當年胡不死 旣經僉正又重來〕"라고 했다. 곡식이 끊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 실지로 있었던 일이라 한다. 정랑正郎이 들어와 이것을 보고 크게 노여워하여 그를 더욱 벌주면서도, 시詩는 아름답다고 했다 한다.

참판參判 이택李澤이 자문점마咨文點馬로 있을 때 관서關西 기생 하나를 사랑하여 데리고 임진臨津에 이르렀다. 이때 서원書員 오계남吳繼男이 이것을 중지시키려 해도 되지 않았다. 그 기생이 배에 오르려 할 때 계남이 노〔楫〕를 가지고 그를 쫓으니 공은 어찌할 수 없어 슬픈 기분으로 기생과 헤어졌다. 이에 시詩를 지어 말하기를, "지척에 있는 임진강을 건너지 못하니, 계남은 참으로 인정 없는 사람이다〔咫尺臨津不得渡, 繼男眞是薄情人〕"라고 했다.

상국相國 심수경沈守慶은 기성箕城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시를 지어 말하기를, "사나이 한 번 죽기는 면키 어려운 것, 원컨대 선연동 속의 귀신 되고 싶네

25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공식으로 주는 글발.

〔男兒一死終難免 願作嬋娟洞裡魂〕"라고 했다. 이 선연동嬋娟洞이란 곧 서경西京 기생들을 장사 지내는 곳이다.
뒤에 충청감사忠淸監司가 되었다. 학관學官 권응인權應仁이 청주淸州에 객客으로 있다가 기생들의 노래를 지어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 붙이면 남쪽 북쪽이 없거니, 선연동 속 귀신이 되지 말게나〔人生適意無南北 莫作嬋娟洞裏魂〕"라고 했다. 이 글을 보고 공이 크게 웃고 권응인을 불러다가 매우 칭찬했다.

판서判書 박계현朴啓賢은 늙은 뒤에 어린 소나무를 뜰에 심었다. 객客이 와서 보고 희롱하기를, "소나무를 심어 정자를 만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웃는 바인데, 이것을 심는 것은 무슨 때문인가〔栽松作亭 世皆笑之種此何爲〕"라고 했다. 공은 이 말을 듣고 희롱하기를, "이것은 내가 죽어서 관棺을 만들려는 나무일세"라고 했다. 객은 또 말하기를, "그때는 마땅히 내가 조객弔客으로 오리라"라고 하자, 옆에 있던 목공木工 하나가 나와서 말하기를, "저 관棺은 소인이 만들어 드리지요"라고 하니 공이 크게 웃었다.

성균관成均館 석전釋奠 때의 음복飮福은 사간원司諫院 관리가 주장이 되고, 아전과 종들까지도 모두 잘 먹어 모두 취한 뒤에 그만둔다. 관리들로 연고가 있으면 그 집에 남은 음식을 돌리는 것이 옛날 풍속이었다.
승지承旨 강서姜緖가 정언正言으로 있을 때 음복飮福하다가 술이 취해서 집에 돌아갔다. 그의 길을 안내하던 하인 역시 크게 취하여 종루鐘樓에 부딪치자 공에게 보고하기를, "향정자香亭子에 왔습니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듣자 공은 눈을 크게 뜨고 한참 쳐다보더니, "이건 향정香亭이 아니고 유옥교有屋轎로군"하고 말했다. 듣는 사람들이 모두 배를 싸안고 웃었다.

참판參判 손식孫軾은 성품이 예의범절에 간단했다. 일찍이 자문점마咨文點馬가 되었을 때에 의주義州에서 말을 달려 닷새 만에 서울에 돌아왔다. 이에 김홍도

金弘度가 시詩를 지어 조롱하기를, “홍전문紅箭門 앞에서 비로소 말을 내리니, 붉은 휘장 안에서 조용히 말하는 소리 들리는 듯. 통군정統軍亭 잔치 음식 무단히 거두었고, 부벽루浮碧樓 번화한 모습 보지 않고 지났네. 예박은 원래 성내기를 좋아했지만, 서원書員은 무슨 일로 또한 맑고 맑은가. 의주義州에 가는 길 많지 않은데, 천 리가 도리어 닷새 길이 되다니(紅箭門前初下馬 紫絨帳裏暗呑聲 統軍盤果無端撤 浮碧繁華率爾經 艾璞由來甘悻悻 書員何事亦淸淸 龍灣此去無多路 千里還成五日程)”라고 했다.

대개 공이 황주黃州 홍전문紅箭門에 이르자 목사牧使가 영접한다는 말을 듣고 곧 말에서 내렸다는 이야기와, 또 공은 새로 장가들었기 때문에 밤마다 집을 생각하고 탄식했다는 이야기에서 쓴 글이다. 의주목사義州牧使가 통군정統軍亭에 잔치를 열자 공은 노여워서 이것을 치우게 했다. 돌아올 때는 숙천肅川을 떠나 평양平壤을 지나 중화中和에서 잤다. 공이 데리고 간 서원書員은 공의 간결하고 엄한 것을 가지고 말하기를, “점마點馬도 맑고 맑은데, 서원도 또한 맑고 맑다(點馬淸淸 書員亦淸淸)”라고 했으니, 이것은 모두 실제로 있던 말들이다. 중국 사신 애박艾璞의 이야기는 《잡설雜說》에 나와 있다.

이홍남李洪男은 말재주가 있었다. 참의參議 임보신任輔臣이 장악정掌樂正이 되었을 때 그 아들 이름을 극克이라고 지었더니 어느 사람이 이 극克 자가 좋지 않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홍남洪男은 말하기를, “악정樂正의 아들 이름을 극克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좋지 못하단 말인가” 하니 듣는 자가 모두 허리를 잡고 웃었다. 옛날 맹자의 제자 중에 악정극樂正克이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성이 간簡씨란 사람이 자기 아들 이름을 지어 달라고 청했다. 홍남은 말하기를, “이름은 구은求隱이라 하고 자字는 좌수坐叟라고 하라”라고 했다. 안安씨 성을 가진 사람이 그 첩妾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을 지어 달라고 했다. 홍남은 그에게 인법印法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또 나羅씨 성을 가진 사람이 새로 집을 짓고 액자額字를 청했다. 홍남은 야월당夜月堂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알지 못했더니 뒤에 가서야 홍남이 그 방언을 가지고 장난으로 지은 것임을 알았다.

세상에 전하는 말에 이런 것이 있다. 옛날 어느 사람이 표류하여 어느 여인국女人國에 도착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이 사람의 양물陽物을 보고 모두 혀를 내밀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감대甘帶(달콤한 꼭지)다” 하고 혹시 상할까 걱정하여 옷으로 싸고 채교彩轎에 태워서 국왕에게 바쳤으니 존귀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몇 해 되지 않아서 뼛속 기름이 말라 들어가는 병에 걸려서 배를 훔쳐 타고 도망해서 본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사인舍人 이거李璩는 술을 즐겨 마시고 그 양量도 또한 무척 많았다. 일찍이 강 위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술에 취해서 물에 빠졌다. 뱃사람이 즉시 이를 구해 꺼내 놓았으나 그는 크게 후회하여 자기 스스로 맹세하기를, “술을 마시되 석 잔을 지나지 않으리라”라고 했다.
그런 뒤에 5, 6되가 들 만한 그릇 하나를 따로 만들어 한 번에 세 그릇씩 술을 마셨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거李璩의 석 잔은 사실은 몇 되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사문斯文 조징趙澄은 글을 몹시 산만하게 짓고, 글을 다듬어 꾸미는 것을 일삼지 않았다. 경상도사慶尙都事가 되었을 때 가는 고을마다 글을 지어 거의 빠진 곳이 없었다. 그 뒤에 사문斯文 신의충申義忠이 지방을 돌다가 한 고을에 이르러 보니 현판이 하나도 없었다. 이에 그는 글을 지어, “벽 위에 못난 글귀 없으니, 아마도 여기에는 조 사문趙斯文이 오지 않았구나(壁間無拙句 知趙不曾來)”라고 했다.

참판參判 이준민李俊民은 구영준具英俊과 사이가 좋았다. 구具의 집은 부자여서 술과 음식을 가지고 공을 맞아 날마다 마시게 했다. 영준英俊이 죽자 공은 그를 슬퍼하여 말하기를, "내 술항아리가 깨졌구나(吾酒瓮破矣)"라고 하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그를 비웃었다.

판부사判府事 송찬宋贊의 부인은 성품이 사나웠다. 일찍이 투기가 심해서 공을 다른 방에 가두어두니 하루가 지나도 나갈 수가 없었다. 그의 사위 이사문李斯文이 이것을 보고 문틈으로 공에게 까닭을 물었다. 공은 말하기를,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미 방에 갇혔으니 제갈량諸葛亮인들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다. 이에 사위는, "만일 제갈량이라면 처음부터 그 방에 들어가질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공은 크게 웃었다.

참의參議 유조인柳祖訒은 성품이 자상하고 어질어 물건을 매우 사랑했다. 그러나 일에는 거칠었다. 일찍이 길을 가다가 한 웅덩이의 물이 말라붙는 것을 보았다. 그 웅덩이 속에는 올챙이 수십 마리가 우글거리고 있다. 공은 그 올챙이가 장차 죽게 될 것을 불쌍히 여겨 그것을 수건에 싸 가지고 10리 길을 가다가 비로소 깊은 물을 만나 그 속에 던져 주었다. 그러나 올챙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
공이 이것을 슬퍼하여 글을 지어 말하니, "슬프다, 올챙이여! 내 너의 목숨을 살리려 한 것이 도리어 너를 죽게 했구나. 그러나 그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너는 오히려 알고 있을 것이다(嗟來科斗 吾欲活爾之命 而反致爾死 非吾本心 爾尙知之)"라고 했다.
공이 또 이천현감伊川縣監이 되었을 때, 백성 한 사람이 산 노루 한 마리를 잡아서 관청 앞으로 가지고 왔다. 공이 차마 죽일 수가 없어 곧 놓아 주었더니 노루는 좋아하며 뛰어 달아났다. 그러나 노루가 겨우 문밖을 나가자 아전들이 몰려들어 이것을 잡아 나누어 먹었건만 공은 알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옛 풍속에 같은 해의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이를 사마동년司馬同年이라고 하여 특히 소중히 여겨 형제처럼 지낸다. 그리고 동년同年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동년을 만나면 비록 그 사람이 나이 적더라도 예禮를 다하여 존경하기를 자기의 아버지에게 대한 것처럼 하는 것이었다.
유영겸柳永謙과 영근永謹은 형제간으로서 이양중李養中과는 같은 마을의 친구 사이였다. 그 아버지는 연埏이니 늦게 사마시司馬試에 뽑혔는데, 이양중과 동방同榜(같이 합격자 명단에 오름)이었다. 이때 영겸永謙이 그 아우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아버님이 사마司馬에 뽑히신 것은 기쁜 일이다. 하지만 양중과 동년이 되었으니 어떻게 한단 말이냐” 하니 듣는 자들이 크게 웃었다.

상국相國 강姜 아무개는 대체大體를 잡을 뿐, 일을 당하면 그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말하지 않고 항상 그 코만 만졌다. 그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를 “코 만지는 재상(捫鼻宰相)”이라고 불렀다.
이때 성균관의 한 유생儒生이 색장色掌이 되었는데, 공사公事를 당하면 나가서 의논하지 못하고 오직 궤짝을 만질 뿐이었다. 그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궤짝 만지는 색장(捫櫃色掌)”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비鼻와 궤櫃, 상相과 장掌은 모두 같은 운韻이므로 이때 사람들은 이것을 좋은 대구對句라고 했다.

이오성李鰲城이 조정에서 물러나와 시골에 살고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미복微服 차림으로 청평사淸平寺에 가서 놀다 소양강昭陽江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소년들은 그가 오성상공鰲城相公임을 알지 못하여 잘못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많았으며, 심지어 공을 보고 어찌해서 여기 오느냐고 묻기까지 했다. 공은 대답하기를, “이 지방의 산과 물이 이름났다는 말을 듣고 좀 살아보려고 오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소년들은 더욱 거만해서 저쪽 산 하나를 가리키면서, “세상에 전하는 말이, 저 산은 떠서 여기에 왔다고 하오. 그래서 딴 곳에서 떠들어오는 사람은

부자 되는 이가 많다고 하오. 당신도 여기 와서 살기만 하면 좋은 일이 많을 게요"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년들은 귀에 입을 대고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은 귀 밑에 옥관자가 달렸으니 필시 납속納粟 당상관堂上官인 모양이다" 하고는, 말을 마치자 공에게 읍揖을 하고 가버렸다.
공은 장난으로 시를 지어 말하기를, "늦게 소양강 아래에 살려 하네, 그대들과 함께 낚시질이나 하면서 늙으리. 생계를 위한 일 박한 것 조심치 말라. 스스로 저기 떠서 온 산이 있다네〔晩計昭陽下 同君老一竿 莫憂生事薄 自有浮來山〕"라고 했다. 듣는 사람들이 배를 잡고 크게 웃었다.

이오성李鰲城은 어려서 여러 번 과거를 보았으나 뽑히지 못했다. 이에 과거에 떨어진 낙방시落榜詩를 지어, "관자館者(속어俗語로, 과거보러 간 사람)는 오지 않고 해는 이미 저무는데, 온 집안 종들은 얼굴 모습 쓸쓸하네. 해마다 과거 마당의 반찬으로 허비하여서 다시는 창 앞에 새벽닭 소리 들리지 않네〔館者不來日已西 渾家僮僕色悽悽 年年費盡場中饌 無復窓前聽曉鷄〕"라고 했다.
대개 이것은 과거 보는 마당에 들어가는 자는 닭으로 반찬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관자館者는 속어俗語를 그대로 쓴 것이다.

성호선成好善은 운치 있고 고상한 말을 잘했다. 집이 남산 기슭에 있었는데 일찍이 임자순林子順에게 말하기를, "우리 집에는 괴상한 돌이 있는데 무척 기이하다"라고 했다. 임林이 그것을 빌어다가 보게 해주기를 청하니 호선好善이 이를 허락했다. 임林은 건장한 종을 보내서 그 돌을 가져오라 했다. 종이 호선好善의 집에 가자 그는 남산南山의 잠두蠶頭(누에 머리처럼 생긴 산봉우리를 말함)를 가리키면서, "저것이 우리 집 괴석怪石이다. 네 힘이 있거든 가지고 가라"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종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 버렸다.

정랑正郎 안중길安重吉은 한어漢語를 할 줄 몰랐다. 중국 장수가 나올 때 접반

관接伴官이 되었다. 중국 장수가 묻기를, “그대는 아버지가 계시오?” 하자 안安은 “예! 많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니, 중국 장수는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

생원 한겸韓謙이란 자는 해학諧謔을 잘했는데 그 아내의 성이 구丘씨라 한다. 사람들이 이것을 조롱해서 말하기를, “그대 아내는 산에 오르면 악岳이 되고, 변소에 가면 병兵이 되고, 새를 만나면 구鳩가 되겠네그려”라고 하니, 한생韓生은 말이 막혀 대답하지 못했다.

유갑柳甲과 양을楊乙이 서로 문벌을 가지고 자랑을 했다. 갑甲이 을乙에게 말하기를, “옛사람들은 유柳를 존중히 알았다. 그러한 까닭에 양楊은 유柳를 일으켜(揚起)주는 것이니 양楊은 유柳의 얼속孽屬이다”라고 했다.
을乙은 갑甲에게 말하기를 “세상에서는 양楊을 먼저 하고 유柳를 뒤로 한다. 그래서 유양柳楊이라 하지 않고 양류楊柳라고 하니 유柳는 곧 양楊의 지서支庶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이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객客이 양쪽을 모두 말려 말하기를, “대체 양류楊柳라는 것은 옆으로 심거나 거꾸로 심어도 모두 사는 것이요, 또 반드시 땅이 낮고 습한 곳에 많이 나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같은 것이오. 그래서 모두들 이것을 천賤한 식물이라고 해도 옳을 것이오”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은 웃고 다투던 것을 중지했다.

명승明昇의 자손으로 녹사錄事가 된 자가 있었다. 그는 몹시 심란해하면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 한 재상이 이것을 보고 민망히 여겨 말하기를, “명황제明皇帝가 비록 천하를 얻었더라도 네 몸에 이르러 반드시 망하고야 말았을 것이다”라고 하니, 듣는 자들이 모두 배를 싸안고 웃었다 한다.

사문斯文 김택룡金澤龍은 수염이 무척 많고 길었는데 거의 반이나 세어 있었다.

중국 장수의 접반관接伴官이 되었을 때 중국 사람이 그에게 수염을 검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약물로 수염을 물들였더니 흰 수염이 변해서 감벽색紺碧色이 되어 엄연한 한 귀신 모양이 되었다. 보는 자들이 모두 놀라니, 드디어 감히 문밖에 나가지 못했다. 이것은 대개 중국 사람이 장난으로 그에게 시킨 일이었다.

근년에 겨울 날씨가 매우 따뜻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기후가 절기節氣를 잃었다고 걱정했다. 이때 한 서생書生이 상신相臣의 집에 가서 사례해 말하기를, "저는 옷이 얇은데 상공相公께서 고르게 다스리는 후하신 덕을 입어 겨울을 지나도 따뜻하오니 주신 바 은혜가 큽니다. 하오나 다만 한여름이 추워져서 겨울옷을 입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라고 하니, 상신相臣이 크게 웃었다고 한다.

내가 일찍이 참판參判 남이신南以信을 길에서 만났는데 내 말은 몹시 둔해서 앞으로 갈수록 뒤떨어졌다. 남 공은 나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공의 말은 어찌 그리 더디오"라고 했다. 나는 시詩를 지어 장난삼아 대답하기를, "내 말은 소와 같고 그대 말은 날래니, 그대 가는 것은 어찌 그리 빠르며 나는 어찌 이다지 더딘가. 그러나 빠르고 둔한 것 가지고 낫고 못함을 의논치 말라, 필경은 먼 곳에 갔을 때를 볼 것이니(我馬如牛君馬駿 君行何疾我何遲 休將快鈍論優劣 畢竟須看致遠時)"라고 했다.
이 말은 대체로, 나는 갑오년甲午年에 우승지右承旨가 되었고, 당시 남 공은 주서註書로 있었다. 3년이 지난 정유년丁酉年에는 내가 좌승지左承旨로서 다시 정원政院에 들어가니 이때 남 공은 이미 우승지가 되었다. 그 뒤 얼마 안 되어 남 공은 아경亞卿에 승진했는데 나는 아직도 전직前職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런 지 10여 년이 지나서 나는 아경에 승진했으나 남 공은 이미 졸卒한 뒤였

다. 이로써 느껴 탄식함을 깨닫지 못한다.

백옥봉白玉峰은 시詩를 잘한다는 이름이 있다. 그가 일찍이 공산公山에 놀러 갔을 때였다. 주인인 공산군수公山郡守가 미리 계칙하여 음식을 갖추게 하고 오리정五里亭에 나와 그를 맞으니, 기생들도 모두 단장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백 공이 도착하고 보니 한 개 포의布衣의 선비로서 아무런 보잘것없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이것을 보고 기생들은 서로 돌아보면서 냉소하는 것이었다.
이때 기생 하나가 말하기를, "이제 백 공을 보니 마치 조룡대釣龍臺와 같군!" 하니, 듣는 자들이 모두 크게 웃었다. 대개 조룡대란 경치 좋은 곳이라고 하지만 실지로는 보잘것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혹은 말하기를, "백발白髮은 미인美人들이 싫어하는 것이나 이것을 시詩에 쓰면 새로운 맛이 있고, 부귀富貴는 세상인심이 좋아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시詩에 쓰면 추하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명언이라고 했다.

동지同知 김현성金玄成은 호를 남창南窓이라고 했다. 몸가짐이 깨끗하고 곤궁을 견뎌내니 이르는 곳마다 얼음처럼 차고 깨끗하다는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관리로서의 재간은 하나도 없었다. 일찍이 그가 어느 고을을 다스릴 때에 한 서생書生이 글을 지어 그를 조롱하기를, "백성 사랑하기를 자식같이 하건만 온 지경이 근심하는 소리로 시끄럽고, 추호도 관청 물건을 범하는 일이 없건만 관고官庫는 텅 비어 있네〔愛民如子 而闔境嗷嗷 秋毫不犯 而官庫板蕩〕"라고 했다. 그러나 공은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실천하는 바다" 하고는 조금도 성내지 않았다.

윤계선尹繼善은 용만龍灣에 있을 때 기생 하나를 사랑했었다. 떠나는 자리에 시

를 지어 “눈은 기원보다 높으니 아름다운 인물 없고, 창자는 용만에서 끊어지니 작별 있는 때문일세〔眼高箕院無佳麗 腸斷龍灣有別離〕”라고 하고는 자기 머리털을 잘라 주었다.
이에 나는 희롱으로 말하기를, “수단용만隨斷龍灣을 단발용만斷髮龍灣이라고 고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 판서判書 신점申點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그가 바로 단발문신斷髮文臣이로군” 하니 듣는 자들이 크게 웃었다.

중국 사신 주지번朱之蕃은 시詩 짓기를 넓고 크게만 하고 정밀하게 다듬으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술 마시는 양이 몹시 많았다. 그의 〈유잠두시遊蠶頭詩〉에 홍泓 자 운韻을 달아 지은 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를 희롱하여 말하기를, “넓고 넓은 글의 원천源泉은 정협과 같고, 크고 큰 술의 양은 유홍俞泓과 같다〔浩浩詞源同鄭協 恢恢酒量似俞泓〕”라고 했다. 대개 이것은, 의정議政 유홍俞泓이 술을 잘 마시고 참판參判 정협鄭協은 시詩를 많이 공부하여 빨리 짓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정 공은 이 말을 듣고 노여워해서 말하기를, “어찌해서 나를 중국 사신 주지번朱之蕃에게 비교하느냐”라고 했다. 그 사람은 여기에 대답하여, “그러면 시를 이렇게 고치면 어떻겠는가. ‘술 양은 크고 커서 정협과 같고, 글 솜씨 넓고 넓어 유홍과 같네〔酒量恢恢同鄭協 詞源浩浩似俞泓〕’ 하면 말일세”라고 했다.
대개 이것은 정鄭은 술을 잘 마시고 유俞도 역시 시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잘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그를 비웃었다.

진사進士에 장원한 정안鄭安이 감시監試 회시會試에 갔었다. 이때 《가례家禮》에 있는, “곡哭은 때가 없이 한다” 하는 장章을 강講하게 되었다. 시관試官이 그 글 뜻을 묻자 그는 대답하기를, “곡림哭臨(여러 사람이 곡哭하는 것)이 없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니 시관試官들이 모두 크게 웃었다.

그 뒤에 어느 사람이 그 아비가 죽었는데 초상에 도무지 곡哭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손이 이것을 희롱해 말하기를, "이것은 정안鄭安의 《가례家禮》를 쓰는 것이로군" 하니 듣는 이들이 모두 크게 웃었다.

옛날 한 장관將官이 몹시 그 아내를 두려워해서, "천하에 나처럼 남의 여자를 모르는 자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어느 날 여러 부하들을 한 번 시험하고자 해서 푸른 기와 흰 기를 마당에 꽂아 놓고 영을 내리기를, "남의 여자를 모르는 자는 푸른 기 밑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흰 기 밑으로 가라"라고 했다. 이에 군사들은 혹은 왼편으로 가고 혹은 오른편으로 가건만 오직 한 군사만은 혼자서 중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 괴상히 여겨 까닭을 물으니 그는 대답하기를, "제 아내는 일찍이 저를 경계하여, 남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여색女色 이야기가 나오게 마련이니 삼가서 그런 곳에는 가지 말라고 해왔습니다. 그런 때문에 저는 감히 아내의 그 말을 어기지 못해서 이러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듣자 장관은 마당으로 내려가서 그 군사를 데려다가 상좌에 앉히고 말하기를, "오늘 일은 네가 장관 될 자격이 있다"라고 했다.

제주濟州는 바닷속에 있는 외로운 섬으로서 바람과 파도가 몹시 험해서 그곳에 가기를 몹시 꺼린다.
옛날 어느 사람이 그곳 주관州官이 되어 장차 부임하게 되었다. 떠나는 날을 당하여 눈물을 흘리자 그 친구가 위로하여 말하기를, "다행히 좋은 바람을 만나서 물결에 밀려 여국女國으로 가게 되면 국왕의 남편이 될 수가 있는데 왜 울기까지 하는가" 하니 그 사람은 웃고 울음을 그쳤다.

근년에 건주建州의 오랑캐가 난을 일으켰을 때에 영변寧邊에 있는 군기고軍器庫에 불이 나서 모두 타버렸다. 이에 조정에서는 그 도道의 방백方伯에게 글을

보내서 말하기를, “이번 서쪽 오랑캐가 난을 일으켰을 때 또 회록回祿[26]의 변이 있었으니 몹시 놀랄 일이다”라고 했다. 방백은 이 글을 보았으나 회록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혼자 생각하기를, 필경 북쪽 오랑캐의 이름이려니 했다. 이것을 도사都事에게 물어봐도 모른다 하고, 영리營吏에게 물어도 모른다 하고, 서윤庶尹 판관에게 물어도 모른다고 했다. 이에 방백은 말하기를, “서쪽의 난리가 이와 같은데 또다시 북쪽 오랑캐의 변이 있으니 나랏일이 불행하기 이를 데 없다” 하고 탄식하기를 마지않았다. 며칠 뒤에 교생校生 하나가 와서 말하기를, “회록이란 화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라고 했다. 방백은 “어찌해서 그런 줄을 아느냐” 하고 묻자, 교생은 대답하기를 “일찍이 향교鄕校의 화재를 위안慰安하는 제문祭文을 보니 회록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화재인 줄 압니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듣는 자들은 모두 실소失笑했다.

신申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 유장儒將의 천거를 얻었다. 유천柳川 한준겸韓浚謙이 이를 희롱하여 말하기를, “신일辛日에는 장을 담그지 않는다”라고 했다. 대개 이것은 신申과 신辛의 음이 같고, 장將과 장醬의 음이 같은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인데, 그 사람은 이 말을 기뻐하지 않았다.

권황權滉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글을 잘 지을 줄 모르면서도 시詩 짓기를 좋아했다. 일찍이 객客들과 더불어 잔치를 하는 자리에서 술이 얼근하자 권權은 갑자기 글 한 구를 읊었는데, “배꽃에 온 바람과 비는 달빛이 분명하네(梨花風雨月分明)”라고 했다. 내가 이것을 희롱하여 말하기를,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비라 하고, 또 비가 왔는데도 달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라고 했다. 이 말을 듣자 권權은 부끄러워해서 굽히고 말았다. 나는 다시 말하기를, “옛 시詩에 한식寒食 때 달이 밝고 비가 오네(寒食月明雨)라고 한 것으로 본다면 역시 무방하지 않은가”라고 말하니 좌중이 크게 웃었다. 그런 뒤로 권權은 다시

26 불의 신神. 이것이 변하여 화재로도 쓰임.

는 시詩를 말하지 않았다.

살찌고 큰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을 조롱해 말하기를, "갓을 쓰면 발을 보기 어렵고, 신을 신으면 머리까지 들어가네. 길 가다가 소발자국에 물 괸 것을 만나면, 이를 건너자고 지푸라기로 배를 삼네〔着笠難看足 穿靴已沒頭 路逢牛跡水 欲渡芥爲舟〕"라고 했다. 키 작은 사람은 살찐 사람을 조롱하기를, "말에 오르면 다리만 늘어지고, 문에 들어서려면 머리 먼저 부딪치네. 배꼽을 태워 촉燭 만들기 알맞고, 다리 잘라 상앗대 만들었으면 좋겠네〔上馬卽垂脚 入門先打頭 燃臍堪作燭 刖足可撑舟〕"라고 했다.

또 한 사람은 머리를 흔들고 한쪽 발을 절었다. 이것을 누가 조롱하여 말하기를, "어지러이 높고 낮게 발을 들고, 때로 남북으로 머리를 흔드네. 바람 부는 것도 아니요, 취한 것도 아닌데, 평지에 배 타고 다니는 것 같네〔亂擧高低足 時搖南北頭 非風亦非醉 平地似乘舟〕"라고 했다.

옛날 어느 사람이 남의 슬갑膝甲[27]을 훔쳤으나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 이것을 이마 위에 쓰고 밖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이를 웃었다. 그런 때문에 지금 남의 문자를 도둑질해다가 잘못 쓰는 자를 가리켜 슬갑도적膝甲盜賊이라고 한다.

《고금명유古今名喩》에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이利를 무척 좋아했다. 그는 시장에 들어가 물건만 보면 즉시 이것을 움켜가지고 가는 것이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이것을 비웃으니 그는 말하기를, 세상사람 중에는 이利를 좋아하기를 나보다 더 심하게 하는 자도 있다. 그는 이따금 100가지 계교를 써서 비밀히 남의 물건을 빼앗는다. 나야 대낮에 물건을 움켰으니 그보다야 낫지 않은가라

27 추위를 막기 위하여 무릎까지 내려오게 입는 옷. 바지 위에 껴입으며 앞쪽에 끈을 달아 허리띠에 걸쳐 맴.

고 했다”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어찌 골계滑稽(재치가 있어 말이 유창함. 전轉하여 남을 웃기려고 일부러 우습게 하는 말이나 행동)를 아는 무리가 아닌가. 세상의 이利를 좋아하는 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마땅히 부끄러워할 줄을 알 것이다.

세속에 전하는 말에, 어느 사람이 갑자기 죽으니 귀졸鬼卒들이 잡아 가지고 음부陰府(저승, 황천, 명부冥府)로 갔다. 명왕冥王(염라대왕)이 장부를 뒤져보다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니 돌려보내도록 하라”라고 하고서 그 사람에게 다시 말했다. “너는 잘못되어 여기에 왔구나. 만일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되도록 해주마”라고 했다. 그 사람은 대답하기를, “산과 물이 아름다운 경치 좋은 곳에서 입는 것 먹는 것이 풍족하고 일생동안 안락하게 살 수 있다면 이 밖에 달리 소원이 없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듣자 명왕은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만일 네 말대로 될 일이라면 내가 먼저 이 일을 하고 네게 빌려주지 않겠다. 벼슬자리는 얻을 수 있어도 이것은 얻을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 일로 미루어 본다면 본래 타고난 귀한 것은 사람의 벼슬보다도 귀한 것으로서 귀신도 이를 맘대로 못하는 것인데, 더구나 사람의 힘으로 애쓴다고 얻을 수가 있겠는가.

어느 선비가 아래 하나와 첩 하나를 가졌다. 그는 이들을 시켜 흰 수염을 뽑으라고 했다. 첩은 조심스럽게 흰 수염을 골라 뽑았으나 아내는 남편이 첩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미워서 검은 수염을 골라 뽑았다. 이렇게 한참을 뽑고 나니 흰 수염도 검은 수염도 없는 한 노파老婆 같은 꼴이 되어버렸다. 이리하여 해가 지나도록 감히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

유생兪生 아무개가 있었다. 나이 40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이름도 이루지 못하

고 항상 울울하게 뜻을 얻지 못했다.
하루는 외출했다가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벽제辟除[28] 소리를 내며 이리로 오는데 따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유생兪生은 어쩔 줄을 몰라 도망해 피해서 몸을 담 사이에 숨기고서 가만히 바라보니, 그는 곧 젊었을 때의 친구였다. 그는 탄식하고 말하기를, "나와 저는 다 같은 문벌에서 태어났는데 재덕才德과 명위名位가 왜 이렇게 다르단 말인가. 저 사람은 저렇듯 영화롭게 되고 나는 이렇게 궁하게 지낸단 말인가" 하고 분함을 참지 못했다.
그러나 이윽고 자기 혼자서 풀어서 말하기를, "그러나 지금 세상에 아내 사랑하기를 나만큼 하는 자는 아마 없을 것이다. 제가 아무리 벼슬이 높다고 하겠지만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야 어찌 나를 이기겠느냐" 했다. 듣는 사람들이 허리를 잡고 웃었다.

서울에 있는 한 천인賤人 남자가 아내를 맞았다. 아내의 친정은 부자이나 얼굴은 몹시 추했다. 혼인한 이튿날 아내는 마땅히 시가에 가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 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친정 부모들은 자기 딸의 얼굴이 못난 것을 꺼려서 주저하고 있었다. 그 이웃에 한 과부의 딸이 있었는데 얼굴은 예쁘나 집이 가난해서 아직껏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그 집 딸에게 대신 다녀오기를 청하리라 생각하고 과부를 불러 의논했더니 과부는 선뜻 승낙했다.
시부모는 며느리로 온 과부의 딸을 보고 얼굴이 고운 것을 매우 기뻐하여 후하게 예물을 주고 억지로 머물러 있게 했다.
이 여인이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며칠 동안 묵고 보니 사위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제 사위는 도리어 본처는 본체만체하는 것이었다.
그 부모들은 이것을 크게 후회하여 형부刑部에 소송을 내어 자기 딸을 돌려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관청에서는 이미 아내가 되었다 하여 두 여인을 모두 아내로 맞도록 허락했다.

28 귀인貴人이 외출할 때에 여러 사람의 통행을 금지하던 일.

이러고 보니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두 아내를 얻어, 부잣집 딸의 재산을 가지고 살고 미녀美女의 방에서 잠을 자게 되니 그 호화스럽고 사치하기 이웃 마을에까지 소문이 나서 당시에 한 가지 이상한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의원醫員 한 사람이 중과 무당과 함께 한 배를 타고 물을 건너게 되었다. 중류中流쯤 왔을 때 바람을 만나 배가 엎어지려 하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다.
이때 중은, "아미타불"을 부르고, 무당은 역시 "아왕만수我王萬壽"를 외웠다. 의원은 돌아앉아서 "이중탕理中湯"을 연거푸 외고 있었다. 이윽고 바람이 자서 물을 무사히 건너자 여러 사람들이 모두 그 까닭을 물었다. 의원은 대답하기를, "대개 배가 아프면 이중탕理中湯을 쓰는 것은 의가醫家의 구급救急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오"라고 했다.
이것은 우리말로 배(腹)와 배(舟)가 같은 음이기에 이렇게 말한 것인데, 듣는 자들은 모두 배를 움켜쥐고 웃었다.

세상에 전하기를, 고려 태조太祖는 목주木州 사람들이 여러 차례 배반했다고 해서 육축六畜의 이름을 성으로 내려줬다. 그 뒤에 상象을 고쳐서 상尙이라 하고, 시豚를 고쳐서 돈頓, 견犬을 고쳐서 태太라고 했다 한다. 이에 어느 사람이 이것으로 태太씨 성 가진 사람을 조롱했다. 태太씨 성 가진 사람은 노해서 말하기를, "네가 견犬씨 성이 태太씨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증거가 있는가" 하니, 그 사람은 말하기를, "속담에 태말太末을 견말犬末이라고 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태太씨 성 가진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대개 속담에 황두黃豆를 가리켜 태太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어느 선비가 자기 집 종의 계집을 간통했다. 그 조카는 이것을 알면서도 감히

말하지 못했다. 어느 날 그 아저씨에게, “대체 사람의 욕심 중에 먹는 것과 여색女色 중 어느 쪽이 소중합니까” 하고 묻자, 아저씨는 말하기를, “먹는 것이 더 소중하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조카는, “아닙니다. 여색이 소중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아저씨는 다시, “네가 어떻게 여색이 더 중한 것을 아느냐” 하고 묻자 조카는 대답하기를, “아저씨는 종의 계집을 더럽다고 생각지 않고 그것을 가까이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종이 먹다 남은 음식이라면 아저씨는 이것을 반드시 먹기를 더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알았습니다”라고 했다.

이 말을 전해 듣고 사람들은 모두 크게 웃었다.

고서古書에 보면, 범을 산군山君이라 하고 쥐를 사군社君이라고 했다. 어느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말하기를, “범을 산군山君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고양이를 가군家君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쥐를 사군舍君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대개 사舍 자가 사社 자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세상에서는 그의 망발을 웃었다.

생원 유필柳滭이란 자는《맹자》를 3,000번 읽었으나 글 뜻을 해득하지 못했다. 일찍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자기의 생존한 아버지를 선군先君이라고 했다.

또 의원醫員 김 모는 제 아비가 외출하고 없는데 그 조모祖母가 죽었다. 편지를 써서 제 아비에게 부음訃音을 알리는데 여기에 말하기를, “집안엔 아무 일도 없으나 다만 조모가 죽었으니 한스러운 일입니다”라고 했다. 듣는 사람들이 허리를 잡고 웃었다.

옛날에 생원 김 아무개의 자는 국간國幹이었는데 계집종을 간통했다. 어느 날 그 종과 비밀한 곳에서 만나기를 약속했다. 이웃에 사는 선비가 이것을 알고

그보다 먼저 가서 숲 속에 몸을 숨기고 엿보았다. 조금 있다가 김 생원은 종과 함께 술과 과실을 가지고 오더니 곧 종의 손을 잡고 간통하려 했다. 그러나 종은 우선 먹을 것부터 먹고 보자고 한다. 이렇게 한참 동안 서로 다투고 있었다. 숨어 있던 선비가 큰 소리로, "국간國幹이! 국간이! 자네는 왜 고집하고 종의 말을 듣지 않는가?" 하니 김 생원과 종은 놀라고 부끄러워 음식을 내버린 채 달아나버렸다. 이리하여 그 선비는 술과 과실을 모두 먹고 돌아갔다.
속담에 고집하는 사람을 국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에서 나온 말이라 한다.

양근楊根 땅에 황생黃生이란 자가 살고 있었다. 경사經史를 읽어 천지개벽天地開闢의 설을 듣고 항상 이를 근심한 나머지 이것이 걱정되어 거의 병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어리석다고 했다.
황생이 일찍이 한 방에 혼자서 있을 때였다. 뜻밖에 바람과 비가 갑자기 몰려오더니 번개와 천둥이 섞여 일면서 집 뒤에 있는 큰 산이 무너져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황생이 황망히 달려 나와 보니 천지가 캄캄하여 지척을 분별할 수가 없어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과 같았다. 황생은 더욱 두려워졌다. 그는 생각하기를, 이것이 필연 천지개벽의 시작인가보다 하고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개벽을 하게 되면 사람이나 모든 물건이 다 없어지는 법인데 나는 이제 여기에서 빠져나왔구나. 옛날에 천황씨天皇氏는 사람이 생기기 이전에 태어났었다. 그 런 때문에 천황씨 노릇을 했던 것이다. 그러니 나도 마땅히 천황씨가 될 수 있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했다. 또 그는 생각하기를, "옛날 천황씨 때에는 아직 문자가 없었다. 그런데 나는 능히 문자를 알고 있다. 그러니 나는 옛날 천황씨보다 훨씬 나은 셈이다" 하고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다행으로 여겼다.
그러나 날이 밝고 비가 개자 천지와 산천山川은 한 가지도 변한 것이 없고, 오직 자기 집만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쓸려 무너져 그 자리를 찾을 길이 없었다. 황생은 이것을 보고 멍하니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이웃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그를 위로해 주었다.
황생은 그들에게 지난밤에 자기가 당한 일을 그대로 말하니, 이것을 듣는 자들이 허리를 잡고 웃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로부터 드디어 황생을 천황씨라고 불렀다 한다.

《송와잡설松窩雜說》에 이런 말이 있다.
중원中原의 칠가령七家嶺 서쪽 5리쯤 되는 높은 봉우리 위에 묘墓 하나가 있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환야산幻爺山이라고 한다. 통역하는 이가 말하기를, 옛날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 즉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북쪽을 물으면 남쪽을 가리킨다. 땔나무를 해오라 하면 돌을 지고 온다. 물을 떠 오라면 불을 켜가지고 온다.
그 아비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에게 부탁했다. "내가 죽거든 반드시 나를 높은 봉우리 위에 장사 지내 달라." 이렇게 말한 것은 평지에 장사 지내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반대로 말한 것이었다. 아비가 죽자 그 아들은 말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에는 좇지 않을 수가 없다" 하고 시키는 대로 높은 봉우리 위에 장사 지냈다. 그래서 이 산 이름은 자기 아비의 뜻을 바꾸었다는 데서 지은 이름이다.
옛날에 한 사나운 자식이 그 아비가 죽을 때 한 말을 좇아서 아비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모래를 긁어모아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나는 생각하기에, 지금 풍속에 사람을 욕하려면 반드시, "환야幻爺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여기에서 시작된 말인가 싶다.


권17

25. 인사부人事部

25-1 혼취昏娶

같은 성姓끼리 혼인하지 않는 것이 예禮이다. 옛날에는 그 사람의 성姓을 알지 못하면 이를 점쳐 보았다. 고려 때에는 국왕까지도 오히려 같은 성끼리 혼인했는데 더구나 토서土庶이겠는가. 본조本朝 사대부의 집에서는 한결같이 예법을 좇았고, 그중에서도 더욱 혼례를 삼갔다. 그러나 다만 성이 같고 본관本貫이 다른 자끼리는 이것을 같은 성이 아니라 해서 혐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이 일을 웃었다 한다.
선왕조先王朝 때 나는 옥당玉堂에 있었는데, 임금의 명령으로 역대의 부마駙馬들 중에서 같은 성姓이 있는지 없는지를 책에서 널리 상고해 보았다. 그런 사람은 오직 당唐나라 소종昭宗 때 이무정李茂貞의 아들이 공주公主에게 장가든 것뿐이었다. 그러나 무정의 성은 송宋으로서 이李씨로 사성賜姓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윤효손尹孝孫은 성묘조成廟朝 때 사람으로, 어려서 능히 글을 지었다. 그 아비가 의정부議政府 녹사錄事가 되어 이른 새벽에 상공相公의 집에 가서 명함을 내놓고 뵙기를 청했다. 그러나 문지기가, 주인은 아직 자고 있다 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늦도록 기다리다가 배고프고 피곤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재주가 없어 남에게 이렇게까지 욕을 당한다. 그러니 너는 모름지기 부지런히 공부해서 네 아비처럼 되지 말라"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효손孝孫은 그의 명함 끝에 글을 쓰기를, "정승의 단잠 깊어 해가 높다랗게 올랐는데, 문 앞에선 명함 종이 피도록 만지고 있네. 꿈속에 만일 주공周公을 만났으면, 그 당시 밥을 토하고 머리 쥔 채 손님 만나던 일 말했으리(相國酣眠日

正高 門前刺紙已生毛 夢中若見周公聖 須問當年吐握勞]"라고 했다.
이튿날 아침, 그 아버지는 또 그 정승을 만나러 가는데 부지중 어제 가지고 갔던 명함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내놓았다. 그의 명함을 들여다본 상공相公은 즉시 그를 불러들여 묻기를, "이 글은 네가 지은 것이냐" 했다. 그 아버지는 깜짝 놀라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그 명함에 쓴 글씨를 보니 효손孝孫의 필적이 분명했다. 이에 사실대로 말하자 상공은 효손을 불러오라 했다. 효손을 불러보니 총명하기 보통 사람과 달라, 상공은 이를 크게 칭찬하고 탄복했다.
이때 상공에게는 딸이 있어 마침 사위를 고르는 참이었다. 상공은 안으로 들어가 자기 부인을 보고, "나는 지금 좋은 사윗감을 얻었소" 하니, 부인은 이를 반대하면서, "우리 딸이 어찌 녹사錄事의 아들과 혼인을 한단 말이오"라고 했다. 그러나 상공은 이 말을 듣지 않고 마침내 그 딸을 효손에게 시집보냈다. 효손은 뒤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판서에 이르렀다.

25-2 생산生産

주周나라 문왕文王에게는 아들 10명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詩에 말하기를, "100명이나 남자가 있도다[則百斯男]"라고 하였으니, 이 시詩의 뜻은 아들이 많다는 것을 송축頌祝해서 한 말이다.
제齊나라 전상田常은 아들이 70여 명이 있었고, 한漢나라 중산왕승中山王勝은 아들이 120명이나 되었다. 명나라 경성왕慶成王은 고황제高皇帝의 손자로서 아들이 100명이나 있었다. 또 《사기史記》에 보면, 토곡혼吐谷渾은 선비鮮卑 모용외慕容廆의 형으로서 아들이 60명이나 있었다고 했다. 또 《포박자抱朴子》에 말하기를, 두자미杜子微는 아들이 140명이나 있었다고 한다.

예禮에, "남자를 낳으면 나무로 만든 활을 문 좌편에 걸고, 여자를 낳으면 차는

수건을 문 우편에 건다"라고 했다.
《안씨가훈顔氏家訓》에 보면, "남자를 낳아서 1년이 되면 새로 옷을 만들어 입히고 목욕 단장시켜 활과 화살과 종이와 붓을 벌여 놓고, 여자에게는 칼과 자와 바늘과 실 꾸러미를 벌여 놓는다. 이 위에 음식과 여러 가지 보배를 어린아이 앞에 늘어놓고 이 중에서 집는 것을 보아 그 아이의 장래를 징험한다"라고 했다.
《송사宋史》에 보면, "조빈曹彬은 첫 생일날에 왼쪽 손으로는 방패와 창을 들고 오른쪽 손으로는 도마와 접시를 들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도장 하나를 들었다. 그 나머지는 보지도 않았다"라고 했다. 수일晬日이란 한 돌 되는 날이다. 그러니 이것으로 본다면 습관과 풍속이 생긴 지가 대체로 오랜 것이다.

《보영집保嬰集》에 말하기를, "대체로 어린아이 때에 총명하고 민첩하기가 남보다 지나는 자는 대개 일찍 죽는다"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기에, 옛날엔 나면서부터 신령스러워서 스스로 제 이름을 말하는 자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과연 일찍 죽었던가? 혹은 말하기를, 성인聖人은 나면서부터 알아서 범인凡人들과 다르다고 하는데 이 말은 옳은 것이다.
백거이白居易는 난 지 7개월에 능히 글자를 알았고, 영호초令狐楚는 5세에 능히 글을 지었다. 그러나 어찌 이들을 요夭라고 말하겠는가.

《월절서越絶書》에 말하기를, "지혜로운 씨는 성聖을 낳고, 어리석은 씨는 광狂을 낳는다(慧種生聖 癡種生狂)"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그 떳떳한 일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고수瞽瞍가 순舜을 낳고, 곤鯀이 우禹를 낳고 요堯가 단주丹朱를 낳고 순舜이 상균商均을 낳은 것 같은 일은 어쩌다가 그리된 일이다.

사람이 처음 났을 때를 영아嬰兒라 하고, 3세를 소아, 10세를 동자童子라 한다. 15세를 성동成童이라 하고, 16세를 정丁이라 한다. 20세를 약관弱冠이라 하고,

30세를 장壯, 40세를 강彊, 50세를 애艾라고 한다. 또 60세를 기耆라고 하고, 70세를 모耄, 80세를 질耋, 90세를 황구黃耇, 100세를 기이期頤라고 한다.
또 1살에서 5살까지를 영해嬰孩라 하고, 7세 이하를 유자孺子, 10세 이하를 초친髫齔이라 하고, 14세 이하를 동관童丱이라 한다. 또 여자를 영嬰이라 하고 남자를 아兒라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해孩는 겨우 해骸가 이루어진 자를 말하는 것이요, 유孺는 사람에게 음식을 주어 기르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잡기雜記》에 말하기를, "남자는 낳으면 반드시 엎어지고 여자는 낳으면 반드시 자빠진다. 이것은 등을 양陽으로 삼고 배를 음陰으로 삼기 때문이다. 물에 빠져 죽은 자도 역시 남자는 엎어지고 여자는 자빠진다"라고 했다.
상고해 보면, 옛글에 말하기를, 서언왕徐偃王은 났을 때 자빠졌다고 한 말은 그 이상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담선談選》에 말하기를, "산 기운에는 남자를 많이 낳고 못 기운에는 여자를 많이 낳는다. 더운 기운에는 일찍 죽는 자가 많고, 추운 기운에는 오래 사는 자가 많다"라고 했다. 나는 말하기를, 산山은 간艮에 속하는데 간艮은 소남少男인 때문에 남자가 많고, 택澤은 태兌에 속하는데 태兌는 소녀少女인 때문에 여자가 많다. 더위는 허虛하고 흩어지기 때문에 일찍 죽는 자가 많고, 추위는 강剛하고 엉기기 때문에 오래 사는 자가 많은 것이니, 생각건대 아마 이와 같을 것이다.

동방東方 사람은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다. 그리고 가장 동쪽에는 여국女國이 있다. 중국 사람은 남자가 많고 여자가 적다. 그리고 북쪽 오랑캐도 역시 이와 같다고 한다. 이것은 혹 천지음양天地陰陽의 기운이 몰려 두꺼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나 아닐까.

옛날에 말하기를, “늙은이가 아이를 낳으면 그림자가 없다”라고 한다. 이것은 대개 정기精氣가 부족한 때문이란 것이다. 상고하건대, 한漢나라 진유인陳留人은 나이 90세에, 양梁나라 장원시張元始는 97세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림자가 없었다 한다. 또 송나라 조태曹泰는 나이 85세에 젊은 아내를 맞아 아이를 낳았더니 한낮에는 그림자가 없었다. 그러나 그 아들은 70세가 되어서야 죽었으며, 또한 그 자손들도 있었다고 하니 괴상한 일이다. 옛날 주周나라 무왕武王은 80세에 성왕成王을 낳았고, 근래에는 정승政丞 심수경沈守慶이 80에 가까워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런 자들은 어쩌다 있는 일들이다.

《패해稗海》에 말하기를, “남자로서 수염이 없는 자를 천환天宦[1]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이것은 양명陽明한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염이 나지 않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남자로서 비록 아내를 맞았어도 종신토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를 천혼天閹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반야경般若經》에서는 5가지 황문黃門[2]은 모두 진기眞氣가 부족한 때문이라고 했다. 또 《한서》에 보면, “황후荒侯는 병으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대체로 사람이 할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들이다.

《박물지》에 말하기를, “사사思士(사유국思幽國의 남자)는 아내가 없어도 감동하고 사녀思女는 남편이 없어도 아이를 밴다”라고 했다. 또 《물류상감지物類相感志》에 말하기를, “남자는 아내를 얻지 않고, 여자는 남자를 얻지 않고서도 정기精氣가 서로 감동하여 반드시 교접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는다”라고 했다. 이것은 올바른 말이 아닐 것 같다. 세상에 전하는 말에, 성成 모某의 어머니는 꿈에 남편을 만나보고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 또한 그런 따위의 말일 것이다.

1 날 때부터 자지 또는 불알이 없는 남자.

2 환관宦官의 별칭. 장가는 들었어도 종신토록 자식을 낳지 못하는 남자.

우리나라 사람은 형제들이 10명을 넘는 일은 몹시 드물다. 그러나 중국에 등과登科한 《방목榜目》[3]을 보면 형제가 30여 명이 되는 자가 가끔 있었으니, 인구人口가 번성한 것을 이것으로 넉넉히 추측할 수 있다.
별의 청기淸氣를 타고난 뛰어난 사람이 옛날부터 많았다. 소하蕭何는 묘성昴星의 정기를 타고났다. 동방삭東方朔은 세성歲星의 정기를 타고났다. 장량張良은 호성弧星에 감응해서 났고, 번쾌樊噲는 낭성狼星에 감응해서 났으며, 환현桓玄은 유성流星에 감응해서 났다. 조진趙晉은 자미소성紫微小星이 되었고, 소식蘇軾은 규성奎星이 되었다. 고려의 강감찬姜邯贊은 문곡성文曲星이 되었다. 또 부열傅說은 죽어서 열성列星이 되었다 한다. 제갈량諸葛亮 · 영호초令狐楚 · 한기韓琦 · 부필富弼 · 장준張浚은 모두 별이 떨어지면서 죽었다고 한다.

25-3 수요壽夭

우박虞摶은 말하기를, "사람이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모두 천명天命이 있는 것이다. 소위 천명이란 것은 천지와 부모의 원기元氣이니, 아비를 하늘이라 하고 어미를 땅이라 한다. 아비는 정精이고 어미는 혈血이니 그 왕성하고 쇠약한 것이 서로 같지 않은 까닭에 사람의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도 역시 서로 다름이 있다. 아이를 낳는 처음에 모두 왕성한 양쪽 기운을 받은 자는 중상中上의 수壽를 얻을 수가 있고, 한쪽만 편벽되게 왕성한 기氣를 받은 자는 중하中下의 수壽를 얻는 것이며, 양쪽 기운이 모두 쇠약한 것을 받은 자는 잘 보양保養하면 겨우 하수下壽를 얻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일찍 죽는 자가 많다"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기에, 이 말은 자못 이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부모의 원기元氣를 가지고 이것을 직접 천명天命이라고 하는 것은 천명을 성품이라고 하는 말

3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성명을 적은 책.

과 다르다. 《박물지》의 주註에 "갑甲과 인寅 해에 태어난 자는 성聖이니, 이는 역시 부모의 기운을 받은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불가佛家에서 나온 말인 듯싶다. 석가釋迦가 갑인년甲寅年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상고해 보건대, 이윤伊尹은 옥정沃丁의 시대에 죽었으니 수壽가 105세였고, 태공太公은 강왕康王 때에 죽었으니 그 수壽가 110세였다. 그러니 태공은 80년 동안 궁하게 지냈고, 30년 동안 달達한 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완위여편宛委餘編》에서는 태공의 수壽를 136세라고 했다.

《설부》에 말하기를, "공자孔子는 경술년庚戌年 2월 23일 갑신甲申에 났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곧 노魯나라 양공襄公 22년이요, 주周나라 영왕靈王 21년이다. 그러나 《사기史記》〈세가世家〉에는 말하기를, "공자孔子는 경술庚戌 12월 경자庚子에 났다"라고 하였으니 이것과는 같지 않다. 또 말하기를, "공자는 애공哀公 16년 임술壬戌 4월 기축己丑에 졸卒했다"라고 했다. 내가 상고해 보건대, 주자朱子도 또한 경술庚戌에 났고, 수壽는 공자보다 2살이 적었다.

《격치총서格致叢書》에 말하기를, "소공석召公奭은 나이 190여 세에 죽었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보면, 그 수壽는 문왕文王·무왕武王이나 주공周公보다도 많았다. 그런데 《마사馬史》에는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으니 무슨 까닭인가.

《격치총서》에 "맹자는 주周나라 난왕赧王 26년 11월 15일에 졸하니 수壽는 84세이고, 맹중자孟仲子의 이름은 고睾인데 맹자의 아들이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맹자가 양梁나라 혜왕惠王을 만난 것은 주周나라 현왕顯王 33년이니, 이때와의 상거相距는 46년이 된다. 대체로 이때에 맹자의 나이 38세였는데도 양혜왕이 맹자에게 수叟라고 일컬은 것은 덕이 높다고 하여서이다.

옛날부터 대신大臣으로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주周나라 이상으로는 말하지 아니하고, 한漢나라 장창張蒼은 100여 세요, 촉한蜀漢의 범장생范長生은 130세요, 원위元魏의 나결羅結은 120세요, 송나라 문언박文彦博은 91세이다. 명나라에 이르러서는, 대신 위기魏驥가 98세, 유건劉健은 95세, 왕서王恕는 93세이고, 그 외에도 80세 이상인 자는 여럿이니, 이것은 모두 수양修養의 힘으로 되는 것일까.
상고하건대 《송사宋史》에 일본 대신大臣 기무내紀武內는 나이 307세였다고 하니 또한 이상한 일이다.

당唐나라 장군 장만복張萬福은 나이 90세에 죽었으니 나라의 녹祿을 70년 동안 먹었는데 일찍이 하루도 병이 들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니, 가위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홍유손洪裕孫은 세조世祖 때 사람이다. 남양南陽의 공생貢生(교생校生)으로서 진사進士에 올라 김시습金時習과 사귀었다. 그의 시詩에 말하기를, "내가 전생前生에 나기는 단군檀君 선조 무진년戊辰年이었고, 기자箕子 나라를 눈으로 보았으니 그 이름 마한馬韓이라 했네. 오로지 영랑永郞과 함께 수부水府에 놀았더니, 또 봄 술을 차고 와서 인간에 머무르네〔生先檀帝戊辰歲 眼及箕王號馬韓 聊與永郞遊水府, 又牽春酒滯人間〕"라고 했다.
유손裕孫은 나이 76세에 아내를 얻어 80에 이르러 비로소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은 지성志誠이다. 지성은 역시 그 아버지의 학문을 이어받았고, 만력萬曆 정유년丁酉年에 나이 80으로 왜적에게 해를 입었다. 부자父子의 나이를 합치면 160세이니 또한 이상한 일이다.

과거에 급제해서 60년을 넘겨 산 자는 오직 판서判書 송순宋純으로, 정덕正德 기묘己卯에 급제해서 만력萬曆 기묘己卯에 이르렀으니 그 나이가 87세였다. 2

번째 경연慶筵을 베푸니 사람들이 이것을 기이한 일이라 했다. 그는 90여 세에 졸했다. 지금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 윤근수尹根壽는 나이 22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80에 이르렀는데도 병이 없었으니, 역시 세상에 드문 일이다.

영의정領議政 홍언필洪彦弼의 부인 송宋씨는 곧 영의정 질軼의 딸이다. 아들 홍섬洪暹도 역시 영의정이 되었다. 부인은 나이 94세에 죽었는데, 그때 홍섬의 나이는 77세였다. 노소재盧蘇齋의 시詩에 말하기를, "세 번 좇아〔三從〕[4] 정승 집 문 밖을 나가 보지 않았으니, 이런 일 지금 세상엔 처음 있는 일일세〔三從不出相門闈 此事如今始有之〕"라고 했다. 또 시詩에 말하기를, "한 덕德으로 세 번 좇으니 모두 정승의 귀한 자리에 올랐고, 100년에서 6년 모자라니 오랜 수壽를 누렸네〔德從三上台貴, 百年除六老星尊〕"라고 했다.

재신宰臣 중에 나이 가장 많은 자로서 근세에는 판부사判府事 원혼元混이 있으니, 그 나이 94세였고, 판부사 송질宋質은 93세였다. 동지同知 신발申橃은 94세에 죽었고, 그의 부인은 동지同知 이거李蘧의 어머니로 103세에 죽었다. 도사都事 박선장朴善長의 어머니는 지금 98세이다. 또 제주濟州 사람으로서 현재 100세歲 이상 된 자가 10여 명이나 되는데, 속담에 말하기를, '이곳은 노인성老人星이 가까워서 수壽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지금 맹산孟山에는 백성 중에 130세 된 자가 있고, 대구大丘에는 112세 된 사람이 있다. 강릉江陵 · 안변安邊 · 영덕盈德 · 이천伊川에도 역시 수壽하는 사람이 많아서 수향壽鄕이라고 한다.

소동파蘇東坡가 말하기를, "눈썹에 긴 털 난 것이 귀에 긴 털 난 것만 못하고, 귀에 긴 털 난 것이 늙어서 밥 잘 먹는 이만 못하다〔眉毫不如耳毫 耳毫不如老饕〕"라고 했다. 이것은 노인으로서 음식을 즐기는 자가 가장 오래 사는 상相이라는

4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를 좇고, 시집가면 남편을 좇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좇는 부덕婦德.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몇 사람의 노인을 보건대, 음식은 퍽 조금씩 먹어도 모두 오래 사니 말이다.
나는 생각하기에, 노도老饕란 반드시 많이 먹는다는 말이 아니고, 먹는 분량이야 많고 적고 간에 늙어서도 잘 먹으면 이는 위胃의 기운이 건강하여 이것이 수壽할 증거라는 말이다.

상고하건대 왕자진王子晉은 17세에 죽었고, 진백무陳伯茂는 18세에 죽었다. 원저袁著는 19세, 형거실邢居實은 20세, 왕적王寂은 21세, 서분徐份은, 22세, 유굉劉宏은 23세, 왕필수王弼修 · 하자랑何子郞은 24세, 원탐袁耽은 25세, 이형禰衡은 26세, 이하李賀 · 위개衛玠 · 왕융王融은 27세, 육궐陸厥 · 최장겸崔長謙은 28세, 왕발王勃 · 이관李觀은 29세, 완첨阮瞻은 30세, 양소명梁昭明은 31세, 안연顔淵 · 육속陸績 · 노순盧詢은 32세, 가의賈誼 · 범방苑滂은 33세, 육염陸琰은 34세, 사첨謝瞻은 35세, 사조謝眺 · 유염劉琰은 36세, 사회謝晦 · 사혜련謝惠連은 37세, 왕민王珉 · 왕검王儉은 38세, 왕몽王濛 · 하경명何景明은 39세, 혜강嵇康 · 구양첨歐陽詹은 40세에 죽었으니, 옛날부터 재주 있다는 이름이 특히 뛰어난 사람으로서 일찍 죽은 사람이 어찌 하나둘이겠는가?

《태산방胎産方》에 말하기를, "제 달을 넘겨서 출생한 자는 부귀하고 오래 살며, 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출생한 자는 가난하고 천하고 일찍 죽는다"라고 했다.
나는 상고하건대, 명나라 학사學士 송염宋濂, 우리나라 판서判書 윤국형尹國馨은 모두 8개월 만에 났으며, 상당上黨 한명회韓明澮는 7개월 만에 났어도 모두 부귀를 누렸고, 또 오래 살았다. 그러니 반드시 그 말대로도 아닌 것이다.

국조國朝의 문인文人이나 재자才子로서는 오래 살고 귀하게 된 자가 드물다. 망헌芒軒 이주李胄 · 탁영濯纓 김일손金馹孫 · 읍취헌挹翠軒 박은朴誾 · 금호錦湖 임형수林亨秀 같은 사람들은 모두 나이 30세 전후에 제 명에 죽지 못했다. 또 근세

의 하곡荷谷 허봉許篈 · 백호白湖 임제林悌는 모두 38세에 일찍 죽었으니 아까운 일이다.

25-4 질병疾病

편작扁鵲(춘추시대春秋時代의 명의名醫)이 말하기를, "월인越人(편작扁鵲을 이름)은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을 월인은 능히 일어나게 할 뿐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마땅히 살아나지 못할 사람은 편작으로서도 역시 일으킬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더구나 후세의 용렬한 의원醫員이겠는가. 용렬한 의원이 약을 쓰는 것은 비단 마땅히 살 수 있는 사람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죽지 않을 사람도 또한 죽게 하고 있으니, 어찌 삼갈 일이 아니겠는가.

당唐나라 허윤종許胤宗이 말하기를, "의醫란 것은 생각하는 것이니, 생각하는 것이 정밀하면 이것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나의 뜻으로 해득하는 일도 입으로는 말을 하지 못한다. 옛날의 상의上醫는 병과 약이 맞아서 오직 한 가지 물건만 써도 병을 고칠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병을 짐작하기 때문에, 약도 여러 가지 써야 다행히 공을 이루게 되니, 그 의술이 시원치 않은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문장文章의 묘한 곳을 말하기는 의술보다도 더 심한 데가 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쉽게 말하고 있으니 또한 소홀하지 않은가.

주단계朱丹溪는 말하기를,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우선 병근病根을 없앤 뒤에 몸조리를 잘해야 하는 것이다. 마치 이것은 옷을 바래는 것과 같아서, 먼저 때를 뺀 뒤에 곱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지난해에 이국필李國弼이란 자가 있었다. 그는 여러 가지 약방문藥方文을 알지

못하면서도 병든 사람을 만나면 한열寒熱이나 허실虛實을 묻지도 않고 모두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으로 이것을 고치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이보중李補中이라는 호를 지어 불렀다. 혹시 효험을 보는 자도 있기는 했지만, 사람을 그르치는 일이 또한 많았다.

옛날에 장대인張戴人이 말하기를, "양생養生과 병을 치료하는 것은 근본부터 같은 일이 아닌데, 지금 사람들은 보약補藥으로 병을 고치고 있으니 효험 없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다. 이 말이 옳은 것 같다.

손사막孫思邈이 말하기를, "약의 기운은 어느 한쪽만 편벽되게 도와주기 때문에 사람의 창자를 불평하게 만든다"라고 했다.

또 장고張皐는 말하기를, "생각하는 것이 맑고 깨끗하면 혈기血氣도 화평하고, 욕심이 지나치면 병이 생긴다. 병이 있을 때에는 약으로 병을 고칠 것이요, 병이 없으면 약을 먹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설혹 병이 있더라도 오히려 약 먹는 일을 조심해야 할 것인데, 더구나 병이 없을 때이겠는가"라고 했다.

나겸보羅謙甫는 말하기를, "병이 없는데 약을 먹는 것은 벽 속에 기둥을 덧붙여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또 왕륜王綸은 말하기를, "약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자는 이것을 약에 상했다고 한다"라고 했다. 의가醫家에서는 말하기를, "약을 쓰는 것은 군사를 쓰는 것과 같아서, 마지못해 이것을 써서 적을 막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어찌 조심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벽 속에 기둥을 세운다는 말을 또는 벽속에 쥐덫을 놓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소설》에 보면 병을 물리치는 법이 있다. 대략 말하기를, "조용히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일체의 생사生死 · 시비 · 이해득실을 비추어 보면, 모두 망령된 일이고 참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그 첫째이다. 모든 번뇌煩腦가 앞으로 다가와서 보이는데, 이것을 없애지 못하게 되면 마땅히 화창하고 쾌한 일을 찾아

서 이것으로 하여금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그 경계境界를 빌어서 마음을 조정하는 법이니, 이것이 그 둘째이다. 항상 나만 못한 사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달래는 법이 있으니, 이것이 그 셋째이다. 조물주가 평소의 나의 삶을 수고롭게 하면 병이 들었을 때에 고통이 덜하여서 도리어 경사스럽고 다행하니, 이것이 그 넷째이다. 날마다 대나무나 돌 · 물고기 · 새와 더불어 서로 친하고 보면, 항상 여유 있게 자득自得하는 취미가 있게 될 것이니, 이것이 그 다섯째이다. 바람과 추위를 조심하고, 음식을 절제 있게 먹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깨끗이 하여 생각을 줄이고, 거닐며 앉고 눕는 것을 오직 편안히 하는 것이 그 여섯째이다. 높은 친구와 친한 벗을 찾아 흉금을 터놓고 세상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일곱째이다. 병이 있어도 괴로워하지 말고, 죽는 것을 근심하지 말며 항상 마음을 너그럽고 평안하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 그 여덟째이다"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건대, 이 말들대로 과연 잘 행하면 이것은 오직 병을 물리칠 뿐 아니라, 성품을 기르고 수壽를 늘이는 가장 좋은 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격치총서格致叢書》에 말하기를, "마마란 병은 한漢나라 광무光武 때부터 시작되었다. 마원馬援이 남정南征했을 때 오랑캐들의 마마에 옮았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 의방醫方에는, "천포창天疱瘡(천연두天然痘)은 정덕正德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전염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역시 옛날에는 이런 병이 없었으니, 서역에서 온 병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병이란 후세에 와서 나타난 것이 또한 많다.

근래에 계축癸丑 · 갑인년간甲寅年間부터 일종의 시열時熱이 있어 병 증세가 몹시 혹독해서 죽는 자가 매우 많았다. 이것을 사람들은 당독역唐毒疫이라 하는데, 이 병 역시 전에는 없던 것으로서 의원들은 이것을 옥온獄瘟이라고 한다.

학질瘧疾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이는 시속時俗의 아주 떳떳하

지 못한 습관이다. 그러나 상고해 보건대, 고력사高力士는 학질을 공신각功臣閣 아래에서 피했다고 했다. 또 두시杜詩에 보면, "3년 동안 학질을 앓고 있으니 귀신 하나가 없어지지 않네. 헛되게 빈 땅에 숨어서, 여러 번 곱게 단장하는 것이 부끄럽구나〔三年猶瘧疾 一鬼不銷亡 徒然潛隙地 有靦屢鮮粧〕"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속박물지續博物志》에 말하기를, "학질의 귀신은 거인巨人에게는 덤벼들지 못한다. 그런 때문에 장사壯士는 학질을 앓지 않는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한漢나라 경단景丹이 학질을 앓자 광무제光武帝가 말하기를, "나는 듣건대 장사는 학질을 앓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대장군은 어찌해서 학질을 앓는가"라고 했다. 그 말은 오래된 말이다. 또 세설世說에도 군자는 학질을 앓지 않는다고 한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세상에는 이상한 병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은 물건이 모두 굽게 보이고 활시위나 자 같은 따위는 모두 갈고리처럼 보인다"라고 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는 이러한 병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소설》에 말하기를, "어느 사람이 창자가 가려운 병을 얻어, 이따금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웃는 일이 있었다. 그런 지 수년 만에 이 병을 고쳤다"라고 하였는데, 이 병은 옛날 사람에게도 거의 없는 병이었다.
근년에 유 공柳公 조인祖訒은 나이 70여 세에 병을 얻어 사람을 보기만 하면 문득 웃기 시작하여 그치지 못했다. 그런 지 얼마 안 되어 죽었으니 이 또한 괴상한 병이다.

상공相公 심수경沈守慶은 나이 60여 세에 상중喪中에 이질에 걸려 몹시 괴로워했다. 100가지 치료도 효험이 없었다.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고자 하는데 의

원이 이를 금했다. 공은 생각하기를, 죽기는 일반이라 하고 냉수 한 사발을 단숨에 마셨더니 병이 금시에 나았다.
또 한 재상은 이질에 걸려 몹시 심한데 앵두를 먹고 싶은 생각이 났다. 그 자제들이 이를 힘써 간해 말렸다. 그러나 그는 밤중에 가만히 앵두나무 밑에 가서 마음 놓고 따 먹었더니 금시에 그 증세가 없어졌다.
또 어떤 늙은 부인 하나는 이질이 몹시 심해서 죽게 되었다. 의원이 가르쳐주기를, 황련黃連(깽깽이풀) 7냥쭝을 달여 먹으면 곧 나을 것이라 했다. 대개 병을 고치는 것은 일정한 법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다.

양생서養生書에 말하기를, "양치질한 물로 아침마다 눈을 씻으면 밤에도 글자를 볼 수 있다"라고 했다.
또 《소설小說》에 말하기를, "일찍 일어나서 양치질한 물을 삼키기를 오래 하면 능히 편추偏墜[5]를 고친다"라고 하였으나 이 이치는 알 수가 없다.

25-5 사망死亡

모든 물건은 살아 있을 때는 부드럽고 죽으면 뻣뻣해진다. 그런 때문에 노자老子가 말하기를,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산 것의 무리이다"라고 했다. 심지어 사람의 성품에 있어서도 부드러우면 사는 도리가 있고, 강하면 죽는 도리가 있는 것이니, 그 이치는 한 가지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유由는 정상正常한 죽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효경孝經》〈원신계援神契〉에 말하기를, "태산太山은 천제天帝의 손자로서 사람

5 병 이름. 한 쪽 불알에 염증이 생겨 커지고 늘어지는 병. 산병疝病의 일종.

의 영혼을 주장해 부른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유정劉楨의 시詩에 말하기를, "항상 태산泰山에 노는 것을 두려워한다〔常恐遊岱宗〕"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병이 위태로워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에 죽은 자를 유대遊岱라고 하는 것은 대개 여기에 근본이 있는 것이다.

나는 것〔生〕은 죽음의 시작이요, 성盛한 것은 쇠衰하는 것의 발단이다. 영화스러운 것은 욕되는 일의 조짐이요, 얻는 것은 잃는 것의 원인이다. 그런 때문에 나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성盛하면 반드시 쇠衰함이 있고, 영화스러우면 반드시 욕됨이 있고, 얻으면 잃게 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정당한 이치로서, 어리석거나 지혜가 있거나 간에 아무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 어두운 사람은 매양 살면서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성盛한 데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를 그칠 줄 알지 못하고, 영화를 탐내 피할 줄 알지 못하고, 얻는 것만 힘쓰고 경계할 줄 모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강절선생康節先生의 시詩에 말하기를, "태평한 세상에 태어나고 태평한 세상에 자라나서, 태평한 세상에 죽었네. 손이 와서 나이가 몇이냐고 물으니, 67세라고 대답하네.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굽어봐도, 호연하게 홀로 부끄러움이 없네〔生于太平世 長于太平世 死于太平世 客問年幾何 六十有七歲 俯仰天地間 浩然獨無愧〕"라고 했다.
대체로 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것은 사람의 4가지 변하는 이치이다. 그런데 선생은 태평한 세상에 나서 또 태평한 세상에 죽어, 하늘이나 땅을 대해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니 어찌 쾌활한 일이 아니겠는가.

소자첨蘇子瞻의 글에 말하기를, "생각하건대 사람이 나면 모두 돌아가게 마련이다. 비록 100년이라도 반드시 돌아갈 날은 오고야 만다. 그러나 오직 글만이 남아 썩지 않고, 아들이 있어 죽지 않는다"라고 했다. 나는 말하기를, 자첨

子瞻은 통달한 사람이 아니로다. 죽는다는 것은 즉 돌아가는 것이니, 돌아가면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진실로 아무것도 없게 되면 이 몸도 또한 내 몸이 아닌데, 글이니 아들이니 하고 말할 것이 되지 못한다.
도연명陶淵明이, "죽어서 돌아가 천명天命을 즐길 것을, 무엇을 다시 의심하랴" 라고 하였으니, 바야흐로 통달한 사람의 말이라 하겠다.

동파東坡는 말하기를, "유총劉聰은 수차국須遮國의 임금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다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람이 부귀富貴를 사랑하기를 사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달이 소미성少微星을 범하자 오吳나라 고사高士들은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했다. 또 사람이 명예를 좋아하기를 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가 있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말세末世의 사람들은 이름을 좋아하는 자가 적다. 그러나 부귀에 대하여는 죽고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구한다. 이것은 또 이름을 좋아하지 않음이 지나친다.

상말에 말하기를, "날 때에는 한 가지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고, 죽을 때에도 한 가지 물건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것은 참으로 통달한 사람의 말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말한다면, 내 한 몸 이외의 만 가지 일이나 만 가지 물건이 모두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끝을 연구해 보면 내 한 몸도 또한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몸을 괴롭게 하여 모든 물건을 여기에 모으게 하고, 죽는데 이르러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홀로 무슨 마음일까. 그런 때문에 말하기를, "본래 아무 물건도 없는데 그 어느 곳에 티끌이 있단 말인가〔本來無一物 何處有塵埃〕"라고 한 것이다.

25-6 상장喪葬

기記에 말하기를, "친상親喪은 외제外除하고, 형제상은 내제內除한다. 외제란 세월이 지났으나 슬퍼하여 잊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내제란 세월이 다하지 않았는데도 슬퍼하는 것을 그친다는 말이다. 이것은 《패사稗史》에서 나온 말이다.

《단궁檀弓》에 말하기를, 담사禫祀(대상大祥을 지낸 그 다음 달에 지내는 제사) 뒤 달을 넘기면 풍악을 듣는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노魯나라 사람에 아침에 대상大祥을 지내고 저녁에 노래하는 자가 있어서 공자孔子는 말하기를, "달이나 지났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했다. 또 공자는 말하기를, "대상을 지내고 10일이 되면 음악과 노래를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공자가 이미 말하기를, "달을 지내고 나면 노래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는데 어찌 아직 담사도 지내지 않았는데 음악을 하고 노래하라고 말하는 이치가 있겠는가? 이것은 의심스러운 일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의 일생은 슬퍼할 때와 즐거울 때가 서로 반반씩이다. 부모와 처자를 천륜天倫이라고 하는데, 서로 만난 지 얼마 안 되어서 혹 먼저도 죽고 나중에도 죽으니, 이것을 슬퍼하지 않는 자는 드물다. 만 가지 물건은 끝내 돌아가는 것, 석씨釋氏가 그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보아서 정히 누累되는 일을 남기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기에, 이 말은 한창려韓昌黎가 말한 "망령된 것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송나라 신종神宗이 상복喪服을 아직 벗기도 전에 백관百官들이 동지冬至의 표하表賀(표문表文을 올려 축하함)를 올리려고 했다.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말하기를, "절서節序가 변천하여 이때에 어버이를 생각함

이 바야흐로 간절한 바가 있으니, 청컨대 하賀를 고쳐서 위慰로 하자"라고 했다. 상복喪服을 벗고 나자 유사有司들은 또 장차 잔치를 베풀고 풍류를 벌이고자 하매, 이에 선생은 잔치를 그만두기를 청했다.

융경隆慶 기사년己巳年에 명묘明廟의 담제禫祭 때에 율곡栗谷 이이李珥는 홍문교리弘文校理로 있었다. 그는 상제喪制가 겨우 끝났는데 하례賀禮를 받게 하는 것은 정례情禮에 미안한 일이라고 해서 이에 글을 올려 위례慰禮를 행하고 하례賀禮를 중지하라고 청했으니, 이것은 곧 이천伊川의 뜻이다.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지금 사람들이 거상居喪하는 것은 옛사람과 다르다. 졸곡卒哭이 지나면 드디어 그때 묻은 그 최복衰服을 입을 뿐, 출입하는 것이나 거처와 언어 · 음식이 모두 평시에 하던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했다. 음식이 평일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곧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 상제喪制가 허물어진 것은 송나라 때에 있어서도 오히려 이와 같았는데, 하물며 지금 세상이겠는가.

《오례의五禮儀》에 보면, 대왕의 상喪에는 졸곡卒哭 뒤에 백관들이 옥색 단령團領에 오사모烏紗帽(관복冠服을 입을 때 쓰는 것으로 사紗로 만든 벼슬아치의 모자)를 쓰고, 검은 각대角帶(관리의 예복에 쓰던 띠)를 띤다고 했다. 그런데 선조宣祖 대왕大王의 상喪 때에는 조정 의논으로 결정해서, 졸곡卒哭 뒤에도 백관들이 최복衰服을 입고, 소상小祥 뒤에는 연복練服(소상小祥이 지나고 나서부터 담제禫祭 전에 입는 상복)을 입은 채 3년을 지냈다. 혹은 최복의 몸으로서도 고기를 먹고 형벌을 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한다.

전조前朝 때에 시중侍中 최승로崔承老가 죽자, 국가에서 포목 1,000필, 쌀 500석石, 보리 200석, 차茶 200각角, 유향乳香 200근斤을 부의했다. 시중侍中 한언공韓彦恭이 죽자 쌀 500석, 보리 300석, 포목 1200필, 차 200각을 부의했

다. 평장사平章事 최원崔沅이 죽자 비단 300필, 포목 500단端, 쌀과 보리 각각 1,000석을 부의했다 한다. 그러니 그 부의한 물건의 많고 후한 것과 물력物力이 풍부했던 것이 본조本朝에서는 따라갈 바가 아니었다.

《동각잡기東閣雜記》에 말하기를, "세종조世宗朝에 좌의정 유정현柳廷顯과 우의정 유관柳寬이 죽자, 모두 흰 도포에 오사모烏紗帽를 쓰고, 검은 각대角帶를 띠어 백관을 거느리고 금천교金川橋 밖에 나가 악차幄次(임금이 거둥 때 쉬도록 장악을 둘러친 곳)에서 거애擧哀(장례 또는 납관納棺 뒤 관棺 곁에 서서 곡성哭聲을 내는 예禮)했다"라고 했다.

중묘조中廟朝에는 좌상左相 신용개申用漑가 죽자 예법에 의해서 거애하려 하자, 대신大臣과 예관禮官들이 의논하여 이것을 중난重難하다 해서 행하지 못했다. 그 뒤에 조정암趙靜菴이 임금에 뵙고 아뢰기를, "듣자옵건대 유관柳寬이 죽었을 때 세종世宗의 곡哭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다 하오니, 이것은 지금까지도 듣는 자들이 송구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전일前日에 하교하신 뜻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대신大臣들은 이것을 별전別殿에서 행할 수 없다 하여 전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심한 일이옵니다"라고 했다 한다.

상고하건대, 옛날부터 인군人君이 그 신하된 사람의 초상에 가서 조상하고 거애擧哀하는 예법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진 지 이미 오래니 어찌 예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랴.

우리나라 옛 풍속에, 사대부는 친상親喪에 여묘廬墓하고 3년을 마친 연후에 혼을 방으로 도로 모셨으니 아무리 병으로 쇠약한 사람이라도 역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 수십 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선비들이 자못 성리性理의 학문만을 숭상하여 상제喪制는 한결같이 예문禮文을 좇아서 장사 지내고 나면 곧 반혼返魂하고 다시 여묘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도를 엄하게 지키는 것도 혹은 전일만 못하다. 그래서 이것으로써 삼가지 않는다는 꾸지람을 듣는 자도 있으니 탄식

할 일이다.

《잡설雜說》에 말하기를, "곽자위郭子儀는 30년 동안 시마복緦麻服도 입어보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것은 아마 그 사람의 복이 많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으로서, 꼭 그랬을 이치는 없을 것이다.

서유자徐孺子가 남의 빈소에서 닭고기와 술만 올리고 가버리고 상주喪主는 보지 않았다.
이에 퇴계退溪 선생이 말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죽은 사람만 알고 산 사람은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했다.

퇴계 선생이 말하기를, "옛사람은 심지어 수질首絰[6]과 요질腰絰[7]까지 하고 가서 조상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잡된 옷을 입고 가서 조상하니 이것은 풍속의 폐단이다. 비록 소관素冠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흰옷에 흰 띠는 매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상고해 보건대 《여씨향약呂氏鄕約》의 조례弔禮에 보면, 초상 때는 심의深衣[8]를 입고 가서 조상할 것이며, 이미 성복成服한 뒤면 흰 복두幞頭와 흰 난삼襴衫에 흰 띠를 두르곤 하는데, 이것은 모두 흰 비단으로 한다고 쓰여 있다.

《가례家禮》〈성복成服〉조에 보면, "남자로서 남의 뒤를 잇는 자와 여자로서 시집간 자는 그 사친私親을 위해서는 모두 복服 1등을 감한다. 또 사친이 이들을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6 상제가 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두르는 짚과 삼베로 만든 띠.
7 상복을 입을 때에 허리에 띠는 띠. 짚에 삼을 섞어서 굵은 동아줄처럼 만들었다.
8 옛날에 귀인貴人이 입던 제복制服의 한 가지. 윗도리와 아랫도리가 붙었음.

이것은 본종本宗(동성동본同姓同本의 일가붙이) 오복五服[9]을 가리켜 말한 것이요, 외족外族은 감한다는 구절이 없다.

상고하건대, 《의례儀禮》의 〈상복喪服〉편 주소註疏에 보면, "다른 성姓은 복에 변동이 없다. 이것은 대개 성이 다른 사람의 복服은 이미 본종에 비하여 강등하고 있는 것인데 또 강등하면 복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또 《가례》에 보면, 종부從父(형제兄弟의 아내)에게는 복이 없다. 그러나 《가례》〈정형正衡〉에는 말하기를, "종부는 시마복緦麻服이다"라고 했다. 《오례의五禮儀》와 《고사촬요攷事撮要》의 복식服式에는, 사촌형제의 아내는 시마복이라고 했다. 그러니 예법을 배우는 자는 익히 공부해서 이것을 행해야 할 것이다.

신라 문무왕文武王은 왜적의 침입을 근심해서 죽을 때에 맹세하기를,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리라" 하고 유명遺命으로 그 시체를 동해 물 가운데에 장사 지내게 했다. 신문왕神文王이 부왕父王을 추모하여 대臺를 쌓고 바라보니 과연 용이 나타나 보였다. 그래서 그 대를 이견대利見臺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말은 허탄해서 확실히 믿을 수는 없다. 그러나 문무왕을 바다 가운데에 장사 지낸 것만은 역사에 징거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왕의 본심이 생민生民들을 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 왜적이 우리 변방을 침범하는 근심거리가 된 것도 역시 오래된 것이다.

사문斯文 하응림河應臨은 동파東坡의 시詩를 매우 좋아했다. 그 시 한 질帙을 손수 베껴서 자기가 죽을 때 명하여 순장殉葬[10]하게 했다.

오산五山 차천로車天輅는 평생 칼을 좋아해서 항상 칼 2자루를 가지고 있다가,

9 다섯 등급의 상복. 참최斬衰 3년, 자최齋衰, 주년周年, 대공大功 9개월, 소공小功 5개월, 시마緦麻 3개월.

10 흙으로 만든 수레나 풀로 만든 허수아비, 그 밖의 물건을 죽은 사람의 옆에 묻는 일. 또는 임금이나 남편의 장사에 신하나 아내를 산 채로 함께 장사하는 것.

죽을 때 같이 묻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니 이것은 모두 물건을 사랑해서 한 버릇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하 사문河斯文이 동파東坡의 시를 좋아하는 버릇은 더욱 알 수 없는 일이다.

주반周磐이 《요전堯典》 한 편을 베껴서 관 앞에 놓고 성현聖賢의 도道를 잊지 못해 하던 것과는 다르다.

일본 풍속에는, 사람이 죽으면 곧 귀하고 천한 것을 가리지 않고 시체를 불태운다. 그리하여 귀한 사람은 그 재를 금은金銀으로 만든 궤 속에 넣어 산속에 방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간수해 둔다. 그 부모가 죽었을 때는 상복喪服을 석 달 동안 입고 벗는다 한다.

중국 이외에 한결같이 주문공朱文公의 가례家禮에 좇는 것은 오직 우리나라뿐이다. 그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매우 칭찬한다.

내가 일찍이 중국 도성에 가서 보니, 한 유사儒士는 자기 아버지가 죽어 아직 장사 지내지 않았는데 관 앞에 의자를 놓고 객客과 함께 걸터앉아서 술과 고기를 먹으면서 태연하게 담소談笑하고 있었다. 그러니 중국 상제喪制가 허물어진 것을 또한 알 수 있었다.

25-7 제사祭祀

《효경위孝經緯》에 말하기를, "사社는 토지의 주인이다. 땅이 넓어서 이루 다 공경할 수가 없다. 그런 때문에 흙을 봉해서 사社라고 하고, 그 공을 갚는 것이다. 또 직稷은 오곡五穀의 어른이니, 곡식이 많아서 이루 다 제사를 지낼 수가 없다. 그런 때문에 직신稷神에게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라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社를 국사國社라 하여 구룡句龍을 여기에 배향하며, 직稷을 국직國稷이라 하여 후직后稷을 배향시켰다.

상고하건대 《사시事始》에 말하기를, "구룡句龍과 후직后稷은 상商나라 이후로부

터 제사 지낸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배향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니 이것은 곧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제도가 아니다.

범지능范至能의 제조사祭竈詞에 말하기를, "사내아이가 잔을 올리면 계집아이는 피한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부엌(竈)에 제사 지내는 데에는 반드시 부인을 피한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조신竈神은 항상 매달 그믐날이면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의 죄상을 아뢰고, 또 기축일己丑日 묘시卯時에 하늘에 올라간다. 만약 이날에 제사를 지내면 복을 받는다"라고 했다. 중국 사람들은 모두 부엌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주자朱子는 조신을 제사 지내는 글을 《가례》에 실었다. 마땅히 의절儀節을 모방해서 행할 것이다.

구선臞仙이 말하기를, "신에게 제사하여 자식을 구하는 것은 본래 더러운 일이다"라고 했다. 송나라 휘종徽宗이 아들을 구하는 글을 상제上帝에게 올려 청했더니 상제는 말하기를, "어찌 음란하고 더러운 일을 가지고 천신天神에게 아첨하느냐. 오직 음덕陰德을 두어서 천심天心에 맞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하기를, 이 말은 비록 허탄하다 하겠으나 실지는 정당한 이치에 맞는 말이다. 휘종徽宗은 임금답지 않은 사람으로서 거짓하고 속이는 것을 마음대로 했으니 그 방자함이 심한지라, 상제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소격서昭格署는 도교道敎의 의식에 따라 별을 제사 지내고 기도드리고 초제醮祭 지내는 곳이다. 중묘조中廟朝 기묘己卯에 여러 어진 사람들이 조정에 가득했다. 삼사三司가 이 소격서 없애기를 청하여 대궐 앞에 엎드려 힘써 다투었으나, 임금이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 대간臺諫이 기어이 청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물러가지 않고 밤을 새우니, 임금이 비록 어쩔 수 없어 억지로 따랐으나 마음으로는 더욱 그들을 싫어했다. 얼마 뒤에 여러 어진 사람들이 죄를 얻

게 되니 소격서는 마침내 없애지 못했다.
이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묘의 화禍는 이 일에서 싹튼 것이라 한다. 그 뒤 임진년壬辰年 병화兵火 뒤에 없앤 채 다시 복구되지 않았다. 이는 역시 성명聖明이 옳지 않은 도道는 숭상하지 않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이율곡李栗谷이 옥당玉堂에 있을 때 임금이 그에게 명해서 마니산摩尼山 초청사醮靑詞를 지어 올리라고 했다. 이에 공은 글을 올려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이미 그것이 도리에 어긋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감히 간관諫官에게 지어 올리라고 강요하지 못하시고 이에 소신小臣에게 명령하십니까. 간관도 도에 어긋난 것으로 임금을 섬기지 않는데 강관講官은 오히려 도에 어긋난 것으로 임금을 섬기겠습니까"라고 했다. 이것은 참으로 유자儒者의 말이니, 만일 율곡이 아니었으면 아무 일 없이 태연히 순종하고 이런 말을 할 자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문소전文昭殿은 세종조世宗朝 때 시작했다. 한漢나라 원묘原廟의 뜻을 모방해서 날마다 두 끼 밥을 올리고, 한 끼는 차례茶禮를 지낸다. 반찬은 채소를 쓰지만 그래도 국가의 경비는 반이나 여기에 쓰이고, 선부膳夫는 버릇이 사나워져서 공손치 못한 일이 많다. 각 능陵과 문묘文廟에 이르기까지 삭망제朔望祭가 있어서 거의 독제瀆祭에 가까웠다. 이를 의논하는 자들이 많았으나 감히 개혁하지 못했다.
임진壬辰의 변이 있은 후부터 종묘宗廟 이외의 각 능陵과 전殿에는 오직 대제大祭만을 지내고, 초하루와 보름에는 향만 피울 뿐이다. 비록 일이 새로 시작되어 경황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올바른 예禮를 거의 얻었다 하겠다.

우리나라 《오례의五禮儀》의 '제향재계祭享齋戒' 조목에 말하기를, "술을 지나치게 먹지 않으며, 남을 조상하거나 병을 위문하지 않으며, 또 음악을 듣지 않고, 더러운 것은 보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런데 《대명회전大明會典》에는 말하기를, "술을 마시지 않고, 아내나 첩과 같이 있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 전조前朝 때 사가私家의 '제사재계祭祀齋戒'조에는 말하기를, "말을 타고 출입하거나 손님 접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이것을 어기는 자는 죄를 준다"라고 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전조의 예법은 모두 소홀하고 간략했다고 한다. 하지만 금하고 경계하는 것이 이와 같았으니, 아조我朝보다 더욱 엄한 바가 있었다.

《예전禮典》에 말한 삼일재三日齋라는 것은 대개 청재淸齋 2일과 제사 지내는 날까지 합쳐서 3일로 치는 것이다.

옛사람이 말한 재齋라는 것은 그 마음이 가지런하지 못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는 것이다. 또 계戒라고 말한 것은 그 마음에 바르지 못하고 망령된 것을 경계하라는 것이다. 지금 사람은 기일忌日에 그 전날부터 채식菜食하는 것을 가지고 재계齋戒하는 것으로 치고, 손과 만나서 담소談笑하기를 평시와 다를 것이 없이 한다. 그러니 그 마음을 과연 정제하고, 또 그 경계하는 바를 잘 지킨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입으로 채식을 한다고 해도 마음으로는 채식을 하지 않는 것이니, 재계는 해서 무엇하랴.

우리나라 사람은 기일忌日을 당하면 절에 가서 재를 올린다. 그런 때문에 속담에 사람 죽은 날을 승재僧齋라고 한다.
국조國朝에서는 선왕후先王后의 기일을 당하면 역시 풍속대로 재를 올렸다. 그러다가 중묘中廟 병자丙子에 와서 비로소 기신재忌辰齋를 없앴다. 대개 이것은 기묘己卯 때 여러 어진 이들이 건의해서 된 일이다.
지금 사대부의 집에서는 한결같이 예문禮文에 따르지만 그래도 국가國家의 기신제忌辰祭에는 오히려 소찬素饌을 쓰니, 혹은 이것은 옛 습관에 의해서 그런

것일까.

지금 풍속에 아문衙門에 기도하고 제사 지내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부군附君이라고 하며, 새로 부임하는 관리는 반드시 여기에 제사를 지내어 복을 빈다고 한다. 이것은 대개 무당이나 박수 같은 온당치 못한 데서 나온 일들이다.
옛날 어효첨魚孝瞻은 부임해 가는 관청마다 그 부군附君이라는 사당을 모두 불태우고 헐었으나 뒤에 벼슬이 1품에 올랐었고, 그 아들 세겸世謙도 역시 벼슬이 정승에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이것이 그가 기도하고 제사 지낸 때문이겠는가.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옛사람들이 제사에 시尸(시동. 제사 때 신神을 대신하는 아이)를 쓴 것은 극히 깊은 뜻이 있어서였다. 대개 사람의 혼이 이미 흩어지면 반드시 그 같은 유類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은 이미 그 뼈와 살이 같기 때문에, 또한 집안의 유類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신에게 구하는 것이니 여기에 제사 지내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후세에서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바로 조상은 높고 어린아이는 항렬이 낮다고 하여 드디어 이것을 즐겨 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상고하건대, 옛날에 천지와 산천에 제사 지내는 것도 역시 모두 시尸를 세우고 했다. 그러니 실로 천지 산천은 다만 이 음양의 한 기운이라고 해서 시尸를 써서 이것이 모이기를 구했으니, 이것도 역시 한 가지 이치이다.
《의례儀禮》에, "주공周公이 태산泰山에 제사 지내는데 소공召公으로 시尸를 삼았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어두운데 귀신이 있는 것은 마치 밝은 데 사람이 있는 것과 같다. 조화造化를 가지고 말한다면, 몸을 굽히고 펴고, 가고 오는 것이나, 거두고 열고, 성盛하고 쇠하는 것은 모두 귀신 아닌 것이 없다.

역易에 말하기를, “정기精氣는 물건이 되고 유혼游魂은 변하는 것이 된다”라고 했으니, 이 말이 옳은 말이다. 세상에는 귀신에게 아첨하고 신神을 섬기는 것으로 복을 구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 그런데도 도리어 재앙과 화를 받는 자가 있는 것은 미혹迷惑하기 때문이다.
성인聖人은 말하기를, “귀신을 공경해서 이를 멀리 하라”라고 했다. 귀신을 공경하면 이를 더럽히는 혐의가 없을 것이요, 이를 멀리하면 침범할 근심이 없는 것이다.

《소설》에 말하기를, “가난한 선비 하나가 밤에도 노향露香으로 하늘에 빌기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치지 않았다.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무엇이 하고 싶으냐’라고 했다. 선비는 대답하기를, ‘일생 동안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하고, 산속이나 물가에 노닐면서 내 몸을 마치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듣자 신인神人은 크게 웃으며 대답하기를, ‘이것은 상계上界 신선이 즐겨하는 것인데 네가 어찌 이것을 얻으려 하느냐. 부귀만을 구하는 것쯤은 할 수가 있다’고 했다”라고 하였다.
지봉자芝峰子는 말한다. 하늘이 맑은 악樂을 아끼는 것은 벼슬보다 더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청복淸福을 버리고 공명功名을 쫓아가는 자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람은 부귀를 신기하게 보지만, 하늘은 부귀를 썩어 냄새 나는 것과 같이 보니, 아아! 또 어찌 서로 그렇게 반대되는가.

25-8 교제交際

상고하건대 구경산丘瓊山이 말하기를, “자기보다 나이가 30세 이상 많은 아버지의 친구와 복제가 없는 친족親族으로서 아버지의 항렬에 있는 자나, 또는 벼슬이 다른 사람을 존자尊者라고 한다. 자기보다 나이가 10세 이상 많고 형의

항렬에 있는 자를 장자長子라 한다. 자기보다 10세가 적은 자를 소자少者라 하고, 자기보다 20세가 적은 자를 유자幼者라 한다"고 했다.
또 말하기를, "대체로 한데 모인 사람들이 모두 동향인이라면 앉는 자리를 나이 순서대로 하고, 만일 다른 객客 중에 벼슬 있는 자가 있으면 벼슬 순서대로 앉는다. 서로 방해가 되면 오히려 나이 순서대로 하고, 만일 벼슬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비록 동향인이라 할지라도 역시 나이 순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벼슬이 다른 사람이란 옛날의 상대부上大夫를 말하는 것이니, 지금의 당상관堂上官이다.

《가례家禮》〈의절儀節〉에 말하기를, "길한 일이 있으면 이것을 축하하는 것이니, 길한 일이란 아들의 관례冠禮, 아들 낳은 것, 미리 천거된 것,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이 승진한 것 따위와 같다. 대체로 경사 때의 예법으로 부조하여 주는 물건이 있다. 혼례婚禮는 비록 축하하지 않아도 물건을 주어서 그 손들을 대접하는 비용을 돕는 일은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했다.
흉한 일이 있으면 이것을 조상한다. 초상과 장례, 물과 불로 인한 재해 따위이다. 대체로 흉한 일에는 물건을 부조하는 의식이 있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초상에는 조상하고 부조하는 예법이 있지만, 경사 때에는 다만 이를 축하할 뿐으로 부조하는 일은 드물게 본다. 그러니 이것은 예제禮制에 소략疎略하다고 하겠다.
홍용재洪容齋가 말하기를, "왕복하는 편지는 그 날짜를 적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성질이 소홀한 자는 일체 써 보내지를 않는다. 장문잠張文潛은 친한 친구의 편지에 날짜가 없는 것을 볼 때마다 이것을 땅에 던지고 다시 보지 않았다"라고 했다. 또 선배先輩들은 말하기를, "비록 심상한 서첩書帖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것을 봉할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공순치 못한 것이 된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본받을 말한다.

26. 잡사부雜事部

26-1 성족姓族

상고하건대, 순舜은 규예嬀汭[11]에 살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의 봉지封地인 진陳나라가 규嬀로 성을 삼았다. 월越나라의 후손이 구산歐山의 남쪽을 식읍食邑으로 하였기 때문에 성을 구양씨歐陽氏로 했다. 조사趙奢는 조趙나라 장수가 되어 어마御馬를 잘 몰아서 마복군馬服君이라 이름하니, 그 자손들이 이 때문에 마馬로 성을 삼았다.

제오륜第五倫은 그 조상이 제齊나라의 여러 전田씨인데 원릉園陵에 이사해서 차례를 가지고 성을 삼았다. 속석束晳은 본래 소광疎廣의 자손으로서 난을 피해서 소疎의 족足을 떼어 버리고 속束으로 성을 삼았다. 목화木華는 단목사端木賜의 자손으로서 원수를 피해 단端을 버리고 목木으로 성을 삼았다.

갈葛씨는 낭야瑯倻 여러 고을에 살고 있어서 제갈諸葛씨라 했다. 혜강嵇康은 본래 혜奚씨였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혜嵇라고 했다. 주周나라가 고양高陽의 자손을 주邾 땅에 봉해 주었더니 그 자손들이 부방(邑)을 떼내고 주朱로 성을 삼았다.

문언박文彦博은 본래의 성이 경敬이었는데 그 증조曾祖가 석경당石敬塘의 휘諱를 피해서 다시 문文으로 성을 고쳤다. 도곡陶穀은 본래 당언겸唐彦謙의 자손인데 석진石晉의 휘諱를 피해서 도陶라고 성을 했다. 진덕수眞德秀는 본래의 성이 신愼이었는데 효종孝宗의 휘諱를 피해서 진眞으로 고쳤다.

11 강 이름. 산서성山西省 영제현永濟縣 남쪽에서 발원發源하여 서쪽으로 흘러 황하黃河로 들어가는 강江.

《설부》에 말하기를, "신申 · 여呂 · 허許 · 보甫는 모두 사악四岳[12]의 자손으로서, 허유許由도 역시 그중의 하나이다. 사악에게 의뢰하던 일로 본다면 요堯도 사악에게 양보한 일이 있다. 다만 장주莊周의 말을 보면 문장을 지나치게 꾸민 점이 없지 않다.
상고하건대 《좌전左傳》에 말하기를, "허許는 태악太岳[13]의 아들이다"라고 했다. 또 《사기史記》 주註에 보면 사악은 대개 한 사람으로서 사악의 제후諸侯의 일을 주장한 사람이라 했으니 이 말이 옳은 것 같다.

상고하건대, 소공석召公奭은 주周와 같은 성인데 소召 땅을 식읍食邑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소강공召康公이라고 했다. 성왕成王이 그 아들을 봉해서 북연백北燕伯으로 했다. 《사기史記》에 연燕은 소공석을 봉한 땅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주周나라의 모든 여자들을 다 희姬라고 불렀다. 그것은 송나라의 자子나 제齊나라의 강姜과 같이 성姓을 가지고 부른 것이다.
역사에는 말하기를, "고조高祖가 산동山東에 살아서 미희美姬를 좋아했으며, 또 척희戚姬와 당희唐姬가 있었으므로 이것이 드디어 비첩妃妾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했다. 그 사실과 틀리는 것이 이와 같다.

주周나라 이전에는 선성왕先聖王의 후손들에게 이를 모두 땅을 나누어서 봉해주었다. 그 뒤에 진秦나라에 이르러 천하를 군郡과 현縣으로 나누게 되자 드디어 남겨둔 땅이 없게 되었다. 한漢나라 초년에는 오히려 사예四裔에 군장君長이 있었으니, 남월南越의 위타尉佗는 조趙와 같은 성姓이고 동월東越과 민월閩越은 구천句踐과 같은 성姓이고, 전국왕滇國王은 초楚와 같은 성姓이었다. 조선왕朝鮮

12 요堯임금 때 사방의 제후諸侯를 통솔하던 장관長官.

13 벼슬 이름. 요堯임금 때 사악四岳의 하나.

王 기준箕準은 은殷나라 후손이요, 위만衛滿은 주周나라 후손이다.
또 상고하건대 탁발위拓跋魏는 황제黃帝의 자손인데, 혹은 이릉李陵의 자손이라고도 한다. 혁련발발赫連勃勃은 본래의 성이 유劉로서 흉노凶奴 자손이요, 서하西夏의 이계천李繼遷은 탁발拓跋씨의 자손이다.《패해稗海》에 탁발계천拓跋繼遷이니 탁발원호拓跋元昊니 하고 기록한 것이 이것이다.

장연章淵이 말하기를, "오吳나라가 일어나고부터 구丘라는 성姓이 많아 비석에 그 족당族黨을 벌여 쓰고 좌사左史 구명丘明의 후손이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명明은 노魯나라의 좌사左史가 되었었다"라고 하니, 좌사란 대개 노魯나라의 사관史官이요, 구명은 그의 성명이다.

선우鮮于씨는 기자箕子의 자손으로서 국國으로 씨氏를 삼았다. 권權씨는 신라의 주신胄臣으로서 고려에서 권씨로 사성賜姓되었다. 혹은 말하기를, 한韓씨와 기奇씨는 기자箕子로부터 나왔고, 옥玉씨와 전田씨는 왕王씨를 바꾸어서 부른 성이라고 하지만 아직 알 수가 없다. 고구려 · 백제 이후에까지도 들을 수 없는 말이다.
당唐나라 때의 발해渤海 국왕 대조영大祚榮은 역사에 고려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곧 고구려의 자손이다.

제주濟州의 고高 · 양梁 · 부夫 세 성은 모두 땅굴에서 나왔는데, 그 굴이 지금도 있다. 또 양천陽川 허許씨는 본래 수로왕首露王의 자손으로서 왕비의 성을 따라 허씨라고 했다. 그 후에 고려 초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공암촌주孔巖村主가 되었다가 이로 인하여 양천으로 본관本貫을 정했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허씨가 공암에게서 나왔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고려 태조太祖 때 유달柳達은 수레로 군량軍糧을 운반했다. 그런 때문에 그에게

거달車達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또 이도李棹는 배를 가지고 군사를 건네주었다. 그래서 그에게 도棹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김행金幸은 신라의 자손으로서 고려를 섬겼다. 그래서 그 권도를 잘 쓴 것을 가지고 권權이라는 성을 하사했다. 이 3성姓의 자손은 드디어 동방東方의 성족盛族이 되었다.
우리 태조 때 동두란童豆蘭(이지란李之蘭)이란 자가 있었다. 원래 북청北靑에서 나서 활을 잘 쏘더니 전쟁에 따라다녀 공을 세웠으므로 이李라는 성을 하사했으니, 그의 자손들로 대마다 벼슬하는 이가 끊어지지 않았다.

고려 때 학사學士 쌍기雙冀와 호종조胡宗朝는 모두 송나라 사람으로서 고려조高麗朝에 와서 벼슬했다. 연안延安 이李씨, 청주淸州 양楊씨, 풍천豐川 임任씨, 남양南陽 홍洪씨 등은 당唐씨 · 방房씨와 함께 모두 중국에서 나온 성들이라 한다. 옛날 기자箕子가 나와서 봉封을 받고 위만衛滿이 동쪽으로 올 때 중국 사람들이 여기에 따라온 자가 많았다. 그 남기고 간 자손들도 필경 많을 텐데 지금에 와서는 알 수가 없다.

전조前朝 때 절강浙江 사람 장백창張伯昌은 송나라의 귀신貴臣으로서 그 아들 순고舜皐와 함께 난을 피해서 풍덕豐德 땅에 와서 살았다. 지금 풍덕의 장씨는 곧 그의 자손들이다.
혹은 말하기를, "장경張卿이라는 자가 있어 원元나라 때 절강浙江 참의參議로서 여기 나왔었다"라고 한다. 또 공소孔紹란 자는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를 따라서 여기 나왔으니, 지금의 창원昌原 공孔씨가 이것이다.

언諺에 말하기를, 차車씨 성에는 정승 된 자가 없다고 했다. 상고하건대 《역옹패설》에 보면 차약송車若松이 평장사平章事가 되었다고 했으니 이 말은 잘못된 것이다. 또 《패설稗說》에 보면, "추적秋適이란 자가 고려 때 시랑侍郞이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순천과 의주에 있는 추씨들이 그 자손인지 모르겠다.

요동遼東 동녕위東寧衛는 모두 우리나라 사람이 차지하고 살았다. 그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말을 잘 익혔으니, 이것은 대개 근본을 잊지 않음이다. 영원백寧遠伯 이성량李成梁은 철령위鐵嶺衛 사람으로서 대대로 명장名將이 되었다. 그 아들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은 대장군大將軍으로서 동쪽을 정벌하여 먼저 평양성平壤城을 함락하고 왜적을 무찔렀다.
일찍이 그를 만났더니 그는 말하기를, "내 선세先世는 본래 귀국貴國 사람이었소. 내가 여기 나올 때에 우리 아버님도 역시 이 말을 가르쳐주시면서 경계하셨소. 그러니 내가 어찌 감히 귀국을 위해서 힘쓰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그의 숨김없음이 이와 같았다. 듣건대 이성량의 조상은 본래 우리나라 강계江界 사람이라고 한다.

동방의 벽성僻姓으로는 성주星州에 소䍐씨가 있는데 소䍐의 음은 소小이다. 대개 우리말에 우牛를 '소'라고 읽기 때문이다. 또 순창淳昌에는 궉䲯씨가 있는데 궉䲯의 음은 '궉'으로서 그 시작된 데를 알지 못한다. 혹은 말하기를, 궉䲯은 본래 오랑캐의 성이라 한다. 혹은 또 말하기를, 소䍐는 《동국사東國史》에 석말천구石末天衢란 자가 있었으니, 아마도 석말石末 두 자가 잘못 전해져서 소䍐가 된 것 같다. 또 《완위여편宛委餘篇》에 보면, 복성複姓으로 석우石牛가 있었으니, 아마도 이것이 바로 소䍐씨인가 싶다.
또 박朴씨 · 기奇씨 · 우禹씨는 동방의 대성大姓으로 친다. 천千 · 돈頓 · 승承 · 야夜 · 골骨 · 공公 · 옹邕 · 방邦씨들은 동방의 벽성僻姓으로 친다. 그리고 이들 성은 모두 중국에 없는 것이다. 또 복성複姓 중에 황보皇甫씨는 옛날에 나타난 성이었으나 지금은 드물고, 남궁南宮은 옛날에는 드물던 것이 지금은 뚜렷이 나타나 있다. 서문西門 · 선우鮮于 · 독고獨孤씨는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현저하게 나타난 자가 없다.

당唐나라 이소수李守素는 성姓에 대한 학문이 능통해서 당시에 그를 육보肉譜라

이름했고, 또한 인물지人物志라고도 했다. 근래의 판부사判府事 정곤수鄭崐壽는 족보族譜에 능통해서 남의 안팎 세계世系를 모르는 것이 없으니, 그 기억 잘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26-2 명호名號

《사기史記》 주註에 보면, "사마표司馬彪가 말하기를, 기자箕子의 이름을 서여胥餘라고 했다"고 하였다. 또 《장자莊子》에는 기자서여箕子胥餘라고 말하고, 그 주에, "서여는 기자의 이름이다"라고 말했다. 또 임희일林希逸의 구의口義에 말하기를, "서여는 옛날의 어진 사람이다"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기에, 옛글에 있는 호불해狐不偕 · 무광務光 · 백이伯夷 · 숙제叔齊를 두고 본다면 기자서여는 두 사람인 듯싶다. 그러나 응소應劭의 《한관의漢官儀》에 말하기를, "주왕紂王 때에 서여는 태사太師였다"라고 했으니, 대개 이것도 역시 기자箕子를 말한 것이다.

편작扁鵲 · 뇌교雷敎 · 동군桐君 · 귀유구鬼臾區는 모두 황제黃帝 때 의원醫員이다. 춘추春秋 때에 좋은 의원이 있었으니 성은 진秦, 이름은 월인越人으로서 옛날 편작扁鵲과 서로 비슷했다. 그 때문에 그도 호를 편작이라고 했으며, 또 노盧나라에 집이 있었다 해서 노의盧醫라고 이름을 했다.
이 편扁 자는 상성上聲[14]이고, 편주扁舟라고 쓰는 편扁 자는 평성平聲[15]이며, 편액扁額이라고 쓰는 편扁 자는 역시 상성上聲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서로 같지 않은데, 지금 풍속에는 이것을 통틀어 편扁이라고 쓰고 있으니 이는 잘못이다.

14 한자漢字 4성聲의 하나. 처음이 낮고 끝이 높아지는 소리. 4가지 소리는 고高 · 저低 · 장長 · 단短의 네 종류의 층으로서 이것을 상성上聲 · 평성平聲 · 거성去聲 · 입성入聲으로 나누었음.

15 4성聲 중의 낮은 소리. 이 평성平聲은 다시 상평上平과 하평下平의 2가지가 있음.

적송자赤松子는 둘이 있다. 그 하나는 신농神農 때 사람으로 곧 장자방張子房이 그를 따라서 놀기를 원하던 사람이고, 또 하나는 진晉나라 황초평黃初平으로서 금화산金華山에서 양을 먹이면서 송진을 따 먹고 신선이 되었는데, 성姓을 바꾸어 적赤이라 하고 이내 적송자赤松子라고 했다 한다.
또 홍애洪崖 선생도 둘이 있다. 그 하나는 상고上古 때에 신선이 된 자로서, 곽복郭璞의 시詩에, "왼손으로 부구浮丘의 소매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홍애洪崖의 어깨를 친다(左揖浮丘神 右拍洪崖肩)"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또 하나는 당唐나라 때 장온張氳이니 그도 호를 홍애선생이라고 했다.

왕자교王子喬는 주周나라 영왕靈王의 태자太子 진晉이다. 또 왕교王喬는 한漢나라 명제明帝 때 섭현령葉縣令이 되었으니 같은 사람이 아니다. 신상申詳은 자장子張의 아들이요 자유子游의 사위이니, 《맹자》와 《예기》에 이 사실이 나와 있다. 공양고公羊高는 노魯나라 사람으로 자하子夏의 제자이고, 역아易牙는 또는 유아兪兒라고도 이름하는데, 《장자莊子》에 나와 있다.
오갈현吳葛玄은 호를 선옹仙翁이라고 했으니, 진晉나라 갈홍葛洪은 그의 종질從姪이다. 당唐나라 중 일행一行은 장공근張公謹의 손자요, 고병高駢은 숭문崇文의 손자이다. 또 송나라 반랑潘閬의 자는 소요逍遙이니 태종太宗 때 사람이다. 이공린李公麟의 자는 백시伯時로서 호를 용면거사龍眠居士라고 했다. 안숙晏叔은 원수原殊의 아들이요, 유영柳永의 자는 기경耆卿이니 둔전원외屯田員外가 되었고, 모두 글을 잘해서 이름을 떨쳤다.

《박물지》에 말하기를, "형가荊軻의 자는 차비次飛이다. 교룡蛟龍이 나타나 그가 타고 있는 배를 막자, 칼을 빼어 그 머리를 자르니 풍파가 가라앉았다"라고 했다. 주일용周日用은 말하기를, "형장군荊將軍의 묘墓는 양각애羊角哀의 무덤 옆에 있다. 그 묘비墓碑를 보건대 장군의 이름은 가軻, 자는 차비次非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는 연燕나라의 형가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여씨춘추》에 말하기를, “형荊에 차비佽飛라는 사람이 보검寶劒을 가지고 교룡을 베었다”라고 했다. 그러니 여기서는 형荊이 땅 이름으로 되어 있다. 또 《한서》에 “차비는 사사射士로서, 이는 즉 무제武帝 때의 벼슬이름이니, 활을 빠르게 잘 쏜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라고 했다.

옛날 초왕楚王의 아들 웅역熊繹 · 웅거熊渠는 10여 대代 동안 모두 웅熊 자를 넣어 이름을 지었으니 이것은 대개 오랑캐의 풍속에서 나온 것이다. 고려 태조太祖는 3대代가 모두 이름이 같았는데, 이익재李益齋(이제현)는 말하기를, “이것은 방언方言이다”라고 했다. 고려 때 권행權幸의 아들을 인행仁幸이라고 한 것이 이런 따위이다. 지금 풍속에도 일부 백성들은 이 습관을 많이 계속하고 있으니 이는 마땅히 고쳐야 할 일이다.

위衛나라에는 사마식기司馬食其가 있고, 한漢나라에는 여식기酈食其 · 심식기審食其가 있다. 조趙나라에는 인상여藺相如가 있고, 한漢나라에는 장상여張相如 ·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있으니, 대체로 이들은 서로 모방해서 지은 이름일 것이다.

단성식段成式의 《낙고기諾皐記》에 말하기를, “동왕공東王公의 휘諱는 예倪, 자는 군명君明이니 정해일丁亥日에 죽었다. 서왕모西王母의 성은 양楊씨, 휘諱는 회回이니 곤륜崑崙 서북쪽의 한쪽을 다스렸는데 정축일丁丑日에 죽었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신선전神仙傳》에 보면, “서왕모西王母의 성은 후侯씨로서 동왕공東王公과 두 기운을 나누어 다스렸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미 이들이 신선이라 하고 죽었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설부》에 말하기를, “허유許由의 자는 중무仲武이니 《장자석莊子釋》에 나와 있다. 팽조彭祖의 성은 전錢, 이름은 갱鏗이니 《성원姓苑》에 나와 있다. 고조高祖

의 형의 이름은 희喜이니 《사기史記》에 나와 있다. 고조의 아버지는 태공太公, 이름은 온煴, 자는 집가執嘉이니 《세기世記》에 나와 있다. 숙손통叔孫通의 이름은 하何, 항백項伯의 이름은 전纏, 복생伏生의 이름은 승勝이요, 자는 자천子賤이니, 모두 한서의 주註에 나와 있다.”
김남창金南窓은 말하기를, “허유許由의 이름은 또한 《장자우언莊子寓言》에 나와 있는데, 당우唐虞 때 사람이다”라고 했으니 어찌 자字가 있었으랴.

사호원공四皓園公의 성은 원園, 이름은 병秉이다. 하夏나라 황공黃公의 성은 최崔, 이름은 곽廓이니 《고사전高士傳》에 나와 있다.
정자진鄭子眞의 이름은 박撲, 엄군평嚴君平의 이름은 존尊, 귀곡자鬼谷子의 성은 왕王이요, 이름은 허詡, 계연計然의 성은 신辛이요 이름은 문자文子인데, 혹은 계연計研이라고 한다. 이는 노자老子의 제자로서 《전사前史》에 나와 있다.
백악伯樂의 성은 손孫이요 이름은 양陽이다. 초광楚狂 접여接輿의 성은 육陸이요, 이름은 통通, 사광師曠의 자는 자야子野이니 《장자소莊子疏》에 나와 있다.
장주莊周의 자는 자휴子休, 전자방田子方의 이름은 무택無擇, 백이伯夷의 성은 묵墨이요 이름은 구久, 자는 공신公信이다. 숙제叔齊의 이름은 지智, 자는 공달公達, 이제夷齊는 그의 시호謚號이다. 문종文種의 자는 자금子禽, 범려范蠡의 자는 소백少伯이다. 서불徐市도 또한 그 이름이 서복徐福이요, 자는 군방君房이다. 문옹文翁의 이름은 당黨, 자는 중옹仲翁이니 모두 《잡서雜書》에 나와 있다.
나는 생각하기에 이제夷齊의 이름은 그중에서도 가장 예스럽지 않으니, 의심스러운 일이다.

한漢나라 공안국孔安國의 자는 안국安國, 진晋나라 안제安帝의 이름은 덕종德宗이요, 자도 또한 덕종德宗이다. 회계왕會稽王 도자道子의 자는 도자道子, 당唐나라 낙빈왕駱賓王 · 곽자의郭子儀 · 전승사田承嗣 · 양연기楊燕奇와 고려의 기자오奇子敖는 모두 그 이름을 가지고 자로 썼다.

한漢나라 고조高祖의 자는 계季, 항적項籍의 자는 우羽, 매승枚乘의 자는 숙叔인데, 그 뒤로부터는 자字를 한 자로 쓰는 자가 드물었다.
상고하건대 《육무관필기陸務觀筆記》에 보면, "전협錢勰의 자는 목穆, 범조우范祖禹의 자는 순淳이니, 친구를 사귀는 데 부르기 어렵다는 까닭에 부父 자를 그 아래에 붙였다"라고 했다. 또 이름은 두 자이고 자가 한 자인 사람으로는 정당시鄭當時의 자가 장莊, 방현령房玄齡의 자가 교喬, 장구령張九齡의 자가 수壽 등이다.

한漢나라 때 장우張禹가 두 사람 있었다. 하나는 성제成帝 때 안창후安昌侯요, 하나는 화제和帝 때 태주太傅이다. 또 왕상王商이 둘이 있었으니, 하나는 성제成帝 때의 승상이요, 하나는 임금의 외척外戚이다. 진晉나라에는 유의劉毅가 둘이 있었다. 그 하나는 무제武帝 때 상서복야尙書僕射요, 하나는 안제安帝 때 예주자사豫州刺史로서 환현桓玄을 토벌한 사람이다. 당唐나라에 이광진李光進이 두 사람 있었으니 하나는 광필光弼의 아우요, 하나는 광안光顔의 형으로서 모두 명장名將이었다. 당송唐宋에는 두 이강李綱이 있었고, 두 왕규王珪가 있었으니 모두 명신名臣이었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는 진항陳恒을 전상田常이라고 했고, 괴철蒯徹을 괴통蒯通이라고 했으니, 이는 문제文帝와 무제武帝의 휘諱 때문이다.
반고班固의 《한서》에 보면, 장조莊助와 장광莊光의 성을 고쳐서 엄嚴이라고 했으니, 이는 명제明帝의 휘諱 때문이었다. 당唐나라에서는 호虎를 휘諱해서 무武라고 하고, 민民을 휘諱해서 인人이라고 했으니, 이른바 용무군龍武軍이라고 한 것이라든지, 사람을 내어 군사를 삼았다는 것이 이것이다. 송나라 사람은 현玄을 원元이라 하고, 신愼을 근謹이라 했으니, 또한 임금의 휘諱를 피한 것이다.
지금 대명황제大明皇帝는 모두 이름이 둘씩이다. 중국 사람들은 휘諱하지 않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휘諱하고 있다. 지난해에 사신 이충원李忠元을 이충원李

忠原이라 고치고, 정경세鄭經世를 정경세鄭經洗라고 고쳤는데, 이것은 너무 무리인 듯하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반드시 휘諱를 피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또다시 고치기는 어렵다”라고 한다.

한漢나라 저褚 선생의 이름은 소손少孫이니 원성간元成間(원제元帝와 성제成帝의 시대) 사람이다. 진晉나라 조적祖逖의 자는 사아士雅이니 본전本傳에 사치士稚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고개지顧愷之의 자는 장강長康이고 소자少字는 호두虎頭, 혹은 호두장군虎頭將軍이라고 했다. 왕진악王鎭惡은 맹猛의 손자이니 5월 5일에 났다고 하여 그렇게 이름지었다고 한다. 당唐나라 원천강袁天綱의 자字는 객사客師이다. 일설에는 객사는 천강天綱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백약李百藥은 소년 시절에 병이 많았으므로 그렇게 이름지었다고 한다. 이백李白은 어머니가 꿈에 장경성長庚星을 보았으므로 자字를 태백太白이라고 했다. 장작張鷟은 어머니가 꿈에 자색紫色의 문채가 있는 큰 새를 보았기 때문에 이름을 작鷟이라고 했다. 여동빈呂洞賓의 이름은 암嵓이니 4월에 나서 신선이 되었으므로 호를 순양진인純陽眞人이라고 했다. 송나라의 범조우范祖禹는 진鎭의 손자인데, 꿈에 등우鄧禹를 보고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지었다. 악비岳飛는 낳을 때에 큰 새가 지붕 위에서 날며 울었으므로 그렇게 이름지었으며 자字를 붕거鵬擧라고 했다. 육우陸游의 자字는 무관務觀이니, 어머니가 꿈에 진소유秦少游를 보고 낳았으므로 이름을 그렇게 짓고, 자字를 진소유의 이름인 관觀을 넣어 무관務觀으로 했다고 한다.

왕망王莽 때에는 2가지의 이름을 가지는 것을 금했다. 그런 때문에 후한後漢 때에도 그대로 본받았다. 여러 가지 사전史傳을 상고하면 오직 양불의梁不疑 · 비장방費長房 · 계자훈薊子訓 이외에는 2가지 이름을 가진 자가 없더니, 진晉나라에 이르러서 비로소 생기기 시작했다.

상고하건대 《공양전公羊傳》에 보면, 2가지 이름을 쓰는 것은 예가 아니라고 나무랐다. 대개 옛사람들은 본래 1가지 이름을 숭상한 것이다.

왕희지王羲之의 아들은 휘지徽之, 휘지의 아들은 정지禎之이니 3대의 이름이 같은 셈인데, 그 전에는 없던 일이다. 사마천司馬遷의 아버지의 이름은 담談이다. 그런 때문에 《사기史記》에는 조담趙談을 고쳐서 조담趙譚이라고 하고, 또한 같은 이름의 사람이라고 했다. 범엽范曄의 아버지의 이름은 태泰이다. 그러므로 《한서》에 곽태郭泰를 고쳐서 태太라고 했다. 그러나 오吳나라 《여대전呂岱傳》에 보면, 장승張承이 말하기를, "공功은 권權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손권孫權의 이름을 휘諱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자기 임금의 이름을 휘諱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일일까.

옛사람 중에 자字를 가지고 행세한 사람은 당唐나라 때 가장 많았다. 봉덕이封德彝의 이름은 윤倫, 위지경덕尉遲敬德의 이름은 공恭, 소정방蘇定方의 이름은 열烈, 곽원진郭元振의 이름은 진震, 설원초薛元超의 이름은 진振이니 이와 같은 자가 많다.
유연劉淵을 유원해劉元海라고 하고, 석호石虎를 석계룡石季龍이라 하고, 대연戴淵을 대약사戴若思라 하고, 한금호韓擒虎를 한금韓擒이라 하고, 우세기虞世基를 우기虞基라 하고, 우세남虞世南을 우남虞南이라 한 것 같은 것은 모두 휘諱를 피한 것이다.

장수로서 이름이 같은 자로는 경포黥布 · 여포呂布와 항우項羽 · 관우關羽와 위청衛靑 · 적청狄靑과 장비張飛 · 악비岳飛가 있는데, 그들의 웅략雄略도 역시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기 명命에 죽지 못했고, 오직 위청과 적청만이 공과 이름을 세우고 세상을 마쳤다.

상고하건대 진간재陳簡齋의 자는 거비去非, 이름은 여의與義이고, 장문잠張文潛의 이름은 뢰耒, 당자서唐子西의 이름은 경庚, 마자재馬子才의 이름은 존存, 한자창韓子蒼의 이름은 구駒, 육방옹陸放翁의 이름은 유游요 자는 무관務觀, 범석호

范石湖의 이름은 성대成大요 자는 지능至能, 엄창랑嚴滄浪의 이름은 우羽요 자는 의儀인데, 혹은 자字를 의경儀卿이라고 한다.
신가헌辛稼軒의 이름은 기질棄疾이요 자字는 유안幼安, 주방언周邦彦의 자는 미성美成이다. 원유산元遺山의 이름은 호문好問이니, 금金나라 말년의 사람들은 모두 호를 가지고 자로 썼던 것이다.

상고하건대 부인으로서 1자 이름을 가진 자가 있으니, 채염蔡琰·설도薛濤·최휘崔徽가 이것이다. 또 같은 글자를 잇따라 써서 이름으로 한 이가 있으니, 앵앵鶯鶯·호호好好·간간簡簡·혜혜盻盻·홍홍紅紅·취취翠翠·경경卿卿·소소小小·진진眞眞·영영英英·단단端端·맹맹孟孟·경경瓊瓊·석석惜惜·교교翹翹·인린憐憐·거거擧擧·작작灼灼·수수嫂嫂 등은 모두 이름 있는 자들이다.

옛사람은 종자기鍾子期를 종기鍾期라 하고, 오자서伍子胥를 오서伍胥라 하고, 노중련魯仲連을 노련魯連이라 하고, 동방삭東方朔을 방삭方朔이라 하고, 사마장경司馬長卿을 마경馬卿이라 하고, 양득의楊得意를 양의楊意라 하고, 양자운揚子雲을 양운揚雲이라 하고, 엄자릉嚴子陵을 암릉巖陵이라 하고, 반안인潘安仁을 반인潘仁이라 하고, 오은지吳隱之를 오은吳隱이라 했다.
명나라 사람은 또 동방삭東方朔을 동삭東朔이라고 하고, 왕자유王子猷를 왕유王猷라고 하였으니 이런 따위가 많다.

옛날에는 임금이 신하에게 대하여 군君이라고 많이 불렀고, 공公 또는 선생이라고 부르는 자가 있었다. 한고조漢高祖는 사호四皓를 공公이라 했고, 무제武帝는 엄안嚴安 등을 공公이라 했다. 연燕나라 소왕昭王은 곽외郭隗를 선생이라 했으니 바로 이것이다.
지금 상고하건대, 대명황제大明皇帝는 각로閣老를 선생이라고 불렀다. 대개 이 선생이란 스승을 존경하는 칭호이니, 그렇다면 각로閣老와 사부師傅의 책임까

지 겸한 때문일까.

대체로 공公이라는 칭호는 작爵의 오등五等 중의 우두머리이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나이와 덕을 가지고 사람을 존경했으니, 가령 남공南公·삼로동공三老董公·동원공東園公·하황공夏黃公·오공吳公·우공于公이라고 한 것이 모두 이런 등속이다. 또 생生이란 것은 학자學者를 일컫는 말이니, 후생侯生·노생盧生·안기생安期生·한생韓生·목생穆生·조구생曺丘生이라고 부르는 것이 모두 이런 류이다.

《마사馬史》를 보면, 천자를 가리켜 상上이라 했다. 무제武帝를 금상今上이라고 했으니, 금상이라는 칭호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또 대체로 천자를 폐하陛下라 하고, 제후왕諸侯王을 전하殿下라 하고, 세자를 저하邸下라 하고, 대신大臣을 각하閣下라 하고, 장신將臣을 휘하麾下 또는 막하幕下라 하고, 사신을 절하節下 또는 대하臺下라 하고, 동배同輩끼리는 서로 족하足下라고 불렀다. 대개 이것은 진秦·한漢 이후에 비로소 생긴 칭호이다.

옛사람에는 호가 있는 사람이 드물었다. 황보皇甫는 그 시호諡號를 현안玄晏 선생이라 했고, 도원량陶元亮은 호를 오류五柳 선생이라 했다. 이 밖에 이한림李翰林·두공부杜工部·한창려韓昌黎·유유주柳柳州 같은 이는 다만 벼슬을 가지고 불렀다.
송나라 구歐·소구양수蘇歐陽修와 소식蘇軾 이후로부터 비로소 별호別號가 있었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숭상한다. 비단 학사學士나 대부大夫뿐이 아니라, 수레를 만드는 장인이나 장사치에 이르기까지 모두 호를 가지고 부른다. 《진신편람搢紳便覽》을 상고해 보면, 이목吏目이나 교유敎諭 등도 모두 별호를 썼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명공거경名公巨卿이라 할지라도 문장과 도덕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즐겨서 호를 부르지 않았으니 이것은 또한

편벽된 일이다.

혹은 말하기를, “옛사람의 이름과 성은 차서次序를 가지고 이를 불렀다. 이李 · 두杜 · 한韓 · 유柳 · 소蘇 · 황黃과 같이 우열이 있었다”라고 한다. 나는 생각하기에 이응李膺 · 두밀杜密은 실로 그 우열이 있다 하겠지만, 이백李白 · 두보杜甫는 그 시재詩才가 서로 비슷하다. 또 반마班馬니 종왕鍾王이니 하고 부르는 것 같은 일도 많으니, 반드시 모두 차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말 순서에 의해서 부르는 것뿐이다.

《송경문필기宋景文筆記》에 말하기를, “지금 사람은 잘못 포조鮑照를 포소鮑昭라고 한다고 했다. 금릉金陵 사람이 땅 속에서 돌에 새긴 것을 얻었는데, 거기에 포조라고 되어 있었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소설》에 보면, 당唐나라 무후武后 때에 조照를 휘諱하여 소昭로 이름을 했다고 했다. 이상은李商隱의 시詩에, “살찌게 포조의 아욱을 지지네(肥煎鮑照葵)”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의 본이름대로 쓴 것이다.

당唐나라 때 곽자의郭子儀는 중서령中書令이 되었다. 그런 때문에 그의 호를 곽영공郭令公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존칭해서 한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은대銀臺(승정원承政院)를 중서中書라고 한다. 그런 때문에 승지承旨를 공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통정通政 이상은 통틀어서 모두 영공令公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는 영공이라고 하지 않고 영감令鑑이라고 한다. 글에도 역시 이렇게 쓰고 있으니 도무지 의미 없는 말이다. 습속習俗의 변함을 볼 수가 있다.

당唐나라 설능薛能은 도관낭중都官郎中이 되고, 이빈李頻은 도관원외都官員外가 되었으니, 모두 당시의 글 잘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뒤에 정곡鄭谷은 도관낭중이 되자, 시를 지어 스스로를 축하하고 인해 정도관鄭都官이라고 일컬었다.

송나라 매성유梅聖兪도 늙어서 역시 도관이 되었다. 그런 때문에 매도관梅都官이라고 불렀다 한다.

《육무관필기陸務觀筆記》에 말하기를, "속담에 제 아비를 노자老子라고 한다"라고 했다. 소위 대범로자大范老子니 소범로자小范老子니 하는 것은 대개 아비를 높여서 말하는 것이니, 종야宗爺니 악야岳爺니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 중국에서는 높고 귀한 사람을 가리켜 노야老爺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재상을 가리켜 아부阿父라고 한다.

산 사람을 명名이라고 하고 죽은 사람을 휘諱라고 한다. 이것은 모든 예경禮經에 있는 말들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산 사람의 이름을 가리켜 휘諱라고 한다. 대개 이것은 옛일을 잘못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나, 옛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상서롭지 못하다고 했다.

이제현李齊賢이 말하기를, "신라 때에는 그 임금을 마립간麻立干이라 부르고 그 신하를 아간阿干이라고 했다.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간干이라는 글자를 그 이름 밑에 붙여서 불렀으니 이것은 대개 서로 존경하는 말이다"라고 했다.
나는 상고하건대, 우리나라 방언方言에 간干의 음은 '한'이니, 채소 심는 자를 가리켜 원두한園頭干이라 하고, 물고기 잡는 사람을 어부한漁夫干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두부 만드는 자를 두부한豆腐干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다. 대개 방언에는 큰 것을 가리켜 한汗이라고 한다. 그런 때문에 하늘을 한汗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것이다.

《운부군옥韻府群玉》에 말하기를, "당唐나라 진사進士에는 단사團司(진사進士 합격자 바로 밑의 1명)와 소유所由(당대唐代의 관직명)가 수십 명이 있다. 또 배도裵度가

소유所由와 귓속말을 한다. 또 장평자張平子는 소유에게 명령할 것을 청했다" 라고 했다. 그 주註에 보면, "소유는 곧 지금의 보정保正이니, 소유라는 칭호는 오래된 것이다"라고 했다. 지금 헌부憲府의 나장羅將을 가리켜 소유라고 하는데 아직 그 까닭을 모른다.

상고하건대 부로扶老는 지팡이의 이름이요 또 새의 이름이기도 하다. 신풍晨風은 송골매의 이름이요 또한 말의 이름이기도 하다. 도소屠蘇는 집의 이름인데 관冠의 이름이기도 하고 술의 이름이기도 하다. 비연飛燕은 여자의 이름인데 또한 말의 이름이기도 하다. 왕모王母는 신선의 이름인데 또한 새의 이름이기도 하다. 팽월彭越은 사람의 이름인데 또한 게[蟹]의 이름이기도 하다. 홀뢰忽雷는 비파의 이름인데 또한 말의 이름이기도 한다. 자로子路는 중유仲由의 자字이면서 또한 곰의 이름이기도 하다. 왕손王孫은 사람의 성이면서 또한 원숭이의 이름이다. 비렴飛廉은 사람의 이름이면서 또한 집의 이름이며 또한 신금神禽이기도 하다. 세요細腰는 벌의 이름이면서 대추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여자의 칭호도 된다.

26-3 수명數名

상고하건대, 규跬는 한 쪽 발을 드는 것으로, 규跬를 곱하면 걸음[步]이 된다. 4척尺을 인仞이라 하며, 인仞을 곱하면 심尋이 되고, 심尋을 곱하면 상常이 된다. 5척尺을 묵墨이라 하며, 묵墨을 곱하면 장丈이 되고, 장丈을 곱하면 단端이 되며, 단端을 곱하면 양兩이 되고, 양兩을 곱하면 필疋이 된다.
또 한 손에 담은 것을 일溢이라 하고, 두 손으로 움킨 것을 국掬이라 하고, 국掬이 넷이면 두豆가 되고, 두豆가 넷이면 구區가 되고, 구區가 넷이면 부釜가 된다. 부釜가 둘 반이면 수藪가 되고, 수藪가 둘 반이면 부缶가 되고, 부缶가 둘이

면 종鍾이 되고, 종鍾이 둘이면 병秉이 된다.
또 10서黍는 유絫가 되고, 10유絫는 수銖가 되고, 8수銖는 치錙가 되고, 24수銖가 양兩이 된다. 양兩이 하나 반이면 첩捷이 되고, 첩捷이 곱이면 거擧가 되고, 거擧가 곱이면 환鍰이 되니 환鍰은 6양兩이다. 2환鍰 4양兩이 근斤이 되고, 근斤이 열이면 형衡이 되며, 형衡이 하나 반이면 칭秤이 되고, 칭秤이 둘이면 균鈞이 된다. 칭秤은 곧 15근斤이요. 균鈞은 30근斤이다. 균鈞이 넷이면 석石이 되고, 석石이 넷이면 고鼓가 된다.

상고하건대 10서黍를 유絫라 하고, 64서黍를 규圭라고 한다. 4규圭를 촬撮이라 하고, 1,200서黍를 약龠이라 하고, 10약龠을 홉合이라 한다. 10합合을 승升이라 하고, 10승升을 두斗라 하고, 10두斗를 곡斛이라 한다. 혹은 말하기를, 10촬撮을 초抄라 하고, 10초抄를 작勺이라 하고, 10작勺을 합合이라 한다. 지금 풍속에는 약龠을 석夕으로 쓰는데 이것은 아무런 이치도 없는 것으로, 이는 대개 작勺을 잘못 쓴 것일 것이다.

《본초本草》에 말하기를, "도규刀圭는 방촌方寸(1촌寸 정방正方의 찻숟갈, 1다시茶匙의 크기)의 10분의 1이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도규 넷을 촬撮이라 하고, 10촬을 1작勺이라 한다"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도서道書에 말하기를, "도규란 것은 칼머리 모서리의 조그만 것일 뿐이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도刀라는 것은 물속의 금金이요, 규圭는 무사진토戊巳眞土이다. 가무토假戊土를 진액眞液에 섞어서 황정黃庭으로 내려보낸다. 그러므로 스스로 도규를 마신다"라고 했다. 그 뜻은 모두 같지 않다.

백百이 열이면 천千이라 하고, 천千이 열이면 만萬이라 한다. 만萬이 열이면 억億이라 하고, 억億이 열이면 조兆가 된다. 조兆가 열이면 경京이라 하고, 경京이 열이면 자秭라 한다. 자秭가 열이면 해垓라 하고, 해垓가 열이면 보補라 한다.

대체로 경조윤京兆尹이란 칭호는 역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또 《필담筆談》에 말하기를, “산가算家에서는 만萬이 만萬이면 억億이라 하고, 만만억萬萬億을 조兆라 하고, 만만조萬萬兆를 해垓라고 한다”고 했다.

《완위여편宛委餘編》에 말하기를, “후한後漢에서 남선우南單于에게 1억 9,000여 만을 제공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1억은 1만이 만이다. 《운회韻會》에 말하기를, “10만을 억이라고 하는 것은, 옛 숫자이다. 진秦나라 때에 제도를 고쳐서 비로소 만만을 1억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심괄필담沈括筆談》에 말하기를, “균석鈞石의 석石은 오권五權의 이름이다”라고 했다. 《한지漢志》에는 말하기를, “4균鈞을 석石이라고 하며, 120근의 무게이다. 또 10두斗를 석石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후세 사람들은 1곡斛을 1석石이라고 했으니, 한漢나라 때부터 이미 이러했다. 술 1석石을 마시고도 어지럽지 않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활을 당기는데 옛사람들은 균석鈞石을 가지고 계산했는데, 제齊나라 선왕宣王이 즐겨 3석石 무게의 활을 쏘았다는 것이 이것이다. 또 말하기를, “한漢나라의 1곡斛은 지금의 2두斗 7승升이다”라고 했으니, 이 말은 믿을 만하다. 한漢나라 때 2,000석石의 녹祿이란 그다지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호胡씨는 말하기를, “망홀芒忽이나 호리毫釐[16]의 잘못이라도 막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그 주註에 보면, “망芒은 혹은 망茫이라고 하는데, 10망茫이 묘眇가 되고, 10묘眇가 진塵이 된다. 10진塵이 미微가 되고, 10미微가 홀忽이 되고, 10홀忽이 사絲가 되고, 10사絲가 호毫가 되고, 10호毫가 이釐가 된다. 그러니 소위 호홀毫忽이니 미진微塵이니 묘망眇茫이니라는 것은 대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16 잣눈, 또는 저울눈의 호毫와 이釐. 전轉하여 아주 짧은 거리나 극히 적은 분량.

혹은 말하기를, “10섬纖을 미微라고 하고, 10사沙를 섬纖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선실지宣室志》에 말하기를, “유수劉隨가 옛날 칼을 얻었는데 길이가 2척 4촌寸이었다. 대개 옛날에는 8촌을 가지고 1자로 하였으니 이것은 옛날의 3척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옛날의 10척은 곧 지금의 8척이다.
《본초몽전本草蒙筌》에 말하기를, “옛날의 푼 · 냥은 지금과 같지 않다. 옛날의 1냥은 곧 지금의 6전錢 반이요, 옛날의 3냥이 곧 지금의 한 냥이다”라고 했다.
상고하여보니 유수劉隨는 당唐나라 때 사람이다.

대체로 수를 세는 데 사람은 구口로 하고, 새나 짐승은 수首로 하고, 생선은 미尾로 한다. 붓은 매枚 또는 지枝로 하고, 먹은 환丸 또는 홀笏로 한다. 종이는 폭幅 또는 번番으로 하고, 벼루는 면面으로 하고, 띠는 요腰로 하고, 옷은 영領으로 한다.
또 중국에서는 국수나 고기 · 나무 · 숯 같은 것은 모두 근斤으로 센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수는 두斗로 하고, 고기는 괴塊로 하고, 나무는 속束, 숯은 석石으로 세는데 그 무게나 부피가 좀 맞지 않는다. 한어漢語로는 소나 말을 두구頭口로 센다.

26-4 고실故實

대명문황제大明文皇帝의 묘호廟號를 태종太宗이라고 했다가 뒤에 고쳐서 성조成祖라고 시호를 했다. 만력萬曆 계유년간癸酉年間에 우리나라에서 아뢰는 글에 태종문황제太宗文皇帝라고 하니, 중국 예부禮部에서 글을 보내 이를 책망하기를, “일이 불경不敬에 속하니, 이 뒤에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고 했다.

근간의 문서 중에 또 살피지 않고 태종太宗이라고 쓴 일이 있었다. 이미 문서의 대조를 마치고 임금의 재가裁可를 받은 뒤에 사자관寫字官 경용景容은 전고典故를 잘 아는 때문에 이것을 고치기를 청했다. 대개 《고사촬요考事撮要》에 '태종문황제'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잘못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쓰고 있는 것이다.

진리陳理의 자손은 호성湖西 내포內浦에 흩어져 산다. 내가 홍주洪州에 있을 때 진학손陳鶴孫이란 자가 자기 집에 고종황제高宗皇帝의 성지聖旨를 간직하고 있었는데, 먹 자국이 새것과 같다. 맨 첫머리에 "오왕영지吳王令旨 봉진리위封陳理爲 귀덕후자歸德侯者 용봉모년모월운운龍鳳某年某月日云云"이라고 써 있다. 대개 이것은 대명고황제大明高皇帝가 오왕吳王이었을 때 봉封해준 것으로서, 용봉龍鳳이라고 한 것은 곧 송나라 한임아韓林兒가 나라를 세운 연호이다.
상고하여 보니, 이때는 그 연호를 쓴 모양으로서 임아林兒가 죽은 뒤에 비로소 오왕吳王 원년元年이라고 했다. 또 그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에 연호를 홍무洪武라고 했던 것이다.
해마다 금과 은을 공물로 바치던 것을 세종조世宗朝에 비로소 감면의 승인을 얻었다. 상고하건대, 세종조에는 말 1만 필씩 두 번을 바치고, 5,000필씩 또 두 번을 바쳤다. 지금 1년에 5,000필을 바치는 것도 겨우 그 숫자를 채우는데, 혹은 종자가 없어지기까지 한다. 그러니 국초國初에는 물건의 풍부함이 오늘날이 미칠 바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중묘조中廟朝 때 중국 사신을 대접하는 잔치에서 중국 사신은 꽃을 꽂았는데 우리나라 임금은 잊고 꽃을 꽂지 않았다. 중국 사신이, "국왕께서는 어찌 꽃을 꽂지 않았습니까" 하고 묻자, 창졸간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역관譯官 이화종李和宗이 임금의 뜻인 양 사양하면서 말하기를, "꽃이 늙은 사람의 머리 위에 꽂히기를 부끄러워할 것이므로 나는 꽃을 꽂지 않았소" 하니, 사신이 크게 기뻐

했다고 한다.

명묘조明廟朝 때 승지 경혼慶渾은 나이가 자못 많아서 잊어버리는 일이 있었다. 임금이 어느 날, "은대銀臺에는 늙고 쇠약한 사람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글 제목으로 하여 유신儒臣들에게 글을 지어 올리게 하였으니, 대개 혼渾을 가리켜 한 것이었다.
이때 승지 유승선柳承善의 끝 시구詩句에 말하기를, "다만 근력이 나이를 따라 감하는 것 가엾게 여길 뿐 솔개 같은 어깨〔鳶肩〕[17]로 옛사람 싫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네〔只憐筋力隨年減 非喜鳶肩厭舊人〕"라고 했다. 임금이 기뻐해서 이를 상주고 특별히 경혼慶渾을 가선嘉善으로 승진시켰으니 참으로 성사盛事라 하겠다.

고려 때부터 한림翰林(예문관藝文館 검교檢校의 별칭)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는 것은 비단 영주瀛州[18]에 올라가는 것처럼 여길 뿐만이 아니었다. 〈한림별곡翰林別曲〉을 보면 이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한림연翰林宴이란 아조我朝에 와서 시작하여 매우 성행했다. 근세에 와서는 곧 옛 풍도風度는 무의미하다고 한다. 4관館[19]의 옛 법은 폐해 없어져서 드디어 매몰埋沒되기에 이르렀다. 아아! 옛 풍도는 없어지고 기강紀綱이 허물어졌으니 옛 일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도 되지 않을 것이다.

승문원承文院에서 평시에 문서를 올리는 날에는 선온宣醞[20]을 내렸으니 옛날의 일을 기록한 시詩에 말하기를, "문서를 올린 뒤에, 제조提調들은 각각 흩어

17 솔개 비슷한 모양의 어깨 위로 치켜 올라간 어깨를 말하는 것이니, 성낸 모습. 기세를 부리는 모양을 말함.

18 삼신산三神山의 하나. 동해東海 가운데에 있어서 신선이 살고 있다 함. 여기에서는 신선 사는 곳에 올라가기보다 어렵다는 말로 썼음.

19 조선왕조 때의 성균관成均館 · 예문관藝文館 · 승문원承文院 · 교서관校書館을 말함.

20 임금이 신하들에게 술을 내리는 것. 또는 그 술을 말함. 이 술은 사온서司醞署에서 만든다.

져 돌아가네. 마른 사슴고기 한 입으로 쪼개고, 선온은 두 술 단지 열었네. 대선생들을 불러 마시고, 여러 친구들도 청해 오네. 고령종高靈鍾으로 들고 마시니, 어느덧 취해서 쓰러지네(監進文書後 提調各敎回 乾獐一口割 宣醞兩尊開 呼大先生飮 請諸僚長來 高靈鍾上下 不覺玉山頹)"라고 했다. 고령종이란 즉 승문원 안에 있는 옛날 그릇으로서 8, 9승升이나 든다. 전하는 말에 이것은 고령高靈 신숙주申叔舟가 마시던 그릇이라 한다. 혹은 또 고령高靈 땅에서 나는 그릇을 말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아아! 이러한 옛 일들은 이제 다시 볼 수가 없다.

유뇌계兪濡溪가 자기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산음현감山陰縣監이 되어 나갔다. 그러나 그는 고을 다스리는데 서툴러서 보통 문서도 처리하지 못했다.
어느 백성 하나가 소장訴狀을 올렸으나 오래도록 결정이 없다. 백성은 호소하기를, "판결을 내리시기는 감히 바라지 않습니다만 오직 그 소장이라도 돌려주십시오"라고 했다. 뇌계濡溪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통인通引(지방 관청에서 잡역雜役을 하던 사환)이 곁에 있다가 말하기를, "여기 부임하시던 날 바친 소장도 아직 처리하지 못했는데 너는 소장을 올린 지 겨우 닷새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찌 그리 급히 서두르는가"라고 했다. 뇌계는 그가 쉽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이 통인은 참으로 재주가 뛰어나구나"라고 했다.
영남嶺南 방백方伯이 배사拜辭(부임하는 지방 관원이 임금께 하직함)하는 날 성묘成廟가 불러 보고 말하기를, "내 친구 유호인兪好仁이 산음현감山陰縣監이 되어 나가 있으니 경卿은 두둔해 주어라"라고 했다. 그러나 방백方伯은 이 뜻을 받들지 않았다. 마침내 뇌계가 백성들의 숨은 정상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시詩나 읊는다 해서 파직시켜 내쫓았으니, 조종조祖宗朝의 좋은 기상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

만력萬曆 병오년丙午年에 문묘文廟에 벽서壁書(벽에 써 붙인 글. 지금의 벽보와 같음)의 변고가 있었으니, 그 당시의 재상과 환관宦官·궁인宮人들의 성명을 벌여 쓰

고, 또 서로 통하고 흐리고 혼란한 일까지 써 있어서 그 흉하고 참혹하기가 한이 없었다. 이에 문묘文廟에 위안제慰安祭를 지낸 다음, 삼성추국三省推鞫[21]으로 관관館官 고경오高敬吾 이하 서리書吏와 전복典僕을 국문하니 신문을 받다가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그러나 마침내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하고 유생儒生들 중에 체포된 자가 또한 4, 5명이나 되었다. 임금은 유생을 고문할 수 없다고 하여 모두 석방할 것을 명했으니,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이 지극하다 하겠다.

《유선록儒先錄》에 말하기를, 일두一蠹 선생이 종성鍾城으로 귀양 갔을 때 처음에는 정료부庭燎夫(뜰에 횃불을 밝히는 인부)로 정해져 있었다. 사신이 공관公館에 들어올 때마다 선생은 문득 횃불을 들고 소임에 매우 공순했다 한다. 지금은 귀양 간 사람은 다만 편한 대로 한가하게 있을 뿐으로, 비록 도형徒刑 몇 년을 받고 가 있어도 역시 일을 맡아하는 것이 없다. 근년에 오직 사문斯文 조헌趙憲은 역참驛站에 귀양 가 있을 때 사신이 지나갈 때면 반드시 우립羽笠을 쓰고 길을 인도했다. 사신이 이것을 중지시켜도 듣지 않고 “내가 듣건대 중국 조정에서는 비록 대신大臣이라도 죄가 있으면 모두 변방의 먼 곳으로 배치해서 몸소 국경을 지키는 일을 맡게 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했다. 그 착실하기가 이와 같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대事大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런 때문에 당하堂下의 문관文官은 이습관肄習官이라고 하여 모두 괴원槐院에 소속시킨다. 그리하여 매달 이틀씩 부제조副提調(정3품 당상관堂上官의 조제調提)가 모여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권하고 이문吏文[22]은 곧 열흘에 한 번씩 백일장白日場을 베풀었다. 한어漢

21 의정부議政府 · 양사兩司 · 의금부義禁府의 관원이 함께 죄인을 국문하는 것.

22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주고받는 문서에 쓰던 특수한 문체文體로서 자문咨文 · 서계書契 · 관자關子 · 감결甘結 · 보상報狀 · 제사題辭 등에 쓰던 글.

語를 배우는 데는 별초別抄가 있고, 또 정시庭試·전강殿講이 있어서 이것으로 상을 주고 벌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이런 일도 해이해져서 제조提調가 회좌會坐하는 날에는 혹은 병이 있다고 하여 오지 않는 자까지 있으니 몹시 한심한 일이다.

상고하건대, 중국 학사學士 이동양李東陽은 서길사庶吉士를 가르쳤는데 괴원槐院에 가서 장부를 열람하고 병으로 휴가한 자를 죄다 적어 가지고 가서 부賦 1절絶을 지어 말하기를, "마루를 돌아봐도 적적하게 아무도 없으니, 대낮에 혼자 병 앓는다는 책력만 넘기네. 태관太官을 도둑질해 먹고도 조그만 도움도 없이, 푸른 그늘 정자 위에 의서醫書만 뒤적이네(回廊寂寂鎖齋居 白日都消病曆餘 竊食太官無寸補 綠陰亭上勘醫書)"라고 했다. 아아! 천하의 일이 세월을 헛되이 보냄이 이와 같으니 이것이 어찌 우리나라만 그러하겠는가.

선왕조先王朝 임신년壬申年에 박근원朴謹元은 도승지都承旨로서 임금의 친경親耕 때의 공로에 대한 상으로 승진했다. 대사헌大司憲 박응남朴應男은 근원謹元과 사이가 절친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근원에게 말하기를, "이런 일을 가지고 상전賞典이 있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하고 곧 고칠 것을 청해서, 임금이 이를 윤허했다.

또 계유년癸酉年에 나의 선군先君께서 도승지都承旨가 되었을 때, 인성왕후仁聖王后를 시약侍藥한 일로 해서 내의제조內醫提調와 의관醫官들이 모두 상을 받았다. 이때 양사兩司에서는 이를 고쳐 주기를 청했다. 그러나 여러 달이 지난 뒤에 다만 의관만을 윤가했다. 양사에서는 그 일로 아뢰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정언正言 이제신李濟臣은 의논을 그만둔 것을 잘못이라고 해서 양사를 바꾸어줄 것을 아뢰었다. 이렇게 하기를 여섯 달 만에야 비로소 아뢰기를 그쳤다.

지금은 상전賞典이 너무 지나치게 많고, 대관臺官이 이를 바로잡는 일은 드물다. 혹은 위에 아뢰는 일이 있다고 해도 이내 이를 정지하고 마니 옛날 일과는

다르다.

조종조祖宗朝에서는 대간臺諫은 비록 추고推考(관리의 과실을 신문해서 살핌)를 받아도 바뀌지 않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추고推考를 당하면 곧 사간원司諫院에 내려보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추고推考에 응하기만 하여도 반드시 자리를 바꾸는데, 이것은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른다. 아주 작은 일을 가지고도 문득 혐의 받은 책임을 지고 벼슬을 물러나야 한다. 그런 때문에 대간 된 자가 비록 혐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해도 그렇게 하면 부끄럼이 없는데,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쫓는 것을 면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것은 이미 고칠 수 없는 폐단이 되고 말았다.

조종조祖宗朝 때는 크고 작은 공사公事를 모든 관리들이 임금 앞에 친히 나아가 아뢰었다. 그러던 것이 중세中世 이래로는 이 법이 드디어 없어져 버리고, 모든 아뢰는 말은 승지承旨에게 전하고, 주서注書가 이것을 글로 써서 아뢰어 왔다. 그 뒤로부터는 초기草記를 해서 글을 벌여 놓음이 거의 소차疎箚와 같게 했다. 지금 정원일기政院日記(승정원일기)에 기록하기를, "승지承旨 아무개는 어느 관사 관원 아무의 말을 가지고 아뢰어 말하기를……"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대개 남아 있는 옛 법이다.
전에는, 비밀한 공사公事는 정원政院에서 열어보지 못했다. 명묘조明廟朝 때 황해도黃海道의 큰 도둑 임거정林巨正(임꺽정)이 그 무리들을 시켜 한 통의 문서를 올려 마치 변고를 고하는 것처럼 했다. 승지가 이것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아뢰니, 임금은 노해서 승지를 해임했다.
이런 뒤부터 비밀한 일은 정원政院이 모두 먼저 뜯어 알아 본 뒤에 임금에게 아뢰게 했다. 그런데 지금 상소上疏의 피봉에 상전개탁上前開拆이라고 쓰는 것은 모두 옛날의 예 때문일 뿐이다.

조종조祖宗朝에서는 수릉관守陵官과 중국에 가는 사신을 혹은 무관武官으로 정하는 수도 있었다. 그러나 중세中世 이래로는 문관文官이 아니면 이를 할 수가 없다. 또 전의 수릉관은 반드시 종2품 중에서 늙은 부모가 없는 사람으로 골라서 시켰다.

선조대왕宣祖大王 상사喪事 때 구의강具義剛이 수릉관이 되었다. 대간臺諫이 이것을 바꾸어 친공신親功臣으로 제수하자고 청했다. 그런 때문에 박동량朴東亮이 정2품 벼슬로서 이 자리를 대신했다. 그러나 그해가 지나기도 전에 모친의 상사를 만났다. 조정에서는 이를 허락하여 초상에 달려가서 성복成服하게 한 다음에, 재소齋所로 돌아오게 했으니 역시 특별한 은전恩典이다.

대체로 동료가 되면 형제로서의 의리가 있다. 옛사람들은 이것을 소중히 여겨서 옛날에는 분축分軸하는 일이 있었다. 지금의 시축詩軸처럼 만들어 다만 성명만 기록할 뿐이었더니 중간에는 드디어 장지를 만들면서도 오히려 이것을 계축契軸이라고 하니 이것은 대개 존양存羊[23]하는 뜻인 것이다.

근래에 와서는 드디어 비단으로 병풍을 만들고 채색으로 산수山水를 그리니 사치하기가 지나치게 심하다. 이것을 대간에서 금하기까지 해도 그치지 않으니 매우 부당하다. 그런데도 동료 간의 계호契好의 뜻은 점점 옛날과 같지 않은 것은 무슨 때문인가.

대체로 경연經筵에 나아가 글을 읽는 것은 옥당玉堂의 상번上番이 하는 것이 예로 되어 있다. 선왕조先王朝 때 주박周博이 교리校理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몸이 쇠약하고 둔해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강講을 할 때가 되자 하번下番을 대신 시킬 것을 청했다. 그런데 하번인 수찬修撰 이충원李忠元은 창졸간倉卒間에 나왔기 때문에 글 구절도 제대로 떼어 읽지 못해서 당시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23 전에 쓰던 예법이나 허례虛禮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는 일.

그러니 논사論思의 관리들은 반드시 먼저부터 글을 익히 읽어서 불시不時의 일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옥당의 상번 · 하번은 반드시 서로 보고서 교대한다. 그런 때문에 선왕조 때 박계현朴啓賢 공이 당직이 되어 이준민李俊民과 약속하기를 일찍 와서 교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준민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대궐 문은 닫히려 한다. 박 공이 서문西門 안에서 오래도록 이 공을 기다리노라니 이 공이 그제야 천천히 오는 것이었다. 박 공이 노해서 이를 꾸짖자, 이 공은 말에서 내리기도 전이었는데 박 공을 향해 말하기를, “그대가 그렇게 하면 나는 이대로 돌아가겠네” 하고는 즉시 말을 달려 돌아가니 박 공은 종시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고사故事들은 이러했다.
근래 옥당의 벼슬로 있는 자들은 마음대로 밖으로 나와서 혹은 하루를 지나도록 숙직을 빠지는 수도 있고, 상관이 명해서 불러도 나가지 않는 수도 있으니 곧 세도世道의 변한 것이라 하겠다.

첨지僉知 안종도安宗道와 첨지 정복시鄭復始는 같은 해에 과거에 급제해서 괴원槐院에 들어갔다. 정鄭의 자리는 안安의 바로 다음 자리였다. 그러나 안安은 검책檢責하는 것이 몹시 엄했다. 정鄭은 이것을 괴롭게 여기어 시를 지어 말하기를, “형강의 물결은 따뜻하여 물고기 살찌겠구나, 괴원에 봄이 깊으니 백일이 더디구나. 어찌할 수 없는 저 안 정자安正字요, 돌아가기만 못한 이 정 첨지로다〔荊江波暖訥魚肥 槐院春深白日遲 無可奈何安正字 不如歸去鄭僉知〕”라고 했다. 이것은 정鄭의 집이 형강荊江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을 양사兩司라고 한다. 전부터 양사의 관리를 통해서 상피相避하는 법이 있어 아래 자리에 있는 자를 바꾸는 것이 예로 되어 있다.
신해년간辛亥年間에 이르러 유희분柳希奮이 대사간大司諫이 되어 도헌都憲과 상

피相避로 물러나게 되었다. 그런데 사간司諫 채경선蔡慶先은 양사를 통해서 상피하는 것은 법전에 실려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나와 벼슬하기를 청했다. 이리하여 드디어 잘못된 예가 되어 버리니 의논하는 자들이 이것을 잘못이라고 했다.

승문원承文院 제조提調는 반드시 당시 세상에 문망文望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이 벼슬을 제수했다. 만력萬曆 병술년간丙戌年間에 내가 처음 본원本院에 벼슬했는데 그때 도제조都提調는 노수신盧守愼 · 정유길鄭惟吉 · 유전柳琠이었고, 제조提調는 이산해李山海 · 정탁鄭琢 · 유성룡柳成龍 · 이양원李陽元 · 황정욱黃廷彧 · 윤탁연尹卓然 · 윤의중尹毅中이었고, 부제조副提調는 권벽權擘 · 정윤복丁胤福 · 이성중李誠中이었다.
최립崔岦 같은 글재주 있는 사람으로서도 임진왜란壬辰倭亂 뒤에야 비로소 제조提調를 제수받았다가 마침내는 또한 바뀌고 말았다. 홍여순洪汝諄이 권리를 잡았을 때에도 그는 역시 제조提調는 되지 못했다. 부제조副提調에 이르러서는 공사제조公事提調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예例로서 3, 4명에 지나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근년에 와서는 부제조副提調가 많은 때는 10여 명이나 된다. 또 전에는 제조提調가 승지로 임명되면 제조提調는 해임했다. 그런데 근년에 와서는 승지로서 이것을 겸하게 하니, 이것은 고사故事에는 없는 일이다.

전에는 삼사三司의 관리들이 삼공三公에게 찾아가서 만나지 않았다. 이것은 대체로 자중自重하는 의미에서이고, 또는 그 체모를 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이준경李浚慶이 정승으로 있을 때 부제학副提學 심의겸沈義謙이 와서 준경浚慶에게 뵈었다. 준경은 이를 사양해 말하기를, "부제학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라고 했다. 의겸義謙이 여기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세모歲暮 때가 되었기로 와서 뵙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준경浚慶은 말하기를, "삼사三司의 장관長官이 와서 삼공三公을 만나는 것을 남들이 듣고 알면 반드시 해괴하게 여길 것이오.

이 뒤로는 와서 보지 마시오"라고 했다. 전배前輩들의 풍채를 대략 알 수 있다.

문관文官에게 공부를 권하는 규칙으로는, 평시에는 문신文臣의 정시庭試가 있고, 월과정시月課庭試가 있고, 이문정시吏文庭試가 있고, 한어전강漢語殿講이 있고, 전경전강專經殿講이 있고, 시사試射가 있고, 전문篆文이 있고, 삭서朔書가 있고, 사자寫字가 있어 그 규칙은 한결같지 않았다. 그러나 각각 상주고 벌주는 것은 있으니 이것은 모두 법전에 실려 있다.
왜변倭變이 있은 후로는 정시庭試 · 전강殿講 · 과시課試 등은 모두 없어져서 보이지 않는다.

평시에는 괴원槐院이 경복궁景福宮의 광화문光化門 안에 있었다. 그 안에는 장서각藏書閣이 있어서 무척 높다란데, 중국 조정의 고칙誥勅 등 모든 문서를 간수해 두었다. 여기에는 삼원三員을 갖추어 두어 문을 열고 닫게 했다. 모든 새로 괴원의 관원으로 뽑히는 자는 그 이름을 각閣 아래에 쓰고 큰 잔치를 벌였으니 이것을 제명연題名宴이라고 한다. 본원本院으로부터 한림주서翰林注書가 되는 자는 이를 서비西飛라고 했다. 이것은 괴원이 동쪽에 있기 때문이다.
참판參判 윤인함尹仁涵이 정자正字가 됐을 때 시를 지어 말하기를, "과거에 오른 지 3년 뒤에도, 오히려 조사曹司(낮은 벼슬아치)를 면치 못하네. 매양 까닭 없는 책망을 받으니,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것 참기 어렵다(登科三載後 猶不免曹司 每受無端責 難堪有口飢)"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곧 그 실상을 기록한 말이다.

간원諫院의 아문衙門은 관청 중에서도 제일 맑고 차기로 이름났었다. 표범 가죽 1장을 가지고 여러 사司에 돌려가면서 빌려 주어 이것으로 공용供用하는 자료로 쓰게 했다. 그런 때문에 세상에서는 사간원표피司諫院豹皮라는 말까지 있다.
또 신관新官이 서로 모이는 날에는 으레 아란배鵝卵杯로 술을 마셨다. 이것은

역시 한 가지의 고사故事인데, 아직도 무엇에 근거했는지 알 수가 없다.

대궐 안에서 수직하는 장사將士들은 옛날부터 인寅·신申·사巳·해일亥日로 서로 교대했다. 위장衛將은 동서남북의 네 곳으로 나누어서 수직하는데 수직하기 전에 확인을 받고 수직한다. 그런 때문에 내가 위장에게 주는 시에 말하기를, "남북과 동서 네 곳으로 나뉘었고, 인신寅申과 사해일巳亥日에 세 밤을 수직하네〔南北東西分四所 寅申巳亥直三宵〕"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곧 그 실상을 기록한 말이다.

성균관成均館 정록청正錄廳은 옛날로부터 상직관上直官이 언제나 당시 생긴 일의 큰 것을 기록했으니, 이것을 현책玄冊이라고 했다. 이 책을 궤짝 속에 넣고 봉해서 출납出納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때부터 시작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것도 왜변倭變 이후는 폐해 버렸다.
법전法典에 보면, 당상관堂上官으로서 치사致仕(나이가 많아 벼슬을 그만둠)한 사람이나, 또는 당상관으로서 그 아내의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에게는 달마다 술과 고기를 내렸다. 평상시에도 이를 행하고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왜란倭亂 이후로는 이런 예가 없으니, 이것은 특히 예의 결함이라고 하겠다.

옛날에는, 좌편에는 금수金燧를 차고, 우편에는 목수木燧(나무를 마찰시켜 불내는 기구)를 차고서 불을 구하게 했다. 갠 날에는 금金을 쓰고, 흐린 날에는 목木을 썼다. 그러나 소위 목수木燧라는 것은 그 제도를 상고할 수가 없고, 금수金燧는 곧 지금의 화금火金[24]이다.
옛날 요동遼東으로 가는 길은 모두 비어 있어서 사람의 집이라곤 없었다. 중국에 사신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노숙露宿하는 자가 많았다. 그런 때문에 반드시

24 여기에서는 부시를 말한 것. 부시는 부싯돌에 부싯깃을 놓고 부싯돌을 쳐서 불똥이 일어나게 하는 쇳조각.

화금火金을 주어서 이것으로 가는 길에 불을 피워 밥을 해먹도록 한 것이다. 박사암朴思庵이 사람을 중국 도성에 보내면서 지은 시에, "밤에 우화郵火를 두드려 찬 모래 위에 자네(夜敲郵火宿寒沙)"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지금은 동팔참東八站 등에 인가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서 화금火金을 쓸 데가 없다. 그런데도 외지에 가는 노비路費로 화금火金을 주어 보내니, 이것은 대개 옛 일을 좇아서 하는 것이다.

감찰監察이란 곧 옛날의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의 직책이다. 그런 때문에 속담에 이것을 전중殿中이라고 한다. 본부本府에 회좌會坐하지 않는 날에는 곧 성상소城上所[25]에 여러 전중殿中들이 어느 곳에 모여서 대臺를 나누고 파한다. 이것을 다시茶時라고 한다. 이것은 차를 마시고 그대로 파한다는 말이다.
조종조祖宗朝에는 신하들 중에 간사하고 참람하게 재물을 탐하는 자가 있으면 여러 전중殿中들이 밤에 이 다시茶時를 타고 그 집 근처에 가서는 그 집의 죄악을 들춰내어 이것을 백판白板에 써 가지고 그 집 문 위에 걸고, 가시로 그 문을 막아놓은 다음 굳게 봉하고 이름을 쓰고 간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드디어 세상에서 폐고廢錮(일생 동안 벼슬을 못 하게 함)가 된다. 그러나 이런 일은 없어진 지 오래다.

감찰은 여러 관료들을 검찰 한다. 그런 때문에 전에는 힘써 소박한 것을 따라서 토홍색土紅色 단령團領을 입고 못생긴 말에 다 해어진 안장을 얹고 다녔다. 명묘明廟 말년에 비로소 그 복색을 고치도록 허락해서 옛 풍습은 드디어 바뀌고 말았다.

조종조祖宗朝 때에는 육조六曹에서 수직하는 양관郞官들이 달 밝은 밤이면 창녀娼女를 데리고 광화문光化門 밖 길 위에 모여 밤새도록 술 마시고 이야기했다.

25 사헌부司憲府 관리가 대궐문 위에서 백관을 시찰하던 곳.

사간원司諫院의 관리들도 또한 친구와 만나 잔치 여는 것으로 일을 삼았다. 혹은 기생을 데리고 들어가 숙직하기도 했으며 날이 장차 밝을 무렵이 되어서 장무리掌務吏(각 관청 관리 밑의 아전)가 큰 소리로 창 밖에서 뵙기를 청한다. 이것은 어서 그 기생을 내보내라는 소리다.
세도世道가 이미 변했는데도 사간원이 숙직하는 밤이면 장무리는 아직도 반드시 뵙기를 청한다. 이것은 옛 일을 좇는 것이다. 그러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숙직하는 일까지도 역시 없어졌다.

수령守令과 변장邊將이 배사拜辭하는 날에는, 정원政院에서는 임금의 전교傳敎라 해서 말해 보내는 것이 예로 되어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로 이 법이 폐해진 지 오래다.
갑오년甲午年에 이르러 내가 승지가 되자 원중院中에서 옛 일을 다시 의논해서, 나로 하여금 약간의 글을 써서 말해 보내도록 했다. 이것은 곧 일시적으로 생각해낸 일이었다. 그러나 이 글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행해서 한 글자도 보태고 감하는 것이 없으니 우스운 일이다.

고려 때에는 낭장郎將들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벼슬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조종조祖宗朝에서도 무변武弁(무사武士)에게는 역시 내지內地의 수령守令을 시키지 않았다. 중묘조中廟朝 중년中年 이후에 권간權奸이 정권을 잡자, 자기와 가까운 무변武弁에게 수령 벼슬을 제수했으니 이것은 옛 일이 아니다.

변진邊鎭의 문을 닫을 때는 반드시 "유아孺兒"를 연거푸 부르고 난 뒤에 자물쇠를 채웠으니, 이것은 옛날부터 하던 일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옛날 장수에 유아孺兒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다. 전쟁에 나갔다가 미처 문에 들어오지 못하여 죽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슬퍼하여 문을 닫을 때마다 반드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대개 초혼招魂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26-5 이문異聞

조필趙弼이 지은 《문산전文山傳》에 말하기를, "문산文山이 죽은 날 큰 바람이 모래를 날리고, 천지가 대낮인데도 어두워 지척을 분별하지 못했다. 이것이 여러 날 동안 계속되니 궁중에서는 촛불을 가지고 다녔고, 여러 신하들이 조정에 들어가는데도 역시 횃불을 들고 길을 인도했다. 세조世祖는 이를 후회하여 그에게 벼슬을 내려 신주神主에 쓰게 하고 단壇을 모아 제사를 지내게 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그 신주神主를 말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했다.

아아! 괴상한 일이다. 이것은 혹시나 공의 정당한 기운이 아직도 다 없어지지 않아서 그랬던 것일까. 아니면 천지가 노여워해서 이렇게 한 것일까.

왕수인王守仁이 일찍이 한 절에 가보니 방 하나가 몹시 비밀히 봉해져 있었다. 중의 말을 들어 보니, 그 속에는 입정入定한 중 하나가 들어가 문을 닫은 지 50년이 되었다는 것이다. 수인守仁이 그 문을 열고 보니 한 중이 감실龕室(신불神佛을 안치하는 장) 안에 앉아 있는데 엄연히 산 사람과 같은데 그 모양은 꼭 자기와 비슷했다. 벽 사이에 시詩가 있는데 말하기를, "50년 전 왕수인王守仁이, 문을 연 것이 원래 문 닫은 사람일세. 정령精靈이 박剝했다가 도로 복復[26]이 되는 날, 비로소 선문禪門에는 몸이 없어지지 않은 것 믿으리〔五十年前王守仁 開門原是閉門人 精靈剝後還歸復 始信禪門不壞身〕"라고 했다.

이 일은 《소설》과 그 밖의 모든 글에 나와 있다. 방관房琯 인명人名의 일보다도 더욱 이상한 일이다.

26 박剝과 복復은 모두 역易의 괘명卦名. 박剝은 1양陽이 5음陰 위에 있는 것으로서 음陰이 커져서 양陽이 없어지려는 모양. 복復은 이와 반대로 1양陽이 5음陰 밑에 있는 것으로서 양陽이 커져 가는 모양. 여기에서는 음陰을 난세亂世에 비하고 양陽을 치세治世에 비하여, 난세가 다하여 치세가 되는 날을 말한 것임.

숭의전崇義殿은 마전麻田 강 언덕에 있다. 왕태시王太視가 궁예弓裔에게 벼슬했을 때에 송경松京에서 왕래하며 쉬던 곳이다. 대개 태조太祖의 옛 집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궐을 지었던 것이다. 그래서 고려의 태조와 현종顯宗 · 문종文宗을 여기에서 제사 지낸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제사 지낼 고기를 훔쳐 베어가지고 갔다. 그날 밤에 제관이 꿈을 꾸니, 삼왕三王이 대궐 위에 벌여 앉아서 고기 훔쳐간 자를 꾸짖고 끌어올려 목을 베는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에 그 사람을 조사하니, 곧 죄를 승복하고 벌을 받았다.

또 대궐 안의 휘장과 그릇을 훔쳐서 지고 간 자가 있었다. 그 자가 아직 문에까지 이르기 전에 사지四肢가 묶인 것 같아서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드디어 그 자를 잡을 수가 있었다. 그런 때문에 그 고을 아전들은 엄숙하고 공경하게 일을 보아 감히 조금도 게을리하지 못했다 한다.

사문斯文 노盧 아무개는 어사御史가 되어 금천衿川에 도착했다. 큰 비가 내려 냇물이 넘치는데 관 하나가 떠내려 왔다. 관 위를 보니 거기에 새기기를, "언덕이 천 년이 지나고 보니, 이곳이 변해서 내가 되었네. 다시 노 어사를 만나는 날, 옮겨서 푸른 산 앞으로 들어가리(丘陵千載後 此地化爲川 更逢盧御史 移入碧山前)"라고 했다. 노盧는 이상히 여겨 곧 조그만 산 밑에 묻어 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 땅 이름을 물으니, 그 지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파라산波羅山이라고 했다. 파라산은 곧 속음俗音으로 파란 산(碧山)이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생원 조완벽趙完璧이란 자는 진주晉州에 사는 선비이다. 20세 때 정유년丁酉年 왜변을 만나 포로로 잡혀 일본으로 끌려갔다. 그 후 장사하는 왜인을 따라 세 번이나 안남국安南國에 갔다. 안남安南은 일본과의 거리가 바닷길로 3만 7,000리나 되는 곳으로서, 일본 살마주薩摩州(사츠마)에서 배를 타고 바닷물이 서쪽은 높고 동쪽은 얕은 곳을 주야로 5, 60일을 가야 안남安南 흥원현興元縣에 도착

한다. 그 지방은 무척 따뜻해서 논에 곡식을 심는 것이 철이 없어서, 석 달 동안 있는데도 한 쪽에서는 논을 갈고, 한 쪽에서는 곡식이 익고, 또 한 쪽에서는 거두고 하는 것이었다. 또 해마다 밭을 일구어 뽕나무를 심어서 이것으로써 누에를 친다. 목화는 나무가 되어 높고 커서 목화송이의 크기가 작약꽃만 했다. 이것을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따 모은다. 과실은 귤橘과 여자荔子밖에 다른 것은 없다. 일본에서 건시乾柹(곶감)를 가져다주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항상 빈랑檳榔(종려과에 속하는 상록常綠 교목喬木 및 그 열매)을 먹고, 목이 마르면 자초蔗草(사탕수수)를 씹는다. 그들은 오래 사는 사람이 많아 노인의 나이 120세 된 자도 있다. 머리털은 희었다가 다시 누렇게 되니, 대체로 이것을 소위 황구黃耈라고 한다. 그 뒤 10여 년 만에 완벽完璧은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 늙은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탈 없이 사니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흥양興陽 바닷가 바위 위에 늙은이 하나가 앉아서 졸고 있었다. 사람이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옆에 지팡이 하나를 놓았는데, 지팡이 위에는 조그만 표주박 하나가 걸려 있었다. 가까이 간 사람이 이것을 떼어서 구경할 무렵 늙은이는 놀라서 깨더니 이것을 빼앗아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아마도 이 늙은이는 신룡神龍이 변화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그 표주박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영천永川에 사는 백성 하나가 생선 잡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었다. 허리에 노끈을 두르고 물속에 들어가서 이 노끈으로 생선의 아가미를 꿰어 금시에 수십 마리를 잡아가지고 나오곤 했다. 그는 물에 들어갈 때마다 그대로 나오는 일이 없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신神이라고 했다.
그러던 것이 어느 날은 깊은 못 속에 들어가더니 나오지 않았다. 조금 있더니 붉은 피가 물 위에 떠올랐다. 모두들 이것을 괴상히 여기고 있는데 한참 만에

그 사람이 물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는 허리에서부터 아래를 모두 물어뜯겨서 피가 흐르고 조금도 성한 살이 없었다. 숨이 끊어지는 것 같더니 얼마 만에야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가 물속에 들어가자 잉어 떼를 만났다. 이것을 따라가 한 곳에 이르니 문 같은 것이 있는데 잉어들이 모두 그곳으로 들어갔다. 잉어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터라, 그도 잉어를 따라서 들어가 보니 그 안은 명랑明朗하여 딴 세계를 이루고 있었다. 어렴풋하게 누각 같은 것이 있고, 그 뜰에 있는 물 깊이는 불과 한 자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큰 물고기 수백 마리가 떼를 지어 다투어 가면서 서로 뛰어올라 자기의 살을 물어뜯어 아픔을 참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소리를 질러 살려달라고 빌었더니 웬 백발의 늙은이가 마루 위에 앉아 있다가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너는 이제 네 죄를 아느냐. 이놈을 놓아 보내도록 해라"라고 했다. 위를 쳐다보니 환하게 문이 열려 있었다. 그는 곧 몸을 솟구쳐서 이제 나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그 길로 병이 들어 몇 달을 앓다가 겨우 죽음을 면했다고 한다.

대체로 이 사람은 좋은 꾀를 써서 물고기를 잡더니 마침내는 곤경을 치르고 말았으니 이것은 보응報應의 이치가 그러했던 것이다. 그가 갔더라는 곳은 용궁수부龍宮水府가 아닌지 모르겠다.

장자莊子가 말하기를, "오직 벌레라도 능히 하늘을 안다"라고 했다. 대개 사람과 미물은 함께 하늘을 얻었다 하겠지만, 미물의 기교를 사람이 도리어 따르지 못하는 것이 있다. 누에가 고치를 만드는 것이나, 거미가 그물을 치는 것이나, 벌이 꿀을 만드는 것이나, 제비가 집을 짓는 것이나, 개미가 둑을 쌓는 것이나, 명령螟蛉(나비 · 나방류의 유충)이 저를 닮으라고 자식을 비는 것 등은 이미 일찍부터 듣는 일이다.

벌을 치는 자가 이상한 벌이 벌통으로 날아 들어가려는 것을 보았는데 그 벌

이 벌의 왕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필시 이것은 다른 종류의 벌로서 꿀벌을 해치려고 온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이 벌을 잡아 죽였다. 그런 지 며칠 뒤에 모든 벌들은 한 곳에 모여서 죽어버렸으니, 이것은 더욱 이상한 일이다.
혹은 말하기를, "사람이 하는 일은 넓기는 하지만 전일하지 못하다. 그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있어서 이것을 잘 해내지 못한다. 그러나 미물의 성질은 좁고 막혀서 아는 것이라고는 음식과 이해利害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성품이 열려 밝은 곳에는 능히 천명天命의 원리를 잃지 않는다"라고 했다. 아아! 사람으로서 이 벌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많구나.

26-6 징응徵應

《한서》에 보면, "영제靈帝는 호병胡餠 · 호복胡服 · 호무胡舞를 좋아해서 호공후胡箜篌(악기의 일종. 서양의 하프와 비슷하다)를 만들었다. 이것은 곧 동탁董卓이 호병胡兵을 몰아 경사京師를 깨칠 징조였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당唐나라 명황明皇이 갈고羯鼓[27]를 좋아한 것도 역시 안녹산安祿山이 난을 일으킬 징조란 말인가.

오吳나라 손호孫皓 때 조현刁玄은 참서讖書(미래의 일을 예언한 기록)에 거짓을 보태서, "누런 깃발과 붉은 일산이 동남쪽에 보인다"라고 하였더니, 오주吳主가 이것을 믿었다고 한다. 대체로 이 황기黃旗 · 자개紫蓋는 거짓말이 아니다. 진晉나라가 남쪽에서 건너와서 양진梁陳에 이르기까지 강좌江左에 도읍하기를 수백 년 동안 했으니 이것은 거의 여기에 응한 것이다.

가정황제嘉靖皇帝는 번왕藩王의 몸으로서 들어가 대통大統을 이었다. 당시 대학사大學士 모징毛澄이 임금을 맞아 고성藁城에 이르러 다리를 건너려 했다. 그러

27 만족蠻族이 사용하던 북의 일종. 대臺 위에 놓고 북채로 양면을 침. 양장고兩杖鼓라고도 함.

나 다리는 무너지고, 비석이 나오는 데 그 비석에 쓰기를, “다리가 무너지매 천자天子가 지나가고, 비석이 나오매 장원壯元이 온다〔橋崩天子過 碑出壯元來〕”라고 했다. 뒤에 모징이 장원이 되었다 한다.

우리나라 초년에, 제사 지내는 악장樂章과 서울 안팎의 마을 이름은 모두 정도전鄭道傳이 지었다. 그런데 정도전은 수진방壽進坊에서 베임을 당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언참言讖이라고 했다. 대개 수진壽進의 진進과 진盡은 음이 같기 때문이다. 지금은 수중방壽重坊이라고 고쳤다.

옛날에 동요童謠가 있어 말하기를, “금차금차金車金車 수저귀여水底歸歟”라고 했다. 이때 재상으로 금륜金輪이란 자가 있었으니 수원水原 사람이다. 금차金車는 곧 금륜金輪을 말한 것이요, 수저水底는 수원水原을 말한 것이요, 귀여歸歟는 돌아갈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금륜金輪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침내 화를 입었다.

임진년壬辰年 변變이 일어날 때 어느 사람이 《초씨역림焦氏易林》을 가지고 점을 쳐서 송괘訟卦를 얻었다. 거기에, “문文은 교巧해지고 풍속은 허물어지니 장차 자기 몸에 돌아가리라. 시체는 삼〔麻〕을 쌓아 놓은 것 같고, 피는 흘러 노櫓가 뜨리라. 모두 그 어미만 알고 그 아비를 알지 못해야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고 했다.
대개 이때 장정들은 모두 죽어 없어져서 아이가 자라도 제 아비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 또 여자는 중국 군사에게 더럽혀져서 난 아이의 아비 성姓을 모르는 자도 있었으니, 그 징험이 이와 같았다.

권필權韠은 뜻이 커서 과거를 보지 않았다. 시를 지어 세상일을 배척하다가 신문을 받고 멀리 귀양 가게 되었다. 서울을 나와서 청문靑門 밖에서 쉬었다. 어

느 사람이 술을 내왔다. 권필은 술을 취하도록 마셨는데 그 이튿날 죽었다. 주인집에서는 사립문을 뜯어서 시체상(尸牀)을 만들었다. 사립문 위에 한 수의 시를 써놓은 것이 있었으니, 말하기를, “바야흐로 이 청춘의 해는 장차 저무는데, 복숭아꽃 어지러이 떨어지니 붉은 비와 같네. 권 군이 종일토록 정신없이 취했으나, 술이 유령劉伶의 무덤 위까지 가지는 못하리(正是靑春日將暮桃花亂落如紅雨 權君終日酩酊醉 酒不到劉伶墳上土)”라고 했다.

이때는 마침 3월 그믐, 이어서 주인집 담 밖에 복숭아꽃이 반쯤 떨어져 있었다. 또 권勸을 권權으로 지은 것은 더욱 묘하게 되었으니 어찌 전정前定의 운명이 아니랴.

만력萬曆 을묘乙卯 2월에 해가 규성奎星[28]의 분야를 먹으니 이를 본 조진趙振이 말하기를, “마땅히 문장文章의 선비 하나를 잃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 지 얼마 안 되어 차천로車天輅가 죽으니 사람들은 그것이 응한 것이라 했다.

이월사李月沙의 만시挽詩에 말하기를, “청대淸臺에서도 일찍이 문성文星을 먹었다고 보報하네(淸臺曾報蝕文星)”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천문유초天文類抄》에 말하기를, 규奎는 “문성文星이니 해나 달이 이것을 먹으면 흉한 일이 있다”라고 했다. 《당사唐史》에 보면, “장열張說이 장차 죽으려 하자 달이 동벽東壁(문장을 장악하는 별의 이름. 28수의 하나)을 먹었다”라고 했으니 조진趙振의 말은 대개 이것을 가지고 한 말이다. 옛날에 규성의 이상함을 보報하자 이내 이규보李奎報가 성공했다. 지금의 규성은 재앙을 보여주어서 차천로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 어찌 이것도 역시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순천順天의 왜교倭橋는 제일 경치가 좋은 곳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이름이 전해 오기는 옛날로부터 시작했다. 또 다리도 없으면서 다리라고 이름을 붙인

28 28수宿의 15번째의 별. 초여름에 보이는 중성中星으로서 문운文運을 맡아 봄.

것은 특히 뜻이 없는 일이다. 혹은 의심하기를, 다리와 대臺와는 속음俗音이 서로 비슷한 터이니, 대臺를 가지고 다리라고 한 것은 곧 말이 잘못 전해져서 그렇게 된 것일 것이다.

만력萬曆 정유년간丁酉年間에 왜적이 그곳에 주둔했을 때 돌을 쌓아 대臺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보존해 오고 있으니 어찌 또한 참언讖言이 아닐까.


권18

27. 기예부技藝部

27-1 서書

《설부》에 말하기를, "포희씨包羲氏가 처음으로 용서龍書[1]를 만들었고, 염제炎帝는 곡식 한 포기에서 이삭이 여덟이나 나왔다 해서 수서穗書를 만들었다. 황제黃帝의 태사太史 창힐蒼頡은 새 발자국을 보고 적전跡篆[2]을 만들었고, 전욱顓頊은 과두서蝌蚪書[3]를 만들었고, 은殷나라 때 무광務光은 도해전倒薤篆[4]을 만들었다. 주周나라 선왕宣王의 태사太史 주籒[5]는 대전大篆을 만들었고, 이사李斯는 소전小篆을 만들었고, 왕차중王次仲은 팔분서八分書[6]를 만들었고, 정막程邈은 예서隷書를 만들었다. 이들은 모두 진시황秦始皇 때 사람이다. 한漢나라 두백도杜伯度는 장초章草[7]를 만들었고, 채옹蔡邕은 비백서飛帛書[8]를 만들었다. 이것은 문리門吏의 비백飛帛[9]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다 해서 비백서라고 한다"라고 했다.

《서양잡조西陽雜俎》에 말하기를, "서체書體 중에는 현침서懸針書 · 수로서垂露書 · 진황파총서秦皇破塚書 · 금골서金鶻書 · 호조서虎爪書 · 도해서倒薤書 · 언파

1 서체書體의 한 가지. 포희씨包羲氏가 처음 만들었다고 함.
2 전篆은 전자로 쓴 글씨. 창힐蒼頡이 새 발자국을 보고 창안했다고 함.
3 과두蝌蚪 문자. 고대 문자의 한 가지. 전욱顓頊 또는 황제黃帝 때에 창힐이 지었다고 한다. 글자의 획이 올챙이 모양과 같음.
4 서체의 이름. 은殷나라 때 무광務光이 만들었다고 함.
5 한자漢字의 옛 자체字體의 하나. 주周나라 선왕宣王 때의 태사太史 주籒가 창작한 것. 소전小篆의 전신前身으로서 보통 대전大篆이라고 함. 여기서는 인명人名으로서의 주籒를 말함.
6 예서隷書 2분分과 전서篆書 8분을 섞어서 만든 서체.
7 초서草書의 한 가지. 일설에는 한漢나라 장제章帝가 사용하던 서체라고 함.
8 비백飛帛은 혹 비백飛白이라고도 쓰는데 서체의 한 가지.
9 비백飛白과 같음. 미장이가 비로 벽에 흰 색칠을 하는 것.

서偃波書・신번서信幡書・비백서飛帛書・주서籒書・제서制書・일서日書・월서月書・풍서風書・충식엽서蟲食葉書・해서楷書・종예鍾隸・고례鼓隸・용호전龍虎篆・기린전麒麟篆・어전魚篆・충전蟲篆・조전鳥篆・서전鼠篆・토서兎書・초서草書・낭서狼書・견서犬書・계서鷄書・진서震書・행압서行押書・경서景書 등 45종이 있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소주召奏에 호조서虎爪書를 쓰는 것은, 이것은 배우지 못하는 것이라 해서 그 거짓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께 올리는 글이나 조서詔書에는 예각서蜹脚書를 쓰고 절신節信[10]에는 조서鳥書를 쓰며, 임금께 하례하는 글이나 혼인에는 신서愼書를 쓴다"라고 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서체 중에서 세상에 이용되는 것은 특히 한두 가지뿐이다.

왕감주가 서법書法을 평론하여 말하기를, "한법漢法은 모가 나고 파리하고 굳세다. 정제整齊하고 정情은 적고 뼈가 많다. 당법唐法은 넓고 살찌고 예쁘고 느릿하며, 뼈가 적고 모양이 많다"라고 했다.

또 당나라 사람의 서법을 평론해 말하기를, "굳세고도 격조가 있어 송나라로서는 따르지 못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대개 송나라는 당나라보다 아래라는 것이다.

위부인衛夫人이 말하기를, "글씨를 배우는 자는 붓 잡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한다. 진서眞書는 1촌寸 2분分, 행서行書와 초서草書는 붓 끝에서 3촌 1분 떨어진 곳을 잡고서 점을 찍고 획을 그어야 한다. 바로 긋고 구부리는 것을 모두 한 몸의 힘을 다해서 붓에 보내야 한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진晉나라 위부인衛夫人은 자를 무의茂猗라고 하고 예서隸書를 잘 썼으며, 왕우군王右軍이 그를 스승으로 했다.

10 왕명王命을 받은 사자使者가 그 신信을 증명하기 위해서 임금에게서 받는 부절符節.

왕세정王世貞은 고금의 서법書法을 의논하여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즉 이사李斯 · 채옹蔡邕 · 장백영張伯英 · 양곡梁鵠 · 종요鍾繇 · 왕희지王羲之 · 왕헌지王獻之 · 당태종唐太宗 · 당현종唐玄宗 · 구양순歐陽詢 · 우세남虞世南 · 저수량褚遂良 · 구양통歐陽通 · 이옹李邕 · 손건례孫虔禮 · 서호徐浩 · 회소懷素 · 장욱張旭 · 왕진王縉 · 안진경顔眞卿 · 이양빙李陽氷 · 유공권柳公權 · 송진종宋眞宗 · 송휘종宋徽宗 · 채양蔡襄 · 소자첨蘇子瞻 · 황노직黃魯直 · 채변蔡卞 · 미불米芾 · 조자앙趙子昂 · 우집虞集 · 설암雪庵이라 했다. 이들은 특히 나타난 자를 말한 것이다.

왕세정이 말하기를, "어느 총수總帥가 회소첩을 800냥을 주고 산 일이 있다"라고 했다. 이 회소첩懷素帖(당나라의 중 회소가 쓴 글씨의 첩)하나의 값이 800냥이나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 중국 사람들이 일을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만일 종왕鍾王[11]의 진적眞蹟이 있다면 그 값이 또한 얼마나 되겠는가.

기양岐陽의 석고石鼓는 지금 중국 조정 국자감國子監에 있다. 내가 일찍이 중국 도성에 갔을 때 이것을 보았는데, 그 글씨 획이 지워진 데가 있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겨우 수십 자밖에 없었다. 이것은 이른바 여러 별들이 여기 저기 벌여 있어 겨우 두성斗星밖에 모른다는 말과 같다. 그중에 한 개는 파서 절구를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더욱 기이했다.

계주薊州 독악사獨樂寺의 편액扁額은 곧 이백李白이 손수 쓴 것이다. 그 붓 기운이 나는 듯하여 지금까지도 오히려 생기生氣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른바 붓이 한 번 지나가면 바람과 비가 놀란다는 것이다.

11 위魏나라의 종요鍾繇와 진晉나라의 왕희지王羲之를 말함. 모두 서도書道의 대가大家였다.

《설부》에 보면, 왕희지王羲之는 33세에 〈난정기蘭亭記〉[12]를 썼다 한다. 옛날 사람이 기예技藝에 있어 일찍 이루어진 것은, 대개 그 천품인 듯싶다. 우리나라의 안평대군安平大君 용瑢은 일찍 죽어서 지금 세상에 전하는 것은 역시 젊었을 때의 글씨뿐이다.

서법은 대를 내려오면서 전하는 일이 많다. 왕희지王羲之 · 헌지獻之와 구양순歐陽詢 · 구양통歐陽通의 부자父子가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암李巖 · 이강李崗과 김희수金希壽 · 김로金魯 부자가 모두 글씨를 잘 썼으니, 이는 대개 혈기血氣에서 나오는 까닭인 것 같다.

선조대왕宣祖大王이 경연經筵에서 묻기를, "설암雪菴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 좌우에서 대답하기를,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부제학副提學 신담申湛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그것은 바로 이부광李溥光입니다"라고 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지식이 넓은 것을 좋아하면서도 그가 중인 것을 몰랐다.

상고하건대 왕세정의 말에는, "원元나라 중 부광溥光은 글씨가 힘차기는 해도 깨끗한 맛이 부족했다"라고 했다. 그는 대개 중으로서 이름이 부광이요, 설암雪菴이라고 호를 했던 자이다.

김남창金南窓이 말하기를, "설암雪菴이 처음에 중이 되었을 때 조송설趙松雪은 그가 술집 간판을 쓴 것을 보고 도로 속인俗人이 되기를 권했다. 또 조정에 천거해서 벼슬을 주게 하고, 이름을 부광溥光이라 하게 했다"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글씨로 이름이 있는 자는 신라 때의 김생金生, 고려 때의 요극일姚克一 · 문공유文公裕 · 문극겸文克謙 · 이암李嵒 · 중 탄연坦然 · 영업靈業이 있고, 아조我朝에서는 안평대군安平大君 용瑢 · 강희안姜希顔 · 성임成任 · 황기로黃耆老 등이 가장 뛰어났다. 김남창金南窓 현성玄成은 서법에 능했다. 일찍이 말하기

12 진晉의 서성書聖 왕희지王羲之 등 명사名士 42명이 난정蘭亭에 모여 주연酒宴을 베풀었을 때의 시집詩集의 서序로서 희지羲之가 썼음.

를, "우리 동방 사람들은 글씨가 딴 재주에 비해서 가장 뛰어나서 중국보다 뒤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한석봉韓石峰 호濩는 일찍이 꿈에 왕우군王右軍이 주는 글씨를 받았다고 한다. 이 일 때문에 그는 글씨로 세상에 이름이 있었다. 중국 도성에 갈 때 풍윤豐潤 땅 어느 사람의 집에서 이한림李翰林의 시詩 하나를 벽에 쓴 일이 있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후까지도 먹 기운이 새것과 같았다. 이것은 중국 사람들이 매우 소중히 여긴 때문에 이와 같이 애호했던 것이다.

양봉래楊蓬萊 사언士彦은 큰 글씨를 잘 썼다. 일찍이 양양襄陽 별장에서 날 비〔飛〕자 하나를 써서 그 아들에게 주면서 부탁하기를, "내 정력이 이 글자에 모두 있으니 너는 이것을 잘 아껴 보호하도록 하라"라고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바다 위에서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종이를 날려, 하늘로 올라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뒤에 그 날짜를 따져보니 바로 봉래蓬萊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으니 이상한 일이다.

《석림연어石林燕語》에 말하기를, "당唐나라 사람은 처음에는 수결手決[13]을 두는 일이 없고 다만 자기 이름을 초서草書로 써서 자기의 필적으로 했었다. 그런 때문에 이것을 화서花書라고 하는 것이니, 위척韋陟의 오운체五雲體가 바로 이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의 자나 이름을 수결로 많이 쓰는 것은 그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했다. 이것을 보면 지금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것은 이것이 당나라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상고하건대 《한서》에 보면, 진번陳蕃은 즐겨 남과 나란히 이름을 쓰지 않았다. 《한문韓文》에 붓은 놀려도 이름 쓰는 것을 삼간다고 했으니 이것은 이른바 착명着名이다.

13 옛날에 도장 대신으로 자기 성명이나 직함 아래에 쓰는 일정한 자형字形. 수압手押이라고도 함.

우리나라 언문諺文 글자 모양은 모두 고대古代 인도印度의 글자를 모방한 것이다. 이것은 세종조世宗朝 때 비로소 국局을 설치하고 지어낸 것이다. 글자를 만든 교묘함은 실로 임금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대체로 이 언문이 나와서 만방萬方의 말과 소리가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 이것은 성인聖人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27-2 화畫

《감주고弇州稿》에 보면, "고금 성현聖賢의 도상圖像을 그린 것은 대체로 102명이다. 당唐나라 문황文皇은 용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구부러진 수염이 입을 둘러서 천하에서 그를 자성髭聖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꿈틀거리는 용만 그리고 수염은 그리지 않는다. 명황明皇은 눈이 가늘고 길었는데 지금은 눈을 크게 그렸다. 양무제梁武帝는 나이 먹어서 키가 작고 야윈 하나의 늙은이였었는데 지금은 무척 씩씩하게 그려 놓았다. 수문제隋文帝는 체격이 크고 잘 생겼었는데, 지금은 특별히 가늘고 파리하다. 문중자文中子는 수염이 아래로 서려 배에 닿았었는데 지금은 조그만 윗수염만이 짤막하게 그려져 있다고 한다." 이것이 곧 지금 세상에 전하는 역대 군신君臣들의 화상이다.
대체 옛 사람의 모습을 천 년이 지난 뒷날에 그리자니 그 참모양을 잃은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 더구나 옛 사람의 마음을 천년 위로 거슬러 올라가 구해보려 하니, 어찌 능히 그 참 것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진후산陳后山이 말하기를, "염입본閻立本은 장승요張僧繇의 강릉江陵 화벽畫壁을 보고 말하기를, "실지도 없이 헛이름만 얻었구나"라고 했다. 그러나 두 번째 가서 보고는, "근대의 명수名手로군" 했다. 세 번째 가서 보더니 그 그림 밑에서 먹고 자고 하기를 며칠 동안 하다가 돌아갔다 한다. 대개 염閻은 그림을 잘

그리기로 일대에 이름이 있던 사람이다. 그런데도 장張의 그림이 높은지 낮은지를 잘 알지 못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남의 잘못을 의논하니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기에, 그림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한데 더구나 문장을 잘하고 못한 것은 그것을 알기 어렵기가 그림보다 더 심하지 않겠는가.

왕유王維의 〈설중파초도雪中芭蕉圖〉를 중 혜홍惠洪이 조롱하여 말하기를, "눈 속에 파초가 있다니 이것은 춥고 더운 기후를 잃은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외嶺外에서는 겨울이 되어 큰 눈이 내려도 파초가 싱싱하다고 하니 이것을 가지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잡설雜說에 보면, "왕유王維의 그림은 대개 사시四時에 구애하지 않아서, 도리桃李와 부용芙蓉을 함께 그린 것도 있다"라고 했다. 그러니 그는 대개 자기 마음대로 붓 가는 대로 그려서 그랬던 것이다.

왕우승王右丞은 문장과 그림이 모두 지극히 뛰어나 묘했다. 그의 시詩에 "일찍 세상에 잘못 글하는 손이 되었지만, 내 전신前身은 응당 그림 그리던 사람이리〔夙世謬詞客 前身應畫師〕"라고 했다. 그는 그림에 더욱 자신을 가졌던 듯싶다.

《시화詩話》에 말하기를, "송나라 태종조太宗朝 때 이욱李煜이 화우畫牛를 임금에게 바쳤는데, 이 그림 속의 소는 낮에는 풀을 씹고, 밤이면 돌아가서 눕곤 하니 도무지 그 이치를 알 수가 없었다. 중 찬녕贊寧이 말하기를, '이것은 환약幻藥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남쪽 바다의 왜국에 방루蚌淚[14]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빛깔을 조화해서 그리면 낮에는 나타나고 밤이면 숨습니다. 또 산석山

14 조개의 즙汁. 일설에 조개가 구슬이 되기 전에 물이 흘러 눈물처럼 된 것. 《송패유초宋稗類鈔》에 원문이 있음.

石(산신제山神祭 때 능陵에서 쓰는 돌)을 옥초沃焦[15]해서 빛깔을 칠하면 낮에는 숨고 밤이면 나타납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말 역시 거짓말일 것이다.

대마도對馬島 평의지平義智는 송나라 휘종徽宗이 그린 각응장자角鷹障子를 가졌다. 그 그림에 제목을 쓰기를, "임금의 그림 기운차서, 씩씩하게 새매를 그렸네. 금빛으로 눈 그리고, 흰 눈으로 옷 그렸네. 굳센 날개 칼과 같고, 날카로운 발톱 송곳 같네. 어쩌면 노끈을 풀고 만 리 하늘에 높이 날까(御筆淋漓 寫決鷹兒 金精作眼 玉雪爲衣 剛翮似劒 利爪如錐 何當解索 萬里高飛) 공손히 사랑하시는 이름을 받아 삼가 찬사讚辭를 짓습니다. 선화전宣和殿 학사學士 채유蔡攸는 씀"이라고 했다. 이 말은 김학봉金鶴峰(김성일)의 《해사록海槎錄》에 나온다.
대체로 휘종徽宗은 지금부터 오륙백 년 전 사람이다. 그런데도 그 필적이 탈 없이 동쪽 바다 만 리 밖에 전하고 있으니 역시 소중히 여겨야 할 일이다. 다만 채유의 글은 몹시 오만하다 하겠다.

《소설》에 보면, 송나라 휘종徽宗이 화공畫工들을 불러 그 재주를 시험하고자 해서, "대나무가 다리 가에 있는 술집을 둘러 있다"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리게 했다. 사람들은 모두 술집을 그리기에 열심인데 오직 한 사람 그림 잘 그리는 자는 다만 다리에 대나무를 그리고 그 밖에 술 파는 기旗 한 폭을 걸어 놓은 것만 그렸다. 드디어 이 사람이 장원했다고 한다. 저번에 예조禮曹에서 화사畫師를 시험하고자 해서, "어린 아이들이 문에서 기다린다"는 제목을 냈다. 그림을 잘 그릴 줄 모르는 한 사람이 초가집을 그린다는 것이 다 쓰러지는 것으로 되었다. 모두 이것을 보고 웃었다. 그 사람은 하는 수 없어서 나무 기둥 하나가 집을 떠받치고 있는 모양을 그렸다. 이것을 본 시험관은 이것이 도연명陶淵明의 처지에 제일 맞는다고 하여 이에 상을 주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은 우연

15 불서佛書에 보면, 옥초沃焦는 바다 밑에 있는 돌이며, 그 밑에는 지옥地獄이 있어 그 화기火氣로 물을 모두 말린다고 쓰여 있다. 여기에서는 불에 몇 번이고 달군다는 말로 쓴 것임.

히 맞은 것이라고 했다.

화보畫譜에 보면, 육조六朝 때에는 고개지顧愷之 · 육탐미陸探微 · 장승요張僧繇 · 고야와顧野王, 당唐나라의 염입덕閻立德 · 염입본閻立本 · 오도현吳道玄 · 정건鄭虔 · 이사훈李思訓 · 이소도李昭道 · 왕유王維 · 한간韓幹 · 대숭戴嵩, 오대五代의 관동關仝 · 황전黃筌, 송나라의 인종仁宗 · 고종高宗 · 이공린李公麟 · 곽충서郭忠恕 · 범관范寬 · 이성李成 · 곽희郭熙 · 조창趙昌 · 소식蘇軾 · 미불米芾 · 조백구趙伯駒 · 중 거연巨然 · 미우인米友仁 · 유송년劉松年 · 마원馬遠 · 마린馬麟, 원元나라의 조맹부趙孟頫 · 관부인管夫人 · 가구사柯九思 · 황공망黃公望 · 예찬倪瓚 · 방방호方方壺, 명나라의 대진戴進 · 하창夏昶 · 임량林良 · 두근杜菫 · 문징명文徵明 · 막운경莫雲卿 등이요, 나머지는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당唐나라의 주방周昉, 송나라의 휘종徽宗 · 문여가文與可 · 원기기元虁虁 등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일까. 관부인管夫人은, 이제현李齊賢의 시의 주註에 보면, 조맹부의 부인 관씨管氏도 또한 글씨를 잘 썼다고 했으니 대체로 이 사람인 듯싶다.

신라 진흥왕眞興王 때 솔거率居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황룡사皇龍寺 벽에 늙은 소나무를 그렸더니, 새들이 이따금 날아 들어왔다고 한다. 이것은 그 그림이 입신入神한 때문이다. 어찌 글씨에 있어서의 김생金生이 있을 뿐이랴. 그러나 그 이름은 후세에 전하지 않았으니 아까운 일이다. 혹은 말하기를, 솔거는 중의 이름이라고 한다.

우리 동방에는 그림 잘 그린다고 이름난 사람이 대체로 드물다. 전조前朝 때 공민왕恭愍王은 글씨와 그림이 모두 묘했다. 본조本朝에 와서는 고인顧仁이란 자가 중국에서 나왔는데 인물을 잘 그렸다. 안견安堅의 산수山水, 최경崔涇의 인물화도 역시 한때 이름이 있었다. 강희안姜希顔은 산수山水와 인물을 모두 묘하게 그렸다. 그 뒤에 신세림申世霖 · 석경石敬 · 이상좌李上佐 · 이불해李不害 ·

이흥효李興孝 · 학림정鶴林正 경윤慶胤 · 죽림수竹林守 희윤喜胤은 모두 이름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김시金禔가 가장 높고 묘했다. 지금 있는 사람으로는 석양정石陽正 정霆의 대나무와 어몽룡魚夢龍의 매화가 또한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세상에 이름을 드날리고 있다.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당나라에는 이름 없는 인물화가 무척 많다. 이것은 모두 한 번 바라만 봐도 당나라 사람의 그림임을 아는데, 그 그림들은 따로 일종의 기상이 있어 송나라 사람에게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기에, 이것은 유독 그림뿐만이 아니다. 시詩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하다. 전배前輩들이 말한, "그 제목을 보고도 역시 당나라 사람의 글임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고개지顧愷之는, 사람은 어리석으나 그림에는 성聖이었다. 장욱張旭은 미치광이인데도 글씨에는 성聖이었다. 이 두 사람이 능히 성聖의 지경에 간 것은 그 신神스럽기 때문이다. 장자莊子는 말하기를, "뜻을 한 곳에 쓰고 이것을 딴 데로 나누지 않으면 곧 신神에 들어간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왕감주가 말하기를, "그림의 힘은 500년을 가고, 글씨의 힘은 800년을 간다. 그러나 오직 문장의 힘은 만 년을 가도 길이 새롭다"라고 했다. 이 말을 가지고 본다면, 문장이 후세에까지 전하는 것은 글씨나 그림보다도 나은 것이다. 이규보李奎報가 그림을 두고 지은 시詩에 말하기를, "그림은 사람마다 가지기 어렵지만 시詩는 곳곳에 퍼뜨릴 수 있네. 시詩 보기를 그림처럼 한다면, 또한 넉넉히 만 년은 전할 것일세[畫難人人畜 詩可處處布 見詩如見畫 亦足傳萬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매화가 피면 나뭇가지가 기울어진다. 그런 때문에 두시杜詩에 말하기를, "강

머리 한 나무 기울어지면서 꽃피네〔江頭一樹垂垂發〕"라고 했다. 이것을 징험할 수 있는 글이다.
지난해에 양경리楊經理는 어몽룡魚夢龍의 매화 그림을 보고, "그림의 격조는 매우 좋으나 다만 기울어진 모양이 없으니 잘못 그린 것이다"라고 했다. 지금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로서 이 법을 아는 자가 대체로 드물다.

최간이崔簡易는 옛 그림을 감식鑑識하여 말하기를, "관冠이나 모자에 차양이 있고, 짐이 등에 있는 것은 원元나라 때 그림이다"라고 했다.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갓을 쓰는 것은 대체로 원元나라 때부터 시작했던 것이다.
지금 세상에 그린 인물에는 망건이 없다. 그 의복의 제도는 지금과 다르니 대체로 이것은 옛날 그림을 모방해서 그러한 것이다. 대개 짐이 등에 있는 것을 진다〔負〕고 하고, 머리에 있는 것을 인다〔戴〕고 한다. 이런 말들은 경전經傳에 나와 있다. 그런데도 지금 중국에서는 남녀들이 모두 짐을 지는 것은 어깨로 하고 등으로 지는 자는 없다. 이것은 아마 그 습관과 풍속이 옛날과 같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최간이는 화제畵題를 써 말하기를, "말하는 자는 입으로 형용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형용하며, 듣는 자는 귀로 형용하지 않고 손을 마주잡는 것으로 형용한다〔語者 不形於口 而形於指 聽者 不形於耳 而形於拱〕"라고 하였으니 묘한 글이다.

나사문羅斯文 급級은 자기 집에 석경石敬이 그린 묵죽墨竹 1폭을 가지고 있었다. 그 그림의 품격이 매우 기이했다. 이용재李容齋가 시를 지어 말하기를, "석경石敬의 붓 신神이 있어, 손을 저어 산 대나무 그렸네. 늠름한 천이랑 모양을, 이 한 가지에 붙이면 만족하리. 시인이 군자를 아름답게 여겨 기원淇園[16]의 대나무

16 《술이기述異記》에 보면, 위衛나라 기원淇園에 대나무가 났고, 그것은 기수淇水 위에 있었다. 시詩에 "첨피기오瞻彼淇澳 녹죽의의綠竹猗猗"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푸른 것에 비유하네. 추운 겨울이 되어야 송백松柏의 절개를 안다는 것과 대對를 삼으니, 이만하면 먹는 데 고기 없어도 되리〔石生筆有神 信手寫生竹 凜凜千畝姿 寄此一枝足 風人美君子 取譬淇園綠 對之至歲寒 可使食無肉[17]〕"라고 했다. 그 시詩와 그림이 쌍절雙絶이라고 할 만하다.

27-3 방술方術

새〔鳥〕의 말을 알아듣는 자로 옛날에는 진중秦仲이 있었고, 한漢나라에는 위상魏尙·양선楊宣이 있었고, 진晉나라에는 관노管輅가 있었다.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자로는 옛날에는 갈노葛盧가 있었고, 한漢나라에는 옹위翁偉가 있었으며, 진晉나라에는 이남李南이 있었다. 그 뒤에는 다시 이 방법을 전한 데가 없다.
상고하건대 《주례周禮》에 보면, 이예夷隸는 새의 말을 맡았고, 맥예貉隸는 짐승의 말을 맡았다고 하니, 대체로 옛 제도는 이와 같았다.

《용재수필容齋隨筆》에 말하기를, "세속에 집을 짓거나, 혹은 조그만 병을 앓거나 화액을 당하면 모두 흙을 범했다"라고 했다. 그런 때문에 도가道家에는 사토사장초謝土司章醮의 글이 있다.
상고하건대, 한漢나라 안제安帝의 태자太子가 병으로 앓자 유모乳母 성사聖舍의 집에 피신시켰다. 병길邴吉이 말하기를, "성사聖舍가 집을 새로 수리하는데 토금土禁을 범하였으니 그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보면 그 말이 오래된 것이다.

17 소동파蘇東坡의 시에 "고기 없이는 먹을 수 있으나 대나무 없이는 살 수 없다〔可使食無肉 不可居無竹〕"라는 것이 있다.

소강절邵康節은 외출할 때에 날짜를 가리지 않았다. 혹 이 날이 이롭지 못하다고 하면 가지 않았다. 이것은 대개 남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고, 이미 말하고 보면 그 조짐을 이루기 때문이다.

《진서晉書》에 말하기를, "예전에 묘년卯年에 있어서는, 이 집의 좌편은 저 집의 우편이니 어찌 모두 동쪽을 기피忌避하는 수가 있는가를 의심했다"라고 했다. 손막孫邈이 말하기를, "태세太歲의 소속됨이 이로부터 신神이 노는 것이니, 비유컨대 해가 나올 때와 같아서 동쪽을 향하는 것은 모두 거꾸로다"라고 했으니, 이 말도 역시 이치가 있다.

송나라 임방林昉이 말하기를, "추명推命[18]하는 방술方術은 옛날에는 없었다. 당唐나라 이허중李虛中이 처음 10모母[19]를 가지고 12자子[20]의 서로 낳고 서로 죽이는 이치를 배정했다. 그러니 이것이 방술方術이 생긴 시초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이허중의 일은 한창려韓昌黎가 매우 자세히 기록했다. 이것으로써 본다면 오직 복서卜筮와 망기望氣의 법은 가장 오래된 일이다. 서자평徐子平의 자미수성요紫微數星曜 등의 글 같은 것은 역시 모두 후세에 나온 것이다.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채원정蔡元定은 능히 술수術數에 통하고 풍수설風水說을 좋아해서, 매양 시골 사람들과 함께 묘터를 잡아 옮겨서 장사를 지냈다. 그가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자 사람들이 시詩를 지어 말하기를, '남의 집 좋은 무덤 모두 파내더니, 그 원혼들이 호소하고자 해도 할 곳이 없네. 선생이 만일 소요부邵堯夫[21]의 방술이 있다면, 어찌해서 먼저 도주道州로 가는 길 말하지 않

18 사람이 운명을 미루어 연구함.
19 10간干. 갑甲 · 을乙 · 병丙 · 정丁 · 무戊 · 기己 · 경庚 · 신辛 · 임壬 · 계癸.
20 12지支. 자子 · 축丑 · 인寅 · 묘卯 · 진辰 · 사巳 · 오午 · 미未 · 신申 · 유酉 · 술戌 · 해亥.
21 소강절邵康節. 이름은 옹雍. 요부堯夫는 그의 자字. 송대宋代의 학자.

았던가(掘盡人家好隴丘 寃魂欲訴更無由 先生若有堯夫術 何不先言去道州)'라고 했다"라고 했다.
근세의 사대부들도 다투어 가면서 풍수風水를 숭상한다. 심지어 아무런 까닭도 없이 옛 묘지墓地를 옮겨서 복리福利를 구하려다가 도리어 재앙을 받는 자까지 있다. 마땅히 조금 경계해야 할 일이다.

《성요서星曜書》는 곧 야율초재耶律楚材가 고려의 국사國師에게서 얻은 것인데, 이 국사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의상義湘·도선道詵의 유流가 아니고서는 안 될 것이다. 초재楚材는 아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알지 못했으니 애석한 일이다. 혹은 말하기를, "성요星曜의 법은 본래 서역에서 나왔으니 불경佛經 속에 이것이 있다"라고 한다. 나후계도羅睺計都(별 이름)라는 말도 역시 범어梵語이다.

광평대군廣平大君 여璵가 어렸을 때, 상相을 보는 자가 상법으로 따져서 말하기를, "마땅히 굶어 죽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세묘世廟는 말하기를, "내 자식이 어찌 굶어 죽을 이치가 있느냐" 하고 동쪽에 있는 적전籍田(임금이 농사짓는 밭)을 모두 여璵에게 하사한 다음, 드디어 적전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 뒤에 광평은 생선을 먹다가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려 아무 것도 먹지 못하다가 죽었다.

정북창鄭北窓(정염鄭磏)은 문예文藝·복서卜筮·천문天文·의기醫技·음악音樂·산술算術에 모두 정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 아버지 순붕順朋이 선비들을 죽이고 자기가 위훈僞勳으로 공신의 명단에 실리고자 꾀할 때, 그는 울면서 몹시 간했으나 순붕은 노하고 듣지 않았다. 이에 그는 말하기를, "이 일은 30년을 지나면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 뒤 만력萬曆 정축년丁丑年에 이르러 순붕의 훈작勳爵은 모두 삭제당하였으

니, 을사년乙巳年으로부터 정축丁丑까지는 33년이 된다.

전한典翰 김홍도金弘度의 어릴 때의 이름은 귀갑歸甲이다. 그 아버지는 노魯이니 《주역》으로 점을 잘 쳤다. 김홍도가 날 때 그 아버지는 점을 쳐서 괘卦를 이루고서 이름을 귀갑이라고 했다. 그가 괴과魁科에 올랐을 때, 노魯는 병이 들어 누워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도 즐거워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이제 죽는구나”라고 하더니 과연 노魯는 죽었다.
그 뒤에 김홍도는 갑산甲山에 귀양 가서 죽었으니 그 점이 맞은 것이라고 한다.

남사고南師古는 울진蔚珍 사람이다. 점을 잘 치고 망기望氣(하늘의 운기를 보고 길흉을 점침)를 잘했다. 일찍이 맑은 아침에 동쪽을 향하여 저주하기를 “살기殺氣가 몹시 성盛하니 고약한 일이로군!” 했다. 그는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임진년壬辰年이 되면 왜병이 반드시 크게 올 것이다.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겠지만 그대들은 조심하라”라고 했다. 그 뒤에 남사고는 이미 죽었으나 그 말은 맞았다고 한다.

전우흡田禹洽은 술사術士이다. 그는 본래 서울의 천한 선비로서 환술幻術을 좋아하고 재주가 많았으며, 능히 귀신을 부렸다. 그의 시詩가 세상에 전하는데 그 경구警句에 말하기를, “갠 창에 달 비치니 매화가 삼매三昧이고, 푸른 하늘에 구름 없으니 기러기 육통일세〔晴窓有月梅三昧 碧落無雲鴈六通〕”라고 했다. 그 말은 도道가 있는 자 같다 하겠다.

의약醫藥과 복서卜筮는 함께 일컬어진다. 의원은 죽는 사람을 구하고 사는 사람을 구제한다. 점쟁이는 흉한 것을 피하고 길한 데로 나가게 한다. 그 시초는 모두 성인聖人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 본래부터 작은 일이라고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찍부터 잡된 재주를 숭상하지 않았다. 근대에 오직 박세거朴世擧·손사명孫士銘·안덕수安德壽·양예수楊禮壽·허준許浚 등은 의원으로 이름이 나 있었고, 정희량鄭希良·정염鄭磏·김효명金孝明·한억령韓億齡·함충헌咸忠獻 등은 점을 잘 치는 것으로 이름이 났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것도 끊어지고 아무런 이름 있는 사람이 없다. 점치는 것도 그렇고 의원은 더구나 그렇다.

27-4 잡기雜技

《예경藝經》에 말하기를, "격양擊壤[22]이라는 것은 옛날 놀이이다"라고 했다. 《풍토기風土記》에 말하기를, "양壤은 나무로 만든다. 앞이 넓고 뒤가 뾰족하며, 길이는 3, 4촌寸이고, 그 모양은 신발과 같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황보밀皇甫謐은 나이 17세 때 길에서 격양을 했다 한다. 곧 진晉나라 때에도 오히려 이 놀이가 있었던 것이다.

괴뢰傀儡(꼭두각시)는 목우木偶(나무로 만든 상像) 놀이이다. 상고하니, 《운회韻會》에 말하기를, "이것은 본래 언사偃師[23]가 직왕稷王에게 바친 놀이인데 고려에도 역시 이 놀이가 있었다"라고 했다. 그러니 대체로 우리나라에도 이 놀이가 있은 지 오래다.
또 《소설》에 보면, 진평陳平이 목우미인木偶美人을 만들어 성 위에서 춤추게 했더니, 알씨閼氏가 이것을 바라보다가 군사를 물렸다 한다. 한漢나라 말년에는

22 중국 상고上古 때 민간에서 행해지던 유희의 한 가지. 길이가 서너 치에 앞이 넓고 뒤는 좁아 신짝 비슷하게 생긴 두 개의 나무로, 1개를 맞은 편 땅에 놓고, 3, 40보 앞에서 다른 1개를 던져서 맞힘.
23 허수아비나 인형人形을 놀리는 사람. 괴뢰사傀儡師.

이것을 아름다운 회합에 사용했다고 한다.

한漢나라 〈감연수전甘延壽傳〉에, 돌을 던져 남의 발톱을 뺐다고 했다. 그 주註에 보면, 돌을 던진다는 것은 돌을 남에게 던진다는 말이라고 했으니, 그 놀이도 역시 오래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안동安東 풍속에는 해마다 정월 16일, 김해金海 풍속에는 4월 8일과 단오端午에 장정들이 모두 모여서 좌우로 편을 갈라가지고 돌을 던져 승부를 결정짓고, 비록 사람이 죽거나 상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으니 이것을 석전石戰이라고 한다. 중묘조中廟朝 때 왜적을 칠 때 이들을 모집해서 선봉先鋒을 삼았더니, 적이 감히 앞으로 다가오지 못했다. 그러나 임진년壬辰年에 이르러서는 적들은 조총鳥銃을 썼기 때문에 이들도 힘을 쓰지 못했다고 한다.

상고하건대 고서古書에 보면, 조자건曹子建이 비로소 쌍륙雙陸[24]을 만들었다고 한다.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쌍륙을 아희雅戲라고 부른다. 서축西竺에서 시작한 것으로서 조위曹魏로 내려왔다가 양梁 · 진晉 · 수隋 · 당唐 사이에 성하게 유행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쌍륙은 본래 서역에서 나와 중국으로 흘러들어 왔고, 중국에서는 조위에서 시작한 것이니, 자건子建이 만든 것은 아니다.

《소설》에 말하기를, "양무제梁武帝가 대성臺城에 있을 때 어린 애가 꾀를 바쳐서 종이로 연鳶을 만들었다. 이것을 이용해서 조서詔書를 매달아 바람에 날려 보내어 외국의 구원을 구했다 한다"라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상원上元이면 종이 연을 가지고 놀이를 한다. 상고하건대 당唐나라 노덕연路德延이 해아시孩兒詩에 말하기를, "실을 더해서 종이 연

24 편을 갈라서 차례로 주사위 2개를 던져, 나오는 사위대로 말을 써서 먼저 궁宮에 들어가면 이기는 놀이.

을 날린다(添絲放紙鳶)"라고 하였으니 이것도 그 유래가 역시 오랜 것이다.

《설부》에 말하기를, "북제北齊의 난릉왕蘭陵王 장공長恭은 담력이 있으면서도 모양이 여자와 같아서 적에게 위엄을 보이지 못했다. 이에 나무를 새겨 가면假面을 만들어 쓰고 싸움에 나갔다. 이것을 장난으로 만들어 대면大面 또는 귀검鬼臉이라 했다"라고 했다. 지금 중국이나 우리나라 배우들은 이것을 장난감으로 쓴다. 그러나 왜인은 싸울 때마다 선봉先鋒이 되면 이것을 쓰고 적을 겁내게 한다. 대체로 여기에 근본이 있는 것이다.

당唐나라 채부蔡孚의 〈타구편서打毬篇序〉에 말하기를, "타구打毬(공을 치는 놀이)라는 것은 옛날의 축국蹴鞠[25]이니 황제黃帝가 만든 것이다. 군사의 형세로 무사武士를 훈련하여 소질素質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평상시에 무과武科와 도시都試[26]는 역시 이 기술로 시험을 보여서 사람을 뽑았는데, 임진왜란 후로는 거의 폐해 버렸다.
우리나라 풍속에, 정초에 남녀들이 모여서 뼈나 나무를 잘라서 네 토막을 만들고 이것을 던져서 승부를 가리는 놀이를 하는데, 이것을 탄희攤戲라고 한다. 《훈몽자회訓蒙字會》에 보면 "탄攤은 곧 저포樗蒲(옛날 놀이의 일종, 윷놀이)다"라고 했다.

유붕수柳鵬壽란 자가 있으니, 이는 나의 서외숙庶外叔으로 활을 잘 쏘았다. 사신 최황崔滉을 따라서 중국 도성에 갔었는데, 이때 오랑캐가 크게 몰려와 산해관山海關을 포위한 지 14일이나 되었다. 그러나 중국 장수는 성을 닫고 나가지 못했다. 붕수鵬壽가 편전片箭(짧고 작은 화살)을 가지고 적을 쏘아 맞혀 죽이니 오

25 공차기. 꿩 깃 꽂은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발로 차는 옛날 귀인貴人들의 유희의 한 가지.
26 병조兵曹·훈련원訓鍊院의 당상관이나 감사監司·병사兵使를 매년 춘추에 무재武才를 시험하는 과거의 이름.

랑캐들은 크게 놀라 말하기를, “고려 군사가 왔구나” 하고 모두 도망해 버렸다. 이에 황제皇帝가 칙서勅書를 내려 비단을 주게 하고 그를 상 주었다. 최간이崔簡易의 글에, “전에 우리나라의 무부武夫로서 사신을 따라 요동遼東에 나갔던 자가 오랑캐의 성을 포위하는 것을 당하자 한두 개 강한 화살을 쏘아 수만 명 군사를 물리쳐서 지금까지 유명하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다.

편전片箭이란 우리나라의 묘한 재주이다. 쏘면 멀리 가는데 반드시 맞는다. 그런 때문에 옛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하여 이름을 고려전高麗箭이라고 불렀다. 왜적이 일찍이 말하기를, “중국의 창 쓰는 법과 조선의 편전片箭과 일본의 조총鳥銃은 천하에서 제일이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정재인呈才人은 본래 중국의 배우나 요술하는 자 따위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이것은 고려 말년에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가 나올 때 따라온 것이라고 한다.

27–5 음악音樂

한漢나라 《율력지律曆志》에 보면, “황제黃帝가 영륜伶倫으로 하여금 해곡嶰谷의 대나무를 베어 오게 하여 양쪽 마디 사이를 잘라 이것을 불어서 황종黃鍾(12율律의 하나인 양률陽律)의 궁음宮音을 내게 했다”라고 한다.
상고하건대 《문선文選》의 〈곡수시서曲水詩序〉에 보면, “영륜伶倫을 해곡嶰谷에 좇았다”라고 했다. 그 주에, “해解는 탈脫이요, 곡谷은 대나무 홈이니, 대나무가 벗겨져서 홈과 마디가 없는 것을 베어서 쓰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해곡嶰谷은 지명地名이 아닌 것이다.

황제黃帝가 영륜伶倫에게 명해서 율려律呂(육율六律과 육려六呂)를 만들었다 한다. 상고하건대 여呂는 음율陰律이다. 율律에는 열둘이 있으니 양륙陽六은 율律이 되고 음륙陰六은 여呂가 된다. 2월은 황종黃鍾, 정월正月은 태주太簇, 3월은 고세姑洗, 5월은 유빈蕤賓, 7월은 이칙夷則, 9월은 무역無射이니 이를 율律이라 한다. 2월은 협종夾鍾, 4월은 중려中呂, 6월은 임종林鍾, 8월은 남려南呂, 10월은 응종應鍾, 12월은 대려大呂이니, 이를 여呂라고 한다. 한시韓詩에 말하기를, "협종夾鍾의 여呂가 처음 회灰를 분다(夾鍾之呂初吹灰)"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설부》에 말하기를, "옛날에 음강씨陰康氏가 천하의 왕王 노릇을 할 때 사람들에게 다리가 붓는 병이 많았다. 이때 비로소 노래와 춤을 제정하여 이것으로 관절關節을 잘 통하게 했다"라고 했다. 《여씨춘추》에 말하기를, "춤은 도당씨陶唐氏로부터 시작되었고, 노래는 갈천씨葛天氏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했다. 그러니 노래와 춤이 시작된 것은 대체로 상고上古 때부터이다.

옛날에 비파(瑟)는 줄이 50개였는데 뒤에 이것이 깨져서 25개가 되었다. 상고하건대 《집운集韻》에 말하기를, "진秦나라 사람이 의리가 없어 부자간에 비파를 가지고 다투다가 2개로 나누어 가졌다. 그래서 이것을 쟁箏이라고 이름 지었다 한다. 그러니 이것은 줄 25개를 쪼개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쟁箏은 줄이 13개이다. 또 《풍속통風俗通》에 말하기를, 쟁箏은 "몽염蒙恬이 만든 것이니, 양운楊惲의 글에 말하기를, '진秦나라 소리를 잘 냈다고 하니 이것은 쟁箏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쟁箏이 진秦나라에서 나온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사李斯의 글에 말하기를, "쟁箏을 타고 부缶(질장구)를 두드린다"라고 했다. 《악지樂志》에는 말하기를, "타는 데는 손톱을 쓰고, 혹은 은갑銀甲(비파 따위를 탈 때 손톱에 끼는 골무)을 손톱 대신 쓴다"라고 했다. 두시杜詩에, "은갑은 쟁箏을 타

는 데 쓴다〔銀甲彈箏用〕"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또《악서樂書》에 보면, "당唐나라에는 알쟁軋箏이 있는데 대 조각으로 이것을 긁기 때문에 알쟁이라고 이름했다"라고 했다. 이것이 지금 풍속에 말하는 알쟁이다.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 공주公主를 오손烏孫에게 시집보냈더니, 그가 가는 길에 집 생각을 할 것이라 해서 음악에 능한 사람을 시켜 말 위에서 비파를 타서 그를 위로하게 했다. 또 왕소군王昭君이 흉노匈奴에 갈 때도 말 위에서 비파를 타서 자기의 한스러운 마음을 달랬으니, 이것을 소군원昭君怨이라고 한다. 이것은 대체로 말 위에서는 오직 비파밖에 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보면 비파는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니, 혹 소군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소설》에 말하기를, 초루화각譙樓畫角의 곡조에 삼롱三弄[27]이 있으니, 서로 전하는 말에 이것은 조자건曹子建이 지은 것이라고 한다. 그 초롱初弄에, "임금 되기도 어렵고 신하 되기도 어려우니 어렵고 또 어렵다〔爲君難 爲臣難 難又難〕"라고 했다. 재롱再弄에는, "나라를 세우기도 어렵고 지켜 나가기도 어려우니 어렵고 또 어렵다〔創業難 守成難 難又難〕"라고 했고, 삼롱三弄에는, "집을 일으키기도 어렵고 집을 보전하기도 어려우니 어렵고 또 어렵다〔起家難 保家難 難又難〕"라고 했다. 지금의 각음角音(다섯 음률의 하나)에 오오烏烏라고 한 것은 모두 난難 자를 길게 끄는 소리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대평소大平簫도 역시 '나라羅囉' 소리를 낸다. 나羅는 난難과 그 음이 서로 비슷하니, 아마도 이런 데서 나온 것인 듯싶다.

양梁나라 소명昭明이 지은《도연명전陶淵明傳》에 말하기를, "연명淵明은 음률音

27 농弄은 곡조. 삼롱三弄이라 함은 세 곡조란 말. 초롱初弄은 첫째 곡조, 재롱再弄은 둘째 곡조, 삼롱三弄은 셋째 곡조임.

律을 알지 못하면서도 줄 없는 거문고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술에 취할 때마다 문득 이것을 어루만지면서 자기의 뜻을 여기에 붙였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연명淵明은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젊었을 때부터 거문고와 글을 배웠다"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거문고와 글을 즐겨하여 근심을 없앤다"라고도 했다. 이것으로 보면 그는 반드시 음률을 알지 못한 자는 아닌 것이다.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귀신은 동銅을 무서워한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허리에 차는 구슬 소리 가운데에서 상률商律(쇳소리)은 모두 버리고 쓰지 않았다. 그리고 묘악廟樂의 소리도 상商으로 나타나는 것은 모두 버리고 쓰지 않았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기記에 보면, "군자는 반드시 옥玉을 찬다. 치각徵角[28]을 우편에 차고 궁우宮羽를 좌편에 찬다"라고 했는데, 그 주에, "상商을 말하지 않은 것은 서쪽 지방의 숙살肅殺(가을 기운이 초목을 말라죽게 함)한 음인 때문에 이것을 빼놓는다"라고 했으니 이것을 말한 것이다.

옆으로 부는 것은 적(笛)이다. 이것은 강羌에서 생겼기 때문에 강적羌笛이라고 한다. 혹은 말하기를, 한漢나라 구중丘仲이 만들었다고도 하고, 혹은 이연년李延年이 만들었다고도 하며, 혹은 또 장건張騫이 서역에 들어가서 그 법을 전했다고도 한다.
농두음隴頭吟 · 망행인望行人 · 절양류折楊柳 · 관산월關山月 · 낙양도洛陽道 · 장안도長安道 · 출새出塞 · 입새入塞 · 매화梅花 · 총마驄馬 · 자류마紫騮馬 · 우설雨雪 같은 것은 모두 옆으로 부는 적笛의 곡조이다. 당시唐詩에 말하기를, "옆으로 부는 피리 소리 숲을 둘러 길게 들린다(橫吹繞林長)"라고 하였으니 취吹 자는 거성去聲이다.

28 치음徵音과 각음角音. 궁우宮羽는 궁음宮音과 우음羽音.

〈맥상상陌上桑〉·〈강남곡江南曲〉·〈도관산계명곡度關山鷄鳴曲〉·〈대주사對酒辭〉·〈연가행燕家行〉·〈고한행苦寒行〉·〈동문행東門行〉·〈도가행櫂歌行〉·〈안문태수행鴈門太守行〉·〈왕소군장문원王昭君長門怨〉은 모두 한漢나라 노래다. 〈백저白紵〉는 오吳나라 노래이고, 〈자야子夜〉는 진晉나라 노래이며, 〈오야제烏夜啼〉는 송나라 노래다. 〈상지회무산고上之回巫山高〉·〈군마황君馬黃〉·〈유소사有所思〉·〈임고대臨高臺〉는 요가鐃歌(징을 치면서 부르는 노래)이고, 〈수선조水仙操〉·〈청마인青馬引〉·〈치조비雉朝飛〉·〈별학조別鶴操〉는 금곡琴曲이요, 〈공무도하公無渡河〉는 공후인箜篌引의 곡이다.

〈염가행艶歌行〉·〈음마장성굴飮馬長城窟〉·〈국가행鞠歌行〉·〈맹호행猛虎行〉·〈문유차마객행門有車馬客行〉·〈출자계문행出自薊門行〉·〈결객소년장행結客少年場行〉·〈고열행苦熱行〉·〈방가행放歌行〉·〈원가행怨歌行〉·〈승천행昇天行〉·〈봉장추鳳將雛〉·〈백마편白馬篇〉·〈공성작空城雀〉·〈독불견행獨不見行〉·〈노난路難〉·〈진지권의秦至卷衣〉는 모두 고악부古樂府의 제목들이다.
이백李白의 시詩에, "하나하나 하늘로 올라가네(一一昇天行)"라고 했고, 당시唐詩에는, "정은 품었으나 홀로 보이지 않네(含情獨不見)"라고 했다. 또, "진왕秦王을 좇아 상상象牀을 걷지 않네(不逐秦王卷象牀)"라고 하였으니 모두 이 가곡歌曲을 말한 것이다.

우리나라 악부樂府에는 〈여민락與民樂〉·〈낙양춘洛陽春〉·〈보허자步虛子〉·〈풍안곡豐安曲〉·〈정동방靖東方〉·〈청평악清平樂〉·〈수룡음水龍吟〉·〈전전악全殿樂〉·〈이상곡履霜曲〉·〈오관산五冠山〉·〈자하동紫霞洞〉·〈동동動動〉·〈봉황음鳳凰吟〉·〈한림별곡翰林別曲〉·〈치화평致和平〉·〈만전춘滿殿春〉·〈취풍형醉豐亨〉·〈정과정鄭瓜亭〉 등의 곡조가 있다.
상고하건대 〈정동방靖東方〉이란 것은 정도전鄭道傳이 우리 태조太祖가 창의倡義(국난國難을 당해서 의병을 일으킴)해서 군사를 돌리는 것을 송축頌祝한 노래이다.

〈자하동紫霞洞〉은 고려 시중侍中 채홍철蔡洪哲이 자기 동리洞里에 중화당中和堂을 세우고 국로國老들을 맞아다가 이 곡조를 지어서 종에게 부르게 한 것이다. 〈동동動動〉이라는 것도 또한 송도頌禱하는 노래이고, 〈한림별곡翰林別曲〉은 고려 때에 한림의 모든 선비들이 지은 것이며, 〈봉황음鳳凰吟〉은 세종조世宗朝 때 윤회尹淮가 지은 것이고, 〈치화평致和平〉은 정인지鄭麟趾가 지은 것이다.

신라 때 보고寶高라는 자가 있었다. 지리산智異山에 들어가 거문고를 배우기 50년을 했더니, 어느 날 검은 학鶴이 와서 춤을 추었다 한다. 드디어 그 거문고를 현학금玄鶴琴 또는 현금玄琴이라고 했다.
또 상고하건대, 신라 때 현금 일곱 줄을 만들었다고 한다. 지금 방언에 거문고를 현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신라 때 가야국왕伽耶國王이 당唐나라 악부樂府의 쟁箏을 본떠서 12줄 거문고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야伽耶라고 이름 지었다. 대개 가야금伽耶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세상에 전하는 것으로, 최고운崔孤雲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경주慶州의 옥피리는 신라 때의 보물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죽령竹嶺을 지나면 그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니 역시 이상한 일이다. 이것은 임진년壬辰年 난리 때에 왜적 때문에 깨어지고 겨우 모양만 남았으니 아까운 일이다.

27-6 기악妓樂

여악女樂은 옛날부터 있었으니 당唐나라 · 송나라로부터 시작하여 원元나라에 이르러 가장 성했다. 명나라 초년에도 역시 기악妓樂이 있더니, 고좌顧佐가 어

사御史가 되어 이것을 임금에게 아뢰어 없애 버렸다. 모든 관리로서 창녀娼女의 집에서 자는 자는 종신토록 길이 벼슬을 못하도록 했다. 그런 때문에 전하는 말에, 어느 조정 관리 한 사람은 부인의 옷을 빌려 입고 비밀히 창녀娼女의 집에서 자다가 원수에게 들켜서 드디어 죄를 얻었다 하니 법이 또한 엄중하였던 것이다.

지금 중국에서는 창녀를 양한적養漢的이라고 부르고, 그 얼굴의 예쁘고 추한 것에 따라 그 값이 비싸기도 하고 싸기도 하다. 또 그들에게 본남편이나 아쾌牙儈[29]가 있어서 이득을 취하는 자를 왕팔王八이라고 한다. 대개 이것을 천하게 여기는 말이다.

근년에 송宋 아무개가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중국 도성에 갔다가 중국옷으로 변복하고 창녀娼女의 집에 드나들면서 음란한 일을 일삼았다. 이것은 곧 전고前古에 듣지 못하던 일로서 마침내 그는 죄를 입고 죽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비웃는다고 한다. 그러니 자기나라를 욕 먹인 죄를 어찌 벤들 시원하랴.

《사문옥설事文玉屑》에 말하기를, "영기營妓는 옛날에 군사 중에 아내가 없는 자를 대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변진邊鎭에 모두 기생과 음악을 두는 것도 대체로 이 때문이니 조종조祖宗朝에서 제도를 세운 뜻이 가위 지극하다 하겠다. 그런데도 장수가 된 자가 군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기들의 즐거움에만 빠지고 있으니, 이 일은 홀로 무슨 마음일까.

당나라 사람은 기생을 가리켜 녹사錄事라고 하고, 또한 주규酒糾라고도 한다. 또 기생이 있는 곳을 녹사항錄事巷이라 한다. 상고하건대 《소설》에 말하기를, "모든 술자리에는 한 사람을 녹사로 삼아서 온 좌중 사람을 모두 살피게 한다"

29 매매를 주선해 주고 구전을 받는 자. 거간. 쾌儈는 회會와 같으니 이빨, 즉 입으로 사람들을 모아 매매를 시킨다는 뜻. 중개인仲介人. 아행牙行 · 아보牙保라고도 한다.

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기생 강진絳眞과 정거거鄭擧擧가 서로 좌중을 살펴서 그 너그럽고 사나운 것을 제대로 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27-7 무격巫覡

《소설》에, "무당은 간사한 것을 낀다. 한 번 문에 올라오면 요괴스러운 것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그러니 마땅히 이것은 배척하여 끊어야 한다"라고 했다.
지금 풍속에는 무당을 보고 재물을 빼앗는 귀신이라고 한다. 남의 재물을 보면 반드시 이것을 얻으려 하여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또 이것을 마음을 아는 귀신이라고도 한다. 묻는 자의 마음을 잘 짐작해 말하는데, 혹 맞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치를 아는 군자도 그 요망한 것을 살펴서 혹하지 않는 이가 드물어 그렇게 말한다. 무誣 자는 무당(巫)의 말(言)이니, 역시 뜻이 있는 말이다.

상고하건대, 신라 때에 얼굴이 예쁜 남자를 골라서 단장을 시키고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게 한 다음, 그들의 행의行義(의로운 행동)를 보아서 화랑花郞이라고 이름하였으니, 이것을 그때 낭도郞徒라고도 하고, 혹은 국선國仙이라고도 했다. 영랑永郞 · 술랑述郞 · 남랑南郞 같은 것이 모두 이런 따위이다.
지금 풍속에 남자 무당을 가리켜 화랑花郞이라고도 하는 것은 그 뜻을 잃은 것이다.

이이상李二相 장곤長坤은 연산조燕山朝 때 홍문관弘文館 교리校理로서 망명亡命하여 몇 달 만에 한 번씩 집에 돌아가서 그 부인을 만나보고 가곤 했다. 어느 날 집에 도착했으나 날이 새었으므로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뒤 대나무 숲속에 숨었었다. 그 부인은 남편이 올 때가 되었는데도 오지 않으므로 죽었는지 의심해서 무당을 불러 점을 치게 했다. 무당이 말하기를, "죽지 않았소.

그림자가 지금 뜰 안에 있소" 하는 것이었다.

공은 이 말을 듣고 그 후로는 감히 두 번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나이 많아서 항상 말하기를, "무당의 말도 역시 헛것이 아니더군!" 했다.

28. 외도부外道部

28-1 선도仙道

《소문素問》에 말하기를, “지인至人은 천지 사이를 놀면서 다니고 팔방 먼 밖까지 듣고 본다”라고 했다.
경상초庚桑楚는 말하기를,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서도 통하며, 정기精氣가 비치는 것이 밖이 없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비록 멀리는 팔황八荒의 밖에 있고 가까이는 눈썹 안에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것을 다 알 수가 있다”라고 했다. 대체로 이와 같은 것은 정신이 온전한 때문이다. 대체로 옛날에는 혹 이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불경佛經에서 이른바, “지혜 있는 성품이 둥글고 밝으면 십방계十方界(시방세계十方世界, 온 세계)를 비친다”라고 한 것도 역시 이것이다.

노자老子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크게 말하지만 나는 조그맣게 말하고, 모든 사람들은 많고 번거롭게 알려 하지만 나는 조금만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은 억세고 사납지만 나는 노여워하지 않는다. 사람의 일로 해서 뜻에 누累를 주지 않고, 담연淡然하게, 하는 일 없이 내 신기神氣가 스스로 만족하면 이것이 죽지 않는 약이 된다”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기에, 노자가 말한 죽지 않는 약은 이런 것인데, 진秦나라와 한漢나라 이래로 방사方士들은 망령되이 삼신산三神山에 죽지 않는 약이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캐먹고 오래 살려고 했으니 어찌 현혹된 것이 아니겠느냐.

항창자亢倉子가 말하기를, “성인聖人이 만물을 만들 때는 그 천성을 온전하게

했으니, 천성이 온전하면 정신이 온전하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이치가 통하고, 꾀하지 않아도 일이 이루어져서 정기精氣가 비치는 것이 밖이 없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몸은 마음에 합하고, 마음은 기운에 합하고, 기운은 신神에 합하고, 신神은 무無에 합한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항창자는 노자老子의 제자이니, 그 말은 곧 후세 불가佛家의 말이다. 대개 노자의 사상과 불가의 사상은 하나에서 나누어진 것이다.

《노씨성기도략老氏聖紀圖略》에 말하기를, "《노자老子》는 삼황三皇 때의 화신化身(형체를 바꾸어 나타나는 육신)을 반고선생盤古先生이라 하고, 복희伏羲 때의 화신을 울화자鬱華子라고 하고, 헌원軒轅 때를 광성자廣成子라고 하고, 전제顓帝 때를 적정자赤精子라고 하고, 제곡帝嚳 때를 녹도자錄圖子라고 하고, 제요帝堯 때를 무성자務成子라고 했다. 상양갑商陽甲 때에 이르러 분신分身한 것이 기운으로 화하여 뱃속에 있기를 81년, 무정武丁의 경진년庚辰年 2월 15일 묘시卯時에 낳았다. 주무왕周武王 때에 수장사守藏史가 되었다가 주하사柱下史로 전임되었고, 소왕昭王 23년에 이르러 함곡관函谷關을 지나다가 관령關令 윤희尹喜를 만났다. 그 뒤 25년에 촉蜀 땅 청양사青羊肆에 내려와서 마침 윤희尹喜와 함께 유사流沙(고비사막) 호역胡域을 지났고, 목왕穆王 때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 평왕平王 때에 다시 관關을 나와서 소린蘇隣의 모든 나라들을 개화開化시킨 후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 경왕敬王 17년에 공자孔子가 도道를 노자老子에게 물었다. 열왕烈王 2년에 진秦나라를 지나자, 진나라 헌공獻公은 역수曆數를 물었다. 드디어 산관散關으로 나가서 난왕赧王 9년에 곤륜산崑崙山으로 날아 올라갔다. 진秦나라 때 협하峽河 물가에 내려와 호를 하상장인河上丈人이라 했는데, 또 하상공河上公이라고도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 말들은 허탄한 데가 많다.

진秦나라 시황始皇 때 모몽茅濛의 자는 초성初成인데 대낮에 하늘로 올라갔다. 그 읍요邑謠에 말하기를, "신선이 된 모초성茅初成이 용을 타고 올라가서 하늘

로 들어갔네. 때로 현주玄洲에 내려와서 적성赤城을 희롱하니, 임금이 만일 이 법 배우려거든 납제臘祭를 가평嘉平이라고 하라(神仙得者茅初成 駕龍上升入泰清 時下玄洲戲赤城 帝若學之臘嘉平)"라고 했다. 후세 사람들은 이것으로 칠언고시七言古詩의 첫머리를 삼았다.

소녀素女(옛날 선녀의 이름)는 양생서養生書에 보이고 현녀玄女[30]는 지리서地理書에 보인다. 이것은 모두 사람의 이름이요, 여자가 아닌 듯싶다.
상고하건대, 황제黃帝 때에 태산太山에 한 부인이 있었으니, "나는 현녀玄女이다"라고 말하고 병부兵符를 주었다고 한다. 또《여선전女仙傳》에는 태현녀太玄女가 있으니, 이것이 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옛날부터 여자 신선으로 서왕모西王母 이외에도 진秦나라에 농옥弄玉·화산모녀華山毛女가 있었고, 한漢나라에는 남양공주南陽公主가 있었고, 진晉나라에는 남악南岳 위부인魏夫人 마고麻姑가 있었고, 당나라에는 초련사焦鍊師 사자연謝自然이 있었다. 상고해 보면, 마고麻姑는 석릉장石勒將 마추麻秋의 딸이다. 또《신선전神仙傳》에 말하기를, "마고麻姑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한漢나라 환제桓帝 때 왕원王遠과 함께 채경蔡經의 집에 내려왔다"라고 하였으니, 아마 이 사람과 한 사람이 아닌 듯싶다.

《완위여편宛委餘編》에 말하기를, "옛날부터 문장을 하는 선비로서 신선이 되어서 갔다고 일컫는 것은, 이치로는 혹 있을 법하다. 대체로 천지가 빼어나고 특별한 기운을 주어서 나에게 이 기운이 유독 많으면 그 출생出生에부터 온 바가 있고, 세상에 나가면 하는 일이 있고, 가면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은, 이것은 실로 마땅한 일이다. 장주莊周는 태현박사太玄博士가 되었고, 귀곡자鬼谷子는 태현사太玄師가 되었다. 묵적墨翟은 태극선관太極仙官이 되었고, 회남왕淮南王은 팔

30 상고上古 때 여신女神의 이름. 황제黃帝가 치우蚩尤와 싸울 적에 육임六壬과 둔갑遁甲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신녀神女.

공八公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 동방삭東方朔은 화양동주華陽洞主가 되었고, 혜강嵇康 · 곽박郭璞은 모두 병해兵解(선술仙術을 배운 자가 병도兵刀에 죽지 않는 것)에 밝았고, 도홍경陶弘景은 봉래도수대감蓬萊都水大監이 되었다. 이장길李長吉은 불려서 《옥루기玉樓記》를 지었고, 백거이白居易는 해산원주海山院主가 되고, 한퇴지韓退之는 진관眞官이 되고, 구래공寇萊公은 염부제왕閻浮提王이 되었다. 방적龐籍은 왕옥산군王屋山君이 되었고, 한위공韓魏公은 자부진인紫府眞人이 되었다. 석만경石曼卿은 부용성주芙蓉城主가 되었고, 왕평보王平甫는 영지관靈芝館 선관仙官이 되었고, 소자첨蘇子瞻은 규수奎宿가 되었다. 일설에는 자부紫府의 압아押衙(천자를 호위하는 무관)가 되었다"라고 했다. 내가 상고하여 보니, 그 말들이 비록 기紀와 전傳에서 나왔으나, 허탄한 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다 기록하지 않는다.

담양대사曇陽大師 도정燾貞이란 자는 명나라 대학사大學士 왕석작王錫爵의 딸이다. 가정嘉靖 무오년戊午年에 나서 나이 17세에 천진天眞을 만나 도경道經을 받아 가지고 몸을 연마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러다가 만력萬曆 경진庚辰 중구重九에 사람의 허물을 벗고 신선이 되어 갔다. 왕세정이 그 사실을 매우 자세히 전했으니 괴상한 일이다. 그 말들엔 불가佛家의 맛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중용中庸》에 천명天命을 성품이라고 한 것은 한 마디로 천하의 도道를 밝혔다"라고 했다.

그는 또 말하기를, "뜻하지 않고 기필期必하는 것이 없고, 고착固着함이 없고, 내가 없으면 맛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공자孔子가 되는 것이다. 바로잡지도 말고, 돕지도 말고, 잊지도 않으면 맹씨孟氏가 거의 그 짐을 졌다고 하겠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도道를 구하는 자는 다만 12시간 동안 몸과 마음속의 허물을 점검點檢할 뿐이다"라고 했다. 이 몇 마디 말들은 우리 도道와도 그다지 심하게 어긋나지 않으니 역시 이상한 일이다.

신라 때의 4선仙은 곧 술랑述郞 · 남랑南郞 · 영랑永郞 · 안상安詳이다. 이들이 함께 고성高城에서 놀다 사흘 동안 돌아오지 않은 때문에 그곳을 삼일포三日浦라고 한다. 남랑이란 아마도 단서丹書에 이른바 남석행南石行이 이것이다. 이를 선仙이라고 한 것은 대체로 그때에 낭도郞徒들을 국선國仙이라고 부른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요, 정말 신선은 아니다.

선왕先王께서 어느 날 경연經筵에서 신선에 대한 말을 하자 좌우 사람들이 모두 대답하기를, "신선이란 허탄하고 믿기 어려운 일이오니 역대 임금들이 이것을 구한 것은 망령된 일입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이참찬李參贊 준민俊民이 나와 말하기를, "신선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임금이 놀라서, "무슨 말인가?" 하고 묻자, 준민은 말하기를, "지금 판부사判府事 신臣 원혼元混이 곧 신선입니다"라고 했다. 임금은 다시, "어째서 하는 말인가" 하자, 준민俊民은 대답하기를, "원혼元混은 젊어서부터 욕심과 색色을 끊고 정신을 길러서 나이 90이 지나서도 총명이 쇠약해지지 않고 정력이 오히려 건강하오니 참신선입니다"라고 했다.
이 말은 법도가 있고 풍자하는 맛이 있어 임금도 크게 기뻐했다.

윤군평尹君平이란 자는 서울 사람이다. 젊어서 무술을 공부하여 군관이 되었는데, 북경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인異人을 만나 《황정경黃庭經》을 받아 능히 수련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는 전우치田禹治와 함께 한때 도술이 매우 높았다. 죽을 때 나이 80여 세가 되었는데 시체가 몹시 가벼워서 마치 빈 옷뿐인 것 같았다. 사람들은 이것을 시해尸解[31]라고 말했다.
그 아들 임霖도 역시 도술이 있었는데 나이 90이 되어 죽었다.

31 도가道家에서 쓰는 말로서, 몸을 남기고 혼백魂魄은 신선으로 화한다는 말.

박수암朴守庵 지화枝華는 도道가 있는 선비이다. 몸을 잘 수양하고 항상 한 방에 거처하며 겨울이나 여름에도 나오지 않았다. 나이 80에도 정력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다.
임진년壬辰年 왜변에 양근楊根 물가에 몸을 피하고 있더니, 갑자기 어느 날 나무를 쪼개어 두시杜詩 한 구를 쓰기를, "백구白鷗는 원래 물속에서 자는 법인데, 무슨 일로 남은 근심이 있는가(白鷗元水宿 何事有餘哀)" 하고는 몸을 물에 던져 죽었다. 이것을 보고 일을 좋아하는 자는 말하기를, "이는 아마 수선水仙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궁두南宮斗는 함열咸悅 사람이다. 을묘년乙卯年에 진사進士에 올랐다. 젊었을 때 무슨 일로 인하여 망명亡命했다가 이인異人을 만나 비결을 얻었다. 그는 산과 물 사이에 떠돌아다니며 놀았는데, 나이가 거의 90이 되었는데도 얼굴빛이 쇠하지 않았으니 사람들은 그를 지선地仙이라 했다.

곽재우郭再祐는 현풍玄風에서 대대로 벼슬하는 집 목사牧使 월越의 아들이다. 기개와 절조가 있고, 나이 40에 뜻이 크고 사물에 구애되지 않았다. 임진왜변壬辰倭變에 자기 집 종과 향병鄕兵들을 모아서 의리를 떨쳐 왜적을 쳤다. 또 그는 자기 집 재산을 풀어서 군비軍費에 보충하고, 낙동강洛東江을 가로막고 지키면서 적병을 무척 많이 죽이니 적들은 두려워하여 그를 홍의장군紅衣將軍이라고 불렀다.
적이 물러간 뒤에 그는 말하기를, "고양이를 기른 것은 쥐를 잡기 위한 것인데, 이제 적이 이미 평정됐으니 나는 할 일이 없다. 이제 돌아갈 것이다" 하고 드디어 방술方術을 배우더니 산으로 들어가 곡식을 끊고 거의 1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에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은 더욱 건강했다. 하루에

다만 송화松花 한 조각을 먹을 뿐이었으니 이는 대체로 연기嚥氣[32]의 법을 얻은 것이었다.

풍기豐基 땅에 촌 여자 하나가 있었다. 어렸을 때 들에서 이상한 풀을 따서 먹었다. 그 뒤로부터 그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얼굴빛이 항상 젊으며, 걸음걸이가 나는 듯했다. 그가 먹은 것은 필경 신령스런 풀이겠는데, 마침내 무슨 풀인지 알지 못했다. 그 뒤에 갑자기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 사람들은 신선이 되었다고 했다.

남쪽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말하기를, "일찍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나갔더니, 새로 비가 갠 뒤인데 우의羽衣(새의 깃으로 만든 옷)에 금관金冠을 쓴 어른을 보았다. 그는 구름 기운을 타고 바다 위의 두어 길을 떠서 가고 있었다. 그 뒤에는 어여쁜 아가씨들이 음악을 아뢰면서 따르는 자가 수없이 많은데 그는 동쪽을 향해 가더라"라고 했다.
이것은 대체로 봉래산蓬萊山 신선들이 왕래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았던 것이니, 이 역시 인연이 있는 사람인 듯하다.

바닷가에 사는 한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생업을 삼고 있었다. 어느 날 바람을 만나 7, 8일 동안 표류하다가 한 섬에 도착하니, 섬 위에 누각이 은연히 비치는데 마치 궁궐과 같았다. 배를 대고 언덕으로 올라가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뜰 안이 깨끗하여 마치 백옥白玉을 깐 듯하고, 붉은 꽃이 가득 피었는데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다. 누각 안은 텅 비고 고요하여 사람이 없다. 이에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마루와 집이 매우 곱고 청초했다. 마루 앞에 푸른 못이 있고, 못 옆에 탁자가 있으며, 탁자 가에 바둑판과 바둑알이 있다. 그 아래에 푸

32 음양陰陽의 기운을 몸속에 흡수하는 것. 도가道家의 양생養生하는 방법. 《포박자抱朴子》에 보면 연기단곡嚥氣斷穀이라 했다.

른 짚신 한 켤레가 있는데, 그 크기는 한 자가 넘고 아직도 물에 젖어 있었다.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은 놀라서 배로 돌아와 드디어 우리 땅으로 돌아와 버렸다. 이 말은 허학관許學官 징澂이 친히 그 사람에게서 들었다고 한다.

남주南趎란 자는 곡성谷城 사람이다. 어려서 공부하는데 배우지 않고도 능히 알았다. 아버지가 글을 읽으라고 권하면 그는 말하기를, “제가 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어느 날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더니 이윽고 안개가 트이는 곳에 주趎가 어른 몇 사람과 바위 위에 앉아서 글을 읽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히 여겼다.

일찍이 그는 편지를 써서 가동家僮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지리산智異山 청학동靑鶴洞에 가면 두 사람이 마주앉아 있을 것이다. 너는 그곳에 가서 이 편지를 전하고 답장을 받아오도록 하라”라고 했다. 가동이 그 말대로 가보니 과연 화각畫閣 두어 칸이 바위 위에 가로놓여 있는데, 깨끗하고 곱기가 비할 데 없었다. 그 안에서는 한 도인道人이 늙은 중과 바둑을 두고 있었다. 가동이 편지를 올리자 도인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 이미 네가 올 줄 알았다” 하더니 바둑을 끝내고 나서 편지와 푸른 옥玉으로 만든 바둑알 1개를 주어 보낸다. 가동이 그곳에 갔을 때는 9월 중순으로서 낙엽들이 길 위에 나부끼고 잔 눈발이 하늘에 뿌릴 때였다. 그들을 작별하고 돌아오는데 조금도 배고픈 줄을 몰랐다. 발자국 밑을 보니 묵은 풀 속에서 새 싹이 나려 한다. 그는 이것을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다. 동구洞口를 나서니 일기가 따뜻하고 풀과 나무는 새 잎이 돋아났다. 이것은 곧 인간 세상의 2월 일기였다.

주趎는 그 뒤에 과거에 올랐으나 벼슬은 전적典籍에 그치고 죽었다. 그가 죽은 뒤에는 바둑알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때의 도인은 곧 최고운崔孤雲이요, 늙은 중은 검단선사黔丹禪師였으니, 아마 주趎도 역시 신선 중의 한 사람이다”라고 한다. 이 일은 허탄한 것 같으나 남향南鄕 사람들로 이런 전설을 말하는 이가 많다.

28-2 수양修養

《도덕경道德經》에 말하기를, "곡신谷神[33]은 죽지 않으니 이것을 현빈玄牝[34]이라고 한다. 이 현빈의 문을 이 천지의 근본이라고 한다. 길게 이어져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써도 괴로움이 없다"라고 했다. 주註에 말하기를, "현玄은 하늘이니 사람에 있어서는 코와 같고, 빈牝은 땅이니 사람에 있어서는 입과 같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금단정론金丹正論》에 말하기를, "내신內腎의 한 구멍을 현관玄關이라 하고, 외신外腎의 한 구멍을 빈호牝戶라고 한다. 빈호는 감축하는 곳이 없으면 정기가 밖으로 화하지 않고, 현관玄關은 위로 통하게 된다"라고 했다. 도가道家는 말하기를, "양신兩腎의 좌편을 현玄이라 하고, 우편을 빈牝이라 한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코의 양쪽 구멍을 현빈이라 한다"고 했다. 《오진편悟眞篇》에는 말하기를, "몸 안의 한 구멍을 이름하여 현빈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옛날 사람은 이것을 허무虛無의 보배요, 혼돈混沌의 근본이라고 했다. 단원부丹元府의 언월偃月·노룡爐龍·호실虎室·황파黃婆·사신舍神·수화지水華池·영대靈臺·강궁絳宮은 모두 한 곳이라고 했는데, 여러 말들이 같지 않다.

《황정경黃庭經》에 말하기를, "그대가 죽지 않고자 하거든 곤륜崑崙을 닦으라. 대개 머리털은 빗질을 많이 하고, 손은 얼굴에 대고 있을 것이며, 이빨은 자주 부딪치라. 침은 항상 삼키고, 기운은 항상 연마하라. 이 다섯 가지가 이른바 곤륜을 닦는 것이다"라고 했다.
상고해 보니 의서醫書에 말하기를, "머리에 구궁九宮이 있으니, 그 가운데를 니환泥丸 또는 곤륜崑崙이라고도 하고, 천곡天谷이라고도 하니, 이곳은 곧 원신元

33 도道를 형용한 말. 도의 공허함을 산골짜기에 비유한 말임. 노자의 도에서 이름.

34 만물을 생성하는 도. 현玄은 그 작용이 미묘하고 심오함. 빈牝은 암컷이 새끼를 낳듯이 도가 만물을 냄.

神이 살고 있는 궁宮이다. 그 빈곳이 골짜기와 같아서 여기에 신神이 있기 때문에 곡신谷神이라고 한다. 신이 여기에 있으면 사람이 살고 신이 가버리면 죽는다"라고 했다.

또 구선가臞仙歌에, "이빨을 36번 부딪치고, 두 손으로 곤륜을 싼다"라고 했으니, 이 곤륜은 머리를 말한다.

《연수서延壽書》에 말하기를, "사람의 수壽는 천원天元 60, 지원地元 60, 인원人元 60으로, 도합 180세이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사람의 수壽는 본래 4만 3,200일로서 곧 120세이다"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기에, 상고上古 사람들은 흔히 100세 이상을 살았다. 그러나 후세 사람들이 그 천년天年(천연의 타고난 수명)을 다 살지 못하는 것은, 좋아하고 욕심 내는 것이 여러 가지여서 자기가 가진 진기眞氣를 소모해 없애는 때문이다. 그렇지만 팽조彭祖의 수壽는 800세였고, 귀곡자鬼谷子는 세상에 있기 수백 세였다. 위魏나라 문후文侯의 악관樂官 두공竇公은 한漢나라 문제文帝 때에 280세였다. 묵적墨翟은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에 200여 세를 살았으니, 이것은 삼원三元의 한계를 지난 것이다.

또 옛날에 태산노옹泰山老翁은 85세, 여순양呂純陽과 마자연馬自然은 모두 64세에 비로소 진결眞訣(참된 비결)을 얻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道를 배우는 데는 이르고 늦은 것이 없고, 역시 정력적으로 전념하고 힘을 쓰는 것이 어떠한가에 있는 것이다.

도가道家의 연내단煉內丹에 7반返 · 9환還의 설이 있다. 이것을 해석하는 자는 말하기를, "7반은 인寅에서 신申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9환은 아홉 번 순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정신을 연마해서 허신虛神으로 돌아가는 것은 화火에 속하는 것이니, 7은 곧 화火의 성수成數이다. 성품을 가지고 정情을 섭취하는 것이니, 정情은 금金에 속한다. 금金은 9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9환이라고 한다.

또 《금단문답金丹問答》에는 말하기를, “금액金液은 금金물이다. 금金은 또 수모水母가 되고, 어미는 자식의 태胎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인해서 환단還丹이라는 칭호가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 “단丹이란 것은 단전丹田[35]이요, 액液이란 폐액肺液이다. 이 폐액을 단전에 돌려보내는 때문에 금액환단金液還丹이라고 말한다”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기에 이 말이 옳은 듯싶다.

자양진인紫陽眞人은 말하기를, “큰 약은 이것을 쓰기에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다. 모름지기 나 자신에 말미암을 것이요, 하늘에 말미암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눈은 정신의 창문이요, 코는 기운의 지게문이요, 미려尾閭[36]는 정기가 다니는 길이다. 그러니 모름지기 때때로 눈을 감고 정신을 기를 것이요, 숨을 조절하여 기운을 기를 것이요, 하원下元[37]을 굳게 닫아서 정기를 기를 것이다. 정기가 차면 기운이 넉넉하고, 기운이 넉넉하면 정신이 완전하게 된다. 도가道家에서는 이것을 삼보三寶라고 하고, 또 이것을 대약大藥 진니환陳泥丸이라고 한다.” 또 말하기를, “대약이란 모름지기 정기를 정신에 엉기게 하는 것이니 금액환단金液還丹이 이것이다”라고 했다. 양생서養生書에는 말하기를, “사람의 나이 40 이후에는 좋은 약이 몸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세상일은 끊어버릴 수가 없고 좋은 약은 자주 먹을 수가 없다. 그런 때문에 병을 얻는 것이다”라고 했다. 여기에서 좋은 약이라고 한 것은 역시 대약大藥을 가리키는 말이다. 세상 사람은 이것을 여기에서 구하지 않고 망령되이 잡스런 약만 먹으니 또한 잘못이 아니랴.

35 배꼽 아래로 한 치쯤 되는 곳. 아랫배. 여기에 힘을 주어 항상 심신心身의 정기精氣를 모으면 몸이 건강해져서 장수한다 함.

36 큰 바다의 깊은 곳에 있어 그칠 사이 없이 물이 샌다는 곳. 백천百川의 아래에 있으므로 미尾라 하고, 여閭는 모인다는 뜻임. 《장자莊子》〈추수秋水〉편에 미려설지尾閭泄之라는 말이 있다. 여기에서는 인체의 아랫구멍을 말한 것.

37 고대古代 의학醫學에서 신부腎部를 말함. 《운급칠첨雲笈七籤》에 “사람에게 세 단전丹田이 있으니, 상원上元 · 중원中元 · 하원下元이 이것이다. 상원은 뇌腦이니 이것을 니환泥丸이라 하고, 중원은 마음이니 이것을 강궁降宮이라고도 하고, 하원은 기해氣海이니 정문精門이라고 한다”고 했다.

《영추경靈樞經》에 말하기를, “눈이 밝은 자는 빛을 보게 하고, 귀가 밝은 자는 소리를 듣게 할 것이다. 손재주가 있고 마음이 자상한 자는 침을 놓게 할 것이요, 마디가 너그럽고 근육이 부드럽고 마음이 고르고 조화된 자는 도인행기導引行氣[38]를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각각 자기의 능한 것을 얻어서 곧 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때문에 말하기를, ‘그 사람이 아니면 가르치지 말고, 참일이 아니면 남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였다.

나는 생각하기에,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아무리 조그만 재주나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자신의 성품에 가까운 것은 하기가 쉬운 것이다. 더구나 마음을 다스리고 성품을 기르는 학문이겠는가.

《선경仙經》에 말하기를, “뇌腦를 수해髓海의 상단전上丹田이라 하는데 이것은 기운을 간직하는 창고이고, 마음을 강궁絳宮의 중단전中丹田이라 하는데 이것은 정신을 간직하는 창고이고, 배꼽 밑 3치쯤 되는 곳을 하단전下丹田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은 정기를 간직하는 창고이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등 뒤에 세 관關이 있으니, 뇌 뒤를 옥침관玉枕關이라 하고, 척골脊骨을 끼고 있는 양쪽을 녹로관轆轤關이라 하고, 수화水火의 사이를 미려관尾閭關이라 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두 정기가 오르내리는 길이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도경道經에 말한 단전丹田은 하단전下丹田을 가리켜 말한 것이 많다. 당나라 유허백劉虛白은 술을 좋아하였는데 시를 지어 말하기를, “술 마시고 취한 데는 호세戶稅가 없으니, 거친 땅 단전丹田으로 내려가도록 하라(知道醉鄉無戶稅 任他荒却下丹田)”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도서道書에 말하기를, “눈이 보지 않으면 그 혼魂은 간肝에 있고, 귀가 듣지 않으면 그 정기는 신腎에 있다. 코가 냄새 맡지 않으면 그 혼魂은 폐肺에 있고, 혀

38 도인導引이란 신선한 공기를 몸속에 이끌어 넣는 뜻으로, 도가道家의 양생법養生法임. 《한서》에 보면 도인불식곡導引不食穀이라 했다. 행기行氣는 몸을 움직이는 것.

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신神은 마음에 있고, 사지四肢를 움직이지 않으면 그 뜻은 비脾(지라)에 있다. 곧 이 5가지 기운의 근본을 얻어 수행하는 선비는 먼저 여기에 서는 것으로 근본을 삼는다"라고 했다.
《의감醫鑑》에는 말하기를,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은 모두 정기를 소모하는 근원이 된다"라고 했다. 그런 때문에 불가佛家에서는 벽을 향해 앉고, 선가仙家에서는 좌관坐關[39]한다. 이것은 모두 기초를 쌓고 고행해서 정신의 소모를 방지하는 것인데 장생하는 술법이다.

양생서養生書에 말하기를, "대체로 사람들은 하루 낮과 하루 밤에 13,520번의 숨을 쉬고, 한 번도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서 한 번 숨 쉬는 것을 감하면 추워지고, 또 여기에 한 번 숨 쉬는 것을 더하면 열이 나서 창자가 화합하지 않아 모든 병이 생긴다. 그런 때문에 숨을 조절해 쉬는 것이 양생법의 첫째가 된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진전眞詮》에 말하기를, "처음 숨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려면 모름지기 그 기운을 배꼽에서부터 내고 도로 배꼽으로 들여보내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조절하면 숨을 매우 가늘게 쉬게 된다. 그렇게 한 뒤에는 입이나 코로 숨을 쉬지 말고, 다만 배꼽으로 호흡을 해서 마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배꼽으로 숨 쉬는 것처럼 할 것이다. 그런 때문에 태식胎息이라고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이 또 그 요결要訣이다"라고 했다.

팽조彭祖는 말하기를, "젊고 건강한 사람으로 하여금 방사房事의 수고로움으로 기운을 손상시키지 않게 하는 것은, 미각麋角(녹용)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했다.
김 참판 아무개는 평생 동안 첩을 많이 얻었으나, 보양補養하는 술법을 잘해서 계속하여 미각을 먹어 자기 스스로 그 효력을 얻었다고 하였지만, 나이 겨우

39 문門을 닫고 들어앉아 경을 외고 좌선坐禪하는 것.

50에 죽었다. 이것은 곧 약을 먹는 것이 여색을 삼가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도추道樞[40]의 학설이 많지만 그래도 용과 범이 사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사巳와 오午 두 때에 모든 생각을 끊고 거짓 자는 체하면 용과 범이 저절로 사귀어 수양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 어느 사람이 뼈가 쑤시는 것을 괴로워하기에 이 법을 가르쳐주니, 열흘 뒤에는 허리 사이가 따뜻해지면서 병이 저절로 나았다"라고 했다.

그러나 《산거사요山居四要》에는 말하기를, "낮에 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원기元氣를 손상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패사》의 말과 다르다.

도서道書에는 은어隱語가 많다. 신수腎水(사람의 정수精水)를 용龍이라고도 하고 연鉛이라고도 하고 현구玄龜라고도 한다. 또 심화心火를 호虎라고도 하고, 홍汞(수은)이라고도 하고 주작朱雀이라고도 한다. 또 몸을 정로鼎鑪라 하고, 생각을 쉬는 것을 양화養火라 하고, 성정性情을 신중부부身中夫婦라고 한다. 이런 따위의 말은 매우 많다. 대체로 이것은 말을 감추어 망령되이 누설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팽조彭祖는 대부大夫가 되어 수壽를 802세나 누렸고, 뒤에 서쪽으로 유사流沙에 가서 아내가 49명이 있고, 자식 54명을 잃었다. 젊어서부터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여, 세상일을 돌보지 않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입는 것과 먹는 것은 남과 다를 것이 없지만, 기운을 내보내지 않고 속으로 숨쉬며 도道를 기르는 술법을 잘했다.

그가 말하기를, "수壽를 기르는 방도는 다만 손상하지 않는 것뿐이다"라고 했다. 이 말은 실상 이치에 가까운 것 같으나, 행하기는 몹시 어렵다. 그러기에 팽조의 뒤에 다시 팽조가 없는 것이다.

40 도道의 중추中樞. 이치의 근본. 《장자》〈제물론齊物論〉에 "彼足得其偶 謂道樞"라고 했다.

옛날 치맹절郗孟節은 대추씨를 물고 5년, 10년 동안 있으면서, 또 호흡을 그치어 숨 쉬지 않으며, 몸을 움직이지 않아 죽은 사람의 모양으로 백 일이나 반년을 지낸다. 그러고도 역시 아내와 가정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 섭생攝生하는 사람도 대추씨를 물고, 혹은 한 개를 가지고 여러 달 동안 뱉지 않는 자가 있다.
아마 대추씨는 능히 침을 생기게 하여 머금고 삼키기에 편한 까닭일 것이다.

화타華陀의 오금희五禽戲는 범 · 사슴 · 곰 · 원숭이 · 새를 말하는 것이다. 상고하건대,《장자》에 말하기를, "묵은 것을 토하고, 새 것을 마셔 들이며, 곰처럼 움직이고, 새처럼 펴는 것, 이것은 도인법導引法을 쓰는 사람이다"라고 했다.
《회남자》에도 말하기를, "곰처럼 움직이고 새처럼 펴며, 물오리처럼 목욕하고, 원숭이처럼 움켜쥐고, 솔개처럼 보고, 범처럼 뒤를 돌아본다. 이것은 형상을 기르는 사람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법은 곧 화타華陀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참봉參奉 백인웅白仁雄은 포천抱川에서 궁하게 살면서 고요하고 담박하여 벼슬도 하지 않았다. 평생에 하는 일이 없고, 오직 계집종 중에 나이 14, 5세가 된 자를 골라서 같이 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종이 나이가 조금 먹으면 이것을 바꾼다. 이렇게 해서 나이가 90을 지났는데도 어린아이 얼굴과 같았다. 임진년壬辰年에 이르러 왜적에게 해를 입었다.
이것은 옛날 선인仙人 선표單豹가 안으로는 자신을 잘 섭양攝養하였으나 범에 먹혀 죽은 것과 같은 것이다.

양생서養生書에 말하기를, "겨울에는 뇌腦를 얼게 하고, 봄과 가을에는 뇌腦와 발을 모두 얼게 한다. 이것은 성인聖人의 상법常法이다"라고 했다. 근년에 참의參議 유조인柳祖訒은 깊은 겨울에 매양 머리를 내놓고 바람을 쐬었다. 이것을

동뇌凍腦라고 한다. 그는 나이 80이 가까워서 죽었다. 그러나 병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이것을 본받지 말 것이다.

노소재盧蘇齋가 정승이 되었을 때, 객客이 와서 약을 물었다. 공이 말하기를, "혼자 누워 자는 것(獨臥散)이 가장 좋은 약이니 다른 약을 쓸 것이 없다"라고 했다. 약을 물으러 온 객이 여색에 상한 자이기 때문에 공은 이것을 희롱삼아 한 말이었다. 양생서養生書에도, "약 천 첩을 먹는 것보다 혼자 누워 자는 것이 낫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송나라 포회包恢는 89세에도 정신이 오히려 건강했다. 사람들이 양생하는 방법을 물으면 대답하기를, "내가 먹은 것은 50년 동안 오직 독수환獨睡丸뿐이었다"라고 했다. 이 말이 바로 이것과 한 뜻이다.

선녀仙女 두란향杜蘭香이 말하기를, "소마消摩[41]하면 스스로 병을 고칠 것이요, 음사淫祀는 유익함이 없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설부》에 말하기를, "소마는 약이니, 마摩는 마磨로도 쓴다"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기에, 양생서에, "먹은 것을 마찰摩擦해서 소화시키는 법이 있다"라고 했으니, 소위 소마消摩라는 것은 약 이름이 아니요, 아마 섭양攝養하는 방법일 것이다.

의방醫方에 말하기를, "대체로 사람들이 이빨을 앓는 일이 많은 것은 월식月蝕하는 밤에 음식을 먹은 때문이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일식日蝕이나 월식이 다 끝나기 전에는 특히 음식 먹는 것을 꺼린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 이치는 알 수가 없다.
또 《포박자抱朴子》에 말하기를, "어느 사람이 중년에 풍질風疾을 얻어 항상 이빨을 부딪쳐서 소리가 났다. 그러나 그는 수壽를 120세나 했다"라고 했다. 여기에서 보면 이빨을 부딪치는 것은 섭양하는 좋은 방법인 것을 알겠다.

41 수족을 문질러 부드럽게 하는 것. 안마按摩.

《연수서延壽書》에 말하기를, “양생을 잘하는 사람은 먼저 목마른 뒤에 물을 마시고, 마시는 것도 지나치게 많이 마시지 않는다. 또 먼저 배고픈 뒤에 음식을 먹고, 먹는 것도 배부르게 먹지 않는다”라고 했다.
나는 여기에 더 보태서 말하고 싶다. 먼저 추운 뒤에 옷을 입되, 지나치게 두껍게 입지 않고, 먼저 병이 있은 뒤에 약을 먹되, 지나치게 보補하지 않게 해야 한다.

《내관정정도內觀靜定圖》에 말하기를, “보는 것을 절약해서 정신을 기르고, 듣는 것을 절약해서 허한 것을 기르고, 말하는 것을 절약해서 기운을 기르고, 욕심을 절약해서 정력을 기른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욕심을 줄이는 것(儉欲)은 곧 《도덕경道德經》의 편명篇名이니, 검儉이란 글자가 좋다.

옛 사람의 말에, “술을 즐기는 자는 재물을 소비하고, 글씨를 배우는 자는 종이를 소비하고, 의술을 배우는 자는 사람을 소비한다”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기에, 여색을 좋아하는 자는 정력을 소비하고, 권리를 탐하는 자는 마음을 소비하고, 시를 짓는 자는 정신을 소비한다. 그러니 수명을 기르는 자는 마땅히 이것을 아낄 줄 알아야 한다.

양생서에 말하기를, “먼저 마음을 잠들게 하고 난 뒤에 눈을 잠들게 한다”라고 했다. 이 수睡 자는 혹은 와臥로도 쓴다. 불어佛語에 말하기를, “눈이 안정되어야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어야 몸이 안정된다”라고 했으니 이것도 역시 이런 뜻이다.
상고하건대 《영추경靈樞經》에 말하기를, “사람이 눈을 감지 않으면 와臥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자는 것으로 눕는다고 한 누울 와(臥)자는 본래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산거사요山居四要》에 말하기를, "부자로 살 때 절약해 쓰지 않으면 가난할 때에 뉘우치게 되고, 일을 보고도 배우지 않으면 쓸 때에 뉘우치게 될 것이요, 편안할 때 쉬지 않으면 병들었을 때에 뉘우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여색 피하기를 원수 피하듯이 하고, 바람 피하기를 화살 피하듯이 하라"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몸이 한가한 것이 마음이 한가한 것만 못하고, 약을 먹어 몸을 보하는 것이 음식으로 몸을 보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으니 이 말이 옳다.

소동파蘇東坡가 말하기를, "구복口腹의 욕심이 어찌 끝이 있으리오. 여기에 매양 절약하고 검소한 것이 역시 복을 아끼고 수壽를 연장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했으니 이 뜻이 매우 좋다.
나는 평생에 병이 많아서, 비록 사치한 음식을 먹지 않으며, 또 술 마시는 것은 홉에 지나지 못하지만, 고기는 버리지 못하니 탄식할 일이다.

대체로 사람이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몸이 살찌고 야윈 것이나, 기운이 세고 약한 것이나, 먹는 것이 많고 적은 것이나, 터럭이 희고 검은 데에 있지 않다. 수壽의 한도가 길고 짧은 것은 정한 분수가 있는 듯싶다. 그러나 사람이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원기元氣뿐이다. 그리고 이 원기를 해치는 것은 술과 여색의 원인이 제일 크다. 여기에서 섭양하는 도를 실로 소홀히 하지 못할 것이다. 노쇠해 가는 사람은 더욱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8-3 선문禪門

세상에서 이르기를, "불법佛法이 중국에 들어온 것은 후한後漢 명제明帝 때에 시작한 것이다"라고 한다. 상고하건대, 곽거병霍去病은 중을 거두어서 하늘의

금인金人(금으로 만든 불상佛像)을 제사 지냈다고 한다. 안사고顔師古는 말하기를, “지금의 불상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했다.
한무제漢武帝의 고사故事에 보면, “곤사왕昆邪王은 휴도왕休屠王을 죽이고 항복하여 금인金人의 신神을 얻어다가 감천궁甘泉宮에 두었다. 그 제사에는 소나 양을 쓰지 않고 오직 향을 피워 절을 할 뿐이다”라고 했다. 또 《서역전西域傳》에 말하기를, “애제哀帝 때에 박사博士 제자인 경헌景憲은 대월지大月氏의 사신 이존伊存에게 구전口傳으로 《부도경浮屠經》을 받았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본다면 전한前漢 때에 이미 이 말이 있었던 것이다.

중 무주無住가 말하기를, “경지境地를 보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불생不生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니, 불생이란 곧 불멸不滅이다. 이미 나고 멸하는 것이 없으면 곧 진세塵世(속세)의 속박을 받지 않고 이것을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했다. 여기에서 이른바 불생不生 · 불멸不滅이란 대개 심성心性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한퇴지韓退之가 무시어武侍御 화불문畫佛文에 제題하여 말하기를, “서쪽 끝 지방에 부처가 있는데 그 땅은 대악大樂이다. 그런 때문에 이 부처를 그림으로 그려 여기에 예禮한다. 원컨대 그 왕생往生에 뜻과 같지 않음이 없으라”라고 했다.
유자후柳子厚의 〈영주정토원기永州淨土院記〉에도 말하기를, “서쪽 지방에 세계가 있으니 극락極樂이라고 한다. 성심誠心과 염력念力이 다 같이 족하면 저 나라에 가서 날 수가 있다”라고 했다. 이것은 비록 부도浮圖의 말을 바로 기술記述한 것이라 하지만, 여기에 혹하는 자로써 보게 한다면 어찌 그 흐름을 인도해서 이것을 쳐서 물결을 일으키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만일 한 공이 저 불골일표佛骨一表를 짓지 않았다면 이러한 누명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불어佛語에 말하기를, “항상 스스로 똑똑해서 생각하는 것을 올바로 하여 어두운 데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좌坐라고 한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욕심을 내지 않고, 진세塵世 속에 살면서도 진세를 떠나면 선禪이라 한다. 밖으로 놓아 들어가지도 않고 안으로 놓아 나가지도 않으면 좌坐라고 한다. 어디에 붙지도 않고 아무 데도 의지하지 않은 채 항상 똑바로 앞으로 가는 것을 선禪이라 한다. 밖으로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안으로 쓸쓸해도 요동하지 않으면 이것을 좌坐라고 한다. 빛을 돌이켜 도로 비쳐서 법의 근원을 알아내면 선禪이라 한다”라고 했다.

좌坐와 선禪과는 곧 2가지 일이다. 황산곡黃山谷의 시에, “그대 앉아서 파리하게 선禪하는 것 생각하네(念公坐臞禪)”라고 한 것은 아마 잘못된 말인 듯싶다.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요즘 사대부들로 부처를 배우는 자들은, 부처의 마음은 행하지 않고 오직 부처가 남기고 간 자취만 행하고 있다. 입으로는 자비慈悲를 말하면서 행동은 마치 독충毒蟲과 같다”라고 했다.

《금단정론金丹正論》에 말하기를, “옛날부터 지금까지 재물을 탐하고 여색을 좋아한 신선은 없었다”라고 했으니 이 말이 옳다. 나는 보기에 지금 선비들은 입으로는 성현聖賢을 말하면서 그 마음은 성현과 거리가 먼 자들이 많다. 어찌 이것이 유독 신선이나 부처에 있어서뿐이랴.

불교에서는 무엇보다도 술을 가장 경계한다. 그 말에 보면, “술을 마시면 10가지 과실이 있다. 첫째 얼굴빛이 나빠지고, 둘째 힘이 적어지고, 셋째 눈이 밝지 못하고, 넷째 성내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섯째 자기의 사업을 망치며, 여섯째 병을 더하게 되고, 일곱째 남과 싸워 송사하고, 여덟째 나쁜 이름을 퍼뜨리며, 아홉째 지혜를 감하고, 열째 몸을 망치고 목숨을 끊으며, 모든 나쁜 길에 빠지게 된다”라고 했다. 그 경계함의 깊고 절실함이 이와 같다.

이단異端이라는 것은 원래 유도儒道를 해치나 또한 유익한 것을 주는 것도 있다. 도가道家의 무위無爲라는 것은 곧 하는 것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경계가 된다. 또 양생養生은 곧 삶을 버리는 자에게 경계가 된다. 부처의 마음을 본다는 것은 곧 방심放心하는 자의 경계가 되고, 살생殺生을 경계하는 것은 죽이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경계가 된다.

《고시유원古詩類苑》에 〈달마진성송達摩眞性頌〉을 실었는데, 거기에 말하기를, "'시작과 마침이 항상 현묘하고 지극하니, 참으로 성정性情의 인연을 떠났네. 이치가 비었으니 조적을 잊고, 몸은 깨끗하고 밝고 둥근 경지에 이르네.〔始終常妙極 眞離性情緣 理空忘照液 身至淨明圓〕'라고 했다. 이 20글자를 가지고 둘러맞추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여, 시 40수首를 만들었는데 이를 합계하면 800자字나 되며, 매수每首에 운韻을 달았으니 기묘하다"라고 했다.

불게佛偈에 말하기를, "금 화로에는 천년 불이 꺼지지 않고, 옥등잔에는 길이 만년 등불이 밝구나〔金爐不滅千年火 玉盞長明萬歲燈〕"라고 했다. 대체로 이것은 금화로와 옥등잔을 가지고 마음과 창자에 비유한 것이다. 또 천년 불이나 만년 등불은 신명神明에 비유한 것이다.
또 "옥솥에 물이 끓고, 금화로에 불이 탄다"라는 것은 도가道家의 말이다.

유가儒家에서는 세世라 하고, 도가道家에서는 진塵이라 하고, 불가佛家에서는 겁劫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가지다. 또 불가에서는 연年을 가지고 납臘이라고 한다.
당시唐詩에 말하기를, "중의 나이는 뜰 앞의 나무다〔僧臘階前樹〕"라고 했다. 《남북사南北史》에는 말하기를, "나이 늙은 중을 기랍耆臘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다. 또 승하僧夏라고 하는 것은 중이 결하結夏(중이 여름철의 90일 동안 한곳에 있으며 수행하는 것)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상고하건대, 석가釋迦의 키는 1길 6자나 되었으니 역시 이인異人이다. 지금 영남嶺南 통도사通道寺에 부처의 머리뼈가 있는데, 크기가 동이만 하고, 이〔齒〕의 길이는 2치나 되는데, 세상에 전하기를, 이 석가釋迦의 머리뼈는 옛날 지장선사智藏禪師가 서역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한다. 지장智藏이란 도선道詵의 스승이다.

불조佛祖 용수龍樹는 젊었을 때 동지 세 사람과 함께 은신술隱身術을 배워가지고 왕궁王宮에 들어가 몇 달을 있었더니, 궁중에 있는 미인美人들이 임신한 자가 많았다. 그는 뒤에 후회하고 산에 들어가 도道를 이루었다 한다. 후세에 좌자左慈 나공원羅公遠 홍선紅線의 무리들은 대개 이 은신술을 배운 사람일 것이다.

소동파蘇東坡가 중 불인佛印을 죽림사竹林寺로 찾았다. 여기에서 이섭李涉이, "우연히 부생의 반날 한가함을 얻었다〔偶得浮生半日閑〕" 하는 시구詩句를 외니, 불인佛印이 말하기를, "학사學士는 반날 한가함을 얻었고, 늙은 중은 반날 바쁘기만 하다〔學士閑得半日 老僧忙了半日〕"라고 했으니, 그 말이 정말 옳은 것이다.

동방東方의 이상한 중은 의상義相이라고 하고, 도선道詵이라고 한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의상義相은 원효元曉의 제자라 한다.
상고하건대, 원효와 의상은 모두 신라 신문왕神文王 때의 중이다. 혹은 말하기를, "의상은 곧 원효의 아우이다"라고 한다. 또 말하기를, "도선은 일행一行의 제자이다"라고 한다. 또 상고하건대, 일행은 당나라 중종中宗 때 중이고, 도선은 신라 말년에 났으니 그 세대世代가 멀리 떨어졌다. 대체로 이것은 제자가 아니고 술법術法과 학문을 전한 자이다.

최치원崔致遠의 〈진감비서眞鑒碑序〉에 말하기를, "사師의 속성俗姓은 최崔씨요,

그 조상은 한漢나라 사람이다. 수隋나라 군사가 요遼 땅을 정벌할 때 여맥驪貊에서 몰락하며 전주全州 금마金馬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 지금 완산完山 최崔씨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것이다. 혹은 말하기를, "진감眞鑒은 치원致遠과 같은 성이다"라고 한다.

세속에서 말하기를, "검단선사黔丹禪師가 곧 진감眞鑒이다"라고 했다. 최치원崔致遠은 그 비의 서문을 지어 말하기를, "선사禪師는 그 모습이 거무스름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를 흑두타黑頭陀라고 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나는 이 같은 말을 여러 늙은 중에게서 들었다.

고려의 중 굉연宏演이 《도선전道詵傳》을 지었는데 거기에 말하기를, "처음에 도선은 당나라에 들어가서 일행에게 배웠다. 일행이 삼한三韓의 산수도山水圖를 보고 말하기를, 사람에게 병이 있으면 혈맥을 찾아서 혹은 침을 놓고 혹은 뜸질을 하면 병이 낫는다. 산천山川의 병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다. 혹은 절을 세우고 부처를 세우며, 탑을 세우는 것은 마치 사람에게 침을 놓는 것과 같다. 이것을 이름하여 패보稗補라고 한다"라고 했다.
뒤에 도선道詵은 패보稗補로 500곳 사찰을 세웠다고 한다. 지금 돌부처나 절이 곳곳에 있는 것은 대개 그때에 세운 것이다.

근세의 중 휴정休靜은 글과 시詩를 잘해서 총림叢林(승려들이 모여 있는 곳)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가 금강산金剛山에 유람할 때 지은 시에 말하기를, "달에 춤추는 파리한 신선은 천 길 되는 전나무요, 숲을 격한 맑은 비파는 한 소리 여울일세〔舞月臞仙千丈檜 隔林淸瑟一聲灘〕"라고 했다.
기축역옥己丑逆獄에 그는 이름난 중으로서 잡혔는데, 선왕先王께서는 이를 특별히 석방하고 임금께서 지은 시詩와 옷을 하사해서 산으로 돌려보냈다. 임진왜란壬辰倭亂에는 임금에게 불려서 임금 계신 곳에 이르매 도총섭都摠攝이란 벼

슬을 주어 중의 무리들을 통솔하게 했으니, 그는 힘을 다하여 적을 토벌했다. 그의 상족上足[42]으로 유정惟政 · 의엄義嚴이 있는데, 그들도 역시 총섭摠攝이 되어 모두 공을 세워 종2품의 벼슬을 제수받았다.

중 유정惟政은 호를 송운松雲이라고 했다. 임진왜란 후에 의승義僧의 장수가 되어 영남嶺南에 진을 쳤는데 왜장倭將 청정淸正(가토 기요마사)이 그를 만나보기를 요구했다. 송운이 왜병의 영채에 들어가자 적병은 수리數里 길을 벌여 서서 창과 칼이 묶은 듯이 서 있었다. 그러나 송운은 두려워하는 빛 없이 청정을 만나보고 조용하게 이야기하고 웃는다. 청정이 송운을 보고 말하기를, "귀국에는 무슨 보물이 있는가" 하고 물었다. 송운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에는 다른 보배는 없고, 오직 네 머리를 보배로 안다"라고 했다. 청정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송운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네 머리를 금 천근과 읍邑 만 호를 주고 산다. 그러니 보배가 아니고 무엇이랴"라고 했다. 청정이 크게 웃었다고 한다.
혹은 말하기를, "이때 청정의 군사가 몹시 성하게 호위하고 있으므로 송운은 겨우 한 번 만나보고 물러왔다. 그러니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의심컨대 이것은 과장해서 전해진 말일 것이다"라고 했다. 그 후 10년에 송운은 화의和議를 통하여 또 일본에 들어갔었다. 이에 왜인들도 후하게 대접해 보냈다고 한다.

승평昇平의 중 옥형玉泂이란 자는 일찍이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을 따라 수군水軍에 편입되어 있어 공을 세웠다. 통제사가 죽자 계속하여 충민사忠愍祠에 있은 지 수십 년에 자기 스스로 제물을 차려 제사 지냈다. 지금 그의 나이 80여 세이다.

42 제자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 족足은 제자를 스승의 발에 비유한 말. 고족高足 또는 고족제자高足弟子라고 한다.

또 말하기를, “바다 위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통제사가 반드시 먼저 그의 꿈에 뵈어서 알려주어 틀림이 없었다”라고 한다. 이것은 아마 그 영혼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 조각 나라를 위하는 마음만은 육체가 죽었어도 죽지 않고 있는 것일 것이다.

문정왕후文定王后는 자못 불교佛敎를 숭상했다. 그때 중 보우普雨란 자는 글을 잘하여 불경을 터득했다. 궁중에 넓게 도장道場을 만들어 놓아 그 비용이 여러 만 냥으로 계산되었다. 문정文定이 승하하자 대간臺諫과 대학생大學生들이 번갈아 글을 올려 보우를 죽일 것을 청했다. 이에 명하여 제주濟州로 귀양 보냈다가 죽였다. 이보다 앞서 보우의 말을 들어서 양종兩宗의 선과禪科를 설치했었더니, 이때에 이르러 이를 모두 폐지했다.

송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세상인심의 염량炎凉(인정의 후함과 박함)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 심하다” 했다. 지금 세속에서 “중이 형세를 관망하고 이름을 좇는 것이 가장 심하다”라고 한다. 송나라 때에 있어서도 이미 이와 같았다. 번천樊川의 시詩에 이르기를, “그대의 성명 도무지 모르지만, 비로소 선문禪門에 기미氣味가 긴 것 알겠네〔休公都不知名姓 始覺禪門氣味長〕”라고 한 것은 크게 잘못한 말이다.

중국 중들도 자기 몸을 제대로 가진 자가 또한 드물다. 내가 중국 도성에 갔을 때 원통사圓通寺에서 그곳 중을 보니 모두 아내와 자식을 길러서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 없었다. 최간이崔簡易가 원통사圓通寺에서 지은 시詩에, “재실 부엌 부녀들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조그만 방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과일과 단

것 다투네. 장로의 공부 어찌 적다 하랴. 구담瞿曇[43]을 배우지 않고 구담 낳기를 배우네(齋庖婦女調羹美 丈室嬰兒鬪果甘 長老工夫何可小 瞿曇不學學生曇)"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우리나라 평안도 중도 역시 아내와 자식을 기르니 대체로 중국 중과 같다.

병신년丙申年에 왜국을 봉하러 가는 중국 사신 이종성李宗誠 · 양방형楊方亨이 가야사伽倻寺에 이르러 부처에 자못 공손하게 절했다. 반당伴倘[44]이 종사관從事官 이광윤李光胤에게 말하기를, "왜 혼자 절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니, 광윤光胤이 여기에 대답해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공자孔子에게 절할 줄만 알고, 부처에게 절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 대개 중국 사람들은 대체로 소상塑像(진흙으로 만든 우상)을 보면 반드시 절을 한다. 그러나 반드시 부처만을 숭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불서佛書에 보면, 입으로는 능히 도道를 말하면서도 실지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를 하마선蝦蟆禪(두꺼비과에 속하는 개구리 비슷한 동물)이라고 한다. 혀로 불법佛法을 말하지 않는 자를 아양승啞羊僧이라고 한다. 중도 피하고 속인俗人도 피하는 자를 조서승鳥鼠僧이라 하고, 겉모양은 중이면서 마음은 속인인 자를 독거사禿居士라고 한다. 조서鳥鼠는 곧 박쥐를 말하는 것이니, 조서승鳥鼠僧이란, 마치 속담에 박쥐구실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43 범어梵語로서 지최승地最勝이라고도 번역함. 사라드바트라고도 하며, 옛적 선인仙人의 이름으로 석가족釋迦族의 조상. 교태마喬答摩 선인仙人의 후예. 곧 석가釋迦 종족의 성姓. 여기에서는 석가모니를 가리키는 말.

44 각 관청에서 부리던 사환. 여기에서는 중국에서 오는 사신이 자비自費로 데리고 가던 종자從者.


권19

29. 궁실부宮室部

29-1 궁전宮殿

《사기史記》에 말하기를, “걸桀이 기와집을 지었다”라고 했다. 《박물지》에도 역시 말하기를, “걸이 기와집을 지었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본다면 하夏나라 걸 이전의 궁실宮室은 모두 띠로 해 이었던 것이다. 오직 요堯는 띠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하였을 뿐이다.

옥당玉堂은 전한前漢 때 대궐의 이름이었는데 뒤에 와서는 한원翰苑을 옥당이라고 불렀다. 신선이 사는 곳도 역시 옥당이라고 한다. 또 당시唐詩에, “백옥당白玉堂 앞 한 나무 매화(白玉堂前一樹梅)”라고 했다. 이것은 고악부古樂府에서 “백옥으로 그대의 마루를 한다”라고 한 것과 같은 뜻이다. 그러니 위에 말한 것과는 다르다.

장신궁長信宮은 한漢나라 태후太后가 있던 곳이니, 이곳을 또 장악궁長樂宮이라고도 했다.
상고하건대, 반첩여班婕妤[1]는 푸대접을 받자 장신궁長信宮에서 태후太后를 모실 것을 구했다. 그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원사怨詞를 만들었다. 당시唐詩에 보면, “장신궁 속의 가을밤은 길다(長信宮中秋夜長)”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근세 이달李達의 장신궁사시사長信宮四時詞에 보면, “임금이 일찍 통명전通明殿에 나가니, 궁녀들 재촉하여 상의尙衣(임금의 옷을 맡은 벼슬)를 불러 나아가네(君王早御通明殿 宮女催呼進尙衣)”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1 한대漢代 궁중宮中 여관女官의 이름. 아름답고 예쁜 뜻으로도 씀.

상고하건대 천자를 황달黃闥이라 하고, 삼공三公을 황각黃閣이라 하고, 급사사인給事舍人을 황비黃扉라고 하고, 태수太守를 황당黃堂이라 한다. 또 천자의 금문禁門을 황달黃闥이라 해서 중인中人(환관宦官)이 이것을 맡아 다스렸다. 그런 때문에 이 사람을 황문黃門이라 한다. 천자와 삼공三公과는 예禮의 차서次序가 다음하기 때문에 그 각閣을 황黃이라고 해서 겸손한 뜻을 표하여 황각黃閣이라고 한다. 황당黃堂이란 태수太守가 정사를 보는 당堂이다. 역시 이곳을 자당雌堂자당 · 자각雌閣이라고 불렀다.
《운부韻府》에 말하기를, "오군태수吳郡太守의 집은 여러 번 불에 탔기 때문에 여기에 자황雌黃을 가지고 칠했다. 그래서 자황이란 이름을 지었다"라고 했다. 전유연錢惟演의 시詩에 "자황을 칠한 군각郡閣이 한가롭다[塗雌郡閣閑]"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송나라 자경子京의 시詩에, "다시 들어가 황비黃扉를 돕는다[再入佐黃扉]"라고 했다. 이것은 대개 급사사인給事舍人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백관지百官志》에 말하기를, "한漢나라 승상을 황비黃扉 흑번黑幡이라 한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 정승을 황비라고 부르는 것은 역시 잘못이 아닌 것이다.

옛사람은 전각殿閣의 처마 모퉁이에 풍쟁風箏과 풍금風琴[2]을 달아서 바람에 움직여 소리를 내게 했다. 원미지元微之의 〈연창궁사連昌宮辭〉에 말하기를, "까마귀가 풍쟁을 쪼니 찬 옥의 부서지는 소리가 나네[烏啄風箏碎寒玉]"라고 했다. 또 이의산李義山의 시詩에는, "바람에 소리 나는 것은 한漢나라 대궐 풍쟁일세[風絃漢殿箏]"라고 했다. 중 제기齊己의 풍금시風琴詩에, "하나 하나 궁음宮音과 상음商音 하늘에서 나는데, 난새 울음 봉의 소리 오동나무를 둘렀네[一一宮商在素空鸞鳴鳳語翹梧桐]" 한 것이 이것이다.
상고하건대 《운부군옥韻府群玉》에 말하기를, "풍쟁은 처마에 다는 방울이다"라고 했는데, 아마 잘못일 것이다.

2 전각殿閣의 처마 모서리에 달아두어, 바람에 흔들리면 쇳소리가 나게 하던 것.

세상에 전하기를, 전쟁 전의 종루鐘樓의 기둥은 싸리나무였다고 한다. 대개 싸리나무도 역시 큰 것이 있다. 옛날 주周나라 때에는 다북쑥(蒿) 대로 대궐의 기둥을 만들었으니, 이것을 호궁蒿宮이라고 했다. 이것도 곧 이런 따위이다.

경복궁景福宮의 네 문은 남쪽을 광화光化라 하고, 북을 신무神武라고 한다. 동쪽을 건춘建春이라 하고, 서쪽을 영추迎秋라고 한다. 또 서울의 여덟 문은 정남쪽을 숭례崇禮라 하는데 속칭 남대문南大門이라고 한다. 정북쪽을 숙청肅淸이라 하고, 정동쪽을 흥인興仁이라 하는데, 속칭 동대문東大門이라고 한다. 정서쪽을 돈의敦義라고 하는데 속칭 신문新門이라 부른다. 동북쪽은 혜화惠化라고 하는데 속칭 동서문東小門이라고 한다. 서북쪽은 창의彰義라고 하고, 동남쪽을 광희光熙라고 하는데, 속칭 남소문南小門이라고 한다. 서남쪽은 소덕昭德이라고 하는데 속칭 서소문西小門이라고 한다. 또 수구문水口門이 있는데 이 두 문은 초상났을 때 시체를 내가던 곳이다.

흠경각欽敬閣[3]은 세종조世宗朝 갑인년甲寅年에 처음 세웠고, 경복궁景福宮 강녕전康寧殿 곁에 있었다. 중년中年에 화재를 만나 탔는데 명묘조明廟朝 갑인년에 두 번째로 옛터에 세웠다. 또 병란兵亂을 만나 불탄 것을 광해光海 갑인년甲寅年에 창덕궁昌德宮 서린문瑞麟門 안에 고쳐 세웠다. 그러니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릇 세 차례의 갑인甲寅을 만나서 세운 것이다.
그러나 세종조 때 정한 시의時儀[4]만은 오히려 아무런 탈도 없이 그대로 있으니 역시 이상한 일이다.

3 경복궁景福宮 안에 설치했던 천문각天文閣. 세종世宗 때 이천李蕆 · 장영실蔣英實이 왕의 뜻을 받들어 완성함. 그 안에 옥루기윤玉漏機輪이라는 물시계를 설치했음. 중종中宗 때와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복구했는데 만수전萬壽殿을 짓는 도중에 철거했다.

4 물시계. 곧 당시의 옥루기윤玉漏機輪을 말한다.

흠경각欽敬閣에 있는 잡상雜像들은 매우 교묘하다. 대개 이것은 임금의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서, 농사짓고 누에치는 수고로운 모습이며 이것을 써서 보고 반성하도록 한 것이니, 그 뜻이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말하는 자들은 이것을 장난감에 가깝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의기儀器[5]를 제작한 것이 가장 기이하다.

29-2 사묘祠廟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사방四方 중에서 서쪽을 존중한다. 임금들의 사당에는 태조太祖가 서쪽에 앉아 있다. 이른바 태조太祖가 동쪽으로 향하는 자리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3소昭는 북쪽에 앉아서 남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昭라고 하는 것이니, 소昭는 곧 밝은 것이다. 3목穆[6]은 남쪽에 앉아서 북쪽을 향하기 때문에 이것을 목穆이라고 하는 것이니, 목穆은 어두운 것이다." 대체로 객客과 주인의 자리를 정할 때는 동쪽을 주인의 자리로 하고, 서쪽을 손의 자리로 한다. 손을 높이기 때문이다. 예禮에, "손이 한 등等 아래이면 곧 주인이 오르내리는 계단에 나아간다"라고 했다. 대체로 손은 감히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지 못한다. 그런 때문에 동쪽 뜰로부터 주인을 따라 올라간다. 이때에 주인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제야 손은 서쪽 계단으로부터 올라가는 것이다.

5 물이 가득 차면 엎어지고 알맞으면 반듯하고, 비면 기울어지게 만든 그릇. 누수漏水의 그릇.

6 조상의 신주를 사당에 모시는 차례를 소목昭穆이라고 한다. 왼쪽 줄을 소昭, 오른쪽 줄을 목穆이라 한다. 즉 시조인 1세世를 가운데 모시고, 2 · 4 · 6세를 소昭에, 3 · 5 · 7세를 목穆에 모신다. 《예기禮記》에 보면, 천자天子는 7묘廟로서 3소昭 · 3목穆과 태조太祖의 사당을 합쳐서 일곱이요, 제후諸侯는 5묘廟로서 2소昭·2목穆과 태조의 사당을 합쳐서 다섯이라고도 했다. 그래서 여기에 3소昭 · 3목穆이라 말한 것이다.

중국의 역대歷代 제왕帝王의 사당 신판고문神版告文에는, 태호太昊 복희씨伏羲氏·염제炎帝 신농씨神農氏·황제黃帝 헌원씨軒轅氏·제금천씨帝金天氏·제고양씨帝高陽氏·제고신씨帝高辛氏·제도당씨帝陶唐氏·제유우씨帝有虞氏로 되어 있다.

상고하건대《사기史記》에 보면, "황제黃帝는 유웅씨有熊氏라고 부르며, 성은 공손公孫인데 뒤에 성을 희姬라고 고치고, 이름을 헌원軒轅이라 했다"라고 했다. 《속문헌통고續文獻通考》·《오학편吾學編》 등 책에 말하기를, "황제 헌원씨는 이를 고쳐서 황제 유웅씨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다.

또 요순堯舜이라는 칭호는《사기史記》를 상고해 보면, "요순堯舜은 호이고, 방훈放勳·중화重華가 이름이다"라고 했다. 또《상서尙書》에 보면, "요순은 이름이고, 방훈·중화는 찬사贊辭다"라고 했다. 또《맹자》에선 방훈放勳이라 하고, 그 주註에 말하기를, "방훈은 본래 사신史臣이 요堯를 찬미해서 한 말인데 맹자가 이것을 가지고 요堯의 호로 썼다"라고 했다. 그렇다면《상서》의 기록에 따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상고하건대 홍무년중洪武年中에 역대 제왕帝王의 사당을 세우고 해마다 중춘仲春과 중추仲秋에 삼황三皇·오제五帝·하우夏禹·상탕商湯·주문왕周文王·주무왕周武王·한고조漢高祖 광무光武·당고조唐高祖 태종太宗·송태조宋太祖·원세조元世祖를 제사 지냈다. 뒤에 와서 문왕文王은 비록 주周나라 천명天命의 근본이라 하지만 끝내 신하로서의 절조를 지켰고, 당나라 고조高祖가 천하를 차지한 것은 본래 태종太宗의 힘이었다고 해서 사당에 제사 지내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능陵에서 제사를 지냈다.

가정嘉靖 때에 이르러서는 또 원세조元世祖의 제사를 폐지했다. 여기에 종사從祀하는 명신名臣들은 풍후風后·역목力牧·고도皐陶·기룡夔龍·백이伯夷·백익伯益·이윤伊尹·부열傅說·주공周公·소공召公·태공太公·소목공召穆公·방숙方叔·장량張良·소하蕭何·조참曹參·진평陳平·주발周勃·등우鄧禹·빙

이馮異 · 제갈량諸葛亮 · 방현령房玄齡 · 두여회杜如晦 · 이정李靖 · 곽자의郭子儀 · 이성李晟 · 조빈曹彬 · 반미潘美 · 한세충韓世忠 · 악비岳飛 · 장준張俊 등 모두 32명이다.
나는 생각하기에, 직설稷契을 종사從祀에 넣지 않은 것은 상주商周의 조상인 때문이었을 것이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옛 사당의 제도는 태조太祖 이하를 각각 따로 별실에 모셨으니, 이것은 육농사陸農師의 예상도禮象圖를 상고할 것이다. 서한西漢 때의 고조高祖의 사당과 문제文帝의 사당은 각각 한 곳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동한東漢의 명제明帝에 이르러서는 이것을 겸손해 깎아서 감히 스스로 사당을 세우지 못한다 하고, 광무제光武帝의 사당에 붙였던 것인데, 그 뒤로는 드디어 이것이 예가 되었다. 당나라의 태묘太廟와 여러 신하들의 가묘家廟에 이르러서도 모두 지금의 제도와 같이 하고, 서쪽을 위로 삼았다"라고 했다. 지난해에 종묘宗廟를 중건重建할 때에 선조대왕宣祖大王은 고제古制에 따르려고 했으나, 대신大臣들이 이것을 옳지 않다고 고집해서 드디어 먼저 제도대로 하니, 의논하는 자들이 이를 애석하게 여겼다.

태조太祖의 사당에 배향한 공신功臣으로는 의안군義安君 화和 · 조준趙浚 · 이제李濟 · 남은南誾 · 이지란李之蘭 · 조인옥趙仁沃이다. 공정恭靖의 사당에 배향한 이는 익안대군益安大君 방의芳毅이고, 태종太宗에 배향한 이는 하륜河崙 · 조영무趙英茂 · 정탁鄭擢 · 이천우李天祐 · 이래李來이다. 세종世宗에 배향한 이는 황희黃喜 · 최윤덕崔潤德 · 허조許稠 · 신개申槪 · 이수李隨이다. 문종文宗에 배향한 이는 하연河演이고, 세조世祖에 배향한 이는 한확韓確 · 권람權擥 · 한명회韓明澮이다. 예종睿宗에 배향한 이는 박원형朴元亨이고, 성종成宗에 배향한 이는 신숙주申叔舟 · 정창손鄭昌孫 · 홍응洪應이다. 중종中宗에 배향한 이는 박원종朴元宗 · 성희안成希顔 · 유순정柳順汀 · 정광필鄭光弼이다. 인종仁宗에 배향한 이는

홍언필洪彦弼 · 김안국金安國이요, 명종明宗에 배향한 이는 심연원沈連源 · 이언적李彦迪이요, 선조宣祖에 배향한 이는 이준경李浚慶 · 이황李滉이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말하기를, "인종仁宗 때에 조서를 내려 태자태부太子太傅 이상은 모두 가묘家廟를 세우게 했다. 그런데도 유사有司가 마침내 이것을 제도로 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오직 문로공文潞公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본다면, 옛날의 사대부들은 가묘家廟를 세운 자가 드물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세족世族(대대로 녹을 받는 집)들의 집에서는 한결같이 문공文公의 가묘家廟에 따라서 사당을 세우지 않은 자가 없으니 가상한 일이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어느 왜장 하나가 종묘宗廟에 들어가서 점거했으나 편안하게 있지 못하고 남별궁南別宮으로 옮겼다. 또 건원릉健元陵의 정자각丁字閣과 마전麻田의 숭의전崇義殿, 봉산鳳山의 객사客舍들은 왜적들이 여러 번 불을 놓았으나, 저절로 꺼져서 마침내 아무 탈이 없었다. 역시 신령스럽고 이상한 일이다.

이제夷齊의 사당은 영평부永平府 고죽성孤竹城 안에 있다. 이것은 모두 소상塑像으로 되어 있어 형은 청혜공淸惠公이라 하고, 아우는 인혜공仁惠公이라 했다. 그 모양을 보면 퉁퉁하고 살쪄서 조금도 나물만 먹은 빛이 없고, 단아한 면류관에 엉긴 술을 늘인 모습이 엄연한 왕자王者이다.
또 고죽군孤竹君의 사당은 성 밖에 있다. 두 아들이 만일 알게 되면 반드시 남쪽으로 향하여 왕 노릇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살아 있을 때 이미 나라를 남에게 양보하고 도망했으니 즐겨 이 땅에서 생生을 누리려 했겠는가. 중국에는 이치를 아는 군자들이 많은데도 우물쭈물하고 이것을 고치지 않은 것은 무슨 때문인가.

기자箕子의 묘는 평양부平壤府 성 북쪽에 있다. 지키는 집을 두어 나무꾼과 목동牧童을 금하고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낸다. 기자전箕子殿이라 이름하고, 참봉參奉을 두어, 봄가을로 임금이 향香과 폐백을 내리며 관찰사觀察使를 시켜 제사를 지내게 한다.
근세에 와서 비로소 숭인전崇仁殿을 두고 선우鮮于씨 성姓을 가진 사람으로 전감殿監을 삼아서 그 제사를 주장하게 한다. 이것은 한결같이 숭의전崇義殿의 제도에 의하게 하고, 또 비석을 세워서 이를 기념하고 있다.

서울 동쪽과 남쪽에 있는 두 관왕묘關王廟(관우關羽를 모신 사당)는 왜병을 칠 때 중국 장수가 세운 것이다. 중국에는 이 관왕묘가 없는 곳이 없다. 세속에 전하기를, 고황제高皇帝 때에 관왕關王이 현성顯聖(현령顯靈, 즉 신령이 나타남)해서 가만히 도와준 공이 있는 때문에 온 나라 안이 모두 이를 제사 지낸다고 한다.

형군문邢軍門의 생사生祠[7]는 태평관太平館 뒤에 있다. 여기에는 '재조번방再造藩邦'이라는 편액扁額이 있으니, 이것은 곧 선왕先王이 손수 쓴 글씨다.
양경리楊經理의 공덕비功德碑는 모화관慕華館 서쪽에 있다. 민충단愍忠壇은 홍제원弘濟院 남쪽에 있으니, 이것은 중국 조정에서 동쪽을 정벌하다가 전쟁에 죽은 장사將士들에게 제사를 내리는 곳이다.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생사生祠라는 것이 없었다. 이완평李完平 원익元翼이 관서關西의 방백方伯이 되었을 때에 어진 정사를 베풀었다. 그래서 평양 사람들이 생사生祠를 세워 공을 제사 지내니, 공이 이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 이것을 헐게 했다. 공이 진실로 이름을 좋아하지 않은 것이 이와 같았다.

7 산 사람을 제사 지내기 위하여 세운 사당.

29-3 학교學校

상고하건대, 노魯나라 애공哀公 17년에 공자孔子의 사당을 세웠다. 그리고 각 고을에 사당이 있기는 당나라 태종太宗 때부터 시작되었다. 한漢나라 고조高祖는 태뢰太牢로써 공자孔子를 제사 지냈다. 그러나 봄 · 가을의 석전釋奠은 북제北齊에서 시작되었다. 전대前代에서는 단지 공자를 가리켜 니부尼父라고 하던 것을, 그에게 임금의 벼슬을 준 것은 당나라 현종玄宗 때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상고하건대 삼대三代 이상에는 제사 지내는데 모두 신주神主가 있었다. 그리고 소상塑像을 만든 것은 불교가 중국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되었다. 옛날 문묘文廟의 제도로 중국에서는 소상을 썼고, 우리나라에서는 위판位版을 썼다. 오직 개성開城과 평양平壤의 두 고을에서만은 소상을 봉안했으니 이것은 역시 원元나라 때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다.
가정嘉靖 병술년丙戌年에 천하에 조서를 내려 공자와 또 거기에 배향한 여러 현인賢人들의 상像을 헐어버리고 밤나무로 위판을 만들게 했다. 또 이때 말하기를, “공자는 대성인大聖人이다. 그러니 그가 벼슬이 없는데 왕호王號를 가지고 그를 높인다면 그는 반드시 제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고 드디어 대성문선왕大聖文宣王의 호를 없애고 위판에 “지성선사공자지위至聖先師孔子之位”라고 썼다. 또 안자顔子 · 증자曾子 이하도 모두 작호爵號를 없애고 “북성안자復聖顔子” · “종성증자宗聖曾子” · “술성자사述聖子思” · “아성맹자亞聖孟子”라고 하고, 민손閔損 이하를 선현先賢, 좌구명左丘明 이하를 선유先儒라고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개성開城 · 평양平壤에 평시에 있던 상像도 역시 조정에서 중국의 예에 의해 땅에 묻고, 지금은 다시없다.

중국 가정년간嘉靖年間에 공자孔子의 위판位版을 고쳐 썼다. 이때 우리나라 조

정의 의논도 역시 중국 제도를 따르려고 하는 자가 있었다. 이에 퇴계 선생이 말하기를, “성인聖人의 덕은 비록 봉증封贈을 가지고 표하지 않아도 더하거나 강해지는 일이 없다. 그러나 이 호를 가지고 그를 존봉尊奉해 온 것이 이제 세대世代가 이미 오래되어 정자程子나 주자朱子와 같은 대유大儒도 역시 여기에 다른 뜻이 없었다. 그러던 것을 하루아침에 이것을 지워버린다면 실로 미안한 일이다. 그러니 지금 이 일을 어찌 경솔하게 의논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그렇다면 본조本朝에서 예전대로 두고 고치지 않은 것은 역시 의견이 있어서 한 일이다.

퇴계 선생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문묘文廟에 배향하는 법은 온당치 못한 것이 많다. 최고운崔孤雲(최치원) 같은 이는 한낱 문장만 숭상했을 뿐으로 부처에게 아첨한 일이 더 심했다. 그의 문집을 보면 불소佛疏 같은 것이 있어, 이는 일찍이 깊이 미워하고 통렬히 배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그를 문묘에 함께 배향하고 있으니 어찌 성인聖人을 몹시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나는 상고하건대, 고려 현종顯宗 때, 치원致遠이 일찍이 태조太祖에게 글을 보냈는데, 거기에 계림鷄林의 황엽黃葉과 곡령鵠嶺의 청송靑松이란 말이 있다. 이것은 조상의 사업을 은근히 찬미한 것이니 이것을 잊을 수 없다고 해서 특별히 명령하여 선성先聖의 묘정廟庭에 종사從祀하게 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히 한때에 한 일일 뿐인데 이것을 그대로 고치지 않고 있다. 뒤에 의논하는 자들은 퇴계退溪의 이 말을 가지고 절충해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선유先儒들을 문묘에 종사從祀한 사람은 최문창崔文昌(최치원) · 설홍유薛弘儒(설총) · 안문성安文成(안유) · 정포은鄭圃隱(정몽주) · 김한훤金寒暄(김굉필) · 정일두鄭一蠹(정여창) · 조정암趙靜菴(조광조) · 이회재李晦齋(이언적) · 이퇴계李

退溪(이황)의 아홉 사람이다. 이 중에서 조정암 이외에는 모두 영남嶺南 사람이니 가위 성盛하다 하겠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영남은 인재의 창고이다”라고 했으니, 어찌 이 말을 믿지 않겠는가.

가정嘉靖 9년에 따로 계성묘啓聖廟[8]를 세워서 숙량흘叔梁紇을 계성공啓聖公이라 일컫고, 안무요顔無繇 · 증점曾點 · 공리孔鯉 · 맹손씨孟孫氏를 선현先賢이라 해서 그 좌우에 배향했다. 또 정향程珦 · 주송朱松 · 채원정蔡元定을 선유先儒라고 해서 양무兩廡(문묘文廟 안의 동무東廡와 서무西廡)에 종사從祀케 했다. 석전釋奠 날 자시子時에 소뢰少牢[9]를 베풀어 여기에 먼저 제사 지내는 것은 의신議臣들의 말을 따른 것이다.

선왕조先王朝 때 예관禮官들이 조정에 아뢰어서 중국의 예에 의하여 따로 계성묘啓聖廟를 세우자고 하다가 일을 이루지 못했으니, 의논하는 자들이 애석히 여겼다.

우리나라에는 옛날에는 서원書院이 없었다. 가정년중嘉靖年中에 주세붕周世鵬이 풍기군수豊基郡守가 되었다. 이때 그는 백운동白雲洞에 있는 안유安裕의 옛집터에 서원書院을 세워, 선비들이 공부하고 수련하는 곳으로 삼았다. 그리고 사당을 세워 유裕를 제사 지냈더니 나라에서 소수紹修라는 호를 하사했다. 이 뒤로부터 다투어가면서 서로 본받아서 고을마다 서원이 없는 곳이 없다. 이것은 실로 어진 이를 존경하고 착한 일을 좋아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그 뜻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그 폐단도 역시 적지 않다.

8 공자孔子 · 안자顔子 · 자사子思 · 맹자孟子의 아버지를 제사하는 사당.

9 양과 돼지를 잡아 베푸는 향응饗應. 여기서는 소뢰少牢를 희생으로 바치고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한 것.

29-4 사찰寺刹

《두양편杜楊編》에 말하기를, "양梁나라 무제武帝 때에 절을 짓고 소자운蕭子雲이 비백체飛帛體[10]로 크게 글씨를 썼는데, 그때에 쓴 소자蕭字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라고 했다.
또 《청파잡지淸波雜志》에 말하기를, "녹원원鹿院苑을 소제사蕭帝寺라고 이름했으니, 지금에 소사蕭寺라고 부르는 것은 대체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했다.

해인사海印寺는 신라 애장왕哀莊王 때에 세운 것이다.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의 판각板刻이 여기에 있다. 세속에서 말하기를, "이 대장경大藏經 판목板木에서 땀이 나면 변방에 일이 있다"라고 했다. 임진년壬辰年 이후에 왜적이 영남嶺南에 주둔하여 한 곳도 약탈과 병화를 입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런데도 왜병이 해인사海印寺에 이르기만 하면 곧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져서 적들이 마침내 감히 범하지 못했다. 3가지 재앙이 여기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말도 역시 있을 법한 말이다.

의흥義興에 있는 인각사麟角寺 비석은 곧 왕희지王羲之가 쓴 것이고, 영천榮川의 백천사白川寺 비석은 김생金生이 쓴 것이다. 근년에 중국 사신 양梁과 웅熊은 모두 이것을 종이에 찍어 가지고 갔다. 중국 사람들의 넓게 들어서 알고 옛것을 좋아하는 것이 이와 같다. 여기에 왕희지의 글씨라고 한 것은 대체로 그의 글씨를 모아서 비문을 만든 것이다.

석왕사釋王寺는 안변安邊 검봉산劍峰山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중 무학無學이

10 서체書體의 한 가지. 후한後漢 채옹蔡邕의 서법書法.

이 산 토굴 속에 살고 있었다 한다. 우리 태조太祖가 잠저潛邸[11]에 있을 때에 그를 찾아보고 물었다. “내가 꿈에 허물어진 집 속에 들어가서 서까래 3개를 지고 나왔으니 이게 무슨 징조인가.” 무학이 태조에게 하례하고 말하기를, “서까래 3개를 진 것은 바로 왕王 자입니다”라고 했다. 태조는 또 물었다. “꿈에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깨졌으니 이것은 무슨 징조인가.” 무학이 곧 대답하기를, “꽃이 떨어지면 마침내 열매를 맺을 것이요, 거울이 깨지니 어찌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태조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그곳에 절을 짓고 이것을 석왕釋王이라고 이름 지었다. 여기에는 옛날 태조의 친필이 있었으나 병화에 타버리고 다만 각판刻板이 있을 뿐이다.

중 휴정休靜이 〈산수기山水記〉를 지었는데, 그 글에 이 일이 모두 실려 있다. 이 절에서는 좋은 배가 나서 매년 임금에게 바친다. 또 이화당梨花堂이란 경치 좋은 곳이 있고, 물레방아가 30여 곳에 있다.

내가 시를 지어, “샘물이 물레방아를 찧으니 우레 같은 천 절굿공이요, 달이 배나무 꽃에 비치니 눈이 한 뜰에 가득한 것 같네〔泉舂水碓雷千杵 月照梨花雪一庭〕”라고 했다. 이것은 곧 그곳의 실지 경치를 그린 것이다.

유儒들이 절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던 일이다. 전조前朝 때 최충崔冲은 여름마다 학도들을 데리고 승방을 빌어서 공부를 했다. 그러나 아조我朝의 법은 유생儒生이 절에 올라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근세에 와서 연달아 역변逆變이 있으며, 대관臺官들이 이 금법禁法을 다시 분명히 할 것을 청하니, 사람들도 또한 두려워하고 꺼려서 이로부터는 불사佛舍와 승방僧房에 선비의 노는 자취가 아주 없어졌다.

11 천자天子가 아직 즉위하지 아니한 때, 또 그 집.

29-5 성곽城郭

《승람勝覽》에 말하기를, "개성부開城府의 나성羅城(성의 외곽外郭, 외성外城)은 흙으로 쌓았는데, 둘레가 2만 9,700보이고, 나각羅閣은 1만 3,000칸이다. 숭인崇仁·안정安定 등 22개 문이 있다. 지금의 한양성漢陽城은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9,975보요, 높이는 40척 2촌이다. 개성開城에 비하면 겨우 3분의 1이 되는 셈이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우리 태조太祖 5년에 조준趙浚에게 명해서 도성都城을 감독하여 쌓게 했는데, 정월에 역사役事를 시작하여 서북쪽 안주安州 이남에 사는 백성 11만 9,000명을 동원해서 일하게 했다. 2월 그믐에는 군대를 내었고, 8월에 이르러서는 강원江原·경상慶尙·전라全羅 세 도道의 백성 인부 7만 9,000명을 뽑아내어 9월에 가서 역사를 마쳤다 한다. 여기에서 선왕先王들이 농사철을 빼앗지 않고 또 백성들의 힘을 소중히 여긴 지극한 뜻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비록 사소한 성을 쌓는 역사라 할지라도 반드시 날짜를 연장하고 재물만 많이 허비할 뿐, 성공하는 일이 적으니 탄식할 일이다.

서울은 모두 5부部 49방坊으로 나뉘었다. 중부中部에서 맡아 다스리는 곳이 8방이니, 징청澄淸·서린瑞麟·수진壽進·견평堅平·관인寬仁·경행慶幸·정선貞善·장통長通이다. 동부東部는 12방이니, 숭신崇信·연화蓮花·서운瑞雲·덕성德成·숭교崇敎·연희燕喜·관덕觀德·천달泉達·흥성興盛·창선彰善·달덕達德·인창仁昌이다. 남부南部는 11방이니, 광통廣通·호현好賢·명례明禮·태평太平·훈도薰陶·성명誠明·약선樂善·정심貞心·명철明哲·성신誠身·예성禮成이다. 서부西部는 8방이니, 인달仁達·적선積善·여경餘慶·황화皇華·양생養生·신화神化·반송盤松·반석盤石이다. 북부北部는 10방坊이니, 광화廣化·양덕陽德·가회嘉會·안국安國·관광觀光·진장鎭長·명통明通·준수俊秀·순화順化·의통義通이다.

이것은 모두 우리나라 초년에 정도전鄭道傳이 정한 것이라고 한다.

29-6 능묘陵墓

임방任昉의 《술이기述異記》에 말하기를, “지금 남쪽 바다에 반고씨盤古氏의 묘가 있어 300여 리나 된다. 세속에서 말하기를, 이것은 후세 사람들이 반고의 영혼을 추후追後하여 장사 지낸 것이다”라고 했다.
계림桂林에 또 반고씨의 사당이 있고, 또 남쪽 바다 가운데에 반고씨의 나라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반고盤古로 성을 삼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은 허탄한 것 같다.

옛날에는 묘제墓祭를 지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오래이다. 그런데 공자孔子를 사상泗上에 장사 지내고 자공子貢은 6년 동안 여묘廬墓(상제가 무덤 근처에 거처하는 오두막집)에 있었다. 안연顔淵이 자로子路에게 말하기를, “그 나라를 떠나갈 때는 묘에 가서 곡哭하고 갈 것이고, 그 나라에 돌아와서는 묘에 제사 지낼 것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옛날 사람도 일찍이 묘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한관의漢官儀》에 말하기를, “옛날에는 묘墓에 제사 지내지 않았다. 시황始皇은 침릉전寢陵殿을 묘墓 옆에 지었는데, 그 법은 한漢나라에서도 고치지 않았다. 기거起居하는 것과 의복 입는 것을 산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기고 네 때에 밥을 올렸다”라고 했다.
이것이 후세에 와서 능침陵寢을 숭상하여 받드는 시초가 되었다.

《좌전左傳》의 효릉崤陵과 《한서漢書》의 오릉五陵은 모두 제왕帝王의 묘를 가리켜

한 말들이다. 《운부韻府》에 말하기를, “동중서董仲舒의 묘문墓門을 지날 때면 사람들은 반드시 말에서 내렸기 때문에 하마릉下馬陵이라고 불렀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본다면 신하들의 묘도 역시 능陵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동파東坡의 시詩에, “말에서 내려 동상董相의 묘를 찾네〔下馬來尋董相墳〕”라고 했으니 분墳 자를 쓰는 것이 옳다. 또 낙천樂天의 시에는, “집이 하마릉蝦蟆陵 밑에 있네〔家在蝦蟆陵下住〕”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소설》에, “하마下馬라고 한 것이 잘못 전하여 하마蝦蟆가 된 것이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공자孔子의 무덤에는 가시나무나 자인초刺人草가 나지 않는다. 이윤伊尹의 묘墓 곁에는 가시가 났는데 모두 곧기가 화살 같았다. 동평東平의 묘에 심은 나무는 모두 서쪽으로 홀렸고, 악비岳飛의 묘에 있는 나무는 모두 남쪽으로 가지가 뻗었으니 이상한 일들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현릉顯陵에 부장祔葬할 때 두 능 사이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있어 하늘을 가렸던 것이 장사를 지내고 나자 며칠 되지 않아 이 나무들이 모두 말라 죽어서 서로 바라다보는데 가리는 것이 없었다 한다. 희릉禧陵과 효릉孝陵의 두 능 사이에는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은 저절로 이루어졌으며, 일찍이 풀이 나본 일이 없었다. 또 효릉孝陵의 능 위에서 정자각丁字閣에 이르는 사이에는 한 줄기의 길이 이루어져서 항상 밟고 다닌 길과 같았다 하니 이것은 더욱 이상한 일이다.

상고하건대 진한秦漢 이래로 제왕帝王의 능 앞에는 석린石麟 · 석상石象 · 벽사석마辟邪石馬 따위가 있다. 또 신하들의 묘 앞에는 석호石虎 · 석양石羊 · 석인石人 · 석주石柱 따위가 있다. 두시杜詩에 말하기를, “뜬세상에 석양石羊은 새롭다〔浮世石羊新〕”라고 했고, 조자앙趙子昻의 시詩에는, “가을날은 처량한데 석수石獸가 위태로워〔秋日荒涼石獸危〕”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임진년壬辰年 뒤에 왜적이 김해金海의 수로왕릉首露王陵을 팠다. 광壙 속이 무척 넓고 두골頭骨의 크기가 동銅으로 만든 동이만 했다. 손발이나 사지의 뼈도 모두 매우 컸다. 널 옆에 두 여자가 있는데 얼굴이 산 사람과 같고, 나이는 20쯤 되었다. 이것을 광 밖에 내다놓았더니 금시에 사라져 없어졌다고 한다. 아마 왕王에게 순장殉葬[12]된 자들일 것이다.

《황명통기皇明通紀》에 말하기를, "태조太祖 이후로 모두 비빈妃嬪을 순장殉葬시켰다. 영종英宗에 이르러 유조遺詔로써 비로소 이 법을 고쳤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중국의 능묘陵墓는 모두 천수산天壽山에 장사 지냈다. 우리나라 고려 때의 모든 왕릉王陵도 역시 한 곳에 모아서 썼다. 그런 때문에 이를 이름하여 능동陵洞이라고 했으니, 그 생각한 바가 원대하다 하겠다.

중종대왕中宗大王은 처음에 고양高陽에 장사 지내서 희릉禧陵과 같은 무덤이었다. 임술년壬戌年에 윤원형尹元衡이 힘써 문정왕후文定王后를 두둔하여 한강漢江가 낮은 땅으로 옮기니 사람들이 모두 분하게 여겼으나 감히 말을 하지 못했다. 세상에 전하는 말에, 이때 능을 옮기는데 우는 소리가 광중에서 나와서 역사하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지 않은 자가 없다고 한다. 이듬해에 순덕세자順德世子가 죽고, 또 2년 뒤에 문정왕후가 승하하고, 그 뒤 또 2년 만에 명묘明廟도 승하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능을 옮긴 죄라고 했다. 임진년壬辰年에 정릉靖陵이 왜적들에 의해 발굴發堀되었으니 백성들의 원통해 하는 것을 어찌 이루 다 말하랴.

갑자년甲子年에 남사고南師古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명년明年에는 마땅히 태산泰山을 봉封할 것이다"라고 했다.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였더

12 옛날 임금이나 귀족의 장례에 그를 추종하던 사람이나 동물, 또는 사랑해 쓰던 그릇 따위를 죽은 이의 옆에 같이 묻던 일.

니, 다음 해 을축년乙丑年에 문정왕후가 승하하여 태릉泰陵에 장사했다.

《소설》에 말하기를, “이백李白의 묘는 채석강采石江 남쪽 언덕에 있었다. 범전정范傳正이 섬흡관찰사宣歙觀察使가 되었을 때 무덤을 청산靑山으로 옮기니 세상에서 말하기를 ‘이백李白이 달을 잡으려고 강물로 뛰어들었다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했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이백李白의 성품이 호탕한 것과 또 그를 일찍이 강가에 묻었던 일이 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만든 것이라고 한다.
송시宋詩에 말하기를, “청산靑山에 무덤이 있다고 사람들은 잘못 전하네(靑山有冢人謾傳)”라고 한 것은 희롱하는 말일 뿐이다.

기자箕子의 묘는 평양부平壤府 성 밖에 있다. 듣건대 중국 하남河南 땅에도 역시 기자의 묘가 있다고 한다. 어쩌면 이것은 죽은 뒤에 옮겨서 장사 지냈던 것일까. 그렇다면 평양平壤의 기자묘箕子墓는 아마도 기자의 후사後嗣를 묻은 곳일 것이다.

철원鐵原에 옛 무덤이 있다. 세상에 전하는 말에 이것은 목숙정승苜蓿政丞의 묘라고 한다. 그러나 어째서 하는 말인지 모른다. 김확金矱 공은 말하기를, “일찍이 고로故老들에게 들으니 궁예弓裔 때의 재상 단기명段起明이란 자가 궁예의 무도한 것을 보고 병을 칭탁하여 벼슬하지 않고는 스스로 목숙헌苜蓿軒이라고 호를 했는데 이것은 아마 그의 묘일 것이다”라고 했다.

노산魯山의 묘는 영월寧越에 있다. 옛날에 이 고을 군수郡守들은 갑자기 죽는 일이 많았다. 판서判書 박충원朴忠元이 군수郡守가 되었을 때, 정하게 제물을 차려 제문을 지어 가지고 가서 제사 지내어 말하기를, “왕실王室의 큰아들로서, 어려서 임금이 되셨네. 마침 좋지 못한 운수를 만나, 이 궁벽한 고을로 나

오셨네. 한 조각 푸른 산에, 만고의 외로운 혼이 되셨네. 바라건대 여기 내려 오셔서, 이 음식을 흠향하시옵소서〔王室之冑 幼冲之辟 適丁否運遜于僻邑 一片靑山 萬古孤魂 庶幾降臨 式歆苾芬〕"이라고 했다. 이런 뒤로부터는 아무런 일도 없다. 그 후로 사시四時마다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문을 쓴다고 한다.

만포滿浦 건너 나룻가에 큰 무덤이 있는데 이것을 서로 전해 말하기를, 황제皇帝의 묘라고 한다. 그 밑에 큰 못이 있고, 연꽃이 매우 무성하게 핀다. 심언광沈彦光이 만포滿浦로 가는 도중에 이 황제皇帝의 묘를 바라보고 시詩를 지어, "완안의 옛 나라에 거친 성이 있고, 황제皇帝의 옛 무덤에 큰 비석이 섰네〔完顔古國荒城在 皇帝遺墳巨碣存〕"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노량路梁 남쪽에 묘 셋이 나란히 있다. 사람들이 전하기를 육신六臣의 묘라고 한다. 여기에는 모두 표석標石이 있어서 성成씨의 묘墓, 박朴씨의 묘, 유兪씨의 묘라고 했다.
허하곡許荷谷 봉篈이 말하기를, "부인婦人에게 씨氏 자를 쓰는 것인데, 지금 세 무덤이 나란히 벌여 있으니 부인의 묘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또 남자에게는 반드시 벼슬 이름을 쓰는 것인데, 여기에는 다만 씨氏라고만 했다. 이것은 아마 당시에 의사義士들이 세 사람을 여기에 거두어다가 묻고 감히 표 나게 새겨 놓지 못해서 이렇게만 쓴 것인 듯하다. 이것이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유응부兪應孚의 묘임은 의심할 것이 없다"라고 했다.
임진왜변壬辰倭變 후에 사람들이 여기를 찾는 자가 있었는데 돌에 새긴 것은 탈 없이 남아 있으나 글씨 획이 없어져서 거의 알아볼 수가 없다고 하니 애석한 일이다.

30. 복용부服用部

30-1 관건冠巾

지금의 사모紗帽[13]는 본래 당나라 두건頭巾의 제도로서 옛날에는 끈 둘을 아래로 늘였으며 뒤에 대나무를 대고 쇠를 썼다고 한다. 단령團領[14]과 화자靴子(목화木靴)는 호복胡服에서 나왔지만 간편하기 때문에 온 천하가 이것을 숭상한다. 옛날에는 신을 신고 칼을 차고서 대전大殿에 올라갔다는 것이 이것이다. 아아! 지금에 이르러서 삼대三代 때의 의상衣裳의 제도는 거의 다시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왕세정王世貞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화靴란 것이 없었다. 그런 때문에 화靴라는 글자는 경서經書에 나오지 않는다. 조趙나라 무령왕武靈王 때에 이르러 호복胡服을 만들었는데 이履를 바꾸어서 화靴로 만들었다"라고 했다.

구경산丘瓊山이 말하기를, "건책巾幘(머리에 쓰는 수건)이라는 것은 푸주의 천한 자들의 복장으로 친다. 사대부가 이것을 머리에 썼다는 것은 곽임종郭林宗의 절각건折角巾[15]에서 비로소 볼 수가 있다. 이 뒤에 진晉나라 사람에 접라接羅·백갈白葛 등의 두건이 있었다"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상고하건대, 광무光武는 안책岸幘[16]으로 앉아서 맞았다 하니 아마 경산瓊山의 말은 옳지 못한 듯싶다.

13 오사모烏紗帽. 사紗로 만들었는데, 옛날 관복을 입을 때에 쓰던 모자.

14 깃을 둥글게 만든 공복公服. 빛깔에 따라 흑黑·홍紅·백白·자紫 등의 구별이 있다.

15 두건의 뿔을 접은 것. 곽림종郭林宗이 처음 이것을 썼다고 해서 임종건林宗巾이라고도 함.

16 두건을 뒤로 비스듬히 젖혀 쓰고 이마를 드러냄. 이 말은 예법을 간략히 해서 여기에 익숙한 모양으로도 쓰인다.

망건은, 옛날에는 그 제도가 없었고, 명나라 초년에 도사道士들이 쓰던 것이다. 태조太祖가 명하여 이것을 천하에 반포해서 귀하고 천한 사람이 없이 누구나 쓰게 했다. 그리하여 드디어 정해진 제도가 되었다 한다.
내가 중국 도성에 갔을 때 여러 나라 사신들을 보니, 오직 유구琉球 사람만이 건모巾帽를 쓰고 있었다. 그 사신이 우리나라 역관譯官에게 묻기를, "귀국에서는 항상 망건을 쓰고 있는가"라고 했다. 역관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귀한 사람, 천한 사람 할 것 없이 항상 이것을 쓴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듣자 그 사신은 혀를 내밀면서, "그렇소? 우리나라에서는 평상시에는 망건을 쓰지 않는다"라고 했다 한다.
이것으로 본다면 중국 이외에는 오직 우리나라만이 망건을 썼고,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다.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한漢나라 관리들은 검은 빛깔의 옷을 입고, 급사給使나 천한 일을 하는 자들은 흰옷을 입었다"라고 했다. 곡영谷永은 말하기를, "조의皁衣의 아전으로 뽑아 쓴다"라고 하고, 그 주註에 "비록 사시四時의 옷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에 나갈 때에는 모두 조의를 입었다"라고 했다. 또 《양공전兩龔傳》에는 백의白衣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주註해 말하기를, "백의란 급사給仕나 관청에서 심부름하는 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도연명陶淵明의, "흰옷으로 술을 보낸다(白衣送酒)"라는 말이 역시 이것이다.

《일통지一統志》에 말하기를, "조선에서는 절풍건折風巾을 쓰고 소매가 큰 장삼을 입는다"라고 했다. 소위 소매가 큰 장삼이라는 것은 그 제도를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일찍이 《만보전서萬寶全書》를 보니, 우리나라 인물을 그렸는데 모두 소매가 넓고 옷이 크니 반드시 옛날 제도가 그러했던 것일 것이다. 절풍건折風巾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지난해에 우리나라 해남海南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 표류하여 절강浙江에 이르렀다. 중국 예부禮部에서는 이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자문咨文에 말하기를, “머리에 절풍건을 썼다”라고 했다. 이것은 지금의 초립 따위인 듯싶다.
이백李白의 악부樂府 고구려사高句麗詞에 말하기를, “금꽃 같은 절풍모(金花折風帽)”라고 했고, 또 “번득번득 넓은 소매로 춤추네(翩翩舞廣袖)”라고 했으니 곧 이것이다.

《격치총서格致叢書》에 말하기를, “짚 모자는 원래 오랑캐가 쓰던 것이다. 양의 털을 가지고 만든 것을 전모氈帽라고 하는데, 진秦나라와 한漢나라에서 다투어 가면서 이것을 썼다. 부인이 쓰는 것은 챙이 있고 그물을 내려 뜨려 얼굴을 가렸다”라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 풍속에 부인들이 입는 나올羅兀이라는 것이 대개 이것이다.

나제립羅濟笠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그 이름을 가지고 보면 신라 · 백제 때에 나온 것인 듯싶다.
상고하건대 《고려사高麗史》에 보면, 신우辛禑 원년에 비로소 각사各司의 서리胥吏들을 시켜 흰 방립方笠을 쓰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본조本朝에서는 지방의 아전들이 이것을 썼다.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에 오랫동안 이것을 폐지한 채 회복되지 않았었다. 최유원崔有源이 경기감사京畿監司가 되자 먼저 영리營吏들에게 명령하여 전쟁 전과 같이 나제립羅濟笠을 쓰게 하니, 아전들은 이것을 몹시 괴로워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안 되어 도로 폐지되었다.

지금의 귀덮개(耳掩)를 옛날에는 어깨 덮개(披肩)라고 불렀었다. 상고하건대 《정토록征討錄》에 보면, “성묘조成廟朝 때 명하여 어깨 덮개 2,000개를 만들게 해서 이것을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으니 바로 이것이다.
중국에서는 이것을 난자暖子라고 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반드

시 임금의 명령이 있어야 백관들이 이것을 착용할 수 있었다.

30-2 의복衣服

황제黃帝는 문장文章을 만들어서 사람의 귀하고 천한 것을 표했다고 한다. 그 주註에 말하기를, "문장이란 곧 의복의 종류이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주례周禮》〈고공기考工記〉에 말하기를, "푸른빛과 붉은빛을 문文이라 하고, 붉은빛과 흰빛을 장章이라 한다. 흰빛과 검은 빛을 보黼라 하고, 검은 빛과 푸른빛을 불黻이라 하며, 5가지 빛이 구비한 것을 수繡라고 한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문장이란 의복의 종류가 아니고, 즉 의복의 빛깔인 것이다.

《소설》에 말하기를, "수隋나라 때의 내관內官들은 모두 반제半除를 입었으니 이것은 곧 지금의 긴 소매다. 당나라 고조高祖는 그 소매를 작게 해서 그것을 반비半臂라고 했으니, 이것은 곧 지금의 배자背子이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진秦나라 때의 조복朝服에는 배자를 더하고, 소매는 삼衫보다 짧게 하고, 금은빛의 수놓은 비단으로 만들었다. 이 옷은 잔치 자리나 조하朝賀 때에도 모두 입게 했다. 또 송나라 때에는 황후皇后가 입는 옷과 사대부 집 사람들까지도 모두 붉은 비단으로 만든 배자를 입었다고 한다.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마미군馬尾裙이라는 것은 조선에서 시작된 옷인데, 이것이 흘러서 중국 도성으로 들어와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 할 것 없이 이것을 입는 자가 날마다 늘어갔다. 성화년간成化年間에 와서는 조정 관리들도 모두 이것을 입었으나 이 옷이 요망하다 해서 홍치弘治 초년初年에 비로소 법으로 금했다"라고 했다.
이 옷은 곧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준군駿裙으로서, 조종조祖宗朝에서는 다투어

이것을 숭상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없어졌으니 역시 한때의 좋아하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찍이 실록實錄을 보니, 태조조太祖朝 때 상장군上將軍 김인찬金仁贊이 푸른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니 임금이 특별히 명하여 신문해서 가뒀다고 한다. 그 제도를 세운 것이 이같이 엄했다.
근래에 와서는 국가의 금법禁法이 누그러져서 사서인士庶人들도 비단을 입고, 천한 창기들도 비단을 입는다. 그저 제 마음대로 행하고,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으니 역시 세상이 변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정암靜庵 선생이 말하기를, "세종조世宗朝 때는 한때 사대부들의 의복으로는 모두 누른빛을 숭상했다. 그러나 허조許稠는 항상 회색 답호褡𧞤[17]를 입었다"라고 했다. 대개 누른빛은 검소한 것인데 그 위에 회색은 더욱 검소한 것이다. 내가 평시에 관원들의 답호를 보건대 누른빛을 많이 쓰고 있다. 이것은 대체로 조종조祖宗朝의 남은 습관이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아주 없어져버렸으니 역시 세도世道의 변한 것이라 하겠다.

《좌전左傳》에 말하기를, "초자楚子는 건계乾谿에 막차幕次하였는데 눈이 오니, 왕이 피관皮冠 · 진복도秦復陶의 차림을 했다"라고 했다. 그 주註에 보면, "진복도는 진秦나라에서 남긴 비옷이다"라고 했다. 또 《육도六韜》[18]에는 사설등립蓑薜簦笠[19]이라고 했다. 《운부韻府》에 보면 "사설蓑薜이란 풀이름이니 사초莎草(잔디)를 가지고 비옷을 만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니 비옷의 제도는 역시 생긴

17 벼슬아치가 입는 옷의 한 가지. 예복禮服 밑에 입는 조끼형이며 밑이 길다.

18 《육도六韜》 · 《삼략三略》은 병서명兵書名이다. 《육도》는 〈문도文韜〉 · 〈무도武韜〉 · 〈용도龍韜〉 · 〈호도虎韜〉 · 〈표도豹韜〉 · 〈견도犬韜〉 등 6편이고, 《삼략三略》은 상 · 중 · 하 3권이다. 《육도》는 태공망太公望 여상呂尙의 찬撰이다.

19 삿갓. 비 올 때 쓰는 자루가 길고 큰 삿갓.

지가 오래다.

《계림지鷄林志》에 말하기를, "고려 때 승복僧服 마납磨衲이란 것은 선사禪師가 입는 것으로서 매우 깨끗하고 좋다"라고 했다. 마磨는 다듬고 씻는 것을 말한다. 동파東坡의 시에, "운납雲衲을 새로 빨아 입고 산수山水에서 나온다〔雲衲新磨山水出〕"라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납의衲衣 입기를 즐긴다. 이것은 대개 처음에는 중에게서 나온 것이다.

30-3 조장朝章

당나라와 송나라 때에는 공복公服(벼슬아치의 제복制服)을 가지고 조회의 옷으로 삼았다. 상고하건대 복두幞頭[20]는 주周나라 무제武帝 때부터 생겼다. 수건을 가지고 머리를 싸기 때문에 복두라고 한 것이다.
또 송나라 태종太宗은 말하기를, "옥玉은 돌에 지나지 않고 서犀는 뿔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귀한 것은 오직 금金이다"라고 했다. 그런 때문에 금과金銙(금으로 만든 띠)를 만들어 여러 신하들에게 하사하고, 어선화御仙花를 만들어 학사學士에게 하사했다. 이 어선화란 곧 여지금대荔枝金帶[21]를 말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론, 송나라에서는 금을 귀하게 여겼다. 이것은 금金나라 오랑캐가 송나라를 쳐서 이길 징조가 아닐까. 그러나 노두老杜가 장한림張翰林에게 준 시에 말하기를, "안으로는 붉은 금띠를 나누었고, 은혜는 여지와 함께 푸르다〔內分金帶赤 恩與荔枝靑〕"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여지금대는 송나라에서 시작한

20 과거에 급제한 자가 홍패를 받을 때 쓰던 관冠. 또는 두건.

21 띠의 장식을 금색金色에 진홍점眞紅點을 찍은 것이니, 여지荔枝의 피황실홍皮黃實紅과 같다는 뜻에서 그렇게 이름한 것.

것이 아니다.

명나라 고황제高皇帝가 홍무洪武 초년에 배신陪臣[22]들에게 관복冠服을 하사했다. 중국의 신하 9등等에 비해서 2등을 낮추어 모두 7등으로 하였으니, 여기의 1등 벼슬은 즉 중국의 제3등에 맞추어 오량관복五梁冠服을 하사하고, 2등은 중국의 제4등에 맞추어 사량관복四梁冠服을 하사했다. 2등 이하도 이에 맞추어 각각 낮추었다. 그런 때문에 배신은 감히 육량관六梁冠을 쓰지 못했다 한다.

《대명집례大明集禮》에 실려 있기를, "모든 나라 사신들은 조복朝服을 입고 반열班列에 들어간다"라고 했다. 그러나 《대명회전大明會典》에는 말하기를, "외국 사신은 각각 그 옷을 입고 입참入參한다"라고 했다. 그런 때문에 우리나라 사신들은 시복時服으로 거행한 것이 오래다.
근년에 정경세鄭經世가 중국 도성에 갈 때에 《집례集禮》에 있는 글에 의해서 조복朝服을 입는 것이 옳다고 하여 예부禮部에 말했으나, 이를 허락하지 않아서 드디어 임금께 주청奏請한 일이 있었다.

상고하건대 《집례集禮》는 홍무년중洪武年中에 만든 것으로서, 그 뒤에 이것을 참작하여 더하기도 하고 덜기도 해서 정하여 《회전會典》으로 만들어 오늘날 행하는 제도로 삼았다. 그렇다면 《집례》에 의해서 주청한 것은 어려운 일일 듯싶다.

중국은 국기일國忌日에 각 관청에서 일보는 것을 폐하지 않고, 다만 당堂에만 앉지 않는다. 관리들은 무늬 없는 검은 비단으로 만든 단령團領을 입고, 가슴과 등에 붙이는 표장表章만 떼는데 이것을 소복素服이라고 한다.
상고하건대 《가례家禮》 주에, 길관소복吉冠素服이라 했고, 그 주註에 "소복素服

22 제후諸侯의 신하로서 천자에 대하여 자기를 일컫는 말.

이라는 것은 화려한 빛이나 금구슬로 만든 장식을 떼는 것뿐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상고하건대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에 비로소 원元나라 제도를 써서 재상으로부터 하급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머리를 깎고 호복胡服을 입었다. 명나라 홍무洪武 초년에 이르러 비로소 중화中華의 제도를 본받았으니 우리나라가 변한 것은 호원胡元에서부터 따지면 거의 100년이나 된다. 세상에 전하기를, "정포은鄭圃隱이 건의해서 명나라의 제도가 행해진 일이라 하니 아아! 공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들은 오랑캐가 되었을 뻔했구나."

평시에 모든 관청의 공례公禮나, 또는 새로 제수받은 관리들이 숙배肅拜[23]하거나 임금께 뵐 때면 모두 공복公服을 입었다. 그러던 것이 난리를 치른 뒤에는 이것을 폐하고 다시 회복하지 않았다. 오직 새로 과거에 급제하여 응방應榜할 때만 입었으니 어찌 예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랴.

우리나라에서는 양관梁冠 의복을 조복朝服이라고 하고, 검은 단령團領을 시복時服이라 하며, 붉은 단령團領을 상복常服이라 하고, 첩리帖裡를 융복戎服(군복軍服)이라고 한다. 나라의 풍속에 전부터의 관리는 모두 붉은 단령을 입었다. 중국 사람들은 임금과 신하가 똑같은 빛의 의복을 입는 것을 잘못으로 여긴다. 임진왜변의 뒤에는 난리 속이고 창졸간이므로 사대부들은 모두 첩리帖裡를 입었다. 기해년己亥年에 이르러 비로소 중국을 모방해서 검은 단령을 입었다.
신축년辛丑年에 유근柳根이 예조판서禮曹判書가 되어 위에 건의해서 임진왜란 이전과 같이 붉은빛으로 고쳐 입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되었다. 대체로 사람의 마음이란 옛날에 따르기를 즐겨하기 때문이다.

23 서울을 떠나 임지任地로 가는 관리가 임금께 작별을 아뢰던 일.

품대品帶는 고려 때에는 6품 이상은 금으로, 4품 이상은 서犀로, 2품 이상은 옥으로 했다. 그러던 것이 국조國朝에 와서 4품 이상은 은으로, 2품은 금으로, 1품은 서犀로 했다. 중국에서 조사詔使가 올 때면 서대犀帶를 띠었던 사람도 금대金帶를 띤다. 이것은, 대체로 배신陪臣들은 한 등等을 감하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인印을 차기 때문에 수綬(인끈. 인印에 달린 수끈)가 있었으니, 소진蘇秦이 여섯 나라 정승의 인장印章을 모두 찼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기史記》에 말하기를, "인印은 어찌 그리 주렁주렁하고, 그 수綬는 어찌 그리 늘어졌는가"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주의周顗가 말하기를, "말〔斗〕만큼 큰 금인金印을 잡아 팔꿈치에 매달았다"라고 한 것도 이것이다.
상고하건대 《곽광전霍光傳》에 보면, "창읍왕昌邑王을 폐할 때 곽광은 자기 손으로 국새國璽 꾸러미를 빼앗아 태후太后께 바치고 나서 왕을 부축하여 대궐에서 내려가게 했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본다면 비록 천자라 할지라도 역시 새璽를 찾던 것이다.

《수서隋書》〈예의지禮儀志〉에 말하기를, "한漢나라에서는 천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칼을 차지 않은 자가 없다"라고 했다. 그런 때문에 대신을 대접하는 예법에 칼을 차고 신 신고 대궐에 올라가게 하는 일도 있다.
진陳나라 《시흥왕전始興王傳》에 보면, "좌우에서 조복朝服에 찰 목검木劒을 가져다 올렸다"라고 했다. 이것은 곧 가검假劒이다. 선왕조先王朝에서는 임진壬辰 이후에 여러 신하들에게 명해서 융복戎服을 입고 칼을 차게 했으니 대체로 원수를 갚을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한다.

《소설》에 말하기를, "주周나라 이전에도 이미 홀笏[24]이 있었다. 천자는 구슬과

24 천자天子 이하 공경公卿 · 사대부가 조복朝服을 입을 때 띠에 끼고 다니다가 군명君命을 받으면 이곳에 기록하는 나뭇조각.

옥으로 만들고, 제후諸侯는 상아象牙로 만들었다. 대부大夫들은 물고기의 수염으로 만들고, 선비는 대나무로 만들어 가졌다. 임금 앞에서 명령을 받을 때는 이 홀에 기록하기 위함이다. 후세에 와서는 오직 좌석에 들어갈 때만 홀을 잡고, 그 이외에는 다만 수판手板을 잡았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진晉나라 습감치習鑿齒(사람 이름)가 홀로 턱을 괴고 산을 보았다고 했다. 그러니 좌석에 들어가지 않아도 역시 홀을 잡았다. 후주後周의 무제武帝 때에 이르러 비로소 백관들에게 명해서 홀을 잡게 했다. 그러나 한시韓詩에, “가면서 수판을 뽑아 승상에게 준다(行抽手板付丞相)”라고 했다. 이것으로 보면 당나라 때에도 작은 관리들은 수판을 가졌던 것이다.

송나라 장순민張舜民이 말하기를, “당나라 때 홀은 짧고 두꺼워 구부러지지 않았으니, 지금도 가끔 이것이 있다. 그것이 짧고 두껍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을 칠 수도 있었던 것이다”라고 했다.
또 《소설》에 보면, “송나라 철종哲宗은 눈병이 있어서 여러 신하들이 보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임금에게 아뢰는 자들은 홀의 면面을 넓게 만들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홀의 제도는 지금과 옛날이 달랐던 것이다.

중국 내시內侍의 관복冠服은 일반 관리들과 특별히 달랐다. 선왕조先王朝에 승지承旨 신응시辛應時가 경연經筵에서 건의하기를, 내관內官의 복색은 중국에서 쓰는 법에 의하여 고치자고 했다. 이 말이 비록 이행되지는 않았지만 내관들은 분하게 여기고 그를 미워해서 다른 일로 그를 얽어 거의 죄를 입을 뻔했다. 그러니 모든 일을 변혁하기 어렵기가 이와 같다.

30-4 채폐綵幣

《서경》에 '보발치수黼黻絺繡'란 말이 있다. 대체로 순舜 때에 이미 수繡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사시事始》에 "서시西施가 수繡를 만들었다"라고 말한 것은 잘못이다. 또 《습유기拾遺記》에는, "요堯 때 바닷사람이 비단을 짜서 바쳤다. 후대에 이것을 본받아서 오색五色 실을 물들여서 짰다. 혹은 말하기를 촉蜀나라에서 시작했다"라고 했다.

《한서》에 보면, "마후馬后는 여러 왕들에게 백월白越 20단端을 주었다"라고 했으며, 그 주註에 월越은 베라고 했다. 《선문選文》에는 말하기를, "갈월포葛越布는 삭토朔土(북쪽 지방)에서 만든다" 했고, 주註에 갈월은 초포草布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시경》〈갈담葛覃〉편에 말하기를, "치絺를 만들고 낙綌을 만들어 입어 싫어함이 없다(爲絺爲綌 服之無斁)"라고 했다. 《한서》 '전갈筌葛'의 주註에 보면 이것은 지금의 갈포葛布라고 했다. 두시杜詩에는 "가는 갈포, 바람을 머금어 부드럽다(細葛含風軟)"라고 했다. 한문韓文에 말한, "여름에는 갈葛을 입고 겨울에는 갖옷(裘)를 입는다"는 것이 이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산속에 사는 사람들도 역시 갈포로 옷을 해 입는데 매우 정하고 좋다. 또 《주례周禮》의 월석越席의 주註에는 부들자리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소練(칡베, 거친 갈포)는 그 음이 소疎이니 갈포葛布의 일종이다. 후한後漢 때 대량戴良이 그 딸을 시집보내는데 집이 가난해서 갈포 치마에 베 이불이었다고 한 것이나, 이형禰衡이 갈포 두건을 썼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진晉나라 소준蘇峻의 난리에 나라의 창고가 모두 비었고 오직 갈포 수천 필만이 있었다. 왕도王導가 갈포로 관冠을 만들어 쓰자 갈포 값이 졸지에 뛰었다. 이에 이것을 팔아서 쓸 데에 썼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잡서雜書에는 잘못하여 연練이란 글자로 써 있다.

지난해에 고관考官이 "연練을 판다"는 것을 가지고 글 제목을 내서 선비를 시험했다. 그중에 정언눌鄭彦訥이 지은 글이 제일이었다. 그러나 과거를 보는 마당에서는 연練 자가 소練의 잘못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정언눌은 선비들 속에서도 아는 것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도 역시 이것을 알지 못했으니 우스운 일이라 하겠다.

《계림지鷄林志》에 말하기를, "고려 사람은 옷감에 물을 잘 들이는데, 붉은빛과 자줏빛 물을 더욱 잘 들인다"라고 했다. 지금도 자줏빛은 중국보다 더 낫다고 한다. 또 말하기를, "고려의 황칠黃漆(제주도에서 나는 누른 칠)은 섬 위에서 나는데, 6월에 긁어모으는 것을 신라칠新羅漆이라 부른다"라고 했다. 《일통지一統志》에도 역시 조선의 토산土産이라고 실려 있다.

《설부》에 말하기를, "남쪽 바닷속에 화산火山이 있어서 사시절四時節 항상 불타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타지 않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껍질로 베를 짜서 이것을 화완포火浣布[25]라고 한다"고 했다.
《수신기搜神記》에는 말하기를, "곤륜산崑崙山 자리에 화산火山이 있는데, 산 위에 있는 새와 짐승, 그리고 풀과 나무들은 모두 불꽃 속에서 산다. 그 나무껍질과 짐승의 털로 베를 짜는데, 이것을 화완포라고 한다"고 했다. 아직 이 2가지 말은 어느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한다.
요즘 손문욱孫文彧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일본에 왕래한 사람이다. 그는 거짓으로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화완포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대체로 과장해서 한 말이다. 그런데 왜놈들은 이 말을 믿고 글을 보내서 이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조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물건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아아! 저

25 화한포火澣布라고도 함. 석면石綿으로 짠 것으로서 불에 타지 않는 베. 《열자列子》〈탕문湯問〉에 보면, "화완포를 빨려면 반드시 불 속에 넣는다. 베는 불빛이 되고 때는 베 빛으로 변한다. 이것을 불에서 꺼내어 털면 눈〔雪〕처럼 하얗게 된다"라고 했다.

왜놈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침을 흘린 지가 오래구나! 그래서 보물을 가지고 우리를 낚으려 했다. 말을 교묘하게 하는 자는 이같이 미운 것이다.

30-5 기용器用

《회남자》에 말하기를, "호조胡曹는 옷을 만들었고, 해중奚仲은 수레를 만들었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호조胡曹는 황제黃帝의 신하였고, 해중은 하夏나라 때 거정車正(수레 담당 관리)이 되었던 사람이다.
《설부》에는 말하기를, "황제黃帝가 배와 수레를 만들었기 때문에 헌원씨軒轅氏라고 한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해중奚仲이 수레를 만들었다고 한 것은 수레를 쓰는 제도를 넓힌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으니, 이 말이 옳을 것 같다.
또《여씨춘추》에는 말하기를, "우후虞姁가 배를 만들었다" 했고,《회남자》에는 "백여伯余가 처음으로 옷을 만들었다"라고 했다. 우후 · 백여는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고사古史 등의 글에 말하기를, "포희庖羲는 비파를 만들고, 신농神農은 거문고를 만들었다. 여와女媧는 생황笙簧을 만들고, 황제黃帝는 청각淸角[26]을 만들었다. 순舜은 퉁소를 만들고, 염제炎帝 백릉伯陵은 종을 만들었다. 수倕는 북을 만들고, 또 황제黃帝는 활을 만들고, 다섯 성을 쌓았다"라고 했다. 혹은 곤鯀이 성곽城郭을 만들었다고 한다.
《설부》에 말하기를, "황제黃帝는 솥과 시루를 만들고, 신농神農은 도끼를 만들

26 5음音 중의 동東에 해당하는 음. 그러나 여기에서는 황제黃帝가 만든 거문고 같은 악기를 말함.《대성악서大晟樂書》에 보면, "황제가 청각淸角의 거문고를 탔다"라고 했고,《고금소古琴疏》에도, "청각의 거문고를 타서 제帝를 즐겁게 한다"라고 했다.

고 질그릇을 만들었다. 백익伯益은 우물을 만들고, 소강少康은 비와 키를 만들었다. 또 황제黃帝의 신하 옹문雍文은 방아를 만들고, 적기赤冀는 절굿공이를 만들었다. 공수자公輸子는 맷돌을 만들고, 윤수尹壽는 거울을 만들었고, 맹장자孟莊子는 톱과 송곳을 만들었다"라고 했다. 세본世本에는 "휘揮가 활을 만들었고, 이夷는 화살을 만들었다"라고 했다. 혹은 말하기를, "모이牟夷가 화살을 만들었다"라고 했으니, 이들은 모두 황제黃帝의 신하들이다.

《제왕기帝王紀》에 말하기를, "걸桀은 사람을 시켜 수레를 끌게 했으니 이것이 여련輿輦(천자가 타는 수레)의 시초였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한漢나라 음취陰就가 좌우 사람을 시켜서 연輦을 올리게 하니, 정단井丹이 말하기를, "내가 듣기에 걸桀은 사람이 끄는 수레를 탔다고 하니 그것이 바로 이것인가" 하니, 좌중 사람들이 모두 얼굴빛을 변했다. 음취陰就는 마지못하여 사람을 시켜 연輦을 가져가게 했다. 대체로 옛날에는 사람이 멍에 하는 모든 교자를 통틀어 연이라고 했던 것이다.

옛날 사람들도 수레를 탔다. 그런 때문에 《한서》〈진평전陳平傳〉에 보면, "문 밖에 장자長者들의 수레바퀴 자국이 많다"라고 했고, "전분田蚡 · 한안국韓安國이 수레를 같이 타고 나왔고, 진준陳遵은 수레의 굴대 빗장을 우물 속에 던졌다"라고 했다. 《후한서》에는 말하기를, "마후馬后는 귀척貴戚의 자제들을 보고, 수레는 흐르는 물과 같고, 말은 헤엄쳐 오는 용과 같다"라고 했다. 또 "마소유馬少游는 하택차下澤車에 타고 진晉나라 반악潘岳이 실과를 던지니 수레에 찼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보면 한漢나라 · 진晉나라 때도 오히려 그러했으나, 대개 진晉나라 이후로는 다시 볼 수 없다.

모든 기용器用은 이것을 십물什物이라고 한다. 상고하건대 《소설》에 말하기를, "성주成周의 군법軍法은 다섯 사람으로 오伍를 삼고, 25를 십什으로 삼는다"라

고 했다. 이것은 그 그릇을 이바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 한다. 또《사기史記》에 보면, 순舜은 10가지 그릇을 만들었다 하고, 주에, "십什은 수이니 사람의 집에서 항상 쓰는 그릇은 한 가지가 아닌 때문에 십什을 가지고 수를 만들었다"라고 했다. 이것이 십물什物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자韓子는 말하기를, "순舜은 식기食器를 만들고 그 위에 검은 칠을 했다. 우禹는 제기祭器를 만들고 그 겉에 검은 칠을 하고, 그 안에는 붉은 그림을 그렸다"라고 했다. 《사기史記》에는 말하기를, "순舜은 수산壽山에서 대나무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했다. 대개 이때에 비로소 대나무를 써서 그릇을 만든 것인데, 그래도 그릇에 전부 칠을 하지 않았으니 그 소박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중국 수차水車의 제도는 위魏나라 마균馬均이 비로소 만들었는데, 밭에 물을 대기에 가장 편리해서 온 천하가 모두 이것을 쓰게 했다. 지난해에 양만세楊萬世는 일본에 가서 그 제도를 배워가지고 왔는데 몹시 편리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졸렬해서 이것을 즐겨 쓰지 않으니 애석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용무늬를 놓은 발과 자리는 중국에는 없던 것이다. 그런 때문에 중국에 방물方物을 바칠 때에는 예부禮部의 관리들이 이것을 매우 좋아했다. 흰 자리는 중국에도 역시 있는 것이었으나 아주 드물었다. 옛날에 이른바 용수석龍鬚席이란 것이 대체로 이것이다.

《사기史記》에 보면, "진왕秦王은 대아大阿의 칼을 차고 아호阿縞의 옷을 입었다"라고 했다. 이 아阿라는 것은 땅 이름이다. 거북은 채蔡 땅에서 나기 때문에 '채'라고 하고, 종이는 섬剡 땅에서 나기 때문에 '섬'이라 하는 것과 같다. 상고하건대 의방醫方에서 이른바 아교阿膠(동물의 가죽 · 뼈 등을 굳힌 황갈색의 접착제)라고 하는 것도 역시 땅 이름을 가지고 지은 이름이다.

갑검용명匣劍龍鳴이란 말은 글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건만, 어디서 나온 말인지를 모른다. 상고해 보면 《습유기拾遺記》에, “전욱고양씨顓頊高陽氏에게 그림자가 끌리는 칼이 있었다. 어느 방위에 군사가 있으면 그 칼이 날아서 군사 있는 곳을 가리킨다. 그러면 곧 그쪽을 정벌했다. 칼을 쓰지 않는 때는 항상 갑匣 속에서 용과 범의 우는 소리가 났다”라고 했으니,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기자箕子가 짚던 지팡이는 지금 평양부平壤府에 있다. 즉 2,000년이나 된 물건이다. 옛 사람들은 공자孔子가 쓰던 벼루를 제일 오래된 물건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더욱 오래된 것이다.

왕감주가 말하기를, “여상藜牀(명아주의 줄기로 만든 지팡이)의 상牀은 지팡이요, 도생桃笙의 생笙은 대자리다. 하석河錫의 석錫은 포목이요, 조정藻井의 정井은 널빤지이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운부韻府》에 보면, “관녕管寧이 여상藜牀에 앉으니 뚫어지려고 했다” 했으니, 왕감주가 상牀을 지팡이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기》에 보면, 독불현발燭不見跋(촛불이 다 타지 않았음)이라고 했고, 주註에 말하기를, “옛날에는 초가 없고 횃불을 초라고 불렀다고 했다. 또 땅에 있는 것을 요燎라고 하고 이것을 손으로 들면 초라고 했다. 또 뜰에 켜놓은 횃불을 지촉地燭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예기》의 주에, “천자天子가 쓰는 횃불은 100개의 갈대 뿌리에 베를 감고 밀蜜(꿀을 거른 찌끼)을 칠한다”라고 했다. 꿀을 칠한다는 것은 대개 초의 시초이다.

《소설》에 보면, 나전기螺鈿器[27]는 본래 왜국에서 나온 것이다. 그 모양이 100가지나 되어 자못 묘하게 생겼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 나전螺鈿은 빗(梳) 상자를 만들어 중국에 바치는 방물方物로 쓴다. 이것은 중국에 없기 때문이다.

송나라와 원나라 이전에는 다만 둥근 부채가 있을 뿐이었는데, 그중에서 포규선蒲葵扇(부들잎으로 만든 부채)을 제일 아름답다고 했다. 지금 접는 부채의 제도는 처음 왜국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세속에서는 왜선倭扇이라고도 한다.
쓰기가 간편하다고 해서 온 천하에서는 이것을 숭상하여 옛날의 둥근 부채는 거의 없어졌다.

《설문說文》에는, "숟가락은 밥을 먹는 데 쓰는 것이다"라고 했고, 역易에 말하기를, "비창匕鬯[28]을 다치지 말라" 했고, 시詩에는 긴 가시나무 숟가락이 있다"라고 했다. 《사기史記》에는, "천둥이 울려 수저를 잃었다"라고 했고 한문韓文에는, "수저를 버리고 일어선다"라고 했고, 두시杜詩에는, "쌀밥을 맛보니 눈같이 흰 것이 숟가락에 번득이네(嘗稻雪翻匙)"라고 했다. 옛 사람은 밥을 먹는 데 반드시 숟가락으로 먹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 중국 사람들은 젓가락을 쓰고 숟가락은 쓰지 않는다. 이 법이 어느 때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혹은 말하기를, "고황제高皇帝가 명命하여 오랑캐를 멸한 뒤에 비로소 숟가락을 써서 밥을 먹으라고 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또 예禮에 말하기를, "기장밥을 먹는 데는 젓가락을 쓰지 말라"라고 했다. 이것은 생각하건대, 옛날에도 역시 간혹 젓가락을 썼던 것이다.

27 조개껍데기의 진주빛 나는 부분을 여러 가지 형상으로 조각내어 박아 붙여 꾸민 그릇. 나전螺塡.
28 종묘宗廟에서 쓰는 제기祭器. 비匕는 숟가락, 창鬯은 술을 담는 단지. 《역경易經》〈진괘震卦〉에 '불상비창不喪匕鬯'이라고 했다.

섭몽득葉夢得의 《피서록避暑錄》에 말하기를, “화상和尙(중의 존칭)이 소비梳篦(빗, 가르마를 타는 참빗)를 둔다”라고 했다. 이것은 속담으로 반드시 쓸 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상고하건대 소梳(빗)는 나무로 만들었고, 비篦는 대나무로 만들었으니, 소위 참빗이라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이것을 혼동해서 빗이라고 하는데 잘못이다. 빗과 참빗을 통틀어 즐櫛이라고 한다.

《완위여편宛委餘編》에 보면, “혁서씨赫胥氏는 나무로 빗을 만들었고, 순舜은 상아象牙와 대모玳瑁[29]로 빗을 만들었다”라고 하니, 이것이 빗의 시초이다.

정원政院에서는 평상시에 갈호배蝎虎杯를 썼는데 어느 때에 생긴 것인지 모른다. 혹은 말하기를, 갈호는 벌레의 이름으로서 술만 보면 당장 죽는다. 그런 때문에 그 벌레의 모양을 만들어서, 마시는 사람을 경계하는 뜻으로 썼다고 한다.

내가 중국 도성에 갔을 때 옥하관玉河館 담벽 속에서 2가지 물건을 파냈는데, 그 모양이 도마뱀과 비슷했다. 중국 사람에게 물었더니 이것이 곧 갈호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갈蝎은 음이 ‘갈’이니 운서韻書에는 갈蠍로 되어 있다.

한림원翰林院에서는 앵무배鸚鵡杯를 썼으니 이것도 옛날부터 있던 일이나, 무슨 뜻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한림李翰林의 시詩에 말하기를, “노자鸕鶿[30] 술구기에 앵무 술잔으로(鸕鶿酌鸚鵡杯)”라고 한 것이 있다. 이것은 아마 일을 좋아하는 자들이 한림翰林의 시가 있다고 해서 숭상하는 것일 것이다. 상고하건대 앵무는 바닷속에 있는 소라다. 그 모양이 앵무새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이다.

29 거북의 한 가지. 등껍데기가 삼각형이며 빛깔의 변화가 많음. 공예품을 만드는 자료로 쓴다. 대모瑇瑁.

30 물고기를 잡아먹는, 가마우지과에 속하는 새의 이름.

《소설》에 말하기를, “늙은 사람이 안경眼鏡을 쓰고 글씨를 보면 작은 글씨도 크게 보인다”라고 했다. 듣건대 전년에 중국 장수 심유경沈惟敬과 왜국 중 현소玄蘇는 모두 노인들이었다. 그런데도 안경을 쓰고 가느다란 글씨도 잘 읽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보지 못하던 물건이다. 이 안경이란 대개 바닷속 조개의 종류로서 그 껍데기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 한다.
또 상고하건대 오래되어 흐려진 문서라도 수정水精[31]을 가지고 햇빛을 받아 여기에 비치고 보면 알 수 있다고도 한다.

올자兀子란 말은 《근사록近思錄》에 나온다. 곧 지금의 발이 높은 상床이다. 《의학정전醫學正傳》에 말하기를, “상床의 발이 높은 것을 올등兀凳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사기史記》에 말하기를, “몽염蒙恬은 중산中山의 토끼털을 뽑아서 붓을 만들었다”라고 했다. 최표崔豹의 《고금주古今註》에는, “몽염은 붓을 만들었는데 뽕나무로 붓대를 만들고, 사슴의 털로 심을 만들고, 양의 털을 겉에 덮어서 만들었다”라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용편龍鞭으로 붓대를 만든다. 용편은 함경도咸鏡道 바닷속에서 나는데 대개 나무 종류로서 돌과 같다. 빛은 희고 굳고 곧아서 힘줄과 같으니 실로 기이한 물건이다.

《북호록北戶錄》에 보면, “풍호豐狐[32]의 털과 호복虎僕[33]의 털, 그리고 푸른 양의 털이나 쥐털, 사향노루의 털, 고슴도치의 털, 말털, 양의 수염, 뱃속에서 자라

31 달의 별명이지만, 여기에서는 수정水晶의 이칭異稱으로 쓰였다. 수정은 보석의 한 가지로 무색투명無色透明의 석영石英. 수옥水玉.

32 큰 여우. 《장자莊子》 산목山木에 보면, “풍호豐狐와 문표文豹는 산림山林 속에 살고 바위틈에 엎드렸는데 자못 조용한 동물이다”라고 했다.

33 구절호九節狐. 그 털로 붓을 만든다. 《박물지》에 보면, 나무를 타고 다니는 짐승으로, 푸른 무늬가 있어 표범과 같은데, 그 짐승의 이름을 호복虎僕이라고 한다. 그 털로 붓을 만든다”라고 했다.

가지고 나온 어린아이의 털 등은 모두 붓을 만든다. 그러나 모두 토끼털만은 못하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박물지》에 보면, 호복은 "무늬가 표범과 같으며 그 털로 붓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기에 토끼털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낭서狼鼠(족제비)만 못할 것이다. 또 돼지털과 염소털도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대체로 옛날 사람들이 이것을 아직 써보지 않은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황모필黃毛筆은 중국에서 소중히 여겨진다.《일통지一統志》에는 낭미필狼尾筆이라 했고, 소황蘇黃의 시詩에는 성성모필猩猩毛筆이라고 했다. 동월董越의〈조선부朝鮮賦〉자주自註에, "《일통지一統志》에 실려 있는 낭미필狼尾筆은 이리의 꼬리털이 아니고, 누런 쥐털이다"라고 했다. 대체로 이것은 동월이 사신이 되어 우리나라에 왔다가 비로소 안 것이다.
내가 중국 도성에 갔을 때 안남安南(베트남)과 유구琉球(오키나와)의 사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귀국의 붓과 먹은 천하에 제일 좋은 물건이라고 하니 이것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했다.

옛 사람들이 먹을 가리켜 송정松精·송유松腴·송자후松滋侯·흑송사자黑松使者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 연기를 가지고 먹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의방醫方에서는 약으로 쓰는 것을 역시 송묵松墨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름 연기를 가지고 이것을 만드는데, 이것을 유매묵油煤墨이라고 부른다. 동파東坡가 먹을 두고 읊은 시詩에 말하기를, "보배스러운 재료는 악랑樂浪에서 얻어왔네〔珍材取樂浪〕"라고 했다. 대체로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먹을 가지고 보배스럽다고 말한 것이다.

옛날의 글자들은 모두 대쪽에 썼다. 그중에 합사 비단을 쓴 것은 이것을 종이라고 했다. 동한東漢 화제和帝 때 환자宦者 채륜蔡倫이 종이를 만들었는데, 나무

껍질과 삼(麻)대가리, 또는 베 조각이나 고기 그물을 가지고 만들었다. 천하에서는 이것을 모두 채후지蔡侯紙라고 불렀다. 지금은 뽕나무와 닥나무(楮) · 버드나무 · 짚 마디 · 대나무 줄기 · 갈대 자리 · 이끼 등 종이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고, 그 쓸모가 넓다.

상고하건대 소자첨蘇子瞻의 〈시황론始皇論〉에 말하기를, "처음 종이를 만들어 대나무 책과 바꾸었다"라고 했다. 그러니 비단을 가지고 종이라 한 것도 역시 시황始皇 때부터 시작한 것이다.

옛날에는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데 모두 누런 종이를 썼다. 그런 때문에 이것을 황권黃卷이라 한다. 혹은 말하기를, 이것은 누런 물을 들인 종이를 써서 좀(蟫)을 없앤 것이라고 한다.

《송경문필기宋景文筆記》에 말하기를, "자황雌黃은 종이 빛과 서로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써서 잘못된 곳을 지운다. 당송唐宋 이래로 조칙詔勅은 누런 종이에 쓴다. 그런 까닭에 사삿집에서는 이것을 피하고 감히 쓰지 않았다"라고 했다. 지금 중국에서도 역시 누런 종이를 쓰는데 조서詔書 베낀 것을 등황謄黃이라고 한다.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온주溫州의 견지蠲紙는 깨끗하고 희며 단단하고 매끄러워서 고려지高麗紙와 같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고려에서는 만지蠻紙를 바치는데, 책 껍데기를 만드는 데는 친襯으로 많이 썼다"라고 했다. 친襯이란 곧 책을 장정粧幀하는 것으로서, 그 종이 품질이 단단하고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상고하건대 견지蠲紙라는 말은 이것으로 그 부역賦役을 면제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곽소옥전霍小玉傳》에 말하기를, "오사란소단烏絲欄素段 석 자를 이생李生에게

주었다"라고 했다. 또 송시宋詩에는, "정히 붉은 소매를 들고 오사烏絲에 쓴다〔正圍紅袖寫烏絲〕"라고 했다. 또 운서韻書에는, "오사란烏絲闌은 종이 이름이다. 지금 승문원承文院의 사대문서事大文書를 초 잡는 것은 가는 먹으로 줄을 친 인찰印札(실 같은 줄을 친 종이)을 쓰는데, 이것을 오사란지烏絲闌紙라고 한다"고 했으니 바로 이것이다.

우리나라의 경면지鏡面紙·죽엽지竹葉紙는 중국 사람들이 무척 귀하게 여겼다. 내가 경인년庚寅年에 중국 도성에 갔을 때, 예부시랑禮部侍郞 한세능韓世能이 죽엽지 1장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사신이 되어 귀국에 갔을 때 얻은 것이오. 만일 이와 같은 종이를 가지고 왔거든 내가 얻기를 원하오"라고 했다. 그 종이는 품질이 정결하고 조금 푸른빛이 돌아서 죽정지竹精紙와 같으면서도 좀 두껍다. 나는 아직 보지 못하던 종이였다.
상고하건대 《완위여편宛委餘編》에, "지금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고려견지高麗繭紙란 대개 종이 품질이 단단하고 질기기 때문에 이것을 견지繭紙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가례의절家禮儀節》에 말하기를, "옛날에는 지금처럼 향香이 없었다. 한漢나라 이전에는 다만 난지蘭芷(난초와 백지白芷. 향기 나는 풀)와 소발蕭茇(쑥과 필발蓽茇. 향기 나는 풀) 따위를 불살랐는데, 백월百越로부터 중국에 들어와서 처음 생겼다"라고 했다. 또 상고하건대 《능엄경楞嚴經》에 보면, "향香을 깨끗이 태워서 물속에 넣어 불이 보이지 않게 하라" 했다. 지금 풍속에 향을 태워서 불 속에 묻는 것은 대개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속사시續事始》에 말하기를, "은殷·주周 이후로는 얼굴에 연분鉛粉을 칠했으니, 이것을 호분胡粉이라고 한다. 이것은 즉 주紂가 만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을 호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때문일까. 본래 호胡 땅에서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박물지》에 보면, “구수寠薮(또아리)를 동방삭東方朔이 말하기를, ‘살기 위하여 떡을 파는 사람이 띠를 엮어 경經처럼 만들어서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것으로서, 모양이 마치 고리[環]와 같다’라고 했다”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경經은 아마 질絰(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쓰는 수질首絰과 허리에 감는 요질腰絰)인 듯싶다. 지금 우리나라 여자들이 물건을 일 때 쓰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상고하건대 《운부군옥韻府群玉》에 보면 구수寠數라고 했는데, 수數는 본래 수薮이니, 물건을 이는 그릇이다. 조그만 항아리에 물건을 담아 머리에 이는 자는 이 구수를 받친다.

《오월춘추吳越春秋》에 말하기를, “노弩는 궁弓에서 생긴 것이요, 궁弓은 탄彈에서 생긴 것이다.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곧 백모白茅 띠로 몸을 싸서 들 가운데에 버렸다. 효자는 그 부모가 새나 짐승에게 먹히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탄궁彈弓(탄알을 쏘는 화살)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지켰다. 그런 때문에 대나무를 깎아서 나무에 꽂아 흙을 튕겨 새와 짐승을 쫓았다”라고 했다.

30-6 금보金寶

《패사稗史》에 보면, 당나라 고종高宗 때 고려를 이기고 자금대紫金帶를 얻어 갔었다. 후에 고려에서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그 보물을 잃은 뒤부터 바람과 비가 제때를 잃어서 백성들은 모두 떠나가고 군사들은 약해진다”라고 했다. 이에 현종玄宗은 곧 명하여 이것을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자금대라는 것이 무슨 보배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또 당나라 현종 때라면 곧 신라 때요 고려가 아니다.

《소설》에 보면, “동파東坡는 항상 괴상히 여기기를, 지금은 황금黃金이 옛날처럼 많지 못하다고 한다. 이것은 아마, 지금은 황금을 써 없애는 자가 많아서가 아닐까. 그러니 그것의 생산은 적고 값이 비싼 것은 당연하다”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기에, 천지 사이의 생산물에는 저마다 그 수효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옛날로부터 사람들이 이것을 써버려서 거의 하나도 없이 만들고 있으니 어찌 없어지지 않을 이치가 있겠는가. 다만 금金이라는 것은 보물이다. 기린이나 봉 같은 기이한 산물도 옛날에는 많던 것이 지금에는 하나도 없다. 무엇이 괴이하겠는가.

《소설》에 말하기를, “황금이란 천하의 싸움을 만들어내고, 황금이란 천하의 옛 일을 흙으로 만든다”라고 했으니 그 말이 참 좋은 말이다.

우리나라 은광銀鑛은 단주端州를 제일로 친다. 그 밖의 고을에도 역시 간혹 이것이 있다. 그러나 경비와 공역功役이 너무 많고 이익은 지나치게 적다. 근년에는 백성들에게 사사로이 캐는 것을 허락해 주기는 했지만, 백성들은 이것을 즐겨하지 않았다.
상고하여 보니, 고려 때에 사람을 보내서 홍주洪州 직산稷山에 가서 금을 캐게 했다. 수만 명을 시켜 캤는데도 금은 7냥兩밖에 얻지 못했다고 한다. 혹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옛날에 모래를 일어서 연금鍊金하는 법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법을 전해 배운 자가 없다.

홍주洪州 바다 섬 속에 사는 백성이 포구浦口의 얕은 곳에서 번쩍거리는 빛이 해에 비치는 것을 보았다. 이 빛을 쫓아서 가보니 두 덩어리 물건이 있는데 무거워서 운반할 수가 없었다. 그는 필시 이상한 물건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소에 싣고 돌아왔으나 그것이 정말 금인 줄을 몰랐다. 그러나 그 고을 관원이 빼앗아갔으니 대체로 모든 물건은 각각 따로 주인이 있기 때문이다.

《동파지림東坡志林》에 말하기를, “풀과 나무가 나지 않은 땅에서는 금과 주석 · 구슬 · 조개 같은 것이 많이 난다”라고 했다. 일찍이 들으니, 이오성李鰲城이 말하기를, “중국 장수를 따라 영남嶺南에 갔을 때, 길 가에 있는 산이 벌거숭이로 풀도 나무도 나지 않은 곳이 있었다. 중국 사람 하나가 그곳을 가리키면서, ‘여기는 금이 날 곳이다. 그대의 나라에서는 어찌해서 이곳을 캐지 않는가’ 하더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은 《지림志林》에 있는 말과 서로 맞는다.

《장태악집張太嶽集》에 보면, “홍무洪武 8년에 처음 대명보초大明寶鈔를 만들었다. 상양桑穰으로 바탕을 하고 가운데에는 돈을 꿰는 형상을 그렸다. 이 열 꿰미를 1관이라 하여 동전銅錢 1,000문文이나 은銀 1냥兩으로 쳐주었다. 다섯 꿰미를 500문文으로 쳤다”라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저화楮貨는 대개 이 제도이다.

법전法典에 보면, “동전 10문文은 저화楮貨 1장과 같고, 동전 1,000문은 저화 100장과 같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소설》에 말하기를, “저화를 초鈔라고 한다”고 했다. 또 《태악집太嶽集》에는 “홍무洪武 23년에 상등의 저폐를 평양지현平陽知縣 장초張礎에게 주어 위로하였으며, 또 장거정張居正에게 초鈔 1만 관을 주었다”라고 했다. 대개 저폐楮幣란 지금의 저화楮貨이다.

상고하건대 《전보錢譜》에는 삼한중보三韓重寶 · 동국통보東國通寶 · 동국중보東國重寶 · 해동통보海東通寶 · 해동중보海東重寶 · 조선통보朝鮮通寶 등 모두 8가지가 실려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돈이 있기 시작한 것은 역시 오래다. 지금도 조선통보는 아직 세상에 남아 있으니, 대체로 우리나라 초년에 만든 것일 것이다.

고려 숙종肅宗 때 처음으로 은으로 만든 병을 가지고 돈이라고 해서, 모든 교

제交際나 상賞으로 주는 데는 모두 이것을 썼다. 그 제도는 은 1근斤을 가지고 병 하나를 만들되 우리나라의 지형地形을 본떴다. 그러던 것을 본조本朝에 와서부터 쓰지 않았으니, 이것은 대체로 은 쓰는 것을 금하기 위함이었다.

《소설》에 보면, 어떤 사람이 구슬 하나를 얻었는데, 직경이 한 치는 되고 광채가 빛나서 바로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는 남이 알까 겁이 났다. 그래서 즉시 보물이란 더러운 것을 겁낸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더러운 옷을 벗어 그 구슬을 쌌더니 광채가 드디어 새어나오지 않았다 한다. 속담에 말하기를, "황금이 땅 위로 나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급히 저고리를 벗어서 가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도망가서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한 것은 그 말의 근원이 있는 것이다.

상고하건대 《본초本草》에 보면, 낭간琅玕(옥과 비슷한 아름다운 돌)에는 5가지 빛이 있다. 그 푸른 것은 약으로 쓴다. 바닷속에서 나는데 가지는 산호珊瑚와 비슷하고 구멍은 좀벌레의 구멍과 같은데 두드리면 금석金石의 소리가 난다. 순천順天 사람이 바닷가에서 얻어온 것을 내가 보았는데, 뿌리를 돌덩이에 붙이고 사는데 높이는 4, 5치가 되었다. 빛은 붉고 검은데 가지가 몹시 많다. 이것은 곧 나무 종류로서 그 가죽은 돌과 같다. 조그만 구멍이 있고, 아롱아롱해서 마치 벌레가 파먹은 것 같았다.
《순자荀子》 주註에 보면, 곤륜산崑崙山에 낭간이 있다고 한다. 《열자列子》에 주간 나무가 촘촘히 났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또 운서韻書에 보면, "아름다운 돌로서 옥玉 다음 간다"라고 했다. 왕감주의 글에는 말하기를, "옥에 예禮 땅의 구슬이 있으니, 이것이 낭간이다. 빛은 검푸르러서 대나무 빛과 같다"라고 했다. 또 낭간은 대나무 열매다. 이백李白의 시詩에, "봉은 굶어도 조를 쪼아 먹지 않고, 먹는 것은 오직 낭간뿐일세. 헤어진 지 오래여서 아름다운 얼굴 오래 못 보니, 낭간조차도 먹지 못하네〔鳳飢不啄粟 所食惟琅玕 別久容華晩 琅玕不能飯〕"라

고 했다. 이것은 곧 대나무 열매를 가리켜 한 말이다.
그러나 강엄江淹의 시에, "아침에 낭간 열매를 먹네〔朝食琅玕實〕"라고 했고, 유우석劉禹錫의 시詩에, "분을 바른 낭간의 마디일세〔傅粉琅玕節〕"라고 했다. 이것은 대체로 대나무를 낭간이라고 한 것이다.

위응물韋應物의 호박시琥珀詩에, "일찍이 늙은 복령茯苓(소나무의 땅속뿌리에 기생하는 버섯)이 된 것은, 원래 이 차가운 송액松液(소나무 뿌리를 자른 데에서 나온 진)일세. 모기와 하루살이 그 속에 떨어져서 천년이라도 오히려 볼 수 있네〔曾爲老茯苓 元是寒松液 蚊蚋落其中 千年猶可覿〕"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냉재야화冷齋夜話》에, "소나무 진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천년 동안 화한 것으로서, 이것을 태우면 오히려 소나무 기운이 있다"라고 했다. 일찍이 내가 보기에, 호박琥珀 속에 물건이 있어 벌과 같았다. 또 《소설》에는 "단풍나무 진이 화해서 호박이 된다"라고 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가 없다.

자석磁石은 속설에 지남석指南石이라고 부른다. 자석을 가지고 바늘 끝을 문지르면 곧 남쪽을 가리킨다. 그런 때문에 이것을 정남침定南針이라고 한다.
상고하건대 《사기史記》에 보면, "헌원씨軒轅氏가 지남차指南車를 만들었다"라고 했다. 그 주註에는, "수레 위에 자子·오午의 반침盤針을 써서 사방 방위를 정한다"라고 했다. 그러니 그 제도가 생긴 지는 오래다. 《본초本草》에는 말하기를, "지남침은 항상 병丙으로 기울어지고 반듯하게 남쪽을 가리키지 않는다. 대체로 병丙은 대화大火를 말하는 것이요, 경庚·신辛은 금金이기 때문에 그 억제를 받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대체로 물건이 서로 감응하는 것을 속설에 자석磁石이라고 한다. 이것을 물속에 많이 넣어 두면 배가 다니다가 반드시 가라앉는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당서唐書》에 보면, 장열張說은 계림鷄林의 야명렴夜明簾을 가져다가 태평공주太平公主에게 바쳤다고 했는데, 이 야명렴이란 것이 무슨 물건인지 알 수 없다. 대개 옛날에는 수정水晶이나 구슬 · 옥玉을 가지고 발을 만들었는데, 아마도 그런 따위일 것이다.

《본초本草》에 보면, “옛 사람들은 금을 황금黃金이라 이름했고, 은을 백금白金이라 하고, 구리를 적금赤金이라고 했다. 납을 청금靑金이라 하고 쇠를 흑금黑金이라 했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당사唐史에 보면, “방현령房玄齡이 병이 들었는데 태종太宗이 황은대黃銀帶를 하사했다”라고 했다. 또《패사稗史》에는, “귀신은 구리를 두려워한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본다면 황은이란 아마 구리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잡설雜說》 중에, “보석이 있는데 이름을 말갈靺鞨이라고 했다. 이것은 푸른빛 나는 화주火珠인데 말갈에서 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또 목난황색주木難黃色珠란 것은 동이東夷에서 난다”라고 했다. 조자건曹子建의 시에 “산호珊瑚 사이사이에 목난이 있네(珊瑚間木難)”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속이담續耳譚》에 말하기를, “대서양大西洋 나라의 이마두利瑪竇란 자는 바다에 떠다니기 8년 만에 비로소 동쪽 귀퉁이 어느 땅에 닿았다. 그는 이상스런 보배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이한 것은 자명종自鳴鐘이었다. 시간을 맞추어 소리를 내고, 제때를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 또 파려석玻瓈石이라는 것은 한 번 눈앞에 비치기만 하면 말라 죽은 나무나 헐어진 담이라도 모두 오색의 광채를 낸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대서양大西洋은 곧 구라파歐羅巴이다. 자명종이란, 들으니 일본에도 있던 것으로서 이름을 시종時鐘이라 했다. 또 파라석은 근세에 우리나라 사람이 왜인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남번南蕃으로 들어가서 보석 1개

를 얻어 가지고 왔는데, 그 보석은 빛이 푸르고 거무스름하며, 길이는 겨우 두어 치밖에 되지 않는데, 눈앞에 대고 비춰보면 천지天地와 세계가 모두 오색으로 보여서 그 이름을 형용하기 어렵다고 했으니, 대개 이 물건일 것이다.

내가 태평한 시절에 보니, 바닷가에 사는 백성이 자기 집 후원에서 돌덩어리를 파냈는데 그 크기가 소반만 했다. 이것을 자세히 보니 곧 수정水晶이었다. 큰 놈은 사람의 가운뎃손가락만하고 작은 놈은 젓가락만하다. 깨끗하고 희고 투명한데, 생긴 모양이 대나무 순과 같았다. 머리 부분은 뾰족하고 날카로워서 모두 여섯 모가 났는데, 한 개 한 개가 고르고 모양이 똑같다. 대개 수정 돌의 종류로서 땅 속에서 자란 것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옛날에 옥을 심었다는 말도 역시 헛되지 않은 것이다.

박 사문斯文 아무개가 안동군수安東郡守로 있을 때, 산이 무너져서 바위가 깨어져 속이 비었는데 금배金杯 2개가 있었다. 이것을 꺼내보니 진짜 금이었다. 혹은 의심컨대 이것은 폐벽閉闢 전의 물건인 듯하다. 그러나 그 만든 제도는 지금 것과 다를 것이 없으니 괴상한 일이다.

31. 식물부食物部

31-1 식이食餌

옛날 사람들은 회자膾炙[34]를 아름답게 여겼다. 그런 때문에 《논어》에 말하기를, "회膾는 가느다란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맹자》에는, "아름답다, 회자膾炙여!"라고 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은 회膾를 먹지 않는다. 비록 마른 고기라 할지라도 반드시 익혀서 먹는다.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를 먹는 것을 보고 괴상히 여겨 웃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것으로 보면 식성食性이란 그 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사는 것을 사랑하고 죽는 것을 미워하는 것은 사람이나 미물이나 매한가지다. 다만 사람은 지혜가 있고 미물은 지혜가 없다. 사람은 말을 잘하지만 미물은 말을 하지 못한다. 사람은 능히 미물을 제어한 줄 알지만 미물은 사람을 제어하지 못한다. 그런 때문에 사람은 미물을 죽여서 이것을 먹기를 꺼려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하늘의 이치이겠느냐. 군자 된 자는 마땅히 여기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쇠고기는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다. 판부判府 원혼元混은 평생 이것을 먹어서 수壽를 90이나 누렸다. 또 소가 날 풀을 먹으면 독이 있다. 그런 까닭에 의정議政 이헌국李憲國은 4월로부터 8월까지는 쇠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역시 나이 80을 살 수 있었다. 섭생攝生[35]하는 자는 마땅히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34 회와 구운 고기. 다 맛이 좋아서 사람들이 잘 먹는 것. 《선화서보宣和書譜》에 보면, 회자인구膾炙人口라고 써 있어,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일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35 적당한 운동과 식사로써 건강을 유지하도록 꾀하는 일.

예禮에 이른바, 8가지의 맛있는 음식〔八珍〕이란, 첫째 순오淳熬[36], 둘째 순무淳毋[37], 셋째 포돈도진炮豚豚珍[38], 넷째 지漬[39], 다섯째 오熬(젓갈을 볶은 것) 여섯째 삼糝[40], 일곱째 간료肝膋[41], 여덟째 포장炮牂(양의 암놈을 통째로 구운 것)이다. 이것은 모두 음식의 법을 제정한 것이다.

《완위여편宛委餘編》에 보면, "후세에 와서 말하는 8가지 맛있는 음식〔八珍〕이란, 용의 간, 봉鳳의 골, 토끼의 태胎, 잉어의 꼬리, 독수리 구운 것, 원숭이 입술, 곰의 발바닥, 수락酥酪[42]이라고 한다. 또 수락은 양의 기름으로 만든다"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기에, 용의 간과 봉의 골은 세상에 있는 물건이 아니니, 무엇을 가리켜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아마 이것은 과장해서 한 말인 듯싶다.

시자尸子가 말하기를, "걸桀과 주紂는 반드시 남쪽 바다의 생강과 북쪽 바다의 소금, 서쪽 바다의 무, 동쪽 바다의 고래를 먹었다"라고 했다. 이것은 대개 몹시 사치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보면 옛날에는 고래 고기도 역시 찬으로 쓴 듯싶다.

《예기》 주註에 허신許愼이 말하기를, "인절미〔餈〕는 쌀로 만든 떡이다. 인절미에 묻히는 가루는 콩으로 만든 가루이다. 쌀가루를 묻힌 인절미는 상등上等이다"라고 했다. 또 《세시기歲時記》에 보면, "한식寒食에는 가루를 가지고 찐 떡을 만

36 팔진八珍의 하나. 젓갈을 볶은 것. 《예기禮記》에 보면, "煎醢加于陸稻上沃之以膏曰淳熬"라고 했다. 순淳은 옥沃, 오熬는 전煎과 같다.

37 역시 팔진의 하나. 순오淳熬와 비슷하나 다만 볶은 젓갈을 기장밥 위에 올려놓고 기름을 친 것. 무毋는 상象이다. 곧 순오를 본뜬다는 말.

38 돼지를 통째로 구운 것을 잘게 찧어서 만든 음식.

39 물에 담근 반찬. 《주례周禮》에 보면, "순이지지淳而漬之"라고 했다.

40 국죽. 쌀로 죽을 쑨 것. 《주례》에 보면 "배식삼식配食糝食"이라 했다.

41 간장肝臟의 기름. 《주례》〈내칙內則〉에 보면, "간료肝膋는 개의 간 1개를 꺼내어 그 기름을 뽑아 구운 것이다"라고 했다.

42 소나 양의 젖을 가공한 육즙乳汁. 낙제酪醍도 마찬가지. 이것을 타락죽이라고 한다.

든다. 대추를 여기에 넣은 것은 이름을 대추떡이라고 한다. 또 9월 9일에 서울 사람들은 가루국수와 찐 떡을 가지고 서로 보내곤 한다. 떡에 넣는 과일은 누런 밤과 은행 따위이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본다면 그 만드는 법은 지금 풍속과 같다.

《송사宋史》에 보면, "고려 때에는 상사일上巳日(음력 3월의 첫 사일巳日)에는 푸른 쑥떡을 가지고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쳤다"라고 했다. 동월董越의 〈조선부朝鮮賦〉에 보면, "소나무 껍질로 만든 떡과 산삼山蔘으로 만든 떡이다"라고 했다. 또 그 주註에 보면, "3월 3일에는 어린 쑥 잎을 따서 찹쌀가루에 섞어 쪄서 떡을 만드는데 이것을 쑥떡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이것은 중국에는 없는 것이다.

밀과蜜果를 약과藥果라고 하는 것은, 보리는 사시四時의 정기精氣이고, 꿀은 100가지 약 중에 제일 어른이요, 기름은 능히 벌레를 죽이는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잔치나 제사 때에도 역시 밀과를 쓰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제사나 잔치에도 모두 이것을 쓰고 있으니, 습관과 풍속의 사치스러움을 볼 수가 있다.

《초사楚辭》 장황餦餭의 주註에 보면, "장황餦餭(엿)은 쌀가루를 가지고 부쳐서 만드는 것으로서, 한구寒具이다"라고 했다. 유우석劉禹錫의 한구시寒具詩에 말하기를, "가느다란 손으로 옥玉 두어 길을 잡아당겨 와서, 푸른 기름으로 조금 누르게 부쳐 내네〔纖手搓來玉數尋 碧油煎出嫩黃深〕"라고 했다. 《소설》에 보면, "한구寒具는 한식寒食 때 쓰는 물건이다. 곧 민중閩中(진秦나라 때의 군명郡名. 지금의 복건성福建省) 사람들이 말하는 전포煎餔라는 것이니 찹쌀가루를 밀가루에 섞어서 기름에 튀겨 먹는 것이다. 손을 씻지 않으면 물건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요, 한 달 넘게 두어두어야 한다. 또 이것은 연기 나는 데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

으니 대개 지금 풍속에 만드는 유병油餠과 비슷하다.

의방醫方에 말하기를, "5가지 맛 중에 신 것은 근육을 상하고, 쓴 것은 뼈를 상한다. 듣건대 사슴의 뿔을 다스리려면 초에 담갔다가 씻으면 풀리기 쉽다"라고 했다. 초는 또 고주苦酒라고도 부른다. 《본초本草》에 보면, "사람이 신 것을 많이 먹으면 이빨이 연해진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옛날 황전黃戩은 한평생 초를 먹지 않았다는 것이 대개 이 까닭인 듯싶다.

운서韻書에 보면, "낙酪은 젖으로 된 물이다"라고 했다. 《본초本草》에는, "젖으로 낙酪을 만들고, 낙酪으로 수酥를 만들고, 수酥로 제호醍醐[43]를 만든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제호醍醐는 수酥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 즉 수酥의 정액精液이다. 좋은 수酥에서는 수 1섬에서 3, 4되의 제호가 나온다"라고 했다. 불경佛經에는 말하기를, "바른 법을 들으면 마치 제호의 맛과 같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전국으로 짠 낙酪은 성품을 기르고 사람의 투기하는 마음을 없앤다"라고 했다. 두시杜詩에, "제호가 길이 성품을 기른다〔醍醐長發性〕"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음식을 먹어 병을 고치는 데 대해서 《본초本草》에 말하기를, "게는 먹은 것을 소화시키고 위胃의 기운을 도와주며, 또 경락經絡[44]을 다스린다. 하지만 게의 뱃속에는 독이 있다. 그것에 중독中毒되면 혹 죽기도 한다. 여기에는 급히 대황大黃(장군풀의 뿌리인데 하제下劑로 쓰임)이나 동과冬瓜[45] · 자소紫蘇[46] 의 즙汁을 내서 해독시키면 낫는다"라고 했다.

43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우락牛酪. 지금의 버터.

44 기혈氣血이 인체人體 안을 돌아다니는 맥관脈管.

45 박과에 속하는 1년생 덩굴 풀. 열매는 수박과 비슷하다. 동아. 부증浮症이나 갈증을 해소시킨다.

46 꿀풀과에 속하는 1년초. 차조기. 잎과 줄기는 땀을 내게 하며 소화消化시키는 효력이 있어서 약에 쓴다.

또《귀전록歸田錄》에 보면, “회남淮南 사람이 게를 잡아다 한 그릇에 수십 마리를 넣고, 그 속에 콩꼬투리 반개만 넣어 두면 1년이라도 그대로 산다”라고 했다.

《내경內經》에 말하기를, “만일 비脾가 습한 것을 괴로워하거든 급히 쓴 것을 먹어서 건조하게 하고, 또 비脾가 눅눅해지기를 바라거든 급히 단 것을 먹어서 따뜻하게 만들라”라고 했다.《본초本草》에는 말하기를, “흰 꿀은 비脾의 기운을 기른다”라고 했다. 의방醫方에도 역시, “꿀과 사탕은 비脾와 위胃를 도와준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대체로 그 까닭에 말한 것이다.
채정선蔡禎先이 일찍이 말하기를, “꿀은 능히 굳은 것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지 보해주는 약은 아니다. 마땅히 이것을 항상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사람들은 혹 이 말이 옳다고 한다. 굳은 것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한 것은 옳다. 그러나 아직 그 보해주는 공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한 말이다.

내칙內則에 말하기를, “대체로 먹는 것으로는, 봄에는 신 맛을 많이 먹고, 여름에는 쓴 맛을 많이 먹고, 가을에는 매운 맛을 많이 먹고, 겨울에는 짠 맛을 많이 먹는다. 이것을 조화하는 데는 부드럽고 달게 한다. 대개 네 가지 맛으로 사시四時의 움직임에 맞게 하는 것이고, 또 단 맛은 토土의 용도를 본받아서 이로써 오장五藏의 기운을 기르고, 오행五行의 기운을 돕는다. 옛날 성인聖人들의 음식의 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다.
양생서에, “봄의 72일 동안은 신 것을 빼고 단 것을 더해서 비脾의 기운을 기를 것이요, 겨울의 72일 동안은 짠 것을 빼고 쓴 것을 더해서 마음의 기운을 기를 것이다. 그 끝 달의 각각 18일 동안은 단 것을 빼고 짠 것을 더해서 신腎의 기운을 기를 것이요, 여름의 72일 동안은 쓴 것을 빼고 매운 것을 더해서 폐肺의 기운을 기르고, 가을의 72일 동안은 매운 것을 빼고 신 것을 더해서 간肝의 기운을 기를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니 이 말과는 서로 같지 않다.

옛날에 하묵夏默은 매 끼니에 밥 한 섬과 고기 30근을 먹었다. 마희성馬希聲은 날마다 닭 50마리를 먹었고, 장제현張齊賢은 날마다 밥을 큰 통으로 하나씩 먹었다 한다. 범왕范汪은 청매靑梅 한 섬을 씹었다 한다. 그렇다면 염파廉頗가 밥 한 번 먹을 때 쌀 1말과 고기 10근을 먹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못 된다. 지금 남쪽 지방 사람들이 즐겨 매실梅實을 먹는데, 그중에는 두어 되씩 먹는 자가 있으니 이것도 역시 습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31-2 주酒

옛 사람의 말에, "한 고을의 정치는 술에서 보고, 한 집의 일은 양념 맛에서 본다"라고 했다. 대개 이 2가지가 좋으면 그 밖의 일은 자연 알 수가 있다는 말이다.

《이아爾雅》에 보면, "술에는 범제泛齊 · 부의浮蟻가 있다"라고 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술을 가리켜 춘의春蟻니 녹의綠蟻니 한다. 《주례周禮》 범제泛齊의 주註에 보면, "범泛이란 익어서 범범泛泛하고 찌꺼기가 뜨는 것이다"라고 했다. 지금의 찹쌀로 술을 빚어 익혀서 말갛게 되기를 기다려 술지게미를 조금 띄운 것을 부의주浮蟻酒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한漢나라에서 승상에게 좋은 술을 하사했다고 하는 주註에 보면, "술에는 찹쌀을 제일 상上으로 치고, 피(稷)를 중中으로 치고, 조(粟)를 제일 하下로 친다"라고 했다. 동월董越의 〈조선부朝鮮賦〉에 보면, "술을 빚는 데는 멥쌀을 가지고 하고 차조를 쓰지 않는다. 아무리 다른 좋은 술이 있더라도 이 술과 우열을 따질 수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본초本草》에는, "출미秫米를 누른 쌀(黃米)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술을 빚으면 가장 맛이 좋다"라고 했다.

《오학편吾學編》에는, "조선에서는 멥쌀로 술을 빚는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본다면 멥쌀을 가지고 술을 만드는 것은 오직 우리나라뿐인 듯하다.

봄술을 의방醫方에서는 미주美酒라고 한다. 아마도 이것은 지금의 삼해주三亥酒(음력 정월의 세 해일亥日에 빚은 술) 따위인 듯싶다. 상고하건대 《창려집昌黎集》 주註에 말하기를, "시詩에 이 봄술을 만든다(爲此春酒)라고 한 구절이 있다"라고 했다. 이것을 후세 사람들은 술 이름이라고 해서 국미춘麯米春 · 나부춘羅浮春 · 연각춘軟脚春 · 옥굴춘玉窟春 등이라고 하니 이루 셀 수가 없다.

옛날 하서河西에 가던 사신이 길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나이는 16, 7세가량이었다. 그 여인이 흰 머리가 난 8, 90세 되어 보이는 늙은이를 때리고 있었다. 사신이 묻기를, "너는 어린 여자로서 어찌해서 늙은이를 때리느냐" 했다. 그 여인은 대답하기를, "이 아이는 내 셋째 자식인데 약을 먹을 줄을 몰라서 나보다 먼저 머리가 희어졌소" 했다. 여인의 나이를 물었더니 395세라는 것이다.
이에 사신은 말에서 내려 그 여인에게 절한 다음 오래 살고 늙지 않는 약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그 여인은 구기주枸杞酒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사신이 돌아와서 그 법대로 만들어 먹었더니 300년을 살아도 늙지 않았다 한다.
그 방법은, 정월 보름 전 첫째 인일寅日에 구기자나무 뿌리를 캐어 한 되쯤 될 만큼 그늘에서 말린다. 여기에 2월 첫째 묘일卯日에 맑은 술 1말을 부어 가지고 만 7일이 된 다음에 찌꺼기는 버리고 이것을 새벽에 마신다. 밥 먹은 뒤에는 마시지 말 것이다. 또 4월 첫째 사일巳日에 구기자나무 잎을 따서 1되 될 만큼 가늘게 썰어서 그늘에서 말린다. 5월 첫째 오일午日에 여기에 술 1말을 붓는다. 또 7월 첫째 신일申日에 꽃을 따서 한 되 될 만큼 그늘에 말려서 8월 첫째 유일酉日에 술 1말을 붓는다. 또 10월 첫째 해일亥日에 열매를 따서는 1되 될 만큼 가늘게 썰어서 그늘에서 말린 다음 11월 첫째 자일子日에 술 1말을 붓

는다. 이렇게 하여 모두 위에 말한 법대로 해가지고 이것을 13일 동안만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왕성해진다. 다시 100일을 마시면 얼굴이 고와지고 흰 머리털이 다시 검게 되고, 빠졌던 이가 다시 나서 땅 위에 있는 신선이 된다고 했다.
상고하건대 《신선전神仙傳》에 말하기를,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보낸 사신이 하동河東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여인은 곧 신선 백산보伯山甫의 생질녀였다"라고 한다. 여기에서 꽃은 줄기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술에 취하면 1,000일 만에 깨는 것이 있으니, 중산주中山酒이다. 또 취한 지 10일 만에 깨는 것이 있으니 구루국枸樓國의 선장주仙漿酒이다. 마시고 나서 천리 길을 가면 비로소 취하는 술은 계양桂陽 정향주程鄉酒이다. 또 여러 해가 되어도 상하지 않는 술은 서역의 포도주葡萄酒와 일본주日本酒이다. 금시에 만들어지는 술은 준순주逡巡酒이다.

서역에는 포도주가 있고, 가릉訶陵에는 야자주椰子酒가 있다. 오손烏孫에는 창전핵주青田核酒가 있고, 파사波斯에는 육즙주肉汁酒가 있다. 북로北虜에는 마동주馬潼酒, 남만南蠻에는 빈랑주檳榔酒, 부남안扶南安에는 석류주石榴酒 · 감자주甘蔗酒가 있다. 또 진랍眞臘의 미인주美人酒는 아름다운 여인이 입 속에 넣고 만드는데, 하룻밤 동안에 만들어진다. 《오학편吾學編》에 말하기를, "유구국琉球國의 부인이 쌀을 씹어서 술을 만든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또 《식감본초食鑑本草》에 보면, "섬라暹羅의 소주는 한두 잔만 마시면 묵은 병이 모두 낫는다"라고 했다. 왕감주는 말하기를, "지금 4이夷의 술 중에서는 섬라暹羅의 술을 제일로 친다"라고 했다.

《식감본초食鑑本草》에 말하기를, "술의 독은 이(齒)가 먼저 받는다. 술을 한 잔 마시고 곧 물을 머금어 씻으면 취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근래에 이상국李相國

양원陽元이 한평생 술 마시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양에 차면 곧 그쳤다. 그리고 소주 한 잔을 마시고 나면 곧 냉수 한 잔으로 씻어 넘겼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술에 상하지 않았다고 한다.

소동파蘇東坡의 〈계주송인桂酒頌引〉에 보면, "술은 천록天祿[47]이다. 술이 잘되고 못되는 것이나, 맛이 좋고 나쁜 것으로써 그 집 주인의 길하고 흉할 것을 점칠 수가 있다"라고 했다.
지금 풍속에, 술맛이 시고 나쁜 집에는 액운이 있다고 한다. 그 말은 대개 이런 데에서 근본이 있는 것이다.

술맛이 오랫동안 변치 않는 것이 있다. 듣건대 100년 된 옛 무덤을 파고 보니 광중壙中 속에 술 한 항아리가 들어 있었다. 그 술은 기운이 몹시 독하고 또한 그릇에 가득하여 조금도 줄어든 흔적이 없었다. 일하던 사람들이 각각 한 잔씩 마셨더니 모두 취했다고 하니 괴상한 일이다.

소주는 원元나라 때에 생긴 술인데, 오직 이것은 약으로만 쓸 뿐으로 함부로 먹지는 않았다. 그런 때문에 풍속에, 작은 잔을 가지고 소주잔이라고 했다. 근세에 와서는 사대부들이 호사스러워 마음대로 마신다. 여름이면 소주를 큰 잔으로 많이 마신다. 그리하여 잔뜩 취해야만 그만두니 그래서 갑자기 죽는 자들도 많다.
명묘조明廟朝 때 김치운金致雲은 교리校理로서 홍문관弘文館에서 수직을 하다가 임금이 내린 자소주紫燒酒를 지나치게 마셔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 소주의 해독은 참혹한 것이다.

47 하늘이 주는 복록. 술의 별명. 《청이록靑異錄》에 보면, 왕세충王世充이 참호僭號하고 나서 여러 신하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이런 화락한 일이 있도록 한 것은 오직 술의 공력이니 마땅히 술에게 천록대부天祿大夫를 봉해야 한다"라고 했다.

술의 독이란 또한 심한 것이다. 평시에 내섬시內贍寺에는 술을 만드는 방이 있다. 그 방 위에 덮은 기와는 쉽게 상해서 몇 해만큼 한 번씩 바꿔야 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까마귀나 참새 떼가 모여들지 않는다. 이것은 술 기운이 서려 있는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세상 사람으로서 함부로 술을 마시던 사람 치고 일찍 죽지 않은 자가 드물다. 또 죽지 않는다고 해도 역시 병으로 폐인이 된다. 또 그 밖에도 화를 불러 자기 몸을 망치는 자는 이루 셀 수가 없다. 혹은 말하기를, 술이 사람을 상하는 것이 여색보다도 더 심하다고 하니 그 말은 진실로 그러하다.

의방醫方에 보면, "모든 중독中毒 중에도 술에 중독된 것은 고치기가 힘들다고 한다. 술기운이 모든 혈맥에 통하여 온몸에 퍼지는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음식에 중독된 것은 고치기가 쉽다. 먹는 것이나 약은 다만 위胃에 들어가서 혹은 대변으로 나와서 그 독기를 없앨 수도 있어서, 혈맥으로 흘러 들어가지는 못하는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모든 독을 푸는 약즙은 모두 데워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 독기가 더욱 심해지기가 쉽다. 그러니 마땅히 차게 해서 먹어야만 효력이 있다"라고 했다. 이 말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소설》에 말하기를, "사람이 소주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고 불 가까이 가면, 입속에서 불이 나온다. 여기에 물을 마시면 그 불길이 더욱 타올라서 타버린 다음에야 그치게 된다. 그러니 여기에는 오직 오래된 식초를 써야만 불기운이 꺼진다"라고 했다.

수양서壽養書에 말하기를, "소주를 마시고 취해서 깨어나지 못하는 자에게는 급히 녹두 가루를 끓여서 젓가락으로 이빨을 벌리고 찬 물로 흘려 넣으면 곧 깨어난다"라고 했다.

《본초本草》에 보면, “말고기를 먹고 중독되었을 때는 청주淸酒를 마시면 곧 독이 풀리지만, 탁주를 마시면 더해진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말의 간에는 독이 있어서 이것을 먹으면 사람이 상한다”라고 했다. 진秦나라 목공穆公이 말하기를, “좋은 말고기를 먹었어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상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그렇다면《한서》에, 문성文成이 말의 간을 먹고 죽었다는 것도 역시 이를 말한 것인가.

《양생기요養生紀要》에 보면, “날이 저물 무렵에 너무 취하지 말라”라고 했다. 또 “두세 번 연거푸 밤술에 취하지 말라”라고도 했다. 이것은 대개 술의 독이 한데 머물러 모여 있어서 사람의 창자를 해치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는 말이다. 지금 사람들은 손님들을 모아다가 잔치하고 마시는 것을 반드시 늦은 밤으로 한다. 그런 때문에 속담에, “유시酉時에 잔치에 나간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늦게 술을 마시면 사람을 상하는 것이 반드시 심하다.
또《산거사요山居四要》에는 말하기를, “그믐날에는 크게 취하지 말라”라고 했고,《연수서延壽書》에는 말하기를, “그믐날에 노래를 부르면 흉한 일을 불러 온다”라고 했다. 그러니 이 말도 잔치하고 놀지 말라는 뜻임을 알 것이다.

유일酉日에는 객客을 모으지 않는다. 상고하건대《사문유취事文類聚》에 보면, “두강杜康은 술을 잘 만들더니 유일酉日에 죽었다. 그런 까닭에 이 날에는 손을 모아놓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기에 이 말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주酒란 글자는 유酉 변에 쓰는 것이니 이것은 아마 스스로 깊은 뜻이 있는 것일 것이다. 도연명陶淵明의 술주시述酒詩의 주註에 말하기를, “의적儀狄은 술을 만들었고, 두강杜康은 술에 빛깔을 냈다”라고 했다. 세본世本에는 또 소강少康이 술을 만들었다고 했고, 또 혹은 두강杜康은 출주秫酒를 만들었다고 했다.《설문說文》에 말하기를, “소강의 이름을 혹은 두강이라고도 한다”라고 했다.

옛날에 우정국于定國은 술을 몇 섬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다. 정강성鄭康成은 1곡斛을 마시고, 노식盧植 · 주의周顗 · 유영劉伶은 모두 1섬씩을 마셨다고 한다. 상고하건대 《주보酒譜》에 보면 수隋나라 때 새로 도량度量을 제정해서 말〔斗〕이나 섬〔石〕의 분량이 배로 커졌다. 그런 까닭에 당나라 이후로는 술 마시는 양이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

《오행지五行志》에 보면, “진晉나라 혜제惠帝 원강년중元康年中에 귀족의 자제들은 머리를 푸는 모임을 가지고 종과 첩들을 데리고 놀았다. 이것을 거역하는 자는 의리를 상하고, 이것을 하지 않는 자는 남에게 조롱을 받는다. 그러나 이 모임의 꼴이란 말이 아니었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유영劉伶 · 필탁畢卓은 발가벗고 앉아서 술을 마셨고, 주의周顗는 술이 취해서 기첨紀瞻의 종을 간통하려 하여 그 추태를 보였다고 하니 모두 그런 말들이다.

장적張籍의 시詩에 말하기를, “술을 빚는 데는 마른 반죽으로 빚는 것이 좋다〔釀酒愛乾和〕”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주보酒譜》에 말하기를, “이것은 지금 사람들이 물을 붓지 않고 만드는 술이다. 병주并州와 분주汾州 땅에서는 이것을 맛좋은 술이라 하여 이름을 건초주乾酢酒라고 한다”라고 했다. 또 술의 좋은 것으로는 검남劍南의 소춘燒春, 하동河東의 건화乾和, 의성宜城의 구온九醞 등이 있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삭주朔州의 술이 가장 이름이 있다. 또 중국 사람은 술을 빚는데 재를 많이 넣는다. 그런 때문에 의방醫方에선 무회주無灰酒가 약에 들어간다. 육방옹陸放翁이 말하기를, “당나라 사람은 적주회赤酒灰를 좋아한다”라고 했다. 육노망陸魯望의 시詩에, “술이 재에 떨어지는 향기 지난해와 같네〔酒滴灰香似去年〕”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송나라 진종眞宗이, “당나라 때는 술값이 어떠했느냐” 하고 묻자, 좌우 사람들

이 이에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정위丁謂가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당나라 술은 1말에 300냥씩 했습니다. 두보杜甫의 시에, 속히 와서 서로 나가 술 1말을 마시니, 그 값 청동전靑銅錢 300냥일세〔速來相就飮一斗 恰有三百靑銅錢〕라고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진종이 크게 기뻐했다 한다.
나는 생각하기에, 왕유王維의 시에, "신풍新豐의 좋은 술, 한 말에 십천 냥일세〔新豐美酒 斗十千〕"라고 했고, 또 최국보崔國輔의 시에, "흥치 있게 1말 술에 취하니 흡족히 돈 십천 냥을 썼네〔興酣一斗酒 恰用十千錢〕"라고 해서 모두 두시杜詩와는 다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직 두시만을 말하고 이들의 시는 말하지 않았으니 무슨 까닭인가. 옛 사람들도 시를 넓게 아는 자가 역시 드물었던 것이다.

한비자韓非子가 말하기를, "송나라 사람은 술을 파는데 깃발을 매우 높이 달았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보면 대개 술집에 기旗를 단 것이 오래됐다. 주기酒旗를 염帘이라 하고 또한 망자望子라고도 한다. 시가詩家에서 말하는 기정旗亭이 이것이다.

31-3 곡穀

음식 중에 정하고 잘 익은 것은 기운을 더해주고, 맛좋은 훌륭한 음식은 정력이 된다. 그런 때문에 기운〔氣〕과 정력〔精〕은 모두 쌀 미〔米〕 변에 쓴다. 《의감醫鑑》에 말하기를, "사람은 곡식에서 기운을 받는다"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기운은 곡식에서 생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서書에 말하기를, "때맞추어 100가지 곡식을 심는다"라고 했다. 《의감》에는, "곡식은 모두 107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다. 맹자는 말하기를 "5가지 곡식

을 심는다”라고 했으니, 5곡穀을 정현鄭玄은, 서黍 · 직稷 · 숙菽 · 맥麥 · 마麻라고 했고, 조기趙岐는, 서黍 · 직稷 · 숙菽 · 맥麥 · 도稻라고 했으며, 《소문素問》에는, “마麻 · 맥麥 · 직稷 · 도稻 · 두豆라고 했다.” 《진지晉志》에는 “8가지 곡식을 서黍 · 직稷 · 도稻 · 양粱 · 화禾 · 마麻 · 숙菽 · 맥麥이라고 했다.” 《주례周禮》에 보면, “9가지 곡식은 서黍 · 직稷 · 도稻 · 양粱 · 고菰[48] · 대두大豆 · 소두小豆 · 맥麥 · 마麻이다”라고 했다.

《본초本草》에 말하기를, “화禾는 속粟의 싹이요, 마麻는 호마胡麻[49]이다. 숙菽은 즉 대두大豆이고, 보리에도 대맥大麥 · 소맥小麥 · 광맥穬麥이 있다. 직稷은 곧 제穄이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胡麻가 8가지 곡식 중에 제일 좋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거승巨勝이라고 한다. 속粟은 5곡穀 중에서 제일 단단하다. 그래서 이것을 경미硬米라고 한다. 보리는 5곡 중에서 제일 귀하게 치고, 8곡 중에서는 직稷을 제일 낮은 것으로 친다”라고 했다. 《의학입문醫學入門》에는, “직稷은 5곡의 어른이다”라고 했다. 이리하여 여러 말들이 서로 같지 않다.

고서古書에 보면, “모든 두豆라고 말하는 것은 대두大豆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중에 검고 작은 것을 웅두雄豆라 하고, 그 가루를 두황豆黃이라고 한다. 또 그 싹을 황권黃卷이라고 한다. 지금 풍속에 두豆를 태太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말이다. 또 적두赤豆는 소두小豆라 하고, 그 꽃을 부비腐婢라고 한다”라고 했다.

나는 상고하건대, 숙菽이란 두荳의 총칭이고, 곽藿은 숙菽의 잎이다. 그렇다면 팥이나 콩잎을 통틀어서 곽藿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옛날에 말한 여곽藜藿이 이것이다.

48 포아풀과에 속하는 다년생의 수초水草. 잎은 자리를 만드는 데 쓰고, 열매와 어린 싹은 식용함.

49 참깨과에 속하는 1년생 풀. 여름에 흰 꽃이 피며, 많은 흑 · 백 · 자색의 씨가 달림. 씨는 식용으로 하고, 또 기름을 짜기도 한다.

호마胡麻는 곧 지금의 흑지마黑脂麻이다. 이것을 또 거승자巨勝子라고도 한다. 상고하여 보니, 도은거陶隱居는 말하기를, "호마를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려서 볶아 이것을 빻아서 먹는다"라고 했고, 그 주註에 말하기를, "호마는 검은 것을 좋다고 한다"라고 했다. 두시杜詩에 보면, "호마를 찌고 또 말린다(胡麻蒸續曬)"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몽계필담夢溪筆談》에 말하기를, "장건張騫이 비로소 대완大宛에서 유마油麻 종자를 얻어왔는데 이것을 호마라고 했다. 지금은 이것을 지마芝麻라고 한다"라고 했다.

31-4 채菜

상추(咼苣菜)를 천금채千金菜라고도 한다. 상고하건대 《패사稗史》에, "와국咼國 사신이 조공을 바치러 갔더니, 수隋나라 사람이 비싼 값을 주고 그 씨를 구해 갔다. 그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했다. 와咼를 지금은 와萵로 쓰는데 이것은 잘못일 것이다.

동월董越의 부賦에 보면, "필관산장筆管酸漿"이라 하고, 그 주에, "필관筆管은 묘苗를 먹는데 그 맛이 미끄럽고 달다고 하였으나, 그 잎을 아직 알지 못한다. 혹은 말하기를, 이것은 황정黃精의 싹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훈몽자회訓蒙字會》에 말하기를, "메밀나물(蕺)을 필관筆管 나물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대개 중국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다시마(海帶菜)를 혹은 최생催生이라고도 한다. 상고하건대 《본초本草》에 말하기를, "동쪽 바닷물 속의 돌 위에 난다"라고 했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다사마多士麻이다.

적로滴露는 나물의 이름이다. 꽃도 없고 열매도 없다. 잎 위에 괸 이슬이 땅에 떨어져서 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가지와 잎이 영롱해서 구슬과 같다. 나물로 만들어 먹으면 맛이 좋으니 이상한 나물이다. 그러나 《본초》의 방醫方에는 아직 실려 있지 않다.

강황薑黃[50]은 《본초도경本草圖經》에 보면, "심은 지 3년이 된 늙은 생강이다. 속담에 말하기를, 생강을 심어 3년을 지나면 꽃이 난다"라고 했다. 유우석劉禹錫의 시에 보면, "친구 박라위博羅尉가 내게 산 생강 꽃을 보냈네(故人博羅尉 遣我山薑花)"라고 했고, 동파東坡의 시詩에는, "비가 산 생강을 적셔 병들어 꽃이 피었네(雨浥山薑病有花)"라고 했다. 상고해 보면, 삽주 뿌리(朮)[51]를 산강山薑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나 《본초》에는 말하기를, "산강은 맛이 맵고 독이 조금 있다. 자줏빛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니 여기에 말하는 산강은 출朮이 아닌 것이다.

31-5 과果

상여자허相如子虛의 부賦에 말하기를, "노리영률櫨梨梬栗"[52]이라고 했다. 주註에 영梬은 조棗이다. 〈상림부上林賦〉에 보면, "영조양매梬棗楊梅"라고 하고, 그 주註에 "영조梬棗는 감과 같다"라고 했다. 상고해 보건대 《훈몽자회訓蒙字會》에 보면, "영梬은 과실 이름이니 곧 지금의 양시조羊矢棗이다"라고 했다. 《본초몽전本草蒙筌》에 보면, "양시조는 씨가 작고 둥글다"라고 했다. 《양승암집楊升庵集》에 보면, "영조梬棗는 풍속에 연조輭棗라고 하는데, 또한 정향시丁香柿라고도

50 새앙과에 속한 다년생 풀. 꽃은 나팔 모양이고, 빛은 누렇다. 줄거리는 약재로 쓴다.

51 약재로 이뇨利尿 · 건위제健胃劑로 쓰는데 창출蒼朮과 백출白朮의 2가지가 있다.

52 노櫨는 노나무. 과실 이름이기도 하다. 이梨는 배. 영梬은 고욤. 율栗은 밤.

한다"라고 했다. 이것은 곧 고욤이다.

《술이기述異記》에 말하기를, "월越나라에는 귤과 유자 과원果園이 많으니 1년에 귤에서 받는 세금이 많다"라고 했다. 오감상吳闞尙이, "청컨대 신臣의 귤적橘籍을 면제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이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주濟州와 남쪽 바닷가의 고을에 귤과 유자가 많이 나는 곳에서는 세금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괴롭게 여겨 모두 베어버렸다. 이것이 곧 귤 세금이다.

《위지魏志》에 말하기를, "동이東夷 한국韓國에서는 큰 밤[栗]이 나는데, 배[梨]와 비슷하다"라고 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국이란 대개 삼한三韓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는 중국에서 나는 밤을 보았는데, 우리나라 것보다 작았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잣나무는 곧 중국의 해송海松이고, 진짜 잣나무는 아니다. 상고해 보니,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신라의 사신들이 올 때마다 송자松子를 많이 팔았다. 이것은 옥각향玉角香이라고도 하고 또 용아자龍牙子라고도 하는데, 공경公卿들의 집에 선사한다고 한다"라고 했다. 이것이 지금 풍속에 말하는 잣[栢子]이다.

의가醫家에서는 대추를 백일홍百益紅이라 하고, 배를 백손황百損黃이라고 한다. 대개 대추는 100가지의 유익한 것이 있고 한 가지 손해되는 것이 있으며, 배는 한 가지 유익한 것이 있고 100가지 손해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지사知事 김상용金尙容이 말하기를, "본래 담병痰病[53]이 있었는데, 안변부사安邊府使가 되었을 때 날마다 배 40개씩을 먹었더니 그 병이 얼마 안 되어 나았다"

53 몸의 분필액分泌液이 큰 열熱을 만나서 일어나는 온갖 병의 이름.

라고 했다. 그러면 배도 역시 한 가지 유익한 점은 있는 것이다.

속담에 말하기를, “날배(生梨)를 쪄서 먹으면 그 배나무 배는 변해서 나쁜 배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인 것 같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좋은 배가 열리는 나무 몇 그루가 있었다. 아직 배가 익기 전에 객客이 와서 이것을 따가지고 쪄서 먹었다. 그 후로부터 그 배는 익기만 하면 금시에 까맣게 썩어버려 먹을 수가 없었으니 괴상스러운 일이다.

속의俗醫가 말하기를, “홍시紅柹는 설사를 잘 막는다”라고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는다. 남 사문南斯文 아무개는 평생 신설증腎泄症을 앓았는데, 이것을 먹고 좋은 효험이 있었다고 한다. 상고해 보건대, 《본초몽전本草蒙筌》에 말하기를, “감은 창자를 막히게 해서 설사를 금한다”라고 했으니 이 말은 믿을 만하다. 또 의방醫方에 보면, “홍시는 술과 함께 먹지 말라”라고 했고, 또 “감과 배는 게(蟹)와 함께 먹지 말라”라고 했다. 이것은 물건의 성질이 서로 반대되기 때문이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석류는 안석국安石國에서 나온다. 그런 때문에 그 이름을 석류石榴라고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듣기에, 석류의 성질은 돌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런 때문에 지금 남쪽 지방 사람은 돌로 뿌리를 싸서 심는다. 또 《산거사요山居四要》의 석류 심는 방법에 보면, 잡석雜石을 가지 사이에 놓아 둔다고 했다. 석류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혹 이 때문이 아닐까. 혹은 말하기를, 우리나라 석류는 곧 옛날에 말하면 해류海榴이다. 이백李白의 시에 보면, “신라에는 해홍海紅(해당화海棠花)과 해석류海石榴가 많았다”라고 했다.

모든 과실에는 별다른 종자가 있다. 지금 남쪽 지방에는 감류甘榴가 있어 그 맛이 꿀과 같이 달며, 백앵두白櫻桃는 크고도 맛이 좋으니 모두 보배스러운 과

실이다 상고하건대 육구몽陸龜蒙의 시詩에 보면, "흰 앵두 밑에 붉은 윤건비단으로 만든 두건〔白櫻桃下紫綸巾〕"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술이기述異記》에 말하기를, "번우番禺 땅에는 신 감과 단 매실이 있다"라고 했으니, 역시 이상스러운 종자이다.

《본초本草》에 말하기를, "빈랑檳榔[54]은 영남嶺南에서 난다. 이것을 과일로 먹는다. 남쪽 지방은 땅이 따뜻하여 이 빈랑檳榔을 먹지 않으면 장려瘴癘[55]를 막을 수 없다"라고 했다. 동파東坡의 시詩에, "붉은 기운 볼에 올라오니 빈랑에 취했네〔紅潮登頰醉檳榔〕"라고 했다. 《학림옥로鶴林玉露》에 "빈랑을 먹으면 훈훈해지면서 볼이 붉어진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묵객휘서墨客揮犀》에 말하기를, "태원太原 사람은 즐겨 대추를 먹는데, 늙은이나 젊은이 할 것 없이 항상 먹는다. 그런 때문에 이빨이 모두 누렇다"라고 했다. 혜숙야嵇叔夜가 "진晉나라에 있으면 이빨이 누렇게 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조완벽趙完璧은 말하기를, "안남국安南國 사람은 항상 빈랑을 먹는다. 그래서 그들은 이빨이 모두 빨갛고 견고하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백가명서百家名書》에, "빈랑을 생으로 먹은 자는 안개 기운을 물리칠 수 있고, 젊은 얼굴빛이 머물러 있게 하며, 이빨을 굳게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 이 말은 믿을 만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창居昌의 감, 보은報恩의 대추, 밀양密陽의 밤, 충주忠州의 수박, 회양淮陽의 해송자海松子, 안변安邊의 배가 가장 이름이 있다. 《사기史記》에서는 안읍安邑의 대추와 북쪽 땅의 밤이라고 했다.

54 야자과에 속하며, 아시아 열대지방에서 나는 상록교목常綠喬木. 그 열매는 달걀처럼 생겼는데, 식용 또는 약재로 두루 쓰인다.

55 산이나 습지, 또는 불결한 곳에서 발생하는 나쁜 가스로 인하여 생기는 열병, 또는 피부병.

《설부》에 말하기를, “남쪽 지방에는 해조수海棗樹가 있다. 곧게 솟아올라 3, 40길이나 되고, 5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무척 커서 술잔만 하고, 매우 달고 맛있다. 진晉나라 때 입읍林邑 땅에서 100개를 바쳐 왔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본다면 이소군李少君이 말한, “대추의 크기가 수박만 하다”라고 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

《소설》에 말하기를, “글단契丹(거란)이 회흘回紇(위구르)을 쳐서 파하고 수박씨를 얻어다가 쇠똥을 덮어서 심었더니 그 열매가 커서 박과 같은데 빛깔은 푸른 옥 같았다”라고 했다. 《완위여편宛委餘編》에 말하기를, “중국에는 처음에는 수박이 없었다. 금金나라로부터 중국에 들어와서 비로소 생겼다”라고 했다. 또 《본초本草》에는, “단 외(甛瓜)를 물에 담근 것이나, 꼭지가 둘인 것은 모두 사람을 죽인다”라고 했다. 단 외라는 것은 곧 시속에서 말하는 참외이다.
또 말하기를, “호과胡瓜가 늙으면 빛이 누렇게 된다. 이것을 황과黃瓜라고 한다”라고 했다. 이것이 지금 항상 먹는 오이이다. 대개 옛날에 외라고 하던 것은 모두 단 외를 가리켜 한 말이다.

중국의 교주交州 · 광주廣州 지방에는 가지를 심어서 3, 4년이 되고 보면 큰 나무가 되는데, 열매가 익을 때마다 나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땄다. 2년이 지나면 나무가 늙어서 열매가 드물게 열었다. 이것을 베어 버리고 따로 어린 것을 심었다. 지금 시속에서 말하기를, “가지나무에 목을 맨다”라고 하는 것이 헛말이 아니다.

남만南蠻의 감은 초시草柹이다. 봄에 나서 가을에 열매가 여는데 그 맛이 감과 같다. 원래 이것은 남만에서 나는 것이다. 근래에 한 사신이 중국에서 그 씨를 얻어 왔으니 역시 이상한 과실이다.

《사기史記》에 보면, "구장蒟醬"[56]이란 말이 있다. 상고하건대 《본초本草》에 말하기를, "이것은 덩굴에서 열매가 여는데 오디〔桑〕와 비슷하다. 꿀에 재워서 먹는다. 기주夔州와 영남嶺南에서 난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구장은 유독 서역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갑산甲山 땅에는 풍속에 두을죽頭乙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복분자覆盆子[57]처럼 생겼는데, 꿀을 찍어서 먹는다. 의심컨대 이런 종류가 아닌지 모르겠다.

능금〔林檎〕에는 새가 온다고 해서 글자를 금禽 자 변에 쓰고, 배〔梨〕는 명치〔膈〕를 이롭게 한다고 해서 글자를 이利 자 변에 쓴다. 감柑은 맛이 달다고 해서 글자를 감甘 자 변에 쓰고, 대추〔棗〕는 가시가 있다고 해서 글자를 극棘 자 변에 쓴다. 석류는 심으면 버드나무가 된다고 해서 글자를 유柳 자 변에 쓴다. 그러니 옛 사람들이 글자를 만든 것은 대개 그 뜻이 있는 것이다.

과실나무에는 접을 못 붙이는 나무가 없다. 박이나 오이까지도 모두 접을 붙이면 된다. 이것은 참으로 조화造化의 이치이다. 다만 접붙인 나무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씨를 심으면 도로 본래의 과실이 열리고 만다. 이것도 이치가 또한 그러한 것이다.

31–6 약藥

의방醫方에 실려 있는 말에, 곡식을 끊고도 배고프지 않은 약은 황정黃精[58] ·

56 후추과에 속하는 풀. 높이 3척 내외이고, 봄철에 흰 꽃이 피며 늦은 여름에 열매를 맺는다.
57 고무딸기의 열매.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관목落葉灌木. 우리나라 각 지방에 저절로 난다.
58 죽대의 뿌리. 비위脾胃를 돕고 원기를 더하는 약재.

천문동天門冬[59] · 서여薯蕷[60] · 선복근旋葍根(덩굴 풀. 선화旋花의 뿌리) · 하수오何首烏(감자의 일종, 다년생 만초蔓草) · 백합百合 · 송백피松白皮(소나무 껍질 속에 있는 하얀 가죽) · 상수리 · 연자우蓮子芋(연밥. 연꽃의 열매) · 호마胡麻 · 백지마白脂麻 · 만청蔓菁(순무. 무의 일종) · 임자荏子(들깨) 등이라 했다. 이것은 모두 쪄서 먹는다. 또 백출白朮(엉거시과에 속하는 다년초. 이뇨利尿 · 건위제健胃劑로 씀) · 복령茯苓(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버섯) · 갈근葛根(칡의 뿌리) · 송엽松葉(소나무 잎) · 백엽栢葉(잣나무 잎) · 송지松脂(소나무 진) · 밤 · 잣 · 대추 · 능감菱芡(마름) · 진자榛子(개암) · 흑두랍黑豆蠟도 모두 먹을 수 있다.

또 연진복기법嚥津服氣法이란 것이 있다. 대체로 모든 배고프지 않은 약은 반드시 곡식을 끊은 뒤에라야 효험을 본다고 한다. 백지마白脂麻는 풍속에 참깨이고, 임자荏子는 풍속에 말하는 물깨(水荏)이다.

상고하건대 《잡기雜記》에 말하기를, "선약仙藥에는, 창산옥예昌山玉蕊 · 야산화옥夜山火玉 · 서요경주西瑤瓊酒 · 벽해낭채碧海琅菜 · 공동영과空洞靈瓜 · 부상단심扶桑丹椹 · 종산백교鍾山白膠 · 낭풍석뇌閬風石腦 · 대미자마大微紫麻 · 태극정천太極井泉 · 야진일초夜津日草 · 청진벽적靑津碧荻 · 원구자내圓丘紫柰 · 백수영합白水靈蛤 · 팔천적해八天赤薤 · 삼십육지三十六芝 · 반룡흑태斑龍黑胎 · 예수정어醴水鼎魚 · 수조교리水棗交梨 · 붕악전류崩岳電柳 · 염산야일炎山夜日 · 적하강벽赤河絳璧 · 서향부로西鄕扶老 · 현포경유玄圃瓊腴 · 몽산봉폐蒙山鳳肺 · 영구난혈靈丘鸞血 · 구단금액九丹金液 · 현상강설玄霜絳雪 · 회수옥정徊水玉精 · 백랑상白琅霜 · 자장월례紫漿月醴 · 홍단虹丹 · 북제현주北帝玄珠 · 오정금五精金 · 영금靈金 · 황금黃金 · 아석복룡牙石伏龍이다"라고 했다.

이李가 말하기를, "수조水棗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는데, 진고眞誥가 말하는

59 호라지 풀. 뿌리는 해소 · 담 · 객혈 등을 치료하는 약재로 쓴다.

60 마. 서여과薯蕷科에 속하는 다년생 만초蔓草. 뿌리를 약으로 쓴다.

화조火棗[61]와 같은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의방醫方에 말하기를, "인삼人蔘은 상당上黨에서 나는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친다. 백제 · 신라를 중中으로 치고, 고구려를 하下로 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산에나 나지 않는 곳이 없다.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비싼 값을 주고 사간다. 그런 때문에 중국 도성에 가는 자는 이것을 돈처럼 생각하고 가지고 간다. 가을철이 되면 언제나 서북지방의 오랑캐들이 우리 국경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캐가는 자가 많지만, 금하지 못하고 있다. 듣건대 인삼 중에 특별히 큰 것은 너댓 살 된 어린애 만하다고 한다. 혹은 이런 것을 캐면 이내 죽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감히 캐지 못한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 사는 백성이 풍질風疾에 걸려 문 밖 출입을 하지 못했다. 계사년간癸巳年間에 전쟁과 기근이 들었기에 토사자兎絲子(새삼 씨) 몇 섬을 따서 이것으로 밥을 지어 늘 먹었더니 묵은 병이 낫고, 그 위에 기운이 건강해져서 병을 앓기 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한다.
또 한 사람은 토사자를 조금 먹었는데도 음식을 항상 곱절이나 먹고, 기운과 혈기가 좋아졌다. 그러더니 갑자기 등에 종기가 났다. 이에 금은화金銀花(인동忍冬 덩굴 꽃)의 즙을 내어 이틀 동안에 두어 근을 먹었더니 종기가 바로 나아버렸다고 한다. 대개 토사자는 능히 기운을 보하기 때문이다.

오가피五加皮는 일명 금염金鹽이라고도 하고, 또는 문장초文章草라고도 한다. 이것은 오거성五車星의 정기를 응해서 나는 까닭으로 잎이 5개 난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차라리 한 움큼 오가피를 얻는 것이 낫지, 수레에 가득한 금과 옥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문장초는 술을 만들지만 금은 귀할 것이 없다"라고 했다. 이것은 대체로 상품上品의 신령스러운 약이다. 다만

61 신선이 사는 곳에 있다는 대추나무. 이 대추를 먹으면 수명이 천년 간다 함.

술을 만들면 너무 독해지니 물을 끓여 차茶를 만들어서 마시는 것도 역시 좋은 효험이 있을 것이다.

주사朱砂[62]는 성질이 차고 독이 없다. 그러나 불에 들어가면 곧 뜨거워져서 독이 생긴다. 그런 때문에 약으로 쓸 때에는 날 것을 쓴다.
부자附子[63]는 성질이 덥고 독이 있다. 그러나 불에 넣으면 독이 없어진다. 그런 때문에 약으로 쓰려면 익은 것을 써야 한다.
또 감초甘草[64]는 불에 들어가면 곧 더워지고, 유마油麻(호마胡麻)는 불에 들어가면 곧 차진다. 감자甘蔗는 졸여서 사탕을 만들면 더워지고 물에 끓이면 차진다. 이렇게 그 성질이 불을 만나면 변하는 것이 많다.

바다 위의 선창船窓에는 의이薏苡(율무)[65] 가루로 풀을 쑤어 바르면 아무리 바람이나 물결을 만나도 오래 견디어 낸다. 지금 전선戰船에는 모두 이 법을 쓴다. 그것이 장기瘴氣를 이겨내고 습기를 없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만 의방醫方을 상고하건대, 의이는 풀 종류에 속한다. 이것을 오래 먹으면 기운을 손상시킨다고 하니, 대개 몸을 보하는 약이 아닌 때문이다.

상기생桑寄生(뽕나무 겨우살이. 약재로 씀)은 드물고 귀한 물건이다. 수백 년 늙은 뽕나무가 아니면 나지 않는다. 그런 때문에 백령도白翎島에서 이것을 따서 위에 바쳐 임금의 약으로 쓰게 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변방을 지키던 장수가 늙은 뽕나무를 모두 베어다가 관棺을 만들어 권세 있고 귀한 집에 주었기 때문에 기생寄生은 드디어 씨가 없어졌다. 대개 관재棺材에 뽕나무가 좋다는 것은

62 짙은 홍색의 광택이 있는 육방정계六方晶系의 덩어리 광물. 정제精製하여 약재로 쓴다.
63 바곳의 구근球根. 체온이 부족한 데 원인된 모든 병에 효력이 있으나, 극약이므로 맞지 않으면 해가 된다.
64 콩과에 속하는 다년생 약용 식물. 또 그 뿌리.
65 포아풀과에 속하는 1년초. 그 열매는 약재로 씀. 여기에서는 그 열매를 말한다.

습기를 없애기 때문이다. 황벽黃蘗[66]도 역시 좋다고 한다.

의방醫方에서 말하는 천궁川芎·천귀川歸·진초秦椒·파두巴豆·천련자川練子·천우슬川牛膝·월치越梔·회곡淮麯·무궁撫芎·진사辰砂 따위는 모두 그 나는 땅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광출廣朮을 아름답다고 한다"라고 했다. 지금 사람들은 우리나라 광주廣州를 이렇게 말한다. 황미黃米라는 것은 곧 찹쌀을 가리키는 것이다. 지금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황주黃州 쌀을 좋다고 하니 우스운 일이다.

보골지補骨脂[67]를 또는 호구자胡韮子라고도 한다. 상고하건대, 《본초本草》에 보면, "이것은 광남廣南과 파사국波斯國에서 나는데, 말이 잘못 전해져서 파고지破故紙가 되었다. 옛날 동의東醫가 알지 못하고, 이것이 오래된 휴지休紙라고 해서 약에 넣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으니, 우스운 일이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여지승람》에 보면, "우리나라 흡곡歙谷 지방에서도 역시 이것이 난다"라고 한다. 이것은 다르면서도 같은 것이 아닐까.

《본초本草》에 말하기를, "《주례周禮》에 가초嘉草[68]를 가지고 벌레의 독을 없앤다고 했다. 이 가초란 곧 양하蘘荷이다. 이것으로 보면 독충의 해가 생긴 지 오래다. 의원醫員에 오변吳忭이란 자가 있었다. 일찍이 말하기를, 자기가 해서海西에 있을 때 어느 사람이 새우젓을 사 먹고 배를 몹시 앓았다. 중독된 줄을 알고 곧 소주를 먹였더니 먼저 먹은 새우젓을 토했다. 그러나 새우들은 벌써 움직여서 산 생선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그 병이 드디어 나았다고 한다."

66 운향과에 속하는 낙엽교목. 내피內皮는 노란 물감의 원료가 된다.

67 파고지破古紙. 약초의 한 가지로, 잎은 깻잎 비슷하며, 여름과 가을에 연보랏빛의 꽃이 핀다.

68 가하嘉荷의 이명異名. 생강과에 속하는 숙근초宿根草.

《회남자》에 말하기를, “천웅天雄[69]을 먹으면 사람이 무용武勇이 있게 된다”라고 했다. 《본초本草》에는, “갈계鶡鷄[70] 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용맹스럽고 민첩해진다”라고 했다. 듣건대 왜놈들은 싸움에 나갈 때는 술을 마셔서 담을 크게 한다고 한다. 허의후許儀後가 말하기를, “일본 군사는 술을 가지고 담을 크게 만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사문斯文 노경린盧慶麟이 쇳물을 1년 넘어 먹었더니 정신이 흐려지고 이내 죽었다. 참판參判 유대정兪大禎은 송진을 여러 해 동안 먹었다. 여성위礪城尉 송인宋寅, 참의參議 이해수李海壽는 항상 하수오何首烏를 먹었고, 동지同知 송영구宋英耈는 솔잎을 먹었는데, 모두 등창이 나서 죽었다. 그러니 약을 먹는 자는 마땅히 경계할 것을 알아야 한다.

의서醫書에 말하기를, “사람의 오줌은 갈증과 기침을 그치게 하고, 심장과 폐肺를 윤택하게 한다. 또 어혈瘀血[71]을 고치고, 속에 있는 화기火氣를 속히 내린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사내아이의 오줌이 좋다”라고 했다.

옛날에 한 늙은 부인이 나쁜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의 오줌을 40년 동안 먹었더니 얼굴 모양이 변해져서 젊어지고 다른 병도 없어졌다고 한다. 자기의 오줌을 먹는 것을 윤회주輪回酒라고 한다. 단계丹溪는 이것을 탈태환골奪胎換骨[72] 시키는 공이 있다고 말했다. 동지同知 정협鄭協이 젊었을 때 울화병을 앓았는데, 윤회주輪回酒를 먹어 크게 효험이 있었다. 정랑正郞 곽지선郭止善은 이것을 여러 해 동안 먹었어도 효험이 없이 마침내 죽었다.

69 까마귀 머리의 뿌리. 부자附子보다 독성毒性과 약력藥力이 더하다.

70 할단鶡旦새. 닭처럼 생기고 잘 싸운다.

71 피가 순하게 돌지 못하고 한 곳에 뭉쳐 생기는 병. 흔히 타박상에 의하여 생긴다.

72 용모가 전보다 전연 달라지도록 예쁘게 변함.

상고하건대《의학입문醫學入門》에 보면, “비위脾胃가 허하거나 혈기가 약한 자는 반드시 보약을 먹어서 화기火氣를 내려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한결같이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속에 말하기를, “부종浮腫[73]을 앓는 사람은 오래된 들기름을 먹으면 가장 효험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혹 이것을 먹고 설사가 막히지 않아 죽은 일도 있다.《연수서延壽書》에 보면, “병든 사람은 마땅히 오래 묵은 기름은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더구나 이것을 많이 먹어서는 안된다.

옛 사람이 말하는 우전차雨前茶라는 것은 대개 3월 중 곡우穀雨 전의 차인데, 처음 나온 잎을 따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 혹은 말하기를, 이것은 정월 중 우수雨水 전의 것이라고 한다.
이제현李齊賢의 시詩에, “향기가 맑아 일찍이 한식寒食 전의 봄을 따네〔香淸曾摘火前春〕”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화전火前이란, 한식寒食날 불을 금하기 전에 따서 만든다는 말이다. 신라 흥덕왕興德王 때 사신이 당나라에서 돌아오면서 차茶의 종자를 얻어 가지고 왔다. 이것을 명하여 지리산智異山에 심게 했다. 지금 남쪽 지방 여러 고을에서 나는 차는 곧 그때에 심은 것이라고 한다.

《설부》에 보면, “모과〔木瓜〕를 태운 재를 보릿기울밥에 섞어서 물속에 던져 물고기에게 먹이면 이내 죽는다. 후추를 가루로 만들어 쌀밥에 섞어서 참새에게 먹이면 곧 죽는다. 지금 사람들은, 후추나무 껍질을 물에 담가 흘려보내면 물고기가 모두 죽어서 뜬다. 남칠藍柒(쪽의 가루)을 밥에 섞어서 파리에게 먹이면 이내 죽는다. 또 계피桂皮를 나무에 바르면 그 나무가 곧 말라 죽는다”라고 한다.

73 피하皮下 · 점막粘膜 밑에 수분水分이 괴는 증세.

담바고淡婆姑(담배)라는 것은 풀이름이다. 또한 이것은 남령초南靈草라고도 한다. 근래에 와서 왜국에서 나는데, 잎을 따서 바싹 말리고 불에 태운 것을 병든 사람이 대통으로 그 연기를 빨았다가 곧 도로 내뿜는다. 그 연기는 콧구멍으로 내보낸다. 이것은 담痰(가래)과 습기를 잘 없애고 기氣를 내리며, 또 술을 깨게 한다. 지금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심어, 그 법을 쓰고 있는데, 매우 효험이 있다. 그러나 독도 있으니 경솔히 쓰지 말 것이다.

혹은 전하기를, "남만국南蠻國 여인에 담바고淡婆姑라는 자가 있었는데, 여러 해 동안 가래 끓는 병을 앓았다. 그러던 것이 이 풀을 먹고 나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이다"라고 했다.

사자연謝自然이 말하기를, "약을 먹으려면 이내 곡식을 끊는 것이 좋다. 대체로 백엽栢葉 · 복령茯苓 · 구기枸杞 · 호마胡麻 등은 오래 먹어도 좋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본다면, 지금 사람이 약을 먹으면서 곡식을 끊지 못하고서 효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는 잠시 동안 약을 먹고서 속히 효험이 있기를 바라니 어찌 잘못된 일이 아니랴.

〈칠발七發〉에 보면, "작약芍藥의 장醬"이라 했고, 〈자헌부子虛賦〉에는, "작약芍藥이 조화調和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갖추어진 뒤에 바라야 한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작약의 뿌리는 주로 오장五臟을 조화시켜 독기毒氣를 물리치기 때문에 난계오미蘭桂五味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위소韋昭는 말하기를, "음식의 독을 없애는 데는 작약보다 좋은 것이 없다. 그런 때문에 유독 약藥 자의 이름을 얻은 것이다"라고 했다.

옛 시詩에 보면, "위에는 100척 되는 실이 있고, 아래에는 천년 된 복령이 있네〔上有百尺絲 下有千歲苓〕"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사기史記》에 말하기를, "복령茯苓은 토사兎絲 밑에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토사가 숲 속이나 콩밭 속

에 많이 나서 옛날 말하던 것과는 다르다. 운서韻書에 말하기를, “나무에 있는 것을 여라女蘿라고 하고 풀에 있는 것을 토사라고 한다”라고 했다. 이것은 한 가지 물건으로서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토사는 뿌리가 없이 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처음 날 때에 그 뿌리가 매우 가늘고, 콩 줄거리에 붙으면 뿌리는 떨어져 덩굴이 된다고 한다. 늙은 농부의 말이 이와 같았다.

온눌제膃肭臍(해구신海狗腎. 해구海狗는 물개)를 《본초本草》에서 말하기를, “신라 해구의 외신外腎이다”라고 했다. 지금 강원도江原道 평해군平海郡에서 난다. 그러나 이것을 얻기가 몹시 어렵다. 우리나라 사람은 처음에 이것을 어디에 쓰는지 몰랐다. 임진왜란 이후에 중국 장수가 나오자 이것을 구하는 자가 많았다. 지금에는 요동장관遼東將官이 글을 보내 이것을 찾는 자가 계속해 있어 몹시 폐를 끼치고 있다.

저미고猪尾膏(돼지 꼬리로 된 고약)라는 것은 죽는 사람을 일으켜 살린다. 이것은 마마를 고치는 성약聖藥이다. 옛 풍속에 어린아이의 마마는 약 쓰는 것을 금하고, 앉아서 죽기를 기다렸다. 그러던 것을 선왕조先王朝 때 어의御醫 허준許浚이 비로소 이 약을 써서 살아난 사람이 자못 많았다. 이로부터 민간 사람들이 어려서 죽는 것을 면한 자가 많았다.

《동명기洞冥記》에 보면, “한漢나라 원정元鼎 5년에 질지국郅支國에서 마간석馬肝石[74]을 바쳤다. 이것을 절구에 빻아서 구전단九轉丹[75]에 섞어서 먹었더니 몇 해를 지나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이것을 또 머리카락에 발랐더니 흰 머리가 모

74 약돌의 이름. 《동명기洞冥記》에 의하면, 질지국郅支國에서 마간석馬肝石을 바쳤는데, 반은 푸르고 반은 희어 마치 말의 간肝과 같았다고 한다.

75 아홉 번 고아 만든 단사丹砂. 단사는 곧 영사靈砂이니 수은水銀에 유황硫黃을 넣어 만든 것.

두 검어졌다. 이때 공경公卿들이 말하기를, “나는 방백方伯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오직 마간석馬肝石 얻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른바 문성文成이 마간馬肝을 먹었다는 것은 아마 이것을 가리켜 한 말일 것이다.

《육방옹화기陸放翁華記》에 말하기를, “웅담熊膽(곰의 쓸개)은 기이한 약이다. 집에 어린애가 있으면 이것이 없을 수 없다. 이것을 풀줄기로 찍어서 물에 넣는다. 급히 머리가 도는 자에게 좋다. 이것은 용기가 모이는 곳이 쓸개인 까닭이다. 지금의 풍속에서도 잡병에 모두 웅담을 쓰는 것은 대개 이 때문이다.”

속방俗方에, 목구멍에 종기가 나거나 막히면 박꽃 위에 앉은 나비를 불에 태워 가루를 내어가지고 목구멍에 불어 넣는다고 한다. 혹은 또 말하기를, “그 나비에서 용뇌龍腦[76]의 냄새가 나는 것이라야 효력이 있다”라고 한다. 이것은 능히 기운을 흩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조야첨재朝野僉載》에 보면, “범이 독이 든 화살에 맞았을 때는 푸른 진흙을 먹어서 그 독을 푼다. 산돼지는 독이 든 화살에 맞으면 제니薺苨[77]를 쫓아가서 먹는다. 꿩은 매에게 상하면 지홍엽地黃葉[78]을 씹어서 바른다. 쥐가 독약을 먹어 취하는 것 같으면 흙탕물을 찾아 먹으면 금시에 회복된다”라고 했다.
《북몽쇄언北夢瑣言》에는, “새끼 쥐가 뱀에게 물리면 어미 쥐가 콩잎을 씹어 물린 곳에 발라주면 모두 살아난다”라고 했다. 또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일찍이 꿩이나 숭어는 상처가 생겼을 때는 모두 송진을 그 상처에 붙인다”라고 했다. 이것은 더욱 괴상한 일이다.

76 용뇌향龍腦香. 용뇌수龍腦樹에서 채취한 무색無色 투명의 판상결정板狀結晶. 지금도 구강口腔 약재로 쓴다.

77 초롱꽃과에 속하는 다년초多年草. 뿌리는 다소 비대한데 약재로 쓴다. 모싯대.

78 약초의 하나. 잎의 겉과 안에 가는 털이 나고, 여름에 줄기 끝에 자홍빛 꽃이 핀다.

대체로 새나 짐승이나 벌레까지도 저들의 독을 풀 줄을 안다. 더구나 만물 중에 가장 신령스럽다는 사람으로서 약의 성품을 모르다니 될 말이냐.


권20

32. 훼목부卉木部

32-1 화花

노두老杜의 〈강매시江梅詩〉 주註에 보면, “강매江梅는 강변에 있는 매화다. 만일 고개에 있다면 영매嶺梅라고 했을 것이고, 들에 있다면 야매野梅라고 했을 것이며, 궁중에 있으면 궁매宮梅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범지능范至能의 《매보梅譜》에 말하기를, “매화 씨가 떨어져 들에 나서 한 번도 옮겨 심거나 접붙이지 않은 것을 강매라고 한다”고 했다.
또, “동지冬至 전에 피는 것을 조매早梅라 하고, 그 가지가 구부러지고 푸른 이끼가 끼고 비늘 같은 껍질이 생겨 파리한 것을 고매古梅라 한다. 꽃이 강매江梅에 비해서 빛이 연하여 살구꽃과 같은 것을 행매杏梅라 한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노두老杜의 주註는 잘못된 것인 듯싶다.

범석호范石湖의 《매보梅譜》에 보면, “납매蠟梅[1]는 본래 매화 종류가 아니다. 매화와 같은 때에 꽃이 피지만 그 빛이 꿀벌집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이다”라고 했다. 지금에 말하는 황매黃梅인데, 세상에서 가매假梅를 납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인 것 같다.

함경북도 경흥慶興 땅에 덩굴로 자라는 목단牡丹이 있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이것은 송나라 화석강花石綱의 물건이라고 했다. 휘종徽宗이 천하의 기이한 꽃과 이상한 풀들을 간악艮嶽에 모았더니, 금金이 송宋을 함락시키자, 이것을 가지고 북쪽으로 돌아가서 오랑캐 땅에 옮겨 심었다 한다. 대개 우리나라 북쪽 변방은 원元나라 이전에는 오랑캐 땅이었다. 오국성五國城은 회녕會寧에서 또

1　녹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관목落葉灌木. 생강나무. 황매黃梅.

한 얼마 멀지 않다고 한다.

중국에서 말하는 장미는 모두 붉은빛이고 덩굴로 난다. 그런 때문에 당시唐詩에 말하기를, "한 시렁 긴 가지가 만 떨기 꽃인데, 연붉고 짙푸른 빛 창가에 매달렸네(一架長條萬朶春 嫩紅深綠小窓勻)"라고 했다. 또, "작은 뜰을 반쯤 꺾어 홍장미 심었더니 한 시렁 장미 꽃동산 가득히 향기로워라(小庭半折紅薔微 一架薔薇滿院香)"라고 했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에도 역시 있는 것이나 아주 드물다. 지금 누런 장미는 곳곳에 있다. 그러나 전기傳記에는 실려 있지 않다. 그러니 아마 이것은 중국에는 드문 꽃인 듯싶다.

내가 안변安邊에 있을 때에, 어느 날 보니 평지에 연꽃 한 송이가 났는데 매우 무성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곳 사람들이 말하기를,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이 부사府使가 되어 왔을 때 못을 파고 연꽃을 심었더니 이제 그 못이 없어진 지 수십 년이 되었으나 아마도 그때 씨가 떨어졌던 것이 난 것일 겁니다"라고 했다. 세속에서 말하기를, "연꽃 씨는 100년을 지나도 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또 "연 뿌리는 땅에 내버려두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런 때문에 강릉江陵 함담지菡萏池에서는 1년을 걸러서 한 번씩 연꽃이 난다고 하니 괴상한 일이다.

내가 어렸을 때 집에 국화 한 떨기가 있어 처마 밑 음지陰地에 났는데 가을이 되면 꽃이 핀다. 그 꽃이 곱고 누르러서 볼 만했다. 감국甘菊과 비슷하나 조금 작다. 나는 그 국화 이름을 알지 못했다. 대개 모든 풀이나 나무는 심지 않았어도 저절로 나는 것이 많다.

《본초本草》에 말하기를, "국화에는 두 종류가 있다. 자줏빛 줄기에 향기롭고 맛이 달며, 잎은 국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것을 국화라고 한다. 푸른 줄기에 키

가 크고 쑥과 같으며, 맛이 써서 먹을 수 없는 것을 의薏라고 하여 참국화가 아니다"라고 했다. 《국보菊譜》에는, "신라 국화를 옥매玉梅라고 한다. 꽃이 피는 것은 9월 그믐께인데 잎이 1,000개나 되고 하얗게 핀다"라고 했다. 지금의 백국白菊이 곧 이것이다.

동백나무는 남쪽 지방 바닷가에 난다. 잎은 겨울에도 푸르고, 10월 이후에야 꽃이 핀다. 꽃의 빛깔은 진홍빛이고 오래되어도 시들지 않는다. 이것은 대개 옛날에 말하던 산다화山茶花이다. 꽃이 필 때마다 푸른 새가 날아와서 그 꽃 순을 먹으며 밤이 되면 혹 그 나무에서 자기도 한다. 최원우崔元祐가 무진茂珍 객사客舍에서 지은 시詩에, "긴 대나무 집집에서 비취가 우네〔脩竹家家翡翠啼〕"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상고하건대 유사형劉士亨이 산다山茶를 읊은 시에, "조그만 동산 아직 춥고 따뜻하지 못할 때, 해홍화海紅花 피었으니 그 경치의 진전進展 더디구나〔小院猶寒未暖時 海紅花發景遲遲〕"라고 했다. 양신楊愼이 말하기를, "해홍海紅은 곧 산다山茶이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큰 것은 산다山茶라 하고, 작은 것을 해홍海紅이라 한다"라고 했다.

치자梔子는 《한서》에 나온다. 《본초本草》에서는 지자支子라 했고, 목단木丹이라고도 했다. 꽃은 흰 빛깔로 6개가 피는데, 매우 향기롭다. 불서佛書에 말하는 담복薝蔔이 이것이다. 지금에는 산치자山梔子를 약으로 쓴다. 이것이 곧 월치越梔이다. 동파東坡의 시에 보면, "여섯 꽃 담복은 숲 사이 부처일세〔六花薝蔔林間佛〕"라고 했다. 증단백曾端伯은 말하기를, "치자 꽃을 선우禪友라 한다"라고 했다.

영산홍映山紅은 나무의 이름이다. 꽃이 피기는 두견杜鵑보다는 뒤이고, 철쭉보다는 이르다. 그리고 나무는 척쭉보다 높고 크다. 지금 남쪽 지방에 많이 있

다. 운서韻書에 두견화杜鵑花를 가지고 영산홍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주일용周日用이 말하기를, "백목단白牡丹을 5가지 빛깔의 꽃으로 만들려면 그 뿌리에 자줏빛 풀의 즙을 내어 부으면 자줏빛으로 변하고, 붉은 꽃으로 즙을 내어 부으면 붉은빛으로 변한다"라고 했다. 또《소설》에 보면, "연꽃씨를 여러 해 동안 항아리 속에 넣어두었다가 심으면 푸른 연꽃이 나온다"라고 했다. 이것은 이치가 없다고만 할 수 없는 말이다.

봉선화를 송나라 사람들은 금봉화金鳳花라고 부른다. 상고하건대《소설》에 보면, "봉선화는 붉은 것, 흰 것, 자줏빛 등의 몇 가지가 있다. 강남江南 풍속에 부인들이 이 꽃으로 손톱에 물을 들인다"라고 했다. 또 철쭉에는 붉은빛과 흰빛의 2가지 종류가 있다. 지금 남쪽 지방에도 역시 이것이 있다. 전배前輩들의 시詩를 보면, "흰 철쭉이 붉은 철쭉과 섞여 있네〔白躑躅交紅躑躅〕"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32-2 초草

옛날에는 울창鬱鬯[2]을 부어 강신降神하는 데 썼다고 한다. 그 주註에 보면, 울창초鬱鬯草를 쪄서 즙을 내어 술을 빚으면 그 기운이 향기롭다고 했다.《의학입문醫學入門》에 보면, "울금鬱金은 몹시 향기롭지 못하다. 다만 그 기운이 가볍게 떠올라 두루 술기운을 멀리 가게 하여 신神을 내려오게 한다. 지금 여러 곳에 이것이 있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울금초鬱金草는 대개 이것이다. 상고하건대《본초本草》에 말하기를, "울금향鬱金香은 대진국大秦國에서 난다.

2 제례祭禮 때 쓰는 술에 넣어 빚는 일종의 향초香草. 즉 울금鬱金.

2, 3월에 꽃이 피는데 그 모양이 홍람紅藍[3]과 같고, 그 꽃은 향기롭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보면 이것은 아마 2가지 종류의 것이 아닌가 싶다.

옛날에는 시蓍[4]를 가지고 점을 쳤다. 상고하건대 《본초本草》에 보면, "시초蓍草는 다북쑥(蒿) 종류이고, 모양이 국화와 같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시초는 천년에 한 포기에서 100개의 줄기가 난다. 지금 사람들은 그 모양이 같은 것을 구하지 않고 꼭 한 포기에 줄기가 100개 있는 것만 구하다가 이것을 얻지 못하면, "시초는 우리나라에서는 나지 않는다"라고 단정해 버리니 잘못된 것이다. 교수敎授 박자우朴子羽가 말하기를, "일찍이 밭 사이에서 이상스런 풀을 보았는데 한 뿌리에 줄기가 3, 40개나 되었다. 다북쑥 같으면서 아니고, 잎은 가늘고 길며, 꽃은 국화와 비슷하여 연한 자줏빛이 난다. 《본초도경本草圖經》을 보니 이것이 시초蓍草임에 의심 없었다"라고 했다.
옛날 어느 부인이 시초를 베어다가 나무로 때어서 시초의 씨가 없어졌다고 한다. 의방醫方에 보면, 시초는 실로 약에 들어간다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풀이 밭에 많이 있었으나 사람들은 이것이 시초인 줄을 알지 못했다. 대개 시초가 귀한 물건이 아닌 때문이다. 오직 그 수壽한 것만을 가지고 길하고 흉한 것을 점쳤다. 그런 때문에 한 포기에 100개의 줄기가 나온 것은 얻기 어렵다고 했던 것이다.

조자건曹子建의 표문表文에 말하기를, "해바라기의 잎이 해를 향해 기울여도 해는 빛을 돌리지 않는다. 하지만, 해를 바라다보는 것은 그 정성이다"라고 했다. 《운부韻府》에 보면, "해바라기나 아욱의 잎은 해를 향해 가려서 그 뿌리에 비치지 않게 한다. 이른바 해바라기는 발을 지킨다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했

3 잇. 엉거시과의 2년초. 여름에 여뀌 꽃과 비슷한 꽃이 핌. 꽃 · 뿌리는 붉은 물감 원료로 쓰임. 홍화紅花 · 황람화黃藍花라고도 한다.

4 시초蓍草. 가새풀. 엉거시과에 속하는 다년초. 줄기는 점치는 데 썼다.

다. 그렇다면 해를 바라보는 것은 곧 해바라기의 잎이고 꽃은 아니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의 시詩에, "오직 해바라기 꽃이 해를 향해 기운다(唯有葵花向日傾)"라고 한 건 무슨 때문인가.
상고하건대, 아욱은 콩의 작은 것이니 콩이나 팥잎도 역시 이것을 아욱이라 하고, 또 향초香草라고 한다. 시詩에 "우리 마당 아욱을 먹는다(食我場藿)"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또 곽향藿香은 약의 이름이다. 《예문유취藝文類聚》에 말하기를, "곽향은 남쪽 바닷속에 있는 도곤국都昆國에서 난다"라고 했다.

《한서》에 보면, "형주荊州 땅에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부자鳧茨[5]를 따다 먹었다"라고 했다. 《본초》에 말하기를, "오우烏芋[6]는 사람의 위胃를 두껍게 해주어 배고프지 않게 한다. 흉년에 이것을 따다가 양식에 보충한다"라고 했다. 단계丹溪가 말하기를, "오우烏芋는 곧 부자鳧茨이니 지금 풍속에 오매烏昧라고 한다"고 했다.

상고하건대 범중엄范仲淹이 강회江淮를 다스릴 때, 크게 누리(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의 해害가 있고 가물었다. 그는 백성들이 먹는 오매초烏昧草를 바쳐, 궁중과 임금의 친척들에게도 이것을 알리라고 청하고 사치를 억제하게 했다. 이것이 곧 이 풀이다.

한창려韓昌黎의 〈진학해進學解〉에 보면, "창양昌陽[7]이 오래 살게 한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본초本草》에 말하기를, "한 치에 마디가 아홉 있는 것을 창포昌蒲라 하고, 드문드문 있는 것을 창양昌陽이라 한다"고 했다. 또 말하기를,

5 풀이름. 작작의 이명異名. 습한 밭에서 나는데 싹이 용수龍須와 같고, 뿌리는 가늘다. 먹을 수 있는 풀.

6 올방개 뿌리. 지갈止渴 · 명목明目 · 개위開胃 등에 약으로도 씀.

7 창포의 이명異名. 장생長生의 약으로 쓴다.

"땅이 얕고 습한 곳에 나며 뿌리가 큰 것을 창양이라 하고, 다만 풍습風濕을 고칠 뿐이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본다면 창양과 구절창포九節昌蒲와는 다른 물건이다. 그러니 위에 말한 창양이 오래 살게 한다는 것은 아마 이것이 아닌 듯싶다.

대체로 부들(蒲)에는 세 종류가 있다. 하나는 수초로서 자리를 만들고, 하나는 포류蒲柳로서 화살대를 만든다. 또 하나는 창포이니 이것은 약의 이름이다.
상고하건대, 《본초》에 보면, "향포香蒲는 곧 부들의 싹이니 또한 감포甘蒲라고도 한다. 이른 봄에 어린 싹이 나는데, 이것을 씹으면 달고 무르며, 매우 맛이 좋아서 김치를 만들 수 있고, 또 젓갈로도 쓴다"라고 했다. 양생서養生書에 보면, "부들 순으로 김치를 담그면 맛이 매우 좋다. 이른바 문왕文王이 창잠菖歜을 즐겼다는 것은 아마도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리라"라고 했다. 지금 생각하기에, 《운부韻府》에 잠歜은 포저蒲葅(부들로 담근 김치)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용편초龍鞭草는 함경도 바닷속에서 난다. 그 모양이 굳고 곧으며, 깨끗하고 희어서 마치 옥과 같다. 지금 사람들은 이것을 따다가 붓대를 만든다. 이 물건은 대개 낭간琅玕[8]의 종류이나, 어느 책에도 보이지 않는다. 아마 중국에는 없었던 듯싶다.

《운부군옥韻府群玉》에 말하기를, "목숙苜蓿[9]은 풀이름으로 대완大宛의 말이 좋아했다. 장건張騫이 이것을 따가지고 돌아와서 심었더니, 가을이 지난 뒤에 열매를 맺는데 검은 것이 여러 겹이었다. 세속에서는, 이것을 목률미木栗米라고 한다"라고 했다. 술밥을 쪄도 좋다. 또 이것은 나물 이름이다. 옛 시詩에, "반위에 무엇이 있는가, 목숙이 길게 어지러이 놓여 있네(盤中何所有 苜蓿長闌干)"라

8 옥과 비슷한 아름다운 돌로도 쓰지만, 여기에서는 아름다운 대나무의 이명異名으로 쓴 것.
9 거여목. 콩과科에 속하는 1년초. 소나 말의 사료로도 쓰이고, 비료로도 쓰인다.

고 했으니, 이것은 대개 세속에서 말하는 목숙 나물이다. 그러니 풀이름의 목숙과는 같지 않다.

《운부군옥韻府群玉》에 보면, "번소蘩蕭(새발쑥)는 위아蔚莪의 종류이다. 모두 봄에 나기는 하지만 맛도 다르고 이름도 각각이다. 가을에 가서 늙어지면 모두 다북쑥이라고 한다. 위아은 흰 다북쑥이라고 하고, 소蕭는 기장쑥이라고 한다. 또는 이것을 우미호牛尾蒿라고도 한다. 위蔚는 모호牡蒿라 하고, 아莪는 나호蘿蒿라고 한다. 와臥를 청호靑蒿라 하고 평萍을 뇌호藾蒿라고 한다. 이것은 또 쑥의 종류로서 호蒿는 다만 잎 등이 흴 뿐이다. 그런 때문에 이것을 백봉白蓬이라 한다. 봉蓬도 역시 호蒿이다. 또 누호蔞蒿는 풀 속의 뛰어난 풀이다. 사호邪蒿는 청호靑蒿와 같다. 옛 글에 "군자는 사호邪蒿를 먹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인진호茵蔯蒿라는 것은 가을 뒤에 잎이 떨어지나 줄기는 굳어서 마르지 않았다가 봄이 되면 다시 묵은 가지가 살아나는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

해로薤露(부추)를 상고해 보니 《본초本草》에 말하기를, "해薤는 잎이 미끄럽고 빛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해로란 것은 그 빛나고 미끄러운 것을 저장해 두기 어렵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또 의방醫方에 말하기를, "해로는 구韭(부추)와 같아서 잎이 넓고 많으며, 희면서 열매가 없다. 맵기는 하지만, 오장五臟에 들어가면 맵게 하지는 않는다. 그런 때문에 도가道家에서는 항상 이것을 먹었다. 곧 지금의 풍속에서 말하는 염교厭蕎이다"라고 했다. 이 말이 옳은지 어떤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무명이 없었다. 고려 말년에 문익점文益漸이란 이가 비로소 그 씨를 중국에서 얻어 왔다. 대개 고려 이전에는 오직 갈포葛布가 있을 뿐이었다.

상고하건대 양신楊愼이 말하기를, "면綿에는 3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사면絲綿으로, 잠즙蠶緝에서 나오고, 둘째는 목면木綿으로, 교광交廣에서 나는데 반지班枝라고 한다. 나무가 커서 한 아름이나 되는데, 꽃은 붉어서 산다山茶와 같고, 열매는 술잔만 하다. 또 셋째는 초면草綿으로 강남江南에 많은데, 봄 2, 3월이면 씨를 뿌린다. 누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니 곧 지금의 면화綿花이다"라고 했다.
구준丘濬은 말하기를, "면화綿花는 원元나라 때 비로소 중국에 들어갔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목면木綿이란 것은 곧 초면草綿으로서, 당시唐詩에 말한, "목면 꽃이 금강錦江 서쪽에 피었네〔木綿花發錦江西〕"라고 한 것은 이것이 아니다.

춘천春川에 묵응이산墨應耳山이 있다. 산에 풀이 있는데 이것을 묵응이墨應耳라고 한다. 그 뿌리는 빛이 붉고 마늘처럼 생겼다. 이것을 먹으면 사람이 여러 날 동안 배고프지 않다. 임진년壬辰年의 난리에 사람들은 이것을 많이 캐서 먹었으니, 이것은 대개 선훼仙卉이다. 풍악楓岳의 장안사長安寺 동구 안이나, 또 강릉江陵 이천伊川에도 역시 이것이 있다고 한다.

《본초本草》에 보면, "지초芝草[10]는 곳곳에 있다. 사람의 집 동산이나 채소밭에도 혹 씨를 뿌려 심는다. 그 뿌리로는 자줏빛을 물들이는 데 쓴다"라고 했다. 지금 풍속에 자초紫草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선방仙方에서 말하는 오색지五色芝라는 것은 곧 이것과는 다른 종류이다. 의심컨대 번쩍번쩍하는 자지紫芝로서 배고픈 데 먹는다는 것은 이것과는 다른 것이다.

《소설》에 말하기를, "능감菱芡(능菱과 감芡은 모두 마름의 일종)은 모두 물속에 있는 식물이다. 그러나 능화菱花는 피면 해와 등지기 때문에 차다. 또 감화芡花는 피

10 지초. 지초과科에 속하는 다년초多年草. 약재로 쓰임. 자지紫芝는 자줏빛 지초.

면 해를 향하기 때문에 따뜻하다. 대체로 새의 알은 등에 매달려 있다. 하늘을 근본으로 하는 자는 위를 친하기 때문에 날기를 잘한다. 또 짐승의 태胎는 뱃속에 있다. 땅을 근본으로 하는 자는 아래를 친하기 때문에 달리기를 잘한다"라고 했다.

소강절邵康節이 말하기를, "동물은 머리부터 나오고, 식물은 뿌리부터 난다. 머리부터 나오는 자는 그 목숨이 머리에 있고, 뿌리부터 나오는 자는 그 목숨이 뿌리에 있다"라고 했다. 그 말에 이치가 있다 하겠다.

32-3 죽竹

근죽堇竹은 곧 속담에 말하는 왕죽王竹이다. 담죽淡竹[11]은 곧 면죽綿竹, 고죽苦竹은 오죽烏竹이다. 의서醫書에 보면, "근죽堇竹·담죽淡竹을 제일 상上으로 친다. 고죽苦竹이 그 다음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약으로 쓰는 것을 가지고 한 말이다. 고죽苦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맛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두시杜詩에 보면, "맛이 써서 여름 벌레가 피한다(味苦夏蟲避)"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죽보竹譜》에도 역시 자고죽紫苦竹·황고죽黃苦竹이 있다. 그렇다면 유독 오죽烏竹을 고죽苦竹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설부》에 보면, "입죽立竹은 부남扶南에서 나는데 그 한 마디를 가지고 배를 만든다. 교광交廣에 대가 있어 그 마디의 길이가 두 길이고, 그 넓이가 한두 길은 된다"라고 했다. 《죽보竹譜》에 말하기를, "백엽죽百葉竹은 방죽篣竹이라고도 하는데, 남수南垂에서 난다. 사람이 이 나무에 다치면 곧 죽고 의원醫員도 고치지 못한다. 오랑캐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범과 표범을 찌르는데 여기에 맞으면 이내 죽는다"라고 했다.

11 참대보다 마디가 짧고 키는 더 큰 대나무.

송나라 임홍林洪이 쓴 대나무 심는 법에 보면, "대나무를 심는 것은 때가 없다. 남쪽으로 뻗은 가지를 잘라서 많은 구토舊土로 싸서 심는다. 흙은 발로 밟지 말아야 한다. 잎을 갈 때는 내버려두고 급히 뽑아버리지 말아야 한다. 만일 바람이 걱정되거든 가지를 자르고 나무에 붙들어 맨다. 뿌리가 몇 개가 되면 대의 순笋이 나기 쉽다"라고 했다.
근래에 洪汝諄이 즐겨 이름 있는 꽃과 이상한 나무를 심는데, 이것을 옮겨 심을 때에는 반드시 구토舊土를 가져다 심고, 남쪽과 북쪽에 나무를 꽂아 붙들어 매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런 때문에 아무리 접붙인 나무라 할지라도 살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것도 역시 그 법이다.

《동각잡기東閣雜記》에 보면, "태종조太宗朝 때 강릉江陵 대령산大嶺山의 대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 보리와 같고, 알맹이가 의이薏苡와 같으며, 맛은 중국 기장과 같았다.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따다가 술과 밥을 해 먹는다"라고 했다. 요새도 남쪽 지방과 지리산智異山에는 대나무 열매가 많이 열어서 그 모양이 《잡기雜記》에 써 있는 말과 같다. 그 지방 사람들이 이것으로 밥을 지어 먹는다. 하지만 대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이내 죽는다. 그런 때문에 지금 남쪽 지방에는 큰 대가 전혀 없다.
상고하건대 이전李畋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대나무 열매는 봉황이 먹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대나무 열매는 보리와 같다. 강회江淮는 이것을 이름하여 죽미竹米라 하고, 이것이 열리면 흉년이 들 징조라고 하니, 아마도 봉황이 먹던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
양신楊愼이 말하기를, "여간餘干 땅에 대나무가 있어 그 열매의 크기가 계란만 했다. 그 맛이 달아서 꿀보다도 좋다. 이것을 먹으면 사람의 마음과 폐肺를 맑고 서늘하게 해준다. 이 열매는 깊은 대나무 숲이 무성한 곳에 열린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보면 봉황이 먹던 것은 보통 물건이 아닌 것이다.

32-4 목木

《회남자》에 보면, “회야灰野의 산에 나무가 있는데, 이름을 약목若木이라 한다. 이곳은 해가 돋는 곳이다”라고 했다. 《운회韻會》에 보면, “약목이란 동해에 있는 나무의 아름이다”라고 했다. 완적阮籍의 시詩에 말하기를, “약화는 서해에서 빛나고, 부상은 영주를 가렸네(若花耀西海 扶桑翳瀛州)”라고 했다. 화花는 또한 목木으로도 쓴다.
또 《운부韻府》에 보면, “약목화若木花는 그 빛이 사방을 비친다”라고 했다. 《사문옥설事文玉屑》에 말하기를, “약목若木은 곤륜산崑崙山 서쪽에 있는데, 그 꽃은 해가 아직 뜨기 전에 빛이 나무 밑을 비친다. 그 꽃 이름을 약화若華라고 한다”고 했다. 고문古文에 보면, “사방을 비치는 꽃이 만품萬品이나 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어語에 말하기를, “소나무는 천년이 되면 옆으로 눕는다”라고 했다. 《패해稗海》에, “소나무를 심을 때 가운데 큰 뿌리를 떼 내고 오직 사방으로 뻗은 수염 같은 뿌리만을 가지고 심으면 쓰러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했다. 《유양잡조酉陽雜俎》에 보면, “소나무는 뿌리 밑이 돌에 닿으면 곧 옆으로 눕는다”라고 했다. 꼭 그런지 알 수가 없다.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소나무와 잣나무는 잎으로 뿌리를 보호한다. 그런 때문에 잎을 자르면 다시 가지가 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대개 이것은 다른 나무와 같지 않은 것이다. 경주慶州 백률사栢栗寺 산기슭에 있는 소나무는 베어도 다시 살아나니 이것은 또 무슨 이치일까.

세상에서 말하기를, “압각수鴨脚樹[12]는 암놈과 수놈이 있다. 그런 때문에 열매

12 공손수公孫樹의 별명. 잎의 모양이 오리발과 비슷한 까닭에 이렇게 일컬음. 곧 지금의 은행나무.

가 여는 나무가 있고 열지 않는 나무가 있다"라고 한다. 우리 집에 큰 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나무 위에서 연기가 나서 하늘에 닿았는데, 이것은 마치 횃불 열 개를 태우는 것만큼이나 했다. 온 집안이 모두 놀라고 괴상히 여겼다. 혹은 말하기를, "이것은 암놈과 수놈의 기운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옳은지 알 수 없다.

《패사稗史》를 상고해 보면, "은행나무의 수놈은 두 모이고 암놈은 세 모이다. 이것을 합쳐서 심는데, 혹은 연못가에 심어서 그림자가 비쳐야 열매가 연다"라고 했다. 주자朱子가 말한, "은행나무에 암놈과 수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가례家禮》에 보면, "관棺을 만드는 재목은 유삼油杉이 제일 좋다"라고 했으나 이 유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혹은 말하기를, "이것은 곧 세속에서 말하는 익가목益佳木인데 삼수三水, 갑산甲山에서 난다. 그 나무는 전나무와 비슷한데 몹시 기름기가 있다"라고 한다. 듣건대 갑산의 객사客舍는 이 나무로 기둥을 했는데, 주춧돌을 쓰지 않았다. 그러고도 100년이 지나도 새것과 같으니 그 견고하고 오래가기가 이와 같다고 한다.

《본초》에 보면, "침향沈香(열대지방에서 나는 향목香木)이란 청계靑桂·계골鷄骨·마제馬蹄·전향煎香과 같은 나무다. 바다 남쪽 여러 나라와 교광交廣에서 난다. 먼저 그 뿌리를 잘라서 여러 해 동안 썩히면 그 속만이 남는다. 견고하고 빛이 검다. 물속에 담근 것을 침향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무환목無患木은 제주濟州에서 난다. 그 열매는 구슬과 같다. 그런 때문에 속담에 이것을 무환주無患珠라고 한다. 지금 서울 안에 있는 인가에서도 역시 이것을 심어서 열매를 따는 자가 있다.

상고하건대 《본초本草》에 보면, "옛날의 무당은 이 나무를 가지고 귀신을 때려

죽였다”라고 했다. 세상 사람들은 다투어 가면서 그릇을 만드는데 이 나무를 무환無患이라고 이름 지었다 한다.

상고하건대 《본초》에 보면, “소방목蘇方木[13]은 남쪽 바다에서 난다. 이것을 물들이는 데 쓴다”라고 했다. 지금 말하는 소목蘇木은 대개 이것이니 풍속에 이것을 단목丹木이라고도 한다. 듣건대 바닷속에 있는 섬라국暹羅國 등에서는 소목을 땔나무로 쓴다고 한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포류蒲柳와 같은 연한 체질은 가을을 바라보고 먼저 떨어진다”라고 한다. 상고하건대 운서韻書에 보면, “포류는 버들〔楊〕이다. 가죽이 붉고 화살을 만들어도 된다”라고 했다. 시詩에, “묶은 갯버들을 흘려보내지 않는다〔不流束蒲〕”라고 한 것이 곧 포류이다. 그렇다면 포蒲와 류柳는 2가지 물건이 아니다.

천금목千金木은 능히 사귀邪鬼를 물리친다. 지금 풍속에 이것을 끊어서 차고 다니는 것은 병을 물리치기 위함이다. 그 진을 안식향安息香이라고 한다. 또 그 열매는 오배자五倍子라고 한다. 그 속에 모기 새끼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문합蚊蛤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어느 곳에나 이것이 있다.
상고하건대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안식향 나무는 파사국波斯國에서 나는데, 이것을 벽사수闢邪樹(재앙을 물리치는 나무)라고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아마 중국에는 없는 것일 것이다.

순천順天 송광사松廣寺에 이상한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몇백 년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도 가지와 줄기가 모두 완전하고 빛은 희며 쇠와 같다. 또 향기가 있고 몹시 맵다.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없다. 혹은 이것을 백

13 콩과의 낙엽관목. 재목은 활을 만들고 그 대팻밥으로는 붉은 자줏빛의 물감 재료로 쓴다.

단白檀이라고 한다.
또 선암사仙巖寺에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북향화北向花라고 한다. 그 꽃은 자줏빛으로, 피기만 하면 반드시 북쪽을 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대나무가 있는데 이름을 관음죽觀音竹이라 한다. 곧게 뻗어 옆가지가 없고 맨 끝에 가서 비로소 잎이 달렸으니 역시 이상한 나무다.

합환合歡은 나무의 이름이다. 《본초》에 보면, "합환목合歡木은 오동나무와 같고, 그 잎은 저녁이 되면 서로 합치는 때문에 혹은 합혼合昏이라고도 한다. 또는 그 나무 이름을 야합夜合이라고도 한다"라고 했다.
양생론養生論에 말하기를, "합환은 노여움〔怒〕을 던다"라고 했다. 당시唐詩에, "야합 꽃 피어 향기가 뜰에 가득하네〔夜合花開香滿庭〕"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위중장韋仲將의 먹 만드는 법에 말하기를, "좋은 아교〔膠〕 5냥쭝을 물푸레나무 껍질의 즙 속에 담근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물푸레나무〔梣〕라는 것은 태㯤이니, 강남江南의 번계목樊鷄木이다. 껍질을 물속에 넣으면 푸른빛이 진해져서 검어진다고 한다. 그 껍질을 《본초》에서는 진피秦皮라고 했고, 세속에서는 심梣나무라고 한다 하니, 즉 지금의 수청목水靑木이다.

왜국에는 소철蘇鐵이란 나무가 있다. 줄기가 곧고 옆가지가 없는데, 잎은 맨 위에서 나서 사방으로 흩어져 마치 우산과 같다. 만일 나무가 마르면 이것을 뽑아서 3, 4일 동안 볕에 내놓았다가 온 몸뚱이에 못을 박아 도로 땅에 심으면 이내 살아난다. 그래서 이름을 소철이라고 했다.

남만南蠻 후추는 큰 독이 있다. 처음에 왜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세속에서는 이것을 왜계자라고 한다. 지금은 가끔 이것을 심는데, 술집에서는 몹시 매운 것을 쓴다. 또는 소주에 타서 팔기도 하는데 이것을 먹은 자는 많이 죽는다.

풀과 나무도 역시 암놈과 수놈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 있다. 상고하건대 《예기》에서 모마牡麻의 주註에 웅마雄麻라고 했다. 시詩에, "비아이위匪莪伊蔚"라고 한 주에, 위蔚는 수쑥〔牡蒿〕이라고 했다.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삼과 대나무에는 암놈과 수놈이 있다"라고 했다. 《동파지림東坡志林》에 말하기를, "암대나무에서는 순이 많이 난다"라고 했다. 잡서雜書에 보면, "아가위의 암놈은 아가위의 씨가 열린 놈이고, 수놈은 마디가 서로 같지 않은데 이것으로 병이 있는 곳을 가리키면 저절로 낫는다"라고 했다. 나는 본래 병이 많다.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얻어서 가리킬 수 있단 말인가. 상고하건대 《본초몽전本草蒙筌》에 말하기를, "아가위의 수놈은 줄기가 튼튼하기 때문에 수놈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다. 지금 매를 때리는 채를 만드는 나무가 이것이다.

대체로 나무치고 좋은 재목이 되는 놈은 좋은 꽃을 피우지 못한다. 또 좋은 꽃이 피는 놈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또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나무는 좋은 재목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마치 동물에게 있어서 이빨을 준 놈에게는 뿔을 주지 않은 이치와 같다. 더구나 사람으로서 재주가 있어서 좋은 일을 혼자서 하게 내버려둔다면 이것은 또한 조물주의 꺼리는 바가 되지 않겠는가. 나는 여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있다.

33. 금충부禽蟲部

33-1 조鳥

《금경禽經》에 보면, 푸른 봉은 갈鶡이라 하고, 붉은 봉은 악鷟이라고 한다. 새파란 봉은 언鶠, 자줏빛 봉은 작鷟, 흰 봉은 숙鷫이라고 했다.
또 채형蔡衡이 말하기를, "붉은빛이 많은 것은 봉鳳이고, 푸른빛이 많은 것은 난鸞이고, 누런빛이 많은 것은 원鵷, 자줏빛이 많은 것은 작鷟, 흰빛이 많은 것은 곡鵠이다"라고 했다.

《본초本草》에 말하기를, "《주역周易》에서는 손巽[14]으로 닭을 삼고 바람을 삼는다. 닭이 5경更에 우는 것은, 해가 장차 손방巽方에 가까이 가게 되면 그 기운에 감동해서 우는 것이다. 그런 때문에 풍인風人은 먹지 못한다"라고 했다. 내가 상고해 보니, 《단계심법丹溪心法》에 말하기를, "닭은 토土에 속한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보면 닭이 반드시 축시丑時에 우는 것은 아마 땅이 축시에 열렸던 때문일 것이다.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양생養生하는 집에서는 여름에 닭을 먹지 않는다. 닭이 지네 같은 100가지 벌레를 먹어 독을 속에 길러두었다가 사람을 해치는 때문이다"라고 했다. 지금 풍속에 닭을 찐 것이 하룻밤을 지났으면 반드시 새로 구워서 먹는 것도 역시 지네의 독을 피하기 위함이다.

《패사》에 보면, "한국韓國에서 반찬을 만드는 닭을 한계寒鷄라고 한다"라고 했

14 손방巽方이라 하면 24방위의 하나로 정동남正東南쪽 방위. 또 8방方의 하나로 역시 정동남正東南. 그러나 여기에서는 역易의 손괘巽卦를 말하는 것이니 바람을 상징하는 괘.

다. 그렇다면 이 한寒이란 날씨가 춥다는 한寒이 아니고 곧 닭의 이름이다. 이것은 《본초》에, 암까마귀를 한아寒鴉라고 하는 것과 같다. 또 《위지魏志》에 보면, “마한국馬韓國에서는 꼬리가 가는 닭이 나는데 그 꼬리가 5척이 넘는다”라고 했다. 여기에서 한국韓國이라고 한 것은 역시 삼한三韓을 가리켜 한 말이다.

송나라 왕규王逵가 말하기를, “닭과 오리는 집에서 기르는 새이므로 날지 못한다. 그 밖의 들에서 사는 새들은 모두 잘 난다”라고 했다. 내가 집오리를 보건대, 이것을 들의 물에 오래 놓아먹이면 멀리멀리 잘 날아간다. 대개 집에서 기르는 것이 잘 날지 못하는 것은, 물을 마시고 쪼아 먹는 것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속박물지續博物志》에 보면, “황새는 큰 돌을 보고 그 밑에 뱀이 있는 것을 알고는 술사術士가 방술方術을 쓰듯 느릿느릿 걸으면 그 돌이 곧 구른다. 또 사람이 황새가 새끼를 품고 있는 것을 엿보고 실을 나무에 얽어 놓으면 황새는 술법으로 이것을 푼다. 지금 풍속에 황새가 능히 부적의 방술을 쓴다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말이다”라고 했다.

《소설》에 보면, “등주登州 바닷가에 새매(鶻)가 있는데 고려에서 날아온 것으로 이것을 해동청海東靑이라 한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해동청은 곧 골鶻의 종류이고, 응鷹(매)의 족속이 아니다.
또 《원사元史》를 보면, “문종文宗 때에 태평왕太平王 연첩목아燕帖木兒에게 해동海東의 백골白鶻과 청골靑鶻 1마리씩 하사했다”라고 했다. 지금 풍속에서는 송골松鶻을 해동청海東靑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것일 것이다.

《본초本草》에 보면, “효鴞(올빼미)는 혹 효梟라고도 부르고, 또는 복鵩이라고도 하는데, 고약한 소리를 내는 새이다.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구워먹기를 좋아

했다"라고 했다. 장자莊子는 말하기를, "탄자彈字를 보면 올빼미 구운 것을 생각한다"라고 했다. 왕희지王羲之가 올빼미 구운 것을 좋아했다는 것이 이것이다. 또 한漢나라 때 단오端午에는 올빼미 국을 끓여서 백관百官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나쁜 새인 때문에 먹은 것이라고 한다. 효鴞와 효梟는 한 가지 새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속박물지》에 보면, "딱따구리는 좀을 보면 입부리로 글자를 그려서 부적을 만든다. 그러면 좀이 저절로 기어 나온다. 제비는 진흙을 물어오는데 술사戌巳 방위는 피한다. 그런 때문에 제비집은 견고해서 기울어지지 않는다. 황새에는 장수석長水石이 있다. 그런 때문에 그 둥지 속에 생선을 길러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런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또 고서古書에 보면, "제비는 갑을甲乙에서 진흙을 물지 않는다"라고 했다.

《박물지》에 보면, "까치는 출입구를 태세太歲를 등지고 집을 짓는다"라고 했다. 《회남자》에 보면, "까치는 내년에 바람이 많이 불 것을 알고 아래 가지에 집을 짓는다"라고 했다. 또, 연작練鵲(때까치)은 검붉은 빛으로서, 산작山鵲이라고도 하는데, 방언에는 이것을 당작唐鵲이라고 한다.
《습유기拾遺記》에 보면, "한漢나라 장제章帝 때 조지국條支國에서 이상한 새를 바쳐왔다. 이것은 이름을 지작鳷鵲이라고 하는데, 그 모양은 키가 7척이나 되고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 그 나라가 태평할 때는 이 지작이 떼를 지어 날아다닌다"라고 했다.
또 지작은 한漢나라 때의 누각 이름이다. 왕유王維의 시詩에, "소리가 지작관에 연해졌네〔聲連鳷鵲觀〕"라고 했고, 이백李白의 시詩에도 "부질없이 지작루를 바라보네〔空瞻鳷鵲樓〕"라고 한 것이 모두 이것이다.

《유양잡조酉陽雜俎》에 보면, "파사波斯에서는 배 위에 집비둘기를 기른다. 이

것을 배 위에 싣고 수천 리 밖에 나가서 문득 한 마리를 놓아 집으로 돌려보내서 평안하다는 소식을 전했다"라고 했다. 또《패해稗海》에 말하기를, "배에는 반드시 비둘기를 길렀는데, 배가 침몰해도 비둘기는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평시에는 사람의 집에 비둘기를 많이 길렀다. 세속에 전하기를, "전조前朝 때에는 우리나라의 사신은 모두 뱃길로 해서 중국에 들어갔다. 그런 때문에 이 새를 길렀다"라고 했다. 이 말은 옳은 듯하다.

내가 중국 도성에 갔을 때 보니 영평부永平府 성 밖 시가지에 새가 떼를 지어 낮은 나무 위에 살고 있었다. 사람들이 붐벼서 손이 새 집에 닿건만, 그래도 새들은 무서워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았으니 이상한 일이다. 장자莊子가 말하기를, "지극한 덕이 베풀어진 세상에서는 까마귀나 까치의 집을 만지고 들여다볼 수가 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중국 도성의 오봉루五鳳樓 위에 매일 이른 아침이면 까마귀가 떼를 지어 날아 모이는데, 그 수를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사방으로 흩어져 간다. 내가 경인년庚寅年에 중국에 갔을 때도 이것을 보았었다. 그 뒤 정유丁酉 · 신해년辛亥年에도 중국에 갔었는데 까마귀가 낮은 처마 끝과 담 위에는 모두 모여 앉아 있으나, 대궐 지붕 위에는 한 마리도 있지 않았다. 그 까닭을 물었더니, 장진인張眞人이 부적으로 금한 뒤로부터는 10여 년이 되어도 까마귀가 감히 대궐 위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니 이상한 일이다.

근년에 남양南陽 사람 하나가 원앙새 수놈을 잡아서 이것을 구워 장차 먹으려는 참에 어디서 왔는지 원앙새 암놈 하나가 날아오더니 불 위에 내려 날개로 수놈의 몸뚱이를 덮고는 슬피 울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것을 때려도 날아가지 않다가 마침내는 불에 타죽었다. 그 사람은 뉘우쳐서 그 뒤로는 새나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

상고하건대 《고금주古今註》에 보면, "원앙새는 암놈과 수놈이 잠시도 서로 떨어지는 일이 없고, 사람이 만일 그중의 하나를 잡아가면 남은 한 놈은 잡혀간 놈을 생각하다가 죽는다. 그런 까닭에 이 새를 필조匹鳥라고 한다"라고 했다. 이런 것은 옛날에도 듣지 못하던 것인데, 아아, 이상한 일이다. 사람 중에는 새만도 못한 자가 있는 것은 무슨 때문인가.

《박물지》에 보면, "거위는 귀신을 놀라게 한다. 사람이 이것을 시험해 보았더니 좋은 효험이 있었다"라고 했다. 《동파지림東坡志林》에는, "거위는 능히 도둑을 놀라게 하고, 또 뱀을 능히 물리친다"라고 했다. 대개 거위의 똥을 먹으면 뱀이 죽는다고 한다.

천아天鵝(백조白鳥)를 진상하는 것이 공안貢案(공물을 기록한 문서)에 실려 있다. 그러나 이 새는 잡기가 몹시 어려워서 한 마리 값이 큰말 한 필 값과 거의 같다. 그래서 그 폐단이 몹시 심하다. 세상에 전하기를, 천아天鵝는 태조太祖가 좋아하던 것이기 때문에 제사에도 이것을 쓴다고 한다.

월령月令에 보면, 두더지(田鼠)가 변해서 여鴽(메추라기과에 속하는 새의 일종)가 된다고 했다.
《본초》에 말하기를 "안鷃을 여鴽라고도 부른다"라고 했다. 《소문素問》에 말하기를, "여鴽는 순鶉이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운부韻府》에는, "두더지가 변해서 순鶉이 된다"라고 했다. 또 《예기》에는, "안鷃을 가지고 반찬을 만든다"라고 했다. 그러니 대개 이것들은 같은 한 가지 새들이다. 《장자莊子》에서 척안斥鷃이라고 한 것도 역시 이것이다.
또 《본초》에 말하기를, "순鶉은 하마蝦蟆(청개구리)가 변해서 된 것이라 했다." 그러나 역시 알로 까는 것도 있으니 반드시 다 그런 것만도 아니다.

상고하건대 제비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가슴이 자줏빛이고 몸뚱이가 작고 가벼운 것은 월연越燕이고, 가슴에 검은 점이 있고 소리가 큰 것은 호연胡燕이다. 시詩 짓는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紫燕이니 해연海燕이니 하는 것은 대체로 월연越燕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내가 어렸을 때 촉새 새끼 2마리를 얻어서 채롱 속에 넣어 두고 손수 길렀다. 새가 커지자 이것을 놓아 주어서 제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그 촉새 새끼는 날아갔다가는 다시 돌아오곤 한다. 혹은 하루에 한 번도 오고 혹은 하루 걸러서 한 번도 온다. 날아와서는 내게 가까이 와서 울부짖으면서 날개를 치면서 마치 먹이를 찾는 것처럼 한다. 이에 먹을 것을 던져주어 이처럼 하기를 몇 달을 했다.
아아, 새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사람으로서 은혜를 잊고 덕을 배반하는 자가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고어古語에 말하기를, "닭은 3년까지 기르지 않고, 개는 6년까지 기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것은 대개 오래 기르면 괴이함을 이룬다고 말한 것이다. 또는, "흰 닭과 흰 개는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니, 이것을 먹으면 사람에게 해롭다는 말이다.

《이아爾雅》에 보면, "새가 날개를 좌편에서 펴서 우편을 가리는 놈은 수컷이고, 우편에서 펴서 좌편을 가리는 놈은 암컷이다"라고 했다. 도은거陶隱居가 말하기를, "털을 태워서 물에 담가 가라앉는 것은 수놈, 뜨는 것은 암놈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꼭 그런지는 알 수가 없다.

모든 짐승들은 암놈과 수놈이 있다. 또 새에도 암놈과 수놈이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말은 수놈이, 닭은 암놈이 제일이라고 한다.

《시경》에도 역시 이런 구절이 있으니, "여우 수놈은 짝을 지어 가고, 꿩은 울어 그 수놈을 구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33-2 수獸

월령月令에 보면, "천자天子는 창룡倉龍을 탄다"라고 했고, 그 주註에는, "창倉은 푸른 것과 같고, 말의 키가 8자 이상인 것을 용龍이라 한다"라고 했다. 이백李白의 〈백마편白馬篇〉에, "용마龍馬가 꽃과 눈처럼 희네(龍馬花雪白)"라고 했다. 또 왕건王建의 시에는, "오색 구름 수레에 여섯 용을 탔네(五色雲車駕六龍)"라고 했고, 《초사楚辭》에는, "너울너울 여덟 용을 탔다"라고 했고, 한문韓文에는, "목왕穆王이 8용龍을 얻어서 타고 서쪽으로 나가 놀았다"라고 했으니, 대체로 모두 이것을 말한 것이다.

송나라의 유염兪琰은 말하기를, "북쪽 땅의 말들은 수놈 1마리가 10여 마리의 암놈을 거느리고 다니는데, 암놈들은 모두 수놈만 따라다니고 다른 말 있는 곳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다. 《역易》에서 말한 "암말의 정조"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개미도 마찬가지로 다른 무리에는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때문에 마의馬蟻라고 부르고, 또는 현구玄駒라는 이름도 있다고 한다. 나는 생각하기에, 세속에서 큰 개미를 마의馬蟻라고 하는 것은 대개 그 모양이 같다는 것을 따서 한 말이니, 유兪의 말이 꼭 그런 것은 아닌 듯싶다.

《한서》에 말하기를, "예국濊國에서 과하마果下馬가 난다"라고 했다. 주에, "말의 높이는 3척이니 이것을 타고 과하果下를 갈 수 있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예국濊國은 옛날에는 조선에 소속되었었다. 과하마란 아마도 우

리나라에서 말하는 향마鄕馬이니, 중국 말에 비해서 작은 것이다. 동월董越의 〈조선부朝鮮賦〉 주註에 보면, “지금은 과하마가 없다. 대개 이것은 씨가 없어진 것이다”라고 했다.

당나귀(驢子)를 기이한 짐승이라고 한다. 아비는 말이고 어미가 당나귀인 것을 결제駃騠[15]라 하고, 아비는 당나귀이고 어미가 말인 것을 노새(騾)라고 한다. 또 아비는 당나귀이고 어미가 소인 것을 트기(駝)라 한다. 이 중에서도 결제駃騠가 가장 건강해서 하루에 천 리를 간다. 노새도 역시 사납고 힘이 세다. 맥駝은 몹시 작고 그 모양도 못났으니 이런 것을 볼 때 괴상하게 여겨진다.

당나라 묘진경苗晉卿은 건위蹇衛(절름발이 말)를 몰아 성문으로 들어왔으며, 송왕증宋王曾은 장원이 되어 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소위小衛를 타고 가서 장수를 뵈었다 한다. 또 《소설》에는 백위白衛니 흑위黑衛니 빈위牝衛니 하는 말이 많이 있다. 상고하건대 한漢나라 영제靈帝는 당나귀를 좋아해서 당나귀를 보고 위자衛子라고까지 했다. 혹은 말하기를, “위衛나라 땅에 당나귀가 많았기 때문에 당나귀를 보고 위자衛子라고 한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운서韻書에 보면, “박駮[16]은 짐승의 이름이다. 말처럼 생겼으며, 몸뚱이는 희고 꼬리는 검은데, 범과 표범을 잡아먹는다”라고 했다. 근년에 양주楊州 땅에 사나운 짐승이 있는데 모양이 말과 비슷하게 생겼다. 푸른빛에 갈기가 있고, 범과 표범을 몹시 많이 잡아먹으며, 또한 사람도 잡아먹는다. 사람들이 이것을 본 자가 많다고 한다. 의심컨대 이것은 곧 박駮이 아닌지 모르겠다.

범에는 위골威骨이라는 뼈가 있다. 모양이 마치 을乙 자처럼 생겼고, 길이는 2

15 버새. 말의 일종. 아비는 말이고 어미는 당나귀임. 생후 이레 만에 어미보다 빨리 달린다고 한다.
16 말처럼 생기고 능히 범과 표범을 잡아먹는 짐승.

치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다닐 때에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다. 혹은 말하기를, 보름 전에는 이 위골이 겨드랑이 밑에 있다가 보름이 지나면 이마 위에 있다. 마치 코끼리의 쓸개와 같이 사시四時를 따라 장소를 바꾸는 것이다.

상고하건대, 《운부韻府》에 말하기를, "범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와 꼬리 끝에 뼈가 있어 길이가 1치나 2치쯤 되니 이것이 곧 위골威骨이다. 이것을 얻을 수만 있으면 사람도 위엄이 있어 보인다"라고 했다. 동파東坡의 시詩에, "마치 범이 을乙 자를 가진 것 같네(得如虎扶乙)"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패사稗史》에 보면, "범의 이름은 이이李耳이다. 대체로 범은 짐승 종류를 먹어도 귀까지는 먹지 않으니, 이것은 제 이름을 숨기기 위함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허탄하다. 또 말하기를, "범은 사람 하나를 먹을 때마다 귀에 금이 하나씩 간다"라고 했으나,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단양군丹陽郡 아전 하나가 공문公文을 가지고 충주忠州로 가다가 길에서 범의 새끼 3마리를 만나 지팡이를 가지고 이것을 모두 때려죽이니, 갑자기 어미 범이 큰 소리를 치면서 왔다. 아전이 겁이 나서 높은 나무에 올라갔다. 범은 이것을 쳐다보고 있더니 어찌할 수가 없었던지 어디론지 가서 표범 1마리를 데리고 왔다. 표범은 작으면서도 날쌘 짐승이다. 나무를 타고 올라와 거의 사람의 몸에 닿게 되었다. 아전이 놀라서 자기바지를 벗어 두 다리로 밀어 표범의 머리에 씌우고 급히 이것을 내려 차니 표범은 땅으로 떨어졌다. 범은 옷을 쓰고 떨어진 표범을 사람인 줄 알고 물어 죽였다. 그러나 이윽고 그것이 표범인 줄을 알자 나무를 돌면서 큰 소리로 울다가 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전은 나무에서 내려와 죽은 표범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방백方伯에게로 갔다. 방백이 길이 늦었다고 해서 장차 죄주려 하자, 아전은 그 연고를 고하고 증거로 표범

의 가죽을 바치고 죄를 면했다 한다.
최간이崔簡易는 그가 지은 〈표설豹說〉에서 말하기를, "표범은 제 재주 때문에 범의 심부름을 하다가 마침내는 범에게 죽고 만다. 이것은 제가 스스로 취한 일이다"라고 했다.

해주海州에 평시에 관리 한 사람이 양과 염소 수십 마리를 길렀다. 임진년壬辰年에 왜병이 그 고을에 들어오자 그 양들은 달아나서 성 10리 밖에 나가 피했다. 왜병이 물러가자 아전과 백성들이 아직 모여들기 전에 그 양들이 먼저 성 안으로 돌아왔는데, 한 마리도 해를 입은 놈이 없었다. 짐승도 역시 이렇게 신령스럽고 지혜 있는 것이 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개는 저들끼리 서로 먹지 않으니 사람의 도道에 가깝다"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계사癸巳·갑오년간甲午年間에 보니, 굶주린 백성들이 심지어 부자간父子間·부부간夫婦間에 서로 먹는 자까지 있었으니 도리어 개만도 못한 자가 많다.

우리 집에 고양이 1마리가 있는데, 새끼를 품고 있었다. 마침 우리는 온 식구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더니, 고양이도 역시 새끼를 데리고 떠났으나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 지 몇 달 만에 돌아왔더니 고양이도 역시 같은 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누가 짐승이라 해서 아무런 것도 모른다고 하겠는가.

《유양잡조酉陽雜俎》에 보면, "고양이의 눈동자는 아침과 밤에는 둥글고 낮이 되면 세로가 줄어들어 실낱만 하게 된다. 그 코는 항상 찬데 오직 하지夏至 날 하루만 따뜻하다"라고 했다. 세속에서 말하기를, "고양이가 얼굴을 씻고 귀까지 닦으면 그 날은 손이 온다"라고 한다. 이런 말은 생긴 지가 역시 오래다. 지

금도 고양이 눈을 가지고 시간을 안다고 한다.

고양이는 다른 동물을 해치는 짐승이다. 그런데 내가 중국에 갔을 때 사람의 집에 고양이 기르는 것을 보았는데, 모두 꼬리를 잘랐고 그 성질이 매우 온순했다. 병아리와 같이 거처하면서도 조금도 해칠 마음이 없어 보였다. 들으니, 정월 첫 인일寅日에 그 꼬리를 자르면 이와 같이 유순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꼭 그런지는 알 수가 없다.

《사문옥설事文玉屑》에 보면, "고양이는 중국에서 난 것이 아니다. 서쪽 지방 천축국天竺國에서 난다. 쥐가 불경佛經을 뜯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들이 이것을 길렀다. 당唐나라 삼장三藏[17]이 서쪽 땅에 가서 불경을 얻어올 때에 고양이도 가지고 왔던 것인데, 그 씨가 퍼진 것이다"라고 했다.
상고해 보건대 기記에 말하기를, "교특생郊特牲[18]으로 고양이를 쓴다. 그것은 고양이가 두더지를 잡아먹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또 공자孔子는 거문고를 타면서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말도 있다. 그러니 고양이란 이름이 생긴 지는 오래다. 삼장은 당나라 태종太宗 때의 중이니 삼장이 처음 고양이를 가져왔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홍주洪州에 궤자도麂子島가 있으니, 옛날부터 궤자麂子[19]를 기르던 곳이다. 지금도 역시 이것이 있는데 궤麂는 혹 우麌(수사슴)로도 쓴다. 노루와 같으나 조금 작고 고기가 매우 맛있다. 또 가죽은 몹시 질기고 좋아서 신을 만들면 좋다. 그런 때문에 풍속에, 다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도 거짓으로 말하여 궤자 가죽

17 삼장법사三藏法師. 삼장三藏에 정통한 중. 즉 경經(설법說法) · 율律(계율戒律) · 논論(교리敎理)에 통달한 고승高僧.

18 《예기禮紀》의 편명篇名. 여기에서는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쓰는 희생犧牲을 말한다.

19 큰 고라니. 발은 사슴과 같고 양쪽에 긴 어금니가 있으며 잘 싸운다.

으로 만든 신이라고 한다고 한다.

오소리(貒)를 세속에서는 토저土猪라고도 한다. 그 털은 습기를 가장 잘 없앤다. 어느 사람이 본래 습증濕症을 앓고 있었다. 임진년壬辰年에 왜적을 피해서 오소리 굴로 들어갔다. 오소리 털이 수북이 쌓여서 자리를 깐 것 같다. 오랫동안 그 속에 거처했더니 묵은 병이 갑자기 나았다 한다.

《설부》에 보면, "중추中秋에 달이 밝으면 그 가을에는 반드시 토끼가 많다"라고 했다. 《쇄록瑣錄》에는, "중추에 달이 없으면 토끼가 잉태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 〈오진편悟眞篇〉 주註에 보면, "천하의 토끼는 모두 암컷이고 오직 달 속에 있는 토끼만 수컷이다. 그런 때문에 토끼는 달을 쳐다보고서 새끼를 밴다"라고 했다.
목란시木蘭詩에는 말하기를, "암토끼는 눈이 희미하고 수토끼는 다리로 차고 움키네(雌兎眼迷離 雄兎脚撲握)"라고 했다. 토끼는 수컷이 없다는데 웅토雄兎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동파東坡의 시詩에도 "다리가 따뜻하여 오직 차고 움키네(暖足唯撲握)"라고 해서, 토끼가 차고 움킨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견지夷堅志》에 보면, "구주산衢州山에 원숭이가 많아 100마리 1,000마리씩 떼를 지어, 행인이 있으면 반드시 습격한다"라고 했다. 우리나라 사람 오경남吳景男이란 자가 총병總兵 유정劉綎을 따라서 중국에 들어가 촉蜀 땅을 왕래한 일이 있었다. 산골짜기가 험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리를 지어 지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원숭이 떼에게 희롱을 당한다고 했다.

당나라 소종昭宗에게는 원숭이가 있었는데 비단 도포를 주고는 이를 공봉供奉이라고 불렀다. 나은羅隱이 시詩를 지어, "어찌하면 공봉을 배워 얻어서, 한 번 임금을 웃기고 문득 비단 도포를 입을까(何如學取孫供奉 一笑君王便着緋)"라고 했

다. 대개 나은은 재주는 있었으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때문에, 이것으로 원망하는 글을 삼았던 것이다.
상고하건대 《소설》에 보면, "전충全忠이 임금의 자리를 빼앗으니 원숭이가 전충의 날뛰는 것을 보고 분하게 여겨 쳐서 죽였다. 그런데 나은은 당나라가 망한 뒤에 드디어 5대 임금에게 벼슬했다. 그러니 이 원숭이를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많다"라고 했다.

《박물지》에 보면, "촉산蜀山에 있는 짐승이 원숭이와 같았다. 이것을 화化라고 이름 짓고 혹은 가확豭玃이라고도 한다. 여자들을 데려다가 계집으로 삼아도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한다. 10년이 지나면 계집도 그와 똑같은 모양이 되고, 새끼를 낳으면 사람과 같은데, 이것은 모두 성姓을 양楊이라고 했다. 그런 때문에 촉蜀 땅에는 양씨楊氏가 많다"라고 했다.
내가 중국에 갔을 때 사람의 집 벽에 가확을 그린 것이 많았다. 그중에 여자의 머리와 얼굴이 모두 원숭이 모양과 같은 것이 있으니, 곧 이것이다. 《초씨역림焦氏易林》에 보면, "남산南山의 큰 원숭이가 내 예쁜 첩을 훔쳐갔다"라고 했으니 옛날에도 역시 이런 말이 있었던 것이다.

상여相如의 글에, "기린과 각단角端(돼지처럼 생긴 짐승)"이라고 했다. 이 주註에 보면, 곽박이 말하기를, "각단이란 단端은 음이 단으로서 돼지와 같고 뿔이 코 위에 있는데 이것으로 활을 만들 수가 있다. 이릉李陵이 이 활 10개를 소무蘇武에게 보냈다"라고 했다. 심약沈約의 《송서宋書》에는, "각단은 하루에 1만 8,000리를 가고, 또 4이夷의 말을 모두 알아듣는다. 원元나라 태조太祖 때 큰 짐승이 서역 땅에 나타났는데 이것을 야율초재耶律楚材는 각단이라고 한다"고 했으니 곧 이것이다.

조완벽趙完璧이 말하기를, "안남국安南國에는 소가 있는데 그 모양이 들돼지와

같다. 빛깔은 검푸른데 사람이 집에서 길러 밭을 갈기도 하고 혹은 잡아먹기도 한다. 그곳은 날씨가 몹시 더운 때문에 낮에는 소들이 모두 물속에 들어갔다가 해가 진 뒤에야 나온다. 토인土人들은 이것을 물소라고 부른다. 그 뿔이 몹시 큰데, 왜놈들은 이것을 사가지고 온다. 풍속에 말하는 흑각黑角이 이것이다." 상고하건대 《오대사五代史》에 말하기를, "점성占城에 수시水兕[20]가 있다"라고 했는데 대개 이것일 것이다.

한라산漢拏山에는 사슴이 많다. 여름밤이면 사슴들은 시냇가에 나와서 물을 마신다. 사냥꾼이 활을 가지고 시냇가에 숨어 있노라니, 사슴 떼가 오는데 몇 백 몇 천 마리 속에 한 마리 사슴이 헌칠하고 빛이 흰데, 그 등 위에는 머리털이 하얀 늙은이 하나가 앉아 있다. 사냥꾼은 놀라고 괴상히 여겨 감히 그 사슴을 범하지 못하고 뒤에 떨어진 사슴 하나를 쏘아 죽였다. 조금 있더니 사슴에 탔던 이가 사슴의 수를 조사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한다. 이 말은 임자순林子順의 《기문記聞》 속에 나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곰이 소금을 먹으면 이내 죽고, 쥐가 소금을 먹으면 난다(飛)고 하지만 이것은 대개 옛날 말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소금이란 맛이 짠 것이어서 북쪽 지방의 물에 속한다. 그리고 곰(熊)이라는 글자는 불 화(火) 자 변에 쓴다. 그러니 이것은 불에 속한 짐승인데 물이 불을 이기는 때문이다. 또 쥐는 12지支 중의 자子이고 북쪽 방위에 속하며, 물에 가까운 짐승이다. 또한 풀이나 나무를 소가 먹으면 초목은 무성하게 자라지만 양이 먹으면 초목은 말라죽는 것과 같다. 혹은 말하기를, "소는 토土의 짐승이요 토土는 물건을 기르는 것이며, 양羊은 금金의 짐승이요 금金은 살벌殺伐을 주장으로 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이 말이 자못 이치가 있다.

20 무소과에 속하는 들소 비슷한 짐승. 뿔은 하나이고 체중은 1,000근가량. 가죽은 단단하여 갑옷, 뿔은 술잔 등을 만든다.

분시豶豕 · 개우犗牛 · 선마騸馬 · 엄인閹人은 모두 수컷의 불알을 제거한 자를 부르는 말이다. 또 개우犗牛를 건犍이라 하고, 편마騸馬를 승騬이라고도 한다.

뱀은 꿩과 교접하고, 혹은 거북이나 뱀장어와 교접한다고 한다. 이것은 나귀가 말이나 소와 교접하는 것과 같다. 대개 두 가지 물건은 간사하고 음란하고 바르지 못한 기운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옛글에 보면, 거북과 자라는 수컷이 없고 뱀과 교접한다고 했다.

《여해집蠡海集》에 보면, “사람은 5행의 전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뚱이에 모든 것이 구비돼 있다. 또 모든 것이 구비돼 있기 때문에 물건치고 먹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은 5행 중에 한두 가지만 가졌기 때문에 온전한 몸뚱이를 갖지 못한다. 온전한 몸뚱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꼴〔芻〕을 먹는 자는 육류肉類〔豢〕를 먹지 못하며, 육류를 먹는 자는 꼴을 먹지 못한다. 곡식알을 먹는 자는 고기를 먹지 못하고, 고기를 먹는 자는 곡식알을 먹지 못한다”고 했다.
《유양잡조酉陽雜俎》에 말하기를, “풀을 먹는 자는 힘은 많으나 어리석고, 고기를 먹는 자는 용감하고 사납다”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기에, 말이나 소는 풀과 곡식을 먹고, 고양이와 개는 곡식알과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어찌 꼴을 먹는 자는 기름기를 먹지 못하고, 곡식알을 먹는 자는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하겠는가. 어리석기 때문에 풀을 먹고, 사나운 때문에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역시 그 성품이 그렇기 때문이다. 풀을 먹어서 어리석고 고기를 먹어서 사나운 것은 아니다.

33-3 인개鱗介

《유양잡조酉陽雜俎》에 보면, "용의 머리 위에는 한 가지 물건이 있어서 마치 박산博山[21] 모양처럼 생겨 이름을 척목尺木이라 하는데, 용은 척목이 없으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 상고하건대 손책孫策이 말하기를, "용이 오르려고 하면 우선 척목에 힘을 준다"라고 했다. 이 척목은 곧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여의주如意珠[22]일 것이다.

어語에 말하기를, "용은 능히 물을 변화시키고 사람은 능히 불을 변화시킨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용은 돌을 보지 않고 귀신은 땅을 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이 말은 믿을 수 있다.

만력萬曆 을사乙巳에 여산礪山 땅에 흰 용이 나타났다. 이 용은 강에서 나와서 어느 촌집에 이르렀다. 이때는 대낮인데다가 구름이 한 점도 없었는데 갑자기 바람과 비가 사납더니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면서 이때 용의 비늘이 구름과 안개 속에서 번쩍이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수십 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역력히 보았다. 그 마을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뽑혀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몇 리 밖에 떨어졌고, 혹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자도 있었다. 그 고을 감사監司는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했다.

잉어(鯉)는 등의 비늘이 머리에서 꼬리까지 연해 있으며 모두 36개이다. 용이 되는 것은 아마 이것과는 다른 종류인가 보다. 듣건대 아주 큰 잉어를 사람이 먹으으면 곧 죽는다고 한다.

21 중국 산동성山東省에 있는 산 이름. 그러나 여기에서는 종묘宗廟의 제기祭器에 산山 모양을 새겨서 장식한 것. 박산종博山鍾 · 박산로博山爐가 있다.

22 여의보주如意寶珠라고도 하는 영묘靈妙한 구슬. 이것을 가지면 원하는 대로 뜻이 이루어진다 함.

옛날에 전라감사全羅監司 하 모河某가 남원南原에 이르러 꿈을 꾸니, 한 늙은이가 자기 어린애를 위해서 목숨을 연장시켜 줄 것을 빌었다. 꿈에서 깨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니, 부엌 사람들이 큰 잉어 1마리를 잡아다가 장차 이것으로 반찬을 만들려는 참이라고 했다. 감사는 이것을 즉시 놓아서 산동山洞으로 돌려보냈다. 그 동리에는 지금도 용연龍淵이 있으니, 바로 이곳이다. 혹은 말하기를, "감사가 글을 지어 이를 제사 지내자 용이 온 몸뚱이를 모두 나타내니 감사는 놀라서 죽었다. 이때 쓴 제문이 돌 위에 새겨져 있다"라고 한다.

《잡설기雜說記》에 보면, "이덕유李德裕는 여름엔 금항아리에 흰 용의 가죽을 적셨다. 이 용의 가죽은 신라 때 중이 바닷속에서 얻은 것으로서 금과 비단을 주고 산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은 꼭 믿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세속에 전하기를, "용의 비늘 한 조각이 대궐 안에 있었다. 이것은 전조前朝 때부터 전해오다가 명묘明廟 계축癸丑에 와서 경복궁景福宮이 불탔을 때 함께 타버렸다"라고 한다.

가정嘉靖 갑자년간甲子年間에 한강漢江에서 큰 물고기가 나왔다. 크기가 돼지만하고 빛은 희고, 길이가 한 길은 넘으며, 머리 뒤에 구멍이 있다.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대개 바닷물고기가 조수를 따라서 거슬러 올라온 것이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운부韻府》에 보면, "해돈海豚[23]의 머리 위에 구멍이 있어 그 구멍으로 물을 뿜어 올린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 물건이다.

옛날 한 고을 원이 자라를 즐겨 먹었다. 일찍이 산 자라 한 마리를 기둥에 붙들어 맸더니 그 자라는 머리를 부딪치면서 눈물을 흘렸다. 잠깐 앞으로 나왔다가는 이내 물러서면서 무엇인가 애걸하는 것 같은 모양을 보인다. 원은 이것을 보고 자라를 놓아 보냈다. 자라는 몇 걸음 가다가 머리를 한 번 돌이켜

23 돌고래. 고래 비슷하며 등은 검고 배는 하얗다. 돌고래과의 바다짐승.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처럼 하고 갔다고 한다. 이것은 《사기史記》의 〈별책전鼈策傳〉에 있는 말과 같다.
《시경》에 보면, "자라는 포를 떠서 먹고 잉어는 회쳐 먹는다"라고 했고, 《맹자》에는, "생선과 자라를 이루 다 먹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니 옛 사람들은 대개 이것을 먹었다. 그러나 마땅히 즐겨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이의李艤라는 사람은 무인武人이다. 일찍이 보성군수寶城郡守가 되었을 때 큰 자라를 얻어서 이것을 바다에 놓아준 일이 있었다. 그 뒤에 큰 나루를 건너다가 배가 뒤집혔다. 물 위에 무엇인가 물건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밟았더니 다행히 물에 빠지지 않았다. 기슭에 가까이 와서 보니 곧 자기가 놓아준 큰 자라였다. 그는 뒤에 벼슬이 통정절도사通政節度使에 이르렀다.

《역옹패설》에 보면, "통해현通海縣에 큰 생물이 있는데, 마치 자라와 같았다. 조수를 타고 포구로 밀려 들어왔다. 백성이 이것을 잡으려 하는 것을 현령縣令 박세통朴世通이 끌어다가 바닷속에 놓아 보냈다. 그날 밤 꿈에 한 늙은이가 절하고 말하기를, "내 자식은 공의 힘으로 살아났소. 그러니 공과 공의 아들 · 손자까지 3대를 재상이 되도록 하겠소" 했다. 뒤에 과연 그 말이 맞았다 한다."
근년에 장흥長興 바다 어귀에 생물이 나타났는데, 자라처럼 생기고 몹시 컸다. 부사府使 박 모가 사람 수십 명을 보내서 이것을 떠메다 관청 뜰에 가져왔다. 그 물건은 머리를 두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놓아줄 것을 바라는 눈치였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물건의 껍데기는 보배로 쓰는 것이며, 그 머리에는 야광주夜光珠가 있으니 머리를 쪼개서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 박 모는 그 말대로 했다. 그날 밤 꿈에 그 물건이 와서 말하기를, "네가 나를 죽였으니 내 반드시 그 원수를 갚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 지 열흘이 되지 않아서 부사府使의 어머니와 세 아들, 조카 하나가 관청종과 함께 병들어 모두 10여 명이 죽었으니, 역시 이상한 일이다.

쏘가리(鱖)는 곧 지금의 금린어錦鱗魚다. 《본초》에 보면, "뱃속에 있는 조그만 벌레를 없애면 그 맛이 더욱 좋다"라고 했다. 《양생기요養生紀要》에 말하기를, "이것은 허한 것을 돕고 위胃를 힘 있게 해준다. 등 위에는 등마루 뼈가 12개가 있는데, 뼈에는 독이 있어 사람을 죽인다. 모름지기 이것을 모두 없애야 한다" 라고 했다.
세상에 전하기를, 이것은 천자가 좋아하는 것이어서 천자어天子魚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다. 상고하건대 궤鱖의 음은 '궤'이다. 세상에서 이것을 입성入聲으로 읽어 '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육토룡陸土龍이 말하기를, "숭어(鯔)·전복(鰒)·조기(石首魚)는 동쪽 바다에서 나는 참으로 맛있는 생선이다"라고 했다. 치어鯔魚는 풍속에서 말하는 수어秀魚이다. 양생서養生書에 보면, "치어는 진흙을 먹어서 흙 기운이 있다. 그래서 비脾와 위胃를 돕는다. 또 100가지 약 가운데 이것을 꺼리는 약은 없다"라고 했다. 옛날 중국 사신이 이 치어를 먹어보고 그 이름을 묻자, 관리가 수어水魚라고 대답하니 사신은 웃었다. 역관譯官 이화종李和宗이 나와서, 이것은 수어秀魚이고 수어水魚가 아니니 생선 중에서 제일 빼어났다 해서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이라 했다. 이 말을 듣고 중국 사신도 그렇겠다고 했다.

시화詩話에 보면, "팽연촌彭淵村의 첫째로 한스러운 것은 시어時魚에 뼈가 많은 것, 둘째로 한스러운 것은 귤橘이 너무 신 것, 셋째로 한스러운 것은 순채蓴菜[24]의 성질이 너무 찬 것, 넷째로 한스러운 것은 해당화海棠花[25]에 향기가 없는 것, 다섯째로 한스러운 것은 증자고曾子固가 시詩를 지을 줄 모르는 것이다" 했다. 양생서養生書를 상고해 보면, "시어時魚는 맛이 좋다"고 했고, 운서韻書에서는

24 순나물. 수련과睡蓮科에 딸린 다년생多年生 풀. 순나물 국과 농어 회는 맛이 좋다고 해서 순갱노회蓴羹鱸膾란 말이 있다.

25 때찔레꽃. 장미과의 낙엽관목. 4월경에 연붉은 오판화五瓣花가 핀다.

준치(鰣)라고 했고, 혹은 시어時魚라고도 했는데, 풍속에 말하는 진어眞魚이다. 이것을 시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봄에 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닐까.

청어靑魚[26]는 봄이 되면 우리나라 서남쪽 바다에서 많이 잡혔는데 선왕조先王朝 때 경오년庚午年 이후부터는 이것이 끊어지고 나지 않았다. 들으니 중국 청주靑州 경계에서 이것이 많이 난다고 한다. 그러니 물건이 나는 것도 역시 때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말하기를, 의방醫方에서 말하는 청어는 우리나라 청어가 아니라고 한다.

문어文魚[27]는 팔대어八帶魚라고도 하고, 또 팔초어八梢魚라고도 한다. 중국 사신 왕창王敞의 시詩에, "과수果樹 아래에는 이미 석 자 되는 과하마果下馬는 없고, 소반 위에는 때로 팔초어가 있네(果下已無三尺馬 盤中時有八梢魚)"라고 한 것이 이 것이다. 《동의보감》에서 소팔초어小八梢魚라고 한 것을 《본초本草》에서는 장거어章擧魚라고 했고, 또는 석거石距라고도 했다. 오적어烏賊魚(오징어)에 비교하면 조금 크고 맛도 좋다고 했다. 이것은 곧 지금 말하는 낙체絡締(낙지)이다.

동월董越의 〈조선부朝鮮賦〉에 보면, "물고기로는 금문錦紋 · 이항鮐項 · 중순重脣 · 팔초八梢가 제일이다"라고 했다. 그 주에, "금문錦紋은 쏘가리와 비슷한데 몸뚱이가 둥글다. 이항鮐項은 피라미와 같은데 다만 말린 것도 볼 수가 있다. 중순重脣은 빛나는 붉은 눈이 완어와 같고, 입술은 말처럼 생겼는데 코 언저리 고기가 매우 맛있다. 팔초는 곧 절강浙江의 꼴뚜기이니 큰 것은 길이가 4, 5 척이나 된다"라고 했다. 대개 여기에서 말한 금문은 금린어錦鱗魚이고, 이항은 여항어餘項魚, 중순은 곧 눌어訥魚이고, 팔초는 곧 문어文魚이다.

26 빛이 푸른 물고기. 지금 말하는 비웃.

27 얼룩무늬가 있는 물고기. 낙지과에 딸린 연체동물.

은구어銀口魚[28]는 봄에 바다에서 물을 따라 올라와서 여름과 가을에 이르러서는 몸뚱이가 커졌다가 가을이 늦으면 줄어들어서 없어진다. 혹은 말하기를, 이 물고기는 오직 남쪽으로 흐르는 물에만 있다고 한다. 과연 이 말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여지승람》에 보면, 양주楊州 · 고양高陽 · 파주坡州에서 모두 이것이 났고, 지금도 드물게 난다고 했다. 내가 순천順天에서 보니 깊은 겨울에도 역시 어쩌다가 이것이 있었다. 다만 몸뚱이가 몹시 야위고 맛도 좋지 못했다.

《소설小說》에 보면, "오징어의 먹물로 글씨를 쓰면, 해를 지난 뒤에는 먹이 없어지고 빈 종이만 남는다. 간사한 것으로 남을 속이는 자는 이것을 써서 속인다"라고 했다. 중국 사람 기창寄倡의 시詩가 있는데, "맹세를 오징어 먹물로 쓰니, 사람이 초산楚山 구름과 같네〔誓成烏鰂墨 人似楚山雲〕"라고 했다. 이것은 그 믿지 못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 자라의 오줌으로 먹을 갈아 나무쪽에 글씨를 쓰면 먹물이 한 치나 스며들어간다고 한다. 지렁이 즙汁을 푸른 물감에 섞어서 굽는 그릇에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을 시험해 보면 참된 것과 거짓임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본초本草》에 보면, "담채淡菜(홍합의 별칭. 섭조개)는 또 동해부인東海夫人이라고도 한다. 주모珠母[29]와 같은데 한 머리가 뾰족하고 중간에 조그만 털이 났다"라고 했다. 지금 말하는 홍합紅蛤이 대개 이것이다. 《잡서雜書》에 보면, "담채는 곧 해각海殼이다. 바다의 나물은 모두 짜지만 오직 이것만은 맛이 담담淡淡하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이다"라고 했다.

28 은어銀魚. 은어과에 속하는 물고기. 담백색淡白色으로 가늘고 길다. 일명 도루묵. 회잔어膾殘魚.
29 진주조개과에 딸린 조개의 한 가지.

《사기史記》〈식화지食貨志〉에 보면, “태제천근鮐鮆千斤”이라 하고, 그 주註에 제鮆는 도어刀魚(갈치)라고 했다. 의심컨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갈치가 이것이다. 다만 《북호록北戸錄》을 상고해 보면, 제어鮆魚는 1마리에 몸뚱이가 10개가 있다”라고 했다. 지금의 문어 · 낙지는 1마리에 몸뚱이가 8개 달렸으니 이것과 비슷하다 하겠다.

《북호록》에 보면, 비목어比目魚[30]를 혹은 접鰈이라고도 하고, 또는 겸鰜이라고도 했다. 《남월지南越志》에는 이것을 판어板魚라고 하고, 또한 좌개左介라고도 한다. 개介는 또 개魪로도 쓴다. 상고하건대, 비목比目은 동쪽 바다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접역鰈域이라고 한다. 지금 풍속에 가좌어加佐魚를 접鰈이라고 한다. 그러나 광어廣魚나 설어舌魚도 모두 접鰈의 종류이다.

대구어大口魚[31]는 우리나라 동쪽 바다에서 난다. 중국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때문에 그 이름이 《서전書傳》에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진미珍味로 안다. 그러므로 중국 도성에 가는 사람들은 사가지고 간다.

당나라 법에는 잉어 먹는 것을 금해서 어기는 자는 곤장 60대를 때렸다. 옛 사람들은 이鯉와 이李를 같은 음으로 썼다. 혹은 말하기를, “그것은 잘 변화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한다.

《유양잡조酉陽雜俎》에 보면, “당나라 법에는 잉어를 얻으면 곧 이것을 놓아 보내면서 적혼공赤鯶公이라고 부르니, 대개 휘諱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했다. 왕유王維의 시詩에, “시녀侍女가 금 소반에 잉어를 회 쳐 내왔네〔侍女金盤膾鯉魚〕”라고 한 것은 무슨 말인가.

30 외눈박이의 물고기로서, 2마리가 나란히 서야 비로소 헤엄치기 시작한다고 한다.

31 경골류硬骨類 대구과에 속한 바닷물고기.

《설부》에 말하기를, 남쪽 바다에 있는 벌레는 뼈가 없는데, 이름을 니泥라고 한다. 이것은 물에 있으면 살고 물을 잃으면 취醉해서 한 덩어리 진흙과 같이 된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해삼海蔘[32]을 니泥라고 했다. 중국 사람은 이것을 보고 아니라고 했다.

가사어袈裟魚는 지리산智異山의 시내 골짜기 물속에서 난다. 길이는 한 자도 되지 않고, 빛은 붉어 송어松魚[33]와 같다. 그 맛이 매우 좋은데 모양이 가사袈裟를 입은 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이다. 산 밑에 사는 사람도 몇 해 만에 겨우 한 번 본다고 하니 이상한 물건이다. 혹은 말하기를, 소나무 기운에 감동해서 생긴다고 한다.

박의朴醫 인전仁荃이 말하기를, "내가 일본에 갔을 때 바닷속에 물고기가 있는데, 빛이 희고 모양이 칼과 같은 것이 길이가 4, 5치나 되었다. 날면 배 위까지 올라가는데 그 수효를 알 수가 없다. 또 혹 멀리 날아서 몇 리를 가면 그 이튿날에는 큰 바람이 분다"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문요文鰩(날치, 비어飛魚)는 남쪽 바다에서 난다. 길이가 1자나 되고 이것이 바다 위에 날면 으레 큰 바람이 분다. 박의朴醫가 보았다는 것은 이것이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소설》에 보면, "남번南蕃의 큰 바닷속에 물고기가 있는데, 이마 속에 있는 뼈의 붉기가 핏빛과 같다. 그래서 이것을 학어鶴魚라 하고, 그 뼈로 빗을 만드는데 이것을 학정소鶴頂梳라고 한다"라고 했다. 또 《오학편吾學編》에 보면, "삼불제국三佛齊國에서는 학정조鶴頂鳥가 난다. 뇌腦의 뼈가 두꺼워 1치가 넘고, 거죽은 누렇고 속은 빨간 것이 곱고 깨끗하여 보기 좋았다"라고 했다. 지금 말하는 학정鶴頂 금대金帶는 거짓 만든 것이다.

32 식용食用의 극피 동물. 근해의 바위틈이나 모래 속에 산다.

33 연어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 우리나라 경상북도 이북의 해안에 분포함. 맛이 썩 좋다.

《의감醫鑑》에 말하기를, “게는 늦은 여름과 이른 가을에 마치 매미와 같이 껍질을 벗는다. 해蟹라는 이름을 붙인 뜻도 반드시 여기에서 취한 것일 것이다”라고 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해解는 포정庖丁[34]이 소를 잡는 것과 같은 자이다. 대개 게의 껍질은 사람이 손으로 벗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지었을 것이다.

대체로 게는 서리가 내려야 살찐다. 그런 때문에, “붉은 게 살찔 때 늦벼는 향기로워〔紫蟹肥時晩稻香〕”란 시詩가 있다. 그러나 지금 해서海西 지방에는 겨울에 언 게가 있고, 호남湖南의 순천順天과, 함경도咸鏡道의 북청北靑, 영동嶺東의 흡곡歙谷 등지에서는 봄이 되어야 비로소 게가 살찐다. 대개 모든 물건의 성질은 살고 있는 땅에 따라서 변하게 마련일 것이다.

〈강부江賦〉에 말하기를, “옥요해월玉珧海月”이라 했고, 동파東坡의 시詩에 보면, “바다 자라와 강주江柱가 처음으로 샘을 벗어났다〔海鰲江柱初脫泉〕”라고 했다. 또한, “강요江瑤(바닷물조개, 안다미조개, 살조개)가 처음으로 기둥을 벗어났다〔江瑤初脫柱〕”라고 했으니 곧 지금의 강요주江瑤柱이다. 상고하건대 운서韻書에, “요瑤는 음이 ‘요’이다. 조개의 종류로서 껍데기는 장식에 쓴다”라고 했다. 한시韓詩에 말한 마감주馬甲柱도 역시 이것이다.

동방삭東方朔이 말하기를, “한漢나라 도읍에는 물에 개구리〔鼃魚〕가 많다. 가난한 자는 이것을 가지고 넉넉히 먹고 살아간다”라고 했다. 안사고顔師古의 주註에 보면, 와鼃(개구리)는 하마蝦蟆와 비슷하나 작은데 사람들이 이것을 잡아먹는다고 했다. 《곽광전霍光傳》에 보면, “승상이 주장하여 종묘의 염소와 토끼와 개구리를 감減했으니 죄 줄 일이다”라고 했다. 한漢나라 때는 종묘에서도 역시 이 개구리를 썼던 것을 알 수가 있다.

34 옛날 이름난 요리인料理人이니 그는 소를 잡아 요리하는 데 뛰어난 솜씨가 있었다.

《회남자》에 보면, “월越나라 사람은 염사蚺蛇(이무기. 큰 뱀의 일종)를 얻어서 제일 좋은 안주로 삼았다”라고 했다. 한시韓詩의 주에, “민절閩浙 지방에서는 하마蝦蟆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이라고 했다고 했다. 전번에 중국 군사軍士가 나왔을 때 남쪽 지방 사람은 모두 개구리와 뱀을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낙지 먹는 것을 보고 도리어 이상히 여겼다.

《금경禽經》에 보면, 물돼지(䐁)를 가지고 바람을 알고, 자라(鼉)를 가지고 비를 안다고 했다. 주註에 순䐁은 강저江猪라고 했다. 전조前朝 때 김극기金克己의 시詩에 보면, “비 올 줄 알고 옛 못의 개구리가 개골댄다(讖雨廢池蛙閤閤)”라고 했다. 참우讖雨라는 말은 대개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상고하건대 한시韓詩에, “개구리 울어 무슨 말 하는가, 개골거려 다만 사람의 귀 어지럽히네(蛙黽鳴無謂閤閤秪亂人)”라고 했다. 합합閤閤을 각각閣閣으로 변경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소설》에 말하기를, “물고기가 다니는 것은 양陽을 따른다. 봄과 여름에는 물 위에 떠서 물을 따라 올라가고, 가을과 겨울에는 물속에 잠겨 물을 따라 내려간다”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기에, 물고기는 물에 잠기는 물건이니, 기운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이치에 당연히 그러한 것이다. 다만 지금의 은어銀魚나 청어靑魚는 겨울이면 바닷가에 난다. 이것은 한 가지 이치만을 가지고 미루어 짐작할 수는 없다.

동파東坡의 시詩에 보면, “어찌 다시 추예鰍鯢를 남기랴(豈復遺鰍鯢)”라고 했다. 상고하건대 추예鰍鯢는 물고기 새끼다. 동파東坡의 글에 또 말하기를, “추선鰍鱔을 춤추게 하고 호리狐狸(여우와 너구리)를 부르게 한다”라고 했다. 추鰍와 선鱔은 모두 조그만 물고기의 이름이다. 《운회韻會》에 보면, “해추海鰍의 큰 놈은 길이가 수십 리는 되는데, 바다 밑 구멍에 산다. 이것이 구멍에 들어가면 해일海溢을 일으켜 조수가 밀려 나온다”라고 했다. 송나라 우윤虞允의 글에, “해추

선海鰍船으로 크게 적을 이겼다"라고 한 것은 대개 배 모양이 해추海鰍를 모방한 것이다. 예鯢도 역시 2가지가 있다. 경鯨과 예鯢는 곧 바닷물고기이니, 수놈을 경鯨이라 하고, 암놈을 예鯢라고 한다. 또 《본초》에 보면, "경어鯨魚는 산골 시내 속에 있는데, 이름을 왕유王鮪라고도 한다. 소리가 어린애 우는 소리와 같기 때문에 예鯢라고 한다. 그 기름으로 촛불을 켜면 꺼지지 않는다. 진秦나라 시황始皇의 무덤 속에 이것으로 불을 켜 놓았다"라고 했다.

용龍은 귀가 없다. 물고기도 역시 귀가 없다. 노루는 쓸개가 없고, 쥐도 역시 쓸개가 없다. 게는 창자가 없고, 하마蝦蟆도 역시 창자가 없다. 돼지는 심줄이 없고, 지렁이도 역시 심줄이 없다. 토끼는 비脾가 없고, 새는 폐肺가 없고, 조개는 피가 없다. 또 뱀은 눈으로 소리를 듣고, 거북은 귀로 숨을 쉰다. 학鶴은 소리로 낳고, 자라는 바라다보는 것으로 낳는다. 교청鵁鶄[35]은 눈동자에서 낳고, 갈매기는 눈에서 낳는다. 물고기는 생각하는 데서 낳고, 공작孔雀은 번개를 보고 새끼를 배고, 등사螣蛇[36]는 듣는 것으로 새끼를 밴다고 했다. 이런 말들은 여러 글에 섞여 나오지만 모두 믿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교청鵁鶄의 두 글자는 곧 눈동자를 맞춘다는 뜻이니, 글자를 만드는 것도 뜻이 있었던 것이다.

33-4 충치蟲豸

진도珍島 벽파정碧波亭에 큰 구렁이가 나와서 대들보에 매달렸는데, 그 크기가 서까래와 같다. 갑자기 흰 기운이 정자 마루 밑에서 똑바로 비쳐오더니 큰 구렁이가 졸지에 뒹굴어 죽었다. 그리고 빈 껍질만 남았다. 사람들이 이것을 괴

35 푸른 백로. 백로보다 좀 크며 연못 · 물가에서 산다.

36 용龍과 비슷한 신사神蛇. 운무雲霧를 일으키며 몸을 감추고 난다고 한다.

상히 여겨서 마루청을 떼고 보니, 그 밑에는 큰 지렁이가 서려 있는데, 그 길이가 수척數尺이나 되었다. 지금 사람들이 소주를 가지고 뱀에 부으면 역시 타버려 없어지니 대개 이것은 서로 제어하기 때문이다.

옛날에 중국 도성에 가는 사신이 바닷길로 왕래하는데, 가다가 한 관리가 형이 나서 거의 죽게 되었으므로 배에서 내려 섬 속 사람이 없는 곳에 포장을 치고 살았다. 그리고 배가 돌아올 때 그 사람을 태워 돌아가기로 약속했다. 그 사람이 섬 속에 있으면서 들으니, 매일 밤바람과 빗소리 같은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리면서 산에서 내려왔다가 새벽이면 다시 바다에서 산으로 올라간다.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상히 여겼다. 병이 조금 나아서 가서 보니 길 하나가 있는데, 산에서 시작하여 바다에 닿았다. 그곳에 땅을 파서 자리를 만들어 놓았으니 큰 물건이 와서 바닷물을 먹는 때문이다. 이곳에는 나무를 깎아 못을 만들어 그 물건이 다니는 곳에 꽂아 놓아 마치 창을 벌여 세운 것과 같았다. 그날 밤 그 물건의 소리가 났는데 내려가기만 하고 다시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튿날 보니 큰 뱀이 몸뚱이가 찢어져 죽어 있었는데 온 뱀의 몸뚱이에서 큰 구슬이 여러 말이나 흘러내려 오므로 이것을 자루 속에 거두어 두었다. 이런 지 여러 달이 지나 사신이 돌아오는 길에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왔다. 뒤에 장사꾼이 이것을 보고, "이것은 모두 야광주夜光珠[37]이다" 하고는 비싼 값을 주고 사갔다. 그리하여 재산 여러 만 냥을 벌었다.

금생琴生 각恪이라는 자는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있었다. 일찍이 절에서 글을 읽는데, 어느 날 뱀이 섬돌 사이에 나오므로 이것을 지팡이로 때려죽였다. 이윽고 뱀이 또 나타나므로 즉시 때려죽였는데도 또 나왔다. 또 때려 죽였다. 이렇게 하기를 하루에 몇십 번을 했는데도 그치지 않았다. 금생琴生이 이것을 미워해서 피해 갔더니 다시 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금생은 나이 20세가

37 《술이기述異記》에 보면, "밤에도 광채가 나는 좋은 구슬이다"라고 했다.

되지 못하고 일찍 죽었다. 혹은 이것을 보고 그가 뱀을 죽인 때문이라고 말한다.

나는 생각하기에, 반드시 뱀을 죽인 응보應報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대체로 사람에게 다른 생물을 해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옛날 손숙오孫叔敖는 머리가 둘 달린 뱀을 죽인 것으로 음덕陰德을 받았다. 이것은 그가 산짐승을 죽일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람을 상할까 두려워해서 죽인 때문이다. 죽인 것에 있어서는 같다고 할지라도 죽인 까닭은 서로 다른 것이다. 하나의 생각이 착하고 악한 사이에 화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이와 같다. 어찌 경계 할 일이 아니겠는가.

풍속에 전하기를, 뱀에게 물린 데는 정월 첫 해일亥日에 짠 참기름을 저울추에 발라 그것을 그 구멍을 통하여 상처에 떨어지게 하면 금방 나을 뿐 아니라, 문 뱀이 곧 죽는다고 한다.

진사進士 김확金矱이 말하기를, "시골에 있을 때 여러 번 첫 해일亥日에 참기름을 짜서 이것을 시험해 보았다. 혹은 이것을 조금 먹이고 또 상처에 바르게 했더니, 그 자리에서 낫지 않는 일이 없었다"라고 했다. 역시 이상한 일이다.

두꺼비의 기름을 옥玉에 바르면 물러져서 마치 납蠟[38]처럼 새길 수 있다. 옛날 옥그릇에 기이하게 새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 같지 않은 것이 많다. 이것은 칼에 두꺼비 기름을 묻혀 새긴 것이다. 또 두꺼비의 오줌을 돌에 바르면 역시 돌이 타 없어진다고 한다. 이것은 모두 《본초》에 나와 있는 말이다.

《고금주古今註》에 보면, "베짱이(莎鷄)는 촉직促織이라고도 하고, 낙위絡緯라고도 하며, 또는 귀뚜라미(蟋蟀)라고도 한다"라고 했다. 이백李白의 주註에는, "낙

38 꿀의 찌끼, 또는 이것으로 초(燭)를 만든 것.

위는 파란 것이 촉직과 같으나 크다"라고 했다. 이것을 보면 촉직과 낙위는 2가지 물건인 것이다.

《소설》에 보면, "광인廣人이 산속에서 큰 개미 알을 파다가 장을 담갔으니 이것을 의자장蟻子醬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곧 《예禮》에서 말하는 지해蚳醢가 이것이다. 삼대三代 이전에는 원래 이것을 먹었던 것이다.

고어古語에 말하기를, "이(虱)는 음陰의 종류로서 감坎(8방方의 하나로, 북쪽)에 속한다. 그런 때문에 발이 6개가 달렸고, 또 기어갈 때는 반드시 북쪽을 향한다"라고 했다. 이것을 시험해 보니 과연 그러했다.

내가 중국에 갔을 때 그곳의 미천한 사람들을 보니, 이(虱)를 잡아먹고 있는데 보기에 몹시 나빴다. 상고하건대, 범수范睢는 진왕秦王에게 말하기를, "한단邯鄲(전국시대 조趙나라의 수도)은 마치 입 속에 들어 있는 이(虱)와 같다"라고 했다. 또 조자건曹子建의 글에도, "벼룩과 이를 잡는 것은 이것으로 이(齒)를 예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몸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보면 중국에서는 옛날에도 역시 그러했던 것이다.

《득효방得效方》에 보면, 진드기는 부평浮萍을 따다가 태워서 그 냄새를 피우면 곧 없어진다고 했다. 그러니 진드기의 이름이 생긴 지 오래다. 혹은 이 진드기는 그 모양이 시슬豕蝨과 같다고 한다. 아마도 장자莊子가 말한 시슬이 이것일 것이다.

심눌沈訥이란 사람은 천얼賤孽[39]이다. 양덕陽德 현감縣監이 되었을 때 은광銀鑛을 얻었다. 바윗돌을 파고 깨뜨리니, 그 속에 금빛 나는 두꺼비가 있었는데 매

39 천賤은 천한 사람. 얼孽은 첩의 자식. 곧 서자庶子.

우 커서 거북과도 같았다. 눌은 두려워하여 삼가 갑 속에 간수해 두었다. 오래지 않아서 눌은 병이 나서 벼슬을 내놓게 되었다. 돌아올 때 두꺼비는 임소任所에 두어두고 왔는데, 그 뒤에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눌도 역시 병으로 마침내 죽고 말았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옮긴이 소개 | 이수광 李睟光 1563~1628

조선 중기의 명신名臣. 실학實學의 선구자. 본관은 전주全州, 호號는 지봉芝峰이다. 1585년(선조 18) 별시문과에 급제했고, 호조 · 병조좌랑, 예조참판 등을 지냈다. 주청사奏請使로 연경燕京에 내왕하였는데 당시 명나라에 와 있던 이탈리아 신부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의 《천주실의天主實義》 등을 가지고 돌아와 조선에 서양 문물을 소개했다. 폭넓은 학식과 견문을 바탕으로 백과사전류의 효시인 《지봉유설芝峰類說》을 저술했다. 인조반정仁祖反正 이후 도승지 · 대사간 등을 역임했고 이조판서로 재임하던 중 별세했다. 사후 영의정에 추증됐다.

옮긴이 소개 | 남만성 南晩星

경북 영양英陽 출생. 연희전문학교 문과. 민족문화추진회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번역위원, 법제조사위원회 전문위원, 법제처 법령정리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역서로 《경국대전經國大典》《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사송유취詞訟類聚》《징비록懲毖錄》《역옹패설櫟翁稗說》《목민심서牧民心書》《반계수록磻溪隧錄》 외 다수가 있다.

지봉유설2

펴낸이 | 홍정욱
기획 | 이상민 김지훈
편집 · 교열 | 김지훈
표지제호 | 강병인
디자인 | 황인정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4길 10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
*표지 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라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

Olje Classics

01 한글논어 이을호 역 | 현암학술문화연구소 보補
02 국가 플라톤 저 | 조우현 역
03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저 | 라종일 역
04 고운집 최치원 저 | 이상현 역 | 한국고전번역원 기획
05 한글맹자 이을호 역 | 현암학술문화연구소 보補
06 소크라테스의 변명 외 플라톤 저 | 조우현 역
07 유토피아 토머스 모어 저 | 주요섭 역
08 청성잡기 성대중 저 | 한국고전번역원 기획 · 번역
09 한글중용 · 대학 이을호 역 | 현암학술문화연구소 보補
10 팡세 파스칼 저 | 정봉구 역
11 군주론 마키아벨리 저 | 임명방 역
12 기측체의 최한기 저 | 한국고전번역원 기획 · 번역
13 우서 유수원 저 | 한영구 역 | 한국고전번역원 기획
14 채근담 홍자성 저 | 송정희 역
15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프리드리히 니체 저 | 김정진 역
16 천로역정 존 버니언 저 | 주요섭 역
17 조선경국전 정도전 저 | 한영우 역
18, 19 계원필경집1, 2 최치원 저 | 이상현 역
20 꿈의 해석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장병길 역
21 명심보감 추적 저 | 이민수 역
22 서경 | 권덕주 역
23 사회계약론 장 자크 루소 저 | 박은수 역
24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저| 황문수 역
25 택리지 이중환 저| 이민수 역
26, 27 열하일기1, 2 박지원 저 |이가원 역
28 햄릿 윌리엄 셰익스피어 저 | 최재서 역
29 유혹자의 일기 쇠렌 키에르케고어 저 | 황문수 역
30 에밀 장 자크 루소 저 | 박은수 역
31 땅의 양식 앙드레 지드 저 | 박은수 역
32 격몽요결 이이 저 | 정후수 역
33 훈민정음통사 방종현 저 | 이상규 주해
34 방법서설 르네 데카르트 저 | 김형효 역
35 리바이어던 토마스 홉스 저 | 이정식 역
36 역옹패설 이제현 저 | 남만성 역
37 유리알유희 헤르만 헤세 저 | 노태한 역
38, 39 국부론1, 2 애덤 스미스 저 | 최임환 역
40 도덕경 노자 저 | 이석명 역
41 마음 나쓰메 소세키 저 | 김성기 역
42~45 수호지1~4 시내암 저 | 연변대학 수호지 번역팀 역
46 난중일기 이순신 저 | 이은상 역
47 징비록 유성룡 저 | 구지현 역
48, 49 쇄미록1, 2 오희문 저 | 이민수 역
50 장자 장자 저 | 신동준 역
51 열자 열자 저 | 정창영 역
52 바가바드 기타 | 정창영 역
53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저 | 이인웅 역
54 산해경 | 장수철 역
55 박물지 쥘 르나르 저 | 손석린 역
56, 57 춘추좌전1, 2 좌구명 저 | 신동준 역
58~61 서유기1~4 오승은 저 | 연변인민출판사 번역팀 역

62 대당서역기 현장 저 | 권덕주 역

63 손자병법 손무 저 | 임용한 역

64 오자병법 오기 저 | 임용한 역

65 전술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저 | 이영남 역

66 포화 앙리 바르뷔스 저 | 정봉구 역

67 시경 | 신동준 역

68 문심조룡 유협 저 | 김관웅 · 김정은 역

69 시학 · 데 아니마 아리스토텔레스 저 | 김완수 역

70 주홍 글씨 너대니얼 호손 저 | 최재서 역

71, 72 지봉유설1, 2 이수광 저 | 남만성 역

73 종의 기원 찰스 다윈 저 | 이민재 역

74 비글호 항해기

찰스 다윈 저 | 권혜련 · 김정석 · 박완신 · 이혜진 역

75~78 홍루몽1~4 조설근 저 | 연변인민출판사 번역팀 역

79~83 동주 열국지1~5 풍몽룡 저 | 신동준 역

84, 85 카라마조프네 형제들1, 2 도스토옙스키 저 | 이동현 역

86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케인스 저 | 조순 역

87, 88 법, 입법 그리고 자유1, 2 하이에크 저 | 양승두 외 역

89~93 금병매1~5 난릉 소소생 저 | 김관웅 · 김정은 역

94, 95 한비자1, 2 한비 저 | 신동준 역

96 상군서 상앙 저 | 신동준 역

97, 98 회남자1, 2 유안 저 | 이석명 역

99 금강경 동봉 역

100 동의수세보원 이제마 저 | 이을호 · 홍순용 역 | 주종천 보補

101, 102 르네상스 미술가 평전1, 2

조르조 바자리 저 | 이근배 역 | 최병진 감수

Olje Selections

01 한글논어 이을호 역 | 현암학술문화연구소 보補

02 국가 플라톤 저 | 조우현 역

03 조선경국전 정도전 저 | 한영우 역

04 햄릿 윌리엄 셰익스피어 저 |최재서 역

05 한글맹자 이을호 역 | 현암학술문화연구소 보補

06 훈민정음통사 방종현 저 | 이상규 주해

07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저 | 라종일 역

08 도덕경 노자 저 | 이석명 역

09~12 수호지1~4 시내암 저 | 연변대학 수호지 번역팀 역

13, 14 열하일기1, 2 박지원 저 |이가원 역

15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저 | 황문수 역

16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저 | 이인웅 역